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736-15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민선7기 도정백서

2018. 7. ~ 2022. 6.

전라남도
JeollaNamdo

일러두는 말

이 도정백서는 2018. 7. 1. ~ 2022. 6. 30.까지 전라남도가 추진해 온 주요도정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 「제1장 일반현황」에서는 도의 연혁, 인구 및 세대 및 재정규모 등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 「제2장 민선7기 주요성과」에서는 그동안 도(道)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과 성과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 「제3장 부문별 성과」에서는 민선7기 동안 추진한 도정성과를 직제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도정백서의 내용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실 (061-286-2123)

민선 7기 도정백서

Contents

Contents
목차



민선7기 도정백서

2018. 7. ~ 2022. 6.

제1장 일반현황

1. 전라남도 연혁 ····· 115
2. 위치와 자연환경 ····· 122
3. 인구 및 세대 ····· 127
4. 행정기구 연혁 ····· 128
5. 정원 ····· 129
6. 행정구역 ····· 130
7. 재정규모 ····· 136



제2장
민선7기 주요성과

1. 도정운영 방향 ····· 141
2. 민선7기 주요성과 ····· 143
3. 민선7기 중점시책 ····· 159
3-1. 전남발전 미래비전 수립 ····· 159
3-2.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전남 구현 ····· 164
3-3. 재난 대응체계 확립 ····· 169
3-4. 도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 ····· 171
3-5.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 175
3-6. 주력산업의 친환경 디지털화 ····· 178
3-7. 블루트랜스포트 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 ····· 180
3-8.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확충 ····· 196
3-9.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사업 ····· 199
3-1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 204
3-11. 사회기반시설 르네상스 시대 조성 ····· 208
3-12. 도민행복 향상을 위한 핵심동력 확보 ····· 210
3-13.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강화 ····· 215
3-14. 기후변화 및 미래첨단 농축산업 기반 구축 ····· 231
3-15. 어촌 정주여건 개선 ····· 242
3-16. 수산물 생산공급 및 가공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 246
3-17.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선제적 대응 ····· 249
3-18. 여성 가족이 행복하고 맘 편한 전남 조성 ····· 252
3-19. 도민 맞춤형 행복돌봄시책 강화 ····· 256
3-20. 공공의료 및 연구기반 확보 추진 ····· 263
3-21. 블루투어 전남관광인프라 구축 ····· 267
3-22. 문화예술 분야 메가 콘텐츠 확대 ····· 271
3-23.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 ····· 279
3-24. 동북아 정원산업 중심지 도약 ····· 287
3-25. 숲속의 전남 새천년 명품 숲 조성 ····· 296
3-26.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 302
3-27.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 304
3-28. 부패 없는 청렴「 전남」 ····· 314
4. 주요 수상실적 ····· 315
5. 연도별 도정 10대 시책 ····· 333

제3장 부문별 성과

제1절 기획·예산

1. 도정의 기획조정과 평가체계 구축 ····· 341
1-1. 전남발전 미래 비전 수립 ····· 341
1-2. 도의회와 소통·협력 강화 ····· 348
1-3. 정책개발 체계 구축 ····· 355
1-4. 도정 평가체계 구축 ····· 359
1-5. 균형발전 및 초광역 상생협력 추진 ····· 374
2. 지역발전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 385
2-1. 지방재정 대거 확충 ····· 385
2-2. 지방재정의 효율성·건전성 강화 ····· 390
2-3.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 운영 ····· 397
3.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404
3-1. 자치입법의 적법성·신뢰성 강화 ····· 404
3-2. 신속하고 공정한 쟁송업무 처리 ····· 406
3-3. 도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409
3-4. 주민참여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 규제개혁 ····· 412
4. 도민 맞춤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414
4-1.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도정 구현 ····· 414
4-2. 지역균형 디지털뉴딜 ····· 415
4-3. 도민 맞춤형 통계생산 ····· 418
4-4.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 423
4-5.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 424
4-6.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확충 ····· 426
4-7.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 428
4-8.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 429

제2절 재난·안전관리

1. 안전한 전남 구현 ····· 435
1-1.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사고 최소화 ····· 435
1-2. 재난안전 관리실태 확립 ····· 440
2. 재난사고 대응 및 관리기능 강화 ····· 446
2-1. 재난사고 총력 대응 및 예방체계 구축 ····· 446
2-2. 사회재난 예방체계 강화 ····· 452
3.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 455
3-1. 자연재난 대응능력 강화 ····· 455
3-2.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458
4. 소방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 462
4-1. 소방 조직 보강 및 인프라 확충 ····· 462
4-2. 화재예방 및 현장중심 대응체계 확립 ····· 465
4-3. 감염병 예방 및 특수사고 대응력 향상 ····· 479

5.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484
5-1.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484
5-2.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사무 정책 시행 ····· 498
5-3. 자치경찰 사무 연계와 협력으로 도민안전 확보 ····· 503
5-4. 범죄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경찰활동 내실화 ····· 505

제3절 일자리·통상

1.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 511
1-1. 일자리창출 지원체계 강화 ····· 511
1-2. 전남형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확대 ····· 514
1-3.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 524
1-4. 사회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 532
2.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535
2-1. 민선7기 기업 1,000개 유치 ····· 535
2-2.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 540
2-3. 대규모 관광개발 단지 조성 지원 ····· 547
3. 지역경제 활력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 550
3-1. 지역경제 활력 및 서민경제 안정 도모 ····· 550
3-2.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벤처·창업기반 조성 ····· 554
3-3.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 564
3-4.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 575
4. 국제우호·협력강화 및 수출증대 ····· 581
4-1. 실리적 국제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 581
4-2. 수출판로 다각화로 농수산물 수출 확대 ····· 589
4-3. 신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제고 ····· 592

제4절 산업·에너지

1. 탄소중립 대응 주력산업 고도화 ····· 607
1-1.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대응전략 추진 ····· 607
1-2. 철강·석유화학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강화 ····· 609
1-3. 친환경 조선산업 특화 육성 ····· 611
2.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614
2-1. 데이터 산업 육성 기반 구축 ····· 614
2-2.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 616
2-3.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619
2-4. e-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구축 ····· 623
3. 바이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 627
3-1. 바이오 신약개발 인프라 고도화 ····· 627
3-2.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 강화 ····· 628
3-3.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 ····· 632
3-4. 지역 산업 맞춤형 산학협력 추진 ····· 635

4. 주민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 638
4-1. 5GW 도민발전소 운영 ····· 638
4-2.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640
4-3. 에너지 대전환시대 선제적 에너지 정책 수립 ····· 644
5.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확대 ····· 646
5-1.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LPG 배관망 구축 ····· 646
5-2.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 ····· 648
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글로벌 TOP10 공대로 육성 ····· 650
6-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지원 ····· 650
6-2. 산학연 클러스터 개발·조성 ····· 652
6-3.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 654

제5절 문화·관광·체육

1. 매력전남 체류형 관광 실현 ····· 663
1-1.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 663
1-2. 안전하고 청정한 관광환경 조성 ····· 671
1-3. 지속가능한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육성 ····· 674
2.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684
2-1. 문화예술 기반 확충 ····· 684
2-2. 수묵의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 705
2-3. 문화콘텐츠산업 성장기반 구축 ····· 707
3.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 710
3-1.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및 미래역량 강화 ····· 710
3-2. 도민 역사 인문자원 향유기반 마련 ····· 718
3-3. 남도 특화 경관 조성 ····· 722
4. 스포츠 활성화와 도민 건강증진 ····· 724
4-1. 체육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진흥 ····· 724
4-2. 수요자 중심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 ····· 731
4-3.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강화 ····· 734

제6절 인구·보건복지

1. 인구감소 최소화와 안정적 인구구조 회복 ····· 743
1-1. 인구 구조 변하 대응체계 구축 ····· 743
1-2. 청년이 공감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 ····· 744
1-3. 안정적인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 ····· 746
1-4. 임신·출산환경 구축 ····· 749
2.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전남 ····· 753
2-1.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753
2-2. 여성 취·창업 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 ····· 754
2-3. 공보육 확충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757
2-4.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 760

3.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762
3-1.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강화 ····· 762
3-2. 아동·여성 사회 안전망 구축 ····· 765
4.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767
4-1. 도민 맞춤 기본생활 보장 ····· 767
4-2. 사각지대 없는 맞춤서비스 제공 ····· 774
4-3.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781
4-4.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789
5.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환경 조성 ····· 795
5-1.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 795
5-2. 건강관리체계 구축 ····· 801
5-3.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807
5-4.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812
5-5. 식품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 817
6.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등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극복 ····· 826
6-1. 감염병 정책 추진 ····· 826
6-2.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지원 ····· 827
6-3. 질병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 830
6-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 833

제7절 농축산

1.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 ····· 841
1-1. 농가소득 제고 및 농업기반 구축 ····· 841
1-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업외소득 창출 ····· 858
1-3.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인력수급 총력 대응 ····· 862
2. 농업 경쟁력 제고 ····· 870
2-1.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 조성 ····· 870
2-2.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 875
2-3. 유기농업 확산 ····· 880
3. 농산물 판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 884
3-1.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안전성 강화 ····· 884
3-2. 고부가가치 창출 농식품산업 육성 ····· 895
4. 환경친화형 축산 환경 조성 및 유통 활성화 ····· 900
4-1. 환경친화형 축산 환경 조성 ····· 900
4-2. 축산물 품질고급화 ····· 909
5. 선제적 동물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 912
5-1. 동물방역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912
5-2.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전남산 축산물 생산 공급 ····· 917
6. 농업기술 개발 및 농업·농촌 활성화 ····· 919
6-1. 저비용 고소득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 919
6-2.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 및 농업·농촌 활성화 ····· 954

제8절 해양수산

1.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 989
1-1. 항만 SOC 확충 및 기초 생활기반 조성 ····· 989
1-2. 어촌 정주여건 개선 ····· 993
1-3.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 996

2. 섬·어촌 발전 기반 구축 및 해양관광 활성화 ····· 1000
2-1. 지속가능한 섬 발전 기반 구축 ····· 1000
2-2.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 조성 ····· 1005
2-3. 해양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1008
2-4. 갯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 1015
2-5. 해양수산 생태체험 및 청소년 교육 활성화 ····· 1018

3.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확충 ····· 1021
3-1. 수산물 생산 규모 ····· 1021
3-2. 미래형 양식산업 선도 기반 구축 ····· 1022
3-3. 고소득 양식수산물 전략품종 육성 ····· 1026
3-4. 체계적 수산자원관리로 어업생산성 회복 ····· 1031
3-5. 기후변화 대비 신품종 개발 ····· 1035
3-6. 우량 종 보존 및 종자생산 방류로 자원 조성 ····· 1042

4. 어업 경영안정 지원 및 인재양성 ····· 1047
4-1. 어가 경영안정 지원 ····· 1047
4-2. 어업 정착 지원 ····· 1051
4-3. 어업 전문인력 양성 ····· 1055
4-4.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강화 ····· 1059

5.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강화 ····· 1062
5-1. 가공산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 ····· 1062
5-2.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기업 지원 ····· 1066
5-3.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 1069
5-4. 천일염산업 지속 성장기반 마련 ····· 1072
5-5.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 ····· 1074

제9절 지역개발

1.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 1081
1-1.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 1081
1-2. 지역성장거점 육성 ····· 1091
1-3. 산업단지 조성 ····· 1097
1-4.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 1102

2. 사회기반시설(SOC) 르네상스 시대 개막 ····· 1104
2-1. 철도 구축 ····· 1104
2-2. 도내 1시간대 도로망 구축 ····· 1110
2-3. 도로 유지관리 ····· 1116
2-4. 공항 활성화 ····· 1118
2-5. 도민 이동권 보장 ····· 1122

3. 도민 행복 주거복지 실현 ····· 1126
3-1. 주거 안정화 지원 ····· 1126
3-2.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1132
4. 도민 행복 토지행정 구현 ····· 1140
4-1. 토지거래 안정화 ····· 1140
4-2.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1144
4-3. 도민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정보 구축 ····· 1148
4-4. 디지털 지적 구축 ····· 1155
5. 서남해안 관광벨트 중심 기업도시 개발 ····· 1159
5-1.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 1159
5-2.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 1164
5-3.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 1166
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1170
6-1.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비한 산업단지 조성 ····· 1170
6-2. 배후 주거단지 및 해양관광 기반 조성 ····· 1172
6-3. 미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 1175
6-4. 맞춤형 기업 지원 및 혁신생태계 강화 ····· 1177

제10절 환경·산림

1. 대기질 개선 추진 및 생태자원 보전·이용 ····· 1183
1-1. 미세먼지 관리 대응체계 구축 ····· 1183
1-2.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운동 추진 ····· 1191
1-3.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추진 ····· 1196
1-4. 생활환경 관리 ····· 1201
1-5. 환경교육·홍보 및 협력 강화 ····· 1204
1-6. 생태자연환경 보전·이용 ····· 1213
2. 수질환경 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 1232
2-1. 수생태계 복원 ····· 1232
2-2. 상·하수도처리 시설 및 관리체계 구축 ····· 1235
3. 폐기물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 1241
3-1.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확충 ····· 1241
3-2. 영농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 1244
3-3. 노후 슬레이트 철거 ····· 1246
4.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1247
4-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관리 강화 ····· 1247
4-2. 중소·영세 사업장 저감시설 설치 지원 ····· 1250
5. 「숲속의 전남」 확대 및 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 ····· 1252
5-1. 경관·소득숲 확대 조성 ····· 1252
5-2.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목재이용 활성화 ····· 1260
5-3. 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 ····· 1268

6. 산림휴양·생태관광 육성 ····· 1277
6-1. 산림휴양문화·치유시설 기반 확대 ····· 1277
6-2. 숲길·임도·산림레포츠 조성·관리 ····· 1283
6-3. 생활권 녹색공간 및 정원 인프라 확충 ····· 1285
6-4. 산림교육 서비스 강화 ····· 1290
6-5.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화 기반 조성 ····· 1293
7. 산림자원 연구 및 맞춤형 휴양서비스 제공 ····· 1297
7-1. 미래 유망 산림자원 발굴 및 신기술 보급 ····· 1297
7-2. 산림바이오소재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 1306
7-3. 산림학교 운영 등 도민 대상 산림서비스 확대 ····· 1309
7-4. 완도수목원 전시 및 휴양기능 강화 ····· 1314
8. 안전한 보건·환경 관리체계 구축 ····· 1318
8-1. 국제적 적합성을 갖춘 시험검사 품질보증체계 구축 ····· 1318
8-2.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와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 ····· 1321
8-3. 깨끗한 공기·물·토양 환경보전 ····· 1330

제11절 자치행정

1. 소통과 참여의 으뜸 자치 구현 ····· 1363
1-1. 도민 중심, 현장중심의 「열린 도정」 확대 ····· 1363
1-2. 도민이 행복한 소통공감 행정 실현 ····· 1369
1-3. 동부지역 도민소통 강화 ····· 1380
1-4. 출향 향우 교류·협력 강화 ····· 1383
1-5. 자주재원 확보 및 취약계층 세제 지원 ····· 1385
1-6. 적극적인 재무 운용 ····· 1392
2. 화합과 상생의 미래 구현 ····· 1395
2-1.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진상규명 ····· 1395
2-2. 김대중 대통령 정신 확산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 1400
2-3. 전남 5·18 민주정신의 계승·발전 ····· 1403
3.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 1406
3-1.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1406
3-2.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새싹인재」 ····· 1407
3-3.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 1412
3-4.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 1417
3-5. 평생교육 기반 확대 ····· 1421
3-6. 청소년 활동 기반 확대 ····· 1424
3-7. 특성화된 명문 도립대학 실현 ····· 1428
4. 으뜸 전남을 공감하는 도정 홍보 ····· 1429
4-1. 수요자 맞춤형 도정 홍보 ····· 1429
4-2. 신속한 언론 대응 시스템 강화 ····· 1431
4-3.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영상 홍보 ····· 1433
4-4.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홍보 ····· 1435

5. 청렴 전남 실현 ····· 1438
5-1.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1438
5-2.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 1440
5-3. 도정을 뒷받침하는 감사행정 ····· 1442
5-4. 적극행정 지원 ····· 1447
5-5. 공직기강 확립 및 도민고충 처리 ····· 1451
6.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 ····· 1453
6-1. 창의적·전문적인 행정조직체계 구축 ····· 1453
6-2.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 ····· 1465

부록

1. 김영록 도지사 취임사 ····· 1473
2. 신년사(2019~2022년), 송년사(2018~2021년) ····· 1478
3. 주요 도정일지 ····· 1523
4. 전라남도 행정구역 현황 ····· 1554
5. 역대 도지사 명단 ····· 1555
6. 역대 도의회 의장단 명단 ····· 1559
7. 제11대 도의원 명단 ····· 1561
8. 도 간부공무원 명단 ····· 1562

도 상징물

슬로건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은 전남이 생명의 원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아껴놓은 땅이라는 의미이며, 전남을 풍요롭고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탈바꿈시켜 도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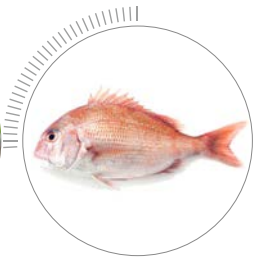
도화
동백꽃



도목
은행나무



도조
산비둘기



도어
참돔

도기

전라남도의 대표적 특징인 황금들판과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태양, 녹색자연, 푸른바다를 표현했으며, 황금색을 주색으로 풍요로움을 강조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된 조화로운 곡선은 전통과 예술 속에 열림과 소통으로 정감 넘치는 전남인의 정서를 상징합니다.

황색
사각 바탕의 찬란한 '황금색'은 기름진 황금 들판과 희망을 담은 대지의 풍요로움을 상징함.

붉은 원
상단의 '붉은 원'은 영원한 생명력의 상징인 태양으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녹색 잎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역동적이고 희망적으로 표현해 생기 넘치는 도민의 따뜻한 온정을 상징함.



녹색잎
리듬감 있는 곡선 형태의 '녹색 잎'은 천혜의 자연 보고로서 친환경적으로 성장 진화하는 아름다운 전라남도를 나타냄.

푸른 물결 곡선
역동적인 곡선의 '푸른 물결'을 통해 해양 지향적 발전과 미래를 향한 도민의 힘찬 도전 정신과 활력 있는 젊은 기상을 나타냄.

조화로운 곡선
중앙의 잎과 하단부 물결의 조화로운 곡선은 전통과 예술 속에 살아 숨 쉬는 전남인의 부드럽고 넉넉한 정을 표현함.

흰색
바탕의 흰색은 도민의 맑고 깨끗한 순수함을 의미함.

도민헌장 및 도정방침

도민헌장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전남은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섬들을 지닌 축복받은 고장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의로움과 멋의 전통을 세워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고 찬란한 남도문화를 꽃 피웠다.
우리는 이 얼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근면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나,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하나,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끌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 희망찬 미래를 가꾼다.
하나,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
하나, 창의와 개척의 기상으로 활기차고 살기 좋은 고장 건설에 앞장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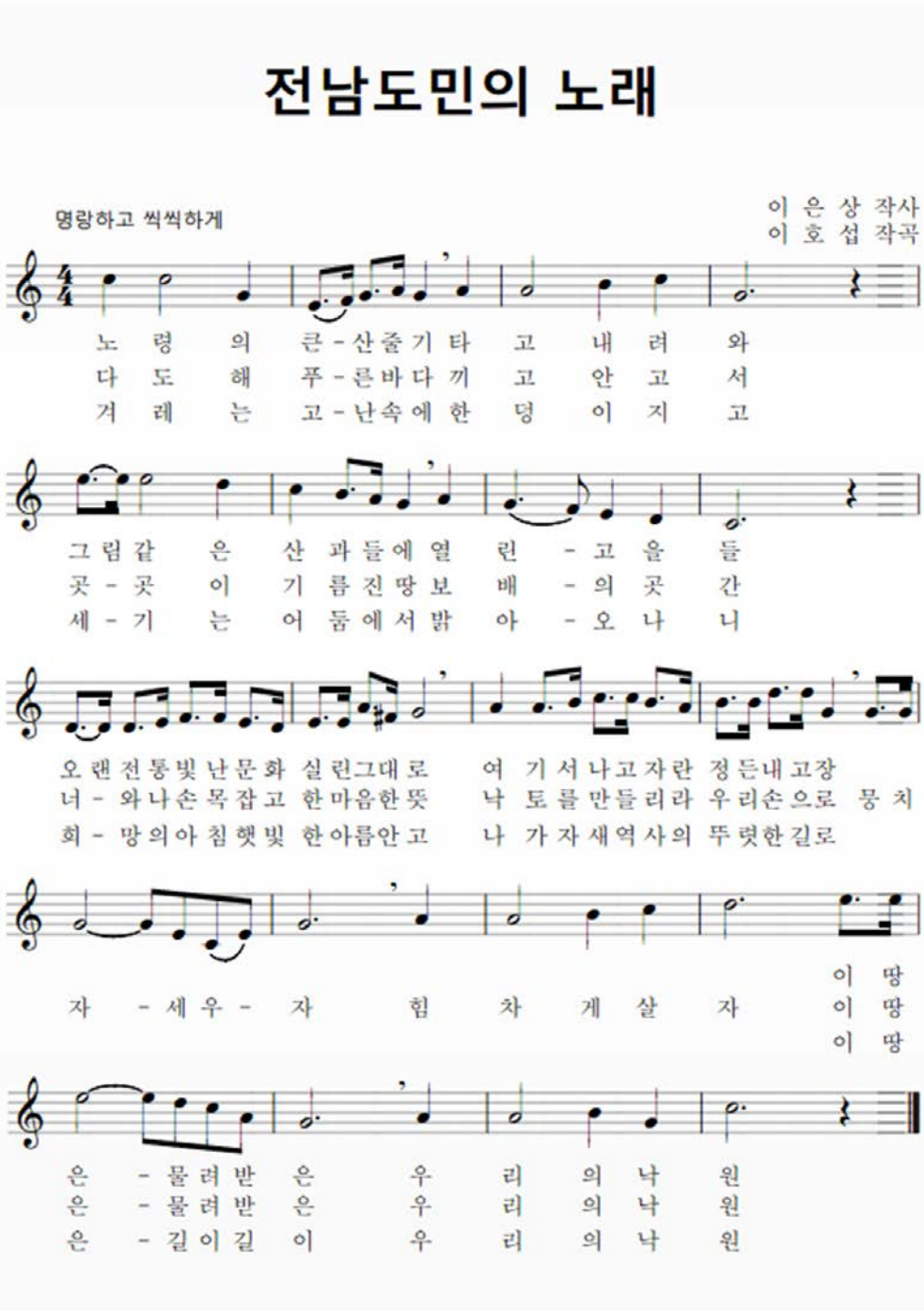
도정방침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활력있는 일자리경제 | 오감만족 문화관광 | 살고싶은 농산어촌 | 감동주는 맞춤복지 | 소통하는 혁신도정

도민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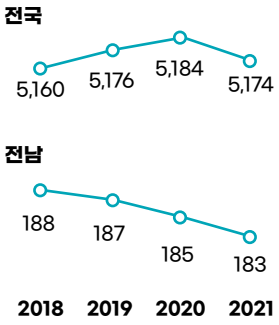

전남도민의 노래
명랑하고 씩씩하게
이 은 상 작사
이 호 섭 작곡
노 령 의 큰 - 산 줄 기 타 고 내 려 와
다 도 해 푸 - 른 바 다 끼 고 안 고 서
겨 레 는 고 - 난 속 에 한 덩 이 지 고
그 림 같 은 산 과 들 에 열 린 - 고 을 들
곳 - 곳 이 기 름 진 땅 보 배 - 의 곳 간
세 - 기 는 어 둠 에 서 밝 아 - 오 나 니
오 랜 전 통 빛 난 문 화 실 린 그 대 로 여 기 서 나 고 자 란 정 든 내 고 장
너 - 와 나 손 목 잡 고 한 마 음 한 뜻 낙 토 를 만 들 리 라 우 리 손 으 로 뭉 치
희 - 망 의 아 침 햇 빛 한 아 름 안 고 나 가 자 새 역 사 의 뚜 렷 한 길 로
자 - 세 우 - 자 힘 차 게 살 자
이 땅
이 땅
이 땅
은 - 물 려 받 은 우 리 의 낙 원
은 - 물 려 받 은 우 리 의 낙 원
은 - 길 이 길 이 우 리 의 낙 원

그림으로 보는 민선7기 전남의 변화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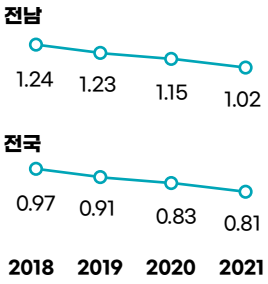


총 인구(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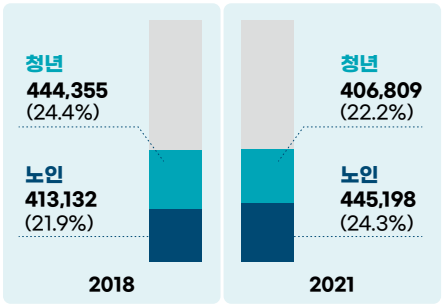


합계출산율(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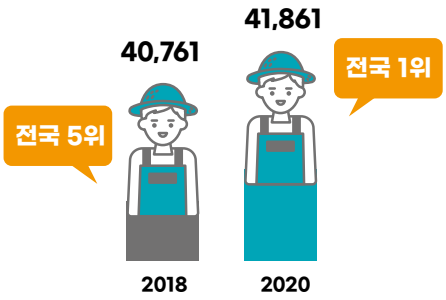
15년 연속 道 단위 합계출산율 1위



노인·청년인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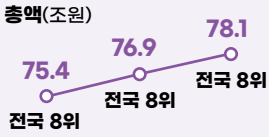
귀농·귀촌인구(명,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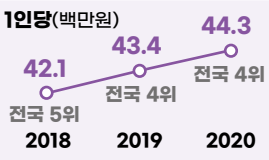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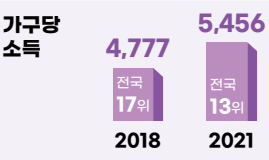
지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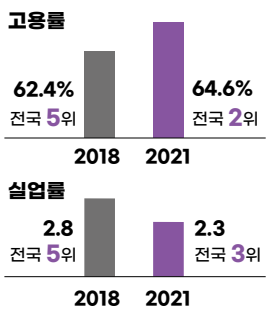


개인·가구소득(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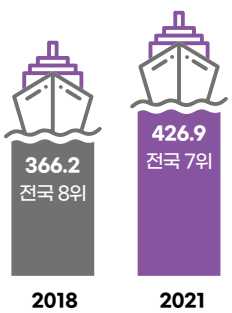




고용률,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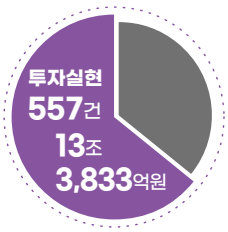


수출액(억 달러)



민선 7기 투자협약·실현 ('22.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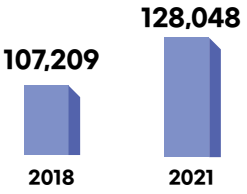
투자협약 | 건수 1,002건
금액 27조 8,46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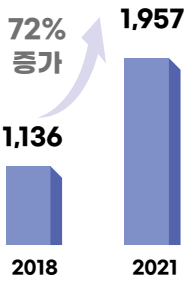
일자리

공공분야 일자리창출수(명)

7년 연속 일자리 우수지자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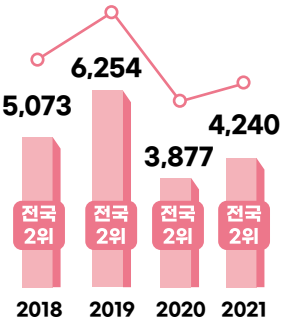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기업수(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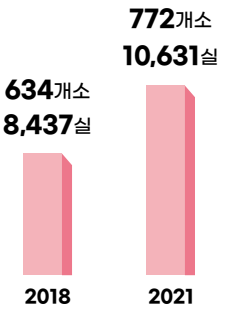


문화관광

관광객수(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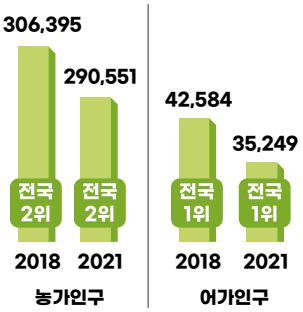


숙박객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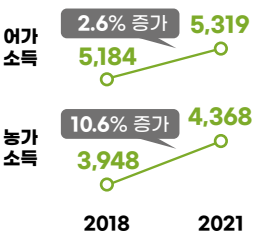
농·어업

농·어가 인구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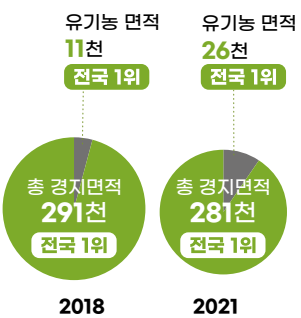


농·어가 소득(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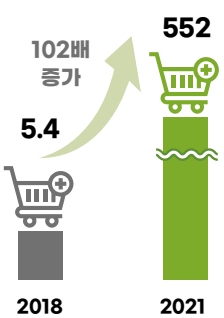
1억 이상 고소득 농가수 6,023호로 역대 최대('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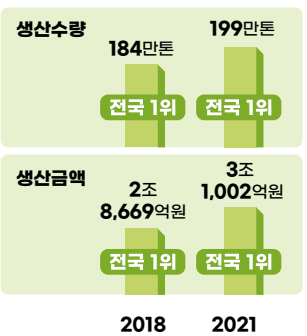
경지면적(㏊)



남도장터 매출액(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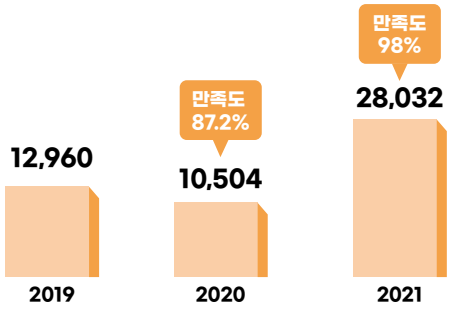
수산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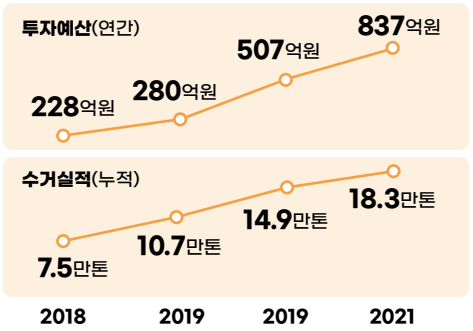
복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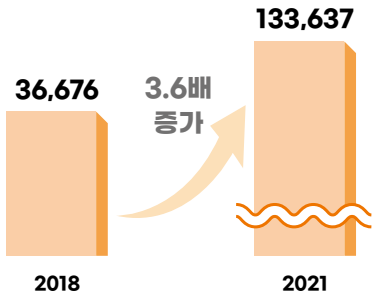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수혜가구 수(호)



해양쓰레기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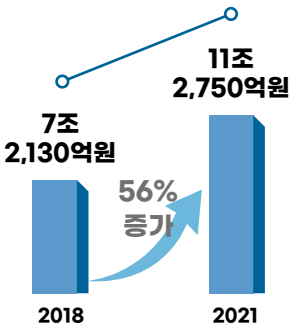
숲가꾸기(㏊,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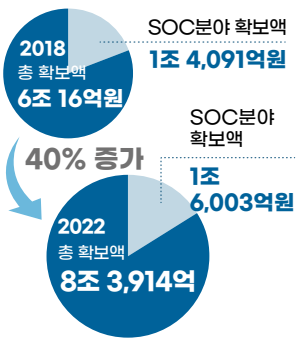
정책



道 예산규모(최종예산)



국고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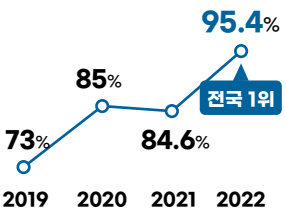


정부합동평가

* 시·도부별 정량·정성 각각 3위까지 공개

정량평가(목표 달성도)

2022년 전국 1위(95.4%)



정성평가(우수사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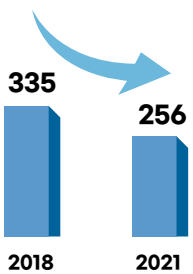


국민평가(코로나19 대응)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23.6% 감소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8년 7월



1



2


3



4

1 2018.07.02.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취임선서
2 2018.07.03. 현업 민원부서 직원들과 소통점심
3 2018.07.05. 세월호 수습현장 방문
4 2018.07.05. 포스코ESM 투자협약 체결











5 2018.07.06. 보성 미력면 호우피해 현장 방문
6 2018.07.09. 멘토링 아는 선배 직원들과 점심 소통
7 2018.07.09. 제4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8 2018.07.10. 제11대 전라남도의회 개원
9 2018.07.11. 인구의 날 기념식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8년 8월









1 2018.08.01. 도·시군 합동 폭염 대처상황 점검회의
2 2018.08.01. 전남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개소식
3 2018.08.03. 수묵 앞치마 예술제
4 2018.08.08. 경제관계장관 시도지사 연석회의











5 2018.08.10. 마을공동체 정책간담회
6 2018.08.10. 영산강수계 통합물관리 정책간담회
7 2018.08.14.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 서명식
8 2018.08.20. 광주·전남 상생위원회
9 2018.08.22. 압해·암태 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 방문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8년 9월









1 2018.09.01. 진도운림산방 방문
2 2018.09.04. 에너지밸리 기업 및 연구기관 투자협약식
3 2018.09.05.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
4 2018.09.12. 숲속의 전남 현장 정책간담회











5 2018.09.14. Recycle센터와 나눔행사
6 2018.09.15. 추석맞이 서울장터
7 2018.09.17. 담양 대전면 옥산마을 백향과 재배 농가와 간담회
8 2018.09.18. 중국 장시성 마오웨이밍 상무부성장 회담
9 2018.09.19.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실천 결의대회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8년 10월



1



2


3


4



5

1 2018.10.02. 에어리퀴드 투자협약
2 2018.10.05. 키트레이딩과 수출협약
3 2018.10.07. 영암 삼호읍 태풍 콩레이 피해현장 방문
4 2018.10.07. 완도 태풍 콩레이 피해현장 방문
5 2018.10.0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막식











6 2018.10.10. 김영록도지사 취임 100일회견
7 2018.10.11. e-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
8 2018.10.12. 제25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9 2018.10.20. 3대 가족 정원만들기 행사
10 2018.10.25. 제22회 전라남도민의 날 및 제30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8년 11월


1



2



3



4



5

1 2018.11.02. 순천 아랫장 야시장 방문
2 2018.11.06.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 정기회의
3 2018.11.06. 전라남도 섬 발전지원센터 개소식
4 2018.11.06. 즐거운 직장 함께하는 변화 캠페인
5 2018.11.07.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전라남도선수단 해단식











6 2018.11.12. 강진 공공비축미 매입현장 방문
7 2018.11.13. 제27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
8 2018.11.15. 화순국제백식포럼
9 2018.11.20. 제21회 전라남도여성대회
10 2018.11.22.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8년 12월



1



2


3



4

1 2018.12.06. 대한노인회 임원진 간담회
2 2018.12.08. 전라남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대축제
3 2018.12.10. 청년 행복 토크콘서트
4 2018.12.11. 전남수산경영인연합회 현장 소통간담회









5 2018.12.11. 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
6 2018.12.19. 제31사단 96연대 위문
7 2018.12.21.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8 2018.12.24. 연말 사랑나눔 행복상자만들기행사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9년 1월









1 2019.01.08. 장성 레드향 재배농가 방문
2 2019.01.17. 신안군 압해읍 주민과의 대화
3 2019.01.21.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소통 간담회
4 2019.01.24. 여수 · 광양항 물동량 3억톤 달성 기념식




5



6



7


8

5 2019.01.25. 목포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시연
6 2019.01.29.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 관련 기자회견
7 2019.01.29. 유기농 실천 다짐대회
8 2019.01.31. 지방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문 발표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9년 2월



1


2



3


4

1 2019.02.02. 목포 동부시장 방문
2 2019.02.03. 구제역 방역현장 방문
3 2019.02.07. 전라남도-인도상공회의소 경제협력 MOU
4 2019.02.18. 순천국가정원지원센터 방문



5



6



7



8

5 2019.02.19. 목포시민과의 대화
6 2019.02.19. 영암 버들농산영농조합법인 방문
7 2019.02.26. 페로페이 전남 선포식
8 2019.02.27. 곡성군민과의 대화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9년 3월


1


2


3


4

1 2019.03.01. 3.1절 기념식
2 2019.03.02. 광양와인동굴 방문
3 2019.03.14. 대명리조트 신축공사현장 방문
4 2019.03.14. 함평 치매안심센터 방문









5 2019.03.19. 일본 고치현지사와 회담
6 2019.03.27. 고흥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 개관식
7 2019.03.28. 2019국제농업박람회 D-200일행사
8 2019.03.29.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9년 4월



1



2



3



4



5

1 2019.04.04. 영광풍력발전설비 준공식
2 2019.04.04. 천사대교 개통식
3 2019.0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4 2019.04.12.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
5 2019.04.18. 도올 전라도정신 특강











6 2019.04.19. 곡성 죽곡 상한마을 민박간담회
7 2019.04.2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발대식
8 2019.04.24. 해양쓰레기 제로화 자정결의대회
9 2019.04.27. 느림보 열차 한나절 체험
10 2019.04.29. 한전공대 설립 이행 협약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9년 5월



1


2



3



4

1 2019.05.02. 청년타운 홀미팅
2 2019.05.07. 쿠키아 방문
3 2019.05.09. 국도77호선 사업현장 방문
4 2019.05.15. 전남 신성장 추진위원회 출범식











5 2019.05.16. 농번기 공동급식마을 방문
6 2019.05.16.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
7 2019.05.22. 전남 수소경제 선도 비전 선포식
8 2019.05.22. 화순군 도곡면 모산마을 민박간담회
9 2019.05.31. 밭농업 일관 농작업대행 시연회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9년 6월



1



2



3



4

1 2019.06.03. 전라남도 10대 브랜드쌀 선정
2 2019.06.05. 도지사와 중부권 시장군수 상생협력 간담회
3 2019.06.05. 롯데슈퍼와 농수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
4 2019.06.11.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인하 협약식



5



6



7

5 2019.06.17. e-모빌리티 산업클러스터 조성업무 협약
6 2019.06.20. 전남관광 비전 선포식
7 2019.06.29. 국제간호협의회 회장단 만찬 간담회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9년 7월



1



2



3


4



5

1 2018.07.25.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도·시군 업무협약
2 2019.07.04. 2019국제농업박람회 D-100일 홍보
3 2019.07.08. 저소득층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전달식
4 2019.07.12. 문재인 대통령 나주 빛가람전망대 방문
5 2019.07.12.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6



7



8



9



10

6 2019.07.15. 제8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7 2019.07.16.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8 2019.07.17. (주)공영홈쇼핑과 전남 농수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
9 2019.07.17. 영암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 발굴현장
10 2019.07.23. 전남도-제31보병사단 전역장병 취업지원 업무 협약식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9년 8월











1 2019.08.08.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기념식
2 2019.08.20. 한전공대 설립 부지 기부 행사
3 2019.08.23. 농업중앙회와 업무협약식
4 2019.08.28. 벤처기업협회 제19회 벤처썸머포럼
5 2019.08.28.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행사











6 2019.08.29. 적조발령해역 현장 방문
7 2019.08.30. 전라남도마을이야기 박람회
8 2019.08.31. 제1회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큰잔치
9 2019.08.31. 숲 조성 우수사례 현장 방문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9년 9월









1 2019.09.02. 나주혁신산단 그린수소 사업 협약식
2 2019.09.03. 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
3 2019.09.04.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4 2019.09.05. 중국 한두이서 그룹과 업무협약











5 2019.09.07. 나주 낙과피해현장 방문
6 2019.09.11. 스콜코보재단과 교류협력의향서 체결
7 2019.09.23. 중국 장시성과 고위급 회담
8 2019.09.25. 국가균형발전 박람회
9 2019.09.25. 한전공대 설립 비전 선포 및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출범 행사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9년 10월



1


2



3


4



5

1 2019.10.07.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막식
2 2019.10.10. 전라남도 국정감사
3 2019.10.11. 제26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4 2019.10.14. 순천의료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5 2019.10.17. 제23회 전라남도 노인의 날 기념식



6



7


8



9

6 2019.10.21. 여수 청년소통 간담회
7 2019.10.22. 제18차 세계한상대회
8 2019.10.25. 도시재생 한마당 대회
9 2019.10.28.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9년 11월


1



2



3



4

1 2019.11.04. 자랑스런 전남 만들기 세미나
2 2019.11.07. 2019 화순국제백신포럼
3 2019.11.13.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
4 2019.11.20.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년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5



6



7



8


9

6 2019.11.23. 가고싶은섬 기점·소악도 여는 날 행사
6 2019.11.25.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및 복합혁신센터 합의문 협약식
7 2019.11.26.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전진대회
8 2019.11.28. 2019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
9 2019.11.28. 보성 회천 신근마을 민박간담회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19년 12월



1



2



3


4



5

1 2019.12.02. 으뜸인재 증서 수여 및 봉사단 발대식
2 2019.12.02. 청년농업인 공감소통 간담회
3 2019.12.04. 2019 귀농어귀촌 어울림대회
4 2019.12.11. 경북과 상생교류 협약
5 2019.12.18. 2019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 한마당 행사









6 2019.12.18. 칠산대교 개통식
7 2019.12.24. 제10호점 간식을 부탁해
8 2019.12.25. 성탄절 근무자 격려
9 2019.12.26.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참가·운영자 간담회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0년 1월


1



2



3

1 2020.01.04. 담양 딸기 작목반 방문
2 2020.01.20. 남도음식 명인·명가 지정서 교부 및 친절 실천 결의대회
3 2020.01.23. 무안국제공항 국립목포검역소 공항지소 방문





4 2020.01.27. 전남소방본부 항공구조구급대 방문
5 2020.01.30. 목포 한국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 방문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0년 2월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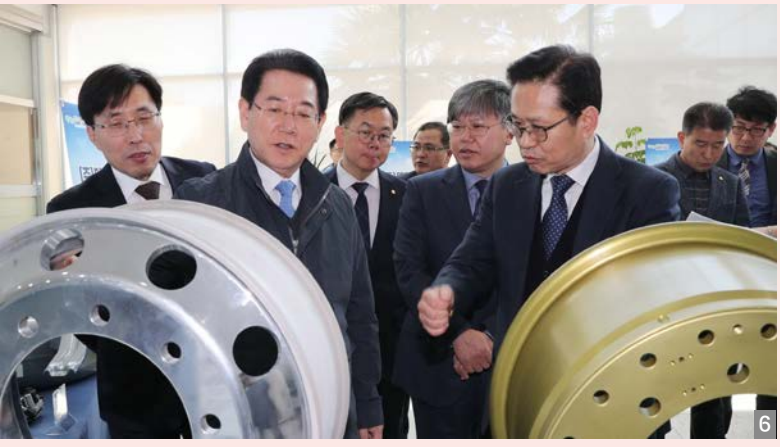


3

1 2020.02.01.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순천의료원 방문
2 2020.02.02.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회의
3 2020.02.06.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담화문 발표









4 2020.02.12. 2023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실사단 방문
5 2020.02.17.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 수여
6 2020.02.18. 전남테크노파크 관련 기업제품 전시 및 시연
7 2020.02.22. 여수 수산시장 방문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0년 3월



1



2


3



4

1 2020.03.03. 광양시 코로나19 대응상황 마스크 점검
2 2020.03.04. 코로나19 대구·경북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한 환자 치료지원 및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3 2020.03.05. 장성 마스크 생산기업 (주)화진산업 방문
4 2020.03.07.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심병원 장흥종합병원 방문



5


6



7

5 2020.03.11. 나란히나란히 도민안전식당 지정 및 운영행사
6 2020.03.12. 전남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봉사활동
7 2020.03.13. 코로나19 대구지역 확진자 환영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0년 4월


1



2



3

1 2020.04.01.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방문
2 2020.04.02. 힘내라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사랑의 도시락 전달식
3 2020.04.04. 코로나19 대응 담양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현장방문



4



5

4 2020.04.17.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 지지 성명
5 2020.04.23. 제21대 국회의원 호남권 당선인 방사광가속기 구축 건의문 발표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0년 5월


1


2


3



4

1 2020.05.02.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촉행사
2 2020.05.13. 고흥유자 중국 수출 상차 행사
3 2020.05.15. 제40주년 기념 5 · 18민주묘지 참배
4 2020.05.15. 전남 5 · 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식









5 2020.05.25. 전라남도 제1기 도비유학생 증서 수여식
6 2020.05.25. 전라남도 명품 특산물 직거래 상생장터
7 2020.05.27. 저소득층 아동 후원 협약식
8 2020.05.29.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0년 6월



1


2



3



4

1 2020.06.04.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관련 투자협약식
2 2020.06.09. 곡성군 우박피해 현장방문
3 2020.06.11.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착공식
4 2020.06.16.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정책토론회







5 2020.06.23. 찾아가는 청년소통 간담회
6 2020.06.25.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민간 유치위원회 출범식
7 2020.06.25. 전라남도관광재단 출범식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0년 7월



1



2



3



4



5

1 2020.07.04.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강진의료원 입원
2 2020.07.06.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회 포럼
3 2020.07.07.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
4 2020.07.15. BYN블랙야크와 전남 섬 홍보 및 사회공헌 활동 협약식
5 2020.07.15. YWCA와 여성일자리 간담회











6 2020.07.17. 농산물 산지직송 로컬푸드 농장 강진 도두맘 방문
7 2020.07.21. 소액금융지원사업 전남행복드림론 업무협약
8 2020.07.23. 전남지역 의대 신설 추진 기자회견
9 2020.07.31. 2023국제정원박람회 D-1000카운터 제막식
10 2020.07.31. 제1회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0년 8월









1 2020.08.03. 무안·여성농어업인센터 방문
2 2020.08.03.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 수출 협약 체결
3 2020.08.10. 구례군 구례읍 수해복구 봉사활동
4 2020.08.12. 곡성군 집중호우 피해지역 신리마을 방문









5 2020.08.15. 곡성군 오곡면 수해복구 봉사활동
6 2020.08.17. 광양시 다압면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7 2020.08.18. 담양군 봉산면 시설하우스 침수피해 현장 방문
8 2020.08.27. 영암군 신북면 제8호 태풍 바비 배 낙과피해 현장 방문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0년 9월


1


2


3


4


5



6

1 2020.09.01. 여수시 신월동 아파트 공사 현장 방문
2 2020.09.03. 고흥군 남양면 망주리 태풍 마이삭 배 낙과피해 현장 방문
3 2020.09.03. 여수수산시장 태풍 마이삭 피해현장 방문
4 2020.09.06. 장성군 삼서면 태풍 하이선 피해예방 과수원 일손돕기
5 2020.09.07. 순천시 안풍동 태풍 하이선 피해현장 방문
6 2020.09.09.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관련 입장문 발표



7


8


9


10



11


12

7 2020.09.09.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상생협약식
8 2020.09.10. 여수광양항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9 2020.09.18. 광양청년의꿈센터 개소식
10 2020.09.24.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2020특별기획전 방문
11 2020.09.25. 이통장연합회 소통 간담회
12 2020.09.27. 순천 전통시장 상인 격려 마스크 전달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0년 10월



1


2


3



4

1 2020.10.06. 서울시-전라남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자체 참여 시장도매인 도입 업무협약
2 2020.10.09. 완도 노화읍 청해수산 방문
3 2020.10.12. 현대삼호중공업 방문 및 조선업체 간담회
4 2020.10.13.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전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정책 발표













5 2020.10.17. 가거도 태풍 피해현장 방문
6 2020.10.19. 여수·순천 10·19 제72주년 희생자 합동위령제
7 2020.10.20. 스포츠인교육 백년대계 비전선포 기념석 제막
8 2020.10.23. 제24회 전남 노인의 날 기념식
9 2020.10.29.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 마을 민생현장 간담회
10 2020.10.30. 전라남도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제막식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0년 11월



1



2



3


4


5

1 2020.11.02.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 서명식
2 2020.11.04. 블루 투어 비전 포럼
3 2020.11.09. 제25회 농업인의 날 전남 기념식
4 2020.11.10. AI·ASF차단방역 실천 다짐대회
5 2020.11.10. 순천시 팔마체육관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방문











6 2020.11.10. 영암 공공비축미 매입현장 방문
7 2020.11.10. 전라남도 교통안전 캠페인
8 2020.11.11. 2020년 새천년 으뜸인재 한마당 행사
9 2020.11.12. 국립나주숲체원 개원식
10 2020.11.13. 2020 영산강유역 마한 문화포럼 비전선포식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0년 12월



1



2



3


4

1 2020.12.01. 2020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2 2020.12.03. 중국 장시성과 고위급 회담
3 2020.12.04. 2020 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
4 2020.12.11. 정세균 국무총리 영접









5 2020.12.11. 현대삼호중공업 LNG추진 외항선 명명식
6 2020.12.14. 산타도 쉽게 찾는 도로명 주소 홍보 사랑의 엽서쓰기
7 2020.12.17. 신안군 팔금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방문
8 2020.12.18. 제23회 전라남도 여성대회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1년 1월


1


2



3



4

1 2021.01.04. 일자리 우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2 2021.01.11. 김 가공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
3 2021.01.13. 도민과 함께하는 2021년 전라남도 업무보고
4 2021.01.13. 광주은행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응원꾸러미 기탁











5 2021.01.16. 보성군 조성면 청년여성농업인 사업현장 싱싱농원 방문
6 2021.01.18.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7 2021.01.19.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 방문
8 2021.01.21.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확대 온택트 토론회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1년 1월



1


2



3



4



5

1 2021.02.01.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2 2021.02.02. 코로나19 3차 긴급민생지원 브리핑
3 2021.02.0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영광군 법성면 농축수산물 생산 현장 방문
4 2021.02.05.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5 2021.02.08. 지역균형뉴딜 투어 1호 및 전남상생일자리 협약식 관련 기자간담회













6 2021.02.1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전공대 설립부지 방문
7 2021.02.19. 고흥항공센터 방문
8 2021.02.19. 해남군 산이면 배추 한파 피해현장 방문
9 2021.02.23.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 교육 협력비전 공동발표
10 2021.02.26. 여수시 코로나19 백신 접종현장 방문
11 2021.02.27. 함평군 기능성 상추 흑하랑 재배 농가 방문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1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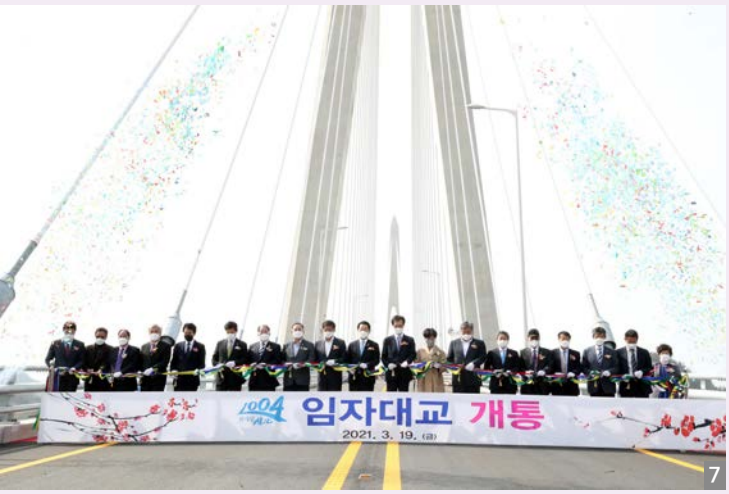








1 2021.03.02. 보성군 차나무 한파 피해현장 방문
2 2021.03.03. 2050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
3 2021.03.11.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이동식 세탁차량 전달
4 2021.03.1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촉구 성명서 발표
5 2021.03.17. 무안군 도민과의 대화
6 2021.03.18. 여순사건 희생자위령비 참배



7



8



9



10


11



12



13

7 2021.03.19. 신안 임자대교(지도읍~임자면) 개통식
8 2021.03.22.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식
9 2021.03.25. 한국에너지공대 브리핑
10 2021.03.26. 한국섬진흥원 유치 전남도민 동행릴레이
11 2021.03.26.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현장활동
12 2021.03.31. 완도 해양치유센터 착공식
13 2021.03.31. 국무총리실 범정부 협의체 출범 광주·전남 공동환영문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1년 4월



1



2



3


4



5

1 2021.04.02. 도민과 함께하는 2021년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2 2021.04.06. 코로나19 대응 순천시보건소 방문
3 2021.04.06. 목포시민과의 대화
4 2021.04.10. 전남농수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 체결 상생장터 개장식
5 2021.04.12.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











6 2021.04.12. 전라남도소방본부 개청식
7 2021.04.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당금 전달식
8 2021.04.21.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남회의와 정책토론회
9 2021.04.21. 전남 농식품 4억불 수출확대 간담회
10 2021.04.22. 만재도 어촌뉴딜사업 준공식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1년 5월



1



2



3


4



5

1 2021.05.05. 보성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격려 방문
2 2021.05.06. 여수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사업 추진 협약 체결식
3 2021.05.06.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타120 개소식
4 2021.05.0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건설 부지 방문
5 2021.05.11. '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 릴레이퍼포먼스 동참











6 2021.05.13. 제41주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7 2021.05.14. 나주시 배 저온 피해현장 방문
8 2021.05.14. 순천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현장 방문
9 2021.05.22. 영광청소년문화센터 방문
10 2021.05.24. 2021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D-100 기념행사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1년 6월



1



2


3



4



5


6


7

1 2021.06.0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착공식
2 2021.06.01. 제353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3 2021.06.02. 무안군 현경읍 무안농협공동사업법인 방문
4 2021.06.03. 전라남도교육청과 코로나19 대응 학생 전면등교 확대 e브리핑
5 2021.06.07. 2021년도 전라남도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6 2021.06.09.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 정신전자 방문
7 2021.06.12. 해남군 동물복지 한우농장 방문













8 2021.06.14.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9 2021.06.21. 전라남도 인재한마당 개최
10 2021.06.21. 목포신항만 방문
11 2021.06.24. 곡성군 도민과의 대화
12 2021.06.24. 곡성군 오곡면 사과농장 우박피해 현장 방문
12 2021.06.24. 하이에어 무안~김포 취항식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1년 7월



1



2


3



4

1 2021.07.01. 제12회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버지니아 주지사 질의응답
2 2021.07.02. 전남-경기상생발전 공동합의
3 2021.07.07. 진도읍 폭우 침수피해 현장 방문
4 2021.07.08. 전라남도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5 2021.07.11. 정세균 전 총리 해남군 현산면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6 2021.07.17.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강진군 집중호후 피해 현장 방문
7 2021.07.19. 김부겸 국무총리 나주시 머시머시농장 방문
8 2021.07.20. 전라남도-한국맥도날드 로컬푸드 공급확대 업무협약 체결
9 2021.07.30. 사회적경제 기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및 바이소셜 실천 다짐식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1년 8월


1



2



3


4



5

1 2021.08.09. 장성군 진원면 청년농업인 '행복을팜' 농장 방문
2 2021.08.10. 목포역에서 전복 소비촉진 특별행사
3 2021.08.10. 코로나19 무료검사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 설명
4 2021.08.12.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방문
5 2021.08.13. 진도군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방문













6 2021.08.14. 강진군 흑염소 가공 유통 공장 가온축산 방문
7 2021.08.16. 목포전통시장 코로나19 대응 방역사항 점검
8 2021.08.20. 청정전남 으뜸마을 함평군 덕천마을 현장활동
9 2021.08.24. 광양시 옥곡면 명주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 방문
10 2021.08.27.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11 2021.08.30. 흑산도 바다 고수온피해 현장 방문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1년 9월


1


2



3



4



5



6

1 2021.09.01. 2021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
2 2021.09.03. 순천시 율촌산단 현대스틸산업 방문
3 2021.09.04. 2021 명량대첩축제 출정식
4 2021.09.09.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범시도민 지원위 보고대회
5 2021.09.14. 전남자원봉사센터 이전 개소식
6 2021.09.15. 전남발전 미래전략 발표













7 2021.09.15. 태풍 찬투 대비 완도군 당인리 방파제 현장방문
8 2021.09.17. 포스코 기가스틸 생산체제 준공식
9 2021.09.18. 추석명절 목포시 항동시장 방문
10 2021.09.19. 목포여객선터미널 방문
11 2021.09.19. 무안소방서 남악119안전센터방문
12 2021.09.19. 순천역전시장 방문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1년 10월



1


2


3



4


5

1 2021.10.01.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념식
2 2021.10.02.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진도 운림산방 방문
3 2021.10.04. 장성군 벼 수확 현장 방문
4 2021.10.05. 전남 SOC 국가계획 반영 보고대회
5 2021.10.08. 한국섬진흥원 출범식



6



7



8


9

6 2021.10.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 국정감사
7 2021.10.18. 전남도청 동부권 통합청사 기공식
8 2021.10.21. 2021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
9 2021.10.21. 누리호(KSLV-Ⅱ) 발사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1년 11월



1



2


3



4



5

1 2021.11.01. 제37회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2 2021.11.04. 2021 화순국제백신포럼
3 2021.11.10. 장성군 농업회사법인 ㈜북하특품시업단 방문
4 2021.11.11. 전라남도청소년지도자 소통 공감대회
5 2021.11.17. 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식



6



7



8


9

6 2021.11.25. 제16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개막
7 2021.11.25. 으뜸전남 미래전략 도민보고회
8 2021.11.30. 2121 귀농어·귀촌 어울림대회
9 2021.11.30. 청년창농타운 개관식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1년 12월



1



2


3



4



5

1 2021.12.01. 전남자원봉사자대회
2 2021.12.02. RE100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토론회
3 2021.12.03. 2022년 국고예산 확보 결과' e브리핑
4 2021.12.08. 2021전라남도 도민평가단 하반기 정기회의
5 2021.12.08.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업무협약



6



7



8



9



10



11



12

6 2021.12.09. 제3회 전남도민 인권증진 문화행사
7 2021.12.13. 202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
9 2021.12.13. 코로나19 연말연시 이동 모임 자제 도민 캠페인
10 2021.12.14. 2021 청정전남 으뜸마을 성과나눔대회
11 2021.12.17.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 전남 수출의 탑 및 포상 선수식
12 2021.12.21. 전남 · 여수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 및 세미나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2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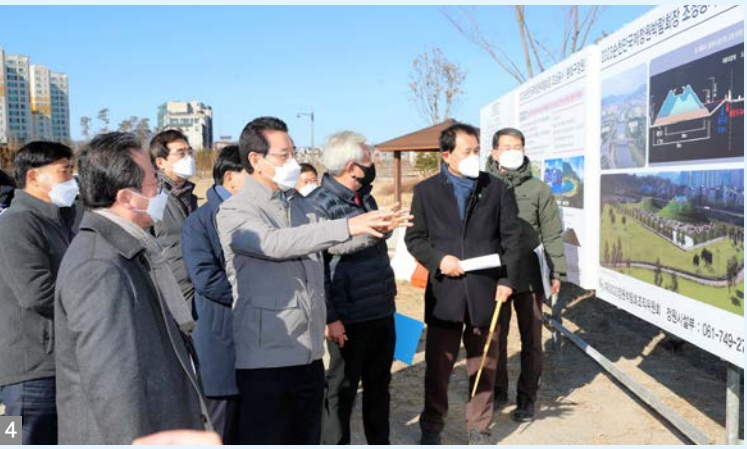


1



2


3


4



5

1 2022.01.04. 장흥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현장 점검
2 2022.01.11. 광양시 포스코케미칼 방문
3 2022.01.14. 광양시 봉강면 아열대과수 재배농가 방문
4 2022.01.14.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분화구정원 조성공사 현장 방문
5 2022.01.17. 영암군 대불산단 칸 플랜트 방문









6 2022.01.19. 해남군 옥천면 바나나 재배농가 방문
7 2022.01.21.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현판 제막식
8 2022.01.27. 순천아랫장 방문
9 2022.01.29. 설 명절 대비 장성군 황룡전통시장 방문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2년 2월



1


2



3



4


5

1 2022.02.08. 전남 중형 소방헬기 취항식
2 2022.02.11. 여수산단 여천ncc3공장 폭발사고 현장 방문
3 2022.02.14.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총회 및 이사 위촉식
4 2022.02.14.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총회 및 이사 위촉식
5 2022.02.15. 고흥군 친환경 한우 크로바농장 방문











5 2022.02.15. 순천시 율촌산단 ㈜마이벨로 현장시찰
6 2022.02.17. 신안 친환경 개체굴 양식장 현장 방문
7 2022.02.18. 진도군 봄동배추 재배현장 방문
8 2022.02.22. 광양 LNG 터미널 구축사업 투자협약 체결
9 2022.02.22.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리조트호텔 착공식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2년 3월



1



2



3


4



5

1 2022.03.0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
2 2022.03.03.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방역 점검
3 2022.03.04. 전남 소방본부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4 2022.03.05. 무안군 2021년산 양파 수급상황 점검
5 2022.03.08. 덴마크 베스타스 및 한국 씨에스윈드 합작 투자사 설립 서명식











6 2022.03.12. 보성군 벌교시장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7 2022.03.22. 러-우크라이나 사태, 전남도 종합지원대책 발표
8 2022.03.25. 전남산 고품질 돼지고기 홍콩 수출 기념행사
9 2022.03.28. 장성군 성산종돈장 방문
10 2022.03.29. 전라남도일자리플랫폼 개소식

사진으로 보는

주요 도정

2022년 4월



1



2



3



4

1 2022.04.01. 제11회 수산인의 날 맞이 고흥군 녹동 남부수산 방문
2 2022.04.02. 자생란 산업화시설(함평 학난농원) 현장 시찰
3 2022.04.06. 윤석열 제20 대통령 당선인 면담
4 2022.04.07. 제50회 보건의 날 기념식



5


6



7



8


9

5 2022.04.08.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탄소중립 약속의 숲 식목행사
6 2022.04.09. 순천시 드라마 촬영장 방문
7 2022.04.14.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산업재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8 2022.04.20. 전라남도·나주시·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협약 체결
9 2022.04.21. 윤석열 당선인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방문





01

제1장
일반현황

1. 전라남도 연혁
2. 위치와 자연환경
3. 인구 및 세대
4. 행정기구 연혁
5. 정원
6. 행정구역
7. 재정규모

1. 전라남도의 역사

1-1. 선사시대

우리 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몽골와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이동했는데, 그중 일부가 기후와 풍토가 좋은 전남지역에 정착했다.

영산강, 보성강, 섬진강 유역에서 구석기시대 중기와 후기의 유물로 판단되는 주먹도끼, 긁개, 다면석기, 찍개 등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된 것을 미루어 볼 때 후기 구석기인들이 곳곳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는 영산강, 보성강 유역의 충적평야에 성읍국가(城邑國家) 단계의 여러 통치세력이 등장했다. 이때의 유적인 고인돌, 고분, 독무덤(옹관묘) 들이 전남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전남지역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1,400여 기의 고인돌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마한 54개국 중 상당수 국가가 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 삼한시대

서기전 1세기에서 서기 3세기경, 한반도에는 마한·진한·변한을 세 개의 소국연맹체가 있었는데, 전남지역 성읍국가들은 마한소국연맹체에 속했다.

전남지역 성읍국가들의 형성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영암 등지에서 청동기시대의 거푸집 용범(鎔范)이 발견되는 등 다른 지역보다 청동기

시대 유물이 풍부하게 출토된 점을 생각하면 그 시기도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남지역에는 지금까지 전국 고인돌 35,966기 중 약 63%에 달하는 22,560기의 고인돌이 발견되었는데, 이 때문에 마한 54개국 중 상당수 국가가 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지배세력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까닭이다.

1-3. 삼국시대

4세기 말에 마한소국연맹체는 백제에 통합되었다. 백제가 사비성으로 천도한 뒤 지방을 5개의 방(方)으로 편제할 때 남방(南方) 구지하성(久知下城)에 속했다.

660년(의자왕 20), 신라는 당(唐)나라와 함께 백제를 멸하고, 이어진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686년(신문왕 6) 백제의 옛 땅에 주·군(州郡)을 설치하며 전남지역을 무진주라 했다.

757년(경덕왕 16), 9주와 군현(郡縣)의 이름을 고쳤는데, 무진주를 무주라 하고 14군 44현을 거느리게 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무진주란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

892년(진성여왕 6년)에 견훤(甄萱)은 신라의 국정이 문란해지자, 군사를 일으켜 무진주를 점령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

901년(효공왕 5)에 궁예(弓裔)가 후고구려를 건국하고 903년에 휘하 장수인 왕건을 보내 10여 군(나주, 영암 일대로 추정)을 점령했다.

918년(경명왕 2), 왕건은 궁예를 왕위에서 축출하고 고려를 세운 다음, 936년(태조 19년)에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전남 전역을 복속했다.

1-4. 고려시대

983년(성종 2),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최승로의 건의로 전국에 12목(牧)을 설치했다. 이때 전남지역에는 나주와 승주에 목(牧)을 설치하고 정규 지방관인 목사를 파견했다.

995년(성종 14), 전국을 10개 도(道)로 정할 때 전남지역 14주(州) 62현(縣)을 묶어 해양도(海陽道)라 명명했다.

1018년(현종 9), 해양도를 강남도(江南道 : 전북)와 통합하며 전주와 나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전라주도(全羅州道)라 명명했다. '전라'는 현재 남북한 8도의 이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5. 조선시대

1413년(태종 13년) 8도제가 실시되고 전라도는 전주 감영을 중심으로 56관(官)을 지니게 되는데, 전남지역에는 다음과 같이 25관(官)이 있었다. 목(광주, 나주), 도호부(담양, 장흥, 순천, 장성), 군(영암, 영광, 진도, 낙안, 보성), 현(창평, 능성), 소현(곡성, 옥과, 남평, 광양, 구례, 흥양, 동복, 화순, 함평, 무안, 강진, 해남)

1895년 5월 8도제를 폐지 23부(府)제를 실시하고 부·목·군·현을 군(郡)으로 일원화 했다. 이때 전라도에는 4개부를 두었으며 그 관할 군과 전남지역 각 군의 소속은 다음과 같다. 전주부(20군중 장성, 영광), 남원부(15군중 구례, 곡성, 순천, 광양, 담양, 옥과, 창평), 나주부(16군 모두 전남지역, 나주, 해남, 진도, 강진, 장흥, 흥양, 보성, 영암, 무안, 함평, 능주, 화순, 동복, 광주, 남평, 낙안, 이듬해 완도, 돌산, 지도, 증설), 제주부(3군)

1896년 2월 완도군, 돌산군, 지도군을 신설하여 여러 군 관할의 섬들을 3군으로 통합 소속시켰으며, 동년 8월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실시함에 따라 옛 전라도가 남·북도로 나뉘어 전라남도는 광주에 소재지를 두고 1목(제주) 32군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이때 구례군은 전북에 무장, 흥덕, 고창 3군은 전남에 소속되었다.

1897년 5월 좌수영지역에 여수군을 신설하고 순천군의 4개면을 이속시켰으며, 동년 9월 흥덕, 고창, 무장이 전북으로 구례가 전남으로 편입되었고, 1906년 9월 제주목이 군(郡)이 되고, 비입지(飛入地)와 두입지(斗入地)를 정리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전남은 현재 제주도 지역의 3개 군을 포함 모두 1부 27군이었다.

1-6. 일제시대

1910년 10월 1일 지방관제를 반포하고 도에 장관을 두었으며, 무안군은 목포부로 개칭했다.

1914년 4월 1일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져 지도, 남평, 창평, 돌산, 대정, 정의군이 없어지고 대부분의 군에서도 편입과 분속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면도 크게 통·폐합되었다. 이때 전남은 1부 22군 273면 2,996리동이었다.

1919년 8월 20일 도장관을 폐지하고 도지사를 두었으며, 1931년 광주, 나주, 순천, 여수, 제주가 읍으로 승격했는데 이후 1939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보성, 장흥, 담양, 장성, 완도, 송정, 벌교, 강진, 영산포가 읍으로 승격되었다.

1935년 10월 광주읍을 부(府)로 승격하고 광주군은 광산군으로 개칭하여 2부 21군 1도(島) 10읍 243면 310통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7. 대한민국

가. 8·15 광복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일본제도인 정(町)명칭을 폐지하여 동으로 개칭하고 1946년 8월에 제주도를 도(道)로 승격 분리(남·북군 신설)시키고 1949년 8월 15일 부(府)를 시(市)로 개정하여(지방자치법 제4조) 여수·순천의 2읍을 각각 시로 승격시키는 한편 여수군은 여천군으로, 순천군은 승주군으로 개칭했으며, 광양면을 읍으로 승격시켜 4시 21군이 되었다.

1955년 7월 1일 광산군의 서방(瑞坊), 극락(極樂), 효지(孝地)등의 3개 면과 석곡면의 일부 5개 리를 광주시에, 석곡면의 일부 3개 리를 담양군에 각각 편입시켰으며, 1957년 11월 6일 광산군의 지산(芝山)·대촌(大村)·서창(西倉)면 일부(8개리)와 담양군 남면 일부(5개리)를 광주시에 각각 편입시켰는데 당시의 행정구역은 4시 21군 13읍 218면 2,912동리이었다.

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2년 11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1175호(1963. 1. 1. 발효)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영광군 위도면(蝟島面)을 전북 부안군에 편입하고, 무안군 이로면을 폐지하며, 동면 산정(山亭)·상(上)·용당(龍塘)·달(達) 및 눌도(訥島)의 5개리를 목포시로, 대양(大陽)·석현(石峴) 및 옥암(玉岩)의 3개리를 삼향(三鄕)면으로 각각 편입했고, 무안군 흑산면 우이도(牛耳島)리를 도초(都草)면으로, 진도군 조도(鳥島)면 마진도(馬津島)리를 무안군 장산(長山)면으로 각각 편입 변경했다.

광주시 관할 서호(瑞湖)·방호(芳湖)·신호(新湖)의 3개동을 떼어서 광산군 서창(西倉)면을 증설하고, 1968년 12월 31일자 법률 제2059호로 무안군을 신안(도서 11면), 무안(육지 8면)으로 분군 시켰다.

다. 10월 유신 이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6544호로 광주시에 동구·서구 2개 구청을 증설시켰으며, 1976년 9월 1일 전라남도 조례 제796호로 여천군 삼일면 평여리에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를 설치하여 1977년 12월말 본도의 행정구역은 4시 2구 22군 1출장소(17읍 213면 36출장소 2,913동리)로 되었다.

라. 1980년 이후

1979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6930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980년 4월 1일 광주시 석곡출장소와 지산출장소를 폐합하여 북구청을 신설했으며,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1981. 4. 13공포)로 나주군 나주읍 일원과 영산포읍 일원을 통합하여 금성시를 설치(5시 22군 1출장소 29읍 199면)했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5(85. 12. 28 공포)에 의하여 여천출장소(麗川出張所)를 여천시(麗川市)로, 금성시(錦城市)를 나주시(羅州市)로 명칭을 변경시켰으며, 1986년 11월 1일 법률 제3808호(1986. 10. 23. 공포)에 의하여 기존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 본도와 분리되었고, 광산군 송정읍이 송정시로 승격되어 본도의 행정구역은 6시 22군, 1출장소(29읍 208면 96동 33읍면 출장소 6,491동리)로 변경되었다.

1988년 1월 1일 법률 제3963호(1987. 11. 28. 공포)로 송정시와 광산군 전역이 광주직할시로 편입되었다.

마. 1990년 이후

1995년 1월 1일 법령 제4774호(1994. 8. 3. 공포)에 의해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하여 순천시로, 나주시와 나주군을 통합하여 나주시로, 법령 제4801호(1994. 12. 22. 공포)에 의해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통합, 광양시로 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했다.

1998년 4월 1일 법령 제5457호(1997. 12. 17. 공포)로 여수시와 여천시·여천군을 통합하여 여수시를 설치함으로써 5시 17군의 행정구역을 이루었다.

2005년 11월 11일 전라남도 도청소재지를 109년 만에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에서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로 이전했다.

2010년 12월 20일 무안군 조례 제1995호로 무안군 삼향면을 삼향읍으로 승격했고 2014년 2월 24일 나주시 조례 제1052호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금천면 일부와 산포면 일부를 통합하여 빛가람동을 신설했다.(5시 17군 33읍 196면 68동)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행정팀장 강성일, 담당자 고동열

2. 위치와 자연환경

2-1. 위 치

전남은 동아시아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양면이 바다에 접해 있으며, 동쪽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경계로 경상남도와 접하고 서쪽은 황해를 건너 중국과 대하며 남쪽은 제주도와 마주 대하고, 북쪽은 전라북도와 접하고 있다.

전남의 동과 북의 울타리를 살펴보면, 동쪽은 소백산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들을 분수령으로 하여 경상남도와 확연히 구분되고, 북쪽은 비교적 낮은 노령산맥의 구릉성 저산지에 의해 전라북도와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동쪽과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북쪽인 전북과는 비교적 낮은 분수령과 고개에 의해 빈번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호남권이라는 동질문화권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이어져 내려왔다.

이와 같이, 북쪽은 동쪽에 비해 자연적 장애가 적어 반도의 북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어 왔기에 자연환경의 유사점과 더불어 인문 또는 문화 환경의 유사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전북과는 물론 충남과도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동으로는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이 많은 접경지대를 가지면서도 소백의 거봉들인 민주지산(1,242m), 대덕산(1,290m), 덕유산(1,614m), 백운산(전북소재 1,279m), 지리산일대의 노고단(1,507m), 선약봉(1,751m), 백운산(전남 1,218m) 등의 1,000m이상의 고봉들이 자연적 장벽이 되어 왔으며, 육십령(734m), 팔량봉(580m), 섬진강 하곡 등의 좁은 통로를 통하여 연결되어 왔다.

【 전라남도 위치 】

도 청 소재지	경 도 와 위 도 의 극 점				연 장 거 리 (km)
	단	지 명	극 점		
			동 경	북 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동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작도	127° 54′ 28.8″	34° 24′ 47.0″	〈동 서 간〉 ·극점간 : 262.8 ·육지부 : 145.3 〈남 북 간〉 ·극점간 : 175.9 ·육지부 : 136.4
	서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125° 05′ 00″	34° 06′ 45″	
	남단	완도군 소안면 장수리	126° 38′ 28.0″	33° 54′ 57.5″	
	북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26° 49′ 12.5″	35° 29′ 00.0″	

2-2. 지형과 지세

전 국토의 12.3%인 12,335㎢의 면적을 가진 전남은 그 지형적 특색이 동은 높고 서는 낮은 동고서저의 형태를 나타내고, 북은 높고 남은 낮아 북고남저의 형태로 한국지형의 일반적 특색과 비슷하다.

다만 동쪽이 북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산성을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특색과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동서해안은 모두 침강량(沈降量)이 많은 해안으로 만과 반도, 좁은 해협, 그리고 무수히 많은 도서가 불규칙하게 분산되어 있어 이른바 한국식 해안이라는 별칭이 있는 리아스(rias)식 해안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도서는 2,219개(무인도 포함)로 전국의 65%를 차지하여 세계적인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도서는 전부 육지의 침강 결과로 생긴 육도로서 대부분이 산지 또는 언덕으로 되어 평지는 극히 적은 편이다.

다도해 연안에는 침강해안의 특징으로서 좁은 해협에 의하여 육지와 연결되는 여수·고흥·장흥·해남 등의 4대 반도가 돌출하고 있고 그 사이에 수심이 얕은 광양·순천·보성·강진 등의 만이 깊숙이 만입되어 있으며, 그 외해(外海)에도 많은 도서들이 널려 있다.

전남을 흐르는 하천은 크게 3분(分)되는데 노령의 줄기에서 발원하는 영산강수계는 서남부 및 서북부의 광대한 평야를 유역에 형성시켜 비옥한 농토를 제공하고 있고 목포만으로 유입한다.

대략 광주의 무등산을 분수령으로 동부의 섬진강 수계와 구분되는 영산강은 장성에서 흘러온 황룡강과 담양과 광주에서 흘러온 극락강, 그리고 화순과 나주를 흘러가는 지석강 등 3 개의 지류에 의해 형성되어 있으며, 전남의 대표적 평야인 나주평야의 젖줄이 되어 노년기의 느린 사행(蛇行)으로 영산호에 유입되고 있다.

한편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른 섬진강은 전북에서 발원하여 전남북의 동부 산악지대를 흘러내리고 있는데, 영산강에 비하면 그 흐름이 장년기적 특색을 보이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사행률이 적으며 경사도가 높아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하류를 흐르는 선행(旋行)과 횡곡(橫谷)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전북에서 흘러온 적성강, 요천강의 지류를 합하고 전남에서는 남에서 북으로 흘러가는 보성강과 압록에서 합류하는데 곡성·구례·화순·보성·순천·광양 등지의 동부지역에 많은 분지(盆地)를 이루어 생활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전남에서 영산강 유역과 섬진강 유역을 제외하면 극히 좁은 남부 중앙부가 남게 되는데 여기가 탐진강 유역이다.

장흥군 일대와 강진군의 상당부분이 이 유역에 해당하는데 동서 양강의 유역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흐름도 짧지만 동서의 점이지대적 성격을 보여 영산강 유역의 특징인 평야도 형성하고 섬진강 유역의 특징인 분지와 산지를 함께 갖고 있다.

탐진강은 한마디로 영산강과 섬진강의 특징들을 고루 갖춘 중간 형태의 하천이라 볼 수 있다.

전남의 평야는 영산강 유역 일대의 전남평야, 일명 나주평야로 불리어지는 넓은 평탄평야로서 나주를 중심으로 학교, 함평, 광주, 담양, 능주, 장성의 넓은 지역에 걸쳐 펼쳐지며 영암·무안 등지의 평야부까지 연장되어 전북의 호남평야와 더불어 우리나라 굴지의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영산강 유역에 형성된 평야이지만 충적층의 발달이 비교적 적고 대부분이 침식에 의해 형성된 평야로서 전북의 호남평야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서부 해안평야는 영암·함평 일대의 서해안평야로 노령산맥의 여맥들에 의해 영산강유역의 전남평야와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서부평야는 전북의 호남평야와 서북 해안을 따라 연결되어 있다.

남해안 지역에는 해남·강진·장흥·보성·순천·광양 등지에 비교적 좁은 해안평야가 불규칙적으로 분포되어 무수한 저산성 언덕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마치 분지형의 모습을 나타내는 좁은 평야도 나타나는데 주로 탐진강 유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2-3. 기 후

전남의 기후는 온난성 외에도 여름의 고온과 겨울의 저온의 기온차가 큰 대륙성 기후이고, 여름의 우기와 겨울의 건기가 나타나는 계절풍 기후이기도 하다.

또한 전남의 기후는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기후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지리적 위치로 보아 한반도의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에 면한 지역이 넓고 해안선이 길어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백산맥, 노령산맥 등의 산악지대와 이들 산지로부터 발원한 하천들이 형성한 내륙의 분지지역들은 해안 및 도서지방과는 기후적 차이를 나타내어 대륙성기후의 특성을 나타낸다.

연평균 기온을 보면 남해안 및 서해안 지방이 약 12~15℃이고 연간 강우량은 약 1,200㎜~1,500㎜ 내외이다. 겨울에는 지형적 요인에 의하여 소백산맥의 서쪽 비탈진 경사면에 눈이 많이 내린다.

남서해안에는 난류인 제주해류가 들어오지만 그 세력이 미약하고 발해방면에서 남하하는 한랭한 연안류가 남쪽의 다도해까지 내려와 남서해안 일대에 과우 현상이나 짙은 안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행정팀장 강성일, 담당자 고동열

3. 인구 및 세대

2021년 말 전라남도 주민등록 인구는 1,832,803명으로 2018년 말 대비 2.7%(50,167명)가 감소했고, 세대 수는 903,108세대로 2018년말 대비 5.0%p(42,805세대)가 증가했다. 전남의 인구는 전국의 3.5%이고, 세대 수는 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 시군 인구 및 세대 (2021년 말) 】

(단위 : 세대, 명)

구 분	세대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 율(%)
		계	남	여		
합 계	903,108	1,832,803	922,221	910,582	443,705	24.2
목포시	103,162	218,589	108,808	109,781	38,837	17.7
여수시	128,169	276,762	141,074	135,688	55,986	20.2
순천시	124,029	281,436	140,466	140,970	45,825	16.3
나주시	59,292	116,726	58,906	57,820	26,616	22.8
광양시	67,103	150,531	78,626	71,905	20,843	13.9
담양군	24,773	46,180	23,428	22,752	14,617	31.6
곡성군	15,536	27,535	13,540	13,995	10,214	37.0
구례군	13,462	25,235	12,285	12,950	8,944	35.6
고흥군	35,379	62,762	30,569	32,193	26,502	42.1
보성군	22,511	39,375	19,221	20,154	15,679	39.6
화순군	32,012	62,624	30,910	31,714	17,179	27.4
장흥군	20,103	36,547	17,785	18,762	13,036	35.5
강진군	18,592	33,753	16,359	17,394	12,120	35.8
해남군	35,225	67,166	33,273	33,893	22,590	33.5
영암군	28,197	52,937	27,485	25,452	14,595	27.5
무안군	42,739	91,107	45,753	45,354	17,909	19.8
함평군	17,980	31,274	15,730	15,544	11,859	37.8
영광군	27,112	51,985	25,959	26,026	15,629	30.0
장성군	23,160	43,365	22,206	21,159	13,499	31.0
완도군	26,029	48,631	24,475	24,156	16,440	33.7
진도군	16,700	30,066	14,908	15,158	10,396	34.5
신안군	21,843	38,217	20,455	17,762	14,390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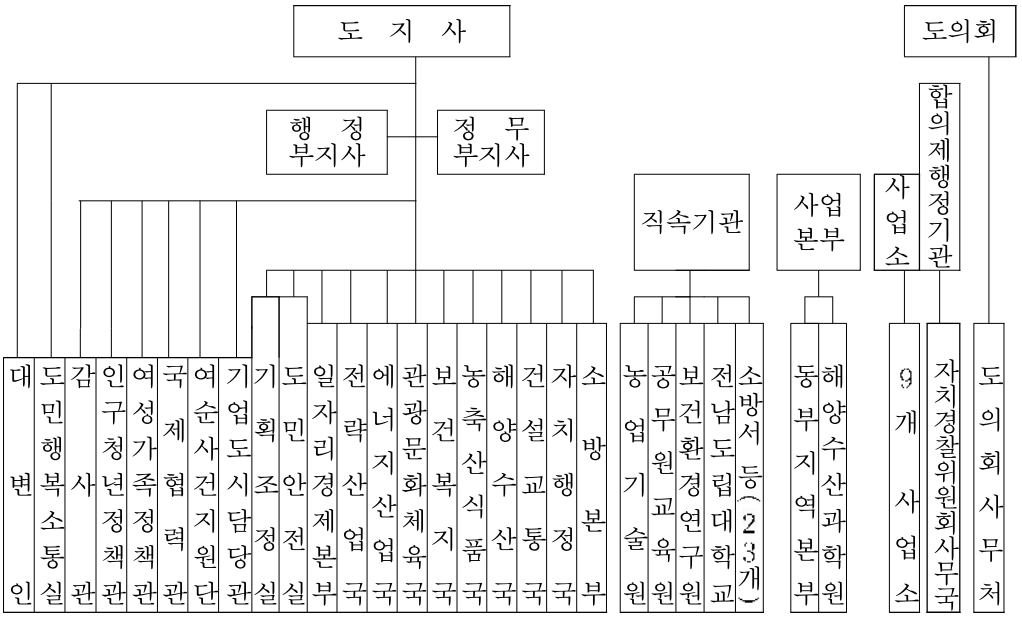
* 자료 : 행정안전부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행정팀장 강성일, 담당자 정제희

4. 행정기구

전라남도의 행정기구는 도지사 아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12실국, 27직속기관, 2사업본부 등이 있으며,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남도의회 소속의 의회사무처가 있다.

【 전라남도 기구표 】



12실국은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일자리경제본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관광문화체육국, 보건복지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소방본부가 있으며, 도지사 직속으로 대변인, 도민행복소통실이 있으며,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감사관, 인구청년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국제협력관, 여순사건지원단이 있고 정무부지사 직속으로는 기업도시담당관이 있다.

과 단위 직제로는 7관 3단 5담당관 47과가 있고, 소속기관으로는 3원·1대학·22소방서·119특수대응단, 2사업본부, 9사업소가 있으며 3원 1대학은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전남도립대학교이다.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조직관리팀장 윤중권, 담당자 정오진

5. 정 원

2022년 4월말 현재 전라남도 공무원 수는 道 6,815명, 시군 19,269명 등 총 26,084명이며, 道의 경우 기관별로는 본청 1,432명, 의회사무처 122명, 직속기관 4,680명, 사업본부 270, 경제자유구역청 30, 합의제행정기관 22명 등 이다.

직종별로 분류하면 도는 정무직 3명, 일반직 1,919명, 연구직 274명, 지도직 29명, 별정직 22명, 소방직 4,507명, 교원 61명, 시군은 정무직 22명, 일반직 18,462명, 연구직 166명, 지도직 597명, 별정직 22명으로서 道 및 시·군을 합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20,38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 공무원 정원현황(직종별) 】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	일반	연구	지도	별정	소방	교원
계	26,084	25	20,381	440	626	44	4,507	61
도	6,815	3	1,919	274	29	22	4,507	61
시·군	19,269	22	18,462	166	597	22	-	-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조직관리팀장 윤중권, 담당자 정오진

6. 행정구역 연혁

【 전라남도 위치 】

시 대	연 대	연 혁
삼한시대		○ 마한 옛터로서 마한국 54개 부족국중 8개국에 위치했음
삼국시대		○ 백제 근초고왕때 마한과 병합함으로써 백제에 속하게 됨
통일신라시대	660년	○ 백제 의자왕 20년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로 신라 영토가 됨
	892년	○ 신라 진성왕 6년에 견훤이 무진주(현 광주)에 근거를 두고 부군의 주·군(州郡)을 정복함에 따라 통치하에 들어감
후백제시대	901년	○ 견훤이 완산주(현 전주)로 이도(移都)하여 후백제라 칭하고 궁예가 효공왕 5년에 후고구려를 세워 국호를 태봉으로 칭하게 되면서 태봉과 후백제로 분할 점령됨
고려시대	995년	○ 성종14년 전국이 10도로 정하며 해양도라 칭함
	1018년	○ 현종 9년 전국을 5도 양계를 크게 나누면서 강남도(전북)와 합하여 전라도라 칭하고 접찰사를 전주에 둠
조선시대	1895.05.26	○ 고종 32년 8도제를 23부제로 개편, 4부(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제주부)로 구분하여 관찰사를 둠
	1896.08.04	○ 고종 33년 8월 4일 23부가 13도로 개편, 노령이남을 분할하여 전라남도라 칭하고 광주군에 도청을 둠
	1897.05.16	○ 좌수영이 여수군에 신설되어 순천군의 율촌, 여수, 삼일면을 편입
		○ 흥덕, 고창, 무장의 3군이 전라북도로 편입되고, 전라북도의 구례군이 전라남도로 편입됨
한일합병이후	1910.03.01	○ 옥과군을 폐지하여 곡성군으로 하고, 낙안군이 순천군, 보성군으로 각각 폐합

시 대	연 대	연 혁
한일합병 이후	1935.10.01	○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되고, 광주군을 광산군이라 개칭
	1946.08.01	○ 제주군이 도(道)로 승격 분리
정부 수립 후	1949.08.14	○ 여수읍, 순천읍이 각각 부로 승격되고, 여수군을 여천군으로 순천군을 승주군으로 개칭 ○ 광양군 광양면이 읍으로 승격
	1949.08.15	○ 광주부, 목포부, 여수부, 순천부를 시로 개칭
	1955.07.01	○ 영광군 영광면, 해남군 해남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 ○ 광산군의 서방면, 극락면, 효지면 및 석곡면의 5개리가 광주시로 편입하고, 광산군 석곡면의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가 담양군 남면으로 편입
	1957.11.06	○ 광산군의 대촌면, 지산면, 서창면(송대리 제외) 및 담양군 남면의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가 광주시로 편입
	1963.01.01	○ 영광군 위도면을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편입 ○ 무안군 이로면의 5개리가 목포시로, 무안군 이로면의 대양리, 석현리 및 옥암리가 동군 삼락면으로 각각 편입되고 이로면은 폐지 ○ 구례군의 구례면, 화순군의 화순면, 곡성군의 곡성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4시 21군 16읍 215면)
	1969.01.01	○ 무안군을 분군하여 신안군 신설(11개면)
	1973.07.01	○ 고흥군 도양면이 읍으로 승격(4시 22군 17읍 214면) ○ 광주시 구제 실시(동구, 서구)
	1975.10.01	○ 장성군 북상면을 폐면하고 용곡리는 장성읍에 수성·오월·조양리는 북이면에 덕재·동현·쌍웅·신성리는 북하면에 편입(4시 22군 17읍 213면)
	1976.09.01	○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 설치(4시 22군 1출장소)

시 대	연 대	연 혁
정부 수립 후	1979.05.01	○ 곡성군의 곡성면, 고흥군의 고흥면, 영암군의 영암면, 무안군의 무안면, 진도군의 진도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 (4시 22군 1출장소 22읍 208면)
	1980.04.01	○ 광주시 북구 설치(3구)
	1980.12.01	○ 여천군 돌산면, 삼일면, 장흥군의 관산면, 대덕면, 무안군의 일로면, 영광군 백수면, 완도군의 노화면, 익일면, 신안군의 지도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 (4시 22군 1출장소 31읍 199면)
	1981.07.01	○ 나주군 나주읍 일원과 영산포읍 일원을 통합하여 금성시 설치(5시 22군 1출장소 29읍 199면)
	1983.02.15	○ 광양군 태금면, 고흥군 동강면, 강진군 신전면, 해남군 북일면, 무안군 운남면, 신안군 증도면, 신의면, 팔금면 등 8개면 설치 (5시 22군 3구 29읍 207면)
	1985.10.01	○ 승주군 쌍암면을 승주읍으로 영광군 홍농면을 홍농읍으로 각각 승격(5시 3구 22군 1출장소 31읍 205면)
	1986.01.01	○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를 여천시로 승격 ○ 금성시를 나주시로 명칭 변경 ○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 설치 (6시 3구 22군 1출장소 30읍 204면)
	1986.04.01	○ 고흥군 점암면 양시출장소를 산내면으로, 장흥군 대덕읍 회진출장소를 회진면으로, 완도군 금일읍 금당출장소를 금당면으로, 완도군 노화읍 보길출장소를 보길면으로 각각 승격(6시 3구 22군 1출장소 30읍 208면)
	1986.11.01	○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 (6시 22군 1출장소 29읍 208면 96동)
	1987.01.01	○ 목포시 이로동 일부와 대양동, 옥암동을 합하여 삼향동 설치(6시 22군 1출장소 29읍 208면 97동)

시 대	연 대	연 혁
정부수립후	1988.01.01	○ 송정시 및 광산군 전역을 광주직할시로 편입
	1988.03.05	○ 여천군 돌산읍 죽포출장소 설치 ○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출장소 설치
	1989.01.01	○ 전라남도 광양출장소(광양군 골약면, 태금면)를 동광양시로 승격(행정동 7, 법정동 10) ○ 신안군 흑산면 대둔도 출장소 설치, 신안군 압해면 고이도 출장소 설치
	1989.04.01	○ 강진군 대구면 마량출장소를 마량면으로 승격 ○ 완도군 금일면 생일출장소를 생일면으로 승격 ○ 고흥군 산내면을 영남면으로 개칭 (6시 21군 29읍 96동 34읍면 출장소)
	1990.07.01	○ 고흥군 봉래면 내도출장소가 동일면으로 승격(6시 21군 29읍 96동 33읍면출장소)
	1990.07.19	○ 고흥군 포두면 송산출장소 설치
	1991.04.01	○ 신안군 흑산면 홍도출장소 폐지
	1993.01.01	○ 보성군 득량면 예당출장소 설치
	1994.07.06	○ 목포시 이로동을 용해동과 상동으로 분동(28동 ›29동)
	1995.01.01	○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 순천시 설치 나주시와 나주군을 통합 나주시 설치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통합 광양시 설치(6시 18군)
	1995.03.01	○ 나주시 남평면이 남평읍으로 승격
	1998.04.01	○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을 통합 여수시 설치 (5시 17군 30읍 199면 81동)

시 대	연 대	연 혁
정부수립후	1998.10.01	○ 나주시 조례 제195호(1998. 9. 14. 공포)로 향교동·금남동·남산동을 금남동으로, 성북동과 송현동을 성북동으로, 영산동·부덕동을 영산동으로, 이창동·가야동을 이창동으로 각각 통합 ○ 화순군 조례 제1563호(1998. 10. 1. 공포)로 이양면 묵곡출장소와 도암면 용강출장소를 각각 폐지
	1998.10.12	○ 순천시 조례 제1473호(1998. 9. 21. 공포)로 용수동·영옥동·행금동을 향동으로, 대평동·덕흥동·인안동을 도사동으로 각각 통합, 명칭 변경
	1998.10.31	○ 고흥군 조례 제1682호(1998. 9. 7. 공포)로 금산면 오천출장소와 포두면 송산출장소를 폐지(2읍 14면 2출장소)
	1998.11.05	○ 광양시 조례 제339호(1998. 11. 5. 공포)로 황금동과 성황동을 골약동으로, 금호동과 금당동을 금호동으로 각각 통합(1읍 6면 5동)
	1999.03.01	○ 여수시 조례 제211호, 제212호(1999. 2. 18. 공포)로 삼일동과 상암동을 삼일동으로 통합(1읍 6면 20동)
	1999.08.16	○ 순천시 조례 제440호(1999. 8. 16. 공포)로 해룡면 일부를 연향동에 연향동 일부를 해룡면에 각각 편입
	1999.09.28	○ 나주시 조례 제360호(1999. 9. 28. 공포)로 나주시 산포면 일부를 남평읍에, 남평읍 일부를 산포면에, 왕곡면 일부를 세지면에 각각 편입
	2000.10.17	○ 고흥군 조례 제1784호(2000. 10. 17. 공포)로 고흥군 과역면·두원면 일부를 점암면에, 점암면 일부를 과역면에 편입
	2001.12.28	○ 영암군 조례 제1717호(2001. 12. 28. 공포)로 영암군 삼호면 서부출장소 설치(1읍 10면 1출장소)

시 대	연 대	연 혁
정부수립후	2003.09.20	○ 순천시 조례 제696호(2003. 9. 20. 공포)로 순천시 왕조동을 왕조1동과 왕조2동으로 분동 설치
	2003.04.30	○ 영암군 조례 제1762호(2003. 4. 30. 공포)로 영암군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승격
	2005.11.11	○ 전라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74호로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로 이전
	2006.08.07	○ 목포시 조례 제2322호(2006. 8. 7.)로 목포시 용당1동과 산정2동을 용당1동, 북교동과 무안동과 남양동을 목원동, 유달동과 충무동을 유달동으로 통합 (26개동 >22개동)
	2008.08.21	○ 대통령령 제20972호로 목포시 옥암동 6필지 1,907㎡를 무안군 삼향면으로 편입시키고,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40필지 18,401㎡를 목포시 옥암동으로 편입
	2010.12.20	○ 무안군 조례 제 1995호(2010.12.20.)로 무안군 삼향면을 삼향읍으로 승격
	2011.12.26	○ 목포시 조례 제2715호(2011.12.26.)로 목포시 옥암동, 부흥동 일부를 분리하여 부주동 신설
	2012.01.01	○ 신안군 조례 제1756호(2011.12.26.)로 신안군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승격
	2014.01.01	○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전라남도 도청소재지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000번지에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로 변경
	2014.02.24	○ 나주시 조례 제1052호(2014.2.24.)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동악리·광암리·월산리, 산포면 매성리·신도리·송림리 일부를 통합하여 나주시 빛가람동을 신설 (5시 17군 33읍 196면 68동)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행정팀장 강성일, 담당자 고동열

7. 재정규모

1) 재정규모

전라남도(도, 시군)의 2021년도 최종 예산규모(일반회계, 특별회계)는 29조 3,488억원으로 2018년보다 37.7%(8조 397억원) 증가하였다. 이 중 도 본청은 11조 1,129억원으로 2018년보다 54.1%(3조 8,999억원) 증가하였으며, 22개 시군은 18조 2,359억원으로 2018년보다 5.5%(4조 1,398억원) 증가하였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7조 320억원으로 2018년보다 42.0%(7조 9,974억원) 증가하였다. 도 본청은 10조 1,301억원으로 56.4%(3조 6,518억원) 증가하였으며, 시군은 16조 9,019억원으로 34.6%(4조 3,457억원) 증가하였다.

특별회계는 2조 3,169억원으로 2018년보다 1.9%(424억원) 증가하였다. 도 본청은 9,829억원으로 2018년보다 33.8%(2,482억원) 증가하였으나, 시군은 1조 3,340억원으로 13.4%(2,058억원) 감소하였다.

【 연도별 최종 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 증감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계	213,091	245,759	270,767	293,488
	일반회계	190,346	221,105	247,904	270,320
	특별회계	22,745	24,655	22,863	23,169
도	계	72,130	82,945	97,873	111,129
	일반회계	64,783	74,526	89,107	101,301
	특별회계	7,347	8,419	8,766	9,829
시 군	계	140,961	162,814	172,894	182,359
	일반회계	125,562	146,579	158,797	169,019
	특별회계	15,398	16,236	14,097	13,340

2021년 재정자립도는 22.2%(도 본청 22.1%, 시군 13.3%)로 2018년 20.0%(도 본청 16.3%, 시·군 14.7%) 보다 2.2%p 증가하였다.

【 연도별 재정자립도 】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전 체	20.0	19.1	23.3	22.2
도 본청	16.3	15.5	24.0	22.1
시·군	14.7	14.1	14.1	13.3

2) 재원의 배분

2021년 도 본청 일반회계 기준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29.4%, 농림·해양·수산분야 19.8%, 일반공공행정분야 10.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2%, 환경보호 분야 7.2%, 산업중소기업분야 4.5%, 교통 및 물류 분야 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0% 순서로 재원이 배분되었다.

【 기능별 예산액 비율(2021년 최종예산 기준) 】

(단위 : 억원, %)

기 능 별	예산액	비율	기 능 별	예산액	비율
일반공공행정	10,177	10.0	공공질서 및 안전	9,353	9.2
교 육	2,645	2.6	문화 및 관광	3,735	3.7
환경보호	7,323	7.2	사회복지	29,786	29.4
보 건	1,696	1.7	농림해양수산	20,101	19.8
산업중소기업	4,599	4.5	교통 및 물류	4,096	4.0
국토및지역개발	4,007	4.0	과학기술	70	0.1
예 비 비	1,251	1.2	기 타	2,460	2.4

추진부서 **예산담당관 정현구, 재정관리팀장 배 준, 담당자 이믿음**


블레이드
타워
풍력 발전기
바
람
이



02

제2장

민선7기 주요성과

1. 도정운영 방향
2. 민선7기 주요성과
3. 민선7기 중점시책
4. 주요 수상실적
5. 연도별 도정 10대 시책

제2장 민선7기 주요성과

1. 도정운영 방향

2018년 7월 1일, 제38대 전라남도 도지사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영록 당선자가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은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에 대처하기 위해 도민께 드리는 취임 선서로 대체했다.



【도지사 취임 선서】



【도지사 취임 기자간담회】

김영록 도지사는 취임사에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민선7기 도정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정방침으로 '활기있는 일자리 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살고싶은 농산어촌', '감동주는 맞춤복지', '소통하는 혁신도정' 등을 공표했다.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와 신소재·신산업 혁신경제, 농수축산 생명산업 벨트를 만들고 맛·멋·체험·관광이 함께 하는 종합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와 안전을 챙겨 행복공동체를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며, 광역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남해안 광역경제시대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민 우선주의와 도민 제일주의 실천을 위해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좋은 일자리로 젊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생명의 땅에 새로운 희망이 역동적으로 피어나는 전남, 자유가 들꽃처럼 피어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전남,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들에게 청렴한 문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들에게는 보람있고 성과가 보장되는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2. 민선7기 주요성과

2-1.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전남의 미래성장 비전 제시

□ 지속가능한 미래 전남발전 프로젝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

○ 섬·바다·바람·황금들녘 등 전남의 청정자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전남 성장동력,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19.7.)

○ **6대 분야* 100대 프로젝트** 발굴로 구체적 성과 창출

- 핵심사업 국고예산 대거 반영(402건, 5조 3,565억원)

* 6대 분야 : 에너지, 투어, 바이오, 트랜스포트, 농수산, 시티

□ 한국판 뉴딜 선도,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 제시

○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선도를 위한 전남 새천년 미래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연계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20.12.)

-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공간뉴딜 등 3대분야 162개 추진과제

○ 지역균형 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포**('21.2.) 및 **우수성과** 수상

- 디지털뉴딜 우수기관 선정(과기부, '21.2.), 지역균형 우수(기재부, '22.4.)

□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비전, '으뜸전남 미래전략' 수립

○ 차기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남 미래전략** 발표('21.11.)

- 8대 추진전략, 69개 과제(핵심과제 34, 지역발전과제 26, 제도개선 건의 9)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미래전략 반영 건의('22.3.~5.)

-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 30개 세부과제 국정과제 반영

2-2. 도민 삶의 풍요로운 기반, 전남예산 역대 최대 확보 및 지방행정력 강화

□ 전남예산 11조 원, 국고예산 8조 원 시대 개막

○ 사상 최초로 **전남예산 11조 원**('21년 최종, 11조 2,750억 원) 편성

- '18년 최종예산(7조 2,130억 원) 대비 56% 증가(4조 620억 원)

○ **국고예산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4천억 원**('22년 기준) 확보

- '18년 국고 확보액(6조 16억 원) 대비 39.8% 증가(2조 3,898억 원)

○ **SOC 예산 1조 6,003억 원**('22년 기준)으로 역대 최다 확보

- '18년 SOC 예산 확보액(1조 4,091억 원) 대비 14% 증가(1,912억 원)

□ 정부 재정분권 개선에 주도적 대응으로 재정확충 기여

○ 재정분권 문제점을 **전남도가 가장 먼저 파악**, 정부·국회·재정분권특위·당정청 등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19. 10.~'21. 7.)

○ 정부 1단계 재정분권('19.~'20)에 **균특사업 4년 연장** 반영('22.→'26.)

○ 정부 2단계 재정분권('22.~'23.)에 **지방이양사업 재원 연장 보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반영

- 지방이양사업 5년 보전(~'26.),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1조원, 10년)

□ 정부합동평가, 사상 첫 전국 1위 달성

○ 국정과제 수행력 지속 상승, **목표달성도 95.4%**로 **전국 1위** 달성

- 목표달성도 : '18.) 73.1% → '19.)85% → '20.) 84.6% → '21.) 95.4%

□ 44개 주요 국·공립기관 및 센터 유치로 지역활력 제고

○ 지역전략산업 연계 **주요 국·공립기관 및 센터 44개소** 도내 유치

- 한국섬진흥원,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국립심뇌혈관센터, 국립난대수목원,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등

2-3. 에너지 대전환 시대, 에너지신산업 수도 도약

□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37개 기관 참여,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48조원 상생협약**('21.2.)

- 48조 5천억원 투자, 450개 기업 유치, 12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 대규모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발의('21.5.),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21.7.), 「전남도의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21.9.)
-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고시 개정('21.7.), 「공동접속설비 한전 선투자」 고시 개정('22.1.)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앵커기업 유치**

- 해상풍력 앵커기업 9개사('20.12.), ㈜세아제강 투자협약('21.3. 800억), 세계 1위 터빈사 베스타스 유치 추진(업무협약 2회: '21.6. / '22.3.)

□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및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체계 구축

○ 지역의 우월한 **RE100 자원**을 기반으로 전남 **동부권**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 순천 NHN 공공클라우드('21.3. 3,000억 원) 및 광양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21.11. 7,000억 원)

○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 사업 추진

-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유치('21.~'24. 233억원)
- LCM에너지솔루션(나주, 배터리 셀·팩 제조), 포스코 그룹사(광양,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등) 착공

□ 한국에너지공대 중심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 조성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및 **세계 TOP10 공대**로 육성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부지 나주 확정('19. 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21. 3.), 개교('22. 3.)
- 전라남도·나주시 10년간 총 2,000억 원 의 대학발전기금 지원 협약('22. 4.)

○ **국가 4대 에너지특구** 지정 등 **국가에너지산업 중심지** 도약기반 마련

- 국가혁신클러스터('18. 1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19. 11.),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19. 12.), 강소연구개발특구('20. 7.)
- 에너지기업 556개사 유치(투자금액 2조 6천억)

○ **에너지신산업 관련 인프라** 집적

-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19. 5.),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20. 3.) 등 준공

□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추진

○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추진

- 부지개발과 조성방향 수립('21. 8.),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22. 2.)

○ 에너지신산업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추진

- 구축연구 예산반영('20. 12.), 레이저분야 기관·단체 업무협약('21. 6.)
  산학연 전문가 추진위원회 발전('21. 12.)

□ 도민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실증사업 추진

- 배·포도·녹차 등 실증단지 구축(49㎾), 벼 실증단지 구축(100㎾)

○ 발전사업을 도민과 공유하는 **'5GW 도민발전소'** 운영

- 도민발전소 9개소 운영 및 연 104억 7천만 원 수익 분배

2-4. 전통 주력산업의 재도약 및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

□ 광양만권, 서남권 산단 대개조로 전남 산업구조 혁신

○ **광양만권 산단, 친환경·ICT 적용 지능형 산단**으로 대개조

- 정부 공모 선정('20. 5.), '24년까지 1조, 1,364억원 투자

* (거점) 여수 국가산단, (연계) 광양 국가산단, 율촌 제1산단, 여수·광양항

○ **서남권 산단, 지능형 디지털 산단·친환경선박 제조** 및 **해상풍력 기자재 배후단지** 산단으로 대개조

- 정부 공모선정('22. 4.), '25년까지 3,619억원 투자

* (거점) 영암 대불국가산단, (연계) 영암 삼호산단, 해남 화원산단, 목포 삽진산단

□ 조선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

○ 조선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해경 서부정비창 유치**('19. 8. 2,371억원)

- 해경 함정 수리를 위한 서부정비창 건설에 2023년까지 2,371억원 투자

- 연 138척 함정 수리, 해경 255명 상주(입항인원 연 8만 명 예측)

○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18. 5.~'23. 5.)

- 목포·해남·영암 지역에 80개 사업 추진, 국비 1,940억 원 지원효과

- 중소선박 공동진수장 건립, 일자리 1,023명, 매출효과 1,266억원

○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및 **선박 수리 지원시스템** 구축

- LNG화물창 완전 국산화 기술개발 공모 선정('21.), 전기추진선박 진수('22. 3.)

○ 생활비, 채용지원금 등 **수주실적 기반 인력수급 지원**('20.~)

- '20.) 760명 → '21.) 1,166명 → '22.계획) 1,344명

□ K-글로벌 백신허브 및 바이오산업 국가거점 구축

○ 백신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건립('19.~'23. 705억원),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코로나19 백신 시제품 위탁생산('20.7.~12.), 미생물실증지원센터('20.12. 836억원)

○ **차세대 면역치료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추진

-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19.~'23. 200억원),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20.~'24. 480억원), 치료백신 임상시험 연계 지원사업('22.~'24. 86억원)

○ **천연물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천연물 원재료 연계처리시설 준공('21.5. 100억원),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상 생산시설 준공('22.4. 200억원), 지역 특산자원 DB 구축(1,500종)

□ 우주산업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

○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 민간주도 우주산업 지원을 위한「우주개발진흥법」개정안 발의('21.12.), 클러스터 조성계획 마련('21.12.), 민간 고체발사장 구축('21.~'24. 496억원)

○ **차세대 미래 비행체 산업** 육성

- 국내 최초, 도심항공 모빌리티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국토부 공모선정, '20.12.)
-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18.~'21. 198억원), 산업용드론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19.~'22. 127억원),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사업('20.~'23. 164억원)

○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19.8.), 중소기업 생산설비 구축('21.~'23. 200억원)
- 핵심부품 성능 평가기반 및 인증지원체계 구축('20.8. 300억원), 초소형 전기차 개발형 공용플랫폼 개발('19.~'22. 328억원)

2-5. 사통발달 SOC 대거 확충, 전남 SOC 르네상스 개막

□ SOC 예산 4년 연속 1조원 이상 확보 및 국가계획 대거 반영

○ SOC 예산 2018년부터 **4년 연속 1조원 이상 확보**

- '18.) 1조 4천억 → '19.) 1조 2천억 → '20.) 1조 5천억 → '21.) 1조 4천억 → '22.) 1조 6천억('18년 대비 18% 증가로 역대 최대)

○ 도민 숙원 SOC **국가계획에 대거 반영**

- 도로, 철도 등 17개 지구 14조 7,061억원 국가계획 반영('21.)
- (철도) 전라선 고속철도,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고속도로) 광주~완도 2단계, 광주 3순환(나주 금천~화순)
  (국도·국지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

□ 전남 발전의 원동력, 핵심 SOC 대거 확충

○ 지역 3대 숙원 **경전선, 호남고속철도, 남해안 철도 본격 추진**

-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화 확정('19. 12.), 호남고속철도 2단계 착공('20. 7.), 남해안(보성~임성리) 철도 턴키구간 노반공사 완료('22. 3.)

○ 도내 어느 곳이든 **1시간대 도로망 구축**

- 광주~완도 2단계 국가계획 반영,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설계 용역('21.), 광주3순환 5구간(화순~금천)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22. 1.)

○ **12개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섬 지역 교통편의 및 해양관광 접근성 개선

- 천사대교 완공(신안 암태~압해, '19. 4.), 백리섬섬길 완공(여수~고흥, '20. 2.), 임자대교 완공(신안 지도~임자, '21. 3.), 추포대교 완공(신안 추포~암태, '21. 3.)

○ 국내 최초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 기반** 마련

-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확정('21.11.),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준공('21. 7.)

2-6.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미래 농어업 선도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

○ 전국 최초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 농어업의 공익 기능에 대한 보상('20. 4월부터 지급, 연 60만원)

○ **전남형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제** 도입

- 수급불안 해소 및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19.~'22.4.까지 356억원)

* 마늘, 양파, 무, 배추, 파, 고추 등 6개 품목

○ 빈번한 농업재해 대응 **농어가 정책 재해보험 지원 강화**

- 지방비 확대지원으로 농어업정책 가입보험료 자부담 20→10% 완화('22.)

□ 미래 농어업 선도 및 국가 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ICT 기반 **스마트농업 및 기후변화 대응 국가기관 유치**

- 스마트팜 혁신밸리('19. 3. 고흥),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20. 6. 나주),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20. 7. 장성),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21. 9. 해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20.~), u-IT융합 자동화 시스템 도입(2개소)

○ **섬 정책**을 이끌 **국책 연구기관** 유치 및 **국제행사** 확정

- 한국섬진흥원 유치('21. 4. 목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결정('21. 8.)

□ 농어업의 고부가가치 촉진

○ **유기농 인증면적** 전국의 64%('21년, 26천ha)로 **전국 1위**

- 구례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180억원)

○ 기후변화에 강하고 맛있는 **고품질의 신품종 육성**

- 벼 분야 '새청무' 국가품종 목록 등재('19.), 고품질 '강대찬' 육성('20.)
- 수산물 10대 품종* 선정 고품질 품종개발 연구 추진('19.~'23.)

* 능성어, 참조기, 전복, 꼬막, 해삼, 김, 톳, 갈조류, 뱀장어, 갑오징어

□ 국내·외 판로확대로 농어민 소득 안정

○ **남도장터 매출액** 4년 만에 **100배 이상 확대**('18. 5.4→'21. 552억원) 및 **김 수출액 역대 최고치**인 **2억불** 달성('21.)

○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개설

- 지방정부 최초 미국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 개관('20. 7.), 세계 최대 매출기업인 미국 월마트 온라인 쇼핑몰 입점('21.5.)

○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20.), 원예전문 생산단지 운영(31개소)

□ 농어촌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미래 농어업 인재 양성

○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 생활권 구현**

- 농촌협약(5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6개소), 기초생활거점 조성(31개소)

○ 어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어촌뉴딜 300' 전국 최다 선정**

- 98개소 선정('19.~'22. 9,370억원), 선착장 개선, 방파제 신·개축, 어구보관창고,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신축 등

○ **청년** 중심 **미래 농어업 인재 양성**

- 청년 창농타운 개관('21.11.),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28개소)
- 청장년 수산경영인 육성(2,025명), 수산고, 수산대학 등 수산 전문인력 양성

□ 환경친화형 스마트 축산 육성

○ **친환경 축산물 인증 3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 깨끗한 농장(1,347호), '한우' 동물복지농장 전국1호 지정(해남 만희축산)

○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산 ICT 융복합사업** 추진

- 축사시설 현대화(340호, 1,372억원), ICT 융복합(627호, 410억원)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유치(648ha, 7,692억원)

2-7. 가장 한국다운 전남, 세계적인 관광·문화 핫플레이스로 도약

□ 개도 이래 최초,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달성

○ 개도 이래 최초, **전남 관광객 6,254만명 달성**('19.)

- 전남관광 비전 선포식('19. 6.), 전남관광재단 출범('20. 6.),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운영

○ 목포, 여수 등 **광역권 관광거점** 조성

- 목포 :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 도시 및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 여수 :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 **섬·해양**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 천사대교('19. 4.), 진도쏠비치 개장('19. 7.), 목포해상케이블카('19. 9.), 칠산대교('19. 12.), 백리섬섬길('20. 2.), 남파랑길('20. 10.), 울돌목해상케이블카('21.9.)

□ 찬란한 역사·생태·문화자원의 글로벌 기반 마련

○ **한국의 갯벌**(신안·순천·보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21. 7.)

- 전국 등재면적(전남·충남·전북, 1,284.11㎢)의 90%가 전남지역(1,160.71㎢)

○ **국립 갯벌습지공원 조성 추진**(5개 사업, 5,000억원)

- 갯벌습지 복원, 갯벌생태마을 조성, 생태계서비스 구축, 해양생태계 체험관 등

○ **신안 퍼플섬, 유엔세계관광기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21. 12.)

○ 전남 국제행사, **대한민국 대표 국제행사**로 성공 개최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18년, '21년), 전남국제농업박람회('19년, '21년)
- 세계적 지도자·석학 참여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21.10.)

○ **남도 역사문화 자원의 복원** 및 **세계화** 추진

- 마한문화 비전 선포('20. 11.),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승인('21. 8.)

□ 광역권 관광전략 마련 및 차별화된 관광 기반 구축

○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문체부, 6,858억원) **전남 사업 확대 반영**

○ **차별화된 관광 기반 서비스** 확충

-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사업 선정('20. 12.), 남도한바퀴 상설브랜드화,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연 540명 이용, 숙박비·체험비 등 지원)
- 전남관광플랫폼(J-TaaS) 구축 추진('21.~'23.)

○ **명품 숙박시설**이 포함된 **관광단지 개발**로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 여수 챌린지파크('18.~'25.), 진도 대명리조트('16.~'25. 1단계 '19.7.부터 운영)

○ 목포·여수·해남에 다도해 절경을 즐길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 운영**

- 여수(연 평균 200만명 유치), 목포('19. 9.개통), 해남·진도 울돌목('21. 9.개통)

□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복지 향유 기반 확대

○ 세계적 수준의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전남도립미술관 개관**('21.3.)

- 9개 전시실·200석 교육실 등 구축, 이건희 회장 컬렉션 수증(21점, 100억원 상당)

○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완료('21년 150억원→200억원)

- 문화단체 및 예술인 지원(112억원)

○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 추진

- 목포어울림도서관('19.~'22.), 신안문화예술회관('19.~'24.), 함평문화예술회관('22.~'26.), 여수어린이도서관('21.~'24.), 순천신대도서관('20.~'23.) 등

□ 활력 넘치는 생활스포츠 기반 조성

○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전남 유치('20년, 장흥)

- 매년 전국 체육인 11만여명 방문·교육, 지역경제 효과 연 50억원 예상

○ 자연·환경적 요인 없이 즐기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35개소)

○ **공공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 선정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 여수 웅천 국민체육센터, 순천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신안 반다비 체육센터 등

2-8. 도민 모두가 더 행복한 '전남형 행복시책' 실시

□ 전남형 도민 행복시책 실시

○ 전국 최초 민·관 자원봉사 조직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출범('19.4.)

- 319개 기동대, 2,208명 구성, 이웃이 이웃을 돕는 생활 밀착형 복지

○ 광역 최초,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전 구간 시행('21.9.) 및 **초등학교 전체 우유 무상급식** 실시('21.)

○ 전남의 백년대계를 실현할 **으뜸인재 4,336명** 육성 및 지원

- 새싹인재(1,612명, 예능영재·노벨캠프 등), 핵심인재(887명, 해외유학생·새천년 으뜸인재), 혁신인재(1,837명, 도민행복대학·경제마당 등)
- 지역 대학졸업반 전원, 힘내라 희망 장학금 지급(2년간 73억원),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급(고 20, 중 10, 초 5만원/월)

○ 도민 맞춤형 주거정책 실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빈집 정비**

- 저소득층 행복둥지(654가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767가구)
- 전국 최초 빈집 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21.8.~'22.1.), 빈집정비(5,766동)

□ 출산율 15년 연속 道 단위 1위,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전남 실현

○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전남만의 시책 실시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회당 30~15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연 48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완도, 나주, 순천)

○ **부담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실현

-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30→50만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212억원), 어린이집 반별운영비(반당 10만원)

○ **여성의 경력경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지원

-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연 20만원), 여성 취·창업 지원(1,108명)

□ 도민에게 딱 맞는 희망복지 실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행복시책** 실시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200만원), 청년 구직활동 수당(월 50만원, 6개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월 10만원, 36개월), 청년문화복지카드(연 20만원), 전·월세 주거비지원(월10만원, 12개월)

○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복지정책** 시행

- 모든 경로당 공기청정기·정수기 설치(9천개소), 경로식당 무료급식 확대(지원단가 3,500원→5,000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5,500명, 월 5만원)

○ 불편함을 더는 **장애인 복지정책** 시행

- 전국최초 신장이식 수술비 지원(1회, 4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2개소), 인공지능 장애인 돌봄시설 설치(4개소)

○ 농촌발전의 주체, **여성농업인 행복시책** 확대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운영(1,500개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연 20만원)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월2만원)

□ 소통과 화합의 도민 제일주의 실현

○ 동부지역 도민을 위한 **'동부권 통합청사' 착공**('21. 10.)

- 동부권 주민 민원 불편 해소와 동부권 산하기관 통합 목표

○ 사건발생 73년, 국회 논의 20년 만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21. 7.)

- 명예회복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22. 1), 피해조사 실시('22. 1.~'23. 1.)

○ 출향향우와 전남의 행복한 이음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개시('21. 7.)

- 출향도민 5,300명 도민증 신청(~'22.3.), 도내 관광지·숙박시설 등 할인
- 전남사랑도민증 발급과 연계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 9.)

○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지원(3천개 마을, 3년간 총 900만원 지원)

○ **민박간담회, 현장소통간담회** 등 정책과정의 도민 참여 활성화

- 민박간담회(10회), 현장소통간담회(172회), 도민과의 대화(44회) 등

2-9.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전남' 실현

□ 코로나19 대응, 전국 최고의 모범 방역 실시

○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신속한 진단시스템** 구축

-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진단검사 시스템 도입('20. 10.), 찾아가는 이동(버스) 선별검사소 운영('20. 12.), 신속 PCR 검사 도입('21. 2.)

○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20. 3.~)

○ **맞춤형 접종 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완료 90% 달성

- 23개 예방접종센터 운영, 무의도서 해상접종, 감염취약계층 자율접종 등

○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지원**

- 정부지원(1조 5,119억원), 전남도 자체 지원(2,415억원)

○ 방역성과 등 높은 평가로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등 **코로나대응 1위**

- 국민이 뽑은 코로나19 대응 우수평가 1위(행정안전부, '21. 4.), 2021 지방자치단체평가 1위(한국일보, '22. 4.)

□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

○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21. 3. CO2, 9천 2백만톤 감축)

- 신재생에너지 전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등

○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 확대**

- 친환경보급차 9,849대 보급, 노후경유차 13,340대 폐차

○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 노력, **COP33 개최 기반** 마련

- 전남-경남 상생발전 COP28 공동유치 정책협약('18. 5.), 정부의 UAE COP28 개최지지 및 UAE의 향후 COP33 개최지지 상호합의('21.10.)

○ 숲속의 전남, **새천년 명품 숲 조성**

-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대상지로 완도수목원 선정('20. 12.),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170ha),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20.~'23.)

○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3년만에 투입예산 8.7배 확대('18. 88→'21.837억원)

□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도민 안전보장 강화

○ 전 도민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도민안전보험 무료가입**('20. 2.)

-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사망·상해 시 2천만 원 한도 보장(중복보장)

○ 사고위험도가 높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경감**(30→20%)

○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43년만에 사망자 200명대 진입**

- 교통사고 사망자수 : '18.) 335명 → '21.) 256명
- 교통안전분야 예산 : '18.) 151억원 → '21.) 478억원

○ 100년 빈도 **집중호우**에 **인명피해 최소화, 재산피해 항구복구**

- 구례·곡성·담양·나주 등 10개 시군 100년 빈도 집중호우 발생('20. 8.)
- 피해액 대비 4.8배 규모 항구 복구사업비 확보(9,504억원), 재난지원금 현실화(사망·실종자 구호금 1,000만원→2,000만원 등)

○ 정부에 **호우·태풍 등 복구비 현실화** 건의·반영으로 상향 조정

- 233개 품목 개선(단가인상 230, 신규반영 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강화

- 재난대응 종합플랫폼, 중대재해지원 TF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 도민 체감, 소방안전 환경 조성 및 자치경찰 운영

○ **전남 소방 '7분 골든타임' 달성**을 위한 소방력 확충

- 1시군 1소방서 구축 추진(6개 소방서, 6개 안전센터 신설), 재난컨트롤 타워 소방본부 장흥 이전('21. 1.)
- 다목적 중형헬기 도입, 현장활동 부족 인력 1,770명 충원

○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을 강화할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21. 5.)

-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대책('21. 5.), 섬 안전 치안정책('21. 12.) 실시

2-10. 공공일자리 창출과 전략적 투자유치로 서민경제 회복 견인

□ 개인소득, 고용률, 실업률 등 전(全) 경제지표 호전

○ **1인당 개인소득 2,010만원**으로 **전국 10위**로 '18년 대비 5단계 상승

- 1인당 개인소득 : '18.) 1,821만원(전국 15위) → '21.) 2,010만원(전국 10위)
- 지역내총생산 : '18.) 75.4조원(전국 8위) → '21.) 78.11조원(전국 8위)

○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3위** 달성 등 지속 호전

- 고용률 : '18.) 62.4%(전국 5위) → '21.) 64.6%(전국 2위)
- 실업률 : '18.) 2.8%(전국 5위) → '21.) 2.3%(전국 3위)

○ **2021년 수출액**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성장

- '18.) 366.2억 달러 → '19.) 325.9 → '20.) 270.9 → '21.) 427.9

□ 25조 투자유치 달성과 7년 연속 일자리 우수지자체 선정

○ 4차 산업혁명 연계 **데이터센터, 이차전지산업 등 투자유치**

- 투자유치 : 1,002건, 27조 8,461억원 / 투자실현 : 557건, 13조 3,833억원('22. 6.)

○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평가에서 **7년 연속 일자리 우수지자체 선정**

- '15.) 우수 → '16.) 종합대상 → '17.) 우수 →
  '18.) 우수 → '19.) 부문대상 → '20.) 우수 → '21.) 우수

○ 일자리 목표관리제를 통해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 '18.) 107,209명 → '21.) 128,048명

3. 민선7기 중점 시책

3-1. 전남발전 미래비전 수립

가.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

전라남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경전선 전철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해양관광도로 예타 면제, 한전공과대학교 유치 등 전남 미래발전의 기폭제가 될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미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구체적인 비전이 부족했다.

이에 2019년 6월 민선 7기 출범 1년 기자회견에서 섬, 해양, 하늘, 바람, 천연자원 등 전남의 풍부한 블루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만들 새천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를 제시했다.

2019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등 정재계 인사와 600여명의 도민과 함께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은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블루 트랜스포트, 스마트 블루 시티 등 5대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이 가진 풍부한 청정자원을 지속가능한 혁신적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승화시킨 새롭고 야심찬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9년 8월에는 블루 농업을 추가한 5대 프로젝트로 확대하고 비전을 구체화할 신규시책을 발굴했다.

2020년 12월에는 블루이코노미 100대 추진과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총 75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미래발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 청정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제시했고, 3대 목표로 ▲일자리가 넘치는 전남 ▲활력이 넘치는 전남 ▲매력이 넘치는 전남을 정했다.

전라남도는 블루이코노미를 통해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인당 소득이 전국 광역지자체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그 결과 개인소득은 2021년 2,010만원으로 전국 10위를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1년말 기준 블루이코노미 핵심사업 20건이 2조 9,183억원의 규모로 국고예산에 대거 반영하는 등 블루 이코노미 목표 달성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정책개발1팀장 김성원, 담당자 류두송

나.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선도형,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포용 사회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 하에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2+1 정책으로 구성됐다.

이에 전라남도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전남형 뉴딜사업 발굴에 나섰다. 발굴된 사업은 총 91건 8조 4,500억원 규모였다.

2020년 12월에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기 위해 전남 새천년 미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와 연계한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전남형 뉴딜을 통한 '2030 전남 행복시대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공간뉴딜 등 3대 분야에 162개 80조 2,841억원 규모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2021년에는 NHN엔터프라이즈와 3,0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순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디지털 뉴딜 추진을 가속화했다.

또한 2022년 연구개발(R&D) 분야 정부예산에 72개 사업 2,14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전남형 뉴딜 실현 가속화에 탄력을 얻었다.

한편, 전남형 뉴딜의 성과는 정부에서 인정받아 전라남도는 2021년 2월 디지털 뉴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년 4월에는 8.2GW 해상풍력단지데이터신산업 선도에 대한 공로로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분야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초광역협력 사업과 지역 내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전남형 뉴딜의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정책개발1팀장 김성원, 담당자 류두송

다. 정부 재정분권 대응, 균형발전예산 2조 4천억원 확충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재정분권은 2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2019년~2020년)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10%p)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2단계(2021년~2022년)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소비세(4.3%p)를 전환하고 국가사무를 이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에 유리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농어촌·낙후지역과 관련성이 많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무를 이양함에 따라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지방소비세율 상향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재원이 대폭

확충되는 반면 민간소비가 낮고 농어촌지역이 많은 비수도권 지자체는 재원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반면, 그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균특사업이 비수도권 道를 중심으로 이양되었지만, 그에 대한 재원은 2022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비수도권 道는 사실상 이양사업의 축소·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재정분권으로 인한 재정확충 효과는 수도권이 크고, 재정부담 비중은 비수도권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도는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국 최초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타 지자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연대하고, 국회·중앙부처·자치분권위원회 등을 3년여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의하고 설명하였다.

2019~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BH, 국회, 중앙부처,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지방재정의 형편과 어려움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전남도 주도로 전북, 경북 등 7개 비수도권 道, 전국농어촌시장군수협의회, 전남도국회의원과 연계하여 국회, 정부 등에 재정분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9차례 제출하였으며, 민주당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한 결과, 정부는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여 재정분권 2단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당초 2022년까지만 보전하기로 한 1단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예산을 2023~2026년까지 4년간 연장 보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낙후지역 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였다.

2026년까지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보전을 연장함에 따라 전남도는 2023년부터 4년간 매년 6천억 원씩 총 2조 4천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농어업 기반정비, 상수도 시설 확충 등 계속사업과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신설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전국 89개소, 전남 16개소) 주도적으로 맞춤형 인구활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추진부서 **예산담당관 정현구, 공모사업지원팀장 이선호, 담당자 양선**

3-2.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전남 구현

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총력 대응

전라남도는 2020년 1월 국내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전부터 방역대책반을 구성, 호흡기 질환자 모니터링과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31일 13개 반으로 이루어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력 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마스크 대책반을 구성하여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공적마스크를 확보해 수급 안정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체온계, 신속항원검사키트(RAT) 등 방역물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방역현장, 집합금지시설, 취약계층 등에 적극 지원하였다.

주요 감염 경로였던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의무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인천공항 안내소를 운영(2020년 4월~11월)하는 등 지역으로 유입되는 감염원에 대한 밀착 관리를 통해, 전국 대비 최장기간 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2020년 2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지역 특산품(보성녹차, 광양 매실, 무안 양파 등) 및 사랑의 도시락(12,980개)을 지원하였으며,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타 시·도 확진자를 도내 병상에 수용하는 등 지역의 한계를 넘어선 초광역적 협력을 통해 감염병 극복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남도는 중국 충칭시(市)・쓰촨성(城), 미국 메릴랜드주(州) 등 15개 지역과도 마스크(32만장), 의료용 장갑(14만장), 의료・방호복(1만벌)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우호 증진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유래없는 감염병 대유행 방역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사적 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고위험시설 진단검사, 방역수칙 점검 등 행정명령과 방역대책의 강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도민 불편을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방역 대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명절・연휴기간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 및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핀셋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5차례에 걸쳐 총 2,415억원 규모의 전라남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상품 판촉 행사(드라이브스루,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 공공요금 지원,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 분야별 생활밀착형 시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과 희생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확진자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순간까지 촘촘한 방역대책과 도민 안정지원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2022년 4월 현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23,024명(17개 시·도 중 16위)

【 코로나19 주요 타임라인 】

2020		2021		2022	
2.4.	코로나19 대응체계 마련	1.1.	코로나19 전담부서 감염병관리과 신설	1.4.	코로나19 발생률 전국 최저 * 인구 10만명당 전국평균 1233명, 전남 331명
2.6.	도내 첫 확진자 발생	2.2.	3·4차 민생지원 (68억원, 31억원)	1.14.	먹는 치료제 투약
4.23.	1차 민생지원 (1,574억원)	2.22.	신속 PCR 검사 시범도입	1.27.	자가진단키트 신속검사 실시
8.20.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2.25.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	2.3.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19진단검사 실시
8.25.	코로나19 환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4.15.	지역예방접종센터 일제 개소	4.18.	거리두기 해제
9.24.	2차 민생지원 (79억원)	9.6.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1인당 25만원)	4.25.	60세 이상 4차접종 실시
10.29.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진단검사 시스템 도입 (검사역량 2배 확충)	9.15.	5차 민생지원 (204억원)	5.2.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11.24.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1.1.	위드 코로나 시행 (사적모임 12인)		
12.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1.12.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80% 돌파		
12.28.	찾아가는 이동(버스) 선별검사소 운영	12.1.	코로나19 치료체계 재택치료 중심 전환		
		12.18.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4인)		

추진부서 **자연재난과장 김운형, 자연재난관리팀장 이경종, 담당자 마동율**

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

전라남도는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도로교통 환경, 고령층 증가 등 악조건 속에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전라남도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2차선 도로 비율이 높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인구 비율이 23.5%(2020년기준)에 육박하고 있어 사고 발생에 따른 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017년에는 38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도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였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교통안전 의식 제고 등 사고 예방을 위한다양한 정책을 개발했다.

교통안전분야의 예산도 2018년 151억에서 2022년 478억까지 3.2배 증액하여 교통환경 및 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387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1년에는 256으로 33.9% 급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 2018년 335명 → 2019년 294명 → 2020년 281명 → 2021년 256명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안전총괄과장 심우정, 안전총괄팀장 오미경, 담당자 이지민, 천재영**

다. 도민안전공제보험 실시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에 의해 사망, 후유장애 등 인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조기 생활안정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농기계 사망사고 등 해당 인적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다.

전라남도는 도민들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7월 9일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억 7백만원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였으며, 409명의 도민들이 21억 3백만원의 보험료를 보장받았다.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방송, 신문, 온라인, 포스터, 현수막 등 가용매체를 총동원하여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장항목을 늘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안전총괄과장 심우정, 안전총괄팀장 오미경, 담당자 황익영**

3-3. 재난 대응체계 확립

가. 사회재난사고 예방 및 관리기능 강화

전라남도는 각종 사회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 · 대처하기 위해 재난유형(44개)에 따라 단계별 조치사항 등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행동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지휘부 · 대응요원의 행동절차 등을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 또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 대책을 수립 · 운영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재난 대비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실제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민 · 관 · 군 · 경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훈련에 따른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훈련 참여기관의 확대, 현장훈련 강화,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 등 재난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조수-태풍에 의한 해양 오염사고를 가정한 현장대응훈련을 개최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전국적 시범훈련을 실시하여 중앙부처, 타 지역의 벤치마킹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훈련을 하지 않고, 토론 및 도상훈련으로 대체했다.

추진부서 사회재난과장 김성훈, 사회재난대응팀장 정해상, 담당자 이세열

나. 자연재해 저감 대책 수립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총 40개이며, 도내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13개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강우 현상이 빈발하고, 특히 전남도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여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섬진강, 영산강, 보성강, 탐진강 등 국가하천 7개소와 지방하천 556개소가 있으며, 지방하천 개수율은 39.4%로 전국 평균(48.0%)에 비해 약 8.6%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2021년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기타재해 등 7개 분야 1,875개소의 위험지역에 대한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천 위험지구 598개소에 대한 홍수 방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개수계획을 하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하였다.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 자체의 안정성이나, 붕괴 여부, 붕괴 시기, 붕괴 규모, 피해정도 등의 예측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해빙기 정기점검과 함께 별도의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456개소의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서·남해안의 해안재해 위험지역은 이상 파랑 감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청·해양경찰청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조제 개보수, 해안도로 옹벽 설치, 해안 방재림 조성 등 구조적 저감 대책을 동시에 수립해 해안 월류·월파 등의 고파랑 재난에 적극 대비하였다.

그 외 244개의 내수 재해위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 우수관거 정비 토사재해(232개소) 및 바람 재해(3개소) 위험지역 등 도민을 위협하는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한 전남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자연재난과장 김운형, 자연재난관리팀장 이경종, 담당자 마동율

3-4. 도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

가. 지역산업 맞춤형 고용기반 구축

전남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 여건과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산업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광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과 시군 주도의 근무환경 개선 등 일반 소규모 일자리 사업의 2가지 유형(프로젝트, 일반)으로 나뉜다.

2021년도 사업추진 결과, 프로젝트 사업은 그린·디지털 뉴딜 인력매칭 프로그램 등 7개 사업으로 총 1,464명이 취·창업하였고, 일반사업은 10개 시·군, 19개 사업을 통해 23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022년에 전남도는 프로젝트 사업비로 전국 최대인 국비 34억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11억원을 더해 총 45억원을 지원하여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반 사업은 12개 시·군 20개 사업에 47억원을 지원하여 424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산업체의 훈련수요 조사를 통해 확보한 수요를 기반으로 재직자 능력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가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공동 훈련센터와 파트너 훈련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전남도는 2017년부터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시·군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인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이 직접 또는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을 기획·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양성, 창업 및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일자리창출팀장 김초옥, 담당자 조혜민

나. 전문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전남도는 일자리정책 기획, 집행, 평가,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을 '(재)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일자리 전담지원 조직을 확충하고, 지역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전남 동부권 및 서부권에 각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는 일자리 창출 동기부여, 우수사례 공유, 기업의 고용안정화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도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과 일자리창출을 연계·관리하는 '일자리 창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목표 관리제는 전남도가 재정을 투입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행하게 함으로써, 재정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3년간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고용부로부터 7년 연속 일자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에도 일자리 목표를 12만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매년 20개 선정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 결과, '고용 ⇨ 전라남도 지원 ⇨ 기업성장 ⇨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도는 미래 인재양성과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설기반을 구축하였다.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 함양을 위해 호남권 유일 진로 체험관인 '순천만잡월드'가 2021년 10월 개관하였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놀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들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28개 어린이체험관과 청소년의 다양한 관심과 주제로 꾸며진 34개 청소년체험관을 갖추고 있다.

'순천만잡월드'는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31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486억 원을 투입해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협력하여 일궈낸 성과이다.

또한, 신중년 공공고용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담 지원할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2022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순천에 들어선 일자리 지원센터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부터 일자리 매칭,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일자리 미스 매치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일자리경제과 최정운, 일자리정책팀장 송문정, 담당자 임지훈**

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를 일자리 표준 모델사업으로 선정해 2018년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였다. 일자리 부족으로 고향을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일자리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남의 대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마을 단위로 발굴·선정한 사업장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하여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해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청년고용 2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3년 차 정규직 고용승계 시 1,000만원의 지역정착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비대면, 그린에너지, 2차전지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출연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였다. 국가비전인 한국판 뉴딜과 전남의 미래비전인 블루이코노미를 담아낸 프로젝트로 기존 청년일자리 사업과 차별화를 모색하였다. 청년일자리 리쇼어링 프로젝트, 에너지 E-뉴딜 등 6개 분야로 구성된 프로젝트는 2021년 873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366개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청년이 선호하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남의 청년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타 지역 청년 200여명이 전남도로 전입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2022년부터는 기존 블루이코노미 6대 일자리의 분야를 전문화·구체화한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2.0'을 추진 중이다.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청년툰(TOON)일자리사업총 등 7개 분야로 구성된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2.0은 총사업비 210억원 규모로 800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청년일자리팀장 나소영, 담당자 이동미, 김양중

3-5.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가. 미래 신성장 분야 대규모 투자 유도

세계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산업 육성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글로벌 산업 재편에 대응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타 시도에 비해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불리한 여건에서도, 우리 도는 비교우위에 있는 청정 자원의 투자 매력을 적극 홍보하는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2019년 7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됐다.

특히 전남도는 전후방 연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력이 큰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이차전지, 해상풍력, 수소경제, 데이터센터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7월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포스코케미칼과 8천 2백억 원의 민선 7기 제1호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를 시발점으로 2019년 아이티에너지㈜·한국서부발전㈜ 컨소시엄과 1조 2천억 원, 2020년 ㈜한양과 1조 3천억 원, 2021년 포스코리튬솔루션㈜와 7천 6백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 민선7기 제1호 투자협약식(2018. 7. 5.) 】

추진부서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투지기확팀장 김대인, 담당자 김태이

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미·중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장기화 등 민선 7기 동안 국내·외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전남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대면 투자유치 설명회, 찾아가는 소규모 대면 IR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투자상담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 이후에는 기업 방문 등 대면 활동이 제한됐다. 이에 전남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기업인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비대면(온택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맞춤형 소규모 IR 등을 추진해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이와 더불어, 2020년 10월 우리 도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최대 1천억 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했다. 2021년 2월에는 유치기업지원팀을 신설해 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밀착 지원으로 투자실현을 제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후관리에 힘쓰는 등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증설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 결과 전남도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02개 기업과 27조 8,461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에는 미국의 디렉스폴리머와 1,500억 원, 호주의 포스코리튬솔루션과 7,600억 원 등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기업 5개사와 1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2억불을 달성하는 등 최대 실적을 기록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비대면(온택트) 투자설명회】

추진부서 ●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투지기확팀장 김대인, 담당자 김태이**

3-6. 주력산업의 친환경·디지털화

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대전환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이다. 이런 산업단지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노화가 진행된다. 산업단지 내 설비가 낙후되고 오염물질이 증가한다. 정주여건이 나빠지면서 근로자는 떠나가고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된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현상으로 전남의 산업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광양만권 산단*은 전남 산단 생산액의 84.3%, 고용인원의 50.6%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제조업의 핵심 거점이다. 하지만 착공 50년이 넘은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광양만권 산단은 노후화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생산액은 37%, 수출은 50%가 감소해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 광양만권 산단 : 여수국가산단, 광양국가산단, 율촌1산단

전남도는 산업단지 노후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양만권 산단을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 중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10개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했는데, 전남의 여수국가산단이 여기에 선정되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란 기존의 산업단지에 Iot,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요소를 도입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전남도는 2021년 1월 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내 '여수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단'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2024년까지 38개 사업에, 1조 407억원을 투입해 저탄소·지능형 산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추진부서 **기반산업과장 고미경, 산단지원팀장 신준수, 담당자 김영빈**

나.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전남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2050 전남도 탄소중립 종합비전'을 실현할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전남의 주력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이다. 전남지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4%를 차지해 '탄소중립, 클린 전남구현' 핵심분야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철강 48.3%, 석유화학 32.7, 조선 0.3%이다.

전남도는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관련 협회, 연구소, 대학, 기업 등 전문가 32명이 참여한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TF'를 구성·운영했다. 그 결과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등 4대 전략 12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2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2030년까지 25%, 2050년까지 80%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철강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탄소 저감형·수소 환원 제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소 환원철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은 단기적으로 폐자원 활용과 함께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분해성 고분자 소재 PLA(Poly Lactic Acid)와 같은 석유계 원료 대체재 생산기술을 개발한다. 중장기적으로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조선산업은 단기적으로 선박용 고효율 에너지 절감 설비 실증·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연료전환 시스템 보급·확산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발굴한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국고사업 및 정부의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시켜 전남 주력산업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돕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추진부서 **기반산업과장 고미경, 산업정책팀장 장영철, 담당자 김래선**

3-7. 블루트랜스포트 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

가 . 차세대 미래비행체 산업 육성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6대 전략 중 하나인 블루트랜스포트 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차세대 미래비행체 사업을 선정하였다. 전남 고흥의 우수한 항공인프라와 연계해 드론기업 기술개발, 성능시험, 정주여건 개선, 정밀농업 운영 실증 등 기업지원체계 구축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산업용 중·대형 드론에 특화하고 드론택시, 플라잉카 등 차세대 개인 비행체 실증기반 조성으로 연관기업 집적화와 적기 시장 진출 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사업이 진행 중이다.

1) 우수한 항공(드론) 인프라 조성

전남도는 전국 최대 공역의 비행시험장이 고흥(직경 22km)과 광양(직경 8km) 지역에 조성되어 있으며, 고흥항공센터(2005~2012, 283억원)에는 활주로 0.7km와 비행선, 소행기 시험동과 착륙장치 및 우주항공 첨단소재센터(2005~2012, 193억원)가 구축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국토부 기본계획 및 비행 종합시험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한 선진국 수준의 유·무인기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1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 해 왔으며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이 사업은 산업부(2015~2022, 314억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와 국토부(2015~2021, 99억원, 항공안전기술원)가 주관기관으로 총사업비 413억원(국비 393, 지방비 20)을 투입해 길이 1.2km 너비 45m의 활주로 공사와 통제탑, 격납고, 항행안전시설 등을 구축해 연구개발 중이거나 개조한 항공기의 안전성과 성능검증에 필요한 필수시설, 장비 및 운영체계,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1단계 사업'은 소형 항공기 성능검증 등을 위한 기반시설만 구축되어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전남도에서는 2단계 후속 인프라 사업 건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인프라 확대를 통한 유·무인기 인증 통합체계 구축 및 글로벌 항공 산업 도약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이다.

2) 드론기업 입주환경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첫째, 국내 무인기(드론) 기업은 영세 업체가 대부분으로 비즈니스 환경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및 무인기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전남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 총사업비 198억원(국비 124.6, 지방비 73.4)을 투입해 부지 14,969㎡에 건축 연면적 9,246㎡의 지상 4층 25실의 드론기업 입주공간, 대회의실, 게스트하우스, 소규모 부품 제조시설을 구축했다.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12월에 완공되어 2022년 2월 일부 기업이 입주하였고, 다양한 기업 유치로 드론산업 생태계의 비즈니스 거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흥 항공센터 이용자가 급증[1]함에 따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건립되고 각종 무인기 안전성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나 기업 활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앞으로는 소규모 드론 기업의 입주를 유도해 드론 기술과 지식 창출의 혁신 등 무인기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산업용드론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급성장 중인 드론의 안전성과 시장 출시 전

1) 항공센터 사용자 : 2018년(6,009명) → 2019년(12,626명)→2020년(10,000명)

시험·평가 검증, 성능 개선 지원을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는 것이 목적이다. 초기시장 창출에 적합한 안전진단, 농업방제, 산림보호, 조종교육 등 산업용 드론의 공공수요 창출 및 전후·방 산업육성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의 주관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며 참여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7억원(국비 62, 지방비 50, 민자 15)을 투입한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전남실감미디어센터 내 공간을 활용해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 거점 개소와 사업을 운영을 위한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실증지원, 시험평가 및 기업활용 장비를 43점 구축 및 24건의 실증을 지원하며, 산업용드론활용과 시험평가 분야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해 인력양성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영상분석기술 기반 전력 서비스 실증환경을 구축해 드론기업 대상 시험 이력과 표준기체 및 사업화 정보를 공유해 기술확보 및 개발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데이터 정보시스템 위한 S/W 설계 장비 구축과 시험규격, 가이드라인 개발 및 평가서비스를 운용한 표준화 활동을 통해 시험데이터 정보 분석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고성능·고가장비 운영자, 시험평가원, 장비 개발자 등 중급 이상의 전문가 양성과 공급을 통한 드론산업분야 시설·장비 전문 일자리를 4년간 1,620명 창출할 것이며, 생산유발액 24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00억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산업용드론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실증사업 주요성과(2019~2021) 】

- (센터구축) 드론산업지원센터 개소('20.6)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간 활용
- (장비구축 및 활용) 장비구축 30건
- (표준활동) 산업용 드론 시험·평가 서비스 30건
-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11회, 교육 수료자 125명 이상,
  신규 고용창출 30명
- (보급확산) 네트워크 행사 8건, 온오프라인 홍보 60건 이상,
  현장실증 등 기술 사업화지원 42건, 드론시제품 제작지원 22건

셋째,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업현장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G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에 기구축된 드론 시험·평가 및 실증을 위한 인프라 및 스마트팜 혁신 밸리와 연계한 농업 분야 드론개발·운용의 최적지인 점을 활용해 정밀농업 운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총 사업비 164억 3천만원(국비 80억, 지방비 80억 3천만원, 민자 4억)으로 고흥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일원에 4개 작물(유자, 마늘, 양파, 벼) 사계절 농사 정보를 수집 및 분석 후 자동화된 영농 시스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IoT 기반 시스템 구축,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센싱 및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환경 기반구축, 실시간 관제 및 빅데이터 취합·분석을 위한 광역 드론 서비스 시스템 개발 지원, 임무장비 등 제품 성능 테스트 및 드론의 스마트 솔루션의 테스트베드를 구축 등이 있다. 광역 범위의 다양한 분야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제공 가능한 드론 요소기술 개발, 서비스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하고자 한다.

1차년도에 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 설계계약과 장비 심의를 완료

후, 2차년도에는 드론 활용 4개 작물(벼, 마늘, 유자, 양파) 데이터 취득 실증 용역을 추진하였다. 2022년 4월에는 드론 상업화실증지원센터 준공과 더불어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농림분야의 IoT기반 농업 운영 서비스의 Global Smart Valley 구현, 상업용 드론의 다양한 서비스 시장 구축 및 서비스 제공자 육성 등 민간 수요 시장 창출 및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드론 기반 농업 생육 환경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맞춤형 처방을 통해 농작물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실증 솔루션 전문 기업육성 등 농촌 산업의 컨버전스 유도를 통해 향후 10년간 고용 유발 7,340명, 부가가치 유발 1.4조원을 예상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넷째, 드론 시스템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0.5.1.)됨에 따라 드론 규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규제특례 지원에 따른 것이었다.

전남 고흥 지역 전국 최대 규모(직경 22km)의 유·무인기 종합 테스트 베드 시범 공역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우수한 항공 인프라라는 강점을 살려 국토교통부 공모에 신청한 결과 2021년 2월 10일에 최종 선정이 되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은 총사업비 8억원(지방비)를 투입해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통합 실증, 유인섬 장거리 물자수송, 초광역(비가시권) 방역의 3개 사업에 10개 기업이 참여해 2022년까지 다양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종료한 후 국내 드론산업 상용화에 앞장서고 도내 드론기업의 역량강화 및 판로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드론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 기반을 다지는 등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차세대 미래비행체 인프라 구축

최근 메가시티의 지속적인 증가와 2차원적 도시 교통망(도로, 지하철 등)의 교통밀도 포화에 따라 2차원적 도시 교통망의 한계 극복 및 도심 이동 시간 단축 구현을 위한 미래비행체 활용과 3차원 도시 교통망을 형성하고자 한다.

정부 합동(2020.6.)으로 발간한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체계(K-UAM) 로드맵을 살펴보면 ① UAM 선도국가 도약 및 도시경쟁력 강화, ② 교통혁신으로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③ 첨단기술 집약으로 제작·건설·IcT 등 미래형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토대로 2025년도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차세대 미래비행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첫째, 미래비행체 도심 운용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행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관련 '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 조성'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착륙장, 이동식 충전설비, 비행 모니터링·통제센터, 소음 측정 장비, 감시 레이더, 통신장비, 기체 탑제용 모듈 등의 시설 장비를 구축해 풍속·강우 등 환경 범위 내 기체의 정상작동 여부 통신·감시 지상 장비와 원활한 연계 작동 등을 실증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46억원(국비)을 투입해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일원에서 추진 중으로 2020년 7월부터 K-UAM 그랜드 챌린지 지정 건의 및 평가를 통해 그해 12월 최종 우리도(고흥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2022년 4월까지 환경영향성 평가 및 비행장 관련 법정계획 등에 해당하는 인허가를 득할 것이며 12월까지 고정형 및 이동형 충전장비 확보와 임무통제 통합관리시스템의 장비를 구매하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1단계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까지 고흥에서 개활지 실증 테스트를 거쳐 2단계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실증노선 테스트를 마친 후 2025년 일부노선 상용화를 추진 예정이다. 이는, 국내 최초 도심항공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구축을 하는 것으로 드론택시, 플라잉카 등 미래비행체 상용화의 선제적대응 및 신시장을 선점해 현대차,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등 앵커기업 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도심 운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와 비행안전성 기술개발의 선제적 대응 및 공중 충돌회피, 도심운용을 위한 내풍성 등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성능 입증 및 검증에 대한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비행안전성, 운용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85억원(국비 220, 민간 65)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율비행의 핵심기술과 검정하기 위한 비행시험 기술개발 및 관련 eVTOL 이착륙장, 기상측정국, 비가시권 운용 통신장비 등 비행시험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을 위해 전남도는 2020년부터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운용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 기획과 차세대 개인비행체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 기획하였으며, 2021년 5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모에 선정된 이후 사업착수 및 점검회의를 실시해 11월 시스템 설계 완료 후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핵심기술 국내 개발 및 시험평가 장비구축으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개발품에 대한 기술정보 해외 유출 등 보안 문제 해소, 비행시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eVTOL 상용화 개발을 가속화하여 기업에 세계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생산유발효과 1,415억원, 고용창출 775명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4) 육군과 전남도 간 차세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전남도에서는 차세대 드론산업 육성 및 특수목적 드론과 운영 매뉴얼 공동개발·실증활용을 위해 육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2020년 1월 신성장산업과장과 전투발전부장의 면담을 시작으로 육군 교육사령부와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2021년 1월부터는 제31사단, 특수전사령부, 교육사령부와 2월에는 제2작전사령부관과의 논의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에 육군 드론봇 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군 적용 시험·정비 분야 협업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상호 교류, 방호·재난특수목적 드론과 운영 매뉴얼 개발·실증 협력 등의 공동 사업 발굴 등이 목적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 결과 2021년 4월 2일에 육군 교육사령부와 6월 16일에는 2작전사령부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미래비행체 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였다. 전남 미래비행체 산업의 현안 사항 자문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폭넓은 정책 자문과 기획, 국내외 미래비행체 관련 동향 공유 및 대응 방안 마련의 주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미래비행체 산업의 선제적 생태계 구축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며, 드론산업의 최대 수요처인 군과 손을 잡으면서 전남 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함께 기업유치 등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을 기대한다.

이와 같이 전남도는 차세대 미래비행체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드론기업의 입주환경 조성,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군과 협력체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비행체 체계와 부품업체에서 필요한 시험시설을 국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미래비행체 연구개발의 기간 단축 및 가속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기술개발과 인증 전문 비행 시험장 구축에 따른 항공산업 기술적, 상업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시험 인프라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전남도가 항공우주 비행시험 중심도시로서 긍정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드론우주항공팀장 김효성, 담당자 정경화

나.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1) e-모빌리티 제품개발 및 인증·평가기반 구축

e-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형 운송수단을 뜻하는 용어로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전기자전거, 농업용 전기운반차 등을 뜻한다. 2018년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육성정책」 발표 이후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e-모빌리티 산업이 지닌 잠재력은 점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모빌리티산업 특성상 중소·중견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본력 한계로 인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증·평가기반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확충하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부지 51천㎡, 건축 1.6천㎡, 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e-모빌리티 핵심부품 및 차량 단위 실내외 성능 평가기반과 인증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하였다. 2022년 3월에는 건축 891㎡, 162억원 규모의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디자인·시제품 제작 장비·시설 구축 및 인증체계 개발을 완료하였다.

또한 e-모빌리티 부품의 안전성·신뢰성 평가·인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13억원을 투입, 초소형전기차 등 이동형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e-모빌리티용

소형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성능·내구성·신뢰성 평가를 위한 센터건립 및 시험 평가장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e-모빌리티 기업의 국·내외 인증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최근 고전력 기반(400V 이상) 기술 및 무선통신·충전기술이 적용된 친환경차량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전남도는 2021년 국내 유일의 고전압 차량 및 부품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에 돌입하였다. 총 20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강화된 국제표준에 적합한 무선전력전송 평가시스템 등 전자파 인증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개발·인증비용을 40% 이상 절감하고 해외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e-모빌리티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및 실증 추진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e-모빌리티는 중국산 제품·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후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국내 e-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품 국산화율 제고가 필요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정부R&D 및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활용하고 있다.

전남도는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전기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개발을 2019년에 착수, 2022년 3월까지 총 328억원을 투입하여 조향·제동·주행 장치 및 충돌 안전성이 검증된 하부차체 기술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초소형전기차 서비스 지원실증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총 43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농촌형 테마별로 다양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차량 및 운전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충전인프라 구축·운영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피드백 R&D를 추진해 초소형전기차 및 전후방산업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최근 공유중심 이동 패러다임 확산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기기(PM)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남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84억원을 투입하여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테마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공용 PM 핵심부품 개발 및 다양한 사용환경에 따른 실증을 통한 한국형 통합 이동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과 연계한 다양한 이동서비스 개발 및 관련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e-모빌리티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R&D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도내 e-모빌리티 기업의 기술력 강화 및 연관 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e-모빌리티산업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동차산업에 기반한 법과 제도, 도로상황 등 규제에 막혀 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2019년 8월, 영광·목포·신안군 일원(37km, 2,731㎢)을 국내 첫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으며 초소형전기차·전기이륜차·농업용 동력운반차·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 등 5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실증 특례를 진행하고 있다.

분 야	현 행 규 제	실 증 특 례
초소형전기차	• 자동차전용도로 운행금지	• 자동차전용도로 진입허용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금지, 1인탑승	적재함 설치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충전 3시간 이상, 25km 이상	1회충전 2시간 이상, 17km 이상
	1인승, 적재량 200kg 이상	2인승, 적재량 100kg 이상 완화
전기자전거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주행금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주행허용
	모터출력 제한(350W)	500W 미만 허용
개인용이동수단(PM)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금지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운전자 오토바이용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면제

2021년말 기준으로 총 4건의 실증특례를 법 개정 완료를 통해 종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의 실증특례는 2023년까지 법·규제 개선을 통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5월, 전남도는 e-모빌리티 기업 5개사와 영광 대마 전기차산단에서 투자액 643억원, 고용 238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중소 혁신기업의 민간투자를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삼아, 규제자유특구 성과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4) e-모빌리티 기업 지원 및 육성

전남도에서는 2018년부터 e-모빌리티 기업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e-모빌리티 기업의 도내 투자 유도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주도의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과 e-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7억 5천만원을 들여 18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기업 매출 25억원 증가, 고용창출 15명, 특허

1건 및 지식재산권 3건을 획득하였다. 2021년부터는 e-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드론 기업까지 확대하여 총 17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영광 대마전기차 산단에는 e-모빌리티 연구시설 및 인프라와 관련 기업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활용 공간이 e-모빌리티 연구센터 내 기업 공동연구실 및 사무실로 한정되어 있어 2019년부터 e-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물로, 전남도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을 확보하였다. 2023년까지 총 293억원을 투입하여 영광 대마전기차 산단 내 부지 57,470㎡, 연면적 12,037㎡,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을 조성, 기업입주공간(47실), 회의실(3층), 창작스튜디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 전남도에서는 영광 e-모빌리티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그 결과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기업 공동활용 가능한 e-모빌리티 생산 설비 구축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중앙부처, 국회방문 등 지속 건의를 통해 해당 국비를 확보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지원 범용 시설장비인 사출성형기, 조립용접, 전착도장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까지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 구축된 장비들을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활용토록 함으로써 생산단가 절감 및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5) e-모빌리티 수요 확대

가) e-모빌리티 보급·확산 중기계획 추진

2019년 7월 전남도는 e-모빌리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개최 결과 전남이 e-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하고 시장 공급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e-모빌리티 보급·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e-모빌리티 보급·확산 중기계획'을 수립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내 e-모빌리티(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농업용 전기운반차) 5,043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8년말 기준 도내 e-모빌리티 보급대수는 220대 수준이었으나,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22년 말에는 도내 e-모빌리티 보급대수가 22.9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대상으로 e-모빌리티 구매를 권고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수요 증가를 위해 기후생태과에서는 도내 생산 e-모빌리티 및 전기이륜차 제품에 구매 시 도비 추가 보조금(초소형전기차 80만원, 전기이륜차 48만원)을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식량원예과에서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도내 생산 농업용 전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대당 평균 385만원)을 20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도내 e-모빌리티 보급 실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장기 계획대비 총 146% 초과 보급을 달성하였다.

【 연차별 보급계획 및 실적 】

(단위 : 대)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5,043	353	1,030	1,530	2,130
실적	4,259	365	1,578	2,316	-

나)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추진

전남도는 e-모빌리티 구매 보조금 외에도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2022년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시범사업(2억 6,600만원)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 또는 전기이륜차 리스 계약 체결 시 이에 따른 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한다. 월 지원금액은 초소형전기차는 대당 월 10만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2만 5천원이다.

전남도는 도내 e-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

다) e-모빌리티 엑스포 추진

전남도는 2018년 국내 최초 e-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엑스포를 영광에서 개최하였다. 엑스포에는 국내·외 e-모빌리티 기업과 바이어들이 참여하였고, e-모빌리티 제품 전시 및 시승체험과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국내 e-모빌리티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은 물론 국내 최대 e-모빌리티 B2B(기업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시장을 형성하였다.

2018년에는 17개국 120개사, 관람객 8.7만명이 참가하였고, 해외 바이어 현장 수출상담회 결과 42개 기업에서 2,8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2019년에는 20개국, 165개사, 관람객 12.5만명이 참가하였고, 수출상담 181건, 수출계약은 5개 기업 4,900만불을 달성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를 취소하였으나, 2022년 9~10월에는 엑스포를 개최하여 e-모빌리티 종합 마케팅의 장을 마련해 e-모빌리티 수요를 창출하고, 국내 e-모빌리티 기업의 해외 수출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미래형자동차팀장 황재필, 담당자 이경미

3-8.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확충

가.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토대 마련

민선 7기 전남도는 새로운 지역 혁신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블루바이오, 전남」프로젝트를 토대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정했다.

지역의 풍부한 바이오 자원과 메디컬(의료)자원을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전남을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남 바이오산업을 책임질 약 1조 6천억원 규모의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2018년부터 국가사업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그 결과, 2010년 지정된 국내 유일의 백신 특화 특구인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연구개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비임상), 화순전남대병원(임상), 미생물실증지원센터(위탁생산), GC녹십자(대량생산) 등 17개 전문 지원기관과 31개 기업이 입주하여 백신·의약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서 보듯이 글로벌 감염병에 대한 백신개발과 생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대비해 전남도는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국가백신산업을 꾸준히 집적화해왔다.

특히, ▲국가 미생물실증지원센터(836억)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460억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430억원) ▲국가 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기능확대(427억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339억원) ▲천연물 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200억원) ▲E형 간염 예방백신 개발사업(30억원) 등 굵직한 국가사업 유치에 성공한 것도 손꼽히는 성과이다.

향후 전남도는 백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오는 2026년까지 총 2,5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240억원)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플랫폼(200억원)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조성(184억원) ▲치료백신 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 사업(88억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백신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진부서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호범, 백신신약팀장 조석현, 담당자 김효석

나. 천연물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전남은 전국 최대 5,200여종의 생물자원(육상·산림 3,400종, 해양 1,800종)이 자생하고 있고 해조류 생산량의 86%를 보유하여 천연물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일찍이 천연물의 성장 가능성과 중요성에 주목하여 전남 천연물 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비전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46개 과제에 총 9,819억원을 투자해 천연물 산업 매출 3조원을 달성하고 25종의 히트상품을 개발하며 매출 50억원 이상의 앵커기업 100개사 육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소재생산, 제품화에 이르는 천연물 전주기 산업화 인프라 구축하였다. 연구개발에 ▲천연자원연구센터·한약자원연구센터·해양바이오연구센터 등 연구기관을 설립·유치하고, 소재생산에 ▲천연물의약품원료 플랜트시설(화순, 200억원)과 천연물 건조지원시설(장흥, 100억원) 구축, 인증·

시험에 ▲전임상시험(KTR)과 임상시험(화순전남대병원) 기관을 연계하여 전주기 산업화 인프라를 갖추었다.

전남의 전주기 산업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천연물 DB 1,500종 보유, 기능성 규명 271건, 특허등록 264건의 성과를 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5종(울금·비파잎·차즈기·로즈힙·복분자) 제품 출시, 천연물의약품 신약후보 2종(멀꿀 잎 · 모새나무 잎) 발굴 등 독보적인 연구성과를 이루어 냈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8건의(정액기술료 10억원, 경상기술료 0.3~3%) 민간기업 기술이전을 통해 천연물 고부가가치 창출과 기술이전 기업과의 계약재배(차즈기·멀꿀·모새나무)를 연계하여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선 7기에는 천연물 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90억원)을 추진하여 천연물 기업에 기술지원(기능성 분석·품질보증·추출 기술향상 · 해외진출 컨설팅 등), ▲기능성 특산자원 산업화(12억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전임상 9건, 임상 6건 등 도내 중소 바이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앞으로 전남은 산업화 위주 연구개발과 소재생산 인프라를 집중 구축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에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 웰웨이징 기술개발(116억원), 소재생산에 ▲해조류 활성소재 생산시설(완도, 250억원)과 진균류 소재 상용화 실증시설(장흥, 216억원)과 해조류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완도, 160억원), 기업지원에 ▲천연물 융·복합 지식산업센터(순천, 320억원)과 기능성 천연물소재 사업화(12억원)를 지원하여 전남의 미래산업으로 천연물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천연물의 조기 산업화 성공을 위해 산업화에 필수적인 국제규격의 표준화 시스템 확립과 인증할 국가기관을 유치해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 천연물 산업을 선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호범, 백신신약팀장 조석현, 담당자 이광주**

3-9.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발전사업

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기 조성

전남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계획용량 30GW 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특히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신안군 해상 일원에 단일 단지 세계 최대규모인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48조 5천억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풍력발전기 생산·조립 단지 구축,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송전선로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앵커기업 및 연관기업 450개를 유치·육성하고 12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단계별 조성계획 】

기반시설 구축 (2020~2030)	1단계 4.1GW (2020~2026)	2단계 2.1GW (2023~2027)	3단계 2GW (2026~2030)
▸ 송전선로 2.3조원 ▸ 목포신항만 지원 부두 등 2,180억원 (해수부)	▸ 투자 21조원 ▸ 일자리창출 58,755개 ▸ 기업유치·육성 150개	▸ 투자 12.7조원 ▸ 일자리창출 30,091개 ▸ 기업유치·육성 150개	▸ 투자 12.3조원 ▸ 일자리창출 28,660개 ▸ 기업유치·육성 150개

전남도는 2021년 2월,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산업과가 신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주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 제도개선에 총력을 다해 왔다.

특히 전남 해상풍력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상생이 핵심인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로 삼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산업과 공존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 중에 있다. 2021년 9월에는 도 조례를 제정해 이익 공유 및 수산업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11월에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2021년 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안을 방문해 해상풍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그간 전남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제도적 기반이 하나하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우선, 습지보호지역 내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습지보전법 시행령'과 'REC 가중치 상향 고시', '공동접속설비 한전 선투자 고시'가 개정되어 해상풍력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2021년 5월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5~6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2년 10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선도사업 첫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집적화 단지'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역점 추진할 방침이며, 8.2GW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해상풍력산업과장 조석훈, 상생일자리팀장 고경희, 담당자 이창용**
사업협력팀장 박영남, 담당자 한미강

나.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전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체계적인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으며, 목포신항 배후단지 등 업종별 산단 조성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앞으로 목포 신항만과 대양산단, 영암 대불산단과 용당산단, 해남 화원산단, 신안 압해산단, 여수 율촌산단 등을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해 전남을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연관 산업 분야가 다양하고 신산업 창출이 용이한 미래산업이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을 통해 기존 지역산업을 대전환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사업 진출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12월, 국내 해상풍력 핵심 기자재업체 9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1년 6월과 202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세계 1위 터빈사 베스타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술력 현지화 및 글로벌 수준의 부품 공급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상생 주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



【 세계 1위 터빈사 베스타스 MOU(2021. 6. / 2022. 3.) 】

또한, 기자재업체 산업단지 확보를 위해 목포신항에 지원부두와 배후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목포신항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장비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남 해상풍력의 종합 컨트롤타워가 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국가 차원의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 연구소' 설립과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상풍력 O&M 전문 교육기관' 설립 등 신규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해상풍력산업과장 조석훈, 해상풍력사업팀장 배용석, 담당자 문광제

다. 미래 청정에너지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수소산업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광양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단기적으로는 그레이·블루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전주기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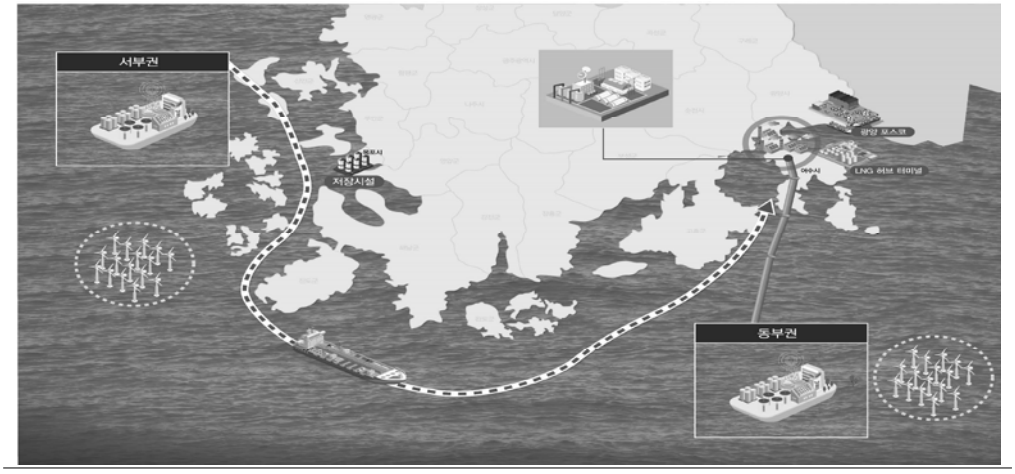
이를 위해 그동안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그린수소 핵심기술 R&D, 수소산업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 수소산업 육성 추진실적 】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에너지 섬 조성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산업부, 10억원) **국비 반영** 건의	
	정부시책 **수소 특화단지** 및 **시범도시 지정** 준비	
그린수소 핵심기술 R&D	R&D공모 **수전해시스템(1MW)** 신뢰성 제고 **성능시험센터** 구축(2021~2024, 237억원)	2021년 산업부 공모 선정
	국고건의 **대용량(3MW) 수전해 단일스택** 기술개발 및 실증(2023~2026, 200억원) **그린수소 수전해 인증센터** 건립 추진(2023~2025, 280억원)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산업체 연계 산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덕양** | **2021.6.4.** - 수소출하센터 구축사업 추진(2021.~2022, 70억원)	2021년 산업부 공모 선정
	• **포스코, 효성 등** | **2021.6.~2022.1.** -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5회, 13개사)	수소기업 MOU 체결
	• **남해화학, 삼성물산** | **2022.하반기** - 그린 암모니아 도입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수소산업 TF팀 전남도·에너지공대·출연기관 등 「**전남 수소산업 육성 TF팀**」 구성·운영(2021.10.~)	

대규모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생산을 연계하는 '에너지 섬' 개발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덴마크의 '인공 에너지 섬' 계획(북해 80km 해상, 약 38조 원)을 거울 삼아 도의 역점사업인 대규모 해상풍력과 풍부한 자연자원(섬)을 연계하여 수소 생산·저장·운반까지 가능한 그린수소 에너지 섬을 조성할 계획이다.

【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계획 】



에너지 섬(동·서부권)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를 여수산단에 공급, 탈탄소화 추진

2022년 1월에는 전남의 그린수소 메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담은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청정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19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11만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남이 국가 그린수소 중심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2022~2031 / 19조 346억원) 】

❶ 도입기 (2022~2025 / 1,005억원) : 수전해 R&D 등 그린수소 생산 준비
❷ 정착기 (2026~2027 / 3,667억원) : 운송·활용 인프라구축 등 생산기지화 조성
❸ 확산기 (2028~2031 / 18조 5,674억원) : 에너지 섬 조성 등 그린수소 생태계 완료

추진부서 해상풍력산업과장 조석훈, 수소산업팀장 우삼식, 담당자 박상옥

3-1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채택되어 2017년 7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학교 부지를 나주혁신도시내 부영CC로 최종 확정(2019.1.28.)하였다. 이후 2019년에 설립 기본계획 의결 및 국무회의 보고 후 2020년 정식 대학 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완료했다.

2021년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및 시행령 제정, 특수법인 설립, 캠퍼스 착공, 학생모집, 개교핵심시설 임시사용 승인 등 대학설립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준비되어 2022년 3월 개교하였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까지 학부생 108명, 대학원생 49명을 선발하고 교직원 70명을 채용하였다. 2025년까지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을 선발하고 교원 100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교수진은 에너지 AI,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 에너지 신소재 등 5대 중점 연구분야에서 기존 대학과 차별화되는 도전적·고난이도 연구와 혁신 교육을 담당할 계획이며, 총 50여명의 교수가 영입되었다.

전국 최초의 공공형 특수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에너지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전남도가 글로벌 에너지융복합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 입학식】



【설립 유공 감사패 수여식】

추진부서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기획총괄팀장 이용우, 담당자 신태희

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국에너지공대 인근에 40만㎡ 규모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러시아의 스콜코보 등

세계 각지의 국가 첨단기술 개발 연구·창업 단지 모델과 같이 발전시켜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1년 8월 전남도, 나주시, 한전, 한국에너지공대는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관련 토지거래 제한 및 부지개발과 조성계획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2022년 2월에는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력기반시설, 공동캠퍼스, 연구소 R&D, 산업벤처기업 등을 모으는 세계적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다.

향후 2050년까지 핵심기관 30개(글로벌 15), 연구기업 100개, 유니콘 기업 3개, 창업기업 300개, 기업 에너지밸리 추가입주 1,000개, 매출 100조, 일자리 6만개 창출을 목표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국가적 차원으로는 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자원을 확립, 지역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추진부서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기반조성팀장 남건, 담당자 송형근

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전남도는 지역 기초과학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연계한 국가 대형연구시설로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전남도·나주·한국에너지공대가 공동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분석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같은 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 로드맵을 수립했다.

전남도는 관련 분야의 대학, 정부출연기관, 학술단체 총 16개 기관·단체와 2차례 걸쳐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아울러,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대대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구심점을 마련했다.

2021년 9월 한국과총 등과 공동으로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대학, 기업, 정치계 등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축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반도체, 의료, 군사, 우주·항공, 정밀 제조 등 미래 신산업 혁신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역 중간 보고회】



【 업무협약체결식】

추진부서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대형레이저유치팀장 김유진, 담당자 박용규

3-11. 사회기반시설(SOC) 르네상스 시대 조성

가. 도민 숙원 SOC사업 국가계획 반영

2021년 정부에서는 도로, 철도 등 5년과 10년 단위의 SOC사업 국가계획을 발표했으며, 전남도는 총 17지구 14조 7,061억 원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전라선 고속철도를 비롯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3개 사업, 9조 750억 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에 반영되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는 광주~완도 2단계(강진~완도), 광주3순환(나주 금천~화순) 2개 사업, 2조 7,834억 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오랜 숙원사업이던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 등 10개 사업, 1조 7,859억 원이 반영되어 2022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고흥~완도, 고흥 봉래 2개 구간은 20년 만에 국도로 승격되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앞당기게 됐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인근 시군의 공동생활권 지원과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광주 하남~장성 삼계, 대촌~금촌을 잇는 도로 사업 1,610억 원과 광주~나주를 잇는 광역철도 1조 5,235억 원이 반영되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국가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들에 대한 설계 및 보상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도로계획팀장 조선희, 담당자 김재곤·류원식

나. 교통기본권 확충

전남도는 도민 행복을 위한 교통기본권 확충을 위해 육지, 하늘, 바닷길 연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비가 보조되는 중군~진상 등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은 4,202억원을 투자해 42㎞를 공사 중이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신규 반영된 나주 금천~화순 도암, 장성 동화~서삼간 2개소는 설계 중이다.

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사업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선 7기 6,095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준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영산강 강변도로 등 10개 사업은 완료됐고, 장흥 유치~화순 이양 등 35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다. 향후 27개 사업은 설계 완료 후 순차적으로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연륙 · 연도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9년 이후 천사대교, 칠산대교, 임자대교, 추포대교, 여수 화양~고흥 적금을 잇는 4개 교량이 건설 되었고 압해~화원 등 10개소 교량은 1조 7,63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다.

철도 부분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고막원~임성리)과 보성~임성리 철도(남해선)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 송정~순천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목포역, 광주송정역과 부산 부전역 사이를 잇는 경전선 등 전 구간 전철화 및 개량이 완료되면 목포~부산까지 최대 6시간 30분대 운행 시간이 2시간 20분대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남해안 전 지역이 반나절 생활권역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하늘 길을 여는 흑산공항은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국립공원 총괄협의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2022년 4월 현재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개최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반기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 고시가 완료되면 연내 공사를 착공하여 흑산도와 서울을 1시간대 연결하게 된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도로계획팀장 조선희, 담당자 김재곤 · 류원식

3-12. 도민행복 향상을 위한 핵심동력 확보

가. 지역성장거점 육성

1) 도시재생사업

전남도는 도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재창조하고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을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총체적 쇠퇴원인에 의해 나타난 지역의 주거, 복지, 문화, 경제, 환경 등 문제로 지역개발 단일사업으로 일시에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의 쇠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조직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주민주도와 행정공공기관의 역할 배분에 중점을 두어 주민주도의 점단위 마을개발사업과 도시전체의 공공주도 재개발, 산업구조 재편과 같은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어 지역 활성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중이다.

아울러,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 도는 도시의 경쟁력 강화·정주 환경의 안전성 확보·도시환경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선정을 통해 국비 3,979억원을 확보하여 22개 시·군 90개 지역에서 총 9,246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만의 특색있는 지역문화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력있는 도시로의 발돋움에 한걸음 더해가는 중이다.

추진부서 지역계획과장 송광민, 도시재생팀장 윤환기, 담당자 장호훈

2) 지역개발사업

전남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개발계획은 10년(2018년~2027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과 지역의 성장을 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개발계획은 22개 시·군에 134개 4조 9,030억원(국비 8,608억원, 지방비 1조 2607억원, 민자 2조 7,815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한다. 공모사업인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과 투자선도지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36개 785억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 배후권역, 광양만 성장거점권역, 다도해 발전권역, 남해안 연계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지역개발계획사업은 권역별 특색에 맞게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주력사업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과 지역이 보유한 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거점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리 도가 직면한 인구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추진부서 **지역계획과 송광민, 산단지역개발팀장 김성수, 담당자 박은석, 추윤재**

나. 교통편의 확대

전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22개 전 시·군에 총 182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교통약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2021년 9월 1일부터는 교통약자 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89대를 도(道)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에 더한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하던 대기시간 단축 효과와 택시업체 종사자의 안정적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는 교통 오지마을 도민들을 위해 100원 택시를 1,331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다. 외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100원 택시는 수요 응답형 콜택시로 “100원만” 내면 가까운 버스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100원 택시 사업을 통해 오지마을 주민이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택시업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100원 택시 등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교통기획팀장 이병권, 담당자 위문일, 정영준**

다. 도민 주거복지 실현

전남도는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업과 도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이 있다.

주거약자를 위한 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건설, 행복둥지사업, 주거급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이 있다. 다수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행복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2021년까지 3,484세대 공급했고, 2024년까지는 6,494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는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는 행복둥지사업과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주택수선을 지원하고 일정 임차료를 지급하는 주거급여 지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편의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비, 공용시설물 등의 보수비 지원사업과 1976년부터 추진해 온 연 2%의 이율로 최대 2억원을 융자해주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농어촌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따른 빈집 발생으로 마을경관 저해 및 주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1974년부터 꾸준히 빈집을 정비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에 맞는 주거정책 발굴과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주택행정팀장 김지호, 담당자 김상수

라. 디지털 지적 구축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도는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변형・마모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대한민국 전 국토의 15% 가량이(전남도 14%)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여 토지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개인 간 소송 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800억 원에 이르렀다.

전남도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계로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아날로그 방식의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30년도까지 569만 필지에 대해 국비 1천8백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국비) 372억 원을 투입하여 362개 지구, 216,024필지를 추진 완료했다. 재조사사업을 10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재조사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민선 7기로 4년간 국비 확보율은 3배, 추진율은 2.7배로 수직 상승했다.

2022년에는 99개 사업지구 68,416필지에 대해 사업비(국비) 13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지적재조사팀장 김성연, 담당자 김수현**

3-13.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강화

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1) 추진배경

전남도는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가소득 보전을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9년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됐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지급 방법 등 제도의 근간이 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 모델을 개발했다.

그 결과 2020년에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2021년에는 5개 광역지자체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시행했으며, 2022년에는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2) 추진과정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법적·제도적 여건 검토,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지급액, 시군과의 재정분담, 지급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도내 4대 권역별(중부남부권, 동부권, 서남부권, 광주근교)로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 7월 시장군수협의회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에 합의했다.

아울러 농어업경영체를 지급대상으로 연 60만원 지급과 2020년 사업 시행 등을 합의 내용으로 도지사, 시장·군수, 농어민단체 대표간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2019. 7. 25.) 했다.

2019년 9월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0년 4월부터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 권역별 공청회 】


【 도-시·군 관계관 회의 】


【 도-시군-농민단체 협약 】

3) 사업내용 및 주요성과

전라남도 공익수당은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 중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농어업임업 경영체 경영주 19만 1천 328명에게 1천 148억원을 지급했으며, 2021년에는 19만 7천 711명에게 1천 186억 원을 지급했다.

【 2020~2021년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현황 】

구 분	경영체등록 경영주 기준 (가구수)				예산분담액 (백만원)		
	계(건)	농업	어업	임업	합계	도비	시군비
2020년	191,328	181,348	9,797	183	114,797	45,919	68,878
2021년	197,711	186,313	11,330	68	118,626	47,449	71,177

아울러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민-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공익수당의 국가 정책화를 위한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정부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도내 20만여 농·어·임업 경영체 경영주에게 연 60만원을 지급해 농어민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연간 1천200여 억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및 지역 소상공인 간접 지원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투자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어촌 인구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어민·단체 반응 】

- ▸ 농사준비에 농기구, 농약 등 농자재 구입에 쓸 돈이 많은데 연초에 60만원을 일시불로 받아 영농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었음
- ▸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돼 농산물 판매가 어려웠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전라남도가 외면하지 않고 도와줘서 고마움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경영팀장 선춘석, 담당자 박일규**

나. 전남형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제 도입

전라남도는 전국 노지채소 재배면적의 20%(총 197,238ha 중 38,479ha)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배추, 양파, 마늘, 대파 등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수급불안 상황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큰 어려움을 야기해 왔다.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규모와 시기가 전남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2019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무, 배추, 마늘, 양파와 우리 지역이 전국의 95% 이상을 점유하는 월동배추, 겨울대파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해 도비 21억원을 편성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무, 배추, 마늘, 양파와 우리 지역이 전국의 95% 이상을 점유하는 월동배추, 겨울대파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해 2019년에 도비 21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 편성해 농산물별 수급상황에 맞는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농산물별 수급상황에 따라 매년 확대 편성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산지폐기, 저장을 통한 출하 연기, 휴경제, 수매비용 지원 등 3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151ha, 10,406톤을 지원함으로써 수급안정을 도모해 왔다.

앞으로 수급불안 상황 발생이 예측될 경우 선제적으로 수급대책을 실시하고, 보다 근본적인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월동채소 의무자조금 도입,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확충, 전남형 농산물가격 안정제 등 다양한 수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품목	규모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타
2019	배추, 대파, 양파	1,160ha	17,750	-	1,816	5,701	10,233
2020	대파, 마늘	551ha	9,155	1,331	1,586	3,866	2,352
2021	배추, 양파, 건고추, 양배추	105ha 4,406톤	1,173	150	176	692	155
2022	양배추, 대파, 양파	335ha 6,000톤	7,531	600	1,448	3,222	2,261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원예산업팀장 성진섭, 담당자 김길석**

다. 농업정책보험 지원 확대

예측하지 못한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3종의 농업정책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입은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품목별, 요율별로 다르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지방비를 확대·편성하여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가입 대상 품목은 2001년 사과, 배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벼, 콩, 고추, 마늘, 양파 등 67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질병 발생 시 유족급여, 장례비, 치료・간병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이다. 2020년부터는 지방비 지원 확대를 통해 농업인 가입부담료 부담을 30%에서 20%로 줄였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과 농기계 및 자기신체 손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12개 기종이다. 2020년부터는 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방비 지원을 확대해 가입부담료를 50%에서 20%로 줄였다.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식량정책팀장 김재천, 담당자 정중기**

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활성화

남도장터는 전라남도가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이다.

지역 농업인, 소상공인 등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지원으로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1년 365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시장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남도장터 모바일앱을 구축했다. 또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어르신 체험활동 꾸러미, 농어촌 체험관광 상품까지 판매영역을 확대했다. 신개념 유통서비스인 구독경제관 개설, 라이브 커머스 운영 등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등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농산물 전국 새벽・당일배송, 온라인 B2B경매, 직거래판매행사, 각종 이벤트 및 할인행사 등 온・오프라인

판촉활동을 연중 전개하여 유통비용 절감,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남도장터를 이용하는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관리가 소홀하거나 민원을 자주 야기하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는 한편 '판매대금 先정산 서비스'를 도입하여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당초 45일에서 15일로 크게 단축하는 등 남도장터 입점업체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왔다.

위와 같은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노력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판매수요 증가로 남도장터는 2021년 역대 최대 매출액 552억원을 달성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 확보, 품질개선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2년간 언론기관 브랜드 대상 5회, 기관표창 3회의 수상실적을 기록했다.

【 남도장터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매 출 액	539	6,377	32,573	55,224

앞으로도 남도장터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유통 플랫폼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경영인 중심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도장터 법인화를 통해 남도장터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품질향상과 체계적인 고객관리 및 해외 유통망 구축 등 새로운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유통기획팀장 성미숙, 담당자 이정의**

마. 청년농업인 정착 및 성장 지원

1)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 추진

전라남도는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생산성 저하 등 농촌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활력있는 지역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 양성을 위한 '2030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라남도는 육성계획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진입 및 정착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정책수요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청년농업인들이 경쟁력 있는 고소득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이수형

2)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018년부터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소득 증대, 영농기반 확대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선발 인원을 확대[2]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청년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영농 계획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창업형 후계농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 창업자금, 정착지원금 및 농지 자금, 기술 · 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과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 (2018) 239명 → (2019) 258명→ (2020) 270명 → (2021) 282명 → (2022) 326명

영농정착 지원금은 독립경영 예정자 및 1년 차에게는 월 100만원, 2년 차는 월 90만원, 3년 차는 월 80만원을 지원하는데 영농경력별로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 창업농 1,049명을 선발·지원해 청년 농업인이 성공한 농업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이수형

3)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사전 경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영농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영농 창업 도전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도내 4개 농업계 대학과 함께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대, 목포대, 전남대, 전남도립대에서 연 2회 학기제로 운영하며 농산업 체험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3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업 현장방문에 따른 운영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한다.

민선7기 동안 4개 대학에서 총 8학기를 운영,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총 918명이 캠프 전 과정을 수료했다.

각 대학은 4년간 도에서 지원받은 3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활용해 전문가 강의와 함께 도내 우수농가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농산업 현장방문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앞으로도 예비 청년농업인의 농업분야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이수형

4) 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

2017년부터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또는 창업 희망 영농인력이 영농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창업 전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농경력 3년 이내인 만 18세에서 만 45세 미만 청년(예비)농이며, 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신규 시설 설치 및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과 임차료를 지원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명의 청년농업인에게 16억 2,500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청년(예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해 농지, 농업시설물 구입 등 영농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이수형**

5)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자발적 연구 모임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과 소통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에서 45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이 5~12명으로 구성한 동아리다.

청년농업인들은 동아리를 통해 영농 정보교류 활동과 선배 농업인들의 멘토링, 농업 관심분야에 대한 그룹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농촌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별로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활동비 312만 5천원을 지원받는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도내 64개 연구동아리를 지원했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이수형

6)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전남도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시설 신축과 개·보수 지원으로 청년농가의 친환경농업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6억 47백만원을 40명에게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생산기반 시설 및 물류와 컨설팅, 포장재 비용 등 15억원을 총 80명에게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시군별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의 시군 간 품목별 과부족 물량을 파악하고 물량을 교류토록 지원하는 등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귀농·귀촌 등 49세 이하 청년농업인의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농가의 친환경농업 참여 및 실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주경천, 유기농육성팀장 진효선, 담당자 정정

바. 여성농업인 행복 시책 확대

오늘날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비율이 50% 이상을 넘어서고 있으며, 남성 농업인이 주로 다루었던 농기계 정비 분야에도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등 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여성농업인 육성 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새로운 정책변화 여건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2016년 전국 최초로 여성농업인지원팀을 신설,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017년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해 여성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이상 만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으로 1인당 2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미용실, 목욕탕, 식당, 커피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에는 1인당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고령화된 농촌의 여건을 반영해 지원대상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확대했다. 2022년부터는 여성농업인이 부담하던 자부담 2만원(10%)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농협전남영업본부와 협력을 통해 지역농협에서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여성농업인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지원현황	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04,530	10,452	2,090	6,272	2,090
2017	52,265	5,226	1,045	3,136	1,045
2018	49,703	4,828	959	2,875	995
2019	82,862	16,268	2,925	11,700	1,643
2020	90,099	17,749	3,190	12,834	1,725
2021	95,000	19,000	3,420	13,680	1,900
2022(계획)	95,000	19,000	5,320	13,680	-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김정관

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2014년부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여 도내 농업인의 52.8%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농번기 가사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영농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급식 시설을 갖추고 농업인과 가족 등 20인 이상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2,200만원을 지원하며, 2021년까지 7,942개소에 154억 2,900만원을 지원했다.

2018년부터는 마을 내 공동급식시설 등이 부족하여 반찬 배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동급식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락 배달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본래의 사업목적인 농번기 여성 농어업인의 가사부담 경감과 더불어 독거노인의 안부와 건강도 살피는 일거양득의 효과 있어 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앞으로도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지원마을	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0,142	19,829	5,572	14,256	
2014	253	304	91	213	
2015	506	1,012	304	708	
2016	759	1,518	455	1,063	
2017	1,012	2,024	607	1,417	
2018	1,293	2,481	744	1,737	
2019	1,491	2,879	864	2,015	
2020	1,171	2,154	646	1,507	
2021	1,457	3,057	761	2,296	
2022(계획)	2,200	4,400	1,100	3,300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김정관**

3) 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이나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활동을 대행할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작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간 이용할 수 있다. 지원액은

매년 최저임금액을 고려해 책정하며 2022년에는 지원기준단가에 최저임금액(1시간당 9,160원)을 적용하여 1일(8시간) 73,280원의 80%인 58,620원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김정관

4)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지역적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양강좌 및 교육·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여성농업인센터를 나주시, 장성군, 고흥군, 무안군 등 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장성군과 고흥군은 법인이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나주시와 무안군은 시군이 설립하고 여성농민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1년간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며, 인건비, 방과후 활동, 시설유지, 차량유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노령층이 선호하는 문해교육, 텃밭 작물 꾸러미 사업,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 서비스 등 지속적인 멘토링 등이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문화·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문화와 교육을 겸한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 현안을 같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역할도 하고 있어 여성농업인들의 호응이 높다.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과 특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김정관

5) 농어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농어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지원해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들이 교육과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아이들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식 놀이차량으로, 농촌 마을을 방문해 장난감·도서 대여 및 영유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년 9개 시군 29개 읍면동 361명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영유아와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20인 이하인 읍면·도서 지역의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냉난방비 등으로 활용된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은 열악한 보육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줘 출산장려 정책에도 기여하고 있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김정관**

3-14. 기후변화 및 미래첨단 농축산업 기반 구축

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019년 3월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농업의 거점을 조성하는 농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최종 선정됐다. 2018년 공모 유치에 실패한 후 재도전한 결과였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 1,323억 원을 투입해 33.3ha 규모로 세계적인 첨단농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청년보육단지와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임대형팜이 있고, 스타트업 농기자재 기업의 실증연구와 제품 상용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단지 등 첨단 미래 농업을 위해 필요한 핵심시설로 구성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2020년 9월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기반조성 및 핵심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매년 52명의 청년창업보육생을 선발해 창농・창업이 가능한 20개월 과정의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보육→정착→정주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정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저렴한 임대료로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형팜 3동 5.7ha(1.9ha/동)가 조성된다. 청년창업보육생 중 성적우수자 12명을 선발하여 기본 3년 임대 후 평가 등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임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농업 ICT장비 및 첨단 기자재의 국산화 및 상용화와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4ha 규모로 실증단지가 조성된다. 온실 2ha(요소지능, 표준화 실증)와 자율주행 로봇과 드론 실증을 위한 노지 실증구역 2ha로 17개 구역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실증단지에서는 ▲드론, 로봇 등 시설원예 활용, ▲만감류 등 아열대 작물 육성, ▲남방형 스마트팜 모델 육성, ▲기자재 등 스마트팜 실증의 4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전라남도가 시설원예 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융복합 농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실증단지 활용 기업 유치를 위해 농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단지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드론,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기자재, 신품종 도입 육성, 복합환경제어기 등을 개발하는 13개 기업으로부터 실증연구를 위한 입주 의향을 확약받았다.

기업 실증지원을 위해 2021년 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하여 장비구축, 기술혁신 서비스, 실증지원 서비스 등이 추진하였으며, 기업유치와 실증지원을 위한 R&D 기획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 등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 농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전남형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세계적 청년 창업 모델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 및 농산업 기업 유치를 통한 농촌 인구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스마트농업팀장 유덕규, 담당자 정 민

나.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우리나라 아열대기후의 가속화로 인해 온대성 농작물의 재배 적지 변동과 기존 품종의 생산성 및 품질 저하가 나타나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증 거점센터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응해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 국립 농업연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사업을 제안하고, 2019년 5월에는 국회 토론회와 「기후변화 대응 전남농업의 미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책적인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했다.

2019년 10월에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설립 용역을 실시했고, 2020년 4월에는 아열대작물 육성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인 입지를 다졌다. 더불어 국가 차원의 실증센터 구축 필요성과 시급성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2020년 농촌진흥청 신규사업으로 국비 350억원 규모의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전남 장성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구축되면 생산유발효과 75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33억원, 고용유발효과 276명, 취업유발효과 379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정기획팀장 박상미, 담당자 정광원**

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아열대 신산업 발굴 육성 등을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이 필요했다.

이에 대응해 전라남도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자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용역을 추진했고, 2019년 5월에는 농축산식품부에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사업을 건의했다.

농축산식품부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했고, 2021년 전국을 대상으로 국비 4,079억원의 규모인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결과 2021년 9월 해남군이 설립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공모과정에서 전라남도는 2018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으로 채택하고 자체 용역을 거쳐 농식품부에 설립 필요성을 최초 제안했다는 점과 농식품부 필요면적 3ha보다 20배 많은 60ha까지 부지를 확보해 확장성, 국토균형발전, 혁신역량 측면에서 준비가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설립되면 생산유발효과 2,43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98억원, 취업유발효과 1,562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의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의 악순환으로 더욱 취약해질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전략과 실행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남 과수연구소와 해남 기후변화대응 농업단지가 들어서면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연구지원을 총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정기획팀장 박상미, 담당자 정광원**

라. 미래대응 농축산 분야 연구개발사업(R&D) 예산 확보

1) 농업분야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의 육성 및 농촌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관으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은 실제 농업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현장실증 고도화, 글로벌시장 우월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 총 48개 과제에 사업비 3,867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7년간 스마트팜 R&D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에서는 고흥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와 연계하여 2021년 ‘스마트 온실용 지능형 농작업 로봇 개발’ 등 6개

과제에 국비 260억원을 확보했다. 스마트농업 ICT 및 로봇 신규업체 20개소 유치, 50명 일자리 창출 등 700억 규모의 지역경제 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에는 '노지 스마트농업 기자재, 데이터 표준 및 검인증 체계 개발' 등 3개 과제에 국비 75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스마트팜 혁신기술개발을 위해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R&D 컨소시엄 구성,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스마트팜 스타트업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첨단 농업기술 개발과 ICT 기자재 개발·상용화·세계화에 힘쓸 계획이다.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스마트농업팀장 유덕규, 담당자 조혜성**

2) 축산분야

전라남도는 2021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과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2개 분야에서 국비 251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확보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관으로 스마트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실증, 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간 6개 과제에 214억원을 투입한다.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은 축산분야 당면과제 해결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대응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2개 과제에 37억 원을 지원한다.

2022년에는 농촌진흥청 주관 축산 현안대응 기술 고도화 사업으로 가축의 메탄저감을 위한 유효물질 탐색 등 3개 과제 28억 원, 데이터 기반 구축 2개 사업 2개 과제 20억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앞으로도 당면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확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축산을 선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정책팀장 김태원, 담당자 임경순

마. 국가 재난 가축질병 차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은 국가 재난으로 분류되는 가축질병이다.

전라남도는 전국 오리의 57%(전국 1위)를 기르고 있고 넓은 농경지와 풍부한 갯벌 등 천혜의 자연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겨울철 전라남도를 찾아오는 철새가 매년 증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다.

어려운 방역 여건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금농장 마당 및 축사 둘레 소독 자동화 시설 지원(400호, 60억 원), 축사 보온시설 지원(100호, 15억 원) 등 방역시설을 보강했다. AI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겨울철(11월~2월) 사육제한을 실시(108호, 60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했다.

그 결과 2021~2022년 겨울철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1건 발생해 전년보다 10건이 감소했다. 살처분수도 전년대비 349만수가 감소한 32만수로 줄어 가금농가 생산기반 유지 및 계란 등 축산물 수급을 안정시켰다.

특히, 방역 비용은 전년 521억 원 대비 405억 원을 절감해(116억 원 소요)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2020~2022 겨울철 고병원성 고류인플루엔자 방역현황 】

구 분	2020~2021	2021~2022	증감현황
발생건수	21건	11건	10건 감소(48%↓)
살처분수	381만수	32만수	349만수 감소(92%↓)
방역비용	521억원	116억원	405억원 감소(78%↓)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19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도 추진했다. 발생지역 및 발생지역과 인접한 41개 시군의 살아있는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해 유입원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544개소의 돼지 사육농장에 울타리 설치를 신속히 완료했으며, 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기피제 19톤을 공급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2010년부터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와 돼지 전업규모 농가를 포함하여 우제류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에 구제역 백신구입비를 100% 보조지원하고 있다.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는 2018년 97.7%에서 2021년 98.9%로, 돼지는 2018년 81.2%에서 2021년 90.1%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재난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발생 위험시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기관별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난 위기경보 대응단계는 연중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구제역은 2000년에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지만, 전라남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은 단 한 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추진부서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방역정책팀장 정대영, 담당자 최은녑**

바. 청년창농타운 STARTUP 지원

농업·농촌은 공익성 및 성장 잠재력 및 농산업 고부가가치 창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업의 2·3차 비즈니스 선도 공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창업과 농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청년창농타운 STARUP 지원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정했다.

이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창농타운을 구축을 추진해, 2그해 11월 30일 개관식을 했다. 2025년까지 창업기업 160개, 고용 창출 336명, 연 매출 32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창농타운 시설은 '비즈니스센터(지상 3층, 2,547㎡)'와 '제품지원센터(지상 2층, 2,003㎡)'로 구성되어있다. 비즈니스 센터는 농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 기업, 유관기관이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협업공간과 세미나실, Covid-19으로 인한 비대면 홍보영상물을 제작, 편집, 송출할 수 있는 방송실,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품지원센터는 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청년 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에 필요한 장비 130여 종을 구축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의 농업 R&D 및 기술보급, 농업인 교육 등이 융합된 실습형 창농타운은 농업 재배기술뿐만 아니라 단순가공 창업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한 비즈니스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산업의 저부가가치 패러다임을 고부가가치로 바꿔서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창업 준비단계인 비즈니스 모델개발, 컨설팅, 시제품 제작, 초기 창업자금 지원까지 일련의 과정과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고도화된 창농타운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촌지원과장 박용철, 청년창농기술팀장 박인구, 담당자 정현철

사.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농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자율주행 농업기계에 기반하여 농업생산을 무인・자동화할 수 있는 기반구축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내 최초 AI, IoT 및 자율주행 농기계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노지 디지털농업 생산체계・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노지 디지털농업 초기 모델을 구축하였다.

전남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와 LG CNS, NAVER, 대동공업(기업)이 협업하여 지능형 자율화 농업생산 플랫폼 구축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2021년에는 자율주행 농기계,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 물관리 연동 체계를 마련하여 노지 디지털농업 생산체계(기본설계)를 확립했으며,

미래형 농경지 실증단지 조성 및 벼 이앙 자율·자동화를 성공하였다. 소규모 IoT 플랫폼 농작업 생육 관리 자동화 초기 모델 검증하고, 드론 벼 생육 영상 데이터 기반 수확량 및 품질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2023년까지 미래농업 대응 첨단 자동화 농업생산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벼, 콩, 마늘, 양파 등 기계화가 가능한 작물을 중심으로 농작업 자동화 및 로봇, 드론, 인공지능 기반 무인 농작업 구동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4개 시설 7,460㎡(종합관리동, 관제소, 농기계관리실, 육묘장)의 첨단 농업기계화 종합관리 센터를 건립하고, 무인 자율주행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22종 50대의 첨단농기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촌지원과장 박용철, 청년창농기술팀장 박인구, 담당자 김민수**

3-15. 어촌 정주여건 개선

가. 광역단체 최초 '1,000원 여객선' 전 구간 시행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총 3,352개의 섬 가운데 64.6%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연륙되지 않은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2020년 대중교통법에 포함됐지만 섬 주민들은 여전히 육지 주민에 비해 많은 비용을 내고 여객선을 이용했다.

이에 섬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2021년 6월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는 전라남도에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2021년 8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9월 1일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남 연안 1천 320개의 모든 여객선 운항 구간에서 섬 주민이면 누구나 주소지 내 여객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사업'을 실시했다.

기존에 섬 주민들은 구간별로 거리가 짧은 구간은 50%, 먼 구간은 5천 원에서 7천 원의 운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로는 육지 기준 가장 멀리 떨어진 목포~가거도(만재도), 여수~거문도 등의 항로를 이용하는 섬 주민도 1,000원 단일요금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의 불균형을 해소하게 됐다.

더불어, 여수 등 7개 시·군 177개 섬 주민 4만 9천 18명의 병·의원 왕래, 문화생활,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여 섬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생활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진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연안해운팀장 김준열, 담당자 박성일

나.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전라남도 어촌은 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어촌은 정주 여건 악화, 주민 노령화, 낙후된 시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어촌지역의 교육·의료·교통시설이 낙후되어 거주민의 삶의 질이 낮다. 중요한 접근 수단인 여객 편의시설도 불편하고 소규모 항·포구의 경우 접안시설과 안전시설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어촌·어항 중에서 300개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신설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어항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 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총 1,068개소 어항(지방어항 93개항, 어촌정주어항 92개항, 소규모 항·포구 883개항)들은 대부분 낙후되고 불편하여 어촌·어항 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였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을 신청해, 2022년까지 전국 최대인 98개소(15개 시·군)가 선정되었다. 선착장과 대합실 등이 노후되어 개선이 시급한 기항지도 26개소가 같이 선정되었다. 이는 전국 총사업량의 3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6,559억 원을 포함해 총 9,370억 원으로 2021년까지 5,049억 원이 투입되었다.

【 어촌뉴딜300 사업 현황 】

(단위 : 개, 억 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어촌뉴딜	98	26	37	19	16
기항지	26	1	7	8	10
사업비	9,370	2,322	3,627	1,744	1,677

* 어촌뉴딜 300개소 중 98개소(33%), 기항지 54개소 중 26개소(48%)

2021년 4월 준공된 신안군 만재항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전국 첫 성과다. 목포에서 뱃길로 6시간이 걸렸던 만재도가 여객선 접안이 가능해져 신설된 직항노선 여객선으로 2시간 10분이면 도착하는 일일생활권이 되었다. 그동안 바로 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던 불편과 위험을 해결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방문하게 된 것이다. 향후 관광객 증가로 숙박 등 어업 외 소득이 증가하여 지역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하여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목표로 낙후된 선착장 개선, 방파제 신축 및 개축, 여객터미널 마련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이전】	【사업 이후】
 작은 배를 이용 여객선 승하선	 여객선 직접 접안
 차도선 접안 불가	 차도선 접안(물류시설 확충)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섬어촌개발팀장 형남준, 담당자 김록청**

3-16. 수산물 생산·공급 및 가공·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가. 도내 수산물 생산·공급 전국 최대 기록

전라남도의 연간 수산물 생산량은 2021년 기준 199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생산액은 3조 1,002억 원으로 전국의 39%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전국 수산물 생산 일번지'로써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과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국 제일의 수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부터 경상남도와의 3500억원의 가치를 가진 남해 멸치어장을 두고 다툰 결과 2021년 2월 헌법재판소는 전라남도의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전라남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승소로 이끌어 경남도와의 어업분쟁을 종식하고, 현행 해상경계를 유지하게 되어 전남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정책팀장 전창우 담당자 장대연, 신소정

나. 전국1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전라남도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공량은 23%, 수출액은 11% 수준으로 영세한 수산식품산업에 인프라 조성이 필요했다.

이에 전라남도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노력해왔다.

민선 7기인 2019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 2020년도에는 국비 예산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목포시에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1호 사업인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2025년까지 총 1,089억원을 투입해 임대형 가공공장, 연구개발시설, 냉동·물류창고, 수산물 거래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출 잠재력을 지닌 김, 전복, 어묵 등을 특화하여 수산물의 가공, 수출 및 연구개발(R&D)과 물류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수산물브랜드지원팀장 김진선, 담당자 송귀순

다. 김 수출 3억 불 달성 프로젝트 추진

김은 전량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생산되고, 가공과 유통 등 모든 산업의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국내 김 수출은 2010년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급격히 성장해 지난 2021년 6.9억 불(전남 2억 불)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세계 수출시장에서 국내산 김은 품질관리와 가공기술 미흡으로 일본산과 중국산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2020년 9월 김 수출 3억불 달성 프로젝트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김'을 식품업계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출형 김 가공 기술 및 제품 개발, 김 품질 및 위생관리 강화, 수출시장 확대, 연구기반 확충 등 18개 사업에 2,27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2021년 8월부터 김 품질관리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 산업의 지속 성장과 김 수출 3억불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다.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마른김에 대한 성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산업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전남형 김 품질관리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식품가공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미래형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 및 건강제품 개발, 프리미엄 펫푸드 개발 등 다양한 수출상품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해조류 중심의 가공, 연구개발, 수출지원 기능을 연계한 인프라 확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수산물거래소와 연구개발 시설, 임대형 가공공장, 냉동·물류 창고를 구축해 40여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2,350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함께 2,437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국제 교역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김 품질관리와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등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유통되는 김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수산가공팀장 김두용, 담당자 정명수

3-17.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선제적 대응

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다 확보

1)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전라남도 인구는 2004년 200만이 붕괴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4월말 현재 182만명 선에 머무르고 있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1만 여명이 넘는 청년인구가 유출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인구문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선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로 전라남도는 정부의 인구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와의 협약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했다. 2020년 9월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전라남도 김승남·경상북도 김형동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인식하여 2021년 정부안을 마련하여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특별법 관련 10개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 제정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 인구감소지역 전국 최다 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와 더불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2022~2023) 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연 1조원, 10년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급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표 개선 건의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전국 시, 도중 최다인 16곳(5개 시, 무안 제외)이 지정되었다.

2022년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시행 년으로 전라남도는 광역단위 전국 최대 금액인 883억원을(2022~2023년) 확보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시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시·도별 배분금액 】

(단위 : 억원)

시·도	배분금액			시·도	배분금액		
	계	2022년	2023년		계	2022년	2023년
전남	883	378	505	부산	60	25	35
				대구	55	23	32
경북	848	363	485	광주	33	14	19
강원	603	258	345	제주	33	14	19
전북	560	240	320	인천	28	12	16
경남	520	223	297	대전	22	9	13
충남	420	180	240	울산	22	9	13
충북	278	119	159	경기	9	4	5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인구정책팀장 정혜정, 담당자 강건우

나.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전라남도의 청년층 인구비율은 전국 최하위이고 고령층 인구비율은 최고로 취약한 지역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 또한 월등히 높은 형편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2022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의 하나로, 수도권보다 교통 및 문화·여가활동의 접근성이 낮은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전남형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전라남도에 2년 이상 거주한 21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 12만명에게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 사업내용이다. 사업연령은 고졸부터 대졸 취업 준비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에게 전라남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취지로 정했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21세부터 28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이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1세씩 하향 확대해 2024년부터는 19세부터 28세 청년에게 최대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복지비는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연내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여행·공연 관람같은 문화·여가활동, 학원수강·도서 구입을 포함한 자기계발과 주유, 대중교통 이용 등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청년인구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광주은행) 】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농협은행) 】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인구정책팀장 정혜정, 담당자 송은송

3-18. 여성·가족이 행복하고 맘(MOM) 편한 전남 조성

가. 성평등 정책 거점기관, '전라남도 양성평등센터' 개소

전라남도는 2019년 4월 11일 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의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지역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할 전라남도 양성평등센터를 개소했다.

이는 지역 간 성 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성 평등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2019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전국 16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해 전남여성가족재단을 포함해 4개소가 선정된 결과다.

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연극동아리 지원, 공모전, 도민 모니터단 운영 등으로 자라나는 세대의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였다.

또한 도(道와) 시·군의 정책 수립 시 성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 편성, 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위원회 여성 참여율 목표 설정, 성인지 교육 등을 추진했다. 여성리더스 아카데미, 페미니즘 대학 등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고, 도정의 한 축으로서 지역 여성의 삶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전남여성정책포럼', '성평등 마루' 등 다양한 소통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 발굴 및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 등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여성정책팀장 김승희, 담당자 양관승, 박수진

나. 촘촘한 보육·돌봄체계 구축

전라남도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빈틈없는 보육·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2018년 114개소에서 2021년 187개로 확대했다. 2020년부터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 학부모 9천여명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매년 4,500여명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가구 소득에 따른 돌봄 이용료 차등 지원, 일시·긴급 돌봄 실시 등 다양한 부모의 요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여 부모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환경을 개선 및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다함께 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보육지원팀장 김미경, 담당자 김민수
가족행복팀장 민순희, 담당자 송경원
다문화팀장 서남덕, 담당자 서소희

다.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

전라남도는 그동안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유기, 방임 등 다양한 아동학대에 대응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효과적인 아동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적극 노력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운영, 시군, 경찰서를 비롯한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아동 일시보호시설 설치 등 아동안전, 보호, 개선 정책을 발굴·시행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 간 협조와 공동대응을 위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회의를 확대하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노인성범죄 예방 홍보영상 경로당 방문교육, 여객선터미널과 대합실 여성폭력예방 홍보 전광판도 운영했다.

앞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 등을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여성폭력을 예방·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아동복지팀장 오경희, 담당자 명나영**
가족행복팀장 민순희, 담당자 조신웅

라.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전남도는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왔다.

2019년에는 이주여성 상담소를 개소하여 가정폭력 상담과 사례관리, 법률 의료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육도 실시 중이다. 108개소에서 실시 중이던 이 사업은 2021년도에는 276개소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산모도우미,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상담사 등 양성 및 취업 지원, 다문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인큐베이팅 등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가 다문화가족을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다문화가족 큰잔치, 다문화 엄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한부모, 청년 한부모, 조손한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다문화팀장 서남덕, 담당자 이영심

3-19. 도민 맞춤형 행복돌봄시책 강화

가. 생활불편 해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전라남도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증가로 돌봄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생계문제 뿐만 아니라 전등교체, 전자제품 오작동 수리 등 단순한 생활불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도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 4월 민·관 순수 자원봉사 조직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전국 최초로 출범시켰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총 319개 기동대, 2,208명으로 구성하여, 22개 시·군의 모든 읍·면·동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각 기동대는 전기·가스·주택설비 종사자·이통장 등 이웃의 불편함을 가장 잘 알면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주민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취약계층의 전등, 수전, 창틀, 전자제품 오작동 등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수리해 준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는 생계 · 의료 ·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금을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라남도는 취약계층 일생생활 불편해소와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1,496가구에 80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모든 과정에 이웃을 잘아는 복지기동대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우리동네 전기·보일러 수리업체 등 동네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이웃들의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했다.

* 복지기동대 만족도 조사(2021. 12.) 실시 결과
- 매우만족 95.6%, 서비스 확대요구 81%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내 소상공인,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단위 협력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자원조성을 위해 상시연계망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연도별 지원실적 】

연도	지원가구 (가구수)	지원액 (억원)
계	51,496	80
2019	12,960	15
2020	10,504	24
2021	28,032	41

추진부서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지역보훈팀장 김상철, 담당자 서원주

나.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 강화

전라남도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개인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어르신 욕구중심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어르신 돌봄사업은 2019년까지 6개 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되어 맞춤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2020년부터는 개인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통합 운영하였다. 만 65세이상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5만 4천여명과 생활지원사를 연결하여 주기적인 안부확인, 인지 예방 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였다.

【 연도별 맞춤돌봄서비스 현황 】

(단위: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자	계	48,352	51,841	53,667
	중점	5,000	5,500	5,500
	일반	43,002	45,941	47,767
	특화	350	400	400
전담사회복지사		210	252	236
생활지원사		2,966	3,227	3,330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홀로 사는 어르신 77,941명과 장애인 1,267명의 가정에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움직임센서 설치사업을 실시했다. 이로써 응급호출 및 화재 발생시 119와 연계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 연도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인원 】

(단위: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독거 어르신	장애인	독거 어르신	장애인	독거 어르신	장애인	독거 어르신	장애인	독거 어르신	장애인
대상자 (명)	13,710	336	13,210	335	23,058	334	27,963	262	27,963	262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방역물품 등을 후원기업을 발굴하여 매년 지원했다. 2021년에도 LG생활건강 등 3개 기관으로부터 마스크, 세제, 화장품, 의약품, 음료 등 96개 품목 약 22억6천만 원 상당의 후원을 받았다.

그밖에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어르신 지킴이단」을 운영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2021년에 '고독사 지킴이단'에서 '어르신 지킴이단'으로 비호감인 명칭을 변경하고, 지킴이단원은 돌봄 대상이 거주하는 이·통장, 부녀회장, 의용소방대원, 종교관계자, 대학생 등으로 구성했다. 지킴이단원은 돌봄대상과 1:1 결연을 맺고, 월1회 방문과 주2회 전화를 통해 말벗과 안부살피기 등 신변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어르신 지킴이단은 2021년에 안부 확인 13만 1천건, 신변이상자 발견 신고 13건, 공적서비스 연계 793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3)]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서비스를 교차하면서 어르신 돌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해준 생활지원사 등 종사자(5,719명)에게 2021년 10월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2021년에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반려로봇 보급사업이 선정되어 8억 1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은둔·우울형으로 홀로사는 어르신 260명에게 반려로봇을 보급하여 코로나19로 외롭고 지친 어르신들에게 말벗 손주 역할 등 생활의 활력을 갖도록 해주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과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돌봄 시책 발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노인복지과장 손선미, 노인정책팀장 김형국, 담당자 정혜인**

3) 2021년 어르신 지킴이단 현황
- 돌봄대상 : 2,351명(독거노인 2,109명, 중·장년층 242명)
- 지킴이단 : 2,035명(부녀회, 마을이장, 종교인, 대학생 등)

다. 발달장애인 등 평생돌봄망 구축

전라남도 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도내 등록장애인 수도 감소했다. 반면 발달장애인 수는 2019년 1만 2천명에서 1만 3천명으로 증가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평생돌봄망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연도별 도내 발달장애인 현황 】

(연도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연도별	도내 전체인구 (A)	등록 장애인 (B)	발달 장애인 (C)	장애인 비율(B/A)	발달 장애인 비율(C/B)
합 계	5,553,097	422,698	39,202	7.61%	9.3%
2019	1,868,745	141,888	12,868	7.59%	9.1%
2020	1,851,549	140,942	13,064	7.61%	9.3%
2021	1,832,803	139,868	13,270	7.63%	9.5%

이에 전라남도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평생돌봄과 장애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12월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현황 】

구 분	서부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동부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소 재 지	목포시 영산로 628	순천시 야흥동 335
설 치 자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달장애인복지협회
승 인 일	2021. 12. 23.	2020. 10. 23.
주요프로그램	기초문해교육, 사회기술교육, 재활교육, 여가·문화체험, 자조모임 등	일상생활 및 사회성향상교육, 건강관리, 의사소통 및 여가·문화체험, 자조모임 등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공공후견지원, 권리구제,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부모교육 및 가족휴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현황 】

사업명	대 상	주요내용
개인별지원사업	당사자 및 가족	개인별지원 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자
권리구제사업	범죄 등 피해를 입은 당사자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옹호 지원
공공후견지원사업	성인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 위한 공공후견 연계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만18~64세 발달장애인	낮시간 참여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만6~18세미만 발달장애인	방과후 참여프로그램 운영
부모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법 제32조	민법 제779조 규정의 가족을 대상
영유아기	만6세이하 발달장애인 보호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생애전환기	만12~18세 이하 당사자 및 보호자, 종사자	자녀, 종사자 및 보호자를 위한 진로상담 및 코칭
성인권교육	당사자 부모, 종사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인권교육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장애유형 및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자 그 가족에 대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연도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제공 현황 】

(연도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연도별	합 계	이용인원(명)				
		돌봄서비스	참여 프로그램 제공			
			문화체험	부모자조모임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및 치료
합 계	6,411	4,294	335	153	1,572	57
2019	1,980	1,275	112	63	516	14
2020	1,965	1,319	99	50	484	13
2021	2,466	1,700	124	40	572	30

아울러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치 알림(GPS) 기기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사고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경찰청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주요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업기간	2022. 1. ~ 12.	- 실종·배회 경험이 있거나, - 실종·배회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 및 보호자가 인정한 자 등
사업대상	1,000명(주민등록상 전남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사 업 비	300백만원(도 90[30%], 시·군비 210[70%])	
사업내용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치알림(GPS)기기 지원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학송, 장애인재활팀장 김성철, 담당자 기영석

3-20. 공공의료 및 연구기반 확보 추진

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유치

심혈관질환은 현재 국민 사망 원인의 24.3%를 차지하고 사망자 5명 중 1명의 사망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치료의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아 국가적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심뇌혈관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심뇌혈관 치료의 첨병 역할을 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년간 정부에 국립 심뇌혈관질환 센터 설립의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그 결과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고, 100대 국정과제 및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센터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질병관리청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세부운영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기관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전남도는 연구소 설립 신속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의회, 사회단체, 전남의사회 등에서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대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1년 12월 1,980억원 규모의 연구소 설립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28억원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되었다. 이는 전남도와 더불어 광주광역시, 장성군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이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예정지인 장성군 나노산단은 광주연구개발특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대병원, 광주과기원, 한국심뇌혈관스텐트연구소, 나노바이오센터 등이 인접해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만큼 연구기관 설립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소가 설립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광주·전남의 상생형 신성장동력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나노산단과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시너지효과 창출로 이어져 초광역 협력사업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해 질병관리청, 장성군과 공동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연대체계를 강화해 연구소 설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주요 기능 및 역할 】

주요기능	역 할
연구기능	• 국내 심뇌혈관질환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 수행 • 심혈관질환의 기초·임상연구,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 개발과 보급 • 국내 심뇌혈관질환 연구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 수행
진료기능	• 의료전달 체계상 3차 진료기관 수준의 심뇌혈관질환 특수병원 및 종합병원으로서의 심뇌혈관질환 전문 진료 및 임상연구 (단계별 확대) • 심장이식, 희귀난치성 질환, 초 고난이도 중재시술 등 국가적 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임상결과 도출, 연구 적용
예방 및 재활기능	• 예방 및 재활관리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업무 수행 • 한국형 심혈관질환 예방 및 재활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기본 지침서 및 표준 생활 지침서 개발 • 심혈관질환 예방법 대국민 및 의료인 교육 및 홍보
정책관리 및 기술지원 기능	•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기능 및 기술지원 등 총괄 • 국가 심뇌혈관질환 등록 사업 중추 기관 역할 수행
교육기능	• 심뇌혈관질환 임상 및 연구 분야 전문인력 교육,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의학교육, 지역사회 주민 대상 보건의료 교육

추진부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두, 건강증진팀장 나만석, 담당자 김다영

나. 국립 의과대학 설립 추진

전라남도는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도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연간 80만 명의 도민이 암, 뇌질환 등 중증질환과 중증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타 시도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유출은 연간 약 1조 5천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특히 2019년부터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국내 정치권, 의료계까지 전국 이슈화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이 재조명되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2020년 1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TF를 구성했다.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거쳐 5월에 도내 의과대학 유치 5개 기관(전남도,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 순천대)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해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6월에는 범도민 민간 유치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7월 23일에 정부와 여당은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하면서 도민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의료계 집단 휴진과 9월 4일 의정합의(코로나19 안정화될 때까지 잠정 중단)로 의료인력 관련 논의가 중단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라남도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2021년 2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계 등 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였고, 4월에는 의과대학 설립·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설립 타당성 등을 검증했다.

5월과 6월에는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차례에 걸쳐 도민 토론회(목포, 순천)를 개최하였으며,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여(의료空백, 지역이 아픕니다/목포·여수MBC 제작)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알리고 의과대학 설립 당위성을 호소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의과대학 설립 확정을 촉구 건의하였고, 국회나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15회 이상),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 인수위원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의 의료자원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할 지역의 의사를 키워 낼 전남형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200만 도민의 30년 염원이다.

추진부서 식품의약과장 이영춘, 의약관리팀장 문권옥, 담당자 김수연

3-21. 블루투어 전남관광인프라 구축

가. 전남관광재단 설립 운영

전라남도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문화와 관광 분야 기능 분리를 통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남 관광의 대표 기구로서 2020년 7월 전남관광재단을 설립했다.

전남관광재단은 지자체, 민간기관, 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마케팅 및 관광지를 관리하는 한국형 DMO의 컨트롤타워로 통합적 관광인프라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가 공모사업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KTTP)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및 주민사업체를 적극 육성 지원하였다. 특히 KTTP 관련 사업 및 관광공사 마이스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국비 60억원을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남 관광객 6천만명 달성과 관광일자리 1만개 창출 조기 실현과 향후 "여행 1번지 전남" 목표의 기대를 모았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관광업계 위축 및 활동 제약으로 한계가 있었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정책팀장 심영희, 담당자 서민성

나.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운영

전라남도는 2021년 6월 2022~2023년을 전라남도 방문의 해로 지정했다.

방문의 해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을 제작하고 다양한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기존의 남도만의 특별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전남을 국내 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남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전남의 모든 관광정보와 예약/결재가 가능한 J-TaaS(전남관광 플랫폼)를 구축하여,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간체, 번체) 5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컨설팅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 국정원 협의를 완료하고 2022년 4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2022년 11월까지 1차로 거점지역인 5개 시와 무안국제공항 소재인 무안군을 우선 구축하고, 2023년 6월까지는 17개 군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의 관광안내소를 확장하고, 여행자센터, 무안공항 등에 다국어 안내판과 키오스크 설치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남도 숙박 할인 이벤트, 세계유산 문화자원 관광 상품, 남도 EDM 페스티벌, 드론 라이트 쇼 등 17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시군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전남도는 '2022~2023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마음으로 관광환경을 체질 개선하여 더욱 편하고 안심·힐링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변모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통합관광팀장 방종진, 담당자 김성효**

다.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국가계획 반영 추진

전남도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 일자리 감소에 대한 지역경제 활력 모색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지방공약(2017. 5.)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9. 1.) 등을 근거로 남부권의 광역 관광개발이 국가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의 해안과 섬, 내륙, 문화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를 선형적 측면으로 연계한 영·호남권 광역권 관광개발을 추진하여 내국인의 해외관광 수요 대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부권역 광역관광개발을 국가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사)한국관광개발원을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다.

이 기본구상은 남부권 지역인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5개 광역시도를 3개 권역으로 한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2023부터 2032년까지 10년 간 약 6,858억 원을 투입하여 권역별 핵심브랜드 구축과 연계 협력사업을 중점 발굴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개 광역관광권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전남·경남이 포함된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 메카 구축'을 목표로 ▲해양, 섬이 보유한 치유 콘텐츠를 특화한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섬진강권 힐링 여행 브랜드화 및 체류관광 기반 확대 ▲소소관광지 발굴·육성 등에 약 1,933억 원이 투입되는 계획이다.

다음은 전남·광주가 포함된 남서권은 '남도문화 예술지대 구축'을 목표로 ▲다도해 함께 섬 프로젝트(섬 관광 활성화) ▲남도달밤 예술여행지 육성 ▲대한민국 대표 순례 관광 및 다도해의 경관 명소

발굴·조성 등에 약 1,883억 원이 투입되는 계획이다.

끝으로 부산·울산·경남이 포함된 남동권은 '엔터테인먼트 휴양지대 구축'을 목표로 ▲만(滿)!만세 프로젝트 ▲에코마운틴, 영남알프스 프로젝트 ▲바다가 보이는 문화놀이터 조성 등의 사업에 약 2,029억 원이 투입된다.

그 밖에 남부권 전체 공통사업으로 ▲스마트 관광 환승시스템 개발 ▲선박·항공산업 연계 관광상품 개발 ▲선(線)형관광자원 상품화 등에 약 1,013억 원이 투입된다.

전라남도는 선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구상 용역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정부, 국회에 건의하여 2022년도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국가계획으로서 지속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기본계획 수립 시 남부권의 해안과 내륙, 섬 등 차별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광역관광별로 특화 관광개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전남지역 내 체류관광 기반 확충 및 연계관광 상품 확대 등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별 구체적 투자규모와 세부 개발방향이 확정되는 만큼 전남도는 광역 대응체계의 주도적 운영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해 국가계획 내 전남도 사업을 최대 반영시키고 사업규모도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개발팀장 권장주, 담당자 남지은**

3-22. 문화예술 분야 메가 콘텐츠 확대

가. 도립미술관 개관

전라남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향(禮鄕)으로 전통회화(윤두서, 허련, 허백련, 허건 등), 서예(이광사, 손재형, 하남호 등), 서양화(오지호, 김환기, 양수아 등), 미디어아트(정정주, 이이남 등)와 같이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층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도립미술관과 같은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전남의 미술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2021년 3월 광양시 소재 옛 광양역사 부지에 전남도립미술관을 개관하였다. 미술관은 총사업비 450억 원을 들여 옛 광양역사 일대 1만 7,46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시설을 갖췄으며 전시실(지하 1층), 어린이아틀리에·카페(1층), 대강의실·교육실(2층), 사무실(3층)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이름하여 '자연을 담은 미술관'. 쇠락해가는 구도심과 미래지향적인 미술관이 하나로 이어져 전남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옛 폐선부지의 대지 조건을 살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건물 배치와 공간 활용이 돋보이게 했다.

2021년 4월에는 삼성으로부터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컬렉션 가운데 전남 출신 한국미술 거장들의 작품 21점을 기증받았다. 진도 출신 의재 허백련, 화순 출신 오지호, 신안 출신 김화기, 고흥 출신 천경자 화백 등의 작품이 포함됐다.

도립미술관 개관으로 향후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한국미술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전남도립미술관장 이지호, 관리팀장 정선호, 담당자 강재훈

나.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전라남도는 전남지역의 의병 활동이 왕성했음에도 희생에 관한 관심과 예우는 미흡하고 기록에 없거나 후손이 없어 이름 없는 의병의 희생이 잊혀져 가는 것에 주목했다. 또한 의병 유산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았으나 훼손되거나 도난되는 의병 유물과 잊혀져 가는 의병 정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도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하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은 잊혀져 가는 남도 의병의 역사와 기록들을 전시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유물을 수집, 전시, 연구, 교육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2020년 7월 나주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2021년 5월에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2022년 3월에는 의병과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작품을 찾기 위해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8회의 유물 공개구입을 추진해 1,982점을 수집했다. 보존처리와 번역 및 연구를 거쳐 향후 개관 예정인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총사업비 422억원을 들여 연면적 8천300㎡의 규모로 건립된다. 2023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의병의 날인 6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문화자원과장 유영광, 의병박물관건립팀장 박병남, 담당자 이재연

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전라남도는 2018년 제1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남이 한국 수묵의 중심지임을 세계에 알렸다. 2021년에는 보다 발전한 모습으로 제2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개최함으로써 예향전남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았다.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제한된 전시관에서 운영되는 타 비엔날레와 달리 지역의 다양한 전시관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고, ICT 기술 융합 및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 하였다.

2019년 3월 자문위원회, 9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 관련 중요한 안건 결정시 심의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행사에 반영하였다.

이후, 2021 비엔날레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조직(준비단)과 행사조직(사무국) 2단계로 운영하였으며, 2019년 8월 총감독을 선임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2020년에 전통성과 세련미가 강화된 신규 EI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비엔날레를 개최함에 있어 콘텐츠 제작과 모바일 및 SNS, 유튜브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2020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1년 연기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특별기획전을 운영하였다.

2021년 9월 1일부터 2개월 간 목포와 진도에서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24개국, 239명 작가가 참여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 전시관(목포 3, 진도 3) 구성 및 전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전과 시·군 기념전을 운영하여, 도내 곳곳을 진한 수묵의 향기로 물들였다.

홈페이지 내 온라인 영상관(VR 전시 등 4종)과 수묵 및 IT기술을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토요 시네마 등 8종)을 운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조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온·오프라인 30만명의 관람객 유치로 지역 관광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도내 관광지 및 지역 상권과 연계한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였다.

【 전시관 구성 개요 】

○ 주 전시관 : 목포(3개), 진도(3개)

전 시 관	장 소	참여작가	전시 주제
비엔날레 1관	목포문화예술회관	73명	· 수묵없는 수묵(無墨水墨)
비엔날레 2관	목포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25명	· 시대의 수묵-경계의 확장
비엔날레 3관	목포 유달초등학교	40명	· 수묵정신, 신세대의 도원경
비엔날레 4관	진도 남도전통미술관	21명	· 생활 속의 디자인 수묵 I
비엔날레 5관	진도 소치기념관	7명	· 생활 속의 디자인 수묵 II
비엔날레 6관	진도 향토문화회관	69명	· 문화예술 교류의 장

❍ 온라인 미술관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홈페이지

구 성	전 시 내 용
VR 전시관	· 비엔날레 주전시관, 특별전, 시군기념전의 3D 스캐닝을 통한 VR 가상전시관 구축
수묵 영상관	· 목포·진도 6개 전시관을 비엔날레 총감독이 직접 소개하는 투어 형식의 영상 제공
온라인 전시 도록	· 전시관별 작품의 온라인 도록 제공으로 깊이 있는 작품 감상 기회 제공
오디오가이드	· 전시관별 작품 소개 음성서비스 실시간 제공

❍ 특별전시관 : 광양시, 여수시, 나주시, 광주광역시

전 시 관	전 시 내 용
광양시 (전남도립미술관)	· 소전 손재형 展(진도출신 서예가 작품 전시) · 국내 작가 1명, 작품 50점
여수시 (GS칼텍스 예울마루)	· 영·호남 수묵교류 展(여수-통영) · 국내 작가 100명, 작품 100점
나주시 (한국천연염색박물관)	· 국제현대산수화 展(수묵화의 사랑과 동행) · 국내 작가 15명, 해외 작가 5명, 작품 22점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호호호 展(남농 및 의재 계열 작가 작품 전시) · 국내 작가 25명, 작품 26점

❍ 시·군 기념전 : 9개 시·군(15개 전시관)

- 개 최 지 : 여수시, 구례군(2),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5),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2)
- 전시내용 : 시·군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
- 추진방법 : 시·군별 자체예산 확보로 추진

라.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성공적 개최

2021 전국국제수묵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 문화예술계 한국화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대중과 문화예술인의 관심 제고로

인해 한국 수묵화의 저변 확대 및 수묵의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었다.

주 전시관 운영뿐만 아니라 특별전(4개소) 및 시·군 기념전(9개 시·군) 확대와 온라인 전시관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목표대비 37%인 41만명을 달성하였고, 더불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속 수묵작품 연출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하였다.

현장 전시관에서는 사전예약제 등 정부보다 강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관람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온라인 전시관은 타 비엔날레와는 차별화된 VR 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구름숲 패션쇼, 웹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대면 전시 관람의 새로운 모델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작가(32명)들이 주전시관에 참여하였고, 또한 부대 프로그램, 새롭게 추진한 수묵 아트 마켓 및 아트 페어에 도내 문화예술인들을 참여시키는 등 침체된 지역미술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팬덤이 두터운 유명인(송가인·포레스텔라 등) 및 전시 유명 유튜브 채널(널위한 문화예술) 참여, 수묵다큐 TV 편성·방영 등 다각적 홍보 등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을 통해 수묵의 중심지로 예향전남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관람, 행사) 규모 및 해외작가 참여 등 축소·운영으로 인해 아쉬움이 있었다. 향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상설미술관 확보, 국내 미술관계자 및 국제적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고 호평을 받은 온라인 전시관은 향후에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운영 프로그램 】

구분		프로그램명	장소	주요내용
현장(5)	공연(1)	수묵 퍼포먼스	목포문화예술회관	· 대형 수묵붓글씨와 현대무용 등을 융합한 행위예술 공연
	체험(2)	나도 수묵작가	목포문화예술회관 진도 운림산방	· 목포·진도 전시관 관람객 참여 수묵 체험관 운영
		수묵 대형 협동화 그리기	진도 운림산방	· 밑그림이 그려진 대형 캔버스에 채색을 통한 수묵그림 완성
	기타(2)	수묵 아트마켓	목포문화예술회관	· 수묵을 주제로 제작한 기념품 판매
		수묵아트 페어	목포문화예술회관	· 비엔날레 전시 작품 판매 및 운영
	* 목포 문화예술회관 4종(공연 1, 체험 1, 기타2), 진도 운림산방 2종(체험 2)			
온라인(9)	공연(5)	수묵 구름숲 패션쇼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 홈페이지	· (방영) 2021. 10.(10.18. 실시) · (내용) 수묵을 주제로 한 현대와 전통이 접목된 패션쇼
		수묵 노을 콘서트		· (방영) 2021. 10.(10.20.~21. 실시) · (내용) 지역 예술인 공연을 비롯한 연예인 초청공연
		수묵 웹드라마		· (방영) 2021. 8.~10. · (내용) 수묵 영상 제작·상영 (6편, 편당 7분 이내)
		수묵 토요 시네마		· (방영) 2021. 9.~10. · (내용) 수묵 애니메이션 배급·상영 (총9편, 3일간)
		미디어 생중계		· (방영) 2021. 9.~10. · (내용) 비엔날레 개막식 등 이벤트 실시간 온라인 송출
	체험(4)	수묵 퀴즈쇼 "묵묵부답"		· (방영) 2021. 8.(1회) · (내용) 수묵으로 묻고 답하는 온라인 퀴즈 이벤트
		수묵 웹 미술관 보물찾기		· (방영) 2021. 9.~10. · (내용) 웹미술관 보물찾기 (총 8주, 참가자 추첨제)
		수묵 인문학 콘서트		· (방영) 2021. 9.~10. · (내용) 전문가가 온라인 관객과 담론하는 토크 콘서트
		온라인 수묵 아카데미		· (방영) 2021. 9.~10. · (내용) 수묵역사화법 중심의 전문가 온라인 강좌 운영

마. 마한역사문화권 조성・정비

전라남도는 기원전 3세기부터 5세기 말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룬 고대왕국 마한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을 통해 고대 역사를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민선7기 마한 복원 및 세계화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전남의 마한유적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같은 해 도내 11개 시・군, 8개 유관 기관과 마한문화권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2020년에는 도 차원의 대정부 정책 건의를 통해 마한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영산강유역 마한문화 포럼 비전 선포식'을 통해 마한의 위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지난 2021년에는 국립나주박물관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을 개최하여 광주광역시, 전북도를 포함 마한역사문화권 3개 시・도가 협력하여 '마한역사 복원 및 세계화' 대선과제 채택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전남도는 2023년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마한유적 국가사적 지정, 발굴 복원사업 등 대규모 마한 관련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전남의 본류인 고대 역사 마한의 체계적인 발굴・복원과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자원 접근을 향상시키고, 마한문화자원의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문화자원과장 유영광, 문화자원정책팀장 이미라, 담당자 이주리

3-23.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

가. 탄소중립 실천운동 확산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지원하고 탄소중립(Net-Zero)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2020. 12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략' 선언에 발맞춰 2021년 3월 3일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종합 비전'을 선포하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별 102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2백만톤의 30.5%인 28백만톤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운동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한국탄소사냥꾼연합회 등 전남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사냥꾼(Carbon-Hunter)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탄소사냥꾼 실천운동은 플로깅, 비치코밍 등 쓰레기를 제로화하는 제로웨이스트 운동과 가정, 직장 등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직접 실천하는 운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을 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탄생천사 챌린지(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을 1일 4가지 이상 실천하기)와 저탄소 생활 실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도민이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를 달성하는 전 도민 온실가스 200만톤 감축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사냥꾼 실천운동 】



▲탄소사냥꾼 실천운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재원, 담당자 최대일**

나. 친환경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

전라남도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11년부터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해오고 있다.

2021년까지 전기자동차 11,131대(승용 7,577, 화물 1,383, 버스 22, 이륜 2,149), 수소자동차 296대를 보급하였으며, 전기충전기 3,499기, 수소충전소 2개소를 보급하였고, 2021년에는 수소충전소 7개소 추가 구축을 확정하여 조속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전기자동차 7,678대(승용 4,772, 화물 2,027, 버스 25, 이륜 840, 굴착기 14), 수소자동차 1,102대(승용 1,100, 버스 2)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56,000대, 수소자동차 10,000대 보급 및 친환경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기충전기 15,000기, 수소충전소 25개소를 구축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크게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친환경자동차 보급 현황 】

(단위 : 대)

구분	계	2018년까지	2019	2020	2021
계	11,427	2,478	1,633	2,637	4,679
전기자동차	11,131	2,478	1,606	2,534	4,513
수소자동차	296	-	27	103	166

【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

(단위 : 기, 개소)

구분	충전기·소	
	전기충전기	수소충전소/(구축중)
계	3,499	2/(7)
목포시	382	(1)
여수시	425	1/(2)
순천시	605	-
나주시	441	-
광양시	276	(1)
담양군	105	-
곡성군	61	-
구례군	53	-
고흥군	50	(1)
보성군	84	-
화순군	103	-
장흥군	49	-
강진군	55	-
해남군	123	-
영암군	110	-
무안군	215	-
함평군	48	(1)
영광군	121	(1)
장성군	79	1
완도군	65	-
진도군	20	-
신안군	29	-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생활환경팀장 서금렬, 담당자 여호용**

다. 전 세계 주요 도시·기관 협력체계 강화

전라남도는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도시·기관과의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한 나라 또는 도시만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도시·기관·기업의 공동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2020년 6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협의회인 '이클레이(ICLEI)'에 가입하고, 주요 도시, 기관 등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2021년 6월에는 영국과 캐나다 정부 주도로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여 탈석탄과 지리적 우수성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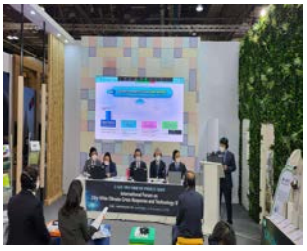
또한, 2021년 7월에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기관의 기후와 에너지 협약인 글로벌기후에너지시장협약(GCoM)과 2021년 10월에는 도시단위의 환경개선 및 기후활동을 주도하는 세계도시 연합인 도시환경협약(UEA),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탄소중립 캠페인인 Race To Zero 캠페인에도 참여하여 전 세계 주요 도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탄소중립 전세계 주요 국가·도시 회의 참석 】



▲ 탈석탄동맹 서명식


▲ COP26 국제회의


▲ COP26 도시 기후포럼

앞으로는 전 세계 주요 도시·기관 등과의 탄소중립 관련 회의, 포럼 등에 활발히 참여하여 탄소중립 정책 등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재원, 담당자 최대일

라. 탄소중립 교육 및 민관 협력 환경보전

전남도는 「전라남도 2050 탄소중립 비전」을 2021년 3월 3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였다.

본 교육을 위해서 환경분야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과 도민들이 실천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전남환경교육센터 3개소는 교육과정 내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을 강화하였다. 세대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아의 자연생태 현장학습 및 청소년, 대학생들의 환경교육 체험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도내 교육기관으로 찾아가는 환경보전 실천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최근 환경트렌드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환경교육센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도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였다.

탄소중립 환경놀이 한마당,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기후강사 연구모임, 기후환경 강사 워크숍 개최, 온실가스 진단,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 캠페인, 나눔장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와 같이, 전남도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 2021년 탄소중립 관련 환경교육 추진실적 】

구분	교 육 명 (주 요 내 용)	교육대상	횟수	인원 (명)
계			814	16,212
전 남 자연환경 연 수 원	탄소중립 방문 환경교육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일반, 청소년	232	5,880
여 수 YMCA 가 사 리 생 태 관	찾아가는 환경보전 실천 순회교육(탄소중립)	청소년	114	1,980
	체험환경교육 (탄소중립/기후에너지·자원순환)	청소년	83	2,110
	성인(가족)체험 환경교육 (탄소중립/친환경)	일반, 청소년, 유아	31	425
	숲생태교육 (탄소중립/생태보전)	청소년, 유아	140	2,892
	환경교육센터 활동가 교육 (탄소중립/기후에너지·자원순환)	일반	35	294
전 남 녹색환경 지원센터	에너지전환 전문가 양성교육	일반	8	40
	RE100 에너지전환 아카데미	일반	3	70
전 남 기후환경 네트워크	탄소중립 환경놀이 한마당	일반, 청소년, 유아	61	798
	찾아가는 기후교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청소년, 유아	67	1,186
	탄소중립 실천가 그린리더양성(초급)	청소년	40	537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환경정책팀장 현병옥, 담당자 이종호

마.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 노력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2008년부터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여수를 중심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제안하고 최초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2018년 5월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후보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후보가 동서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 모여 "전남-경남 상생발전 정책협약"을 맺고 '남해안권 국제회의 공동유치 합의'를 했다.

이후 전라남도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과 경상남도 서부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의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 12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전라남도와 COP28 유치위원회는 BH(청와대), 중앙부처 및 주요 인사들에게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및 개최도시 선 지정을 지속 건의했다. 또한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타당성 및 경제효과 등을 분석을 통한 주요 전략을 수립했다.

2021년에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 유치위원회를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전남·경남도지사, 여수시장 및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장(하동군수) 4명이 맡았다. 유치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공동위원장 4명 및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장 군수가 "COP28 대한민국 유치와 함께 개최도시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서명한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하며 정책적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COP28 공동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10개 시·군에서 전남 보성군, 경남 고성군이 추가됨에 따라 12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본격 추진했다.

2020년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및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까지 11개 광역지자체와 온실가스 다 배출 지역인 남해안 남중권이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영·호남이 하나되어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계기가 될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를 지지하였다.

2021년 5월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9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환경 분야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인 COP28 대한민국 유치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10월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COP28 개최를 지지하고,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향후 COP33 개최를 지지하기로 하였다는 상호 합의를 발표하였다.

이에 2008년부터 노력해온 당사국총회 유치 노력이 다시 한번 무산된 데에 대한 지역민의 상실감은 컸다. 그러나 전남도는 2028년 개최 예정인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재도전을 표명하고 2021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당사국총회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라남도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COP26을 참관하며 시설, 교통·숙박인프라 등 개최여건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 COP33 개최 후보지인 대한민국과 남해안 남중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COP33 개최는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의 대한민국 국가 위상 제고는 물론 해묵은 동서 갈등을 타파, 동서 통합 및 국가균형발전의 성장동력,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 및 남해안 남중권 마이스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여수 중심 남해안 남중권에서의 COP33 공동개최가 지자체가 협력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세계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이다.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COP33유치팀장 최세균 담당자 고미나

3-24. 동북아 정원산업 중심지 도약

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전남도는 순천시와 함께 2013순천만국제정박람회 개최 10주년에 맞춰 그동안 발전된 전라남도의 정원문화의 세계화와 동북아 정원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하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재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처음 논의돼 순천시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9월 북경 '2019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 참석해 박람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박람회 개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대표 연구자 성종상)에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하고 박람회 기본방향과 컨셉 등을 설정하였다.

㈜ 플레이스랩을 통해 수행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경제성 분석 결과, 전남의 경제적 효과는 1조 5천여 억원, 전국은 2조 3천여 억원으로 평가됐다. 고용창출도 전남 2만명, 전국 2만 5천명으로 평가됐고, 비용편익분석(B/C) 결과도 1.0으로 평가되어 개최 타당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경제적효과			고용창출	비 고
	계	생산유발	부가가치		
전 남	14,747	10,333	4,414	20,917	
전 국	23,082	15,926	7,156	25,149	

아울러,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는 긍정적인 대답이 역내(순천) 95.9%, 역외(순천 외) 91.6%로 도출되어 국민들도 박람회 개최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여론조사 결과

구 분	긍 정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비 고
	계	매우필요	필요	보통			
역내(순천)	95.9	34.9	46.3	14.7	1.4	4.1	
역외(순천 외)	91.6	11.1	44.2	36.3	5.4	3.0	

2019년 12월에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박람회 개최 신청과 국가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위하여 주무 부처인 산림청(정원팀)을 방문해 박람회 개최 의향을 밝히고 향후 계획을 협의하였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국제행사관리지침 제3호 '적용대상'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3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허석 순천시장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동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이날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전남도·순천시·AIPH KOREA와도 박람회 추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후 국가 국제행사 승인 신청서 등을 작성해 산림청에 제출하였고 2020년 1월 31일 기재부에 신청하였다. 1월 말까지 기재부에 신청해야만 2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의가 가능해 긴급히 처리하게 되었다.

2월 초 국제원예생산자협회[4]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신청했고 2월 11일부 14일까지 4일간 국제원예생산자협회 버나드 오스트롬 회장 등 임원진 5명이 방문해 박람회 개최 신청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12일에는 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를 방문하고 마스터플랜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참석해 전라남도의 개최 의지를 천명했다.

2020년 2월 20일에는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승인을 위하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0 AIPH 상반기 총회'에 참석해 박람회 구상안 등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박현식 동부지역본부장, 이주미 정원산업팀장, 서민재 주무관 3명이 참석해 박람회 유치지지 지원을 순천시에서는 박람회 구상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을 마치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AIPH 임원진 모두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승인' 건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순천은 박람회의 유산을 잘 발전시키고 있는 좋은 사례이며 두 번째 박람회를 치를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미 많은 준비가 된 도시라는 평을 받았다.

2020년 4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경제성·정책적 분석와 사업원가 분석[5]을 실시하였고 7월 29일 열린 제121차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국가 국제행사 개최로 승인되었다.

---

4)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참석자
- Bernard Oosterom(네덜란드/AIPH 협회장),
Tim Briercliffe(영국/AIPH 사무총장),
Kevin Chung(대만, AIPH 박람회 위원회 위원장),
Karen Tambayong(인도네시아/AIPH 동남아시아 대표), Elena Terekhova(러시아/AIPH 국제관계 매니저)

5) 심사결과 : 사업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신청 총사업비 485억원 중 18억원 감액(△3.7%) 의견

이날 전남도와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정부 승인을 기념하여 '박람회 D-day 카운터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소병철 국회의원, 허석 순천시장과 도의원 및 시의원 등 30명 가량이 참석해 국제행사 정부 승인을 축하했다.

제121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 사업비 485억원을 467억원으로 조정하여 산림청에 제출하고 최종 467억원으로 확정했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박람회 개최 예산 등 지원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2020년 10월 29일 제정[6]하였다. 법무담당관실 법제심사(8.31.), 도지사 방침 결재(9.2.), 실과 협의 및 입법예고(9.2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9.24.)와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10.13.)와 본회의 의결(10.22.)을 거쳐 2020년 10월 29일 최종 공포하였다.

「전라남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발기인 대회(11.3.), 창립총회(12.4.), 전남도 법인설립 허가(12.23.)을 거쳐 12월 29일 법인등기를 통해 법인이 설립[7]되었다.

직 위	임원 명단
공동위원장	김영록 도지사,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부 위 원 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황금영 전남사회단체연합회장

6) 조례 주요내용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제2조),
위원회 법인격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제3조),
조직위원회의 주요 사업(제5조),
조직위원회의 재산(출연금 등) 및 출연금 등의 지원(제5조~6조),
수익사업(입장권, 휘장, 임대, 협찬, 시설유치 등)의 범위(제8조),
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제11조)

고 문	허경만 前지사, 최인기 前장관, 허상만 前장관, 송영수 前조직위원장
공동이사장	김영록 도지사, 허석 순천시장
이 사	최병암 산림청 차장, 최대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박옥천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장, 김병원 前농협중앙회장, 김형석 前한국조경학회 부회장,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 나승병 前사무총장, 천제영 前순천부시장, 박현식 본부장, 임채영 부시장, 신택호 변호사
감 사	천상국 공인회계사, 정문호 공인회계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남도는 박람회장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추경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00백만원(도비 450, 시비 1,050)을 자체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고 순천시에서는 예산 반영과 계획 수립, 입찰 등을 통해 2021년 1월에 ㈜도화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로 선정하고 2021년 11월까지 설계를 추진하였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등을 위하여 국회 소병철 국회의원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

7) ○ 발기인 : 10명(전남도 5명, 순천시 5명 추천)
- (전남도 5명)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기태 도의원,
최대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천제영 前 순천부시장
- (순천시 5명) 허석 순천시장, 정홍준 시의원,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나승병 前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무총장, 신택호 변호사

○ 창립총회 : 100명 위원 참석
-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결의 및 임원 선출

특별법」을 2021년 8월 17일 제정[8]하였다. 소병철 국회의원 대표 32명 공동발의(2.24.), 본회의 보고, 상임위 회부(2.25.), 농해수위 입법예고, 상임위 소위(6.16.), 상임위 의결(6.24.)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7월 23일 의결되었으며 8월 17일 최종 공포되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건축 건설기술 심의(2021.9.~10.)를 거쳐 2021년 12월 박람회장 기반조성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전남도는「전라남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및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관 제34조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박람회 준비와 운영을 담당할 사무처를 구성·운영했다.

2020년 11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구성 파견인력 결원보충 승인 사전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사무처 설치 시기에 이견이 있어 협의를 받지 못해 2020년 12월 22일 전남도와 순천시 공무원으로 사무국을 구성[9]해 운영하게 되었다.

2021년 6월 23일 3급 1명, 4급 3명을 행정안전부에 직무파견 사전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4급 2명을 승인하여 전남도에서는 사무총장 1명은 외부 전문가를 공모하고 2본부, 8부, 1협력관 16팀 68명으로 사무처를 구성해 운영하였다.

8) 법령 주요내용 :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제5조), 기금의 설치(제8조), 수익사업(제12조), 국가 등의 지원(제1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제21조), 실무위원회의 설치(제23조),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제24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제26조), 실시계획의 승인(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제30조)

9) 조직위원회 사무국 : 1국, 4부, 10개팀, 35명(전라남도 3, 순천시 32)

○ (조직위원회 사무처) 1처, 2본부, 8부, 1협력관, 16팀 68명

조 직			팀
사무총장	기획본부	행정지원부	행정총괄, 회계·재정
		기획홍보부	기획, 홍보
		수익사업부	수익사업, 투자유치
		국제협력부	국제전략, 대외협력
	운영본부	정원운영부	운영, 문화행사
		정원시설부	시설조성, 시설관리
		조경화훼부	조경, 화훼
		전시연출부	전시연출 1, 전시연출 2
	협력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18일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0조), 실시계획의 내용(제12조) 등 특별법 시행을 위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전남도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기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산림청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특별법 및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관」을 변경하여 3월 25일 산림청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전남도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순천을 영국 '첼시 플라워쇼'나 프랑스 '쇼몽 국제가든 페스티벌'처럼 세계 정원문화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1년여 남은 박람회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살뜰히 살피고 힘껏 지원할 것이다.

추진부서 산림휴양과장 박형호, 정원산업팀장 이주미, 담당자 서민재

나. 국립한국정원문화원 건립[10)]

전남도와 담양군은 정원의 통합관리와 연구·개발·교육을 통한 산업화와 한국 전통정원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정원 전문기관으로 '국립 한국정원문화원'을 담양군 금성면 금성면 989번지 일원에 유치했다.

국립한국정원문화원은 민선 7기 2018년 7월부터 '국립한국정원센터' 유치로 시작됐다. 궁궐정원·별서정원 등 유명 정원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대중화에 한계가 있고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높으나 이를 계승·발전시킬 기관이 전무한 상황임에 따라 전남도와 담양군에서 '국립한국정원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요청하게 되었다.

2019년 정부예산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립한국정원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 반영되어 2019년 산림청 정원팀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다.

2019년 10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B/C 1.20, AHP 종합평점 0.65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설계비 582백만원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담양군 사업으로 국비 4.5억원, 지방비 4.5억원으로 반영되었다.

전남도와 담양군은 국가 기능의 '국립한국정원센터'를 담양군에서 건립·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워 지속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

10) 사업개요(최종)
- 기간/장소 : 2021. ~ 2024./금성면 금성리 989번지 일원 7ha
- 총사업비 : 196억원(국비 136, 도비 24, 군비 36)
- 운영조직 : 1센터장, 2실, 3부, 12팀 / 30명
- 주요시설 : 연수동, 방문자센터, 온실, 시험포지, 실습장, 전시정원 등

조건으로 시행기관 변경(담양군→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기재부에 지속 요구하였으나 최종 불가 의견을 받았다.

이에 산림청, 전남도, 담양군은 담양군 시행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고 사업명칭을 '국립한국정원문화원'으로 변경하여 2021년 정부예산 국회 심사에 재도전하게 되었다. 이때에도 기재부의 심한 반대가 있었으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기재부 제2차장과의 담판으로 최종 국가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게 되었다.

산림청, 전남도, 담양군은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의 공동협력을 위해 업무협약[11]을 실시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영록 도지사, 박종호 산림청장, 최형식 군수가 참여하고 이개호 국회의원이 축하차 참석했다.

담양군 소유의 건립부지 20,081㎡를 2021년 12월 매각완료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담양군은 한국정원문화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원문화원의 주요 기능은 ①국가·지방·민간정원의 통합관리 및 인증·평가, ② 한국정원 표준모델 개발, 정원 식물 우량 종자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등 산업화 지원, ③ 정원전문 인력 양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전남도와 담양군은 한국정원문화원의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은 물론 운영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산림휴양과장 박형호, 정원산업팀장 이주미, 담당자 서민재**

---

11) 협약 주요내용
-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사업비 분담(지방비 60억원 부담)
- 문화원 건립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협력
- 직원 파견 등 인력 지원
- 한국정원문화원 조성 및 운영단계 역할 분담

3-25. 숲속의 전남, 새천년 명품 숲 조성

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난대수목원은 2018년 5월 김영록 전라남도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서 처음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립에코생태식물공원' 조성을 공약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국립에코생태식물공원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3회 실시하였으며, 산림청에 사업구상과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국립난대수목원은 한반도 아열대화의 전초지인 전남에 난·아열대 식물종 보존과 연구기반 구축으로 국내 최고의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전남 섬, 해양, 갯벌 등 자연경관 기반의 국제정원양·관광기능을 갖춘 식물원 조성으로 서남해안 생태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었다.

2018년 10월에는 국립에코식물원 개발계획을 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산림청, 기재부는 물론 국회에 설명하였다. 우리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4차 수목원 진흥기본계획에 난·아열대 연구를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이 반영되었다.

2019년 2월 산림청의 난대권인 전남과 경남을 대상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 평가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우리 전남은 경쟁력있는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도내 국·공유림 발굴 및 현황을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13개소)했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입지선정위원회 추천 후보지 5개소로 압축해 추천했다.

국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도 유치 후보지 평가·심의를 2019년 5월 3일 실시하고 최종 후보지로 '완도수목원'을 선정했다.

최종 경쟁지가 전남 완도수목원, 경남 거제 동부면 국유림으로 최종 확정되고 전남과 경남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전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추진단을 구성(2019.5.29.)하고 국립난대수목원 지역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2019.6.14.)해 완도수목원의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확보하게 되었다.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평가를 위한 기본구상 등 용역은 수목원 조성 전문 엔지니어링인 ㈜도화(서진민 이사, 이병두 차장)에서 수행하였다.

전남도와 완도군에서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붐 조성을 위하여 완도수목원 유치 서명 운동을 벌여 110천명의 서명을 받아 산림청에 전달했다.

전남과 경남의 행정, 정치, 언론의 치열한 경쟁속에 2019년 10월 17일과 18일 완도와 거제에 대한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 결과는 10월 21일 통보되었는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남도 거제군 모두 '적격' 통보를 받았다.

산림청은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과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2021년 정부예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반영하였다.

산림청은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신구대학교·(주)유신 컨소시엄을 통해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전남 완도수목원과 경남 거제 동부면 국유림을 대상을 실시하였다.

2020년 12월 24일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전남도는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2020년 완도수목원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가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국립난대수목원 지역 상생을 위하여 ㈜영무토건과 ㈜여수예술랜드와 리조트 등 투자유치 업무협약 등을 실시했다.

산림청에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신구대학교·(주)유신 컨소시엄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 용역은 2021년 10월에 완료되었으며 2021년 11월 7일 산림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고 그해 12월 28일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10월 22일에는 산림청, 전남도, 완도군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공동협력 업무협약[12]을 맺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최병암 산림청장, 신우철 완도군수가 참여했다.

2022년 5월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산림청과 전남도가 관련 자료 작성·제출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추진부서 산림휴양과장 박형호, 정원산업팀장 이주미, 담당자 서민재

나.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서남해안 섬숲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에만 고유하게 형성된 독특한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을 의미한다. 이 섬숲과 더불어 원주민들이 몇 천년 동안 살아오면서 형성해온 도서숲 문화의 인문학적 의미를 포함한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지나친 이용과 개발로 고유의 서남해안 섬숲은 대부분 훼손되거나 퇴행되고, 도서벽지 등에 협소하게 일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서남해안 섬지역의 수려한 자연풍광과 식생,

12) 협약 주요내용: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운영 사업비 확보, 국립난대수목원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운영 인력지원, 국립난대수목원 운영 활성화 노력, 수목원 조성 부지 토지교환 절차 신속 이행, 진입도로 개설, 직원 숙소 등 연관사업 지원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전해야 할 해안의 산림자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전남도는 일부 남아 있는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을 보존하고, 훼손되고 퇴행된 숲을 되살려 고유의 식생 경관을 만들어 생물다양성 가치 제고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서남해안 섬숲 경관복원계획을 수립했다.

섬숲 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경관·생태·환경·조경·관광·산림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큰 틀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신규 국고사업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최소 10년간 장기 계획으로 목포시 등 15개 시군에 서남해안 난대숲 복원·조성을 시작했다.

전국 최초로 2020년 신안군 안좌도, 자은도 2개 지역 40ha에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동백나무, 가시나무, 후박나무, 구실잣 밤나무, 먼나무 등 난대 상록활엽수를 식재했다.

2021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영광군, 진도군에 45ha,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도서지역 특색있는 난대림 경관복원을 추진했으며, 2022년에는 광양시, 해남군, 무안군, 완도군, 신안군에 85ha, 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앞으로도 블루 이코노미 블루투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연계 섬별 향토·문화·역사성을 부각한 다양한 섬지역 난대숲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남해안 섬숲 경관복원사업 연도별 조성현황 】

연도	대상시군	면적 (ha)	사업비 (억원)
계		170	185
2020	신안군	40	43
2021	목포시 등 6개 시군	45	49
2022	광양시 등 5개 시군	85	93

추진부서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자원팀장 강신희, 담당자 김원희

다.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전라남도는 2020년 3월 신안군 하의도 故 김대중대통령 생가 일원에 남북평화와 민주화를 상징한 평화의 숲 조성으로 서남해안 관광문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의 숲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남북을 아우른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하늘·바람·섬·숲 등 전남의 블루자원을 활용, 블루이코노미 대표숲으로 조성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50억원(조성 250억원, 토지매입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신안 하의도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화합 평화의 상징숲을 조성하고자 '평화의 탄생', '인동초 정신', '평화의 마당' 등 김 전 대통령의 일생을 스토리텔링하여 세 개의 테마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이다.

「평화의 탄생」 공간은 하의도 선착장에서 생가와 그 주변을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과 소년 김대중을 추억하는 공간으로 생가 앞에는 소통과 화합의 '후광 평화광장'을 조성한다.

「인동초 정신」 구간은 생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린시절 수학했던 덕봉서당, 하의 초등학교를 지나 섬 반대편 큰바위 얼굴(죽도)까지 고통을 이겨내고 남과 북을 아우른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되새기는 구간으로 '김대중 기억의 숲길' 을 조성한다.

「평화의 마당」 공간은 생가 반대편 큰바위 얼굴 주변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큰바위 얼굴(죽도)과 서남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해양 노을공원'으로 조성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후광 평화광장' 생가 진입로 320m 구간 폭30m에 후박나무, 굴거리나무, 조록나무

서양호랑가시나무 등 상록교목 150그루를 식재해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평화의 숲길'을 조성했다. 생가 뒷편 해양테마파크 주변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신 '배롱나무 정원'을 보완·조성했다.

2022년에는 21억 원의 사업비로 '후광 평화광장' 생가 진입로 평화의 숲길을 완성하고 방문객에게 역사적 가치를 부각할 후광 기념관(정치사진 박물관)을 조성한다.

【「한반도 평화의 숲」 주요사업 내용 】

(단위 :억원)

구 분	소 계	2020	2021	2022	2023
소 계	250	20	70	90	70
▸ 후광 평화광장	120	20	60	40	-
평화의 숲길	50	20	20	10	
김대중광장	20		10	10	
태극마당	10		10		
우리꽃정원	10		10		
배롱나무정원	10		10		
갯벌정원	20			20	
▸ 후광기념관	30				30
▸ 큰바위얼굴 오션뷰	20			20	-
▸ 김대중 기억의 숲길	30			10	20
▸ 후광언덕숲	20		10	10	
▸ 난대숲 복원	30			10	20

추진부서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자원팀장 강신희, 담당자 김원희**

3-26.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가. 건립방향 및 사업개요

1) 건립방향

전라남도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보다 나은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통·문화 공간을 겸비한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사업을 순천시 해룡면(신대지구)에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청은 서부권에 치우쳐 발생하는 동부권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동부권에 흩어진 산하기관(동부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다. 이에 전라남도지사는 2018년 9월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지시하였다.

동부권 통합청사에는 행정전산망과 연결된 첨단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당부서와 영상 민원상담 시행 등 도 본청 방문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과 대강당, 북카페, 다목적실, 열린회의실, 도민소통실 등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문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동부권 통합청사는 설계 공모 당시 240여명이 근무 가능하도록 사무공간이 계획되었으나, 미래 행정수요 증가 및 기능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최대 310여명이 근무 가능하도록 사무공간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주차장 또한 도민 편의를 위해 당초 288대(지하43, 지상245)에서 지하주차장 확대(102대) 및 순천시 협의를 통해 최대 800여대(청 내 400여대, 순천시 공영 400여대)를 확보하였다.

또한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에 맞춰 동부권 통합청사에는 고단열·고기밀 건축시스템(3중유리 및 단열창호, 외부전동블라인더, 고효율 열회수환기장치) 적용하여 건물 에너지 손실(탄소배출)을 최소화 하고, 지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및 추후

옥상녹화, 수소연료전지 등 추가반영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할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 관련 예비인증으로 에너지효율등급 1+++, 제로에너지 2등급, 녹색건축 그린2등급을 획득하였다.

동부권 통합청사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의견 반영을 통한 외부 디자인 개선으로 기존 획일적인 직선형태(사각 및 격자형 건축물)의 외관을 탈피하고 동부권의 화려한 비상과 도심 숲·정원 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건물 중앙에 친환경 아트리움(천창)을 배치한 자연채광 등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로 조성된다.

2) 사업개요

전라남도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37번지(신대지구)에 부지 30,240㎡(약 9,150평), 건축 연면적 13,150㎡(약 3,900평)으로 청사동(지하1층, 지상3층)과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동(지상2층)을 총사업비 550억원을 들여 건립한다.

전라남도는 2019년 6월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 1월 사업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건축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의견 반영 등을 거쳐 202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2021년 8월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21년 10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나. 공사추진 현황

전라남도는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사업을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4월 현재 청사동 지하층 터파기 ·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골조공사는 2022년 7월에 완료하고 이후 내장·마감공사 등 2023년 5월 준공, 6월 시운전 및 7월 청사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운영지원과장 곽영호, 동부청사팀장 임창환, 담당자 윤준희

3-27.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가.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전남도는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으뜸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에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혁신인재가 이끄는 으뜸전남'의 비전 아래, 전남형 혁신인재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인재 키우기 사업의 밀도 있는 추진을 위해 희망인재육성과를 신설하고, 도 특성에 맞는 인재 육성·지원 정책 연구와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전남 혁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청년·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재 육성 9대 중점사업을 마련했다.

도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총 4,849명의 으뜸인재를 발굴·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 4년 차인 2022년에는 3대 분야(새싹인재, 핵심인재, 혁신인재)에 16개 사업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 2022년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과제 목록 】

사업명			사업내용
16개 사업			
새싹인재(7)	과학영재키움		초4~중1 대상, 지역대학 전문기관 과학교실, 현장체험
	예능영재키움		초4~중3 재능학생 대상, 주말·방학 전문교습, 현장체험
	AI비전캠프		도-교육청-대학 협력,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 교육 운영
	노벨캠프		이공계 고교생 과학동아리 지역대학 연계 창의연구 수행 지원
	공공기관 진로체험		고교생 대상 출연·공공기관, 국가연구원 활용 진로체험
	대학선배 멘토링		남도학숙 대학생, 지역 고등학생 멘토-멘티 결연 및 진로상담
	생각을 깨우는 인재학당		석학과의 만남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인재 육성
핵심인재(4)	새천년 으뜸인재		으뜸인재 발굴대회 개최 재능계발비 및 멘토링 등 지원
	글로벌 전문인재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어학교육, 국내외연수 지원
	해외유학생		해외대학 석박사 유학 장학금(1인당 최대 1억원) 지원
	연구인재 육성 프로젝트		지역 대학원생 대상 공공/민간 연구기관 공동연구비 지원
혁신인재(5)	도민행복대학	남도학 첫걸음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남도학 강좌 운영
		시민교육	도민대상 민주적 생활태도 및 행동양식 교육 제공
	아카데미	경제마당	지역 최고경영자, 기관단체장 대상 최신 경제·경영정보 제공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지역 사회단체 리더 및 구성원 대상 리더십 함양 교육 제공
	대학생 무한도전프로젝트		지역 대학생 대상 역량 강화 도전과제 실현 활동비 지원

다만, 2020년부터 2년 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전면 취소돼, 글로벌 인재로의 식견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비대면 화상회의를 적절히 활용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다.

한편, 2022년 하반기에는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2.0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재육성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여건과 교육 환경을 조사하고,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에 사업별 수혜자와 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시군과 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장종국

나.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새싹인재」육성

도는 2019년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밖청소년 1,666명을 대상으로 지역 꿈나무들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새싹인재'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예능영재 키움 사업을 통해 도내 초·중학교 학생 245 명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고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예능 분야(음악, 미술, 무용, 국악, 클래식 등)의 전문적인 교습을 지원했다.

사업 초기에는 학생들의 선호가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으나, 매년 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다.

한편, 매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기 위해 연말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무대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심어줬다.

특히, 2019년 7월에는 대통령 전국 경제투어,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선포식'에 참여하여, 합창과 사물놀이 공연 재능을 기부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도내 33개 고등학교 이공계 분야 동아리 43개 팀 191명을 대상으로 과학 분야 연구 과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진행하는 창의·연구 활동인 '노벨캠프' 사업을 지원했다.

2020년 동계방학 기간에 미국, 독일 등 해외 유수의 대학에 방문해 연구 활동과 강의수업에 참여하고, 대학원 투어와 문화체험을 곁들어 학생들의 미래 진로 탐색에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일반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해 과학적 탐구과제를 고민해보고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했다. 그 결과, 참신한 과제도 다수 있어 미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0년부터 2년 동안 도내 이공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66개교 1,070명을 대상으로 도내 25개 출연·공공기관과 국가 연구원이 보유한 R&D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미래산업을 체험 해보는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기관탐방과 현장 체험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대학입시, 진로 등 정보 접근 기회가 적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 동기와 미래 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2020년에 남도학숙 재사생 멘토 25명과 지역 고교생 멘티 25명을 대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강연과 전국의 유명 학원 진로 전문가의 유형별 대학입시 전략을 설명하는 등 실전 취업 준비를 테마로 강의를 제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아울러 2019년 동계방학 기간에는 도내 고교생 50여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문학 캠프인 '전남 인재학당'을 운영했다. 도울 김용욱 선생을 초대해 논어 집중 강의와 함께 마한 역사탐방으로 옛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새싹인재 육성 사업 현황(2019~2021)】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예능영재 키움	노벨 캠프	공공기관 진로체험	생각을 깨우는 인재학당	대학선배 멘토링	사업비
계	1,666	245	191	1,070	56	104	941
2019년	128	52	20	-	56	-	237
2020년	725	87	88	500	-	50	333
2021년	813	106	83	570	-	54	371

※ 2019년도, 4개 사업* 총 429명 참여, 1,059백만원 소요

* 가족캠프, 글로벌 비전캠프, 마이스터 현장연수,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장종국

다.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

도는 2019년부터 도내 중·고·대학(원)생 759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재능 있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새천년 으뜸인재' 사업을 통해 2개 분야(미래리더, 예체능 리더)의 재능 있는 인재 241명을 선발해 맞춤형 개발비(최대 12년 동안 매년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를 지원했다.

'으뜸인재 발굴대회'를 통해 지역의 숨어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직접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선발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100여 명의 심사위원을 투입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 최초로 화상면접을 도입해 추진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제적 여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학 기회가 적은 지역의 인재들을 대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1억 원씩 해외 석·박사 유학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장학금과 각종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해결하면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 강 모(미국 캘리포이나주립대 박사과정) 씨 등 3명을, 2021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대학 시절부터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목포 대학교 출신 김 모(독일 프리드리히대학 박사과정) 씨 등 3명을 선발했다.

또한,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주관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 등 협력 대학교 8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을 지니고 세계무대에서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중국 해외 연수와 국내 캠프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수도권에 비해 연구 경험이 부족한 도내 대학원생 427명을 대상으로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인재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선도인재 육성 아카데미'라는 명칭으로 5개 분야(마이크로그리드, 드론, MICE, VR·AR, 푸드스타일링)의 405명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실무이론과 실습 위주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2021년에는 석·박사과정 재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미래 산업과 지역 현안을 주제로 공공·출연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과 협업을 통해 연구인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핵심인재 육성 사업 현황(2019~2021)】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새천년 으뜸인재	해외 유학생	글로벌 전문인재	지역대학 연구인재 육성	사업비
계	759	241	6	85	427	4,567
2019년	349	53	-	-	296	926
2020년	296	199	3	85	109	2,198
2021년	114	189	3	-	22	1,443

※ 2019년도, 1개 사업(산업인재 현장연수) 75명 참여, 361백만원 소요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장종국

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혁신인재」육성

도는 2019년부터 도내 청소년 등 도민 1,837명을 대상으로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5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총 10개소 400여 명을 대상으로 도민이 꼭 알아야 할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 등으로 구성한「남도학 첫걸음」이라는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아울러 전남형 인문학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교재를 마련하고 활용해 지역의 자긍심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 전문기관과 시민단체 등을 선정해 13개소 598명을 대상으로 '일상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생활 태도와 기초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토론 중심의 생활밀착형 시민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소통, 공동체, 다문화 등의 기초 소양 교육을 수록한 교재를 제작하고, 토론과 체험 위주의 도민 참여형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도내 기업 CEO, 기관단체장, 시장·군수, 도의원 등 398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최근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명사 초청 경제특강'을 개최하고, 조찬을 겸한 기업 간 인적 교류를 지원했다.

도내 사회단체 대표와 구성원 259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아카데미를 운영해 사회단체 간 소통 증진과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 특히 다문화 이주여성, 청년 리더, 사회적 기업 및 자원 봉사단체 등 단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최신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3인 이상의 팀으로 구성된 청년 182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해보고 실현해보는 '청년무한도전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다. 이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청년들 간에 연계 활동으로 협업문화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청년들이 과제 수행과정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전공 분야를 활용해 공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혁신인재 육성 사업 현황(2019~2021)】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남도학 첫걸음	시민 교육	경제 마당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청소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사업비
계	1,837	400	598	398	259	182	888
2019년	522	-	-	280	120	-	317
2020년	287	160	127	-	-	122	115
2021년	1,028	240	471	118	139	60	456

※ 2021년도, 1개 사업(도민행복 특강) 123명 참여, 12백만원 소요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장종국**

마. 인재육성 지원체계 구축

도는 2019년 6월에 프로젝트가 일회성 시책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백년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남 인재육성 도민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185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도 인재육성 기본 및 세부 계획을 자문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 하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어 인재육성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새천년 인재육성 원년의 해' 선포문을 낭독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같은 해 10월에는 인재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도민, 학생, 시군 및 관계 기관 담당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부스를 운영해,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공감을 유도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프로젝트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별 지원 대상과 세부 계획을 구체화해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장학과 인재육성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인재육성재단과 지역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도에서는 인재육성 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진흥원에서는 전담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해 체계적으로 인재육성 업무를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도는 앞으로 전남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으뜸인재들이 지역의 복지시설과 아동센터 등을 방문해 맞춤형 재능을 나눔으로써 지역에 애향심을 갖도록 유도해 미래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77명으로 구성된 도민추진협의회의 규모를 축소해 실무 중심의 내실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장종국

3-28. 부패 없는 「청렴 전남」

전라남도는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도민의 기대 수준을 반영하여 고객 접점 분야에서 공정한 일 처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청렴해피콜' 등을 통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해결을 지원하였으며, '도민 고충처리 지원반'을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쇄신과 도정 신뢰를 견인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조직 내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의식개혁 및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여 '공정' 가치를 지향하는 생동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갔다.

아울러 공직자 청렴교육 및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해 윤리의식 함양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직 내부의 자정노력을 지속하였으며, 부패방지시스템과 신고체계의 확립, 엄정한 공직감찰과 비위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으로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하위권을 맴돌던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9년에 2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공정 개혁'과 민·관 거버넌스 강화로 반부패·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청렴윤리팀장 이정준, 담당자 이승진

4. 주요 수상실적 및 재정 인센티브 성과

4-1. 주요 수상실적

□ 일자리·경제(20)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18 1/4분기 일자리사업 신속집행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2018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A등급	고용노동부
2019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한마당 우수상	행정안전부
2019 전국 마을기업 지원기관 성과평가 장려상	행정안전부
2019 전국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2019 전국 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대상	고용노동부
2020 전국 마을기업 지원기관 성과평가 우수상	행정안전부
2020 전국 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2020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고용노동부
2020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2021 대한민국 일자리어워드 일자리부위원장 표창	일자리위원회
2021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2021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최우수(S등급)	산업통상자원부
2021 전국 마을기업 지원기관 평가 장려상	행정안전부
2021 전국 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 장려상	행정안전부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고용노동부
2021 제1회 여성경제활동촉진 전국 공모 광역자체단체 부문 대상 수상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2021 제26회 소비자의 날 우수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
2021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평가 대상	고용노동부

□ 산업·경제·관광(42)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18 K-Festival 브랜드부문 대상	동아일보, 채널 A
2018 내나라여행 박람회 감독상	문화체육관광부
2018 대한민국 SNS 대상 관광부분 대상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2018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우수상	전남일보 외 지역신문사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한국경관학회장상	국토교통부
2018 문화재 돌봄사업 최우수단체 선정	문화재청
2018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상	행정안전부
2018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명량대첩축제) 대상	동아일보
2018 스타브랜드 시티투어부문(남도한바퀴) 대상	매일경제신문사
2018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2018 중국자매도시 교류협력상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2018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평가 대상	고용노동부
2018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상	고용노동부
201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	고용노동부
2018 트레블아이어워즈 관광지 호감도 우수상(광역)	한국마케팅연구소
2018 한국 국제관광전 최우수 마케팅상	한국국제관광전조직위
2019 내나라여행박람회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
2019 대한민국 SNS 대상(관광부문)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2019 도서관운영 평가 우수기관(광역단체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재 돌봄사업 최우수단체	문화재청
2019 부산국제관광전 최우수 관광콘텐츠상	부산광역시
2019 서울국제산업박람회 최우수상	서울시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19 제49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장려상	국립무형유산원
2019 트레블아이어워즈 관광지 호감도 우수기관(광역)	문화마케팅연구소
2019 한국 관광의 별 본상 분야 2개 선정(본상 4개)	한국관광공사
2019「지역축제 종합만족도」TOP5 중 3개 축제 선정	컨슈머인사이트
2020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광역부문 최우수상	전남일보 한국전시산업원
2020 문화재 돌봄사업 10주년 기념 포상 유공단체 선정	문화재청
2020 서울국제관광박람회 최우수부스 운영상	코트파
2020 소비자에게 신뢰받은 착한브랜드 대상(명량대첩축제)	동아일보
2020 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수상 (지역관광, 공감콘텐츠, 시리즈콘텐츠 부문)	한국인터넷 소통협회
2020 호남국제관광박람회 우수홍보상	남도일보 광주관광협회
2021 UN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신안 퍼플섬)	UNWTO
2021 문화재 돌봄사업 최우수단체 선정	문화재청
2021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대한민국디지털 소통 대상 (지역관광 부문)	(사)한국인터넷 소통협회
2021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대한민국디지털 콘텐츠 대상 (시리즈 부문)	(사)한국인터넷 소통협회
2021 제23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 최우수 부스 운영상	코트파
2021 제36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 최우수 마케팅상	코트파
2021 제6회 대한민국국제관광박람회 특별상(관광산업 활성화)	전남일보 한국전시산업원
2021 제7회 올해의 SNS 대상(웨이보)	(사)한국소셜콘텐츠 진흥협회
2021 지역혁신 유공(SOS랩 운영 및 SW서비스 개발 사업)	행정안전부
2021 한국 관광의 별 퍼플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 농축산·수산(77)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18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상, 은상	농림축산식품부
2018 가축방역시책 우수 지자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2018 강소농·경영지원사업 추진 우수 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청
2018 국가 중요어업 유산 지정(2개 무형유산)	해양수산부
2018 국가어항 관리 운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양수산부
2018 글로벌 국제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 우수	농촌진흥청
2018 농산시책평가(시도) 최우수 기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2018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장려상	농림축산식품부
2018 농업기술대상 최우수상	농촌진흥청
2018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장려상	농림축산식품부
2018 농촌진흥사업 홍보 우수 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청
2018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2018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우수업체 고객사랑 대상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2018 수산연구 · 기술보급사업 발표대회 최우수상	국립수산과학원
2018 어촌특화 역량강화 마을 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양수산부
2018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대통령 표창(여수 안포)	해양수산부
2018 전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평가 우수상	농촌진흥청
2018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대상, 명품인증	농림축산식품부
2018 전국친환경농산물품평회 국무총리상	(사)한국유기농업협회
2018 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전국 평가 2위	해양수산부
2018 제13회 귀어귀촌인 전진대회 표창	한국어촌어항공단
2018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표창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2018 제24회 세계농업기술상 우수상	세계일보사
2018 제2회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신지식인 금상	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2018 중앙단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상	농촌진흥청
2018 질병진단 정도관리 장관상 최우수상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 친환경비료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18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우수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2018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은상	농림축산식품부
2019 우수해수욕장 선정(짱뚱어해수욕장)	해양수산부
2019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 가축방역 평가대회 최우수상(1위)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산시책평가(시도) 우수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업기술보급혁신 분야 최우수상	농촌진흥청
2019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2019 도서종합개발사업 최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19 섬 발전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2019 어촌뉴딜300 사업 우수기관 표창	해양수산부
2019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목표제 우수기관	과학기술정통부
2019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친환경쌀 부문)	여성신문사
2019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우수	해양수산부
2019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
2019 지역개발(성장촉진지역) 기관 표창	국토교통부
2019 친환경농자재사업 기관평가(시도)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2020 귀어 · 귀촌 활성화 우수기관 표창	해양수산부
2020 김수출 7천만불 수출탑 수상(신안 천사김)	해양수산부
2020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보성 대한다업, 해남 피낭시에)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촌융복합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대상 영광군, 우수상 강진 뷰티팜)	농림축산식품부
2020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대상 수상(담양 대대포)	농림축산식품부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농축특산품 부문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2020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남도장터)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
2020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최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친환경 쌀 대상	㈜여성신문사
2020 적조 피해 최소화 우수기관 표창	해양수산부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20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수상 (대통령상, 농촌진흥청장상, 한국종축개량협회장상)	농림축산식품부
2020 제2회 우체국쇼핑 온라인 마케팅 대전 우정사업본부장상	우정사업본부
2020 제9회 김치품평회 최우수상 수상(영암 왕인식품 남도김치)	농림축산식품부
2020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수상(여수축협, 해남진도축협)	농림축산식품부
2020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우수기관 표창	해양수산부
2021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온라인 유통분야 금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 가축방역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2021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남도장터)	동아일보 한국브랜드경영협회
2021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성과 평가 전국1위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촌진흥사업 기관상 최우수	농촌진흥청
2021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남도장터)	한국경제신문
2021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상	환경부
2021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남도장터)	중앙일보 S
2021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남도장터)	한국방송신문연합회
2021 식량작물 및 안전농산물 기술보급 촉진 최우수상	농촌진흥청
2021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친환경 쌀 대상	㈜여성신문사
2021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수상(5개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2021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 해양발전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해양수산부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행정안전부
2021 청년농업인 육성 최우수 기관상	농촌진흥청
2021 청년농업인 홍보 서포터즈 최우수상	농촌진흥청
2021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결과 우수(4개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 안전·건설·환경(64)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18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장려상	산림청
2018 도로정비 우수기관 표창 장려상	국토교통부
2018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순천시)	람사르협약사무국
2018 민방위 진흥 활동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2018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부
2018 임도시설 우수사례 평가 우수상	산림청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18 제23회 환경의 날 기관 표창장 수상	환경부
2018 지적재조사사업 기관 표창 최우수상	국토교통부
2018 통합방위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국방부
2018 행복둥지사업 기관 표창 최우수상	국토교통부
2018년 제1회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선정	산림청
2018 환경보전유공기관 표창	환경부
2019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전국 1위	소방청
2019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우수상	행정안전부
2019 국민행복소방정책 화재조사품질분야 3위	소방청
2019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사업 우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2019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우수상	산림청
2019 목재문화지수 확산 우수기관	산림청
2019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평가 전국 1위	소방청
2019 산림복지분야 우수사례 우수상	산림청
2019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19 을지태극연습 유공 최우수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19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조사 3위, 구조전술 3위	소방청
2019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국토교통부
2019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	산림청
2019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업무 우수기관	소방청
2020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국토교통부
2020 국민 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3위	행정안전부
2020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은상	산림청
2020 도로명주소 업무 유공	행정안전부
2020 봄철 산불대응 우수기관 최우수상	산림청
2020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장려상	산림청
2020 전국 상황관리 우수사례 연찬대회 우수상	소방청
2020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3위	소방청
2020 제10회 인명구조견 경진대회 개인 3위	소방청
2020 제25회 전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 최우수상	중앙소방학교
2020 제32회 전국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경연대회 최우수상	소방청
2020 제6회 대한민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우수상	소방청
2020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국토교통부
2020 친환경 사방사업 우수기관 장려상	산림청
2020 현장대응역량 연구발표대회 전국 2위	소방청
2021 119구조견 우수관리기관 전국 2위	소방청
2021 국가재난관리 유공 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2021 녹색도시 우수사례 우수상	산림청
2021 목재문화지수 우수상	산림청
2021 봄철 산불방지 우수상	산림청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21 봄철 화재예방대책 평가 소방청장상	소방청
2021 산사태 재해방지 최우수상	산림청
2021 소방자동차 운용능력 평가 개인 우수, 기관 장려	소방청
2021 숲가꾸기사업 우수상	산림청
2021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21 우리만의 현장대응기법 영상 공모전 대상, 최우수상	국립소방연구원
2021 제11회 전국 119구조견 경진대회 개인전 3위	소방청
2021 제1회 녹색건축 우수 지자체 기관 표창	국토교통부
2021 제33회 전국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경연대회 장려상	소방청
2021 제3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 대통령상	소방청
2021 제34회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2개 분야 전국 1위	소방청
2021 제7회 대한민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우수상	소방청
2021 제7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우수, 장려	소방청
2021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상	산림청
2021 지적업무 추진 우수	국토교통부
2021 친환경 사방사업 우수상	산림청
2021 학교 숲 조성사업 최우수상	산림청
2021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발표대회 전국 1위	소방청

□ 보건·복지(37)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18 결핵관리 우수기관 기관표창	보건복지부
2018 공공산후조리원 감사 수범사례 표창	감사원
2018 노인취업교육센터 최우수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8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분야 평가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2018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기관표창	보건복지부
2018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우수상	보건복지부
2018 음식문화개선사업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2018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분야 평가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2018~2019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2019 국가 기후변화대응 건강분야 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2019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FMTP운영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2019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2019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자활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2019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2019 해양환경 내 병원성비브리오 감시사업 우수기관	질병관리본부
2020 감염병 실험실 검사 유공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2020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2020 식품안전관리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장내기생충 퇴치사업 표창	보건복지부
2020 제15회 임산부의 날 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20 청년친화 헌정대상 정책부문 대상	(사)청년과미래
2020 치매예방관리 분야 우수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2021 결핵예방의 날 우수기관 표창	질병관리청
2021 기초연금사업 추진 유공 우수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20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사업 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2021 생활안전관리 유공 기관표창	질병관리청
2021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안심식당 운영 우수 지자체 평가 기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
2021 위생업소 코로나19 대응 기관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응급의료발전 유공 우수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202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우수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202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행정안전부
2021 생물안전관리 유공기관 표창	질병관리청

□ 기획·행정(60)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18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최우수상)	국민권익위원회
2018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우수기관 기관표창	행정안전부
2018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2018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	보건복지부
2018 인사교류 우수기관 표창	인사혁신처
2018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 (자치행정부문)	대한국민운동본부
2018 제36회 지자체 HRD 콘테스트 장려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우수상(체납징수, 세외수입)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행정안전부
2018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실적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2019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2등급)	국민권익위원회
2019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2019 공무원 노사문화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2019 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 최우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대한민국 소셜인터넷서비스 혁신 대상 지자체 블로그 부문 대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광역자치부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9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평가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19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자치행정부문)	대한국민운동본부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2019 정부혁신 유공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2019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19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국토교통부
2019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우수기관	국토교통부
2019 청년친화 헌정대상 소통부문 대상	(사)청년과미래
2019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2019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최우수 광역단체	행정안전부
2020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1등급)	국민권익위원회
2020 교육훈련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2020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2020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2020 유니테크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 선정	고용노동부
2020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연차평가결과 우수대학 선정	교육부
2020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 연차평가결과 최우수대학 선정	교육부
2020 정보화마을 활성화 유공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공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202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최우수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2020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유공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2021 공공외교 우수사례 창의상	외교부
2021 국민정책서비스디자인 운영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21 귀농귀촌 대한민국 행복박람회 우수지자체	전남일보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 우수지자체	연합뉴스
2021 대규모 통계조사 유공 기관표창(대통령)	통계청
2021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21 상반기 정부 적극행정 우수 기관표창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개설 · 운영)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2021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수 상 내 용	주관기관(단체)
2021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우수지자체	국민일보
2021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표창	행정안전부
2021 적극행정 제도 운영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21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연차평가 결과 우수대학 선정	교육부
2021 제39회 지자체 HRD 콘테스트 자치인재개발원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우수 지자체 표창	행정안전부
2021 지방규제혁신 경잰대회 장려상	행정안전부
2021 지방규제혁신 역전분야별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재정 우수사례 체납징수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21 지역혁신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2021 지자체 재정분석 최우수	행정안전부
2021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2022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4-2. 재정 인센티브 성과

재정 인센티브 평가 부문	금액 (백만원)	주관기관
계(77개 분야)	102,014	
2018 국가중요 어업유산 지정 (보성뻘배어업, 신안천일염업)	300	해양수산부
2018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유치	250	질병관리본부
2018 도서종합개발사업(특수상황지역,성장촉진지역)	2,573	행안부, 국토부
2018 보성 조성 ~ 고흥 대서간 확포장	1,900	행정안전부
2018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분야 평가 대상	50	보건복지부
2018 전국 사회적기업 육성 평가 최우수상	5	고용노동부
2018 전국 일자리대상 평가 우수상	100	고용노동부
2018 전국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선정 특별사업비	500	해양수산부
2018 전국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 (최우수 1, 우수 2)	90	해양수산부
2018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 특별교부세	2,300	행정안전부
2018 전라남도 일자리 종합 플랫폼 구축	1,000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자치박람회 추진 특별교부세	900	행정안전부
2018 지역발전특별회계 차등지원 평가	30,832	기획재정부
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기관	20	보건복지부
2018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S등급)	2,000	중소벤처기업부
2018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00	농촌진흥청
2018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분야 평가 우수상	15	보건복지부
2018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735	고용노동부
2018 택시 감차보상사업 인센티브	80	국토교통부
2018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1,952	교육부
2018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실적평가 우수	28	행정안전부
2018~2019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우수기관	10	보건복지부

재정 인센티브 평가 부문	금액 (백만원)	주관기관
2019 국가안전대진단 평가 우수기관	500	행정안전부
2019 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 최우수	3,7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논 타작물재배 전국 최다면적 확보	35,368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산시책평가(시도) 우수기관	10	농림축산식품부
2019 도시재생뉴딜사업 우수기관	2,000	국토교통부
2019 문화관광축제 선정(6개 축제)	764	문화체육관광부
2019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15	보건복지부
2019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우수사례 선정	2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평가 우수	41	행정안전부
2019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6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우수기관	200	행정안전부
2019 우수해수욕장 선정(짱뚱어해수욕장)	100	해양수산부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대상	300	고용노동부
2019 지방재정 확대 우수기관	200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체납징수분야)	150	행정안전부
2019 친환경농자재사업 최우수기관	700	농림축산식품부
2019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500	행정안전부
2019 합동평가 결과 우수기관	1,124	행정안전부
2019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최우수 광역단체	15	행정안전부
2020 국민 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3위	2	행정안전부
2020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우수기관 선정	20	행정안전부
2020 도시재생 뉴딜사업	4,000	국토교통부
2020 사회복장급여 사후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8	보건복지부
2020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우수	60	행정안전부

재정 인센티브 평가 부문	금액 (백만원)	주관기관
2020 유니테크사업 성고사평가 우수등급 인센티브	4	고용노동부
2020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709	행정안전부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100	고용노동부
2020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연차평가 우수대학 인센티브	293	교육부
2020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 연차평가 최우수대학 인센티브	60	교육부
2020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자체평가 최우수	95	보건복지부
2020 코로나19 대응 우수해수욕장 선정(2개소)	200	해양수산부
2020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우수	60	행정안전부
2021 국민정책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선정	50	행정안전부
2021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장관상	3	보건복지부
2021 대규모 통계조사 유공 기관표창(대통령)	5	통계청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특별교부세	30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2021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최우수	80	행정안전부
2021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공모사업 선정	200	중소벤처기업부
2021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3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기관	300	행정안전부
2021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입상 특별교부세	40	행정안전부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15	고용노동부
2021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연차평가 우수대학 인센티브	835	교육부
2021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023	행정안전부
2021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장려상	50	행정안전부
2021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우수기관 선정	20	행정안전부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50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재정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 선정	100	행정안전부

재정 인센티브 평가 부문	금액 (백만원)	주관기관
2021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 공모사업 선정	100	행정안전부
2021 지자체 재정분석 최우수	100	행정안전부
2021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우수기관	69	보건복지부
2021 코로나19대응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인센티브	200	행정안전부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50	행정안전부
2021 협업 지원과제 선정	50	행정안전부
2021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397	질병관리청

5. 연도별 도정 10대 시책(2018~2021년)

가. 2018년 우수시책

순위	실 과 소	시 책 명	비고
1	문 화 예 술 과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최우수(1)
2	혁 신 경 제 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총력	우수(4)
3	건 축 개 발 과	주거약자를 위한「행복둥지사업」추진	
4	행 정 지 원 과	모두가 행복한「즐거운 직장 만들기」	
5	건 강 증 진 과	전국 최초, 노인 결핵 전수 검진	
6	일자리정책과	전국 최초, 전남 일자리 플랫폼 구축	장려(5)
7	관 광 과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8	투 자 유 치 과	호남 최초 지역항공사 ㈜에어필립 유치	
9	해양수산기술원	낙지 자원량 증대를 위한 목장 조성	
10	농 업 정 책 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나. 2019년 우수시책

순위	실 과 소	시 책 명	비고
1	정책기획관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추진	최우수(1)
2	지 원 담 당 관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유치 및 설립 지원	우수(4)
3	감 사 관 실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4	희망인재육성과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5	혁신경제과 외 2 개 과	전국 유일 규제자유특구 2관왕	
6	섬해양정책과	제1회 섬의 날 국가행사 유치 및 성공 개최	장려(5)
7	혁 신 경 제 과	청년 친화형 산단 지정으로 조선업 새활로 모색	
8	정책기획관실	광역최초「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도입	
9	일자리정책과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10	식 량 원 예 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유치	

다. 2020년 우수시책

순위	실 과 소	시 책 명	비고
1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정공급 지원	최우수(1)
2	혁신경제과	1조2천억, 「산업단지 대개조」 정부 공모사업 확정 추진	우수(4)
3	국제협력관실	세계 최초 아마존 지자체 브랜드관 개설	
4	연구바이오산업과	국가 면역치료플랫폼, 전남 바이오산업 지도를 바꾸다	
5	농식품유통과	농업인·학생·학부모를 춤추게 하는 행복상자	
6	농식품유통과	「남도장터」 200억 찍고, 300억 go!go!	장려(5)
7	대 변 인	바이럴 영상을 활용한 유튜브 도정 홍보	
8	정책기획관실	한국판 뉴딜 대응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9	투자유치과	「동북아 LNG Hub 터미널」 유치 성공	
10	대응예방과	화재 시 대피약자 도우미 재실알림판 ON솟	

라. 2021년 우수시책

순위	실 과 소	시 책 명	비고
1	농업정책과	4,079억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성공!	최우수(1)
2	사회복지과	전국 최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ZERO! 언제나 부르면 OK!	우수(4)
3	도로교통과	도민 숙원사업(SOC) 국가계획 반영	
4	예산담당관실	매년 6천억원, 4년간 2조4천억원 재원 확충	
5	정책기획관실	제20대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으뜸전남 미래전략 수립	
6	농식품유통과	남도장터 500억, 민선7기 지자체 쇼핑몰 매출 전국 1위	장려(5)
7	농식품유통과	전남 쌀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CU(편의점) 확실한 김밥쌀 333억원 판매	
8	정책기획관실	2021년 정부합동평가 역대 최고 성적 달성	
9	해상풍력산업과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착공 가시화	
10	에너지공대지원과	국비 1조 대형연구시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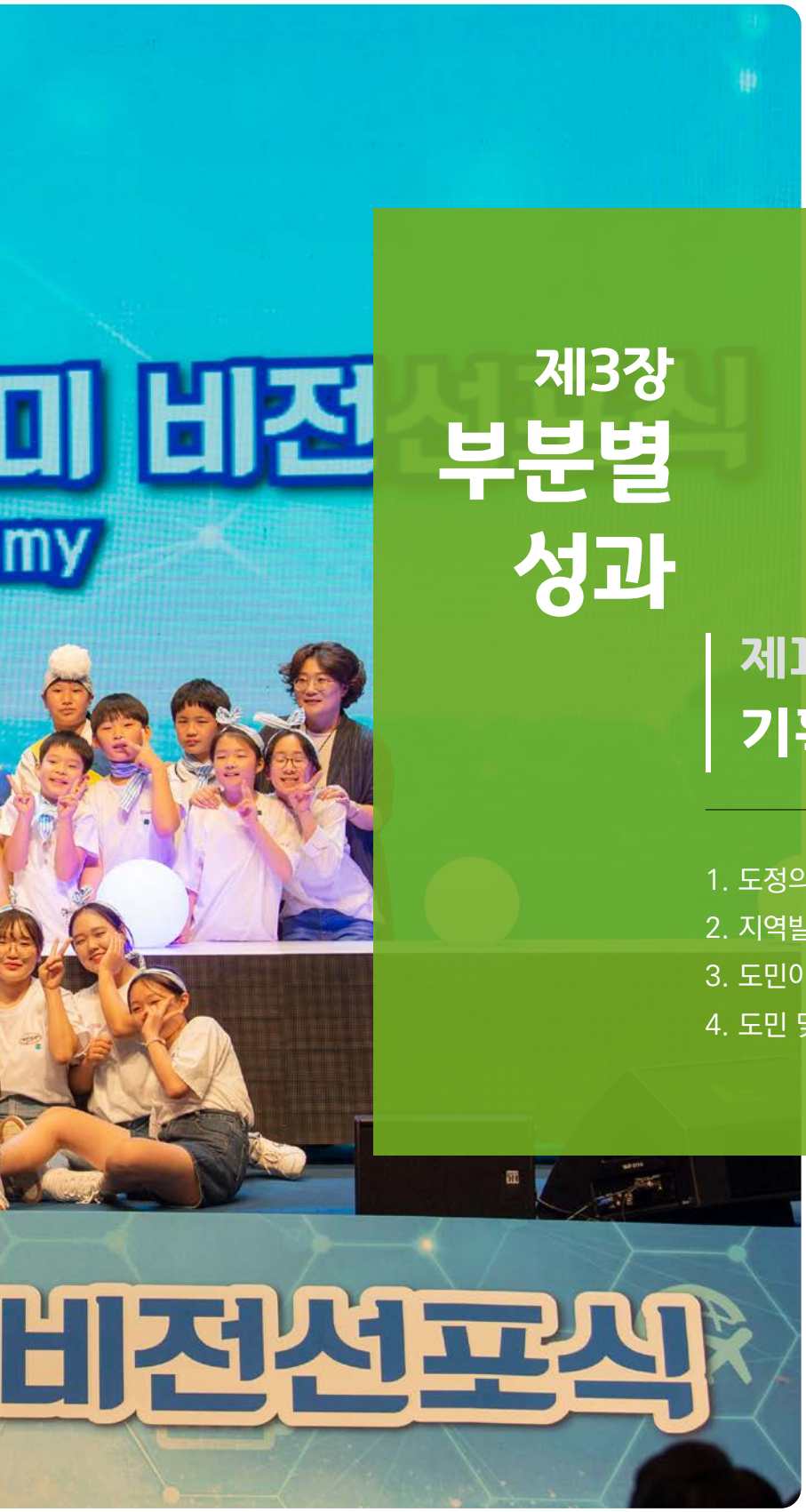


03

제3장
부분별 성과

제1절 기획·예산
제2절 재난·안전관리
제3절 일자리·통상
제4절 산업·에너지
제5절 문화관광체육
제6절 인구·보건복지
제7절 농축산
제8절 해양수산
제9절 지역개발
제10절 환경산림
제11절 자치행정


생명의 땅 전남
전남 블루 이코노
Blue Econo
전남 블루 이코노미
Blue Economy



제3장 부분별 성과

제1절 기획·예산

1. 도정의 기획조정과 평가체계 구축
2. 지역발전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3.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4. 도민 맞춤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제1절 기획·예산

1. 도정의 기획조정과 평가체계 구축

1-1. 전남발전 미래 비전 수립

가.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

전라남도는 2019년 섬, 해양, 하늘, 바람, 황금들녘 등 전남만의 풍부한 블루자원(Blue Resources)을 바탕으로 전남의 새로운 천년을 이끌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수립했다.

2019년 7월 12일에는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남의 블루자원을 바탕으로 ▲블루 에너지(미래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 전남) ▲블루 투어(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블루 바이오(세계적 바이오-메디컬 허브) ▲블루 트랜스포트(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중심) ▲(블루시티)신개념 미래형 스마트시티 5가지 프로젝트를 대통령과 도민에게 보고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의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반드시 성공시켜 미래로 웅비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가 대한민국의 블루칩이 되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이어 선포식에서 제시한 5가지 프로젝트에 블루 농수산을 추가하여 총 6개 프로젝트별 추진전략을 재정비했다

블루 이코노미의 여섯 가지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블루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전남의 자연조건과 한전공대, 연구 클러스터, 에너지밸리 등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남해안 시대의 기적을 이뤄낼 신성장 관광 '블루 투어'는 천혜의 청정자원과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 등 남해안의 풍부한 관광콘텐츠를 연계 개발해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블루 바이오'는 국내유일의 백신산업 생태계, 다량의 천연물 원료 생산 등 전남의 보유자원을 기반으로 미래 유망 생명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남을 바이오-메디컬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번째, '블루 트랜스포트'는 전국 최대 드론 시험공역과 국내 최고의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구축 등 전남의 강점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다섯 번째, '블루 농수산'은 미래 먹거리를 찾아 젊은 층이 농·어촌을 찾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량수요 확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첨단 생산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끝으로 여섯 번째 프로젝트'전남형 스마트 블루 시티'는 전남의 자연환경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해 청년, 직장인, 신중년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신개념 미래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

2020년 12월에는 6대 프로젝트별 추진전략 수립과 함께 기존 추진과제를 정비하고 신규 발굴된 과제를 추가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0대 추진과제를 선정, 오는 2030년까지 75조원을 투입해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인당 소득 전국 광역지자체 10위권 내 진입을 비롯 의료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힐링을 통한 국민행복공간 제공 등에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하였다.

【 6대 프로젝트별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

구 분	추진 전략	주요 과제
에너지 (19개 과제)	• 글로벌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 에너지산업 융복합 생태계 조성 • 그린뉴딜 기반 해상풍력단지 구축 • 도민 체감형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RE100 전용 시범산업단지 조성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 ESS 구축 • 도민 이익 공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투 어 (18개 과제)	• 지속가능한 체류형 서남해안 관광거점 조성 • 지역특화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 내륙 연계 해양 관광자원 접근성 개선 • 고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 국가계획 반영 •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 대한민국 생태·체류형 거점 관광지 조성 • VR기반 남도여행 체험형 관광 플랫폼 구축
바이오 (19개	• 감염병·난치성질환 치료 첨단의료 거점 구축	• 국립 의과대학 설립 • 국가면역치료 혁신 플랫폼 구축

과제)	• 백신·면역치료제 개발 전주기 지원시스템 구축 • 천연물 의약품산업 생태계 조성 • 의료연계 자연치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대 • 국립 심뇌혈관 질환센터 설립 • 국가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트랜스포트 (19개 과제)	•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 개인비행체 실증 인프라 및 생산단지 조성 • 차세대 친환경 선박산업 거점 조성	• 미래비행체 통합 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장비구축 사업 • LNG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기반 구축
농수산 (17개 과제)	• 스마트 농수산업 성장모델 육성 •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 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 활력 넘치는 농어촌 만들기	•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 수출전략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 유·무선망 활용 농촌형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수산생물 정보·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구축
시 티 (8개 과제)	• 청정자원을 활용한 생태 도시 구축 • 에너지 저감 스마트 도시 조성 • 첨단 기술이 접목된 웰니스 산업 유치	• 기본소득 보장형 주택보급 사업 • 복합문화공간 산이공원 조성 • 기업도시 1가구 2주택 중과세 완화

블루 이코노미 민선7기 주요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 블루이코노미 주요 성과(2021년 이후) 】

프로젝트	사 업 명
블루 에너지	·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 ·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등
블루 투어	· 남해안권 광역관광 기반 마련 · 한국섬진흥원 유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블루 바이오	·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및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 등
블루 트랜스포트	·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선정 등

프로젝트	사 업 명
블루 농수산	· 농식품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선정 · 남도장터·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등
블루 시티	·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98MW) 준공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특히 국비 확보는 2020년 79건 1조 2,285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121개 사업 1조 6,898억원, 2022년에는 전년보다 45% 증가한 202개 사업, 2조 4,4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전남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

대규모 국비 확보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순풍이 불고 있는 만큼 2023년에 반영할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정책개발1팀장 김성원, 담당자 류두송**

나.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에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 한국판 뉴딜 사업비 160조 원 가운데 75조 원을 지역에 투자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과 방향이 일치하는 ‘블루이코노미’와 연계, 선제적·체계적 대응 및 가시적 성과 창출로 한국판 뉴딜 선도하고자 전남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2020년 10월 전남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추가로 2020년 11월 공동위원장 2인과 디지털·그린·해상풍력 3개분과 총 23명의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였다.

2020년 12월, 전라남도는 '2030 전남 행복시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공간 뉴딜 3대 분야 총 162개 사업 80조원 규모의 전남형 뉴딜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라남도는 2021년 2월, 신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지역균형뉴딜 투어 1호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전남형 뉴딜 전략을 발표하였다. 지역균형뉴딜투어 1호 행사를 통해 48조원 규모의 세계최대 해상풍력 계획과 도민, 해상풍력 기업, 대통령, 도지사가 함께하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선도사업인 전남 해상풍력을 가슴 뛰는 사업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하고,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였다.



【 지역균형 뉴딜투어 1호 】

전남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2.0에 맞춰 휴먼 일자리 뉴딜을 추가해 한 단계 더 진화하였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전남형 뉴딜 비전 및 추진전략 】

비 전	추 진 전 략
(그린 뉴딜) 탄소중립 2050 실현	1. 전남형 그린뉴딜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 선도 2. 그린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 3. 도민과 기업이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 4. 한국판 그린뉴딜 실현 모멘텀
(디지털 뉴딜) 똑똑한 대한민국 선도	5. 디지털 신산업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 견인 6. 핵심 SOC 디지털화로 주력 산업 르네상스 7. 농어업의 디지털화로 융복합 생명산업 육성
(휴먼・일자리 뉴딜) 상생 일자리 창출	8. 뉴딜인재 양성, 전남형 뉴딜 성공적 안착

전남형 뉴딜의 주요 우수사례로 신안 앞바다에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클라우드 데이터 및 R&D 센터 구축,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농수산물 비대면 유통・판로 확대 등이 있으며 2021년에는 68건 3,560억원, 2022년에는 106건 4,332억 원의 정부예산을 대거 확보하였다.

또한 2022년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뉴딜분야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해 전남의 한국판 뉴딜 선도를 전국에 알렸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계획 반영 및 국고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정책개발1팀장 김성원, 담당자 류두송**

1-2. 도의회와 소통·협력 강화

가. 제11대 도의회 구성

제11대 도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의원 52명과 비례대표 6명을 포함한 총 58명이 선출되어 2018년 7월 10일 개원식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개원 당시 도의회 정당별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53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이 2명이었다.

전반기 원구성은 2018년 7월 10일 제323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의장에 이용재 의원, 부의장에 김한종 의원과 이민준 의원이 선출되었다. 또한, 7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기획행정, 보건복지환경, 경제관광문화, 안전건설소방, 농수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으며 이들의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였다.

후반기 원구성은 2020년 6월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장에 김한종 의원, 부의장에 구복규 의원과 김성일 의원이 선출되었다. 또한, 7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기획행정, 보건복지환경, 경제관광문화, 안전건설소방, 농수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운영위원을 선출하여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으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였다.

【 제11대 도의회 원구성 】

(단위 : 명)

상임위원회	전반기(2018. 7. ~ 2020. 6.)		후반기(2020. 7. ~ 2022. 6.)	
	위원장	위원수	위원장	위원수
의회운영	서동욱(순천3)	10	전경선(목포5)	10
기획행정	이혜자(무안1)	9	박문옥(목포1)	9
보건복지환경	전경선(목포5)	9	강정희(여수6)	9
경제관광문화	김태균(광양2)	10	이현창(구례)	9

상임위원회	전반기(2018. 7. ~ 2020. 6.)		후반기(2020. 7. ~ 2022. 6.)	
	위원장	위원수	위원장	위원수
안전건설소방	임영수(보성1)	9	최무경(여수4)	10
농수산	김성일(해남1)	10	정광호(신안2)	10
교 육	우승희(영암1)	10	유성수(장성1)	10

※ 위 표에 의장은 미포함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 부위원장 1명,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구성됨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의회협력팀장 오정환, 담당자 손용희, 이종승

나. 도의회 회기 운영

1) 운영 개요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회기는 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연간 총 회기 일수 범위 내에서 연 2회 정례적으로 집회하는 정례회와 필요 시 수시로 집회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전라남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연간 총 회기는 120일 이상으로 하되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 총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하되,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는 본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운영 실적

제11대 도의회의 회의 개최는 총 39회(정례회 8회, 임시회 31회), 총 개회 일수 503일(정례회 236일, 임시회 267일)이었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처리, 도정 질문, 현지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제11대 도의회의 회기 운영 실태를 분석해보면 매년 제1차 정례회는 주로 전년도 결산을 승인했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했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의회협력팀장 오정환, 담당자 손용희, 이종승

다. 의안처리 실적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도의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 1,652건으로 조례안 898건, 예산 및 결산안 38건, 승인 및 동의안 142건, 건의 및 결의사항 256건, 기타 318건이다. 안건이 처리된 결과를 보면 원안가결이 1,541건, 수정가결이 81건, 부결 3건, 철회 15건, 비처리 8건으로 나타났다.

【 의안접수 내역(2018. 7. ~ 2022. 3.) 】

(단위 : 건)

합 계	조 례			예산 및 결산	승인 및 동의	건의 및 결의	기타
	소계	의원 발의	단체장 발의				
1,652	898	765	133	38	142	256	318

【 의안처리 결과(2018. 7. ~ 2022. 3. 】

(단위 : 건)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기타	
		원안	수정					
1,652	1,644	1,541	81	3	4	15	0	8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의회협력팀장 오정환, 담당자 손용희, 이종승

라. 도의회와 소통·협력 강화

민선 7기 지역 현안의 신속한 조정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도와 도의회 간 생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 대표하는 도지사와 의장단 간 정례회동을 추진했다.

도지사와 의장단 간 정례회동은 매 분기별 1회로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였다. 필요 시 실국장과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확대 정례회동을 개최하기도 했다. 회동 안건은 집행부나 도의회 현안 중 협의하여 결정했다.

2018년 7월 16일을 시작으로 2022년 3월까지 총 13회의 정례회동이 개최되어 도정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였다.

정례회동 외에도 각 실국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및 도의원에게 주요 업무보고, 도 주관 행사 초청, 당면 현안 설명 및 자료 제공 등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에 기여했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의회협력팀장 오정환, 담당자 손용희, 이종승

마. 도의회 정책제안의 도정반영

매년 도정 전반에 대한 도의회의 도정질문(4~5월, 9~10월)과 행정사무감사(11월)를 실시하여 도정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의 발굴 및 반영을 통해 도정 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내역

2018~2021년도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결과 총 1,920건이 지적되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37건, 기획행정위원회 322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362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358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44건, 농수산위원회 235건, 교육위원회 462건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은 총 1,920건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권고를 요하는 사항이 1,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 77건, 주의 28건, 개선 516건, 건의사항이 165건으로 나타났다.

【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감사 지적건수(2018~2021년) 】

(단위 건)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행정	보건 복지 환경	경제 관광 문화	안전 건설 소방	농수산	교육
계	1,920	37	322	362	358	144	235	462
2018년	450	10	87	98	67	32	55	101
2019년	473	12	77	94	78	35	65	112
2020년	459	9	61	74	99	33	58	125
2021년	538	6	97	96	114	44	57	124

【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지적내역(2018~2021년 】

(단위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의·기타
계	1,920	77	28	516	1,134	165
의회운영	37	-	-	11	18	8
기획행정	322	13	7	103	195	4
보건복지환경	362	25	7	139	124	67
경제관광문화	358	2	0	61	286	9
안전건설소방	144	6	11	31	62	34
농수산	235	17	0	49	149	20
교육	462	14	3	122	300	23

2) 도정에 대한 질문과 처리실태

민선 7기 이후 도정 질문은 7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질문 의원은 41명으로 전체 의원의 70.6%이다. 질문 건수는 총 328건이며, 이를 소관별로 보면 기획행정 분야 63건, 보건복지환경 분야 37건, 경제관광문화 분야 64건, 안전건설소방 분야 28건, 농수산 분야 60건, 교육 분야 76건으로 나타났다.

도정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집행부 약속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시 약속사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추진실적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이후 2022년 2월 28일까지 약속사항 관리건수는 총 252건이며, 이 중 176건은 완료되었고 76건은 추진 중에 있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제11대 도의회 질문내용 분석(소관별) 】

(단위 건)

총 계	기획행정	보건복지 환경	경제관광 문화	안전건설 소방	농수산	교 육
328	63	37	64	28	60	76

【 실국별 도의회 약속사항 처리현황(제11대 도의회) 】

(단위 건)

구분	계	대변인실	감사관실	인구청년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국제협력관실	여순사건지원단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일자리경제본부	전략산업국
약속건수	252	1	2	7	3	1	4	11	7	18	5
완료	176	-	2	5	2	1	4	8	7	10	4
추진중	76	1	-	2	1	-	-	3	-	8	1

구분	에너지산업국	관광문화체육국	보건복지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동부지역본부
약속건수	11	29	14	36	14	19	37	2	10	1	20
완료	4	23	12	29	6	12	29	2	7	-	9
추진중	7	6	2	7	8	7	8	-	3	1	11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의회협력팀장 오정환, 담당자 손용희, 이종승**

1-3. 정책개발 체계 구축

가.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광주전남 상생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 시도 산하의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통합연구원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2015년 6월 개최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15년 9월 (재)광주전남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통합을 계기로 시도상생을 상징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양 연구원의 장점이 모여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상승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발전에 대안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 광주·전남 대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주요 정책 현안인 저출산・인구감소 극복,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도시 시즌 2, 재정분권 등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등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연구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공약 발굴과 민선 8기 광주전남 시군구 발전구상 제안 등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지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역의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제3대 박재영 원장 취임 이후 연구수행체계, 평가제도, 복무, 보수 분야의 제도개선 및 혁신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연구량, 연구질 제고와 함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우수한 경영성과를 도출하였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앞으로 통합 취지와 위상에 걸맞게 우수인력 충원, 내부혁신 등을 통해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광주전남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정책개발2팀장 김명섭, 담당자 전은세

나.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과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은 2022년 4월 기준 총 269명으로 학계, 연구원, 사회단체, 전직 공무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되어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 제안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괄위원회 이외에 투자유치, 전략산업, 관광문화, 농업, 해양수산, 보건복지, 여성, 지역개발, 인재육성, 환경, 신재생에너지, 안전 등 12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자문위원회는 2018년 26회, 2019년 25회, 2020년 25회, 2021년 25회의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276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온라인 자문, 서면 심의 등 상시 자문을 수행하며 도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출된 정책에 대한 참신한 발전방안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수시 자문회의 개최와 자문 결과 환류를 통해 정책 자문의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정책개발2팀장 김명섭, 담당자 강다연

다.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해 행정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공무원 제안의 제출방법을 국민 제안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2019년에는 우수 제안의 사장 방지와 도정 반영률 제고를 위해 불채택 제안의 채택 여부를 재검토하는 '불채택 제안 대상 도민 보완제'를 도입했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제안 심사 등 각종 제안 시책 추진으로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2020년에는 '1부서 1제안하기 운동'을 실시하여 부서 업무와 관련된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2021년도에는 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바른언어 가이드북' 등 17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도정시책에 반영했다.

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고, 제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제안 문화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제안제도 운영 현황 】

(단위 : 건, %)

연도	접 수			채 택			채택률
	계	국민	공무원	계	국민	공무원	
2018	432	326	106	49	34	15	11.3
2019	418	327	91	45	35	10	10.8
2020	381	271	110	45	32	13	11.8
2021	410	266	144	65	23	42	15.8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정책개발2팀장 김명섭, 담당자 강다연

라.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도정 연구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도정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공무원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도 소속 공직자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현장조사,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했으며,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현황 】

(단위 : 건, 명, %)

연도	참가규모		연구과제 도정 반영현황		
	운영모임	참여인원	연구건수	반영건수	반영률
2018	38	288	37	19	51%
2019	24	227	23	13	56%
2020	27	241	26	20	77%
2021	30	261	27	15	55%

연구모임을 통해 발굴된 정책제안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보완 후 도정 시책으로 반영되어, 공직 내 연구역량 향상과 도정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시책화 가능성, 논리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정된 최종 우수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별도 시상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동기 부여를 강화했다.

2018년에는 '세이프 빌더'팀의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능형 전자지도시스템 구축', 2019년에는 '바다탐험대'팀의 '남획, 바다환경 변화로 사라져가는 어종 및 어구어법 변천사 연구', 2020년에는 'J.C.M 3.0'팀의 '참여형 지도 제작·공유 활용', 2021년에는 '글로컬 E-파머스'팀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이 최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자기개발은 물론 축적된 전문지식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정책개발2팀장 김명섭, 담당자 강다연

1-4. 도정 평가체계 구축

가. 도민평가단 운영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주요업무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민이 직접 도정의 주요업무를 평가하는 도민평가단을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도민평가단은 공약을 비롯하여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정 주요 사업들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추진되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민선7기에는 도민 제일주의 실현과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단원 수를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 평가단 구성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20명)과 무작위 인구비례추첨(80명) 방식을 혼용하여 선발하였다.

도의회 추천 5명, 정책자문위원 추천 10명,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3명, 농림수산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2명 등 20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도민 80명의 선발은 1차 ARS 방식으로 참여 희망 주민을 선발(10배)하고, 2차 전화면접으로 성별, 나이, 지역 안배를 고려한 추첨을 실시하였다.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기획행정환경, 일자리경제, 관광문화, 복지여성, 농축산, 해양수산, 안전건설소방)하고 분과별 일정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를 개최하였다.

1) 2020년 주요활동

2020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68명의 도민평가단원들이 28개의 사업(7개 분과별 4개 사업)을 선정하여 5개 항목(도정발전의 기여도, 정책의 타당성, 정책수행의 노력도,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전반적 만족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2020년 서면평가 대상 】

분과	사 업 명
기획행정환경	전남 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추진 (우수)
	블루 이코노미 2020년 주민·단체 참여숲
	광양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운영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일자리경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우수)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관광문화	남도음식거리 조성 (우수)
	문화재 돌봄사업
	2020년 지역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사업
	중·소규모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
복지여성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 기반 강화 (우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
농축산	온난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및 단지 조성 (우수)
	스마트팜 지원체계 구축 및 보급형 모델 확산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환경친화형 축산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해양수산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우수)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전남 귀어학교 개설사업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안전건설소방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전철화 사업 (우수)
	「119 출동정보 알림서비스」 고도화
	연륙·연도교 확충으로 도서민 교통편의 개선
	소방안전 DB구축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28개 사업 서면평가 결과, 6개 사업이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었으며, 평균점수는 85.0점으로 평가되었다.

2) 2021년 주요활동

2021년 10월 20일부터 29일 중 7일간 37명의 도민평가단원들이 28개의 사업(7개 분과별 4개 사업)을 선정하고 5개 항목(도정발전의 기여도, 정책의 타당성, 정책수행의 노력도,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전반적 만족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 위기대응 방침에 따라 서면과 대면 방식을 혼용하여 평가하였다.

【 2021년 현장평가 대상 】

분 과	사 업 명
기획행정환경	여수산단 화학사고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우수)
일 자 리 경 제	도민참여 도민발전소 건립 (우수)
관 광 문 화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우수)
복 지 여 성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언제나 부르면 OK (우수)
농 축 산	지역특화 유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우수)
해 양 수 산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운영 (우수)
안전건설소방	119 다매체 신고 모니터링 구축 (우수)

【 2021년 서면평가 대상 】

분과	사 업 명
기획행정환경	2021년도 전라남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블루 이코노미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일 자 리 경 제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운영
	1조 2천억 원, 광양만권 산업단지 대개조
관 광 문 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전남도립미술관 개관특별전

분과	사 업 명
	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2021 남도한바퀴 운영
복 지 여 성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
	장애인 IoT·AI 활용 통합돌봄 사업
농 축 산	전남産 여성친화형 농업용전기운반차 지원
	도민 상생 환경친화형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해 양 수 산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햇바디1호' 김 신품종 개발
	득량만 새꼬막 양식 생산성 향상 표준화 연구
안전건설소방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내땅 경계 바로잡기」 사업 추진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 분류 추진

7개 사업 현장평가와 21개 사업 서면평가 결과, 15개 사업이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었으며, 평균점수는 89.6점으로 도정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민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의 주요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주민중심형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정책평가팀장 유영민, 담당자 김대중**

나. 민선7기 도지사 공약관리

슬로건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비전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를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혁신 성장산업 육성, ▲도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개발 촉진, ▲농수축산 생명 산업벨트 조성, ▲맛·멋·체험 오감만족 문화관광,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도민제일주의로 활력있는 전남만들기 등 핵심전략 7개와 이를 뒷받침 할 26개 과제,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139건의 공약을 최종 확정하였다.

공약이행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에 공약실천계획, 공약실천계획 변경 내역, 공약이행 점검결과, 주민소통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누리집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이행평가[1]를 실시하고 있다.

민선7기 대상 마지막으로 실시된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2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139개 공약 중 125개 공약이 완료되어 공약이행률 93.53%와 135개 공약 계획 추진으로 2021년 목표달성률 97.12%를 달성하는 등 종합 및 3개 분야(공약이행완료, 2021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모두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민선7기 임기 내 재정확보 계획액은 8조 5,596억원으로 2021년말까지 9조 1,631억원을 확보하여 확보율 107.5%를, 2021년말까지 예산 집행액은 7조 8,389억원으로 집행률 91.6%를 기록했다.

1)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5개 등급(SA, A, B, C, D)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 2020년부터 SA 등급만 공개

1) 2019년(2018년 실적) 공약이행평가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종합구성(40점), 개별구성(20점), 민주·투명성(20점), 웹소통(15점) 등 총 100점 기준으로 「2019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남은 종합구성 38.9점, 개별구성 17.4점, 민주·투명성 16.8점, 웹소통 15점 등 합계 88.1점으로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다.

2) 2020년(2019년 실적) 공약이행평가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100점, 적용 33%), 2019년 목표달성(100점, 적용 33%), 주민소통(100점, 적용 33%) 등 총 100점 기준으로 「2020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남은 공약이행완료 30.94점, 2019년 목표달성 98.55점, 주민소통71점 등 합계 66.83점으로 2019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3) 2021년(2020년 실적) 공약이행평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100점, 적용 25%), 2020년 목표달성(100점, 적용 25%), 주민소통(100점, 적용 50%) 등 총 100점 기준으로 「2021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남은 공약이행완료 63.31점, '20년 목표달성 97.12점, 주민소통 76점으로 합계 78.11점이었다.

4) 2022년(2021년 실적) 공약이행평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100점, 적용 33%), '21년 목표달성(100점, 적용 33%), 주민소통(100점, 적용 33%) 등 총 100점 기준으로 「2022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남은 공약이행완료 93.53점(전국 평균 84.33점), 2021년 목표달성 97.12점(전국 평균 96.63점), 주민소통 80점(전국 평균 77점) 등 합계 90.22점으로 종합 및 3개 분야 평가 모두에서 최우수인 SA등급으로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를 마무리하였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정책평가팀장 유영민, 담당자 김대중**

다. 성과관리 운영

1) 성과관리 도입 배경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조직의 비전·전략을 부서단위 목표와 연계,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구축, ▲행정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2008년부터 자체평가와 개인 성과평가를 통합한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성과지표 설정·고도화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을 위해 도정 목표를 반영한 지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고도화 하기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국정과제, 공약사항, 합동평가 등과 연계한 1,622개 지표를 계발하여 도정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 성과지표 발굴·개선 】

연도	고유지표	공통지표	가·감점지표
2018	363	6	12
2019	380	6	12
2020	389	5	13
2021	412	6	18

3) 평가체계 구성 및 개선

성과관리 평가는 세부적으로 BSC지표평가, 업무실적평가, 역량·조정평가, 가·감점 평가로 이루어졌다.

BSC지표평가는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달성도 평가와 중요도,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성격 평가(품질평가), 업무성과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업무실적 평가로 나눠 실시했다.

2018년에는 팀별 대표성과 도전성을 갖춘 핵심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코자 지표성격 평가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국정과제, 공약사항 등을 핵심업무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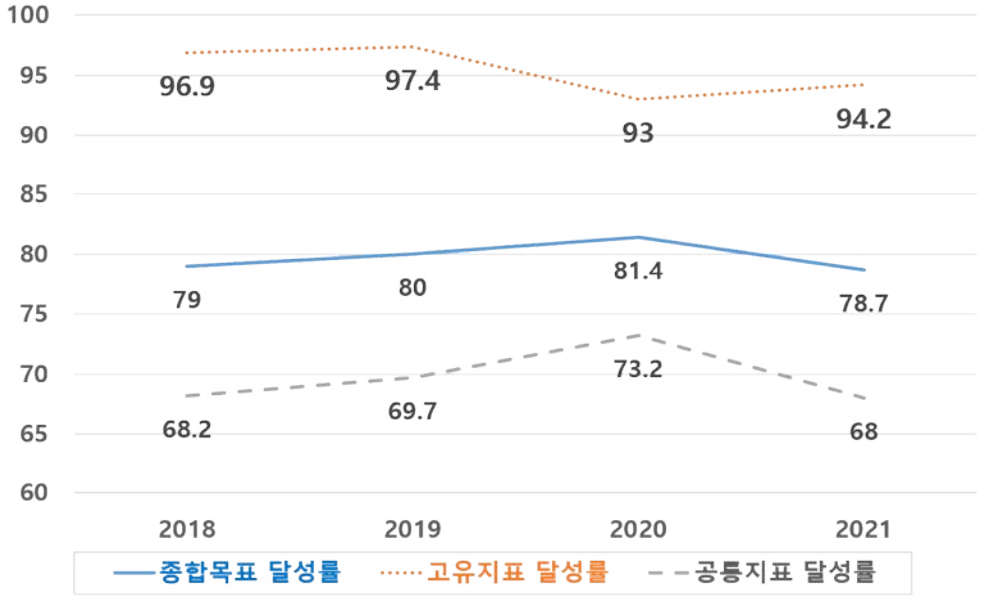
2019년에는 평가 변별력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업무실적평가 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 배점을 확대하였고, 2020년에는 실국장이 부서 노력도를 평가하도록 내부평가요소를 추가하였다.

부서평가 가·감점과 개인평가 가·감점을 구분하여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달성한 성과는 부서평가에, 개인이 노력하여 이룬 실적은 개인평가에 반영되도록 했다.

2021년에는 정무부지사 담당부서 과장급(4급) 조정평가는 정무부지사가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 분장사무별 역량·조정평가 이원화를 추진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확보하였다.

【 연도별 평가체계 】

연도	평가체계 변화				
	부서평가(80)			개인평가(20)	±@
2018	지표달성도(30)	지표성격(20)	업무실적(30)	역량·조정(20)	가감점 (±10)
2019	지표달성도(30)	지표성격(20)	업무실적(20)	역량·조정(30)	
2020	지표달성도(30)	지표성격(20)	업무실적(20)	역량·조정(30)	
2021	지표달성도(30)	지표품질(20)	업무실적(20)	역량·조정(30)	



4) 성과관리 평가 및 운영 성과

성과관리 부서평가는 실·국 및 실·과 단위로 평가하고, 개인평가는 5급 이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2018년에는 123개 부서(실·국 21, 실·과 102), 486명(실·국장 21, 실·과장 102, 팀장 363)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21년에는 140개 부서(실·국 23, 실과 117), 515명(실·국장 22, 실·과장 108, 팀장 385)에 대한 평가를 했다.

【 BSC 지표 달성률 】

연도	종합 목표달성률	고유지표 달성률	공통지표 달성률
평균	79.0	95.1	64.8
2018	79.0	96.9	68.2
2019	80.0	97.4	69.7
2020	81.4	93.0	73.2
2021	78.7	94.2	68.0

부서 및 개인 평가 결과를 기초로 우수부서 시상, 개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산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업무 환류 및 개인 동기부여 강화를 도모했다.

위와 같은 민선 7기 성과관리 운영의 내실화로 직원들의 조직 목표와 성과 연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조직 전체 역량 강화를 위한 공통지표(청렴도, 교육훈련 이수율, 전화친절도 등) 및 가·감점 지표(일자리창출, 우수시책, 자원봉사활동 등)의 성과도 향상됐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 목표 달성이 용이한 단순지표를 설정하는 행태, 도의 목표와 맞지 않은 지엽적 지표 설정 등은 계속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며, 지표 산식에 따른 실적이 100%를 초과하는 지표는 컨설팅 등을 통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표성격 평가(품질평가) 시 담당부서의 소극적 목표 설정 행태에 대한 감점을 주어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공통지표 배점 확대와 가·감점지표의 구간별 점수차 조정으로 평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도정 목표 구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정책평가팀장 유영민, 담당자 양해종**

라. 정부합동평가 대응

1) 정부합동평가 추진 배경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이하 '정부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는 지자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17개 시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9년('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부터는 분야별 '가나다' 등급으로 서열화하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2]로 개편하고, '지표별 성과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만족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2) 정부합동평가 추진 절차

정부합동평가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고,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지자체·합동평가단의 합동 집합검증 등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여왔다.

세부 평가 방법은 정량지표는 지표별 목표 달성도(절대평가)를 평가하고, 정성지표는 시와 도를 구분하여 지표별 우수사례 각 2건씩을 선정(상대평가)한다.

---

2) 목표달성도(정량) : 지역여건(인구, 재정규모,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목표치 부여

평가결과는 지자체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고장 알리미' 사이트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2019년(20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4개 중앙부처 소관 5대 국정목표 155개 세부지표(17대 국정전략, 43개 국정과제)에 대하여 2019년 1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VPS 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다.

전남은 정량지표 123개 중 90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 73.1%를 달성하였으나, 결과 공개 대상인 상위 3개 도(경기, 제주, 충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성지표 33개 중 11개 지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충남 15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성과로 특별교부세 11.24억원을 확보하고 정부포상 4명(대통령 1, 장관 3)을 배출하였다.

4) 2020년(2019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1개 중앙부처 소관 5대 국정목표 122개 세부지표(정량지표 87, 정성지표 35)에 대하여 2020년 1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평가 지표는 국정성과 창출과 지자체의 평가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핵심국정과제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122개 중 116개 지표, 95%)하여 편성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이 2020년 상반기부터 확산됨에 따라 영상회의 등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평가를 도입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전남은 정량지표 87개 중 74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 85%를 달성하였으나, 결과 공개 대상인 상위 3개 도(충남, 경남, 경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성지표 35개 중 1개 지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데 그쳐, 결과 공개 대상인 상위 3개 도(경북, 충남, 경기)에 선정되지 못했다.

2019년 실적 대비 정량은 73%에서 85%로 12% 상향되었지만, 다른 지자체 실적도 함께 상향되었고, 정성은 11건 선정(33개 지표 중)에서 1건 선정(35개 지표 중)에 그치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였다.

특별교부세 7.09억원을 확보하고 정부포상 4명(국무총리 1, 장관 3)을 배출하였다.

5) 2021년(20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4개 중앙부처 소관 5대 국정목표 104개 세부지표(정량지표 78, 정성지표 26)에 대하여 2021년 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평가 지표는 당초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116개를 개발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총 44개 지표를 조정(목표치 하향 및 산식 수정 32개, 평가유예 12개)하였다.

2020년 평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을 활용하여 온라인 비대면 평가로 진행되었다.

전남은 정량지표 78개 중 66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84.6%를 달성하였으나, 결과 공개 대상인 상위 4개 도(경남, 제주, 강원·전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성지표 26개 중 8개 지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경북 9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어 결과 공개 대상인 상위 3개 도(경북, 전남·경기)에 포함되었다.

2020년 실적 대비 정량은 85%에서 84.6%로 0.4% 하향되었지만, 정성은 1건 선정(35개 지표 중)에서 8건 선정(26개 지표 중)으로 대폭 향상되었다.

특히, 기존 평가방식 외에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를 시범 실시하여 국민평가단 102명(시도별로 각 6명)이 각 시도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32건 중 15건(부산·대구·세종·전남 2건, 서울·인천·울산·경기·강원·경북·경남 1건)을 직접 선정하였다.

전남은 9개 도 중에서 유일하게 제출 우수사례 2건(친환경농산물 꾸러미배달사업, 나눔·협력사업) 모두가 선정됨으로써 국민이 직접 뽑은 코로나19 대응 우수 지자체라는 명예도 함께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전년대비 3.14억원 증액된 특별교부세 10.23억원을 확보하고 정부포상 4명(대통령 1(후 국무총리로 변경), 장관 3)을 배출하였다.

6) 2022년(20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부처 소관 5대 국정목표 108개 세부지표(정량지표 87, 정성지표 21)에 대하여 2022년 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평가 지표는 당초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116개를 개발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총 8개 지표를 평가 유예하였다.

2년 연속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을 활용하여 온라인 비대면 평가로 진행되었다.

전남은 정량지표 87개 중 83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95.4%라는 높은 실적으로 '사상 첫 1위'를 차지하면서 평가결과 공개 대상인 상위 3개 도(①전남 95.4%, ②경기·경남 94.3%)에 포함되었다.

정량평가 측정기준인 목표 달성도는 2021년 84.6%에서 2022년 95.4%로 10.8%가 상향된 수치로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높은 실적 상승과 함께 국정과제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정성지표 21개 중 4개 지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평가결과 공개 대상인 상위 3개 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효율적 관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충무계획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등 4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2008년 이후 15년 동안 실시되었던 정부합동평가 결과 중 최고의 성적으로, 우리 도의 높은 행정역량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도민제일주의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7월경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와 정부포상을 확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7) 정부합동평가 연계 시군 평가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남에서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표별 목표 달성도와 우수사례 참여도를 평가하여 우수 시군을 선정(10개)하고 총 10억원 상당의 재정인센티브(상사업비 8.5억원, 포상금 1.5억원)를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고 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실적에는 시도 뿐만 아니라 소속 시군의 실적이 포함되며, 2022년 정부합동평가의 경우에는 정량지표 89개 중 82개 지표가 시군 실적으로 전남 전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 평가기준을 세워 관할 시군의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전남은 시군별 컨설팅 실시, 월별 실적 공개, 최종 실적 공개 및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2019~2022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

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비고
2022년	광양	여수	영암	순천	화순	장흥	강진	영광	목포	곡성	
2021년	여수	순천	광양	강진	해남	목포	보성	담양	영광	함평	
2020년	순천	광양	여수	담양	나주	장성	곡성	보성	무안	영광	
2019년	순천	여수	광양	화순	고흥	영광	담양	완도	보성	나주	

* 11위 이하 순위는 비공개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정책평가팀장 유영민, 담당자 이철행**

1-5. 균형발전 및 초광역 상생협력 추진

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

1) 추진배경

그동안 대규모 지역발전사업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Top-Down(하향식) 방식의 중앙부처 공모에 의존해 왔으며, 우리 지역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2019년 4월 25일 강진군청에서 열린 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대규모 공모사업 추진으로 폭넓은 지원을 요청한 시장·군수의 건의를 반영하여 추진된 전라남도의 신규시책 사업으로 시·군의 자립 발전역량을 도모한 전국 최초의 대규모 지역발전사업이다.

본 사업은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분야에 제한 없이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지역주민 주도의 Bottom-Up(상향식) 방식이다.

2) 사업개요

사업 기간은 3~4년이며, 사업비는 사업별로 100억 원 내외로 재원 분담은 도비 50%, 시·군비 50%를 원칙으로 하며, 1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부담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개씩 12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1,283억 원(도비 600, 시·군비 683)이 투입된다.

선정된 사업은 크게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확충',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구분되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한계점인 하드웨어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일정 부분 포함하여 주민들이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공모에서는 「전남형 균형발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인구, 재정 등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에 선정된 4개 사업으로는 폐교를 활용해 관광객·귀촌인을 대상으로 체류형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곡성군 "스테이션 1928", 화엄사권역과 연계한 자연·생태·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구례군 "화엄 4색이 어우러진 블루투어 프로젝트", 한반도 사방진을 테마로 숲속 문화·예술·역사공간을 마련하는 장흥군 "역사 향기 숲 테마공원 조성", 도심거리 공원 조성으로 전통문화 대중화·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 진도군 "아리랑 Good(굿)거리 조성" 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가 착수되어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2020년에 선정된 사업은 서남권 수산물을 원료로 어묵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육성하는 목포시 "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 전략", 지역 관광자원 땅끝을 정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해남군 "땅 끝 해남을 리폼하다",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방문과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장성군 "유네스코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

천사대교를 연계한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 특산품 판매 증진을 위한 신안군 "1004 섬길역 조성사업"으로 사전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22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에 선정된 사업은 프리미엄 품종 육묘의 공급·가공·유통·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담양군 "프리미엄 담양딸기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플랫폼 구축", 녹차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해 케어푸드, 메디산업으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보성군 "보성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한국트로트가요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트로트 육성 거점을 마련하는 영암군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 나비곤충 생태·곤충산업·생태문화의 융복합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함평군 "함평 엑스포공원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3) 기대효과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중점 육성하여 시군의 자립 발전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방문객 증가 및 지역특산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도별 재원 투입계획(2020~2024)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28,300	9,695	13,157	23,496	60,779	21,173
도비	60,000	4,995	6,900	8,650	29,655	9,800
시·군비	68,300	4,700	6,257	14,846	31,124	11,373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균형발전팀장 탁혜은, 담당자 한상현

나. 광주·전남 상생발전

역사・문화적으로 한뿌리이자, 경제적으로 밀접한 광주・전남이 상생발전위원회 출범 이래 4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8월 20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만나 민선7기 광주・전남 상생호의 첫 번째 닻을 올렸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1년 임기로 양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아 연 2회 개최하며 기획조정실장, 협력과제 소관 실・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1회를 개최해 64개의 상생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했다. 그동안 발굴한 협력과제 64개 중 34개는 완료했고, 30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주요 협력과제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를 위해 '심뇌혈관질환법' 개정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도 함께 노력하였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광주・전남 합동지원단을 통해 인력과 물자를 공동으로 지원하고, 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등 과거 오랜 역사 동안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광주・전남의 상생 정신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많은 힘이 되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은 광주시와 전남・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 법이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교에 급물쌀을 탔고, 6월에는 캠퍼스 착공식이 있었으며, 2022년 3월 개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공동 TF를 구성해 32개의 과제를 발굴했고, 2021년 10월에는 대통령 주재 보고회에서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12월 3일 '2021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초광역 협력사업 등 9건의 신규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광주·전남의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호남 RE300 구축,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등 4건 추진에 뜻을 모았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행정의 경계를 넘어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양 시·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협력과제 현황(30개) 】

과 제 명	
① 달빛고속철도 및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공동협력	⑯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재단 설립
②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동협력	⑰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③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⑱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동 대응
④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⑲ 광주 군공항 이전
⑤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RE300) 구축	⑳ 광주민간공항·무안국제공항 통합
⑥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㉑ 무안국제공항 활용 외국인 관광객 공동유치
⑦ 남도 달밤 예술여행지 육성 사업 공동협력	㉒ 광주 하남 ~ 장성 삼계 광역도로사업
⑧ 2038하계아시안게임 및 COP33 유치 공동협력	㉓ 광주 순환고속도로(제3순환선) 건설
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공동노력	㉔ 광주 삼도 ~ 함평 나산 광역도로사업
⑩ 초광역 협력사업 공동 발굴	㉕ 광주 ~ 고흥 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⑪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㉖ 호남고속도로 삼례 IC ~ 광주 TG 확장
⑫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㉗ 지역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협력
⑬ 시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	㉘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
⑭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㉙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치·운영
⑬ 시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	㉚ 영산강 생태기능 제고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광역협력팀장 선승원, 담당자 윤가연**

다. 남해안(전남·부산·경남) 상생발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김경수 전(前) 경남도지사 그리고 오거돈 전(前) 부산광역시장과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시절인 2018년 5월, ‘상생발전 정책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전라남도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남해안권의 공동·상생발전을 위해 같은 해 12월에 업무 협약식을 갖고, H축으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남해안권이 새로운 경제협력벨트의 한 축이 되어, ‘ㅂ’ 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남해안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7개월의 논의 끝에 남해안권 3개 시도를 대표하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남해안권 3개 시도는 관광·문화·교통·물류 분야에서 남해안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7개 공동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남해안 상생발전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아울러,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하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의미를 더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현상의 고착화를 야기할 ‘수도권 유턴기업 규제완화’ 중단과,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투자·출연기관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수도권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뉴딜사업’과 ‘초광역 협력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남해안권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자, 새로운 경제협력벨트의 한 축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든든하게 떠받칠 기둥, 세계로 뻗어나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우뚝 서도록 앞으로도 3개 시·도는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 남해안(전남·부산·경남) 상생발전 협력과제 현황(7개) 】

과 제 명	
①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⑤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② 경전선(부산~목포) 고속화 추진	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안권 공동대응
③ 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⑦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성공개최
④ 남해안 상생발전 항만물류도시 협의체 구성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광역협력팀장 선승원, 담당자 윤가연**

라. 영호남(전남·경북 등) 상생발전

영남과 호남 양 지역의 교류·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고, 영·호남 화합을 넘어 국민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지난 1998년 1월 8일 우리 도가 주도하여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가 구성됐다.

협력 회의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다. 8개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장은 윤번제로 한다.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이 협력 회의의 주요 기능은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동, ▲영·호남 시·도정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 ▲지역주민 상호 간 친선 도모와 이해 증진, ▲민간단체의 영·호남 교류 촉진(국민화합) 관련사업 지원, ▲기타 영·호남 교류 촉진 및 동서화합, 국민화합에 필요한 사업 추진이다.

지금까지 총 16회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제1회는 1998년 10월 8일 순천 로얄호텔에서 개최했고, 최근 제16회 회의는 2021년 6월 14일 경북 도청에서 개최됐다.

협력 회의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촉구 및 건의하기 위해'지방과 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성명'등을 발표하고 있으며,'동서화합을 위한 기금조성·운영' 등 8개 시도 공동 협력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협력회의 산하에 (재)동서교류협력재단(이하'협력재단')을 지난 2000년 3월 14일 법인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원은 이사 8명 감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협력회의 의장이 소속된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이사는 8개 시·도 업무담당 국장이 맡고 있다.

협력재단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개최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기금 조성은 총 30억원으로 행정안전부가 14억원을 부담하고, 영·호남 8개 시·도에서 각각 2억원씩 16억원을 출연하여 조성됐다. 기금운용은 이자수입으로 8개 시·도의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기금 보조금으로 배정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와의 상생협력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영남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동서화합을 이루고자 만든 '동서화합포럼'을 토대로 이어온 협력 의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 상생 발전 모델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데 뜻을 모아 2019년과 2021년 총 2회 상생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12월 11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상생교류 협약식을 통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지방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의 인구 균형 유지를 위한'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철강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공동 협력'등 6가지 협력과제 추진에 합의했다.

그리고, 2021년 5월 26일 전남도청에서 다시 한번 개최된 상생협력 회의를 통해서 수도권 집중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여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8개 협력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전남·경북 간 자매결연 시군을 대표해 김종식 목포시장과 장욱현 영주시장이, 새로운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최형식 담양군수와 전찬걸 울진군수가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광역협력팀장 선승원, 담당자 윤가연

마. 수도권(서울·경기) 상생발전

전남도는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수도권 시·도와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서울시와는 2004년 12월 우호교류협정, 2018년 8월 민선7기 양 시·도지사 후보시절 '도농상생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친환경농산물 및 Non-GMO 공공급식'등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등 양 시·도의 협력관계를 지속 구축했다.

서울시의 우호교류협약 갱신제 도입에 따라 양 시·도는 기존의 협력사항은 더욱 강화하고 '상생협력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우수 마을공동체 체험 교류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8개 신규 협력과제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는 2021년 7월 전남도청에서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원동력임을 확신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6개의 협력과제를 합의했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경기도 학교급식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내 학교 급식에 전라남도 친화경 농산물 공급확대',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쓰레기·폐기물 저감 공동노력',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양 연구원의 공동연구' 등이 있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김종기, 광역협력팀장 선승원, 담당자 임동현**

2. 지역발전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2-1. 지방재정 대거 확충

가. 사상 최대 국비 8조원대 확보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 확충,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산업 구축 등을 위해서는 국고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민선7기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각종 국가계획을 분석하여 우리 도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고확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가예산 편성단계별 국비확보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단계(1월~3월)에서는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 어젠다에 부합하는 현안 사업 256건(3조 1,885억원 규모)을 발굴하였다.

효과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위해 부처 예산 요구, 기재부와 국회심의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에게 배포하였다.

부처 예산편성 단계(4월~5월)에서는 실·국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차별성과 예산반영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 단계(6월~8월)에서는 도지사와 정무부지사, 실·국장 등 도 지휘부가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여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국회 예산안 심사의결 단계(9월~12월)에서는 여·야 정책간담회,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지역출신 예결위원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회차원에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2021년 동안 180여회가 넘는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국회 예결위원 면담 등 우리 도 현안사업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도와 시·군,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최대 국보확보액인 8조 3,914억원을 확보하여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민선6기 최종 연도인 2018년 예산 확보액 6조 16억원 보다 2조 3,898억원(39.8%)이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반영사업은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총사업비 3,827억원), 광주송정~순천 철도사업(총사업비 1조 7,703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6,050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3,600억원) 등이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총사업비 3,827억원)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1억원, 총사업비 6,824억원)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각각 반영되어 도서민의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400억원을 확보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철도(총사업비 1조 7,703억원)가 2023년 준공예정인 남해안철도와 연결되면 목포~부산 간 소요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되어 교통·물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비 확보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6,050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3,600억원)등 대형 SOC사업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6,219억원, R&D/바이오 분야 1,801억원, 에너지·전략산업 분야 1,15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연도별 국고현안사업비 확보액 】

(단위 :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확보액	60,016	68,104	71,896	76,671	83,914

추진부서 **예산담당관 정현구, 국고예산팀장 강석운, 담당자 강남중**

나. 균형발전사업 예산 2조 4천억원 확충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재정분권은 2단계로 추진되고있다. 1단계(2019년~2020년)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10%p)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2단계(2021년~2022년)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소비세(4.3%p)를 전환하고 국가사무를 이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에 유리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농어촌·낙후지역과 관련성이 많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무를 이양함에 따라 오히려 지역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지방소비세율 상향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재원이 대폭 확충되는 반면 민간소비가 낮고 농어촌지역이 많은 비수도권 지자체는 재원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반면, 그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균특사업이 비수도권 道를 중심으로 이양되었지만, 그에 대한 재원은 2022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비수도권 道는 사실상 이양사업의 축소·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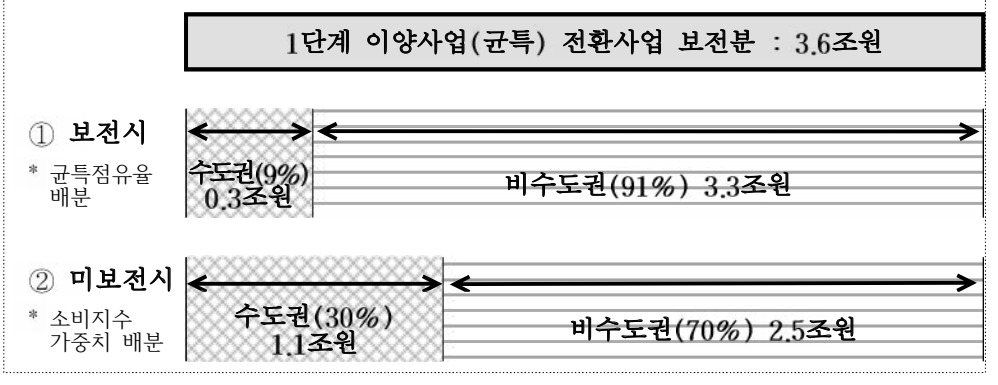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재정분권으로 인한 재정확충 효과는 수도권이 크고, 재정부담 비중은 비수도권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1단계 지방이양사업 재원 미보전시 재원 증감 】

(단위 : 억원)

증가	서울 2,400	부산 1,900	대구 1,400	광주 1,100	대전 900	울산 800	인천 200
감소	전남 △4,000	전북 △2,100	경북 △1,600	충남 △1,100	강원 △800	경남 △600	제주 △500

【 1단계 지방이양사업 보전 종료 시 재원 변화 】



우리 도는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국 최초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타 지자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연대하고, 국회·중앙부처·자치분권위원회 등을 3년 여간 지속 방문하여 건의하고 설명하였다.

2019~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BH, 국회, 중앙부처,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지방재정의 형편과 어려움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전남도 주도로 전북, 경북 등 7개 비수도권 道, 전국농어촌시장군수협의회, 전남도국회의원과 연계하여 국회, 정부 등에 재정분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9차례 제출하였으며, 민주당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한 결과, 정부는 우리도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여 재정분권 2단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당초 2022년까지만 보전하기로 한 1단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예산을 2023~2026년까지 4년간 연장 보전하기로 하였다. 또한 낙후지역 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였다.

2026년까지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보전을 연장함에 따라 전남도는 2023년부터 4년간 매년 6천억 원씩 총 2조 4천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농어업기반정비, 상수도 시설 확충 등 계속사업과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신설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전국 89개소, 전남 16개소) 주도적으로 맞춤형 인구활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추진부서 **예산담당관 정현구, 공모사업지원팀장 이선호, 담당자 양선**

2-2. 지방재정의 효율성·건전성 강화

가. 예산운용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2021년도 예산운영은 코로나19로 대응,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였다.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예산 전반에 대한 점검·개선을 통해 미활용 기금, 이·불용액, 저성과 사업비 등 잠자는 재원을 발굴하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 도 역점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몰 기한이 도래한 12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를 통해 성과가 저조한 4개 기금을 일몰하였다. 일몰에 따른 재원 191억원은 일반회계에 편입하였다.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초과세입 전망액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였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행사·축제·투자성 사업에 대한 재정평가를 통해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였다. 또한 반복적 이월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도별 채무상환계획 수립, 지방채 발행억제 등을 위해 적정 채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였다. 예비비 잔액, 순세계잉여금, 예산 절감액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투입하여 고이율(3%) 지방채(약 1,500억원)는 전액 조기 상환하였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분권 개선을 통해 4년간 2조 4천억원을 확보하였다.

추진부서 **예산담당관 정현구, 예산총괄팀장 이상철, 담당자 장우재**

나. 기금 재정운용의 체계적 관리

우리 도는 2021년 말 현재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조성액은 2조 2,849억원이다.

【 각종 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 2022. 2. 28. 기준)

기금명	설치근거	운용부서	조성연도	조성목표액	총조성액	용 도
계(13개)					2,396,212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중소기업과	1993	계속	338,107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시설확충 및 창업지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	자치행정과	2003	10,000	5,688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진사업
한옥발전기금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건축개발과	2006	조성완료 50,000	52,309	한옥의 보존·보급의 활성화 등으로 체류형 관광자원확보
관광진흥기금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관광과	2012	60,000	59,031	관광숙박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재해구호기금	전라남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 조례	사회복지과	2013	3년평균보통세 0.5%	16,759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구호 및 주거안정
식품진흥기금	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안전과	1986	과징금수입	8,244	식품위생 및 도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양성평등기금	전라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여성가족정책관실	1997	10,000	6,135	여권신장 및 양성평등 실현 사업 및 인센티브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조례	농업정책과	1991	250,000	214,611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사업지원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조례	친환경농업과	2005	조성완료 50,000	50,155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기금명	설치근거	운용부서	조성연도	조성목표액	총조성액	용 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례	축산과	2008	100,000	93,551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및 축산업경쟁력 강화추진
재난관리기금	전라남도 재난관리 기금 조례	자연재난과	1997	3년평균 보통세 1%	28,680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긴급보수 등 재난예방활동 추진
지역개발기금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담당관	1989	지역개발채권매출	1,401,236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예산담당관	2022	매년 지방채 상환분 전입	10,472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 및 관리·운용
			2004	각 기금의 여유자금	111,234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에 활용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일몰제를 도입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나,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폐지·통합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1963년 재해구호기금이 최초로 설치된 이래 우리 도의 연도별 기금 운용 및 통폐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에는 생활보호기금이 폐지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설치되었으며, 2001년 9월 도 관리기금 통·폐합 계획을 수립했다.

2002년부터는 관련 조례 정비 및 지속적인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해구호 + 기초생활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사회복지기금

▲1지역1명품 육성기금 ⇒ 농어촌 진흥기금 특별회계와 통합

▲공무원교육시상기금 ⇒ 일반회계 편입

▲재난관리 + 재해대책 ⇒ 재난관리기금
▲인재육성금, 문예진흥, 국악단육성, 투자유치진흥기금 ⇒ 폐지
▲녹색축산, 농어촌진흥, 지방채상환기금 ⇒ 신설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 폐지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신설 ⇒ 신설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명칭변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기금 전환(2017.1.1.)
▲지방채상환, 체육진흥, 농업인학습단체육성, 환경보전기금 ⇒ 폐지

각종 기금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해 2020년 12월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함으로써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여유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연도별 기금증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연도별 기금증감 현황 (2000~2021년) 】

(단위 : 억원)

연도	기금수	기 금 명	총 조성액
2000	17	생활보호기금 폐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공무원교육시상 기금 신설	4,466
2001	17	변동없음	3,012
2002	12	폐지 : 재해구호, 기초생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1지역 1명품, 공무원교육시상, 재난관리, 재해대책 신설 : 사회복지, 재난재해, 투자유치진흥기금	3,393
2003	13	신설 : 남북교류	3,442
2004	14	기금 명칭변경(재난·재해관리 ⇒ 재난관리)	2,642
2005	14	변동 없음	3,805
2006	16	신설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한옥발전기금	3,912

연도	기금수	기 금 명	총 조성액
2007	16	변동 없음	2,531
2008	16	변동 없음	2,515
2009	16	폐지 : 인재육성기금 신설 : 녹색축산육성기금	2,885
2010	14	폐지 : 문예진흥, 국악단육성기금(2010. 3월 폐지), 투자유치진흥기금(2010. 12월 폐지) 신설 : 농어촌진흥기금(특별회계→기금전환)	4,035
2011	15	신 설 : 지방채상환기금(2011. 12월)	4,366
2012	15	변동 없음	4,867
2013	17⇒16	신설 : 재해구호기금, 관광진흥기금(2013.6월) 폐지 : 사회복지기금(2013.12월말)	5,918
2015	16	명칭변경 :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2015.6.30)	6,660
2017	17	신 설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전환)(2017.1.1.)	17,990
2021	17⇒13	명칭변경 : 통합관리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2021.6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설치 폐지 : 지방채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2021.12월말)	22,429

추진부서 **예산담당관 정현구, 재정관리팀장 배 준, 담당자 이민음**

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강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되었다.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다.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와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건전성 또는 자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제도의 연도별 투자심사 기준금액, 대상 등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이전까지 투자심사 대상은 일반 투자사업에 한정되었으나, 2006년에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추가하고, 2009년에는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 심사기준을 총사업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2011년에는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2014년에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외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과 관련된 지방의회 의결도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 금액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다. 심사 횟수는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 시 고용효과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 투자심사 기준금액 개편 (2017.12.29.) 】

구 분	현 행	개 편
道 심 사	도 4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시·군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시·군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중앙심사	도 200억원 이상 시·군 100억원 이상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2019년에는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중 보건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건축사업 등을 투자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였다.

2020년에는 투자심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 투자심사에 제외 대상 추가, 재심사·타당성 재조사 기준을 완화 등 투자심사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투자심사 개편내용 (2020. 11. 1.) 】

구 분	현 행	개 편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확대실시	매년 3회 (투자 심사) 3월, 6월, 10월 (타당성조사) 3월, 6월, 10월	매년 4회 (투자 심사) 2월, 5월, 8월, 10월 (타당성조사) 1월, 4월, 7월, 10월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기준 완화 신설	· 재심사 없이 지방채 조달 계획을 신설할 수 있는 범위를 자체 재원의 50%까지 확대 및 특례 신설 ·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이 4년 이상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투자심사 제외사업 추가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에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가 등	

최근 3년간(2019~2021) 투자심사 제외 대상 확대, 지방재정 확충, 자치분권·균형발전 기반 마련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추세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이 감소하고 있다.

【 연도별 투자심사 건수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수	180	142	125	123	130	149	158	221	224	164

최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안부령, 2017.12.27.)」이 개정되어 투자심사 기준을 확대하였다.

우리 도는 「전라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제정 (2018.3.29.)을 통해 대학교수·연구원·민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지방재정 투자심사 위원으로 확대 구성하고 재정 투자사업 심의 전 분야별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예산담당관 정현구, 재정관리팀장 배 준, 담당자 문정오**

2-3.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 운영

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리 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임기 2년의 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2020.1.1.~2021.12.31.)는 총 59명으로(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7)로 전체회의, 운영위원회, 기획사회 · 행정환경 · 경제관광문화 · 건설소방 · 농수산의 5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활동한다.

2021년 도민의 예산참여 확대를 위해 도 누리집,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2개월 동안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도민이 건의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통해 의회에 제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사업은 꾸준히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58개 사업, 749억원을 반영하였다. 연도별로, 2019년에는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14개 사업(188억원), 2020년에는 마을 앞 보행로 정비사업 등 20개 사업(212억원), 2021년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등 11개 사업(224억원), 2022년에는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등 13개 사업(125억원)을 반영하였다.

【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반영건수	예산	연도	반영건수	예산
2022년	13건	12,500	2019년	14건	18,824
2021년	11건	22,387	2018년	7건	3,342
2020년	20건	21,246	2017년	4건	3,390

추진부서 **예산담당관 정현구, 예산총괄팀장 이상철, 담당자 정봉수**

나.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2004년 6월에 전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물 건축(수탁) 사업, 관광호텔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 동안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 개발사업(2003~2013)을 시작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2009~2016),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2007~),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2008~2020), 강진산업단지(2010~2016) 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민선7기에는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성과중심 기관 운영, 경영 효율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경영혁신으로 창출된 수익은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공사에서는 도민에게 안정된 주거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남악오룡지구(2013~2024), 여수 죽림1지구(2018~2024), 담양 보촌지구(2019~2028), 광양 덕례·도월지구(2019~2028)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도 시책사업인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중 블루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구례 도민발전소(2018~2021), 장흥 태양광발전소(2020~2022), 영광 약수해상풍력발전사업(2019~2022) 등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 조성사업(2020~2023), 호남권 통일+센터 및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사업(2020~2023), 전기추진차도선인프라 구축사업(2020~2023) 등 공공시설물 건축(수탁)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팀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0년에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초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가결과	라 등급	나 등급	가 등급 <전국 1위>	나 등급 <전국 3위>

또한, 적극적인 수익 창출과 경영효율화에 주력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였고, 2020년에는 공사 창립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인 559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다.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하여 2021년말 기준 부채 총액은 3,697억 원으로 전국의 개발공사 평균 부채율(137%)보다 낮은 53.3%로 감소하였다.

【전남개발공사 연도별 순이익 및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순이익	142	337	559	391
부 채 (부채율)	5,173 (94.0%)	4,483 (76.8%)	4,351 (66.5%)	3,697 (53.3%)

전남개발공사는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2020년부터 2년 연속 인재육성기금에 50억원을 기부하였다. 2022년에도 인재육성기금에 25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4억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활발히 추진하여 민선7기 동안 306개소에서 8,623시간 동안 공헌활동을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사회적 계약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전국 개발공사 중 최초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신인도)' 항목에 기부실적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가점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재정 신속 집행 등 포상 7회 수상,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공정 채용 등 대외 인증 5회, 고객만족도 1위, 자체감사활동평가 최고등급 및 우수기관 선정 5회 등 외부평가에서도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추진부서 **예산담당관 정현구, 공기업팀장 정인원, 담당자 오세정**

다. 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경영혁신

전남도는 문화, 예술, 복지 등의 분야에 23개의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道 역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연기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설립되는 출연기관의 수와 출연금의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기관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설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는 설립 추진 중이던 (재)전라남도일자리재단의 기능을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재)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노동존중사회' 구현과 상생·협치를 위한 참여형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공사·출연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360여 명(18개 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무 적용 대상 기관에 「노동자이사제 운영 가이드라인」(2021년 7월)을 안내하였다. 노동자 이사는 기존 이사 임기가 대부분 만료되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각 기관별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출연기관의 경영혁신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 연구원 등 총 16개 기관이 경영평가 대상이다.

2019년부터는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규 도입하여 각 기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 노력 등을

반영하고, 2021년부터는 블루이코노미, 지역균형 뉴딜 등 민선7기 도정 핵심과제 연계 노력·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도와 출연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를 맞아 공사·출연기관 업무보고를 도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각 기관의 성과와 계획을 도민과 공유하였다. 유튜브 업무보고는 7만 5천명의 도민이 시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출연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감독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출연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 공사·출연기관 현황 】

(2022. 4. 기준 / 단위 : 명, 억원)

연번	기 관 명	기관장	임 기	정 원	예산	출연금
계	24개 기관			1,522	10,219	354
1	전 남 개 발 공 사	사장 김철신	2018. 09. 10. ~ 2022. 09. 09.	136	4,719	-
2	광 주 전 남 연 구 원	원장 박재영	2020. 02. 25. ~ 2023. 02. 24.	76	111	35
3	테 크 노 파 크	원장 유동국	2018. 10. 22. ~ 2022. 10. 21.	127	1,659	20
4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주동식	2021. 02. 01. ~ 2023. 01. 31.	68	317	13
5	환 경 산 업 진 흥 원	원장 박응렬	2020. 04. 01. ~ 2023. 03. 31.	37	296	11
6	중 소 기 업 진 흥 원	원장 우천식	2014. 9. 01. ~ 2022. 08. 31.	36	53	9
7	신 용 보 증 재 단	이사장 정양수	2019. 10. 21. ~ 2022. 10. 20.	79	575	35
8	바 이 오 산 업 진 흥 원	원장 최종화	2021. 12. 27. ~ 2023. 12. 26.	163	314	38

연번	기 관 명	기관장	임 기	정 원	예산	출연금
9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인용	2022. 3. 25. ~ 2025. 03. 24.	52	312	20
10	문 화 재 단	대표이사 김선출	2021. 08. 02. ~ 2023. 08. 01.	46	243	25
11	관 광 재 단	대표이사 이건철	2020. 07. 01. ~ 2022. 06. 30.	25	54	14
12	사 회 서 비 스 원	원장 신현숙	2019. 10. 24. ~ 2022. 10. 23.	33	102	16
13	여 성 가 족 재 단	원장 안경주	2018. 10. 15. ~ 2022. 10. 14.	73	53	18
14	청 소 년 미 래 재 단	원장 양미란	2021. 04. 01. ~ 2023. 03. 31.	38	56	9
15	순 천 의 료 원	원장 김대연	2022. 04. 01. ~ 2025. 03. 31.	254	460	10
16	강 진 의 료 원	원장 정기호	2022. 01. 28. ~ 2025. 01. 27.	173	371	7
17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고석규	2021. 04. 26. ~ 2023. 04. 25.	35	119	56
18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천득염	2021. 01. 14. ~ 2024. 01. 13.	18	75	10
19	남 도 장 학 회	이사장 도지사, 광주시장	-	1	83	-
20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위원장 도지사	-	3	17	3
21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사장 도지사	-	-	9	5
22	국 제 농 업 박 람 회	이사장 도지사	-	38	40	-
23	F 1 국 제 자 동 차 경 주 대 회	이사장 도지사	-	11	181	-
24	세 계 친 환 경 디 자 인 박 람 회	위원장 도지사	-	-	-	-

추진부서 **예산담당관 정현구, 공기업팀장 정인원, 담당자 김하늘**

3.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3-1. 자치입법의 적법성·신뢰성 강화

가. 자치법규 등 운영 현황

1953년 1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도가 공포한 자치법규는 총 8,793건으로, 이 중 조례는 총 5,514건, 규칙은 총 3,279건에 이르렀다. 아울러 자치법규에 준하여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훈령은 1,461건, 예규는 1,070건에 달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한 자치법규와 훈령·예규는 총 1,080건(조례 778건, 규칙 153건, 훈령 124건, 예규 25건)이며, 2021년 한 해 동안 조례 345건, 규칙 82건, 훈령 16건, 예규 2건 등 총 445건이 정비·운영됐다.

【 2021년 자치법규 등 운영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20 보유	2021 정비 실적				2021 보유
		계	제 정	개 정	폐 지	
계	989	445	105	326	14	1,080
조 례	695	345	92	244	9	778
규 칙	144	82	11	69	2	153
훈 령	125	16	2	11	3	124
예 규	25	2		2		25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입법권이 확대되고 자치입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정 주요 정책의 법제화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법무브(法 move)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전라남도 해상풍력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를 지원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정비·해석에 관한 법제 자문을 실시하였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입안심사를 강화하여 소관부서에 자치법규 입안심사서 및 검토보고서를 제공하고 법리적 쟁점 적극 검토 및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법제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2021년에는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불부합, 어려운 한자어 사용,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례 139건, 규칙 58건을 정비과제로 발굴하고 조례 80건, 규칙 등 45건을 일괄개정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추진부서 법무담당관 김미순, 법제팀장 박숙희, 담당자 선정선, 김소연, 유희태, 하주신

다. 도민 생활중심의 유용한 법령정보 제공

1993년부터 매월 도민과 공무원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발간하고 있는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지'는 매월 650부씩 도 실·과·소 및 시·군 읍·면·동 민원실 등에 배포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법률 지식 함양에 기여하였다. 2022년부터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해 외국어(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생활법령정보 코너를 신설하여 시·군 가족센터에 추가로 제공하여 매월 680부씩 배포하면서 2022년 2월 제352호 발간에 이르렀다. 또한, 어려운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삽화 등을 이용하여 생활밀착형 정보제공으로 도민의 법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각종 자치법규 변동사항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법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추진부서 법무담당관 김미순, 법제팀장 박숙희, 담당자 선정선, 김소연, 유희태, 하주신

3-2 신속하고 공정한 쟁송업무 처리

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행정심판법」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24명, 건축사 1명, 대학교수 14명, 4급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전직공무원 8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밑에 간사장과 간사를 뒀는데 간사장은 법무담당관, 간사는 행정심판팀장이 맡았다. 한편 행정심판의 신속한 심리·재결을 위해 자문변호사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심판 허브시스템(http://jeonnam.simpan.go.kr)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온라인상으로 청구에서부터 심판결과까지 알 수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도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에서나 온라인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진행상황부터 재결결과까지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도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기 건수도 많이 증가되었으며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행정심판 청구·재결 현황 】

(단위 : 건)

구분 / 연도별	행정심판 청구 건수			심리.재결				취하 이송	이월	인용률 (%)
	계	신규 접수	전년도 이월분	계	인용	기각	각하			
2018	398	102	296	264	106	121	37	45	89	40.2
2019	448	89	359	293	103	137	53	43	112	35.2
2020	433	112	321	301	109	135	57	65	67	36.2
2021	486	67	419	351	121	152	78	34	101	34.4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최를 매월 1회로 정례화하고 심리안건을 확대하여 도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건의 경중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생계형 사건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더불어 혐오・기피시설 등 주민생활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화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심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군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관련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도민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추진부서 법무담당관 김미순, 행정심판팀장 주우경, 담당자 장가은,장호태,김미경,이미르

나. 소청심사 운영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의 신청을 심사하여 해당 공무원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지방공무원법」과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그 근거를 뒀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기획조정실장 등 공무원 3, 법학 교수 5, 변호사 12)으로 구성됐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위원장 밑에 간사와 서기를 뒀는데, 간사는 법무담당관, 서기는 송무팀장이 맡았다.

소청심사절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소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고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며 결정기간이 짧은 점이 장점이다.

【 연도별 소청심사청구·결정 현황 】

(단위 : 건,%)

연도	소청심사 청구 건수			심사·결정				취하	이월	인용률 (%)
	계	전년도 이월분	신규	계	인용	기각	각하			
2018	43	9	34	33	16	15	2	2	0	48.5
2019	78	8	70	53	36	17	0	6	0	67.9
2020	85	19	66	64	34	30	0	5	3	29.6
2021	46	13	33	27	8	19	0	6	0	29.6

소송사무는 주민의 권리구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승소 및 패소사례 전파, 송무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행정처분을 유도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소송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소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한 심급별 관리와 함께 고문 변호사제도 운영으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손실보상,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 등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년 간 평균 승소율은 90.2%에 이르렀다.

【 연도별 소송현황 】

(단위 : 건, %)

연도	피(제) 소 건 수			종 결			계류중	승소율 (%)
	계	이월	신규	계	승소등	패소		
2018	119	59	60	52	45	7	67	86.5
2019	121	65	56	54	50	4	67	92.6
2020	117	67	50	56	53	3	61	94.6
2021	100	61	39	46	40	6	54	87.0

추진부서 **법무담당관 김미순, 송무팀장 서성배, 담당자 한아름, 김민석, 강병화**

3-3 도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가. 편리하고 부담없는 법률상담 제공

도민 무료법률상담실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법률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권리를 보호 하고,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도민 및 민간단체의 신청에 따라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를 쉽게 알려 주는 '시군 순회 무료 법률강의' 와 '현장 상담' 을 실시하였고, 주요 강의(상담) 내용은 임대차 계약 관련 임차인 불이익 대처 방법, 소액 채권 추심 방안,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방법, 상속 절차 문의 등 일상 속 생활법률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지난 4년간 현장 강의(상담)실적은 아래와 같다.

【 연도별 시군 순회 무료법률 강의 현황 】

(단위 : 건, 명)

연도	횟수(회)	참여인원(명)	교육내용
2018	10	281	상속 증여, 이혼, 가정폭력 등
2019	9	209	부동산 거래, 임대차 보호, 국적 등
2020	-	-	코로나 19로 인한 잠정 중지
2021	-	-	

또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라도 쉽고 편리하게 무료법률상담사이트(https://law.jeonnam.go.kr/)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법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법률상담관이 신속하게 상담결과를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의 인터넷 상담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연도별 무료법률 인터넷 상담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담횟수	18	27	50	94

추진부서 법무담당관 김미순, 송무팀장 서성배, 담당자 한아름, 김민석, 강병화

나.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코로나 19 발생 이후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강의나 상담을 중지하였으나, 도민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2020년 10월에는 비대면 전화상담을 추가 도입하였고, 2021년 4월에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9명의 상담관을 총 15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다.

또한 경제적, 시간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받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행복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추진하였고, 2022년 4월에는 무료법률상담 대표전화 1899-8272를 설치・운영하였으며, 포스터와 안내문을 제작 후 도내 22개 시・군청, 23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내 마을회관 9,100개소 및 노인・여성・장애인・복지시설 84곳 및 가족센터 22곳 등 도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하였다.

전화상담 도입, 법률상담관 추가위촉 및 홍보강화 등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결과, 무료법률상담 처리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무료법률 전화상담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담횟수	-	-	50	221

추진부서 법무담당관 김미순, 송무팀장 서성배, 담당자 한아름, 김민석, 강병화

3-4. 주민참여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 규제개혁

가. 지역현장 중심 규제 발굴 및 개선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8년도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됐다. 이에, 우리 도는「전라남도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규제심의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법조인, 기업인 등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민선 7기의 규제발굴 관련 주요 성과로는 지역현장을 중심으로 한 규제발굴 체계 확립을 들 수 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현장 규제조사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자체 소관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중앙부처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를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를 통해 민선 7기 기간 동안 1,028개의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이 중 65개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 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도와 시·군의 규제부서, 사업부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규제사냥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주로 지역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경제활동 제약과 관련해 주민과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는, 규제분야의 주민 소통강화를 위해 도민 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개혁 토론회, 카카오 채널 챗봇을 활용한 규제 접수 등 규제의 발굴·해결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기업 및 도민들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법무담당관 김미순, 규제개혁팀장 문창숙, 담당자 김우진, 김주희

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상 규제에 대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지역의 주민생활과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능동적으로 개선하였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건의자(주민·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으로,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자치법규상 규제의 신설·강화 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의 검토・정비를 추진하였다.

도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10개 분야 184건에 대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전수 정비를 추진한 결과 10건을 개선하고, 116건은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비규제 및 심의 제외는 58건이었다.

앞으로도 입증책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개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고, 신규 등록규제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정비함으로써,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주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서 **법무담당관 김미순, 규제개혁팀장 문창숙, 담당자 김우진, 김주희**

4. 도민 맞춤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4-1.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도정 구현

전라남도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해 매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발굴, 개방,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www.data.go.kr)에 2021년까지 278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 뉴딜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DB를 구축하여 개방하였다. 2020년에는 '예약·주문·결재 서비스용 기초 음식점 정보 DB구축'사업 등으로 6억원(3건)을, 2021년에는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소장품 DB구축' 사업 등 12억원(6건)의 국비를 지원받아 데이터를 개발·개방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회에 걸쳐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20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대상을 수상한 '해양 환경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식장 단계적 모니터링과 환경 변화 예측이 가능한 스마트 부표 서비스' 등 6개 작품이 행안부 중앙경진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과기부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여수광양항만 선박 입출항 예도선서비스 정보체계 구축', '전자지도기반 마늘, 양파 재배현황 빅데이터 센터 구축') 되어 국비 4억6천만원과 9억4천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선박의 입출항 기록 및 운항정보시스템 구축과 마늘·양파 재배현황·면적 등 데이터 생산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실적(2018~2021)으로는 '응급환자 골든타임분석' 등 17건을 분석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과 민간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향상을 위해 2020년 4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다.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10억 원(국비 3억, 도비 7억)의 예산으로 2020년 12월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 9월 완료되었다.

통합적인 데이터 수집·관리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각화, 자체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빅데이터통계팀장 김정미, 담당자 이성철

4-2. 지역균형 디지털뉴딜

가. 전 도민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남도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안전망 강화사업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등 집 근처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은 디지털배움터(www.디지털배움터.kr)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배움터에서는 '간단한 문자보내기'를 비롯하여 교통앱 설치하기, 키오스크로 음식주문하기, 핸드폰으로 기차표 예매하기, 은행일 보기 등 디지털 생활 교육을 중점 추진하며, 취업과 연계한 엑셀 고급, 코딩, 그래픽디자인 교육도 실시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동안 도내 주민센터와 복지관, 마을회관 등 170개소 디지털 배움터에서 도민 102,411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켰으며, 강사와 서포터즈로 760명을 채용하였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찾기 쉽고, 배우기 쉬운 디지털배움터를 조성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문제를 도와주는 디지털 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사업 실적 】

(단위 : 명, 개소)

구 분	계	2020	2021
교육생 인원(명)	102,411	39,104	63,307
디지털배움터(개소)	170	85	85
강사 및 서포터즈(명)	760	371	389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정보기획팀장 이유지, 담당자 남승효

나.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추진

전남도는 전 산업 부문에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의 주요과제중 하나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사업비 74억여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지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공지능 756명과 블록체인 226명, 2개 과정을 통해 총 982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생 후속 지원 연계 사업으로 30명이 취창업을 하였다.

도는 앞으로도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장사업 교육 및 취창업 실적 】

(단위 : 명)

구 분		계	2020	2021
교육	계	982	301	681
	인공지능	756	217	539
	블록체인	226	84	142
취·창업		30	-	30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정보기획팀장 이유지, 담당자 남승효

다. 5G기반 디지털트윈 시설물안전 사업 추진

전남도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간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위한 '5G기반 디지털트윈 시설물 안전관리 공공 선도사업'에 35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순천의료원과 여수예울마루에 시범 실증 사업을 추진하였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쌍둥이(twin)와 같이 동일하게 구현해 이를 실시간 제어하거나 사고를 예방하는데 활용하는 기술이다.

순천의료원에는 본관과 신관 건물에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와 실시간 이용자 발열감지를 위한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시설인 음압병동에 음압 상태를 실시간 예측할 수 있는 AI·빅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서비스와 음압병동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특화서비스를 개발·적용하였다.

여수 예울마루에는 대극장 객석과 무대시설에 대한 디지털트윈 3D 모델링과 무대시설 위치 선정 최적화 및 AI·빅데이터 기반 공연장 공기정화 시뮬레이션서비스를 만들었으며, 지능형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아를 찾는 서비스도 개발·적용하였다.

도는 앞으로도 시범 사업을 발판삼아 안전관광 공공서비스 분야에 우선 적용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데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정보기획팀장 이유지, 담당자 남승효

4-3. 도민 맞춤형 통계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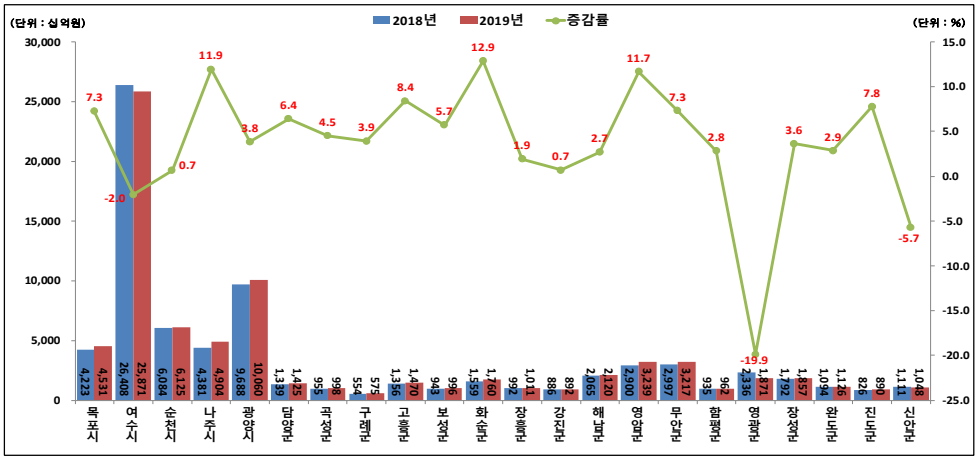
통계의 정확성과 체계적인 자료보존, 각종 기본계획 수립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통계 수요에 폭넓게 대처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있다. 인구·노동·보건·교육·문화·소득 등 17개 부문 213개 통계자료를 시·도 및 시·군·구 간 비교가 쉽도록 전국 공통인 표준화 서식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책자 450부를 전국 행정기관, 도내 유관기관, 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통계활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도민 맞춤형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8 ~ 9월에 13일간 전남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2개 시군과 함께 도내 19,116개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원이 직접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구소득·소비, 보건·의료, 사회·복지, 여가.문화 등 12개 부문 45개 항목을 조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란 모든 경제활동 주체(가계·기업·정부)가 1년 동안 지역 내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재화, 서비스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한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를 말한다.

전남의 2020년 기준(잠정) GRDP 규모는 78조 1,049억원으로, 2019년 76조 9,483억원 대비 1조 1,566억원(1.5%)이 증가하였고, 전국 GRDP 1,936조 430억원의 4.0%를 차지한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기초가격 68조 6,380억원 기준[3]) 농림어업은 전년보다 0.9%가 증가한 5조 4,514억원으로 총부가가치의 7.9%를 차지하고, 광업. 제조업은 전년에 비해 6.8% 감소한 21조 4,424억원으로 총부가가치의 31.2%를 차지한다. 또한 기타부문(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제외)은 전년에 비해 4.3%가 증가한 41조 7,443억원으로 총부가가치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시군별 GRDP는 여수시가 25조 8,707억원(33.6%)으로 가장 높고, 광양시 10조 603억원(13.1%), 순천시 6조 1,250억원(8.0%) 순으로 나타났다.

3) 지역내총생산에서 생산물세(9조 4,668억원)를 제외한 금액



매년 2 ~ 3월에는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산업분포 및 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2020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로 통합 실시되었고, 2021년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완료하였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전남의 사업체수는 22만 7천개이고, 종사자수는 84만 9천명이다.

【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20년말 기준 잠정) 】

구 분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전국	전남	구성비(%)	전국	전남	구성비(%)
계	6,013	227	3.8	24,834	849	3.4
A. 농림어업	10	2	15.9	61	9	15.5
B. 광업	2	1	50.3	15	3	18.7
C. 제조업	579	17	2.9	4,279	126	2.9
D. 전기·가스·수도	74	11	15.4	142	20	13.8
E. 하수·폐기·원료재생	13	1	6.1	128	8	6.2
F. 건설업	470	24	5.0	2,154	112	5.2
G. 도·소매업	1,562	55	3.5	3,679	107	2.9
H. 운수업	593	24	4.0	1,327	50	3.8
I. 숙박·음식점	867	36	4.2	2,095	76	3.6
J. 출판·영상·방송	112	1	1.3	774	9	1.1
K. 금융·보험	60	2	3.3	727	20	2.8

구 분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전국	전남	구성비(%)	전국	전남	구성비(%)
L. 부동산·임대	275	5	1.8	684	13	1.9
M. 전문·과학·기술	220	4	1.9	1,373	21	1.5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150	4	2.8	1,315	28	2.1
O. 공공행정	12	1	10.5	833	49	5.9
P. 교육서비스	233	7	3.1	1,654	55	3.3
Q. 보건·사회복지	158	6	3.9	2,251	90	4.0
R. 예술·스포츠·여가	143	5	3.3	420	16	3.8
S. 협회·수리·개인서비스	476	20	4.3	924	35	3.8

또한 2020년에는 최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2037년까지 20년간 전남 시군별 상주인구를 예측한 「전남 시군별 장래인구추계」를 공표하였다. 추계 결과 2037년 전남의 총인구는 168만 7천명으로 2017년 179만 5천명보다 10만 8천명(-6.0%)이 감소하며, 2037년 기준 순천시가 전남도 인구의 15.2%인 25만 7천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7년 대비 2037년 인구는 나주시, 담양군, 구례군, 장성군 등 4개 시군만이 증가하고, 혁신도시 영향으로 나주시의 인구증가율이 28.7%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

(단위 : 명, %)

시군명	2017	2027	2037	비중	순위	2017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전남	1,795,036	1,724,495	1,686,609	100	-	-108,427	-6.0
목포시	234,762	212,618	197,324	11.7	3	-37,438	-15.9
여수시	272,202	253,123	239,027	14.2	2	-33,175	-12.2
순천시	266,932	263,972	256,668	15.2	1	-10,264	-3.8
나주시	104,309	126,505	134,268	8.0	5	29,959	28.7
광양시	144,279	145,041	141,172	8.4	4	-3,107	-2.2
담양군	44,013	43,527	44,978	2.7	12	965	2.2

시군명	2017	2027	2037	비중	순위	2017년 대비	
						증감	증감률
곡성군	28,998	26,566	27,021	1.6	20	-1,977	-6.8
구례군	24,471	24,635	25,892	1.5	22	1,421	5.8
고흥군	61,246	57,674	57,309	3.4	8	-3,937	-6.4
보성군	40,142	36,085	36,033	2.1	15	-4,109	-10.2
화순군	60,782	56,305	55,612	3.3	9	-5,170	-8.5
장흥군	36,011	33,808	34,445	2.0	16	-1,566	-4.3
강진군	33,889	30,124	29,668	1.8	18	-4,221	-12.5
해남군	67,557	60,623	58,448	3.5	7	-9,109	-13.5
영암군	57,833	50,892	48,864	2.9	10	-8,969	-15.5
무안군	81,416	77,489	74,923	4.4	6	-6,493	-8.0
함평군	31,053	29,037	29,640	1.8	19	-1,413	-4.6
영광군	49,878	47,449	46,496	2.8	11	-3,382	-6.8
장성군	41,508	41,872	43,301	2.6	14	1,793	4.3
완도군	48,454	45,809	44,510	2.6	13	-3,944	-8.1
진도군	29,510	27,287	26,724	1.6	21	-2,786	-9.4
신안군	35,791	34,054	34,286	2.0	17	-1,505	-4.2

아울러 2020~2021년에 추진된 3대 총조사(인구주택·농림어업·경제총조사)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으로, 그 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2021년 11월에는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조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빅데이터통계팀장 김정미, 담당자 임수열,최민형

4-4.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전남도는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농수특산품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마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주민들의 참여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선정했다. 총 166억원을 투자하고 39개 정보화마을을 조성했으며,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특판행사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총 86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정보화마을 판매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 이전	2019	2020	2021
계	85,962	71,380	5,635	4,551	4,396
특산품	80,284	66,657	5,149	4,336	4,142
체 험	5,678	4,723	486	215	254

앞으로는 농수특산품 생산·가공·판매시설 및 체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SNS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정보화마을 브랜드를 통한 소득증대와 마을자립화를 촉진하는 한편, 선도적인 마을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정보화담당관 손재형, 정보기획팀장 이유지, 담당자 남승효, 송수지

4-5.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사업은 장애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보활용 능력을 키워 계층 간,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2021년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기관 12개소를 선정·지원하여 총 4,114명(목표 대비 136%)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 연도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적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장애인	3,931명(10)	2,434명(5)	2,980명(10)	4,114명(12)
고령층	1,550명(3)	996명(2)	704명(3)	-
합 계	5,481명(13)	3,430명(7)	3,684명(13)	4,114명(12)

※ ( )는 교육기관 수

※ 고령층 교육은 2021년부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통합

앞으로도 도는 정보 소외계층이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정보기획팀장 이유지, 담당자 박종호

나.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전남도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90%를 지원하며 보조기기 종류로는 스크린리더기,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 및 마우스, 영상전화기, 언어훈련 S/W 등 있다.

전남도는 2021년 5~6월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접수를 받아 총 28종 164대를 보급 완료했다.

【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실적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인 원	173명	153명	172명	164명

앞으로도 도는 장애인들의 수요가 많은 의사소통 보조기기, 언어훈련 S/W 등의 보급 대수를 늘리는 등 장애인들의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정보기획팀장 이유지, 담당자 박종호

다. 중고 PC 보급사업 추진

중고 PC 보급 사업은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PC를 수집·정비하여 PC를 필요로 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보급하는 사업이다. 민선7기에는 매년 250여대의 PC를 보급했다.

【 연도별 중고 PC 보급실적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인원	429	222	146	230

앞으로도 중고 PC 보급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보급사양의 상향화 등을 통해 보급대상자의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정보기획팀장 이유지, 담당자 송수지

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추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과의존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전라남도 스마트쉼센터」를 주축으로 38개의 협력기관과 함께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연결하여 2021년 총 16,314명(목표대비 138%)에 대한 예방교육과 116명에 대한 맞춤형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했으며,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센터로 찾아오는 예방교육 및 체험활동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앞으로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 연도별 과의존 예방교육 실적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인원(명)	21,290	11,506	13,882	16,314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정보기획팀장 이유지, 담당자 김재관

4-6.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확충

전남도는 2010년부터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확충 사업'을 시행하여 2021년까지 5,965개소(통신사 자체 구축 포함)를 구축했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 지자체(도·시군), 사업자(KT)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매칭펀드(1:1:2~3) 방식으로 추진하여 농어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다.

도는 농어촌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24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 2,120개소를 총사업비 427억원을 투입하여 초고속인터넷망을 12년간에 걸쳐 공동 확충하였고, 2022년에는 63개소를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어촌마을에서도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온라인수업, IPTV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확충 추진실적 】

연 도	전 체	소요 사업비(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사업자 (KT)
				도비	시·군비	
합 계	5,965	42,680,938	10,380,612	4,989,916	5,391,196	21,916,704
2010	103	1,508,000	377,000	188,500	188,500	754,000
2011	104	1,500,000	375,000	187,500	187,500	750,000
2012	116	1,676,000	419,000	209,500	209,500	838,000
2013	165	2,108,000	527,000	263,500	263,500	1,054,000
2014	248	4,140,000	1,035,000	517,500	517,500	2,070,000
2015	391	7,216,000	1,804,000	902,000	902,000	3,608,000
2016	414	8,206,000	2,051,000	1,025,750	1,025,750	4,103,000
2017	398	10,552,528	2,638,132	1,319,066	1,319,066	5,276,264
2020	40	756,400	151,280	75,640	75,640	453,840
2021	141	5,016,000	1,003,200	300,960	702,240	3,009,600
통신사	3,845	통신사 자체 구축(2010년 ~ 2017년)				

추진부서 ○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ICT보안팀장 최명철, 담당자 김준국**

4-7.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전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도내 공공시설 총 3,327개소에 관광객과 도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Wi-Fi)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은 2017년 도내 관광지를 시작으로 농어촌 주민센터, 복지회관, 경로당, 버스정류장 등으로 확대하여 2021년까지 총 2,827개소의 관광지와 공공장소에 구축 운영하고 있고, 4개 시(목포·여수·나주·광양) 지역 시내버스 500대에 무료 사용이 가능한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구축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가 7:3 비율로 전액 부담한다. 전남도에서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이용요금의 25%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와이파이(Wi-Fi)의 이용요금은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전남도와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라남도의 지리적 특성상 도서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는 통신사 선정에 따라 계획했던 장소에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담 수행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전남도의 통신사는 도서 지역도 와이파이(Wi-Fi) 구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 줄 것을 매년 건의하고 있다.

2020년 12월까지 도내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Wi-Fi) 연간 이용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이용 건수는 2억 1천만 건에 달하고 데이터 사용량은 1,726TB(테라바이트)로 통신비 절감효과는 42억 원이 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도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2년에 608개소에 구축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섬지역 및 농어촌 버스까지 공공와이파이(Wi-Fi) 사용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와이파이(Wi-Fi) 현황 】

(단위 : 개소)

사업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관광지	473	66	208	199		
시내버스	500			500		
공공장소	2,354			887	492	975
계	3,327	66	208	1,586	492	975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ICT보안팀장 최명철, 담당자 류인재**

4-8.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전남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도민의 개인정보보호에 힘썼다.

도는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지침 등 개인정보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정비하였다.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업무용 PC 내의 개인정보 점검 및 암호화 조치를 매주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매월 점검하였다.

도 수탁업체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파기 등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술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수행하였고 수탁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하였다.

수탁업체 외에도 지역주민의 개인정보 인식수준 향상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역거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배너 게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2021년 전남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2014~)에서 8년 연속 우수 등급(90점 이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 연도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점수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관리수준 진단평가 점수	97.75	95.25	95.05	95.29

앞으로 전남도는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운영,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도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정보시스템팀장 주승식, 담당자 차소신


심폐소생술을
기억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줄여주세요!
30



제3장 부분별 성과

제2절 재난·안전관리

1. 안전한 전남 구현
2. 재난사고 대응 및 관리기능 강화
3.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4. 소방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5.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제2절 재난·안전관리

1-1.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사고 최소화

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전라남도는 2014년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65세 이상 노인층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60%를 점유(2021년말 기준)하고 있으며, 사고 시 치사율이 높아 어린이와 함께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계층이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위험요소를 감안하여 보행자(사람) 중심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 조명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바닥형 신호, 음성안내) 도입, 농어촌도로 갓길 보행환경 정비, 농기계 경광등 부착 지원,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다수 개발하여 현장에 반영하였다.

또한, 교통안전분야의 예산을 2018년 151억에서 2021년 478억원으로, 민선7기 기간 동안 약 3.2배를 증액하여 교통약자 및 보행자 안전성 개선, 사고 다발지역 교통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규모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년 1,000명이 넘게 발생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 감소하여 2021년에는 256명까지 급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개선도 장기적인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연도별 투입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85,977	15,085	30,622	43,045	49,428	47,797
노인・보행자안전	36,776	906	2,850	11,530	12,485	9,005
도로교통시설	47,740	6,552	14,892	11,395	7,045	7,856
어린이안전	90,295	6,297	10,994	17,984	26,886	28,134
홍보・교육	11,166	1,330	1,886	2,136	3,012	2,802

추진부서 안전정책과장 심우정, 안전총괄팀장 오미경, 담당자 이지민, 천재영

나. 도민 안전의식 강화

1) 지역맞춤형 재난안전교육

2017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을 운영하여 각종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간 주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6개 민간단체의 안전의식 확산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였다.

2) 민관 협업 캠페인 전개

이외에도 도민의 안전의식을 정착시키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경찰청・교육청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준수, 교통안전 의식개선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의 안전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다.

3) 비대면 생활밀착형 홍보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지속되며 대면 방식의 캠페인 추진이 주춤해짐에 따라 비대면 생활밀착형 홍보의 방식을 강화하였다.

범도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TV, 신문 등 언론매체, 공공 전광판, 공동주택 승강기 모니터,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성숙된 도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전남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안전문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공공기관 전광판과 온라인에 배포하여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켰다.

4) 시상제도 브랜드 구축

전남도는 인지도가 높은 정약용 선생의 가치관과 호를 반영한 특색있는 네이밍(작명)으로 전남도만의 재난안전관리분야 시상제도 브랜드인 다산안전대상을 2018년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각 부서에서 단위업무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재난안전 분야 평가 시상제를 통합하여 제도화하고, 주민 주도형의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한 도민과 적극적인 애민정신을 가지고 재난예방 활동을 추진한 기업・기관・민간단체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한 2018년 이후로 매년 다산안전대상을 운영, 올해까지 총 네 번의 다산안전대상을 운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책임성을 높이게 하며 안전한 전남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현황 】

구분	사업명	대상	주요내용
교육	남도안전학당 운영	65세 이상	생활안전, 교통안전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민간단체 공모
	어르신 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일반	민간단체 공모
캠페인	교통안전문화 릴레이 캠페인	13개 기관・단체	교통안전문화 확산
홍보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20여개 매체	거리두기, 교통안전
	안전문화 홍보 영상 제작	반기별 1회	어르신 안전
	아파트 승강기모니터 영상 홍보	2,200대	교통안전
시상	다산안전대상 운영	시군, 단체, 개인	재해예방, 안전문화 확산 등

추진부서 안전정책과장 심우정, 안전총괄팀장 오미경, 담당자 이지민

다.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

1) 특별사법경찰 운영개요

특별사법경찰은 지능화・다양화 되어가는 민생범죄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송치하는 제도이다.

전라남도는 2013년 7월 29일 민생사법경찰 전담조직이 신설되면서 민생 6대 분야(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방문판매, 농약・비료)를 지명 받아 언론보도 및 사회적 쟁점이 되는 분야의 기획수사와 강력한 수사 활동을 통해 도민 생활안전 구현에 적극 임하고 있다.

2) 특별사법경찰 지명·운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24개 분야 702명을 지명・운영하고 있다.

특히 행정범죄의 지능화 및 다양화에 대비한 자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기법 등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특사경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수사관련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수사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특별사법경찰 지명 인원 및 실적 】

○ 도 지명인원 : 189명

(단위 : 명)

계	안전정책과	수산자원과	동부 지역본부	대응예방과 (소방서)	동물위생 시험소
189	4	30	9	144	2

○ 시·군 지명인원 : 513명

(단위 : 명)

시·군	인원	시·군	인원	시·군	인원	시·군	인원	시·군	인원
목포시	21	여수시	75	순천시	48	나주시	15	광양시	22
담양군	24	곡성군	21	구례군	16	고흥군	20	보성군	10
화순군	20	장흥군	27	강진군	7	해남군	30	영암군	9
무안군	22	함평군	19	영광군	20	장성군	29	완도군	28
진도군	20	신안군	10	※ 22개 시군 지명					

○ 도 송치실적

(단위 : 건)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건수	45	57	71	156	

○ 시군 송치실적

(단위 : 건)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건수	2,296	2,340	1,531	1,399	

추진부서 안전정책과장 심우정, 민생사법경찰팀장 나재영, 담당자 허유량

1-2. 재난안전 관리실태 확립

가. 비상대비·민방위태세 확립

1)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비상사태 발생 대비 완벽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민·관·군·경 기관장 30명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회의는 분기별로 국가방위 요소별 추진시책에 대한 평가, 통합방위 현안 토의 등으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통합방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하고 있다.

2)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비상대비훈련 시행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군사 분야의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을(16개 분야 26개 계획) 수립·운영하고 있다.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을지태극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의 비상대비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무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위기관리능력을 함양하며 공무원의 전시 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켜 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우리 지역의 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한 상황 조치와 실제 훈련, 전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등으로 비상대비태세 확립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21년에는 화랑훈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 비상대비훈련 종류 】

구 분	주기	주관	주 요 내 용
을지태극연습	1회/년	행정안전부	전국 단위, 전시대비 국가총력전 연습
화랑훈련	1회/2년	국방부	지역 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검증
충무훈련	1회/3년	행정안전부	지역 단위, 자원(인력·차량·건설기계) 동원훈련

3)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만 20세~40세 남성을 대상으로 민방위대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편성 누락자 및 불분명한 제외 대상자가 없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 2019~2022 민방위대 편성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통리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2019년	109,024	93,984	1,233	13,807
2020년	103,956	88,902	1,455	13,599
2021년	100,019	84,882	1,390	13,747
2022년	99,368	85,652	1,181	12,535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집합교육(1~2년차) 및 사이버 교육과정(3년차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전체험관 안전체험, 재난 예방·대비·복구 활동 등 참여형 교육을 통해 교육 편의 및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민방위 대원별 교육시간 】

구 분	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민방위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 교육

한편,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경제 생산인구인 민방위대원의 경제활동 여건 보장을 위해 2022년부터 사이버 교육과정을 5년차 이상에서 3년차 이상 대원에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4)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민방공 경보발령 후 5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한 지하시설 804개소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 2회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미흡한 사항은 정비·보강하여 언제라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보현황 】

대상인구(명) * 읍·동 주민	소요량	확보량			
		개소	면적(㎡)	확보율(%)	수용인원(명)
1,832,803	1,512,074	804	2,324,133	154	2,817,122

상수원 오염 및 급수 중단 등의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 활용도와

권역별 급수능력을 고려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수질오염이 비교적 적은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자체 비상용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수질 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식수로 활용이 가능한 민간 소유의 지하수 시설을 동의를 얻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우리 도내에는 총 179개소를 확보(확보율 115%)하여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 】

대상인구(명) * 읍동 주민	소요량 (톤)	확보량		
		개소	톤수	확보율
1,247,597	31,190	179	35,770	115%

또한, 민방위사태에서 주민대피, 응급구조·구급 지원 등 민방위 대원의 법적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해 민방위 장비 6종 13,108점(확보율 152%), 화생방방독면 113,533개(확보율 114%)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다.

【 민방위·화생방 장비 현황 】

구 분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비 고
민방위장비	9,588점	13,106점	137%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화생방방독면	99,368개	113,533개	114%	KS M 6685, 일반방독면

추진부서 안전정책과장 심우정, 비상대책민방위팀장 권성조, 담당자 박영민, 박강숙

다.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1)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운영

전남도는 민방공 사태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경보를 전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연중 24시간 경보상황 감시 및 민방위경보시설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민방위경보시설은 132개소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민방위경보시설 현황 】

기관별 / 구분	계	도	시군	기능	비고
합 계	132	1	131		
도 경보통제소	1	1	-	전체 민방위 경보시설 통제	
여수,순천,고흥, 완도	4	-	4	해당 시·군 경보전달 및 지진해일 상황 전파	
경보방송 연결장치	5	-	5	TV자막이나 라디오방송으로 경보상황 전파	목포KBS 목포MBC 여수MBC 순천KBS 한국전력공사
민방위 경보사이렌	112	-	112	읍·면·동 경보상황 전파	22시·군
지진해일 경보사이렌	10	-	10	남해안 지역 지진해일 및 경보상황 전파	여수, 고흥, 완도

2) 민방위경보시설 확충(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은 경보사이렌을 통해 경보상황을 전달받지 못하는 지역에 경보사이렌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보사이렌을 설치하는 기준은 비 가청인구 3,000명 이상의 지역이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20 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개 시·군에 15대의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설치 하였다.

그 결과 우리 도의 경보가청률은 62%에서 68%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우리 도는 도서 및 산간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전국 평균 가청률 84%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전남도는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지역은 물론 거주 인구가 적은 면 단위 지역까지 지속 경보사이렌을 확충할 계획이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추진 현황】

연도별	시설대수	설치장소	예산액 (백만원)	비고
합 계	13		520	
2019	2	나주시 빛가람동 곡성군 옥과면	80	
2020	5	보성군 회천면 보성군 웅치면 보성군 복내면 강진군 마량면 영광군 염산면	200	
2021	4	나주시 빛가람동 광양시 진월면 광양시 옥룡면 신안군 임태면	160	
2022	2	화순군 능주면 완도군 청산도	80	

3) 건축물 내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 구축 운영

도 경보통제소는 비상상황 발생 시 도내 116개소의 다중이용시설 건물 내에 자동으로 경보를 전파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중에 있으며, 원활한 경보전파를 위해 민방위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경보전파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현황 】

계	운수시설	판매시설 (3,000㎡이상)	영화관	비 고
116	85	24	7	

추진부서 안전정책과장 심우정, 경보통제팀장 신태권, 담당자 진환춘

2. 재난사고 대응 및 관리기능 강화

2-1. 재난사고 총력 대응 및 예방체계구축

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응

유래없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2020년 1월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총력 방역대응 및 도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해외입국자 7,311명을 집중 관리하여 초기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효과적인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293만장, 체온계 1만개, 자가진단키트 20만개 등 방역물품을 방역현장 고위험시설 등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보급하였다.

이러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전남도는 최장기간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도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는 등 코로나 대응 선도지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도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판로확보, 각종 요금감면 등 분야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민들의 방역 동참과 희생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코로나19 감염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유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는 청정한 안전 전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사회재난과장 김성훈, 사회재난대응팀장 정해상, 담당자 이세열

나. 도민 체감형 안전점검 강화

도의 생활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시설별·시기별 특성에 맞게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분야는 생활밀접시설, 재난취약시설, 노후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다중이용시설, 축제장, 물놀이시설, 승강기, 출렁다리, 어린이놀이시설 설·추석, 행락철, 해빙기, 동절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설물 등을 집중 점검하여 재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도록 추진된다.

특히,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전 도민의 참여하에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법·제도개선은 물론 점검결과 위험요소의 보수·보강 등을 안전조치를 하여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힘써오고 있다.

2021년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점검대상 1,117개소를 선정하여 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의무로 참여하고 그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후관리를 추진함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까지 병행 확인하여 도민 생활안전 확보와 감염병 예방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중·대형 시설물(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3,502개소)의 안전등급, 점검 주기별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 중 D, E등급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정 및 시설물별 장·단기 계획 수립·시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모든 시설물별 안전관리자 미지정 등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취약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위해 주민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부서 사회재난과장 김성훈, 안전점검팀장 유홍재, 담당자 이종신

다.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1) 방사능 방재 시설·장비 확충

제1, 2차 국가 방사능방재계획에서 정부는 원전 주변에 고정형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추가 확충하여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오염확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그 범위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28~30㎞)으로 한정되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방사선 비상시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보호대책 수행과 지역주민들의 방사선 피폭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 방재 시설·장비 구축을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인접국으로부터의 방사능 유입과 지역주민 방사선 피폭 예방을 위해 매월 차량 탑재·이동형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전 시·군에 대한 환경방사선 감시활동을 강화하였고, 기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4개 군(무안·함평·영광·장성)에 고정형 환경방사선 감시기 20개소를 설치했던 것에 더해 나머지 18개 시·군에 각 1개소씩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도내 전 시·군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하였다.

감시정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공하여 '국가 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IERNet)'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방사능 재난 발생시에는 중앙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자체,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비상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 도내 고정형 환경방사선 감시기 설치 현황 】

구 분	시·군	설치현황	비 고
전라남도 (38개소)	무안군	3개소	
	함평군	4개소	
	영광군	8개소	
	장성군	5개소	
	그 외 시·군	18개소	시·군별 각 1개소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 발생 시 주민대피 체계를 개편하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을 즉시 바깥으로 대피하도록 변경하였고, 구호소도 기존 5개 시·군에서 7개 시·군(81개소)으로 다변화하였다.

【 도내 구호소 지정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신안군
계	81	16	11	9	20	9	15	1
학 교	75	15	10	8	19	8	14	1
체육시설	6	1	1	1	1	1	1	-

또한 보유중인 갑상샘 방호약품(30만정)의 유효기간이 만기 도래함에 따라 2회에 걸쳐 기존 방호약품을 전량 폐기하고 신규 약품으로 교체 보급하였다.

【 도내 갑상샘 방호약품 확충 현황 】

(단위 : 정)

구 분	합 계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갑상샘 방호약품	304,420	500	42,000	196,420	65,500

2)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실시

방사능 비상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방사능방재 교육·훈련을 중점 실시하였다. 2021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보호지원본부가 국가 방사능방재체계에 신설되면서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강화되고, 주민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가 부각되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가 신설되어 주민보호조치 분야 총괄·지원 역할을 하는 개념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논의를 거친 후, 2019년 10월 29일 한빛원전 5호기를 대상으로 한 연합훈련에 최초로 시범 도입하였다.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부처, 전남·북 6개 지자체(무안·함평·영광·장성·고창·부안), 군·경·소방· 교육기관, 한수원 등 총 47개 기관, 4,200명의 훈련요원과 주민이 참여하였다. 연합훈련은 주민대피, 구호, 비상진료 등 주민보호조치 훈련에 역점을 두어 행정안전부 등 각급 비상대응 조직간 협조체제를 유기적으로 가동하였으며, 방재요원의 비상대응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실제 대피훈련 참여를 통한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4개 군 주관으로 주민대피, 구호소 운영, 주민교육 등 주민보호조치 훈련을 중점 실시하여 지자체 중심의 현장대응 체계를 정립하였다. 전라남도 지역의 특성에 맞춰 마련한 '읍·면 단위 방사능 방재 훈련'을 매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훈련참여 기회를 늘리고, 대피경로·구호소 안내와 주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방사능 방재 요원의 임무 숙지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방사능 방재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관별 인사발령에 따른 방재 요원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명단을 현행화 하고, 꾸준한 방재교육을 통해 방재 요원의 숙련도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4개 군(무안·함평·영광·장성)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갑상샘 방호약품 복용 요령, 집결지 및 구호소 숙지 교육 등 마을 순회 주민 방재교육을 실시하였다.

2019년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및 폭발적인 확산으로 대면교육과 현장훈련을 지양하여 도상훈련을 통해 방재요원의 비상대응역량을 점검하였고, 주민행동요령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지역주민의 행동요령 숙지를 도모하였다.

【 주민행동요령 홍보물(리플릿, 소책자) 】





3)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원전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전문가·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전라남도 한빛원전 안전협의회 등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한빛원전 격납 건물에서 공극과 내부철판 부식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중앙부처, 전남도, 영광군, 전문가, 지역주민 등 105명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였다. 격납건물 건전성을 공동 조사 및 검토하여 취약부분 보강공사가 실시되는 등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였다.

원전 고장·사고 시 광역단체장의 조사 참여, 원전안전 주요 정책 추진 시 광역단체장의 동의 의무화를 골자로 원전소재 광역시·도(전남·부산·울산·경북)가 함께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기조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의 정책적 배려 차원으로 원전소재 1 시·군, 1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담당부처에 제출하였다.

2021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나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 없이 강행된 바에 우려하여 계획의 원점 재검토 및 충분한 의견수렴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였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사회재난과장 김성훈, 원전안전팀장 김광철, 담당자 김군중

2-2. 사회재난 예방체계 강화

가. 도민 재난안전 체험교육 내실화

1) 재난안전 체험교육시설 확충

세월호 침몰, 포항 지진,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 여수 국가산단 폭발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잦은 재난이 발생됨에 따라 도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 체험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안전 및 재난을 예방하고 위기관리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도민의 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내실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 운영 중인 14개소의 안전체험관[1] 외에 2023년까지 3개소를 신규 확충할 계획으로, 2021년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180억원), 순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內 해양 및 산업안전체험시설(485억원)을 건립했다.

2022년에 진도 국민해양안전관(270억원)을 준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고, 2023년까지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여수 석유화학 안전체험관(238억원), 목포 스마트 해양교통안전센터(100억원)를 준공할 계획이다.

1)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여수 해양경비안전원, 순천 어린이교통안전공원, 순천호남권직업체험센터, 광양 민방위실전훈련센터, 담양 호남안전체험교육장, 강진 안전체험관, 무안 해상안전체험관, 영광 전남안전체험교육센터, 목포·여수·순천·나주소방서 안전체험장

2)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추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법정계획인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시행됐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6대 분야 68개 영역에 대해 2022년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연인원 35만명 교육 실시를 목표로 소관 안전교육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22년도 지표별 안전교육 실시계획 】

주요지표	2021년 실적	2022년 계획
안전체험관 교육 참여	1.2만명	17만명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	200명
안전교육기관 지정	-	2개소
농어촌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2.7만명	3만명
소방안전 교육 및 교실운영	9.6만명	15만명

추진부서 사회재난과장 김성훈, 재난관리팀장 김미영, 담당자 문정금

나.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재난상황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도와 11개 시군이 선정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기존에는 사건·사고 수사목적으로 경찰이 CCTV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CCTV영상을 열람 가능했지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재난·범죄 현장의 실시간 CCTV영상을 112상황실, 경찰서, 경찰차, 119종합상황실, 도 재난안전상황실,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등에 제공함으로써 재난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공유가 가능해져 위급 상황 시 도민의 안전·교통·시설 등을 24시간 감지·분석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출동 ▲수배차량 검색 ▲119 긴급출동 ▲재난상황 긴급대응 ▲전자발찌 착용자 위반행위 시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 법무부에 46,286건의 시군 CCTV영상을 제공하였고,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9,804건의 영상을 제공하였다.

2022년에는 사업비 35억 원(도비 20, 시군비 15)을 확보하여 미연계된 11개 시군 CCTV 관제센터를 도와 6월 말까지 연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기관 상호 긴밀한 협력 및 재난현장에서의 통합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완료하였다.

전라남도는 2021년 4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40대를 구매하여 중앙, 시·군 등 재난관련 35개 기관과 공통통화그룹 상시 대기 점검훈련 등 단말기 조작방법을 숙달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현장에 단말기를 기동 배치하여 신속·정확한 재난현장 영상 공유 및 공동대응 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사회재난과장 김성훈, 재난상황팀장 이재성, 담당자 선창완**

3.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3-1. 자연재난 대응능력 강화

가. 자연재난 대비 체계 확립

자연재난은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민선7기를 맞아 ICT 기반 등을 활용한 예방중심 재난업무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피해복구 체계 구축으로 인한 주민생활 안정화에 노력하였다.

【 자연재난 피해액 비교 】

(단위 : 억원)

2014.1.~ 2017.12			2018.1.~ 2011.12			비 고
계	사유시설	공공시설	계	사유시설	공공시설	
237	114	113	2,731	611	2,120	

특히, 최근 연이은(2020~2021년) 기상이변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을 통해 국비 추가 확보와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해복구 사업추진으로 도민생활 안정화에 노력하였다.

【 공공시설 피해복구액 비교 】

(단위 : 억원)

2014.1.~ 2017.12			2018.1.~ 2011.12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143	77	66	12,272	9,786	2,486	

또한 2020년 8월에는 실질적인 사유시설의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233개(인상 230, 신규 3) 품목이 개선되었다.

한편, 도는 「도민이 안심하는 전남실현」을 목표로 내실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도민 중심의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계를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구축하여 빈틈없이 운영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는 가동기준에 따라 준비와 비상 단계로 구분하고 준비단계는 호우·태풍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평상시와 주의보 발효에 따른 사전대비 단계로 나뉜다.

비상 단계에서는 호우경보, 태풍 등 광역적 대규모 피해 발생 시 그 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13개 분야 협업기능 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전남도는 인명피해 '제로', 시설물 피해 '최소화' 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비로 매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장, 하천·제방, 차량침수피해 우려지역 등을 우기 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수시 직무역량교육을 추진하였다.

한편,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등 각종 행동매뉴얼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상시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추진부서 자연재난과장 김운형, 자연재난관리팀장 이경종, 담당자 임성수

나. 풍수해 보험가입 확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기초생활수급자 87.04%, 차상위계층 78.4%, 일반가입자 71.2%)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국민이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보험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6개 민영보험사(DB, 현대해상, 삼성, KB, NH농협, 한화)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주민설명회 개최, 반상회보 게재,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배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 결과 2021년 주택 66,458건(2020년 대비 17.2% 증가)의 가입실적을 기록했다.

도는 앞으로 풍수해보험 시행령 개정(2022. 4. 5.)에 따라 재해에 취약하고 재정 기반이 약한 도민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

(단위 : 건, ha)

2019			2020			2021		
주택 (건)	온실 (ha)	상가 (건)	주택 (건)	온실 (ha)	상가 (건)	주택 (건)	온실 (ha)	상가 (건)
65,699	24.5	9	56,716	134.1	892	66,458	77	1,686

추진부서 자연재난과장 김운형, 자연재난대응팀장 장경석, 담당자 양주호

3-2.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가.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전남도는 재해 우려가 있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대상 952개소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시행하였다.

재해예방사업은 급경사지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5가지 단위사업을 총칭한다.

전남도는 1998년부터 2021년까지 23년간 489개 지구에 1조 8,276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요인 사전해소에 주력하였으며 특별히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사업의 주요 공종을 마무리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 완료와 정기적 민·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이 여름철 재난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2022년에도 109개 대상 사업에 대해 한발 빠른 발주와 착공으로 급경사지와 저류지 정비 등 우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는 등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다.

도는 나머지 354개의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위험도가 높은 지구부터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1조 6천억 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설득 논리개발과 현장여건을 수시로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20여종의 수방자재와 구호물자 등을 재해위험 지구 인근에 상시 비치하고 굴삭기 등 장비 526대를 재난 동원장비로 지정, 유사시 신속한 복구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대규모 건물과 이격된 학교, 교회 등 1,759개 시설을 선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등 다각적이고도 선제적인 재해예방 노력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추진부서 자연재난과장 김운형, 자연재난관리팀장 이경종, 담당자 마동율

나. 재난·기후 변화에 선제적 대처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 인접 지역의 기압계 정체 현상이 잦아져 여름철 평균기온이 해마다 높아짐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우려가 커졌다. 특히,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공식적인 재난으로 포함(2018. 9. 18.)되었다.

전남도는 매년 폭염대책기간(5. 20.~9. 30.)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폭염 대응을 위해 시·군 및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T·F팀을 운영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과 같은 무더위쉼터[2]를 지속 확충하면서 냉방용품을 배부, 7~8월 혹서기 냉방비는 추가로 지원했다. 도민에게는 폭염 예방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인명피해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을 통해 무더위쉼터 개방율을 98%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늘막·지붕 차열도장·도로 살수장치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3]을 연차별로 꾸준히 늘려나갔다.

아울러 2만 4천여 명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19만여 명에 대해 유선통화와 방문 등 매일 1회 이상 안부묻기를 통해 폭염피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했다.

【 최근 4년 폭염일수 및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

(단위 : 일, 명)

구 분	평 균	2018	2019	2020	2021
폭염일수	49.7	50	30	30	39
온열질환자(환자/사망자)	185.8 / 1.5	322 / 4	191 / 2	117 / 0	113 / 0

2) 쉼터개소수 : (2019) 7,448개소 → (2020) 8,218개소 → (2021) 8,314개소
3) 저감시설수 : (2019) 327개소 → (2020) 843개소 → (2021) 1,508개소

또한, 경주(2016.9.12.)와 포항(2017.11.15.)의 대규모 피해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실질적 위험으로 대두된 지진에 대해 전남도는 대응 주체로서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밀도있게 추진했다.

민선7기 도내 지진발생 횟수는 총43회(진도 2.0이상)로 전국 291회 대비 14%를 차지하고 시·도 발생빈도 순위는 2위이지만 대부분 해역에서 발생하여 피해는 없었다.

전남도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공공시설물 내진율[4]을 대폭 올렸다. 2014년 5개소인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2018년에 27개소로 확대했고 신속한 지진 발생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 예·경보(1,907개) 및 민방위경보(122개)를 연계한 경보체계를 확대 구축했다.

울러 지진 일반정보 및 대피요령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지진대피소 2,252개소(옥외493, 임시1,759)를 상시 활용 가능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지진대응훈련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기상이변 현상과 대규모 지진발생을 가정한 한발 빠른 예방 조치와 도민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연재난과장 김운형, 자연재난관리팀장 이경종, 담당자 박광영, 최하림

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우리 도 하천 연장은 총 3,276.2㎞로써 이중 국가하천이 327.5㎞, 지방하천이 2,948.7㎞이다.

4) 내진율 : (2018) 35.5% → (2020) 44.3% → (2022) 60.0%

【 도내 하천현황 】

구 분	하천수 (개소)	연장 (km)	정비구간 (km)	장래 (km)	관리주체
계	563	3,276.2	1,777.8	2,143.1	
국가하천	7	327.5	269.9	88.5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556	2,948.7	1,507.8	2,324.6	전라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982년「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치수에 집중하여 추진했으나, 하천환경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2009년부터는 생태계 복원 등 친수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사업간 혼선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948km, 12조 2,881억원 중 2021년까지 1,507km, 2조 3,805억원(39.4%)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하천 정비는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자재 및 공법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휴식·생활 공간으로 활용했다.

또한, 재해위험지역을 해소하여 하천변의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갈수기 인근 농경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해 가뭄 해소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추진부서 ● **자연재난과장 김운형, 하천시설팀장 한가득, 담당자 조준, 서진우**

4. 소방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

4-1. 소방조직 보강 및 인프라 확충

가. 소방서비스 확대를 위한 소방력 확충

전남도의 재난사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20개 소방서와 66개 안전센터, 97개 지역대, 24개 구조대, 1개 소방정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4,450명이 각종 재난사고 현장대응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전남 실현을 위해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 설치를 목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개 소방서를 신설하였고, 곡성·구례소방서는 2022년 4월 직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 청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 도서산간 등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이 많아 골든타임(7분 이내) 확보를 위해 특수대응단 1개소와 119안전센터 6개소, 119지역대 4개소를 신설했고, 119안전센터 2개소를 신축하고 있다.

또한, 민선7기 1인 지역대 해소, 구급차 3인 탑승 등 현장활동 부족인력 1,770명을 충원하여 재난현장의 대응력 제고와 소방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남 소방공무원은 4,450명 중 행정인력 687명을 제외한 3,763명(84.5%)이 현장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추진부서 소방행정과장 이정현, 소방행정팀장 정용인, 담당자 박상민

나. 소방관서 현대화 추진

전남소방의 새로운 100년을 꾸려나갈 소방안전타운 조성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장흥에 소방본부 청사를 신축하여 2021년 1월 이전을 완료했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소방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청사 현대화사업을 통해 119안전센터 2개소, 119지역대 5개소를 개축하고, 2022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7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소방학교에는 실화재 훈련탑, 제2생활관, 식당동을 신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훈련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예 소방인재 양성으로 현장대응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협소하고 노후된 소방청사에 대한 지속적인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도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와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 소방관서 현대화사업 현황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	2	1	3	7
현대화 사업	안전센터	-	-	-	보성 홍농	호남 왕조
	지역대	진월	문내 노화	칠량	백아	현산, 유치 작천, 동화 대마

추진부서 **소방행정과장 이정현, 소방장비팀장 서정채, 담당자 황선간**

다. 소방차량 보강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내용연수 경과) 소방차량 교체와 카프(CAFS)시스템 소방펌프차량 등 첨단성능의 소방차량을 보강하는데 노력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펌프차 54대, 물탱크차 21대, 화학차 9대, 사다리차 8대, 구조차 30대, 구급차 95대, 기타 121대 등 총 542억원을 투입하여 338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방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정밀한 현장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 소방차종별 보강 현황 】

연도	계	펌 프	물탱크	화 학	사다리	구 조	구 급	기 타
계	338	54	21	9	8	30	95	121
2021	83	13	6	3	2	8	27	24
2020	97	15	8	2	4	4	25	39
2019	65	4		1		12	12	36
2018	93	22	7	3	2	6	31	22

【 사업비 재원 현황 】

연도	계	국비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응급의료기금
계	54,260	300	36,895	11,599	5,466
2021	17,940	300	13,340	2,680	1,620
2020	14,870		8,150	5,220	1,500
2019	5,824		3,949	1,216	659
2018	15,626		1,1456	2,483	1,687

추진부서 소방행정과장 이정현, 소방장비팀장 서정채, 담당자 김재희

4-2. 화재예방 및 현장중심 대응체계 확립

가.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가와 기술발전에 따른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복잡화 현상은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방소방행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

【 특정소방대상물 증감현황 】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특정소방 대상물	48,069	49,128	50,391	51,623
증감수(%)	1,621(3.5%)	1,059(2.2%)	1,263(2.6%)	1,232(2.4%)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강화

대형화재 및 다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대형 건물과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소방서 심의회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 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 주요 안전대책으로 우수사례 전파와 안전관리 등 취약시기별 소방안전 간담회,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합동소방훈련, 관계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안전컨설팅 방문 지도,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등을 추진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 안전대책 추진사항 】

구분	간담회	소방훈련	컨설팅	소방특별조사
안전대책	분기 1회	연 1회	분기 1회	연 1회

앞으로는 관계자 중심의 체험형 소방안전교육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안전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다. 특히, 다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노인·어린이 등 재난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합동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예방안전팀장 임동곤, 담당자 배권주**

2)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환경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대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등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확산・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업소 현황(2021.12.31. 기준) 】

계	휴게음식	일반음식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	목욕장	게임제공	PC방	노래연습	골프연습	고시원	콜라텍	기타
5,449	365	1,308	1,532	615	22	74	82	287	760	250	42	16	9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소방특별조사팀장 주기열, 담당자 강민수**

3)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건축물에 대한 화재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도민 안전에 힘쓰고 있다.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물 22,137개동에 대한 긴급점검(화재안전특별조사)을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위험요소를 조치함으로 건축물 안전 강화 및 도민의 안전선택권 확대 등 화재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향후 소방특별조사는 사전 예고에 의한 조사뿐만 아니라 불시 점검 등을 병행실시하여 소방대상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특정소방대상물 현황(2021.12.31. 기준) 】

계	공동주택	근린생활	교육연구	노유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동식물	복합	기타
51,623	1,308	20,072	2,340	2,348	3,605	2,037	1,683	4,461	2,287	1,596	3,533	1,556	4797

추진부서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소방특별조사팀장 주기열, 담당자 권동주

4) 피난약자시설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피난능력 배양과 관계자 중심의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와상환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재실 알림판" 설치(213개소 1,214개)했다. 또한, 더 안전한 경보설비 성능보완으로 대피환경 개선(288개소 4,573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상영(280개소), 의료시설 요구조자 "생명의 빛 LED 랜턴" 보급(107개소 647개) 등 관계자 대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화재 시 와상환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재실 알림판" 시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피약자 구조도우미 재실알림판-ON숔'이라는 이름의 제도개선 사례로 제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관계자 비대면 정보교환 및 화재 시 신속,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작전도를 보급하고(225개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연계하여 피난시설 보강(미끄럼대 등 102개소 656점) 등 화재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화재 위험별 등급분류에 따른 화재예방 안전 컨설팅, 산림인접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대피유도 전담제" 소방훈련 등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으로 유사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

추진부서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예방안전팀장 임동곤, 담당자 배권주

5)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종합안전대책 추진

매년 전체화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실태조사(1,234단지) 실시 후 현황을 본부·소방서 상황실에 비치하여 화재 등 유사시 활용했다. 또한, 옥상 대피공간 확보를 위해 자동개폐장치 등 개선(584단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부착(787단지), 출입문 개방 표지판 설치(35단지), 진입차단 구조물 개선(16단지) 등 비상구 안전관리를 추진했다.

향후「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협의)하여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피난시설을

입주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대피영상 4종(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보급 등 비상구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

또한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00% 무료 보급 완료했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89,714가구를 보급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련 전방위 집중 홍보로 도민 자율적 설치를 유도하고, 도내 20개 소방서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설치 지원 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향후 주택용 소방시설을 일반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정책과 시책 개발을 통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현황(2021.12.31. 기준) 】

연도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소외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총 가구	보급 가구	미보급 가구	보급률	총 가구	보급 가구	미보급 가구	보급률
2021	86,051	86,051	0	100%	153,420	89,714	63,706	58.4%
2020	86,051	81,748	4,303	95%	153,420	65,147	88,273	42.4%
2019	86,051	74,864	11,187	87%	153,420	52,774	100,646	34.3%

추진부서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예방안전팀장 임동곤, 담당자 박태진

6) 도민 밀착형 소방안전교육·홍보로 안전문화 확산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화상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교육방식 다양화, 연령·계층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 다양한 재난상황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방안전 체험시설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민 참여형 119체험한마당 행사로 소방안전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 2021년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행사 결과 】

행사·교육 명칭	일자	참가팀	결 과
전남 119소방동요대회	6. 8.	유치부9팀	대 상 : 완도 청해어린이집
		초등부9팀	대 상 : 장흥 장흥초
불조심 어린이마당	9. 15.	35학교	최우수 : 여수 한려초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2. 23.	18개 소방서	최우수 : 함평소방서 전국 우수상 수상 (2년 연속)

추진부서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예방안전팀장 임동곤, 담당자 정지원**

7) 안전약자를 위한 119생활안전순찰대 운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의 특색을 살린 고령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대책으로 독거노인 등 안전약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119생활안전순찰대"를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2021년 5월부터 강진·장흥소방서 2개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수혜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2021년 8월부터는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2021년 4,004가구를 방문하여 6,967명의 도민에게 건강상담 등 생활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고, 33,880건의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안전 진단 및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생활안전순찰대 운영을 통해 도민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안전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2021년 119생활안전순찰대 활동실적 】

구분	계			주택화재 안전진단	생활 불편해소	안전 조치	생활의료 (명)
	가구	건	명				
누계	4,004	33,880	6,967	27,349	4,758	1,773	6,967

※ 기초수급·차상위(686), 독거노인(1,967), 장애인(886), 한부모(5), 현장신청 등(460)

추진부서 구조구급과장 최기정, 생활안전팀장 한만조, 담당자 최강준

8) 재난 피해도민 회복을 위한 신속 심리지원단 운영

재난발생 시 피해 도민과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신속한 심리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심리안정 신속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소방 소속 심리상담사 14명과 이동상담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상황발생 시 즉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2020년 구례군 호우피해 주민 129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체크, 수해복구 등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광양 주택매몰사고, 여수 다수사상자 사고, 나주·광양·여수 대형공장 화재 현장에서 총 5회 이상 피해도민과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심리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시간 소요되는 대형재난현장 지원을 위해 추가로 이동급식 장비를 도입하여 보다 빠른 심신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2021년 심리지원단 활동실적 】

일 자	지원현장	인원(명)	주요업무
7. 6.	광양 주택매몰사고	112	피해주민(직원) 심리지원
7. 22.	나주 공장화재	68	피해주민(직원) 심리지원
9. 27.	여수 다수사상자 사건	24	피해주민(직원) 심리지원
11. 29.	광양 목재 공장화재	103	피해주민(직원) 심리지원
12. 13.	여수 화학공장 폭발화재	396	피해주민(직원) 심리지원

추진부서 **소방행정과장 이정현, 안전보건팀장 조양현, 담당자 박성오**

나. 육상재난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1) 재난현장 실시간 지휘·조정·통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119종합상황실은 2021년 1월 18일 전남소방본부 장흥 신청사 개청에 따른 사업비 총 80억(국비, 소방안전교부세)을 투입 119신고·접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도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내 주요 재난 신고·접수 즉시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현장에 전파하고 출동대와의 유·무선 교신 및 재난현장 실시간 영상자료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상황판단 및 현장에 대한 지휘·조정·통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119종합상황실의 119신고·접수 처리건수는 총 596,328건(일평균 1,634건)으로, 2018년 535,692건(일평균 1,468건) 대비 60,636건(11.3%)이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관련 신고가 311,956건(5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접속·무응답이 131,121건(22.0%), 민원안내 및 문의 121,757건(20.4%), 오인신고 등 기타 27,863건(4.7%), 타기관 이첩 3,631건(0.6%) 순이었다.

【 119신고·접수 처리실적 】

(단위 : 명)

구분	계	출동				비출동			
		화재	구조	구급	기타	안내	타기관 이첩	오접속 무응답	기타
2021	596,328	25,043	47,850	126,620	112,443	121,757	3,631	131,121	27,863
2020	576,460	19,735	38,732	115,799	112,609	87,559	4,290	174,748	22,988
2019	552,094	25,299	38,527	120,623	79,222	89,716	4,718	166,593	27,396
2018	535,692	25,149	33,831	119,264	71,380	92,304	5,800	142,319	45,645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이송 외에도 2012년 6월 22일부터 기존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업무를 이관받아 의료지도의사, 구급상황 요원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구급대에 대한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 및 실시간 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도 구급상황관리 처리건수는 총 40,541건(일평균 111건)으로 2018년 37,509건(일평균 103건) 대비 3,032건(8.1%)이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응급처치 지도가 21,250건(5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의원·약국안내 11,626건(28.7%), 의료지도 5,065건(12.5%), 질병상담 2,529건(6.2%), 기타 71건(0.2%) 순 이었다.

【 구급상황관리 운영실적 】

(단위 : 명)

구분	계	질병상담	응급지도	의료지도	병의원안내	기 타
2021	40,541	2,529	21,250	5,065	11,626	71
2020	34,241	1,707	19,368	3,211	9,907	48
2019	38,988	1,838	21,296	4,414	11,417	23
2018	37,509	2,023	17,565	4,583	13,331	7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상담업무를 병행하여 2020년 525건, 2021년 851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백신 보관온도 일탈 폐기사례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 도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과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89건 1,000여명 투여분에 대한 폐기사고를 방지했다.

이로 인해 관련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관·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백신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전 국민 접종목표 달성 및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 코로나19 백신 폐기방지 공동 대응 흐름도 】



추진부서 119종합상황실장 김용호, 상황총괄팀장 안철수, 담당자 김성진

2) 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강화

전남소방 119종합상황실은 22개 시군의 모든 재난에 빈틈없는 신고접수와 상황관제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신 ICT(정보통신기술)을 적극 반영한 소방전용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기능개선을 통한 지휘통제 및 상황처리 등 현장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119종합상황실과 정보통신실의 전산시스템은 365일 24시간 무장애·무중단 운영을 위해 주요 서버는 이중화하고, 119신고 회선 등 통신망은 이원화로 구축되었고,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및 UPS(무정전 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모든 시스템은 유지 관리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육상재난의 콘트롤타워 역할에 핵심 시설인 119종합상황실 운영시스템 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고 있다.

【 소방전용 정보시스템 운영현황(2021.12.31. 기준) 】

구 분 (15개 시스템)	장비 수량 (70종 5,601점)		주요기능	도입년월	비 고
긴급구조표준	24	1,075	119신고접수 프로그램	2007.01	
소방인사	3	18	소방인사 관리	2009.02	
네트워크, 무선	5	706	재난현장 무선통신	2013.07	
119전화	11	2,381	교환기, 전화기	2012.04	
영상회의	5	152	재난상황 판단회의	2013.07	
비상발령	2	17	재난발생 비상소집	2015.01	
재난현장영상전송	4	633	실시간 영상정보 공유	2016.02	
정보보호	3	113	소방시스템 보호	2016.06	
위성통신(ESC)	1	27	재난현장 비상통신 운영	2011.11	
긴급신고전화	2	7	재난 공동대응	2016.02	
모바일 통합정보	2	2	소방조직도 공유	2019.06	
출동지령 영상표출	2	381	출동내용 실시간 영상표출	2020.12	전국 최초
통합홈페이지	2	24	도민 일일상황 정보공유	2020.12	
행정지원	2	44	방문자 청사안내	2020.12	
방송음향, CCTV	2	21	재난상황 청내 안내	2020.12	

현재의 119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 청사 이전 신축을 계기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한 최적의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공간표준화(면적, 시설)를 적용하여, 1층에는 종합상황실, 실장실,

총괄사무실, 대기실, 휴게실, 작전회의실로 구성했고, 2층은 영상전략회의실, 정보통신실, 유지보수실로 구성되어 명실공히 전남소방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내부시설 요인으로 최신 공조(온도, 습도, 공기청정)시스템과 인제 공학적 인테리어 시공으로 24시간 2교대(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로 매 순간 긴급하게 처리되는 재난신고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도 완화를 위한 쾌적하고 효율적인 상황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 전남소방 119종합상황실 공간표준화 구축 현황 】

구 분	면적	인력	접수대	표준설계(안)		기타
				공간구성	인테리어	
전 국 평 균 (3급지)	556㎡	32명	20대	단순 장방향	기본 구성	강원,충북, 충남,전북, 전남,경북,경남
전 남 소 방	1,230㎡	29명	30대	장방향 편심코어 확장형 (권역별 통합형 배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시설 마감재 및 색상 반영	1급지 기준시설

※ 참고자료: 119종합상황실 공간표준화를 위한 연구결과(2020.12.22.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소방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을 계기로 모든 재난 활동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 파악, 신속한 전달 등 총괄지휘부 운영을 뒷받침하여 육상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추진부서 **119종합상황실장 김용호, 정보통신팀장 장상채, 담당자 김경만**

다. 섬 지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우리 도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도서가 273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섬 지역 특성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초기 소방력의 신속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어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섬 지역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소방서(완도, 신안, 진도) 및 안전센터, 지역대를 추가 설치하여 신속한 출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소방차 배치, 초기 진압장비(동력소방펌프, 미분무소화설비, 비상소화장치) 등을 지속 배치하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골목길 소화기함(208개소) 설치 및 신속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다목적 펌프차 1대를 추가 배치하여 섬 지역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방력이 없는 섬(40인 미만 141개소)의 경우 화재발생 시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도내 선박회사와 응원협정(씨월드고속훼리, ㈜한일고속)체결 및 민간자원(굴삭기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섬 지역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원이송을 위하여 하늘로는 소방헬기 2대 및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헬기(일명, "닥터헬기", 목포한국병원 배치)를 활용하고, 바다로는 민간선박을 활용한 119 나르미선 127척을 지정·운영하여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현장대응팀장 문정식, 담당자 박준화**

라. 골든타임 확보 및 출동태세 확립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환자이송 등 도민 생명 보호 및 재산피해 경감에 노력하고 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화재(2017.12.21.) 이후 골든타임 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과거 최성기 5분 이론(목조건물 중심)에서 최근 내화구조 건물 증가에 따른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화재현장 도착 목표시간 7분을 '황금시간(Golden Time)'이라고 보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도는 진입로가 협소한 산간지역 및 소방력 배치가 어려운 섬지역 등이 많아 어려움이 있으며 골든타임 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평균 출동거리이다. 전남도 평균 화재출동 거리는 4.83km로 전국 평균 2.5km와 약 1.93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소방관서(안전센터, 지역대) 신설 및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 시스템 설치로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출동 인프라를 구축했다. 최근 5년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은 6%(53.2%➤59.2%) 향상하였으며, 도민 의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분기별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출동로 확보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모세의 기적'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추진부서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현장대응팀장 문정식, 담당자 홍성환

4-3. 감염병 예방 및 특수사고 대응력 향상

가. 감염병 위기대응 지원본부 운영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전남소방은 2020년 2월에 '감염병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했다. 소방본부장을 지원본부장으로 하여 총 4개반(총괄대응반, 상황관리반, 운영지원반, 언론홍보반)에 반원 72명이 편성되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소방은 도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해외입국자 이송, 예방접종센터(23개소) 부족 의료인력(간호사) 지원 등을 실시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3,762명, 백신 이상반응 환자 1,546명, 해외입국자 472명을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였고, 타지역 대구 및 수도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도 총 14회에 걸쳐 구급대 76개대를 지원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모든 소방서에 '감염병 전담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3월부터 기간제 인력 112명을 채용하여 구급이송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음압구급대 4개대를 추가 보강하여 도내 권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감염관리실 41개소 운영을 통해 구급대원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다수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능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고 방역대응 변화에 맞춰 핵심기능이 유지되도록 중점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소방은 도민의 소중한 일상회복과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구조구급과장 최기정, 구조팀장 박보영, 담당자 이대명

나. 특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1) 특수사고 대응 전담 구조대 운영

가) 특수재난대응 전담부서 119특수대응단 출범

우리 도에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영광 원자력발전소 등 유해물질 누출 시설이 위치하여 대형 재난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복잡·대형화되는 재난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특수구조대와 항공대를 통합하고 현장지원팀을 신설하여 2021년 7월 1일부로 119특수대응단이 출범 운영되고 있다.

119특수대응단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붕괴사고 등 특수사고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구조장비를 갖추고(소방드론 등 247종 2,254점) 365일 24시간 상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1월 총 사업비 230억원(국비 115억원, 도비 115억원)을 투자하여 재난대응 환경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중형헬기를 도입했다. 전남 전역을 1시간 이내 대응할 수 있어, 대형·특수재난 현장 신속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9특수대응단은 실전 중심의 교육·훈련과 첨단 구조장비 투입 및 활용 능력을 지속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라남도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 119항공대 운항실적 】

연 도	계	구조구급	산불진화	교육훈련	정비	기타
총계	946	459	48	219	215	5
2021	253	117	10	43	83	0
2020	196	79	7	64	46	0
2019	263	145	20	43	50	0
2018	234	118	11	69	36	5

추진부서 특수대응단장 문삼호, 운영지원과장 이영술, 담당자 김영철

나) 산악119구조대 / 화학119구조대

코로나19 및 복잡한 현대사회 구조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야외활동이 많이 증가되었다. 산행을 하면서 부상 또는 실족 등에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1997년부터 지리산 남부지역과 구례인근 산악지역 일대의 산악·일반구조 활동을 담당하는 산악119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산악119구조대에서는 지리산 등에 2,691회 출동하여 738명을 구조하였고, 산악사고 시 실종자 탐색을 위한 핸들러(3명)와 119구조견(3두)를 배치 운영하여 147건의 출동으로 11명을 구조했다.

또한 전국119구조견 경진대회에서 개인전 3위(2020년, 2021년)를 하는 등 119구조견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광주시 철거건물 붕괴(2021년) 및 아파트 공사장 건물붕괴사고(2022년) 현장에 배치되어 활동하는 등 타 시·도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 산악119구조대 운영실적 】

연 도	출동 건수	구조인원(명)				출동건수(견)		구조인원(견)		
		계	사망	부상	기타	건	회	계	사망	생존
총계	2,691	738	4	67	667	147	199	11	5	6
2021	656	80	2	20	58	30	43	2	2	
2020	643	369	1	12	356	39	48	2	1	1
2019	769	160	1	15	144	38	53	3		3
2018	623	129		20	109	40	55	4	2	2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밀집, 대량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화재 폭발 유독가스 누출 등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 위험이 상존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98년에 화학119구조대를 발대했다.

화학119구조대는 대원 25명과 고성능화학차, 무인방수탑차, 굴절사다리차 등 특수소방차량과 내전복 세트, 복합가스측정기 등 화학구조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에 발생한 사고에 출동하여 지난 4년간 883건의 현장대응활동을 했다.

【 화학119구조대 운영실적 】

연 도	출동건수(계)	화재	구 조	안전
총계	883	332	284	267
2021	251	111	74	66
2020	235	78	67	90
2019	186	66	62	58
2018	211	77	81	53

추진부서 구조구급과장 최기정, 구조팀장 신향식, 담당자 임형문

2)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시스템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긴급구조)에 근거하여 화재, 유해화학물질누출, 붕괴사고 등 대형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 대응계획 운용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긴급구조지원기관 공조체제 강화 등 재난현장의 총괄조정·지휘통제기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중심의 대면훈련이 아닌 비대면 중심의 소방본부, 소방서 자체훈련을 실시하여 도상훈련 165회, 불시출동훈련 57회, 긴급구조지원기관 비상연락망 점검훈련 165회 등 총387회의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최근 재난양상은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을 포함해 건축물 붕괴, 위험물 폭발 등 광범위·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시대적 구조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구조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대응기술 및 체력 향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구조대원 구조기술 능력향상을 위한 중앙소방학교, 해군 해난구조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전문역량강화, 현장에 강한 구조대원 양성 등 자발적 개선 유도 방안으로 구조대원 안전·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한 구조공작차 및 특수사고 대응 구조장비 등 200종 10,449점의 119구조장비를 보강하여 도내 전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재난사고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전국 소방관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3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승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대응·복구 등 단계별 효율적 활동을 전개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된 소방기술 개발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위탁교육 추진 실적 】

연 도	총계		수난		산악		특수		기타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총계	122	292	26	56	32	124	29	46	35	66
2021	39	138	6	27	12	54	6	20	15	37
2020	14	46	3	4	4	34	1	1	6	7
2019	38	64	10	17	8	20	12	14	8	13
2018	31	44	7	8	8	16	10	11	6	9

【 구조장비 교체보강 현황 】

연 도	계	일반구조	산악구조	수난구조	화생방	절단·파괴	중량물	보호·보조
2021	2,517	254	1105	331	235	31	64	497
2020	2,636	349	1045	332	4	145	34	727
2019	2,871	591	916	257	3	59	12	1033
2018	2,425	438	1152	361	37	81	32	324

추진부서 구조구급과장 최기정, 구조팀장 신향식, 담당자 이은철

5.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5-1.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운영

2020년 12월 9일「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자치경찰 주요 사무는 주민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등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전라남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전라남도 자치경찰 준비단(TF)이 2021년 1월 25일 출범하였다.

자치경찰준비단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겸임하고, 팀장 1명, 담당자 1명이 근무하고 주요업무로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대비 관련 조례 제·개정 등 행정지원,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치경찰위원 구성 및 위촉, 자치경찰제 운영계획 수립,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시군 설명회 등을 추진하였다.

먼저, 전라남도는 2021년 5월 1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을 위한「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입법예고(2021.2.25.~3.9),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수정가결(2021.3.16.), 본회의 의결(2021.4.30.) 후 시행되었다.(2021.5.20.)

당초 제출(안)	수정의결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미리 전라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미리 전라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13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중략)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중략)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10일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구성되어 2과 5팀, 총 22명(위원장, 사무국장, 일반직 12명, 경찰 8)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경찰공무원은 정원 3명, 비별도 5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은 전라남도지사 1명, 전라남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전라남도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추천위원회는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협의회, 광주지방법원장, 경찰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과 전남도청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 3월 24일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5명)을 위촉하고, 총 3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를 통해 위원 2명(남성 1, 여성1)을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하였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선정을 위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2021.4.12.) 검증도 실시하였다.

전라남도지사는 조만형 동신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라남도의회는 서채수 전남경우회 사무처장과 김용근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전라남도교육감은 강행옥 변호사를, 위원추천위원회는 유숙영 순천여성상담센터장과 백혜웅 전 총경을, 국가경찰위원회는 김문호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추천하였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남성 6명, 여성 1명, 출신은 법조계 1명, 학계 3명, 전직 경찰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2021년 4월 28일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도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 7명은 전라남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치경찰위원에 여성위원이 1명뿐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다며 추천 위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임종기 도의원은 2021년 5월 21일 제352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는 위원추천은 무효이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의 건을 사람마다 각각의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년 5월 25일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개최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조만형 교수를,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6명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의 임기는 3년(2021.5.25.~2024.5.24.)으로 연임은 불가하고, 위원장은 정무직 2급 상당, 상임위원은 정무직 3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2021년 5월 26일에는 첫 회의를 통해 백혜웅 상임위원을 투표로 선정하여 6월 1일 전라남도지사가 임명하였고, 2022년 1월 25일 강행옥 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2022년 4월 7일 진혜경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새롭게 자치경찰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 위원추천위원회 위촉(2021. 3. 24.) 】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2021.5. 25.) 】

추진부서 ○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영철, 운영팀장 박상은, 담당자 이상철**

나.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1) 운영 개요 및 실적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 시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회의는 총 26회(정기회 10회, 임시회 16회) 개최되었고, 제출된 안건은 총 146건(심의・의결안 65건, 보고안건 81건)이었다. 의결안건이 처리된 결과를 보면 원안가결이 58건, 수정가결 6건, 보류 1건이었으며, 보고안건 81건이 원안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안처리 결과 (2021. 5.~2022. 3.) 】

(단위 : 건)

회의개최	접수	가 결		부 결	보 류	보고 안건
		원 안	수 정			
26회	146	58	6	-	1	81

2) 주요 처리 안건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규정」,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등 9개 규정을 제정・의결하였다. 2021년 6월 30일에는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1호 시책으로 선정(2하였으며, 경찰관 미배치 유인섬 CCTV 설치 확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 구축계획 등 전남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의결하였다.



【 자치경찰위원회 1차 회의(2021.5.26.) 】


【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

추진부서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영철, 운영팀장 박상은, 담당자 김자영

다.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

1)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운영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신규시책 발굴 등 주요 자치경찰제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돼 있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단장은 순천대학교 정순관 교수가 2021년 10월부터 맡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로 3개 분과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2021년 10월 27일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 발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으며, 2022년 3월 교통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분과회의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정책자문단 토론회(2021. 10. 27.) 】



【정책자문단 교통분과 회의(2022. 3. 29.)】

2) 주민 및 시장·군수 간담회

자치경찰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의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곡성군(2021.8.30.)을 시작으로 목포시, 담양군 등 5개 시·군을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고흥군 등 9개 시·군의 시장·군수 면담을 통해 ‘무인방범 시설 설치 등 치안 인프라 확대’, ‘시·군,경찰서 간 자치경찰사무 협력 시스템 구축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였다.



【 곡성군 주민 간담회(2021. 8. 30.) 】



【 목포시 주민 간담회(2021. 9. 30.) 】

추진부서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영철, 운영팀장 박상은, 담당자 김자영

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체계 구축

1) 인사규칙 제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경정이하의 인사운영과 경감이하의 고충심사·처리, 지구대·파출소장 보직 시 의견 제시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2021. 7. 19.)하였다.

【 임용권한 체계 】

<table>
<tr><th>구분</th><th>경정</th><th>경감</th><th>경위</th><th>경사</th><th>경장</th><th>순경</th></tr>
<tr><td>신규채용</td><td rowspan="2">대통령</td><td colspan="5">경찰청장</td></tr>
<tr><td>승진</td><td colspan="2">전라남도지사</td><td colspan="2">자치경찰위원회</td><td></td></tr>
<tr><td>전보</td><td colspan="2">자치경찰위원회
(경정, 경감 과장급)</td><td colspan="4">충원(1:1) 조건으로 전남경찰청장에게
재위임 (무보직 경감 포함)</td></tr>
<tr><td>파견</td><td>충원
조건
재위임</td><td colspan="5" rowspan="3">전남경찰청장에게 재위임</td></tr>
<tr><td>휴·복직</td></tr>
<tr><td>직위해제</td></tr>
<tr><td>중징계</td><td>경찰청장</td><td colspan="5" rowspan="2">경찰청장</td></tr>
<tr><td>면직</td><td>대통령</td></tr>
</table>

2) 인사권 행사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지사는 경감 34명, 경위 26명을 승진임용하였으며,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사 5명, 경장 10명을 승진임용하였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전남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전보 인사를 2021년 하반기(2021. 7. 29.) 5명 및 2022년 상반기(2022. 2. 11.) 11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또한, 지구대・파출소장 보직 관련 2021년 하반기(2021. 7. 29.) 55명 및 2022년 상반기(2022. 2. 15.) 103명에 대해 의견제시권을 행사하였다.


【 승진임용식 (2021. 6. 30.) 】



【 승진임용식 (2021. 6. 30.) 】

3)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효적 지휘・감독권 담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를 실시하여 경찰청에 통보하였으며(2021. 11.), 초창기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시책홍보 및 인식도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22년도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 수행 평가계획」은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여 전남형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경찰서장 자치경찰 사무 수행 평가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5개	8개		100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	소계	4개	65	정성 평가
	주민과 소통 계획 수립 및 활동실적		15	
	기관·단체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		25	
	지역특성이 반영된 시책 발굴		10	
	주요 성과 및 우수사례		15	
자치경찰제 및 위원회 정책 홍보	소계	1개	20	정량 평가
	방송·언론보도		20	
자치경찰 교육훈련	소계	1개	5	
	자치경찰 상시 교육훈련		5	
자치경찰 사기진작	소계	1개	5	
	자치경찰 사기진작		5	
자치경찰 인력확보	소계	1개	5	
	자치경찰 인력 확보율		5	

4) 전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2021년 12월 경찰청장이 협의 요청한 3명에 대해 자치경찰사무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한 결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희망한 사람이 전남경찰청장으로 임용되었다.

5)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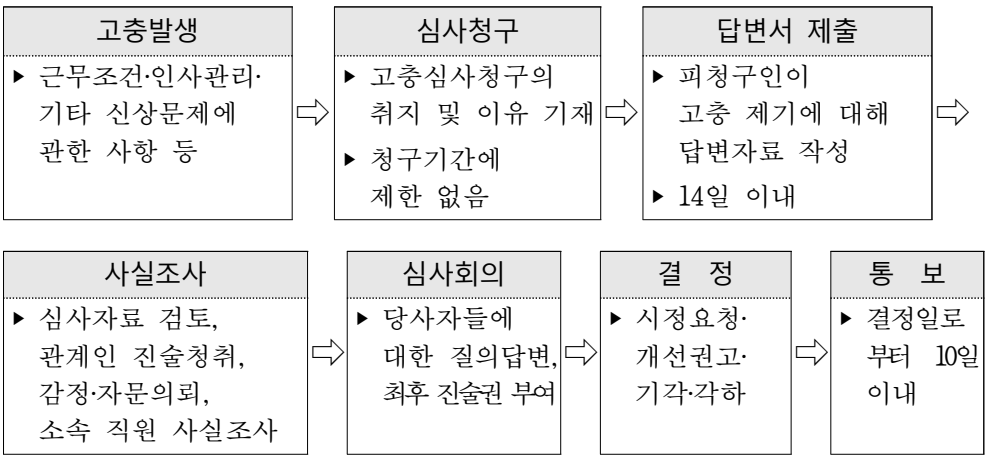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 관련 승진심사위원회가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입직·성별·기능별 고려하여 전남경찰청

및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위원 2명을 각각 추천(2022. 1.)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에 기여했다.

6)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이나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타인의 일탈행위 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 고충심사 흐름도 】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 ▸ 구 성 : 9명(위원장, 위원<민간인 4, 공무원 4>)
- ▸ 회 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
- ▸ 의 결 : 지정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 ▸ 결 정 : 시정요청,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기각, 각하*

* 각하 : ①공무원이 아닌 사람 청구, ②사안 해소, ③소청심사 결정되어 청구 이익이 없는 경우

- ▸ 결정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추진부서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영철, 인사관리팀장 박호, 담당자 윤희석

마.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예산)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복지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경찰공무원은 민원 업무가 많은 자치경찰사무 보다 국가경찰 사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의 차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여「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준을 전남도청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국외연수 등 다양한 복지항목을 전라남도,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전남경찰청 간 실무협의를 통해 검토한 후 전남도청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였다.

타 시·도 현황 조사 및 전남도청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2022년에는 복지포인트 예산 4억 7백만원을 반영하고 건강검진비, 국외연수 등은 타 시·도 사례, 전라남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2년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

- 대　　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819명(경찰809, 일반10)
- 지원내용 : 복지포인트 50만원 지급
- 편성예산 : 407백만원
- 지급방법 : 후생복지 지원 예산 재배정(위원회→전남경찰청)

또한 2021년 12월 30일 한근석 전라남도의회 의원 발의로「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가 개정되어 후생복지 지원 대상이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과 공무직까지

확대되어 도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치안행정을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까지 후생복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확보와 함께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료, 국외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및 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도민을 위한 치안행정 서비스 향상과 전남형 자치경찰제의 정착에 노력할 것이다.

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포상

1) 직무능력 향상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교육)에 따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780여명의 전남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대상, ‘자치경찰 마인드 변화’를 주제로 비대면 영상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양축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와 협력 증진을 위해 전남인재개발원과 연계하여 신규자교육과 중견리더 양성과정 등 장기 교육과정에 ‘자치경찰제의 이해’ 과목을 신설하였다.

전남도청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의 개념, 도입취지 등의 내용으로 전문가를 초청, 2021년에는 총 4회, 7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 발판을 마련하였다.

2022년에는 전남경찰청 경찰교육센터 실무교육과정에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자치경찰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현장경찰 공무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각 경찰서 별 우수시책을 공유, 효과적인 자치경찰 사무 추진 방안 등 다양한 사례위주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치안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자치경찰제 유공자 포상

자치경찰제 유공자 포상을 위해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포상 규정」을 2021년 7월 19일 제정하였다.

포상 대상은 기관 및 단체장, 위원회 위원,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자치경찰 유공자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하도록 하였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위원은 사무국 과장 및 팀장, 간사는 인사관리팀장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2021년에는 경찰의 날, 연말 등 정기포상과 함께 수시로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공헌한 도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242명(표창장 170명, 감사장 72명)에게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포상하였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발전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하여 전남형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포상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영철, 인사관리팀장 박호, 담당자 송세현

사. 자치경찰사무 재원 확보 및 집행 시스템 구축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국 전면시행에 따라 도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전남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총 99억원(국비 89, 도비 10)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예산 현황을 보면, 국비 예산은 아동안전지킴이, 무인단속장비 운영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32개 사업 81억원, 제도안착을 위한 초기 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7억원,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 CCTV 설치 특별교부세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다.

도비 예산은 자치경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회적 약자 신변보호 CCTV 설치 등 자체 치안 시책 추진, 기본경비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치안 관련 8개 사업 62억원(교통 발광형 표지판 설치,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등) 예산을 도 실국에 편성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였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전남경찰청(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재배정) 하였다.

이를 위해 담당 경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재정보증가입, 금고 약정 체결 등 지방회계제도를 완비하였고, 지방재정관리 정보시스템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체계 구축을 완료하였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영철, 예산회계T/F팀장 박하정, 담당자 홍성일**

5-2.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사무 정책 시행

가.「어르신」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

전라남도 2022년 3월 현재 도민 183만여 명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45만여 명으로 道 인구의 24.5%를 차지 전국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어르신 1인 가구와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의 범죄환경 노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5월 출범과 함께 1호 추진시책으로 어르신 안전확보 대책을 선정하였다.

어르신 대상 보이스 피싱, 학대 등 범죄피해 보호와 실종, 고독사 등 사건 사고 예방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전라남도경찰청과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였다.

맞춤형 면담 등 찾아가는 현장 활동을 통해 고독사·보이스피싱 등 어르신 치안 문제 586건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였고, 복지서비스 연계, 생활환경 개선, 상담 등 710건의 문제를 해결했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교부, 치매안심센터 상담·지원 등 163건의 예방조치를 시행하였고, 지문사전등록 817건, 실종경보 문자 활용 38건 등으로 실종 시 조기 발견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업하여 학대우려 어르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498회 실시하였으며, 의료지원, 보호시설 연계, 상담 등 360건의 학대피해 어르신 사후 지원도 추진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치안환경 개선, 범죄피해 예방을 지속 추진하여 어르신 삶의 질과 치안안전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송희, 치안기획팀장 서명준, 담당자 최원준

나.「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계획 추진

교통안전 분야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여 시작되었다.

2018년도 전라남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335명으로 전국 3,781명 대비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전국에서 13번째로 높은 편이었다.

이에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 시・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업하여 전남지역 도시부 면적 약 340㎢의 제한속도를 50, 30㎞/h로 하향 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377대를 확충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T map, 카카오 내비 등 전국 내비게이션 업체・현대자동차 그룹과 협업하여 새로 변경된 제한속도·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정보 2,222건을 기업에 제공하여 교통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도민 편의를 제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제한속도·일방통행·통행금지 등 안전표지를 가려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였다.

전라남도경찰청, 교육청, 각 시·군, TBN 교통방송 등 협업하여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영상 등을 제작, TV, 라디오, 네이버, 유튜브, 마을방송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였다.

2021년에는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인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단속에 대해 39,960건, 캠코더 등 무인영상단속 870,062건, 코로나19 환경에서 음주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비호흡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5,478건 등 총 915,500건을 단속하였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393명에서 2018년 335명, 2019년 295명, 2020년 281명, 2021년 25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해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송희, 치안기획팀장 서명준, 담당자 김철주

다. 섬 안전 치안정책 추진

섬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이미지 쇄신을 위해 치안 사각지대인 섬 지역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특히, 모든 유인(有人) 섬[5]에 경찰관을 배치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예방 CCTV 신규 설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2022년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유인(有人) 섬 선착장에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2021.12.22.)하였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섬 지역 범죄 예방 및 신속 대응 계획을 수립(2022.1.25.),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22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참여하여, 고흥군 상화도 등 3개 섬 주민·순천대학교·대한항공·전라남도경찰청이 함께 7차에 걸친 문제해결 리빙랩회의(2021.11.18.~2022.1.12.)도 개최하였다.

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안군 신의도 주민(염전주 등),

5) 전남 유인(有人) 섬 272개소 중 경찰관이 배치된 섬은 59개소(21.8%)에 불과

신의면사무소, 목포경찰서, 신의파출소 등이 참여하는 치안 간담회(2022.3.24, 신안군 신의도)를 개최하였다.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라남도 염전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연구용역」(도민행복소통실), 「갯벌보전관리연구용역」(해운항만과) 등 연구용역에 '섬 지역 주민 인권침해 예방 · 치안 확보' 과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정기항로 선착장 범죄예방 CCTV 설치 · 드론을 활용한 섬 지역 범죄 예방 활동 확대 · 지속적인 섬 주민과의 간담회 추진 · 섬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섬 지역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송희, 치안기획팀장 서명준, 담당자 박하은**

라. 전남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민참여 정책 개발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도민 대상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다.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1개월간) 공모기간 동안 총 34건을 접수하였고, 최종 7건을 선정하였다.

최종 7건 중 최우수로 선정된 '즉각 분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 제안은 「즉각분리제도」 시행(2021.3.30.)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해야 하나 일선 현장에서는 보호장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순위	제 안 명	등급
1	즉각분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 ⇒ 현재 경찰서에서 운영중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일시위탁가정 선정	최우수
2	보행신호 측면보조등 설치 ⇒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의 시인성이 부족하여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위험성이 높아 우회전에 보행신호 정보를 제공	우수
3	마을앞 스타패스(Star Path. 야광도로) 시스템 확충 ⇒ 마을앞에 LED전광판(표지판), 활주로형 LED표지병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4	교차로 신호등에 교차로명 표기 ⇒ 교차로 내 또는 인근에 교통사고 발생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없어 경찰관·보험사 직원의 출동 지연, 왕복 4차선 이상 교차로 내 파랑바탕에 흰 글자로 교차로명 표기	
5	사회적약자 보호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 사회적 약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보호대상자 정보 입력 후 각 기관 정보 공유로 원스탑 보호 체제 구축	장려
6	범죄없는 행복한 마을 ⇒ 민관경간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고, 문화예술 활동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등 근원적인 범죄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차량의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증’ 발글 절차 개선 ⇒ 경찰서에서 차량의 ‘초과적재허가증’을 발급하므로 도서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초과적재 운송할 경우 허가증 발급불가, 파출소에서 발급 필요	

앞으로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우수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꾸준히 활용하고, 도민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매년 정책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송희, 치안기획팀장 서명준, 담당자 김선미**

5-3. 자치경찰 사무 연계와 협력으로 도민안전 확보

가. 도-시군-공공기관 연계 협력 강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가-자치경찰사무 간 협력조정,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7월 9일 이후 총 4회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치안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안전대책,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구역 설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방안 등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실무협의회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

다만, 광역(도) 단위에 비해 시·군 단위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2022년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지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군 단위까지 실무협의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

회 차	개최일	주요 안건
1	2021. 7. 9.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
2	2021. 8. 24.	범죄예방 관리구역 CPTED 사업 등 14개 과제
3	2021. 10. 28.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구역 설치 등 4개 과제
4	2022. 3. 30.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방안 등 6개 과제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송희, 치안협력팀장 기은택, 담당자 민태홍

나. 자치경찰제 홍보 및 도민 소통 활성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나, 도민과 치안현장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새로운 제도의 시작을 알리고 위원회의 존재감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 치안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2021년 8월 26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21개 경찰서와 소속 지구대・파출소 치안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현장의 의견을 주요 치안정책 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련분야의 도민으로 구성한 자치경찰 파트너스를 조직하여 자치경찰제 소개 및 정책을 홍보하고 지역치안 의견제시 등 양방향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 치안현장 간담회 】



【 자치경찰 파트너스 발대식 】

지역 언론의 자치경찰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자 광주・전남기자협회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브랜드 이미지(BI) 개발과 홍보UCC 등 도민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홍보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송희, 치안협력팀장 기은택, 담당자 김성재**

5-4. 범죄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경찰활동 내실화

가.「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구축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보호에 대한 지자체-경찰간 통합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유관기관과 간담회(2021.10.21.~ 12.17.)를 실시하여 도민과 현장의 의견을 들어「목포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2년 내 전남경찰청을 통하여 全 시·군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통합지원 연계망」은 우리도 내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기관을 각 시군 또는 권역별 등 지역단위로 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따라 체계화한 지도형식의 안내도이며, 시범 운영 후 각 시·군청, 경찰서,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 목포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 】



【 통합지원 연계망 안내서 】

이번 「통합지원 연계망」이 전라남도 全 시・군에서 활용된다면 각 지역 유관기관 파악이 용이해져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관기관[6]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송희, 인권감사팀장 정유미, 담당자 임화섭

6) 여성긴급전화 1366,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등 24개 기관·단체

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경찰 제도·관행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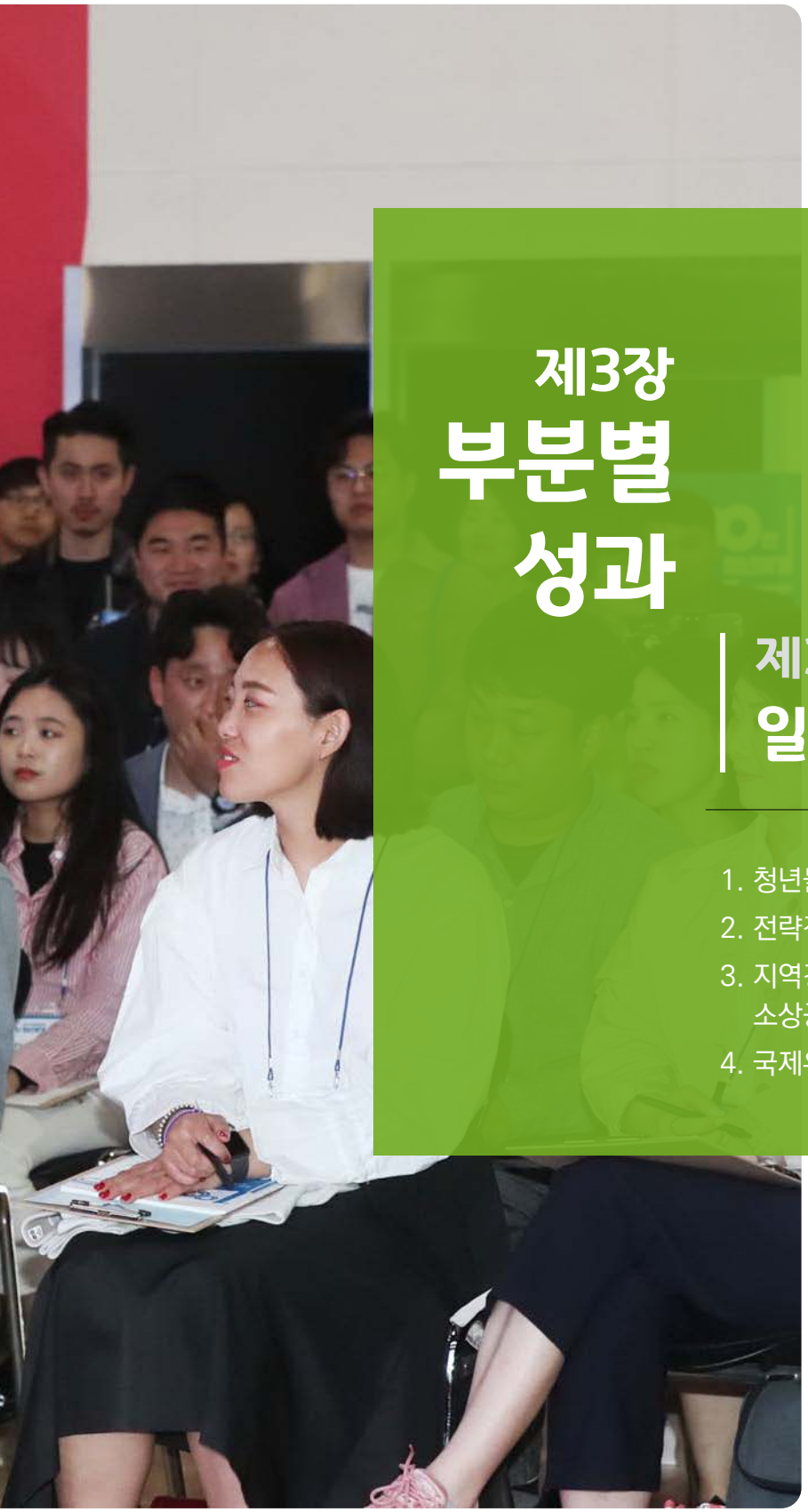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도민 인권침해 예방에서 더 나아가 인권향상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전문화된 인권·청렴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인권·청렴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토론·체험식 참여형 교육, 지속 가능한 효과성 있는 교육을 목표로 “2022년 하반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권·청렴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인권향상 교육, 우리도內 치안현장을 방문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관행·제도를 발굴·개선하는 찾아가는 현장 인권·청렴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전남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인권교육을 생활화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송희, 인권감사팀장 정유미, 담당자 임화섭


2019 전라남도
청년구직
활동수당



제3장 부분별 성과

제3절 일자리·통상

1.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2.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3. 지역경제 활력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4. 국제우호·협력강화 및 수출증대

제3절 일자리·통상

1.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창출

1-1. 일자리창출 지원체계 강화

가. 일자리창출 목표관리제 추진

전남도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과 일자리창출을 연계·관리하는 '일자리창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목표관리제는 도가 재정을 투입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일자리창출을 함께 이행하게 함으로써, 재정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업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일자리사업, 5억원 이상 재정사업, 출자출연기관 고유사업 등으로, 공공일자리의 고용현황 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자리창출 내역을 근로주체별(청년, 여성, 일반), 근무형태별(상용, 임시)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도는 지난 3년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7년 연속 일자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도는 2022년에도 일자리 목표를 12만 개로 설정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일자리 목표관리제 운영실적 】

(단위 :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105,000	112,581	119,169
실적	105,681	129,494	128,048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 최정운, 일자리정책팀장 송문정, 담당자 임지훈

나. 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 시행

전남도는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지원 사업'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도는 매년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서·패·현판과 함께 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운전자금 이자 지원과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 ⇨ 전라남도 지원 ⇨ 기업성장 ⇨ 일자리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일자리창출'이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란 기치 아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 최정운, 일자리정책팀장 송문정, 담당자 임지훈

다. 순천만잡월드 건립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키울 호남권 유일 진로체험관인 '순천만잡월드'가 2021년 10월 16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개관하였다.

순천만잡월드는 2016년 고용노동부의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31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486억 원을 투입해 전남도와 순천시가 협력하여 일궈낸 성과이다.

주요시설로는 28개 어린이체험관과 34개 청소년체험관이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호남권 유일의 진로체험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콘텐츠의 다양성은 물론 체계적인 교육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스토리텔링형으로 꾸며진 어린이체험관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놀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들을 미리 체험하며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관심과 주제로 꾸며진 청소년체험관은 청소년들이 진로 설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업 체험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비롯하여 기업 제휴와 국가기관으로의 승격 등을 통해 순천만잡월드가 대한민국 미래인재 발굴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 최정운, 일자리정책팀장 송문정, 담당자 임지훈**

1-2. 전남형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확대

가. 산학협력 취업패키지사업 추진

전남도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역량 교육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마친 졸업자 위주의 일자리 지원정책을 학교 안으로 확장하여, 교육과정 이수 후 지역기업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2016년 6개 대학, 6개 과정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9개 대학, 20개 과정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은 2016년 295명에서 2021년 92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호응을 받고 있다. 대학별 교육과정은 목포대학교 4개 과정(조선해양, 글로벌비지니스, 에너지·ICT, 청정에너지시스템), 순천대학교 2개 과정(청정바이오식품, 기능성 화학소재), 동신대학교 5개 과정(미래에너지, 글로벌관광, 건강복지사회, 천연물바이오식의약, 농산어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목포해양대 2개 과정(해양레저, 스마트 해양ICT), 순천제일대학교 2개 과정(안전설비, 웰니스산업), 청암대학교 2개 과정(보건의료서비스, 기업재난안전관리), 목포가톨릭대학교 1개 과정(휴먼서비스) 및 목포과학대 1개 과정(해양레저·디자인 양성), 도립대 1개 과정(글로컬 관광서비스)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20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4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과정 운영은 대학별로 2개 학과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30~50개 가족 기업과 협약 체결 후,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이수자가 가족 기업에 우선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대학교는 3~4학년, 전문대학은 1~2학년 위주로 40명 이상 참여가 가능하다.

대학에서는 산업체 필요인력 및 교과반영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 중심형 정규학점 또는 비학점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며, 참여 학생은 직전 학기 출석률이 80%이상이면 ‘희망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앞으로 2024년까지 취업인원 1,200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층을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는 '청년 고용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청년일자리팀장 나소영, 담당자 이동미

나. 선취업 후진학 과정 확대

전남도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관련 희망-실제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지역기업에 취업시킨 후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선취업 후진학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도와 3개 대학(목포대, 전남도립대, 전남대(여수캠퍼스)) 및 참여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하는 방식으로, 특히 조선해양·에너지·해양관광 세 분야의 기업과 공동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선발·고용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참여 학생들은 도와 기업에서 각각 대학등록금 50%, 25%를 지원받아, 주간에는 일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전공 관련 교육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2014년 목포대 조선시스템학과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목포대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를 개설하여 110명의 학생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등록금 일부를 도비로 확대 지원하여 기업과 학생 부담을 완화(기업 50%, 학생 50% → 도 50%, 기업 25%, 학생 25%)하였다. 또한, 2019년도에는 3개 대학 4개 학과(전남도립 대학교 스마트에너지융합학과, 전남대 여수캠퍼스 수산해양산업관광레저융합학과)로 확대 개설하여 총 541명의 학생을 지원하였다.

2022년도에는 학교별 선취업 후진학 과정 운영 평가를 통해 전공과 업무의 연계성을 높여 현장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과정 발굴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과 학교의 취업 연계형 공동 인력양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선취업·후진학과정 지원 실적 】

(단위 : 명)

구 분	계	2014~2018	2019	2020	2021	2022
학생 수	684	110	135	147	149	169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청년일자리팀장 나소영, 담당자 송민경

다.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는 기업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 실업 해결을 위해 구직자들이 면접컨설팅, 기업소개 및 탐방을 거쳐, 직접 버스를 타고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면접 후 취업할 수 있는 One-Stop 일자리 서비스이다.

전남도는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채용계획이 있는 2~3개의 구인기업을 선정하고 전남 소재 대학·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인력양성과정 및 각종 직업훈련 교육생(수료생) 등 20~30명의 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일자리희망버스는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3회를 운영하여 62개 기업에 131명이 취업했으며, 2022년에도 6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 최정운, 일자리정책팀장 송문정, 담당자 임지훈

라. 전남형 청년인턴제 개선 운영(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전남도는 청년들의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전남형 청년인턴제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만18세~39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전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청년 1,500, 기업 500)하는 사업이다.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인건비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체납기업 및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이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연차별 신청을 받고 있다.

2016년 처음으로 394명을 지원한 이후 2017년 687명, 2018년 730명, 2019년 1,120명, 2020명 1,054명, 2021명 1,120명 등 지난 6년 동안 5,105명을 지원하였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과 동시에 필요인력 채용을 돕고, 지역의 우수 인재가 장기적으로 근무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시군	지원인원	지 원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2016~2018	22개 시·군	1,811	7,800	3,900	3,900
2019~2020	22개 시·군	2,174	10,000	5,000	5,000
2021	20개 시·군	1,120	5,000	2,000	3,000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청년일자리팀장 나소영, 담당자 송민경

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가지 유형(프로젝트, 일반)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모든 유형을 고용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심사・선정하는 방식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프로젝트 사업은 기존대로, 일반사업은 전남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 사업추진 결과, 프로젝트 사업은 그린・디지털 뉴딜 인력매칭 프로그램 등 7개 사업으로 총 1,464명이 취・창업하였고, 일반사업은 10개 시・군, 19개 사업을 통해 23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022년에 전남도는 프로젝트 사업비로 전국 최대인 국비 34억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11억원을 더해 총 45억원을 지원하여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반 사업은 12개 시・군 20개 사업에 47억원을 지원하여 424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산업체의 훈련수요 조사를 통해 확보한 수요를 기반으로 재직자 능력향상 및 신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공동 훈련센터 및 파트너 훈련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1년에는 공동 훈련센터 4개소, 파트너 훈련기관 10개소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최종 2,881명(양성53명, 향상2,828명)의 훈련성과를 냈다. 2022년에는 2,536명(양성25명, 향상2,511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일자리창출팀장 김초옥, 담당자 조혜민

바.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 추진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은 2017년부터 전남도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군이 직접 또는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일자리 사업을 기획·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역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2021년에는 블루이코노미, 에너지밸리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 19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한 결과 7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022년에는 블루이코노미 관광산업, 탄소중립 기술융합형 인력양성 사업 등 13개 시·군, 17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맞고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 등 구인·구직 연결, 지역 특화형 창업 지원, 기업 시제품 개발 및 컨설팅 지원 등 사업이 이뤄진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일자리창출팀장 김초옥, 담당자 김중훈**

사.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6대 프로젝트 추진

전남도는 2021년부터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여 청년일자리 960개를 만들어 낼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6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조업이나 단순업무를 기반으로 한 노동력 중심의 일자리에서 나아가, 언택트, 에너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드론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6개 분야(콘텐츠기업 청년 일자리 리쇼어링 프로젝트, DNA+US 기반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에너지 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스마트제조+유망기업 2.0 프로젝트,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의 유망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 전남의 청년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타지역 청년 200여명이 전남도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청년일자리팀장 나소영, 담당자 이동미, 김양중

아.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2.0 추진

전남도는 2022년부터 기존 블루이코노미 6대 일자리의 분야를 전문화・구체화한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2.0'을 추진중이다. 총 7개 분야(신재생도제취업패키지사업,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청년툰(TOON)일자리사업,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전남 청년 창업지원, 청년 창업 후속지원,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로 구성된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2.0은 총사업비 210억 규모로 800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예정이다.

기존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전문화・구체화(예 : 에너지 관련 일자리 → 2차전지 관련 기업) 하여 일자리의 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참여 청년에게는 도제식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직무 적응을 돕는다.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지금,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탄생한 전남의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사업은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청년일자리팀장 나소영, 담당자 이동미, 김양중

자.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 수립·추진

1)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일자리종합센터는 구인기업・구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상담・알선을 통해 전남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조직한 일자리 전담 센터로 실장 1명, 직업상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 온・오프라인 잡매칭데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여 도내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체제를 형성하였다.

【 일자리센터 업무 실적 】

(단위 : 명, 개)

구 분	2019	2020	2021
상담, 알선	14,299	6,967	7,284
구직자	2,105	1,423	1,556
채용기업	1,707	1,202	1,215

2) 온오프라인 잡매칭데이 운영

“온오프라인 잡매칭데이(Job-Matching Day)” 는 기존의 행사성 위주의 대규모 박람회에서 벗어나, 시간대별 사전・현장 참가자를 조정하여, 예년 행사와 달리 번잡함 없이 차분한 가운에 소규모이지만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박람회이다.

전남도와 전남일자리종합센터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박람회로, 인력채용이 필요한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회(오프라인 7회, 온라인 6회)를 진행하여, 1,503개 참여기업에 632명이 취업하였고, 2022년에는 5회(오프라인 3회, 온라인 2회)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 최정운, 일자리정책팀장 송문정, 담당자 임지훈

차. 지역기반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1) 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원

전남도는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신규 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기술, 마케팅을 위해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순천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동신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등 7개 대학에서 운영한다.

전남도는 2007년부터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 1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운영성과에 따라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를 차등하여 각 대학에 매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원비는 입주업체의 기술개발·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 판로 및 마케팅·경영 컨설팅에 사용하였다.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과 보육센터 입주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최근 5년간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 】

연도	창업보육센터수	입주기업수	고용인원수	매출액(백만원)
2017	7	107	311	28,717
2018	7	103	128	33,822
2019	7	100	107	31,677
2020	7	98	171	28,340
2021	7	97	229	34,564

2) 대학 벤처동아리 육성 및 경진대회 개최

전남도는 도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9개 대학 30개 동아리에 1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벤처동아리 지원을 통해 약 900명의 대학생이 사업화 아이템 발굴, 시제품 제작 등 예비창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창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창업정신을 고양하여 청년창업가의 꿈을 키우고 있다.

또한, 대학 벤처동아리를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 9개 팀을 시상했으며, 우수 사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과 연계하여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벤처창업지원팀장 김옥남, 담당자 봉민석**

1-3.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소득의 불평등, 노동에서의 인간 소외,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빈부격차 심화,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을 겪으면서 그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왔다.

전남에서는 2007년에 처음으로 영광에서 (사)사회적기업 청람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조금씩 기업 수가 늘고 활동영역도 다양화되었다. 2011년부터는 마을기업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남도는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2,000개 육성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1개 팀에서 담당하던 사회적경제 업무를 2개 팀(사회적경제팀, 사회적기업팀)으로 분리 확대하고, 마을공동체팀을 이관시켜 3개 팀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과를 2018년 8월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가 성장해 나가기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도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지원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대학교 사회적경제 교육강좌 운영을 시작하였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 유도와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2020년부터 교육강좌를 운영하였다. 교육내용은 사회적경제 이해 및 진로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2개 대학교(순천대, 전남도립대)를 시작으로 2021년 4개 대학교를 운영하여 260명이 수강하였다. 2022년에는 5개 대학교가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전남)를 유치하여 목포에 조성하였다. 성장지원센터는 초기 창업 사회적경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청년창업 플랫폼으로 육성 의지를 가진 목포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에 인접하여 자리 잡게 된 성장지원센터에는 20개의 상주기업과 30개의 등록기업이 입주하여 창업정보를 공유하고, 멘토링,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받고 있다.

전남지역 사회적경제인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로 2014년부터 개최되어온 전남사회적경제한마당은 민선7기에도 꾸준히 개최되었다. 목포시에서 개최된 2018년 행사에는 부서 신설 후 처음 열리는 기념행사를 맞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대다수 참여하여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을 다짐하였으며, 2019년에는 강진에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행사 비중을 줄이고 전라남도 유튜브 채널인 으뜸전남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 전남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개소식 】



【 2018전남사회적경제 한마당 】

전남도는 민선7기에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분야인 공유경제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도는 2018년 12월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공유경제에 관한 정책 자문 심의기구인 '공유경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6월 첫 회의를 개최하여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2022년에는 공유단체(기업)지정 공모사업을 시작하고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으며,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공정무역과 관련하여 2020년에 「전라남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장 장정희, 사회적기업팀장 박상욱, 담당자 위철민, 김연재

나. 사회적경제기업 2,000개 육성

전남도는 경제 활동의 목적을 공익에 두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분류되며, 2022년 3월말 기준 2,008개를 육성하여 2018년 1,136개 대비 76.8% 증가하였다.

도는 지난 4년간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 565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기준 8천 4백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3천 6백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15개 기업이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91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았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73개, 행안부형 마을기업 63개를 신규 육성하는 등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마을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2018년~2019년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2019년 여수 송시마을, 2020년 영광 지내들영농조합법인)



【 2021년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훈장 수상 】



【 2021년 우수마을기업 현판 전달 】

2022년에도 125억 원의 재정지원과 신규 기업 발굴·모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실적 】

(단위 : 누계, 개사)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3.
계	1,136	1,333	1,698	1,957	2,008
사회적기업	173	214	308	346	346
마을기업	219	245	278	282	284
협동조합	660	792	1,034	1,252	1,298
자활기업	84	82	78	77	80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장 장정희, 사회적기업팀장 안재석, 담당자 박순미, 최나영

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확대

판로 부족, 낮은 인지도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민선 7기 동안 판로지원책을 다양하게 확대 추진하였다. 2017년 1개사업 22,000천원에 불과하던 예산액은 2021년 3개사업 413,500천원으로 약 19배가량 늘어났다.

【 2017~2021년도 판촉지원 사업 현황 】

(단위: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개사업, 22,000	2개사업, 30,000	3개사업, 287,000	3개사업, 413,500
사업 내용	① 판촉지원사업 22,000	① 판촉지원사업 20,000 ② 사회적경제 보부상단 10,000	① 판촉지원사업 100,000 ② 유통지원센터 지원 97,000 ③ 판매장조성 지원 90,000	① 판촉지원사업 250,000 ② 유통지원센터 지원 63,500 ③ 녹색나눔운영 지원 100,000

사회적경제제품 판촉지원사업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라이브 커머스 진행 등 코로나로 인해 보다 빠르게 변화된 비대면 소비 추세에 맞추어 오프라인 판촉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내용을 확대 진행하였다.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을 지원하고, 국내 최대의 T-커머스 업체인 SK스토아 홈쇼핑에 5개사를 입점시켰다. 고흥의 엔자인팜은 전 제품을 완판시키기도 하였다.

전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국비 4억원)를 2021년 9월 개소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시군 공모를 통해 여수(동백가치), 고흥(상생샵#), 장흥(상생상회) 3개 시군에 사회적 경제제품 공동판매장을 2021년에 개소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아직, 경쟁력을 갖춘 판매장으로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장소로 자리잡아 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여수 동백가치 】



【 2021 바이소셜 실천다짐식 】

또한 2013년 개설되어 전남사회적기업협회에서 운영해 온 전남사회적경제 쇼핑몰 ‘녹색 나눔’을 전남도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홈페이지 이관 및 개편 작업을 추진하였고, 쇼핑몰 입점·희망 업체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기획전을 추진하였다.

사회적 경제제품 인식 확산을 위해 바이소셜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코레일유통과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전남도는 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도 힘썼다. 기관별 공공구매 목표설정 및 공시제를 운영하고 우선구매 비율 상향(3%→5%)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청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조례에 공공구매 의무비율(5%)을 반영시켰으며, 시군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설명회도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장 장정희, 사회적기업팀장 박상욱, 담당자 위철민, 김달해**

라. 따뜻한 마을공동체 2,000개 만들기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마을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모임체로, 전남도에서는 2017년 211개 마을공동체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2,058개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하였다.

전남도는 2016년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마을공동체 컨설팅을 위한 마을행복디자이너 195명을 양성했으며, 양성된 마을행복디자이너를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회계 및 프로그램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서 양성된 마을행복디자이너를 시군에 파견하여 마을공동체 회계 및 프로그램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로 역량이 강화된 마을공동체를 점차적으로 마을공동체 자립화로 유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발굴, 주민 밀착형 현장지원, 마을자원 조사 등을 위하여 전남도에선 2019년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3개소 설립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5개소를 설립 완료했으며, 1시군 1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 설립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격려하고, 그 동안의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와 역량 강화, 화합을 위하여 매년 11월경 전남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KBC에서 주최하는「좋은이웃 밝은동네」행사에 전남의 마을공동체가 참가하여 다수가 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에는 마을공동체 활동 전/후를 비교하는 마을행복지수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모든 설문 문항에서 긍정적인 평가(평균 81.6)를 받았으며,특히, 마을에 대한 자긍심, 환경, 이웃 주민 등 마을 자원에 대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우울증) 급증과 공동체 단절, 오지·낙후지역 주민의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남 마을방송국(온라인 플랫폼)을 설립하였으며,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공동체 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에 참여하였다.



【 2020 지역공동체 포럼 우수사례 발표('20.9월) 】



【 전남마을미디어 활성화 업무협약('20.6월) 】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장 장정희, 마을공동체팀장 허은희, 담당자 김명성, 양지우

1-4. 사회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전라남도는 2021년에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25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서민 생계지원 및 고용 안정 등을 도모하였다. 2022년에는 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자원 활용, 지역기업 연계, 서민생활 지원, 지역 공간 개선 등 4대 유형 9개 사업을 추진해 191개 사업장에서 1,39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부터 전라남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기존보다 더욱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전망이며, 환경 정비 등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마을공방 등 공동작업장을 육성하고 마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일자리창출팀장 김초옥, 담당자 김중훈

나.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지역방역 강화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중 이용 공공시설에

대해 발열 체크, 시설·물품 소독,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생활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자는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며, 지원내용은 참여자 최저임금(2022년 9,160원/시간) 이상 인건비, 4대 보험료, 휴일수당, 방역 재료비 등이다.

참여자는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각 시군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한다. 2021년에는 22개 시군에서 407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3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일자리창출팀장 김초옥, 담당자 김중훈**

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중년의 경력,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참여자 최저임금(2022년 9,160원/시간) 이상 인건비, 4대 보험료, 관리비, 운영비 등이다.

사업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미취업자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등 자격을 갖춘 자이다. 참여자 모집은 각 시·군 및 수행기관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민간일자리 취업희망자에게 신중년 대상 취업지원제도 안내 등 취업알선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2021년에는 12개 시군에서 45개 사업을 통해 291명의 신중년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에 11개 시군에서 누리과정 지원 등 46개 사업이 선정되어 277명의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일자리창출팀장 김초옥, 담당자 조혜민

라.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전남도는 중장년층 고용촉진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 수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기업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만40세 이상 69세 이하 직원의 신규 채용 시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업에 매달 5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고, 취업자는 매달 3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취업장려금을 받는다.

전남도는 각 시·군을 통해 84명의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여 40~60대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일자리창출팀장 김초옥, 담당자 조혜민

2.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2-1. 민선7기 기업 1,000개 유치

가.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기업유치

전남도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특히 민선7기 1,000개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대규모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투자기업을 원스톱 지원하는 유치기업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전개하였다.

미중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장기화 등 연이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는 청정 자원과 저렴한 산업부지 등 지역별 투자 여건에 맞는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해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였다.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워크숍, 투자유치 한마당 등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외 비대면 투자 설명회와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02개 기업, 27조 8,461억 원의 투자유치와 3만 1천여 명의 고용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우리 도는 한국전력과 함께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에너지신산업과 지식정보문화 산업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해 ㈜비에스산업개발, ㈜씨엠파트너 등 민선7기에 387개 기업과 1조 5,643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2022년 3월 국내 첫 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함에 따라 전국 최고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완성되어 연관 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선7기 투자협약 실적 】

구 분	합 계	2018.7월~	2019	2020	2021	2022.6월
업체수(개)	1,002	173	263	260	210	96
투자금액(억 원)	278,461	73,567	65,819	49,656	61,127	28,293
고용인원(명)	31,787	5,430	7,858	8,235	7,500	2,764

※ 에너지밸리・지식정보문화산업 387개사 유치, 15,643억 원, 6,044명 고용 창출

추진부서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투지기확팀장 김대인, 담당자 김태이, 나희경**

나. 투자유치 활성화로 산단 분양률 제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완만하게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체감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어 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남도 내에는 32개소의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이중 목포 세라믹산단을 비롯한 5개 일반산업단지(목포 세라믹산단 37.6%, 광양 황금산단 36.8%, 광양 익신산단 53.4%, 광양 세풍산단 72.2%, 장흥 바이오산단 54.9%)가 낮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도에서는 분양률 80% 미만 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분양률 50% 미만 산업단지에 대해 별도 TF팀을 구성・운영(2개팀, 8명)하는 등 해당 시군과 함께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5년 3월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분양률 50% 미만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5월 분양률 50%에서 80%로 지원산단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21년 11월 보조금 지원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입지 보조금은 분양가의 30%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시설 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건물임대 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다.

2019년 4월 열린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수도권 주력유치업종 CEO 350명을 대상으로 분양률 80% 미만 산단 소재 시군에서도 참여한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투자유치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분양률이 낮은 5개 산업단지의 2022년 2월말 현재 평균 분양률은 53.8%로 2018년 7월말 기준 18.7%보다 35.1%p 상승하였다.

앞으로도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군과 함께 수도권 등의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기업유치팀장 오경국, 담당자 강성진**

다.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도내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에 큰 성과가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군비를 매칭하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종류로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교육훈련보조금, 건물임대보증금, 지식정보문화기업유치 보조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이 있으며, 민선 7기에 448개 기업, 912억 원(도비 443억 원, 시·군비 469억 원 포함)을 지원하였다.

또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과 별도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한 기업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국비와 도-시·군비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종류로는 토지 매입금액을 지원하는 입지보조금, 건축 및 시설 투자금액을 지원하는 설비보조금이 있으며, 민선 7기에 24개 기업 502억 원(국비 370억 원, 도비 66억 원, 시·군비 66억 원 포함)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철저하게 정산하고, 사업이행 기간 동안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매진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투자유치과 이귀동, 투자기획팀장 김대인, 담당자 김준민, 양윤미

라.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

투자유치기업의 조속한 투자실현을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원스톱 행정지원을 위해 2021년 2월 유치기업지원팀이 신설되었으며, 투자유치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실현을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별로 전담공무원(Project Manager)을 지정하여 부지매입 및 인허가 절차 등을 밀착 지원하는 PM 견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공장등록 후 1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투자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분기 1회 방문활동을 통해 투자실현을 독려하며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기업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장 착공 후 3년 이내의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기 진작과 친밀도 제고를 위해 기(氣) 살리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氣) 살리기 사업은 투자규모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기공·준공식, 창립기념일 등을 '기업의 날'로 지정해 행사비, 기념 식수·표지석 제작 및 설치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7개 기업에 25백만 원, 2019년에는 5개 기업에 20백만 원, 2020년에는 7개 기업에 25백만 원, 2021년에는 7개 기업에 24.5백만 원을 지원해 전라남도 투자환경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21년에는 투자협약 체결기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투자기업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투자기업의 투자정보, 투자 진행상황을 데이터화하여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실현을 지원하며, 온라인 투자기업 애로해소 창구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 및 분석해 투자기업 활동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추진부서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유치기업지원팀장 안정욱, 담당자 김혁주

2-2.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가. 해외 투자설명회(IR) 추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서도 프랑스, 중국, 일본 등 21여개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558,241천 달러, 도착액은 405,352천 달러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에는 수소・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프랑스 에어리퀴드와 1,260억 원, 중국 밍타이알루미늄과 352억 원, 랴오닝석재연합과 30억 원, 일본의 아사쿠라노리텐과 70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는 등 4개 기업에 1,712억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2019년에는 합성고무를 생산하는 이탈리아 롯데베르살리스와 1,000억 원, 태양광모듈 제조하는 독일의 ㈜레콤쏠라코리아와 250억 원, 중국의 식품가공 등 3개 제조기업과 346억 원 등 5개기업에 1,596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2020년에는 이탈리아 정밀화학기업 1개사, 중국・멕시코・독일의 금속가공기업 3개사, 중국의 위생용품기업 1개사, 프랑스・노르웨이・일본・싱가포르 등 풍력발전기업 5개사로 총 10개사, 1,883억 원의 투자를 실현하였다.

특히 민선 7기 말인 2021년에는 첨단기술 화학소재 기업인 일본의 토소남해실리카와 276억 원, 미국의 디렉스폴리머와 1,500억 원, 이차전지 소재원료인 호주의 포스코리튬솔루션과 7,600억 원, 중국의 포스코HY클린메탈과 1,200억 원, 선박기자재 업체인 홍콩의 계성중공업과 170억 원의 투자유치를 실현하는 등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기업 5개사와 1조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고, FDI 2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여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2011년에 이어 10년 만에 얻은 값진 수상이다.

민선 7기의 주요 투자유치 분야는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인 블루에너지와 블루트랜스포트 위주의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산업 위주로 추진되었다. 또한, 전략적 해외IR 추진으로 유럽・미주・아시아 등 38개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였고, 해외 네트워크 연계 온라인 등을 통해 향후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동향을 지속 관리하였다.





【 외투기업인의 날 대통령 기관표창(2021. 11. 2.) 】

1) 유럽 · 미주 IR 활동

민선 7기 첫 해외 순방에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프랑스 파리 에어리퀴드 본사에서 에어리퀴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에어리퀴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1만 5천238㎡부지에 1,260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산업용 가스(수소,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제4공장을 건립하였다. 또한 기능성 화학소재 회사인 독일 바스프 본사(루트비히스하펜암라인)를 방문하여 전남의 여건을 설명하고 기업유치활동(IR)을 추진하였다. BASF와는 2022년 하반기 MOU를 계획하고 있다.

2019년에는 유럽・미주・아시아 등에서 전남의 역점프로젝트와 연계한 산업 맞춤형 IR을 추진하여 34개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조세감면 폐지 등 투자여건의 악화로 외자유치 성과가 목표액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




【 에어리퀴드 투자협약&독일 BASF IR(2018. 10.) 】

2020년에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기업유치활동(IR) 방식이 비대면 화상상담 등으로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IR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중국의 잠재투자기업 4개사 발굴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목표대비(1억 불) 실적(1.5억 불)이 50% 증가했으며, 전년도(2019년) 대비해서는 260%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위축과 이동제약에 따라 독일의 B사 및 일본의 T사의 투자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IR추진을 하였으며, 해외 네트워크 연계온라인 7회, 산업별 국내 온택트(ontact) 투자설명회 7회, 외투기업인 초청 투자간담회 등 맞춤형 소규모 IR 52회 등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유치기업 고충사항 처리 전담팀을 신설하여 47개사를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 해소를 지원하였다. 2021년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도 이차전지 등 해외 첨단기업 5개사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역대급 FDI 2억 불 실적을 달성하였다.

2. 일본 IR 활동

2019년 6월, 4박 5일 일정으로 도쿄, 나고야에서 식품가공 및 제조업 분야 잠재투자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그 결과 한국 진출에 관심을 갖는 나고야의 '오오타유지' 기업 등 5개 기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도쿄의 '아사쿠라 노리텐 식품' 은 2018년 6월에 목포 대양산단 내 광천김(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광천김(주)은 250억 원을 투자해 원초가공공장과 해외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제조공장을 건립하였고, 2019년에는 목포공장 2개를 가동하였으며, 2020년에는 3개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기업 입주 후 7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2021년 12월에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일경제교류지원 비즈니스 컨퍼런스' 에 참여하여 한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해외잠재기업 10개 기업을 발굴하였다.



【 일본 식품가공·제조업 투자유치 활동(2019. 6. / 도쿄,나고야) 】

3. 중국 IR 활동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에너지 신산업 및 소재부품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다. 2018년 7월 중국 첨단사업의 메카인 다롄, 엔청, 항저우, 저우산을 방문하여 중국 대표 풍력발전 기업인 시노벨, 최대 수산식품가공 기업 Jhejiang Industrial Group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중국 정저우를 방문, 세풍산단 투자를 위해 금속가공제조 관련 하남밍타이알루미늄유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냉장냉동설비제조, 농식품 가공업 등 한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2개 기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중국 에너지신산업 등 투자유치 활동(2018. 7.) 】

2019년 7월 선양, 다롄 등을 방문하여 전기차 관련 랴오닝 천신특장차, 건풍특장차 기업과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고, 외투 진행기업인 SINOVEL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기업관리를 하였다. 또한 다롄홍륜연화식품 등 3개의 식품가공 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IR을 추진하였다. 9월에는 상해사무소와 협업하여 샤먼 투자무역박람회 참가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추진하였고, 12월에는 2020 IKW 참가기업 대상 온라인으로 잠재투자기업 대상 상담을 실시하였다.

2021년 4월은 항저우에서 소재부품 관련 사업을 타겟으로 15개 참가기업 대상 광양항배후단지 및 세풍산단 유치를 목표로 비대면 투자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9월에는 금속 및 식품가공을 타겟으로 13개 기업을 대상, 비대면 국제무역투자상담회를 열었다. 12월에는 강소성에서 금속가공, 화학소재를 타겟으로 10개 기업의 비대면 상담을 추진하였다.

추진부서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외자유치팀장 최종민, 담당자 김승철, 김미숙, 유다연**

나. 외국기업 투자여건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조성을 위해 에어리퀴드코리아(주)(2018. 1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포스코HY클린메탈,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등에 조세감면, 현금지원(국・도・시비) 그리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도비) 혜택을 부여해 추가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정보 수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상해, 일본 오사카,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 베트남 호치민 등에 '전라남도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해외 투자유치, 통상과 교류 활동의 전진기지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해외 기업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문기관인 코트라(KOTRA)의 기업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의 최신 투자환경과 투자정보를 수시 업데이트하여 국내・외 기업인이 온라인망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추진부서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외자유치팀장 최종민, 담당자 김승철, 김미숙, 유다연**

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성과

전남지역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은 2018년 1억 3,539만 달러, 2019년 5,399만 달러, 2020년 1억 5,581만 달러, 2021년 2억 1,305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전남지역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21년 해외자본 유입이 두드러졌던 석유·화학 분야의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남도의 외자 유치 실적도 크게 향상되었다.

2021년 전남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억 1,305만 달러로, 2020년 대비 36.7%(2020년 실적 1억 5,580만 달러) 증가하였다. 외국기업 도착금액도 2020년 9,780만 달러 보다 대폭 상승한 1억 4,74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도착액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개요를 담은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로 투자가 진행된 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나면서 향후 투자실현(도착금액)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2021년 전남도 내 외자유치 실적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이차전지, 정밀화학, 해상풍력 발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소부장 부양정책 및 이차전지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 합작투자 증가를 주요 투자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전남의 풍부한 산업 원자재와 E-모빌리티, 미래형 비행체 등 유망 비즈니스 업종의 집중 육성에 따라 최근 전남의 외자 유치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제조업 분야 외에도 섬 관광개발 사업을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 등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부서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외자유치팀장 최종민, 담당자 김승철, 김미숙, 유다연**

2-3. 대규모 관광개발 단지 조성 지원

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미래에셋이 1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약속한 여수 경도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1월 22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020년 4월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하였다.

경도를 국내 유일 '섬 해양힐링관광단지'로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전남도는 2017년 1월 국내 최대금융그룹인 미래에셋을 비롯해 전남개발공사, 여수시, 광양경자청과 함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이행협약(MOA)을 체결하였다. 이후 경자구역 편입을 거쳐 2020년 2월에 경도해양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 미래에셋컨소시엄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주)가 승인·고시되었다. 2020년 6월에는 경도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열렸다.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착공식(2020. 6.) 】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 확정된 마스터플랜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을 2020년 7월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다.

2024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5성급 호텔을 비롯한 콘도, 컨벤션센터와 함께 워터파크, 해수풀, 요트마리나 등 관광테마시설을 조성하는 등 경도가 세계적 해양관광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도 개발은 조성과정에서 3조 4천억 원, 운영단계에서 약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 4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추진부서 투지유치과장 이귀동, 유치기업지원팀장 안정욱, 담당자 강상훈

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경도 진입도로는 여수시에서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증진과 섬 거주민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986. 4. 2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2017년 경도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로서 진입도로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12월 27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2019. 11. 27.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다.

2020년 3월 24일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회 심의에서 '입찰방법은 설계 ·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는 기술평가 70%와 가격평가 30%를 합산하여 선정'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고, 2020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1,195억 원으로 결정하는 등 절차를 거친 후 조달청에서 2020년 11월 5일 입찰을 공고하였다.

2021년 4월 29일 전남도 건설기술심의회에서 입찰참여사가 제출한 기본설계안에 대한 설계평가를 진행하였고, 조달청에서 가격입찰 평가를 거쳐 2021년 5월 27일 실시설계 적격자로 남양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남양건설 컨소시엄은 2022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진입도로(연륙교)를 건설할 예정이다.

경도 진입도로(연륙교)가 건설되면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와 향후 증가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이 예상되며 주요 지방도·국도 및 고속도로간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추진부서 **투지유치과장 이귀동, 유치기업지원팀장 안정욱, 담당자 강상훈**

3. 지역경제 활력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강화

3-1. 지역경제 활력 및 서민경제 안정 도모

가. 전남 경기종합지수 개발·운영

전남도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경기 변동성 확대로 지역 경기의 흐름과 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별 경기지표와 우리 지역 경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종합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동향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전국 14개 시·도[1]에서는 자체적으로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5년 6월부터 2년 동안 광주전남연구원, 고려대,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한국은행, 통계청 등 경제전문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경제지수 개발에 주력해 온 결과 2017년 5월에 통계청으로부터 최종 국가승인을 받아 그해 7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발표하고 있다.

전남 경기종합지수는 지역경제 및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합지표로서 광공업 생산지수, 전력사용량,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수출, 수입 등 총 6개 세부지표를 수치화한 지수와 분야별 인포그래픽으로 발표하고 있어 우리 지역 경제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추진부서 ○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경제정책팀장 박근식, 담당자 최보성**

1) 자체 경기지수 공표 : 14개소(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나.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는 지역 기업들이 국내외 비즈니스 추진 시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국내외 바이어 상담 및 마케팅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3년 5월 용산역에 문을 열었다.

2018년부터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에 전북도가 공동참여함에 따라 내부시설 및 이용약관을 정비하여 3개의 회의실을 갖추고, 기업인들의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가고 있다. 현재까지 총 12만 636명[2]이 방문하는 등 활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경제정책팀장 박근식, 담당자 박지선

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1)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는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분야별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외식비, 기타 개인서비스요금 등 29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상 시기도 연중 분산·조정하여 물가 오름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전라남도 2021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9% 상승하였다.

---

2) 2013년 1,245명, 2014년 6,621명, 2015년 12,810명, 2016년 19,430명, 2017년 16,557명, 2018년 15,862명, 2019년 24,363명, 2020년 14,378명, 2021년 9,370명

【 연도별 소비자물가동향 】

(연평균,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남	1.0	0.0	0.9	2.1	1.5	0.3	0.7	2.6
전 국	1.3	0.7	1.0	1.9	1.5	0.4	0.5	2.5

2) 물가안정대책 추진

전남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명절,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뿐만 아니라 안건 발생 시 공무원과 유관기관・협회, 소비자단체 등 관계인이 참여하여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설・추석 명절이나 연말연시, 여름 휴가철 등 물가가 오를 시기에는 미리 부단체장 책임하에 특별대책상황실을 道와 시군에 각각 설치하여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품귀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물가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가격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가격 상승시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군에서는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을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으며 품목별 가격은 22개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가격정보 제공 및 물가안정을 유도해 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업소별・품목별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금인상 품목과 요금인상 우려가 있는 품목은 매월 1회씩 업소별로 가격을 조사하여 시·군정지, 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고 있다.

지자체관리 서비스 품목 중 9개 공공서비스요금을 제외한 지자체 관리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업소방문 및 각종 교육・홍보 등을 활용,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시군별 실정에 따라 상수도 요금감면과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인센티브제 실시로 업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외식업과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서비스업소 중 저렴한 가격에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해 오고 있다. 2022년 현재, 전남에는 323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경제정책팀장 박근식, 담당자 천재정

라.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소비생활센터와 전국통합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소비자단체의 상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정보제공 4,437건, 피해구제 1,406건 등 총 5,843건을 수행했다.

또한, 고령사회에 진입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 노력에 힘쓰고 있다. 2021년에는 117회 10,12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기별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라디오 고정코너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비생활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리플릿 등을 배포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방송 51회, 캠페인 3회를 실시하고 1천부의 리플렛을 배포했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경제정책팀장 박근식, 담당자 천재정

3-2.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벤처·창업기반 조성

가. 유망 중소기업 육성

전남도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며,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을 말한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정 후 3년 동안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상향(시설자금 15억→20억 / 운영자금 3억→5억), 이자지원 우대 (2년거치 일시상환 2.0→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1.1→1.4%) 및 판로 및 수출 분야 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그 결과로 매년 유망 중소기업이 점진적으로 증가[3]하고 있어 도 지원으로 기업성장, 그리고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중소기업육성팀장 류정경, 담당자 김남규**

나.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전라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이들이 ‘전남형 강소기업’을 거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구축해 주는 프로젝트다.

3) 유망 중소기업수 : 2018) 61개 → 2019) 44개 → 2020) 59개 → 2021) 56개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3년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3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① 매출액 증가율 3% 이상 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 이상 ③ 고용 증가율 3% 이상 ④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3% 이상 중 1가지 이상 달성을 요건으로 한다.

전남형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①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② 맞춤형 마케팅 ③ 기업 성장전략 수립 ④ 중장기 R&D과제 기획 ⑤ 경영 및 품질혁신 ⑥ 비대면 사업발굴 지원 등 총 6가지 기업지원 프로그램 중 기업당 매년 2가지 이상 프로그램을 1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20개사)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총매출액은 2,074억원으로 전년대비 24%(400억원) 증가했고, 총 고용인원은 604명으로 4%(25명)증가, R&D투자는 47.3억원으로 42%(14.1억원) 증가했고, 지식재산권도 235건을 출원·등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급신장하는 기업 성장의 표준모델이 되었다.

지금까지 2015~2016년 20개사, 2017~2018년 20개사, 2019~2020년 20개사, 2021~2022년 20개사를 육성하고 2024년까지 100개 전남형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중소기업육성팀장 류정경, 담당자 김남규**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 자금의 성격 및 종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의 자금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최대 2.5%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운영자금과 공장 등 시설투자 시 2.25%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운영자금은 14개 시중은행의 재원으로 도와 은행간 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도는 대출금리의 연 1.1%~2.5% 이자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도와 시군에서 자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 기금조성액 : 3,350억원('93.6. ~ '21.12.31.)】

(단위 : 억원)

기금 조성액	현 재 액
계 3,350억원	계 3,350억원
• 출연금 : 754억원(도 151, 시·군 603) • 차입금 : 1,420억원(도 지역개발기금) • 상환금·이자수익 : 1,176억원	• 융자액 : 2,441억원 • 예치금 : 909억원

2) 육성자금 지원실적

2018년에 3,541개 업체 4,082억원, 2019년에 3,688개 업체 4,138억원, 2020년에는 3,816개 업체 4,142억원, 2021년에 4,974개 업체, 4,176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다.

【 연도별 자금지원 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20			2021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계	5,500	3,816	4,142	4,500	4,974	4,176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30	49	363	630	71	507
벤처기업 육성자금	50	5	14	50	4	20
중소유통 구조개선	20	8	7	20	5	5
경영안정자금	3450	1044	2950	2,700	1,067	2,684
소상공인 창업자금	350	1083	248	350	1709	336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	900	1588	527	650	2033	561
공제사업기금 지원자금	100	39	33	100	85	63

【 연도별 이자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조 성 현 황			
	2018	2019	2020	2021
계	121.9	161.6	184.6	165.4
경영안정	88.1	118.9	131.9	127.5
소상공인(창업,경영)	33	41.7	51.7	36.9
공제기금	0.8	1	1	1

※ 이자지원은 은행 융자금 대출금리 중 이자 일부(1.1%~2.5%)를 지원하는 것임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중소기업육성팀장 류정경, 담당자 배연원**

라.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스마트공장 사업은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 등을 구입·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신청한 도내기업 중 평가절차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은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는데 기초수준은 최대 1억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수준은 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2014년 최초 국비 50%, 자부담 50%로 운영이 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비 3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률이 20%로 낮아졌다.

전남도내 스마트공장은 2018년까지 152개였지만 2019년에는 전국 스마트공장 보급률 1위를 달성하였다. 2021년도에는 204개사가 신규 선정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한 결과 평균 생산성은 30.0%, 매출은 7.7%, 납기 준수율을 15.5% 증가했고, 원가 15.9%, 산업재해는 18.3% 감소하는 등 기업경영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2014~2018년 152개사, 2019년 128개사, 2020년 180개사, 2021년 204개사를 육성하였고 2026년까지 1,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중소기업육성팀장 류정경, 담당자 김남규**

마.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지원

전남도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TV홈쇼핑 방송,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개별(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47개의 기업에 맞춤형 판로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2021년 8월에는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해 도내 36개 공공기관과 71개의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1:1 납품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 판로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형 유통업체(위메프,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MD와의 상담회도 병행 진행하여 유통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하였다.

앞으로는 온라인·모바일 중심 소비·유통 변화에 맞춰 온라인 판로 지원책들을 다양하게 개발・확대하여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중소기업육성팀장 류정경, 담당자 조혜형**

바.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

전남도는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내 65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제품(공사・용역・물품) 구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 기관의 구매실적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정책 도입 첫해였던 2015년 2조5,242억 원이었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매년 확대되어 2021년에는 3조7,878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여, 정책 시행 전보다 약 1조2,636억 원의 도내 중소기업 매출 확대를 가져왔다.

참여기관도 2015년 27개 공공기관에서 2021년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면서 65개로 늘어났다. 전남도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기업매출 확대에서 고용확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전방위적인 정책지원을 펴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중소기업육성팀장 류정경, 담당자 조혜형

사.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4본부 7팀, 26명으로 구성, 창업・투자 및 농수산・관광판로, 일자리 창출 정보를 제공하고, 전남의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센터이다.

전남도 및 22개 시군 연계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창업 창출 및 농식품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지원, 액셀러레이터 직접투자, 60여개 유통채널과 연계한 국내・해외 판로 확대, 도내 7개 대학 연계 인재 양성과 인재 매칭을 통한 취업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 실적】

(단위 : 건, 억원)

계	신규창업	보육지원	투자연계	농수산판로	일자리창출
2021년	133	173	253	114	200
2020년	164	135	63.2	136	218
2019년	156	122	65.6	52	201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벤처창업지원팀장 김옥남, 담당자 최민준

아. 전남 창업지원 플랫폼 전남으뜸창업 운영

전남으뜸창업은 예비・초기창업자 대상으로 사업화 단계별 1:1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 및 창업전문 멘토단 150여명을 운영하면서 도내 창업자들에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다.

멘토단은 창업경험자, 컨설팅업 임원, 경영지도사, 창업지도사 등 창업전담 인력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교수, 디자이너, 판로・투자 전문가 등 보육전담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청절차는 홈페이지(www.jnstartup.co.kr)를 통해 상담접수 후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 또는 온라인 멘토링 상담을 거쳐 최종 만족도 평가를 거치게 된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화상 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에 있다.

【 2021년 전남으뜸창업 성과 】

멘토링	신규 창업	사업화지원
1,218회	117건	120건

이외에 전남도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사업화 공간 제공, 경영지도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예비)창업자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통하여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 】

연도	센터수	입주기업수	고용인원수
2018	1	20	20
2019	1	20	15
2020	1	20	48
2021	1	20	53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벤처창업지원팀장 김옥남, 담당자 최민준

자. 벤처·창업기업 맞춤형 펀드 운용

전남도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화학, 자동차부품, 융·복합산업 분야의 6개 펀드를 조성·운용하여 지금까지 총 602억 원 규모로 44개 기업에 투자·지원하고 있다.

펀드 조성 규모의 최소 60% 이상을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존속기간은 펀드별로 각각 10년에서 5년간이며 존속기간의 반이 지나면 남은 기간은 회수 기간으로 운용된다.

펀드 특성별로「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의 경우에 지역 내 창업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엔젤투자자가 직접 기업에 先투자하고 심사를 거쳐 투자금액의 최대 1.5배까지 매칭 투자하는 방식이다.

「전남 청년 펀드」는 지역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 50% 이상인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였고「마그나4호 빛가람펀드」는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산업 분야에「창조경제 혁신펀드」와「바이오화학 펀드」는 농수축산·관광·바이오화학 분야별로 조성되었다.

특히, 2021년에 조성된「호남엔젤 투자허브」는 호남권(전남·광주·전북·제주)이 공동 출자하여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호남지역에 소재한 업력 3년 이내 창업 초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 엔젤투자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인프라가 열악한 편으로 이러한 지역 창업 여건을 극복하고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발굴 투자하여 성장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펀드를 점차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 전남 벤처·창업 펀드 조성 현황 】

(단위 : 억원, %)

펀 드 명	존속기간	펀드규모(a)	道 출자액(b)	道 출자율(b/a)
총 6개 펀드		602.5	147	24.4%
마그나4호 빛가람 펀드	2015 ~ 2023(8년)	130.0	5	3.8%
창조경제 혁신 펀드	2016 ~ 2024(8년)	115.0	50	43.5%
바이오 화학 펀드	2016 ~ 2024(8년)	157.5	50	31.7%
전남 엔젤투자 매칭 펀드	2015 ~ 2025(10년)	50.0	10	20.0%
전남 청년 펀드	2018 ~ 2028(10년)	100.0	30	30.0%
호남엔젤 투자허브	2021 ~ 2026(5년)	50.0	2	4.0%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벤처창업지원팀장 김옥남, 담당자 봉민석

차. 여성기업 활동 지원

전남도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12월 광주와 전남 지회가 분리된 이후로, 105개 회원사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2015년 3월 개소한 (재)여성기업지원센터 전남센터는 10실의 창업보육실과 교육장 등을 갖추고, 여성들의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 인증·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여성기업간 네트워크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시설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도비 포함 4억 5천만원을 투입해 다목적 공유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기 여성 창업기업들의 코워크(Cowork) 기능을 강화해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경제정책팀장 박근식, 담당자 박지선

3-3.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

도내 소상공인 창업 ·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18년 20,022개 업체, 5,003억 원, 2019년 20,383개 업체, 5,244억 원, 2020년 36,102개 업체, 9,355억 원, 2021년 24,195개 업체, 5,723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여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300억 원 보증재원 마련을 목표로 매년 전남도 30억 원, 22개 시군 30억 원을 출연하고 있다.

기본재산 출연과 별도로 청년사업자 창업 ·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특별출연을 하고 있다.

청년 사업자 지원 특별보증은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저소득, 창업 초기의 청년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성공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45세 이하 저신용 · 저소득 또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 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전남도에서는 2018년 10억 원, 2020년 5억 원, 2021년 5억 원, 2022년 5억 원, 총 25억 원을 출연하였고, 출연금의 10배인 250억 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지원하였다.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지원 특별보증은 저소득, 여성가장, 한부모 · 다자녀 · 다문화가정 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으로 도비 출연금은 2018년 5억 원, 2020년 5억 원, 2021년 3억 원을 출연하였고 보증공급은 122억 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은행대출을 지원하였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증가가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여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하도록 ‘브릿지 보증’을 신설하여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전남도는 폐업 소상공인 중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만기도래하는 2,156개 업체의 보증 대상액이 20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남도에서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 30억 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폐업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1)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6년 5월에 개소하여 현재 순천시에 동부센터와 무안군에 서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다채무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금융 구제방안과 법적절차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그동안 금융, 재무, 복지 등 여러 기관에서 직접 방문해 받아야 했던 상담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센터는 개인회생 · 파산, 신용회복, 채권협상, 대출 등 채무 상담, 재무 컨설팅, 복지지원 연계, 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아 재기를 지원하였다. 설립 이후 6년 동안 2만건의 금융복지 상담을 진행하였고 도민을 대상으로 금융과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KBS 순천방송국과 목포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월 1회 출연하여 재무와 채무 관련 정보 및 상담사례 안내와 전화문의 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2) 전남행복드림론 소액금융지원

전남도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개인회생 인가자 등 신용회복 중인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행복드림론 소액대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을 위해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가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20억 원을 출연하여 2020년 8월부터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울보증보험 가입으로 원금을 보전하고 기금으로 관리하여 목포시, 순천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서민금융통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전남도에 주소가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확정자의 경우 15백만 원 이내, 개인회생 인가자는 7백만 원으로 연 2~3.5%의 낮은 이율을 적용받는다.

2020년 8월 이후 대출실적은 1,041명에게 26억 6천 5백만 원으로 개인당 평균 250만 원의 대출이 이뤄졌으며, 가계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에게 저리의 융자를 실행하였다.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장 김차진, 소상공인팀장 황광오, 담당자 김호성

나. 전라남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남도는 2018년 8월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경영안정 지원 및 사업실패에 따른 자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전라남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자영업종합지원센터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위·수탁 기관으로 선정해 센터장과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 자영업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센터 설립 이후 4년 동안 1만여명의 도내 소상공인이 센터를 이용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 교육은 온 · 오프라인 마케팅, 세무 · 노무관리 기초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전문 컨설턴트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에게 경영진단 및 전문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는 컨설팅과 성공 사업자로 구성된 멘토단이 사업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찾아가 점포운영, 고객관리 등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멘토링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패턴이 비대면 ·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원스톱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스킬 업 실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스톱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스마트 스토어, 무료 홈페이지 구축, SNS 마케팅, 배달앱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한 온라인 판로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스킬업 실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별, 수준별 메뉴개발 및 영상제작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앞으로 창업-경영-폐업-재기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장 김차진, 소상공인팀장 황광오, 담당자 김호성

다.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5~100만 원/1만 원 단위)을 적립하여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연금)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는 공제보험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금을 납부 시 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을 지원(추가적립)하고 있다.

2019년에는 917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220백만 원의 예산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고, 2020년은 2,250명분 540백만 원을, 2021년에는 1,725명분인 414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으로 도내 가입자는 2016년 14,256명에서 사업 첫해인 2019년에는 27,905명으로 196% 늘었으며, 2021년에는 40,270명으로 2019년 대비 144% 확대되었다.

전남도는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가 2019년 4,761명, 2020년 5,080명, 2021년 6,228명으로 매년 늘어남에 따라 2022년부터는 도, 시군비 매칭을 통해 사업비를 1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장 김차진, 소상공인팀장 황광오, 담당자 구자민**

라. 소상공인 제로페이 활성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 혜택은 높이는 상생 공유 플랫폼으로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가맹점 간 결제가 이루어진다. 신용카드와 달리 연 매출액 8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수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제로페이의 수수료는 연 매출액 8억 원 이하는 0%, 8~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이다. 일반 신용카드는 3억 원 이하 0.8%, 3~5억 원 1.3%, 5~10억 원 1.4%, 10~30억 원 1.6%으로 제로페이 수수료는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연말정산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도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로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을 2021년까지 진행했다. 2020년에는 권역별 서포터즈 운영으로 제로페이 홍보 안내 등 가맹점을 모집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제로페이 10% 선할인 이벤트를 개최해 이용자 확대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제로페이 가맹점이 2019년 8,343개소에서 2021년 48,334개소로 579% 확대됐으며, 결제 건수도 2019년 24,874건에 302백만 원에서 2021년 572,046건에 23,324백만 원으로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전남도는 2022년에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 등을 준비 중이다.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장 김차진, 소상공인팀장 황광오, 담당자 구자민

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디자인개발 지원

전남도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양질의 제품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각인될 만한 상호, 제품명을 갖지 못해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개별 소상공인들이 브랜드와 디자인이라는 낯선 부분을 전문기업을 통해 고비용으로 도움을 받기엔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전남도는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도 놓지 않는 장인정신과 그 지역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 소상공인 손에서 나온 제품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도록 전남도가 지원한다.

전남도는 전남지식재산센터와 함께 2016년부터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1년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상가, 공방, 식품상 등 소상공인 69곳을 지원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다 협동조합, 명장・명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개별 소상공인들에게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상호나 제품명, 디자인이 필요한 분만 아니라 기존의 낡은 상호나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된 자들에게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제품의 특성과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및 상호, 제품명, 각종 상징물과 시제품 제작까지 일괄 지원한다.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장 김차진, 소상공인팀장 황광오, 담당자 이영석

바. 소상공인 '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해 홍보 영상을 무료로 제작하여 광고하는 소상공인 '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와 LG헬로비전이 업무협약을 2021년 3월에 체결하여 전남도에서는 소상공인 가게에 대한 30초 분량의 홍보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고 LG헬로비전은 2주간 무료로 TV 광고를 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도 전남도에서 도비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600개 업체, LG헬로비전 자체 지원 600개 업체, 총 1,200개 업체이고, 2022년에는 도비 6억 원을 투입하여 800개 업체를 지원한다.

홍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TV 홍보를 통해 새로운 고객이 늘고 브랜드 가치 향상과 재구매율 및 광주 등 외부지역 고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장 김차진, 소상공인팀장 황광오, 담당자 김호성

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대형마트·SSM,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산업의 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 유통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2018년부터 예산을 지속 편성하여 시설현대화사업 15개소 총 116억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20개소 335억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16개소 98억원을 지원하였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장 재건축, 아케이드 설치, 스프링쿨러 설치 등을 추진했으며,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노후 주차장 보수 및 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하였다.

특성화시장 육성은 전통시장의 관광 상품화를 통한 이용객 증대를 목적으로 도 자체사업인 문화예술융합형시장,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시장수	금 액	시장수	금 액	시장수	금 액
계	298	356,923	28	54,611	49	26,071
2001	2	7,543	-	-	-	-
2002	6	10,583	-	-	-	-
2003	18	16,595	-	-	-	-
2004	22	32,196	-	-	-	-
2005	18	8,447	-	-	-	-
2006	16	10,305	-	-	-	-
2007	17	15,382	-	-	-	-
2008	25	32,947	-	-	-	-
2009	24	21,725	-	-	1	1,667
2010	26	22,310	-	-	1	914
2011	13	23,252	-	-	-	-
2012	15	27,560	-	-	2	2,400
2013	18	27,157	-	-	2	1,050
2014	16	25,258	-	-	1	400
2015	21	28,542	-	-	7	3,500
2016	19	17,567	4	6,740	10	4,020

연도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시장수	금 액	시장수	금 액	시장수	금 액
2017	22	29,554	4	15,258	10	3,900
2018	19	11,743	6	10,120	6	3,960
2019	26	14,070	3	7,500	2	1,300
2020	23	12,016	6	6,867	3	1,320
2021	15	11,608	5	8,126	4	1,640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소상공인팀장 이현술, 담당자 이경옥

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 특성상 작은 불씨로도 커다란 화재가 발생하여 본인은 물론 이웃 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험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과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하고, 시군 공설시장은 화재공제 의무가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4개 시장에 6억 8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화재예방과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소상공인팀장 이현술, 담당자 이경옥

자. 전남 행복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남행복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의 발행을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신규로 진행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조 6,605억원 발행을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270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사랑상품권 3,384억원을 발행하였고, 방역 취약지역인 전통시장에는 1억 7천 4백만원의 방역 ·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결혼이주민 지원금 등 각종 정책발행을 장려하는 등 발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소상공인팀장 이현술, 담당자 김자희

3-4.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가.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활성화

1) 산업평화 정착 분위기 확산

전남지역은 그동안 언론, 영화 등에서 ‘전라도는 투쟁을 잘하는 지역’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만들어 ‘기업하기 힘든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실제로 노사분규가 많지 않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이 전남으로의 투자를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노동자와 기업가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 선언」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기업가 대표가 한곳에 모여 노사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분배의 과실을 함께 나누자는 선언으로 2021년에는 5월 28일에 화순군 모후산에서 전남 노사민정 대표자 및 근로자 300여 명이 모여 산업 평화 선언 행사를 열었다.

2)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전라남도는 매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7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03백만 원을 지원받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은 ▲지역경제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노사갈등 조정중재 위원회 활성 운영 ▲노사가 행복한 상생일터 만들기 및 힐링캠프 등으로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노총 전라남도본부,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등이 참여하였다.

3)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는 국비지원사업 외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346백만 원의 예산으로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은 ▲ 노동자 특별 순회 교육, ▲ 고용안정 특별활동반 운영, ▲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제와 차별해소 토론회 개최 등이며 한국노총 전라남도본부, 민주노총 전라남도본부 등 단체가 함께 추진하였다.

4)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시상

전라남도는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이룬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부터 '산업평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매년 3~4명의 기업 또는 노동조합을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72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2021년에는 광양에 소재한 ㈜포렌(대표 강언구)이 산업평화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기업은 광양제철소 내 냉연 롤 정비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노사간 소통과 배려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무분규 · 무재해 사업장으로 유지하며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5) 전국 최초 11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전라남도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노사상생의 문화를 이루는 노력을 지속한 결과,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11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는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노사화합이 가장 잘 되는 곳으로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추진부서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노동정책팀장 손동식, 담당자 김영운

나. 전남 노동권익센터 운영

전남도는 2020년 1월 도내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였다.

1)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및 무료법률(구제) 지원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통해 노동인권의식 고취 및 노동관계법령 · 구제절차 안내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중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 노무사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 등 무료법률 구제절차를 진행해 2021년 74건의 법률지원 실시하였다.

2) 사업장 방문 상담·컨설팀 및 생활임금 실태조사 추진

전남도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자 방문상담 컨설팅’ 사업 추진으로 노동자와 사업주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무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16년에 도입된 생활임금의 실태파악을 위해 공공 부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 직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0.8%가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해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공공주택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 약속

공동주택관리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의 고용안정, 노동환경개선, 처우 및 복지향상을 통한 전반적인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12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아파트공동체 조성 약속’이라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공공주택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보호 방안을 고용주인 입주민이 스스로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분담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노동자에 대한 차별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차별요소・고충사항을 조사하여 중장기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현황 】

(단위 : 건)

연도	상 담						법률지원	홍보 및 교육	실태조사/컨설팅
	계	임금	해고	근무조건	산업재해	기타			
2020	820	213	98	161	62	286	83	45	8/2
2021	1,159	352	131	208	107	361	74	61	5/4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김차진, 노동정책팀장 손동식, 담당자 김영운**

다. 전남 서부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원

산업기술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아웃소싱이 진행되어 소규모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체계적인 보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와 근로자 건강관리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사업에 공모하여 2020년 7월, 영암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서부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였다.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안전보건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이 직종별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전문 건강상담(직업병 예방,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예방 등)을 통해 질병 발병 이전 단계에서 작업을 관리하고, 건강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 종사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조선업 노동자 소음성 난청예방 프로그램과 외국인 노동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4,883명, 2021년 7,623명이 서부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하며 서부권 및 중남부권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장 김차진, 노동정책팀장 손동식, 담당자 김형준**

4. 국제우호·협력 강화 및 수출증대

4-1. 실리적 국제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가. 국제교류 다변화

전남도는 국제사회에서 전남의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해 1986년 미국 미주리주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13개국 31개 지역과 협정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민선 7기에는 미·일·중에 치중된 교류지역을 다변화하고 우리도의 역점시책과 연계한 실용적인 지방외교에 집중하였다.

2019년 9월 러시아 스콜코보재단과 과학기술분야 MOU를 체결하여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2020년 1월 스웨덴 MAX-4연구소와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 유치협력 MOU, 2021년 6월 덴마크 에스비에르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 등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맞춰 2019년 2월에는 인도 웨스트벵갈주와 우호협정, 2019년 7월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성과 농업분야 MOU 및 2019년 9월 동나이성과 에너지분야 MOU, 2018년 10월 러시아 사하공화국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하여 교류지역 다변화를 도모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교류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었다. 기존 국제질서의 변화와 지역주의 강화에 따라 실리적 다자주의 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전남도는 코로나19의 한계 속에서도 국제교류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교류활동을 지속 전개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부족으로 세계적으로 혼란이 야기되었던 상황에서 우리 도는 자매·우호 지역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우호 관계를 심화하고 전남의 위상을 제고했다.

특히, 2020년 우리 도가 한국 최초로 미국(메릴랜드주·미주리주)에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한 사례는 아리랑 TV가 제작한 「한국전쟁 70주년 한미 파트너십 재조명」에 특별히 재조명되었다. 또한 2021년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4개 교류지역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일명 포스트 차이나 아세안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썼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전남을 알리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프랑스, 덴마크 등 5개국 주한대사와 러시아, 네덜란드, 미국 등 6개국 대사관 관계자를 각각 초청하여 전남의 역점시책을 소개하고 해상풍력, 탄소중립, 농수산식품 수출선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리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도민 소득향상을 위한 수출시장 개척과 관광객 유치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 외국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현황 】

연번	권역	구 분		지 역 명	체 결 일	비 고
1	미국 (4)	자매결연 (3)		미 주 리 주	1986-09-24	우호협약 생략
2				오 리 건 주	1996-10-16	우호 1994.05.24
3				메릴랜드주	2017-09-05	우호 2013.11.15
4		우호교류		애리조나주	2010-09-29	
5	중국 (10)	자매결연 (3)		저장성(浙江省)	1998-05-16	우호 1993.11.10
6				장시성(江西省)	2012-04-17	우호 2004.04. 23
7				산시성(山西省)	2017-11-24	우호 2007.11.12
8		우호교류 (7)		상하이시(上海市)	1996-04-19	
9				장쑤성(江蘇省)	1996-04-23	
10				산둥성(山東省)	1996-04-25	
11				후난성(湖南省)	1997-06-21	
12				쓰촨성(四川省)	2004-04-26	
13				푸젠성(福建省)	2007-10-11	
14				충칭시(重慶市)	2008-09-03	
15	일본 (5)	자매결연(1)		고치(高知)현	2016-10-31	우호 2003.05.30
16		우호교류 (4)		후쿠오카(福岡)현	1992-08-25	
17				사가(佐賀)현	1992-08-25	우호 2011.01.25
18				나가사키(長崎)현	1992-08-25	
19				야마구치(山口)현	1998-09-02	
20	동남아시아 (7)	우호	필리핀	리 잘 주	1997-05-07	
21			말레이시아	케 다 주	1997-05-10	
22			베트남 (2)	바리아붕따우성	1997-05-12	
23				껀 터 시	2012-12-04	
24			태 국	라 용 도	1999-08-27	
25			인도네시아 (2)	서 자 바 주	2001-04-26	
26				중부술라웨시주	2009-09-29	
27	유럽 (3)	우호	독 일	브 레 멘 주	1996-10-28	
28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주	2005-09-28	
29			덴마크	에스비에르시	2021-06-30	우호 2021.06.30.
30	남미	우호	콜롬비아	보 야 카 주	2001-05-11	
31	서남아	우호	인 도	웨스트벵갈주	2019-02-07	

추진부서 **국제협력관 신현곤, 국제교류팀장 양경옥, 담당자 박순임**

나. 중국 및 일본 자매·우호지역과 교류 협력 지속

1) 중국

전남도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부터 중국 저장성(浙江省)과 처음 교류를 시작하여 2021년말 기준 상하이시(上海市), 충칭시(重慶市)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와 자매결연(3곳) 및 우호교류(7곳)를 체결하고 경제, 인문,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선7기에는 산시성(山西省) 당서기, 저장성(浙江省) 성장, 장시성(江西省) 성장 및 부성장 등 특히 고위급이 리드하는 대규모 대표단이 전남도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였으며, 제2회 한중 지사성장회의 참가를 통해 더욱 다양한 지역들과 고위급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중국 내 전남도의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와 우호도시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중국 자매도시 교류협력상」을 수상하였다.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당시 자매·우호지역들과 마스크 등 상호 방역물품을 지원(중국 11개 지역·기관으로부터 마스크 22만장, 방호복 8천벌 수령)하여 지역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교류의 제약 속에서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온라인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비대면 교류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기업들의 수출상담회, 청소년 교류, 예술단 합동공연, 박물관 교류, 도예·회화 전통예술품 전시 등 지속적인 교류 콘텐츠를 발굴 및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상하이시, 장쑤성(江蘇省) 우호교류 25주년을 맞이하여 전라남도 중국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지 전남도 홍보관 운영 등 대면과 비대면을 합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였다.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급변하는 중국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 중국협력 발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관광, 수출, 투자유치, 교류·협력 등 주요 분야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

추진부서 국제협력관 신현곤, 중국협력팀장 하광윤, 담당자 이애란

2) 일본

전남도는 일본 고치현과 목포 공생원 창립자 윤학자 여사를 인연으로 교류를 시작하여 2016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사가현과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를 통해 다자간 교류를 추진하다 2011년 정식으로 양 지역 우호협정을 체결하였다.

고치현, 사가현과는 행정, 의회, 산업, 관광 · 문화, 공무원 상호 파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 특히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 교류에 힘을 쏟고 있는데 고치현과는 고등학생, 사가현과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마다 테마를 정하여 교류하고 있다.

민선 7기에는 2019년 3월 고위급 회담을 통해 고치현과는 농수산분야 6차 산업를 중심으로, 사가현과는 해양수산 및 문화 ·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2019년 중 한일 관계악화 및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상회의 채널 개설, 온라인 청소년 교류, 상호 사진 홍보전 개최 등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했다. 그중에서도 고치현과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로 실시한 「고치현민 초청 온라인 남도문화체험행사」는 외교부 주최 2021 공공외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2년부터 전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29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번영을 위한 다양한 교류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다자간 국제교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 · 고령화대책(2018년), 청년 일자리 창출(2019년), 코로나19 대응(2020년) 등 한일 공통현안에 대한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역점시책을 홍보하였다.

【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

한 국(4)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일 본(4)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

전남도는 앞으로도 일본 지역과의 풀뿌리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국제협력관 신현곤, 국제교류팀장 양경옥, 담당자 박순임**

다. 해외호남향우회 협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전남도는 해외에서 호남인의 긍지를 지키며, 고향 발전과 고국의 번영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는 200만 재외 호남향우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매년 10월 호남권 3개 시도에서 순회 개최되는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식[4]과 고향방문 행사를 지난 2019년에는 도내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세계 각 지역에서 320여명의 향우가 참석하여 ‘청정전남,

4) 기념식 : (2018년) 광주 → (2019년) 전남 → (2020년) 미개최 → (2021년) 서울

블루이코노미’ 등 세계 속에서 발전하는 전남의 미래비전을 성원해 주었다.

또한, 2001년부터 시작된 모범청소년 해외 견학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키우며, 세계무대로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있다. 2019년 미국 오렌지카운티 향우회 초청 방문에 이어 2020년에는 중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초청으로 중국 3개 지역을 방문하여 해외 성공 리더 간담회, 향우기업 방문,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졌다[5].

아울러 ‘세계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에서는 2017년부터 고향의 청소년에게 ‘고향사랑 장학금[6]’을 매년 지원하는 가운데, 2020년에는 호남지역에 발생한 수재피해 복구를 위해 1억여 원의 성금을 기탁[7]하였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전남에 주소를 둔 전남・광주・수도권 소재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고, 선발된 대상자는 어학・직무교육, 비자발급, 기업매칭, 항공료, 해외 보험료 등 해외 인턴십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게 된다. 약 1년간 유급으로 국내기업 해외법인, 해외 로컬기업에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어 매년 청년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5) 미국·멕시코(2001~2019년) : 100명, 중국(2020년) : 8명
6) 전남지역 고향사랑 장학금 지급액(2017~2021년) : 138백만 원(182명)
7) 2020년 수재피해 성금 기탁 : 1억원(3개 시・도에 각 33백만 원)

【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추진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연수생 선발	해외 취업	사 업 비			1인 지원액	지역
			계	도 비	교 비		
계	60	57	530	440	90		
2019	12	9	70	40	30(전남대)	5.6	미국
2020	24	24	230	200	30(목포대)	7.3	미국
2021	24	24	230	200	30(목포대)	7.3	미국

추진부서 **국제협력관 신현곤, 국제교류팀장 양경옥, 담당자 채길병**

라. 해외사무소 운영 강화

전남도는 국제교류와 수출진흥, 투자유치, 관광 홍보를 위해 중국 상하이・일본 오사카・미국 LA 등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 주요 교류 국가인 미국・중국・일본에 해외사무소를 설치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사무소를 설치하였고, 2019년에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인도・아세안 지역과의 우호 교류 확대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호치민에 동남아사무소를 추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해외사무소 조직 및 기능 보강을 위해 통상・투자유치 등 직무능력이 우수한 5급 공무원을 소장으로 근무지 배치하고, 현지 사정에 밝고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매니저급 현지직원을 보강하여 기능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22년에는 해외사무소 현지직원을 초청하여 우리 도에 대한 이해도와 소속감・유대감 제고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도정시책과 주요산업 시찰, 관광자원 탐방 등 도정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국제협력관 신현곤, 국제기획팀장 강인중, 담당자 한형선**

4-2. 수출판로 다각화로 농수산물 수출 확대

가.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개설·운영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 내 브랜드관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전남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한 현지 주류마켓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7월에 브랜드관을 개설하여 현재 미국, 유럽 5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 총 7개 브랜드관에 총 43개 기업, 97개 제품을 입점하여 수출하고 있다.

전남 브랜드관 개설 전 개별상품 아마존 입점 지원 및 수출상표를 해외에 등록하고, 미국 내 E-Commerce 전문기업에 위탁·운영 중이며, 입점기업 컨설팅 및 전략품목 발굴을 통해 수출기업 및 입점 제품을 늘리고 있다.

브랜드관 입점을 통해 미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물론 국내외 바이어에게 ‘아마존 입점’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베트남 지역 바이어와 실제로 수출을 성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현지 오프라인 마켓 바이어들이 브랜드관 입점 제품을 확인하여 미(美) 코스트코 등 대형마켓에 실제 입점하는 우수한 성과(고흥 유기농유자주스 21만불, 여수 오징어튀김스낵 29.5만불)를 이뤄내기도 하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해 아마존 입점뿐만 아니라 현지 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3
입점기업 수(누적)	-	29	37	43
수출액	4,584	1,336	2,148	1,100

추진부서 **국제협력관 신현곤, 농수산수출팀장 위지환, 담당자 양수라**

나. 해외 상설판매장 확대 개설 및 운영

전남도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 대형 유통 매장 내에 상설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식품을 판매·홍보하고 있다. 2017년~2021년까지 31개소 15억원을 지원하였다.

2022년 지원규모는 5억원으로 신규개설 6개소 3억원, 판촉지원 1개소 2천만원,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개설은 해외 농수산식품 판매 마켓에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전용 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연간 200천불 이상의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판매장 임차비, 시설비, 홍보비, 시식비, 판매원 인건비 등으로 개소당 5천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 해외 상설판매장은 2017년에 미국 등 2개국 5개소를 최초로 개설하여 2021년 현재 8개국에서 2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에 전남도 농수산식품 12,376천불을 판매하였다

또한 해외 상설매장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이용을 위해 시·군과 연계해 매년 2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판촉 행사를 8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 전남도 농수산식품 463천불을 수출하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판로 확보와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 해외상설판매장 지원 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7~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개소	37	10	5	8	8	6
현재운영*	21	4	4	5	8	추진중
지원금액	2,010	280	330	400	500	500

* 지원개소와 운영개소 차이 : 16개소(재지정 3, 사업종료 7, 추진 중 6)

추진부서 **국제협력관 신현곤, 농수산수출팀장 위지환, 담당자 안병용**

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확대 지원

전남도는 수출액 대비 무게 및 부피가 커 물류비 부담이 큰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최근 4년간(2018~2021) 229억원에 달한다.

2022년도 지원 규모는 73억 4천만원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에 66억 7천만원, 김 수출물류비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 농산물은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산물의 품목별 수출 표준물류비 10%를 농가와 수출기업에 지원하고 김은 연간수출액 기준으로 물류비 5백만원에서 3천만원을 차등하여 수출기업에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상물류비가 급격히 상승하였지만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 개설, 상설판매장 확대 등 수출기반 다변화와 K-food에 대한 선호도 확대로 전남도 농수산

수출액은 2017년도 349백만불, 2021년도 560백만불으로 60.4% 증가했다.

앞으로 도는 WTO 협상에 의해 2024년부터 물류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판촉행사 및 수출 부대운임 지원 등 수출물류비 대체 사업 발굴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계	22,939	6,360	7,320	4,699	4,560
농산물 수출물류비	22,599	6,360	7,320	4,699	4,220
김 수출물류비	340	-	-	-	340

추진부서 **국제협력관 신현곤, 농수산수출팀장 위지환, 담당자 송원철**

4-3. 신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제고

민선7기 동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2018년), 코로나19 글로벌 확산(2020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2022년)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남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창의적인 도전정신 덕분에 올해 전라남도 수출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8]했다.

특히,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과 전라남도 해외 상설판매장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9]도 사상 최대실적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

8) 역대 수출액 : 2012년) 419억불 → 2016년) 278억불 → 2018년) 366억불 → 2020년) 271억불 → 2021년) 428억불

9) 농수산물 수출액 : 2015년) 2.5억불 → 2016년) 3.2억불 → 2017년) 3.5억불 → 2018년) 3.9억불 → 2019년) 4.5억불 → 2020년) 4.6억불 →

가.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주요 신시장 개척

전남도는 민선7기 동안 중국·일본・미국 등 일부 국가 쏠림현상이 두드러져 외부 변수에 허약한 수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는 물론 CIS지역으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코트라 현지 무역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민간네트워크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어를 발굴하고 화상상담을 진행해 신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있다.

시장개척단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신규시장 개척 및 거래선 발굴을 지원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증대에 기여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리오프닝에 맞춰 해외 유명시장을 직접 방문해 진성 바이어를 발굴하고,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시장개척단 활동 실적 】

연도	교류단명	기 간	지 역	참가 업체	성과(천불)	
					상담액	계약
2019	계	7회		90	243,994	34,216
	서남아 시장개척단	2.6.~2.14.	인도, 방글라데시	12	43,498	3,580
	대양주 시장개척단	3.23.~3.30.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15	19,199	4,542
	러시아 시장개척단	4.7.~4.14.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3	38,036	3,978
	동남아 1차 시장개척단	5.19.~5.25.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싱가포르	15	30,677	5,180
	동남아2차 시장개척단	7.28.~8.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12	10,806	3,156

2021년) 5.6억불

연도	교류단명	기 간	지 역	참가 업체	성과(천불)	
					상담액	계약
	동남아3차 시장개척단	9.29.~10.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13	54,518	3,650
	한전KDN 공동 시장개척단	12.1.~12.7.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10	47,260	10,130
2020	계	4회		39	66,490	3,675
	인도 시장개척단	2.9.~2.15.	인도, 태국	8	46,510	2,186
	중앙아 화상상담	3.17.~3.26.	우즈벡, 카자흐, 몽골	6	-	-
	러시아 화상상담	8.18.~9.11.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5	14,480	213
	대양주 화상상담	10.12.~11.17.	필리핀, 호주	10	5,500	1,276
2021	계	3회		61	39,302	462
	미국・신남방지역 화상상담	5.1.~11.2.	태국, 싱가포르,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27	15,365	443
	러시아 화상상담	6.23.~7.7.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5	18,466	19
	베트남 화상상담	10.19.~22.	하노이	19	5,471	-

전남도는 도내 우수 제품을 해외 유명 박람회에 출품해 홍보하고 바이어 발굴 및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상품의 동향 분석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지원에 힘쓰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021년 해외 박람회 개최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지원사업이 축소된 것이 아쉬우나, 2022년부터는 베트남, 두바이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 국제 박람회 활동 실적 】

연도	교류단명	기 간	참가 업체	성과(천불) 상담액
2019	계	7회	47	8,013
	동경 국제식품박람회	3.5.~8.	8	1,392
	방콕 국제식품박람회	5.29.~6.2.	7	1,280
	말레이시아식품박람회	6.26.~28.	5	358
	말레이시아이미용전	7.15.~18.	6	476
	카자흐스탄 식품박람회	10.31.~11.2.	7	12
	인도뉴델리식품박람회	11.14.~17.	6	1,996
	베트남엑스포호치민2019	12.4.~7.	8	2,499

전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량 수출에 대한 국제특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제한됨에 따라 미리 견본을 보내 화상상담의 효율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제품을 직접 보고, 맛보고, 만지는 등 체감할 수 있도록 도내 수출기업에게 국제특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국제특송비 지원 실적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업수(개사)	29	71	87
지원액(천원)	4,117	31,534	51,369

추진부서 국제협력관 신현곤, 글로벌마케팅팀장 문연안, 담당자 심명섭, 이은정

나. 수출 중견기업 육성

전남도는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다.

1)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전년도 수출액 1천만불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남테크노파크 해외 비즈니스 센터와 연계해 수출역량 강화 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수요에 맞게 시장조사, 마케팅, 계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수단을 활용해 가급적 단기간 내 수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수출새싹기업 지원 실적 】

구 분	기업수	수출액(천불)	수출계약액(천불)	신규고용(명)
2019년	12	560	15,200	-
2020년	13	294	520	5.8
2021년	13	424	740	9.2

2) 전남형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

전남도는 수출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년도 수출 실적에 따라 해외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형 차세대 수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출액이 50만불 이상 500만불 이하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해외마케팅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형 히든 챔피언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불 이상 2천만불 이하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해외마케팅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 제품개발 및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전남형 단계별 수출기업 육성 지원 실적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차세대(개사)	1	2	2
히든챔피언(개사)	2	2	2

3) 청년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전남도는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불 이하인 도내 중소기업 중 대표자가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이며 기업 설립일 15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진출 경험은 적으나 수출에 대한 의지가 있고, 해외마케팅 사업을 통해 수출 성과가 도출 가능한 기업을 대상을 선정해 연간 최대 5천만원의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기업으로 선정되면 해외 시장조사, 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개발, 해외 전시회 참가, 판촉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을 기업의 수요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실적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상기업(개사)	5	6	6

추진부서 **국제협력관 신현곤, 글로벌마케팅팀장 문연안, 담당자 심명섭**

다. 수출 초보기업 역량 강화

1) 수출상품 홍보물 개발 지원

전남도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중에 최신 소비 경향에 벗어나 판로 및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용기・포장 디자인,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시 홍보물을 활용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제품 디자인개발은 최대 16백만원, 포장디자인 개발은 최대 8백만원, 홍보동영상은 최대 10백만원, 카탈로그는 최대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최종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도 지원금 외에 초과 비용은 업체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 수출상품 홍보물 개발 지원 실적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용기・포장 디자인	17건	17건	19건
홍보동영상	12건	19건	14건
카탈로그	11건	19건	15건

2)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

중소기업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고 제품의 신뢰성과 기술력 향상으로 우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규격인증 획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전문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자체적인 인증획득이 어려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년 초에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업체를 모집하고, 업체규모, 수출액, 기술력, 도정 시책참여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 해외규격인증 지원 실적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업수(개사)	10	24	7
지원액(천원)	34,477	79,546	20,970

3) 수출보험료 지원

전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변동,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동안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통상환경의 위험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지원한도를 기업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2021년에는 4개(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수출신용보증)종목 중에서 업체당 3백만원 한도 내로 지원하였다.

【 수출보험료 지원 실적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업수(개사)	164	182	212
지원액(천원)	163,902	168,544	158,839

4) 통상닥터제 운영

무역실무 능력이 부족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통상닥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통상닥터제는 전문인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무역전문가를 위촉하여 다양한 수출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지원방법은 권역별로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에 각 1명씩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을 순회 방문하여 통·번역, 바이어 발굴,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처리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의 별도 부담 없이 무료로 통상닥터를 지원받는다. 민선8기에는 수출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 통상닥터 운영 실적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업수	112	110	100
상담건수	930	726	602

5) 전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FTA 활용지원센터는 FTA 대응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이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내에 2011년 11월 개소하여 현재 한국무역협회에서 파견된 관세사·원산지관리사 2명이 상주근무하면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 지원 등 FTA와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실적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컨설팅	116개사 671건	125개사 709건	84개사 536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32개사 86건	47개사 90건	61개사 97건
FTA교육	13회 420명	10회 454명	15회 663명

6)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전남도는 통상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준비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번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번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제품설명서, 협약서 등 수출관련 서류 번역과 바이어 방문, 수출상담, 계약체결에 필요한 전문통역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업체당 2회 이내, 1백만원 한도로 지원하였다.

【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실적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건수	15	18	16

7) 무역아카데미 개최

전남도는 도내 중소수출기업이 무역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무역업체를 통한 대행수출에 의존함으로써 위탁수수료 부담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기본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해 해외 바이어와 직거래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력수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대면 교육실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정규 사이버 과정과 기업 맞춤형 온라인 강의를 실시해 기업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 무역아카데미 운영 실적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참가인원(명)	258	138	109

추진부서 **국제협력관 신현곤, 글로벌마케팅팀장 문연안, 담당자 심명섭, 이은정**


KENTECH



제3장 부분별 성과

제4절 산업·에너지

1. 탄소중립 대응 주력산업 고도화
2.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3. 바이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4. 주민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5.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확대
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글로벌 TOP10 공대로 육성

제4절 산업·에너지

1. 탄소중립 대응 주력산업 고도화

1-1.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대응전략 추진

가.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전략 추진

전남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2050 전남도 탄소중립 종합비전'을 실현할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전남의 주력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이다. 전남지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4%를 차지해 '탄소중립, 클린 전남구현' 핵심분야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철강 48.3%, 석유화학 32.7, 조선 0.3%이다.

전남도는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관련 협회, 연구소, 대학, 기업 등 전문가 32명이 참여한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TF'를 구성·운영했다. 그 결과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등 4대 전략 12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2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2030년까지 25%, 2050년까지 80%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철강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탄소 저감형·수소 환원 제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소 환원철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산업은 단기적으로 폐자원 활용과 함께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분해성 고분자 소재 PLA(Poly Lactic Acid)와 같은 석유계 원료 대체재 생산기술을 개발한다. 중장기적으로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조선산업은 단기적으로 선박용 고효율 에너지 절감 설비 실증·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연료전환 시스템 보급·확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첨단 소재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탄소중립 화이트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추진부서 기반산업과장 고미경, 산업정책팀장 장영철, 담당자 김래선

나 탄소저감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전남도는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강화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전략 주력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검토 및 신규 국가사업 기획·발굴을 위해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 자문위원회'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관리가 쉽지 않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수준 진단을 포함한 저탄소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탄소저감을 촉진하고 저탄소 제조 기반 전환을 돕는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향후 3년간 120개(연간 40개) 기업에게 최대 50백만원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조직을 유치하여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갖춰 도내 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기반산업과장 고미경, 산업정책팀장 장영철, 담당자 김래선

1-2. 철강·석유화학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강화

가. 기능성 금속 가공 산업 육성

금속소재산업은 광석으로부터 추출, 제련 등의 과정을 거친 원재료를 정련, 주소, 성형,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부품화 전 단계의 중간재 산업이다.

철강은 다른 소재보다 강도가 높고 저렴하며 가공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조선, 플랜트, 기계, 가전 등 전방산업과 원료, 에너지 등 후방산업간 연관 효과가 매우 큰 국가전략 소재산업이다.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전남 철강산업은 도내 제조업 생산액의 20%를 차지하는 도 대표적인 주력산업이다.

전남도는 탄소중립, 산업구조 변화 및 산업 수요에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구축 사업과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품 경량화에 따라 수송기기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 기반 조성을 통해 마그네슘 소재 부품 상용화를 촉진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금속 가공을 위한 기계부품가공지원센터와 열처리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해 정밀가공, 열처리 공정 기술개발 및 제품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금속소재복합성형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미래 신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고부가가치 철강재 가공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을 통해 중소, 중견 철강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기반산업과장 고미경, 화학철강팀장 이병국, 담당자 전승진

나. 탄소중립 대응 석유화학 핵심소재기술 확보

석유화학산업은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화학 반응 공정을 통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화학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며,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여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석유화학소재 산업을 경쟁력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대단위 석유화학 원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에틸렌 기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생활패턴, 글로벌 수요 등으로 석유화학제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수출 또한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부담이 증가하고 탄소배출량 감축 대응 등을 위한 탄소중립 대응형 차세대 화학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석유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촉매테스트베드 구축, CO2 고부가가치화 실증 플랫폼 구축 등 탄소중립 대응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탄소 저감형 소재 및 기술개발, 제품 신뢰성 향상,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향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2022~2026)을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해 탄소중립 관련 기술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추진부서 **기반산업과장 고미경, 화학철강팀장 이병국, 담당자 강원구**

1-3. 친환경 조선산업 특화 육성

가. 환경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남도는 국제 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대응과 대불산단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2018. 5. 지정)의 활력회복을 위해 친환경 조선산업으로의 다각화 사업 등을 지원 하고 있다. 저탄소 선박에서 무탄소 선박산업 대응을 위해 LNG운반선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친환경 공유플랫폼 구축, 친환경 연안선박 클로스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LNG선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은 2019년도 '전남 조선 해해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향후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서 도출된 과제로서 전남이 미래 친환경조선산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기획한 사업으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252억으로 본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인 -163℃를 견디는 LNG 화물창 국산화를 통해 척당 100억원의 해외 기술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도는 산업위기지역인 대불산단 등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친환경 공유플랫폼 구축(146억원)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다. 선박 건조공정에서 생산장비 자동화와 공정관리 스마트를 통해 좀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형 비계 시험평가체계 구축과 전문화된 가상현실적용 안전교육도 지원한다.

한편, 전남도는 미래 선박의 국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연안선박 클로스터를 구축한다. 전기 차도선 등 연안선박의 무탄소화(450억원), 친환경 혼소엔진개발 및 실증(415억원),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등 친환경 선박 클로스터를 통해 전남에 친환경 선박 해상실증인프라 연구거점 구축되고 친환경 선박실증 기술개발 등 친환경 선박 특화기술 선점과 산업화 기반 조성을 통해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앞으로도 국제 환경규제 대응과 친환경 조선산업으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서부정비창 신설 및 친환경 수리조선 기반 조성 등 친환경 수리조선산업도 특화육성하여 전남이 친환경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우뚝서며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한다.

추진부서 기반산업과장 고미경, 조선산업팀장 나은석, 담당자 김병만

나. 수주실적 기반 인력수급 지원

전남도는 최근 2016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수주절벽 이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등을 통해 당면한 위기대응과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해 집중해왔다.

그 결과 최근 우리 조선업이 경쟁우위를 가진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세계 선박시장 시황이 회복중이고, 전남 조선업계의 수주실적도 크게 늘어 2016년 14척에서 2021년 64척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조선업종 특성상 선박 수주에서 인도까지 2~3년이 소요되어 수주 증가가 경영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남도는 수주실적에 기반한 인력수급 지원 대책을 지난 2020년부터 추진했다.

우선 신규인력 유입과 숙련공 복귀 지원을 위해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760명, 2021년 1,166명을 양성하였고 2022년에는 1,344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현대삼호, 대한조선 등 조선 기능인력 훈련기관에서 훈련 시 175명에게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의 생활비 지원 ▲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2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 ▲ 도내 조선분야 퇴직자 및 청년 구직자에게 무료로 특수용접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추진, 교육생에게는 두달간 훈련수당

(월 40만원)과 채용장려금(월 60만원) 지원 ▲ 중소 조선기업의 용접·도장 등 생산공정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최대 1.7억원 등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친환경자동화 생산장비 전문 인력과 비계 전문가 양성 교육 ▲ 친환경 선박 분야 전문 인력양성 교육 등 6개 사업을 통해 인력 수요에 적시 공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전남도는 앞으로 생산공정 자동화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 사업 확보 등을 추진하고 원활한 내·외국인 인력수급을 위한 절차·제도 개선을 위해 대정부 공동건의 및 부처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추진부서 ○ **기반산업과장 고미경, 조선산업팀장 나은석, 담당자 이기도**

2.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2-1. 데이터 산업 육성 기반 구축

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현재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발달과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세계적 데이터 수요 폭증으로 데이터센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안이 취약한 중국, 재해가 빈발하는 일본, 정치가 불안한 홍콩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전기료가 저렴한데다 ICT강국으로서 우월한 입지요건을 갖춰 글로벌 데이터센터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저렴한 산업용지, 도내 비교 우위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10개소를 유치하고 데이터센터 기반 융·복합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청 3개 실과 11개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아울러, 전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정책 연구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2021년 11월 광양황금산단 부지 105,563㎡(31,932평), 투자기간 2022~2030, 고용창출 200명, 투자액 7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남도는 '광양 데이터센터'를 필두로 동부권에 3개소, 서부권 7개소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데이터센터 기반 IT 융·복합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데이터T/F팀장 김성호, 담당자 김진원

나. 데이터 산업 육성체계 구축

전남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 '원유'로 비유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및 데이터 융합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나섰다.

도는 데이터 기반 신사업 발굴·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데이터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다. 그간 산업 측면에서 데이터를 접근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하였기에 데이터산업T/F팀을 신성장산업과에 신설하여 데이터센터 유치는 물론 전반적인 데이터 산업 육성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AI·데이터 기반 융합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역 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 연계협력 및 연관 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 추진전략과 세부 사업 도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는 지방을 5대 권역으로 묶어 특징과 강점을 토대로 인공지능 지역확산을 도모하는 과기부 '인공지능 지역확산 선도사업'에 에너지를 특화 분야로 삼아 광주·전북과 함께 6천억원 규모의 예타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광양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추진을 위하여 성장동력기획위원회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하였다. 도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더불어 순천대학교 ICT 관련학과 교수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가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 발굴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2021년 10월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2022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데이터산업 육성 방향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분원 유치 및 협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데이터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도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데이터T/F팀장 김성호, 담당자 김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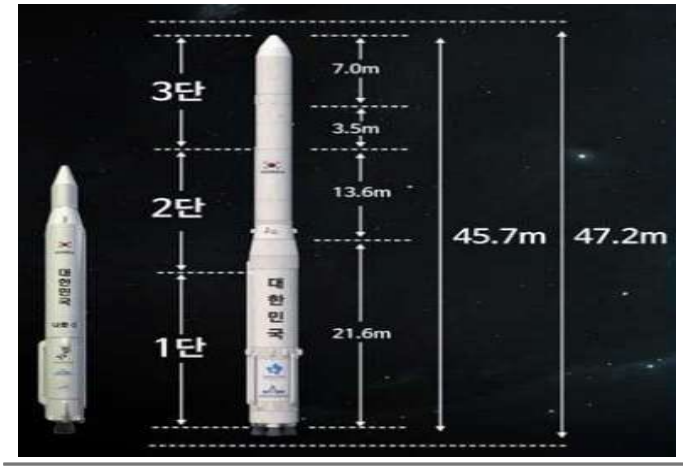
2-2.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

정부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내 최초로 독자개발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조 9,572억원을 투입한다..

누리호 탑재중량은 1,500kg이며 총중량 200톤, 총길이 47.2m, 1단 기준 직경 3.5m, 1단 엔진 추력은 300톤에 이른다.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는 1단은 75톤급 엔진 4기를 사용하고, 2단은 75톤급 1기, 3단은 7톤급 엔진을 사용한다. 세계 7번째로 75톤급 중대형 엔진을 개발하여 2018년 11월에 엔진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으며, 2021년 3월에는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하면서 75톤엔진의 개발·검증을 완료하였다.

【 누리호 구조 및 주요 성능 】

한국형 발사체 구조	주요 성능	
	탑재중량	1,500 kg
	투입고도	600~800 km
	총중량	200 톤
	총길이	47.2 m
	직경(1단)	3.5 m
	엔진추력(1단)	300톤

과기정통부에서는 2021년 9월에 "누리호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누리호 1차 발사일정을 2021년 10월 21일로 확정했다.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전 비행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다만 3단엔진이 조기 연소 종료되어 위성모사체가 고도 700km의 목표에는 도달하였으나 7.5km/s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여 지구저궤도에 안착하지는 못했다.

누리호 발사는 국내 독자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시험으로서 주요 발사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남겼다.

과기정통부에서는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21.11월~12월)하여 원인규명을 실시하고 누리호가 비행하는 동안 2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고정지지부가 풀린 것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누리호를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부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누리호 2차 발사일은 비행모델의 조립 및 성능검증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기 위해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시시기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2022년 5월에서 2022년 6월로 최종 확정했다.

2차 발사가 완전한 성공을 거둔다면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20년간 추진해온 우주강국 도약발판이 마련되고 세계 7대 우주강국*1)의 위상을 갖게 된다.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드론우주항공팀장 김효성, 담당자 양해완

1) 세계 7대 우주 강국 :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최근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 등장과 정부의 아르테미스 계획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우주산업이 급격히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민간 우주기업 지원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2021년 12월에 국회에 발의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 국회 통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민간지원을 위한 우주 분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2022년 하반기에 추진한다.

또한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민간 고체발사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96억원을 투입해 발사장, 이송로,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전남도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고흥 나로우주센터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민간 우주기업들이 발사체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1억원을 투입해 서울소재 날리지웍스에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기획연구를 추진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특화산단 조성, 우주핵심 인프라 구축,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우주과학교육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2031년까지 7개분야 20개 핵심과제에 8,467억원을 투입한다.

【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안) 】

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남분원 신설
②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1,842억원) : 특화산단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등
③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3,085억원) : 연소시험시설, 민간발사장, 조립동 등
④ 우주발사체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2,100억원) : 시험·인증,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⑤ 우주과학교육 테마파크 조성(900억원) : 우주과학 실습·교육·체험 등
⑥ 우주소재부품 사업다각화 및 우주농업 지원(540억원)
※ (정책제언) 우주청 신설 및 전남유치, 나로우주센터 민간개방 관광상품화 등

전남도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031년 10개 이상 발사체 기업을 유치하고 7,26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45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37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발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핵심인프라 구축과 발사체 앵커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국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드론우주항공팀장 김효성, 담당자 양해완

2-3.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가. 권역별 특장점을 활용한 산업생태계 기반 확대

이차전지 산업은 디지털화, 친환경 탄소중립시대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동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세계경제 주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 선박, e-모빌리티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다양한 이차전지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포스코케미칼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 앵커기업이 다수 소재해 있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3개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광역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나주권은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기술혁신 기반을 국내에서 가장 잘 갖추고 있으며 에너지 기업들이 집적해 있다. 이차전지 완제품 제조기업(LCM에너지솔루션㈜)과 전고체전지 생산기업(㈜티디엘)이 입주해 설비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이차전지 완제품, 응용제품 생산 및 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총사업비 231억 원을 투자해 나주혁신일반산단 8,602㎡ 부지에 입고 시험동, 보관동, 환경 시험동, 안전성 시험동 등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연간 전기차 배터리팩 1,000개 이상의 대응 가능한 설비를 도입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이 센터를 거쳐 다양한 고부가가치 응용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두 번째, 광양만권은 포스코케미칼, LG화학 등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기반으로 한 앵커기업이 다수 소재해 있어 국내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앞으로 앵커기업과 연계한 소재·부품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내 5,718㎡ 부지에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33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기업이나 전지 제조사의 원료소재 구매기준에 맞게 재활용 소재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방식의 첨단 재활용 공정설비를 도입하고 표준 공정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 서남권은 이차전지를 대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수요자원이 풍부하다. 8.2GW 대규모 해상풍력과 연계한 대규모 ESS 실증사업, 스마트 어촌 실증단지 구축, 전기선박·e-모빌리티·드론·플라잉카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여 이차전지 대규모 실증 및 사업화 지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으로는 2020년부터 목포시 남항 일원에서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함께 국비 등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자해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4월 국내 최초로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된 순수 전기추진 차도선을 진수하였으며, 2024년까지 시운전 등을 거쳐 실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배터리팩 분야 실증사업을 공동기획하여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남 서남권을 전기추진 동력체 배터리팩 시험·연구 기반의 실증인프라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신소재이차전지팀장 김경연, 담당자 유 호

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차전지 신시장 창출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 규모 증가와 배터리 원재료 가격 상승, 원재료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EU는 2020년 12월 재활용 원료사용과 탄소발자국[2] 공개 등이 포함된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이차전지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전라남도는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신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이차전지 신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전남도 비교우위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재사용 배터리 최대 수요산업인 ESS와 연계한 새로운 사업화 모델 개발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연계 MWh급 ESS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53억원을 투자해 에너지밸리 1호 기업인 보성파워텍㈜과 삼성SDI, 한국전지연구조합 등이 참여한다. 현재 구축 중인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2019~2024)'가 준공되면 나주 동수농공산단에 구축된 태양광 발전설비(500kWh)를 연계해 2MWh급 ESS 실증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차전지 소재 생산 및 재자원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선도 산업단지 연계 협력사업」으로 산·학·연 공동협업형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2년간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해 ㈜포스코케미칼 주도로 「액상형 재활용 황산금속 소재를 이용한 저단가 고용량 하이니켈 NCM 양극재」를 개발하고, 아르고마린토탈㈜ 주도로 「Black Powder로부터 금속추출 공정 없는 단순화된 전구체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등 이차전지 소재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

2) 탄소발자국 :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함

또한 전기자동차 탄소배출량 전주기 관리 및 배터리 데이터 기반의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정부에서 추진할 전기차 데이터 사업을 관계부처에 적극 제안하고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으로, 전남도가 이차전지 분야의 지속적인 신사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전라남도를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신소재이차전지팀장 김경연, 담당자 유호

2-4. 「e-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구축」

가. 미래비행체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비행체(PAV)는 2040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글로벌기업 중심 투자 확대 및 시장선도가 기대된다. 모건스탠리 전망에 의하면 2030년 3,321억달러(385조원) 2040년 1조 4,739억달러(1,709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미래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도심 운용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래 비행체 종합 테스트베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의 권역별로 나누어 동부권은 고흥의 우수한 비행공역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활용한 시험·인증·실증 테스트베드의 생산단지 구축, 중부권은 나주의 한전 등 에너지기업을 활용해 EV·ESS

재활용센터를 활용한 운송기기 융합 부품산업 육성, 서부권은 대학의 드론학과 및 무안국제공항, 기업도시 등을 이용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황으로는 ① 우수한 항공(드론) 인프라 조성 ② 드론기업 입주환경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③차세대 미래비행체 인프라 구축 ④ 육군과 전남도 간 차세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위 사업은 유·무인기 성능 확인 및 실증에 필요한 민간 실증 테스트베드가 구축됨으로써 다양한 시험조건과 환경에서의 성능검증 및 실증의 고도화가 가능하며, 국가 종합 비행성능시험장의 UAM과 eVTOL 인큐베이터로서 입지 확보 및 UAM 시장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활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관련기업이 지역에 유치됨에 따라 첨단미래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종사자와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예상한다.

【 미래비행체 산업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사업 현황 】

① 우수한 항공(드론) 인프라 조성
- 전국 최대 비행시험 공역 : 직경 22km(고흥), 8km(광양)
- 고흥항공센터(2005~2012, 283억원) : 활주로(0.7km), 비행선・소형기 시험동, 착륙장치 등
- 우주항공 첨단소재센터(2005~2012, 193억원) : 생산동, 제품생산 장비 구축 등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2015~2022, 413억원) : 활주로(1.2km), 비행시험 통제센터 등

② 드론기업 입주환경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 무인기(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2018~2021, 198억원)/ 지상4층 25실
-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2019~2022, 127억원)
-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 사업(2020~2023, 164억원)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실증(2021~2022, 8억원, 유인섬 물품배송, 초광역 방역 등)

③ 차세대 미래비행체 인프라 구축
-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장비구축(2021~2024, 295억원)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테스트베드 구축(2021~2022, 100억원)

④ 육군과 전남도 간 차세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 드론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육군 제2작전사령관 고흥 항공센터 방문(2021.2.)
- 육군 교육사령부(2021.4.), 제2작전사령부(2021.6.) 차세대 드론산업 업무협약체결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드론우주항공팀장 김효성, 담당자 정경화

나. e-모빌리티 보급·확산 지원

정부의 미래차로의 전환 가속화 정책 추진 및 도내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하여 2019년, 전남도에서는 'e-모빌리티 보급·확산 중기계획'을 수립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거쳐 도내 e-모빌리티(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농업용 전기운반차) 5,043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도내 e-모빌리티 구매보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환경부)에 더해 도비 추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내 생산 농업용 전기운반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도내 생산 e-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 보급·확산계획을 수립한 2019년부터 2021년말까지 도내 e-모빌리티 보급 실적은 당초목표를 훨씬 초과했다. 전남도에서는

앞으로도 e-모빌리티 신규수요 창출방안을 강구하여 도내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가 보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연차별 보급계획 및 실적 】

(단위 : 대)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5,043	353	1,030	1,530	2,130
실적	4,259	365	1,578	2,316	-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미래형자동차팀장 황재필, 담당자 이경미

3. 바이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3-1 바이오 신약개발 인프라 고도화

가. 국가 백신 신속 개발 인프라 확충

전남은 민선 7기 이후 바이오산업에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포함해 국비, 지방비 등 2,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 연구개발(R&D)와 인프라를 착실히 다져왔다는 평가다.

특히 ▲국가미생물 실증지원센터(836억 원)를 성공적으로 착공 하고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기능확대(427억 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430억 원) 등 굵직한 국가사업 유치에 성공한 것도 손꼽히는 성과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그동안의 축적된 인프라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 의약 → 치유』를 연계한 차별화된 바이오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면역치료제, 치료백신 등 차세대 신약 개발, ▲기능성 천연물 소재의 글로벌 기지화,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할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며, 최종적으로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통해 블루 이코노미를 완성할 계획이다.

나. 면역·줄기세포 기반 치료백신 산업화 인프라 확충

세계적으로 면역세포치료 및 줄기세포 신약 시장이 2022년까지 9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난치성

질환(암, 치매 등)을 극복하는 차세대 신약 소재 개발 및 의료 서비스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왔다.

2019년부터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460억원),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200억원), ▲줄기세포 바이오신약 연구개발·상용화 지원사업(32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데 국내 우위를 점하고, 추후 가시적인 신약 R&D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추진부서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호범, 바이오산업팀장 곽부영, 담당자 모영남**

3-2.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 강화

가. 신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기업지원

1) 인프라 구축

전남도는 민선 7기 이후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15개 사업에 3,472억원의 바이오 R&D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현재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특구는 연구개발(R&D, 생물의약연구센터·전남대 임상백신개발센터) 전임상시험(GLP, KTR헬스케어 연구소·KTR 동물대체시험센터) 임상시험(GCP, 화순전남대병원) 임상시료·상용 생산제조 시설(GMP, 국가미생물실증지원센터·GC녹십자·바이오 벤처기업) 인재양성(전남대 의과대학) 등 백신·생물의약품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全) 단계를 원스톱(one-stop) 지원하는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또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460억원),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 센터 기능확대(427억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339억원),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사업(200억원) 유치에 성공해 실용화 지원・임상・완제 생산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

2) 인프라 활용

전남도는 경쟁력 있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화순 백신산업 특구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 기업에 입주공간과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2021년까지 투자유치 25개사, 투자액 1천여억원, 고용창출 300여명 성과를 기록했다.

2021년 12월 기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내 6개 센터內 92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추후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339억원, 2024년 준공 예정)가 준공되면 추가로 40개 입주공간이 확보되어 도내 벤처기업들의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유망・중견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기업 현황 】

(단위 : 개, 명, 억원)

센터	입주기업 수			고용인원		매출액	
	계	중기청 창업보육	일반	지역	전국	지역	전국
계	92	50	42	446	1,420	466	3,357
식품	16	-	16	144	319	256	855.79
의약	15	7	8	86	508	35.2	1,381.33
나노	21	15	6	84	436	61.94	843.16
천연	20	20	-	83	90	79.5	95
해양	7	-	7	20	20	22.1	22.1
친환경	13	8	5	29	47	11.7	159.7

3) 기업육성 사업

한편, 전남도는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2020년~2022년, 30억원),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2022년, 40억원)을 추진하여, 바이오 의약품 분야 우수 아이디어 발굴에서 기술사업화에 이르는 전 단계 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사업'을 통해 도내 창업기업인 케이블루바이오㈜, ㈜씨앤큐어, ㈜에이엔셀바이오 등 8개 창업기업을 지원해 공정 개발,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2022년 신규사업은 백신 및 면역치료제 창업기업 35개사에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후 사업평가를 통해 기업에 최소 3년 이상의 전주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차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4) 기업육성·지원 성과 및 계획

전남도는 2016년부터 개최해온 화순국제백신포럼을 통해 세계적인 제약社·유망벤처기업, 국제연구소와 투자협약 체결로 화순 백신특구 기업유치 및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기업으로 ㈜셀트리온, ㈜제넥신, 獨프라운호퍼IZI 연구소, ㈜셀리드, 한국프라임제약(주), ㈜미라셀, 브렉소젠(주) 등 총 19개 기업 및 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왔다.

한편, 전남도의 스타트업 기업육성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사내 벤처회사로 출발하였던 연구 기업인 박셀바이오(2020년 9월 코스닥상장), 생물의약센터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와 고용창출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바이오에프디엔씨가졸업기업(2022년 2월 코스닥상장)을 들 수 있다.

민선 7기 전남도는 세계적인 백신산업 전문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앵커기업 100개사, 벤처기업 300개사 유치를 목표로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추진 계획(2021년)을 수립한 바 있고, 2022년부터는 산·학·연·병 연계 바이오 기업육성 협의체 운영, 전남 바이오산업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화순백신포럼 행사 등 기업지원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업들에게 오픈이노베이션(특구 내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기업지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이 신약개발에 자신감을 얻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호범, 백신신약팀장 조석현, 담당자 김효석

3-3.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

가. 거대 R&D 인프라 구축

정부 과학기술 투자가 본격화된 이래 40여 년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수도권과 충북, 대전 등 범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지출액은 지난 20여 년간 1.5% 이하에 머물러 수십 년의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기간의 격차는 전남도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전남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원이 전무하다는 점도 지역 경쟁력 저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거대 연구개발(R&D) 인프라의 경우,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한 7개의 시설이 충청권에, 입자가속기를 중심으로 6개가 영남권에 분포해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거대 연구개발(R&D) 인프라 유치를 통해 전남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장 중점적으로 (가칭)인공태양공학연구소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먼저, 인공태양공학연구소는 세계적인 수준인 우리나라 핵융합 에너지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한국형 핵융합실증로 구축을 위한 연계 핵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년 12월 심의·확정한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마련하였다.

전남도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클러스터에 에너지공기업인 한전, 한전KPS 및 에너지신기술연구소, 한국에너지공대를 통한 전문교원 확보 및 우수 인력양성, 나주시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신산업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제반여건 및 지원제도가 준비된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향후 인공태양공학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부터 한국에너지공대 내 공대를 주관기관으로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남도는 무한하며 청정한 꿈의 에너지인 인공태양을 전남에서 상용·산업화할 첫 단추를 꿨다.

한편, 전남도는 2020년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도민들의 높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유치하지 못하였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학자와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라는 새로운 연구 인프라를 도출하고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남도는 정부에 대형 국책 연구시설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과학계 및 산업계의 지지를 이끌어 내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였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를 기반으로 기초과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기술 연구가 가능한 복합 연구시설이다. 에너지,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 환경 분에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국가 핵심기술 확보에 토대가 될 것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거대 R&D 인프라 구축, 국가출연연구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호범, 연구개발정책팀장 이계명, 담당자 김형균**

나.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선정 제고「관련법」개정 추진

그동안 정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최적의 입지를 선택한다는 취지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연구개발 능력이 확보된 수도권・충청권・영남권 등의 지역으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이 편중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기업 직접도가 높고 산업인프라가 완비된 지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여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도는 정부 사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모든 지역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이와 같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을 통한 연구개발(R&D)사업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지역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도록 법률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도가 정부 연구개발(R&D)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이 필요한 연구개발(R&D)를 적극 발굴, 정부사업에 지원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호범, 연구개발정책팀장 이계명, 담당자 홍영진

3-4. 지역산업 맞춤형 산학협력 추진

가. 지역 특화산업 연계 연구개발(R&D) 지원

1)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한 차원 높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9억원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투자하여 153개 R&D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유망기술 발굴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전략수립',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기업의 연구조직을 육성하는 '연구개발 역량강화', 기업보유 연구성과 또는 이전완료 기술의 사업화를 돕는 '연구성과 사업화', 농어촌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34개 과제 32억원, 2019년 30개 과제 33억원, 2020년 30개 과제 34억원, 2021년 29개 과제 29억원, 2022년 30개 과제 31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신규 인력채용 274명, 논문발표 90건, 지식재산권 확보 142건, 시제품 개발 92건, 기술이전 15건과 국내사업화 매출 52억원, 수출사업화 15만달러의 성과를 거둬 기술의 사업화(상용화) 율이 37.3% 나타났다. 또한 수혜기업의 연평균 매출이 3.28%, 고용 15.8%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 지역 핵심산업 육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추진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인재 유출이 심각해지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다. 지역 핵심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과 대학 간 장벽을 허무는 개방형

교육을 통해 대학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사업이 필요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지자체와 대학 등이 협업하여 지역 핵심산업 분야(에너지신산업, 미래운송기기)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을 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2,210억원을 포함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총 3,156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사업은 1,791억원을 투입해 대학 간 6개 융합전공 개설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기반을 구축한다. 그리고 참여기업 174개, 핵심인력 양성 3,319명, 사업화 기술개발 1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채용 확대 및 기술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364억원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호범, 연구개발사업팀장 노귀석, 담당자 박현섭

나.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연구자 양성

'우수 연구자 양성사업'은 지능형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작물의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품질 제고 등의 기술개발과 우수연구인력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랜드 ICT연구센터 사업'은 순천대학교 주관으로 전국의 5개 대학교와 전남농업기술원, 전남테크노파크, 34개 기업이 참여하여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포함하여 총 21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공학·농학·경제학 융합형 석사급 연구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6개 대학교와 38개 기업의 145명 연구원이 참여했다. 특허출원 24건, SCI논문 14편, 학술대회 논문 56편, 기술표준화 22건, 기술이전 142백만원, 인력양성 38명의 실적을 거뒀다. 2022년에도 석사과정 대학원생 46명이 재학중으로 등록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농업 지능화를 위한 생산 혁신, 유통 선도, 기반 기술 표준화 연구와 산업체 재직자 중심으로 실무 능력을 갖춘 지능·창의 융합형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역 내 중소·중견 기업체에 지능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지역산업체와 지능형 스마트농업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전남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교육·연구·실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호범, 연구개발사업팀장 노귀석, 담당자 박현섭

4. 주민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4-1. 5GW 도민발전소 운영

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대

전남도는 2019년부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을 도민과 공유해 도민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제고하는 5GW 도민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발전소는 전남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민간주도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2030년까지 공공주도형 100MW, 민간주도형 5G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주도형은 섬진강 어류생태관에 500kW 태양광 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연 수익금의 절반인 1,500만원을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에 기탁하고 있다.

민간주도형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영암 금정, 신안 안좌, 신안 자라도, 신안 지도 등 5개소에 459MW 태양광 설비가 설치 완료되어 매년 55억원의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신안 안좌·자라·지도의 경우 주민 6,447명이 매년 1인당 20만원~204만원의 발전수익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다.

또한 고흥 해창만·고흥호 수상태양광, 신안 비금 태양광 등 478MW 태양광 시설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전소가 준공될 시 연간 49억원의 수익을 주민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 5GW 도민발전소 추진현황 】

구 분		발전소명	설비용량 (㎿)	주민참여 정도	연수익 (억원)
합 계			957.5		104.7
공공주도	상업운전	섬진강 어류생태관	0.5	도 인재육성기금 연 15백만원	
	추진중	舊 축산연구소 평동시험장	20	순 수익금의 50% 이상 기탁예정	
민간주도	소계		459		55.5
	상업운전 (5개소)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98	5개마을 123세대	8
		영암 금정 태양광	93	금정면문예체육진흥회 기부	2
		신안 안좌 태양광	96	안좌주민 2,656명	14.5
		신안 자라도 태양광	22	자라주민 279명	3.7
		신안 지도 태양광	150	지도(사옥도)주민 4,025명	27.3
	소계		478		49.2
	추진중 (3개소)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95	포두면민 2,900세대	19
		고흥호 수상태양광	83	도덕면 25개 마을에 기부(3㎿)	5
		신안 비금 태양광	300	비금주민 3,516명	25.2

도민발전소 참여주민은 태양광의 경우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협동조합(5인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

발전소 주변 도민은 자기자본의 10% 이상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에 참여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조례의 권고 기준에 따라 1㎿이상 발전사업에 주민 지분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사업자가 도민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전남도는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해 나가면서 도민 발전소가 실질적인 도민 소득증대와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신재생에너지팀장 음영규, 담당자 김병혼

4-2.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가. 주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전남도는 농지와 임차농을 보호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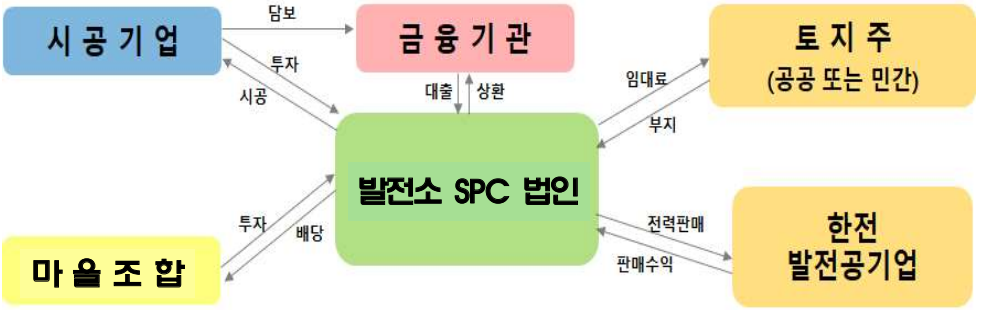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태양광에 비해 부지면적과 공사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으나, 농사와 전기생산에 따른 농지보전(토지 이용률 증대) 및 농외소득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동조합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시공 및 유지관리 기업은 지분의 50% 미만으로 참여 가능하고 수익금 분배 및 발전소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조합 및 발전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조합의 감사로 참여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한 주민조합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발전소 SPC에 참여하는 시공기업에 담보 및 신용보강을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사업구도 】



주민조합이 50% 이상 투자한 3M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연간 약 8천만원의 수익이 주민조합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60가구 기준으로 가구별 월 11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전남도는 금번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익공유형 모델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신재생에너지팀장 음영규, 담당자 김병혼

나.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

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수익 정체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소멸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전남도는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면서 추가적인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하였다.

전남도는 2016년 국내 최초 '영농형 태양광 연구개발 과제'를 시작으로 지난 6년간 국가과제 7건을 수주하여 영농형 태양광 표준 설비 및 설치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벼, 녹차, 배추, 감자, 양파, 마늘, 포도, 배, 무화과, 블루베리 등 10개 작물에 대한 감수율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2020년 농림부에서 공모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재배 가능한 적정 작물의 선정과 재배기법 개발, 작물의 감수율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단지 구축현황】

품종	설비용량 (kW)	설치위치	설치면적 (m^2)	지목	설치높이 (m)	구조물 규격 (mxm)
배	16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288	전	2.7	6 x 6
포도	13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280	답	2.6	2.7 x 2.5
녹차	20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275	전	2.5	5 x 5.5

【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단지 구축사진】



1차년도 실증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하부와 노지에서 배(신화, 3년생)의 생산량 및 당도를 비교분석 한 결과, 생산량은 약 19.1% 감소하였으나 당도는 거의 유사하였다. 이는 일사량 감소로 인해 꽃의 충실도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착과수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

【 배 과수 대상 영농형 태양광 하부 생육특성 및 수량 분석 】

구분	착과수 (개/주)	과중 (g)	총 생산량 (kg/주)	크기 (cm)	당도 (°Bx)	경도 (kg/ø5mm)
태양광 하부	20.8	490.1	10.2	9.3	12.4	4.6
노지	27.0	465.0	12.6	8.9	12.8	7.4
비교(%)	-23.0	5.4	-19.1	4.5	-3.1	-37.8

녹차는 음지성 식물로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작물이다. 보성군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재배한 녹차의 경우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동해로(최저온도 -18.1℃) 인해 노지는 22.2%의 높은 동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태양광 하부 작물의 피해율은 9%로 경미하였다.

그 결과 첫물차 수확에서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수량이 약 93% 가량 증수되었다. 두물차에서는 수확 전 1주일간 95% 차광막 처리를 하여 40.7% 증수되었지만, 세물차에서는 많은 강우로 발생한 과습으로 인해 병충해가 발생하여 13.1%의 수량이 감소했다.

【 녹차 실증단지의 동해피해 조사 및 95% 차광막 도포 실험 】



포도의 경우 실증단지에 식재된 포도는 초년생(1~2년생)으로 당해년도 냉해 및 과습으로 인한 생육 특성 및 수량 분석이 불가능했다.

농작물의 생육은 최소 3년의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하는데, 1차년도 실증을 통해 과수 작목에서는 20% 내외의 생산량 감소가 발생하고, 녹차에서는 평균 41.2% 생산량이 증가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전남 보성군 소재 700평의 논에 100kW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벼를 재배한 결과, 태양광 설치 전에는 쌀 80kg 14가마를 수확하였으나, 태양광 설치 후에는 2.8가마 줄어 1년에 35만원 정도 소득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소득으로 연 84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결론적으로 논 700평 기준 쌀농사 수입 150만원, 발전 수입 840만원을 합해 총 990만원의 수입을 올려, 농사만 지었을 때보다 5배의 소득 증가를 거뒀다.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신재생에너지팀장 음영규, 담당자 김병혼

4-3. 에너지 대전환시대 선제적 에너지 정책 수립

가. 재생에너지산업 선도

전남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국내외 에너지산업 흐름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에너지 전담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하였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해 '전남도 재생에너지 2530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25년까지 30% 확대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전남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4,128MW로 전국 25,937MW 대비 15.9%로 전국 1위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발전량은 4,935GWh로 전국 43,061GWh 대비 11.5%로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연속 국비 287억 원을 확보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에너지정책팀장 조재웅, 담당자 송동하
신재생에너지팀장 박영남, 담당자 김선

나. 에너지 대전환 선제적 대응

전라남도는 2020년 1월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했다.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 전남'이라는 비전 하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5년 39.1%, 2030년 41.5%로 정했다.

2021년 6월에는 전남 RE100[3]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RE100 중점 산단 후보지 검토, 인센티브 개발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전남 RE100 현황 및 전망, 신규사업 발굴을 하였다.

2022년 3월에는 전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산에너지 현황을 분석하여 정부정책 대응전략 수립과 지역 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고용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앞으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안정적 발전·보급 및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에너지정책팀장 조재웅, 담당자 김명헌**

3) RE100(Renewable Electrickty 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5.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확대

5-1.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LPG 배관망 구축

가.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 지원

전남도는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99년 목포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보성 지역까지 공급을 확대하여 1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도에서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매년 약 4억원을 시·군에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확대하는 2개 군에 6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1년 10월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23억원의 도비를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서 지역인 완도, 진도, 신안군은 지리적 여건상 배관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의 어려움이 있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856억원을 투입하여 군(郡)단위 LPG 배관망 구축을 완료했다. 완도읍, 진도읍, 신안 지도읍 8,015세대에는 LPG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현황 】

(단위 : %, 가구)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보 급 률	49.2	51.2	53.1	54.9
보급 세대	423,403	446,682	474,550	495,430
총 세대수	860,303	872,628	893,152	903,108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자원개발팀장 조장훈, 담당자 이행원

나. 농·어촌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전남도는 2019년부터 배관 투자의 경제성이 부족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구축하여 LPG 연료 공급시설을 도시가스 공급 배관처럼 현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유휴부지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다. 세대 각각에 가스 배관, 보일러, 안전장치, 계량기를 연결하여 기존 LPG용기 사용 대비 30~40%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도시가스처럼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4개 마을 1,387세대에 도비 30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LPG 배관망을 구축하였다. 2022년에는 10개 시·군 12개 마을에 도비 17억 4천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보편적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구축마을	세대 수	총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4	1,387	9,800	3,060	5,760	980
2019년	2	100	600	300	240	60
2020년	10	409	3,000	900	1,800	300
2021년	12	878	6,200	1,860	3,720	620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자원개발팀장 조장훈, 담당자 이행원

5-2.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

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추진

전남도는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LPG 용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5년간) 22개 시·군 27,333가구에 LPG 사용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2022년에는 7,645가구를 선정하여 사고에 취약한 LPG 용기 사용 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한다.

【 연도별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현황 】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개선 가구	8,105	10,392	6,795	2,041
총 사업비	1,951	2,546	1,749	510

추진부서 ●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자원개발팀장 조장훈, 담당자 이행원**

나.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전남도는 2015년부터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가스 취급 부주의에 의한 가스연소기 과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부터 2017년까지 23,619가구 3억 5천만원, 2018~2021년까지 27,698가구 4억원을 지원하여 보급을 완료했다. 2022년에는 6,226가구에 1억원을 지원하여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를 보급한다.

도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현황 】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보급 가구	7,306	7,189	6,977	6,226
총 사업비	330	330	330	330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자원개발팀장 조장훈, 담당자 이행원

6.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TOP10 공대 육성

6-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지원

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2021년 5월 13일 한국에너지공대는 초대 총장을 선임하고, 세계적 석학급 교수 등 우수 교수 50명을 채용했다. 2022년 학부 전형 모집에서 수시모집 24:1, 정시모집 95:1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2022년도 입학생 정원은 총 157명으로 학부생 108명, 대학원생 49명이다. 2021년 6월 1일에는 캠퍼스 편제 1단계인 개교핵심시설을 착공하고, 2022년 3월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2년 3월 2일 정상적으로 개교하였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지역, 국가, 인류에 공헌하고 미래 에너지기술을 선도하여 에너지 연구의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 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비전을 건학이념으로 채택했다.

2050년 내에 에너지 분야 세계 Top10 달성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고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에너지 연구의 컨트롤타워로써 세계 경제발전과 에너지 난제 해결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미래형 최첨단 캠퍼스 건설

한국에너지공대는 2022년 2월 개교핵심시설 임시사용 승인 후 3월 2일 첫해 입학생을 맞이하며 개교했다. 행정·강의동 중심인 개교핵심시설은 연면적 5,224㎡ 공간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최첨단 강의실과, 교수실, 도서관, 다목적 Open Space 등으로 구성되었다.

장기간의 캠퍼스 건설로 인한 학생들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학부지 인근에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임대하여 2021년 10월 임대교사 준공을 완료하였다. 에너지신기술연구소 내 공동시험동 전체와 특화시험동 일부 4,000㎡ 규모를 임대하였으며 연구·실험실, 대학원 연구실·강의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캠퍼스 준공 때까지 학생 기숙사로 이용될 공간을 임대하였다. 부영CC 골프텔 및 클럽하우스를 학부생 숙소, 식당의 공간으로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건물을 대학원생 숙소로 활용한다.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에너지 특화·융복합·스마트' 캠퍼스이자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해 갈 계획이다. 에너지 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에너지 자립률 100%에 달하는 국내 최고 친환경·에너지 저감 캠퍼스를 구현한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여 교류와 몰입력을 극대화하며 홀로그램 원격수업, AR/VR 강의실 등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해갈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대 조감도】



【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식】

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교육 기반 구축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 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 국책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연구·교육 기반을 구축한다. 2021년부터 한국에너지공대를 주축으로 한국전력, 혁신도시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과 인공태양공학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공모를 준비했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진 등 에너신소재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획과제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부 예산 편성 주기별로 꾸준히 건의한 결과 2021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총사업비 국비 238억원을 포함하여 425억원의 사업으로 2022년 착수하여 2026년까지 추진된다.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한국에너지공대 내에 6,000㎡ 규모의 에너지신소재 혁신허브센터를 구축하고 총 23종의 연구기자재 및 e-데이터 팩토리(DB), 산업응용(PDI)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산학연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 신소재 기술개발을 및 상용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남도는 매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에 기반한 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연구·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유치해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기획총괄팀장 이용우, 담당자 신태희

6-2. 산학연 클러스터 개발·조성

가. 에너지 클러스터 협력기반 구축

전남도는 에너지밸리를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2022년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전남도, 나주시, 한국전력이 산학연 협력 전담 조직을 구축했다. 전담 조직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클러스터 기반 조성, 입주 기관 유치,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수립

전남도는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2월 산학연 클러스터 종합계획 컨설팅 용역에 착수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주관하며 부지개발방식 및 조성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오는 8월까지 연구한다.

용역과제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부지 40만㎡ 내 산학연지원센터, 공동캠퍼스 Zone, 연구소 R&D Zone, 산업· 벤처 Zone의 구축계획이다.

산학연 지원센터(90천㎡)는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클러스터 기획과 행정·연구지원 및 협력 기반시설 운영, 공동캠퍼스 Zone(80천㎡)은 에너지 유관대학 입주, 학-산, 학-연, 학-학 협력 촉진으로 공동연구동, 공동강의동, 체육관, 입주인원 편의/근린시설 구축계획 등이 포함된다. R&D Zone(100천㎡)은 기업연구소, 공공연구소 등 연구소 집적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며 산업·벤처 Zone(130천㎡)은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지원기능 수행, 중소벤처기업, 정부/지자체 산하 혁신거점(테크노파크)등의 내용이 반영될 계획이다.

추진부서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기반조성팀장 남건, 담당자 송형근

6-3.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가. 레이저 연구시설 국가사업 반영

1) 국가사업 반영 노력

전남도는 2020년 12월 전남 발전을 위한 신산업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였다.

초강력 레이저 구축사업 반영을 위해 레이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를 계속 설득하면서 정부예산 반영 건의를 병행하였다.

이에 정부 예산안에 '미래원자력기술시설·장비구축활용사업'의 내역사업인 '초강력 레이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 예산 5억원을 반영하였다.

전남도는 정부예산 추가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기간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등 국회 설득을 진행하면서 예산 증액에 힘써왔다. 그 결과, 12월 국회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반영하였다. 이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되었다.

2)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기획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강력 레이저 사업의 일환으로서 2022년 2월 '초강력레이저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및 기획연구'를 발주하였다. 타당성 조사 및 최종 목표시설의 사양을 도출하는 개념연구,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

4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후속 연구인 부지선정연구에 전남도가 선정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추진부서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대형레이저 연구시설유치팀장 김유진, 담당자 박용규

나. 국내·외 레이저 기관단체와 협력 강화

1)「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구성·운영

2021년 12월 전남도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산·학·연 전문가들을 추진위원(100여 명)으로 위촉하여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 발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전략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하로 5개의 분과를 두고 있다. 각 분과에서는 레이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성공적 유치'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

구 분		역 할
분과	학술단체	•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명분 조성 • 학회 내부적으로 레이저 기술 개발 필요성 공감대 확산
	연구기관	• 레이저 분야 구축장비 및 연구정보 공동활용 • 관련 전문인력 교류 및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협력
	산업체	• 레이저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공동연구 •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발생 강조
	대학	• GIST, KENTECH을 중심으로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레이저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 발굴 및 구축 논리 홍보
	전문가 그 룹	• 기초 및 응용연구, 산업지원 분야별 정책 발굴 • 사업기획, 개념연구, 예타보고서 작성 및 대응 등
총괄지원반		• 전남도 및 전남TP에서 행정적 지원 •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및 국회 설득 주도
고 문 단		• 레이저를 이용한 지역발전 과제 자문 • 과학 및 산업계 홍보, 대형연구시설 구축 여론 조성

2) 레이저 분야 기관·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전남도는 2021년 6월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민선 6기 동안 관련 분야의 총 2개 대학, 7개 연구기관, 7개 학술단체 협력관계를 맺고 활발한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 성공적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마련'으로 실제로 관련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활용하는 기관·단체들과의 교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업무협약이 연구기관과 학술단체에 편중되었다면 앞으로 전남도는 레이저 연구시설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체들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그 해당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 업무협약 체결 대상 명단 】

구 분	기관·단체	구 분	기관·단체
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학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기관	한국기계연구원
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학술단체	한국광학회
학술단체	한국레이저가공학회	학술단체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단체	한국천문학회	학술단체	한국우주과학회
학술단체	대한용접접학학회	학술단체	한국물리학회(광주·전남)



【업무협약체결식(2021. 6. 16.)】



【 업무협약체결식(2021. 12. 8)】

추진부서 ●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대형레이저 연구시설유치팀장 김유진, 담당자 박용규**

다.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준비

1)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연구추진

2020년 12월부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8월까지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의 청사진 및 구체적 유치 방향을 마련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지선정 공모에 대비하여, 2022년 4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전략 기획을 위한 연구를 발주하였다. 이를 통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최적지로서 전남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유치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2) 유치기반 조성

전남도는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으로 부지 위치를 결정하고, 사전에 부지취득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동의를 받는 등 나주시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자체 지원 및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례안 준비도 추진하고 있다.

3) 레이저 학계 등 홍보 강화

국가적으로 초강력 레이저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남도의 연구시설 유치 의지를 대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레이저 관련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기조강연, 특별세션 구성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한국광학회 및 레이저가공학회, 국제초강력레이저학회(ICUIL)의 행사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되다.



【레이저 시설 구축 포럼】



【광주·전남 총장협의회】

추진부서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대형레이저유치팀장 김유진, 담당자 박용규





제3장 부분별 성과

제5절 문화·관광·체육

1. 매력전남 체류형 관광 실현
2.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3.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4. 스포츠 활성화와 도민 건강증진

제5절 문화·관광·체육

1. 매력전남 체류형 관광 실현

1-1.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가. 명품 관광단지 개발 및 조성

전남도는 명품 숙박시설이 포함된 관광단지 개발 및 투자유치로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관광단지 11개소 중 6개소를 개발하고 있으며 5개소는 계획 수립 중이다. 주요 조성 중인 관광단지로는 여수 챌린지파크와 진도 대명리조트가 있다.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2,300억원을 투자해, 415실의 객실을 포함한 호텔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사 중이다. 관광객들이 체험 놀이를 할 수 있는 루지, 짚라인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진도 대명리조트는 2016년부터 개발하여 2025년까지 3,50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리조트는 2019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단계 사업으로 호텔, 전통문화 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숙박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관광단지로 개발 중이다.

신규 지정 계획 관광단지로는 함평 사포, 광양 구봉산, 고흥 예술랜드, 신안 자은, 여수 무슬목이 있다. 이와 같은 관광단지 5개소에 총 3조 91억원을 투자하여 684만㎡ 부지에 호텔, 리조트, 풀빌라, 골프장 등을 조성 목적으로 투자협약 체결 및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6년까지 신규 관광단지 6개소를 지정해, 공사를 착수하고, 풀빌라 등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숙박시설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명품 숙박 관광단지 개발로 전남의 체류형 관광기반이 구축되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광단지 지정현황 】

사업 시행자	관광 단지명	위치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	
			최초지정일 (최종변경일)	면적(㎡)	최초승인일 (최종변경일)	면적(㎡)
계	6개소			19,443,566		19,443,566
YK 디벨롭먼트	경도해양	여수 경호 경도	2009.12.31 (2020. 4.23)	2,152,973	2009.12.31 (2020.10.29)	2,152,973
㈜HJ매그놀리아 외1	여수화양	여수 화양 장수리	2003.10.30 (2016.10.13)	9,989,691	2006. 5. 4 (2021.3. 4)	9,989,691
여수챌린지파크관광(주)	여수챌린지파크	여수 화양 나진리	2019. 5.17	510,424	2019. 5.17 (2021.11.23.)	510,424
동호㈜	고흥우주해양	고흥 영남 남열리	2009. 5.14	1,157,970	2009. 5.14 (2016. 4. 1)	1,157,970
한국관광공사	해남오시아노	해남 화원 주광리	1992. 9.19 (2012. 1.26)	5,073,425	2014. 6.14 (2021.11.23)	5,073,425
㈜소노호텔앤리조트	진도대명리조트	진도 의신 초사리	2016.12.21 (2019.11.13)	559,083	2016.12.21 (2021.4.28)	559,083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개발팀장 권장주, 담당자 김동윤

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전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과 해양내륙관광을 연계한 남부권 관광개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사)한국관광개발원을 통해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다.

전남도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해 줄 것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영·호남 초광역 연계 프로젝트에 걸맞도록 사업비 증액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해 당초 보다 656억원을 증액한 최종 6,858억의 개발구상이 수립되었다.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전남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5,052억 원, 부가가치 유발 1,767억 원, 일자리 창출 5,521명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구상 용역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국가계획으로 지속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해안과 내륙, 섬 등 전남의 수려한 자연자원이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고 싶은 관광 명소로 조성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 수요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개발팀장 권장주, 담당자 남지은**

다. 역사·생태체험형 도보여행길 조성

전남도는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서려 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한 숲길, 해안길, 들길, 강변길 등을 연결하여 치유와 사색의 힐링 길을 '남도 명품길'로 선정하여 조성했다.

전남도 명품길 1차 사업을 2016년에 공모를 통해 '해남 달마고도'와 '강진 바스락길'을 선정하여 30억원을 투입해 2017년에 개통하였고, 2차 사업으로 2018년부터 '담양호 산막이길', '화순 너릿재옛길', '완도 생일 섬길' 을 40억원을 투자해 2021년에 완공하였다.

2차 사업으로 조성한 '담양호 산막이 길'은 총 18km이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금성산성, 추월산과 이어지는 코스로 주변 경관을 즐기며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산책로이다.

또 '화순 너릿재옛길'은 수레바위, 만연사, 수만리생태숲공원을 경유하여 수만리 양떼목장까지 잇는 총 13km 코스로 구성하여 수려한 숲길로서 방문객에게 치유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완도 생일 섬길'은 금곡리에서 유촌리 간 14.8km로 관광객들이 섬 한바퀴를 돌아보고 힐링하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코스인데 생일 서성항에서부터 학서암, 금곡해수욕장까지 산과 바다를 동시에 만끽 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차 사업은 2021년부터 '고흥 미르마루길', '함평 생태 숲길', '영광 백수 노을감상길'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조성 완료 할 계획이다.

'고흥 미르마루길'은 총 6km를 조성계획으로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용바위, 대밭길, 해안숲, 우천리, 팔영대교를 잇는 코스이다.

'함평 생태 숲길'은 총 24.83km로 함평군 관광거점인 생태공원을 기점으로 군 상수원인 대동댐의 수려한 경관, 농업용 저수지인 청정자연을 활용해 생태 숲길을 조성 중에 있다.

'영광 백수 노을감상길'은 총 7.7km로 백수읍 대신리 대초미 마을 ~ 대전리 묘동마을을 잇는 코스로, 구수산과 봉화령의 등산로를 활용하여 우거진 녹음과 함께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개발팀장 권장주, 담당자 남지은

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민 소득을 늘리고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말 현재 총 12개 캠핑장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추가로 2018년에 화순 고인돌공원 오토캠핑장, 신안 국민여가캠핑장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3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다.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화순군 월곡리 고인돌공원 인근에 있으며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총 41면의 야영사이트를 갖추고 있다. 캠핑장 인근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가 있으며, 선사체험장, 세계거석테마파크 등 선사시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신안 국민여가캠핑장은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자은도 일원에 있으며 총 70면의 야영사이트를 갖추고 있다. 암태도와 압해도를 잇는 천사대교가 개통함에 따라 접근성이 향상되어 캠핑인들에게 여가활동 기회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집과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 임시거처에 머무르면서 자연을 느끼며 배울 수 있는 캠핑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개발팀장 권장주, 담당자 김신표**

마. 관광거점도시 및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육성

2019년 4월 정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 방한 외래관광객 확대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120억원 규모의 계획공모형 사업과 시·군 연계 글로컬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973억 원의 관광거점 육성사업을 공모로 추진했다.

관광거점도시 공모는 2019년 10월~12월까지 기초지자체 24곳을 추천받아 1차 서면심사를 실시해 9곳을 선정했다. 2차 현장심사와 3차 최종심사를 통해 전국 4개 지자체 중 전남 목포시가 선정됐다.

목포시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487억과 지방비 486억으로 총 9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100년의 역사와 스토리를 간직한 근대 역사문화공간과 목포 바다 체험성 강화사업, 야간경관 특화 및 바다 산책로 조성, 갓바위 문화예술항구 육성, 평화광장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등 총 24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목포시를 대한민국 서남해안권의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시킬 방침이다.

균형적 지역관광 발전을 추진하는 '2020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는 전국 8개 지자체 중 강진군이 선정되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맞는 관광개발소재를 정책 추진 방향에 맞게 발굴·기획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60억과 지방비 60억으로 총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세부 사업으로는 체류형 여행콘텐츠 공유 온·오프라인 플랫폼 개발, 고려역사 문화 및 생태 힐링여행 콘텐츠, 예술자원 개발, 유휴자원을 활용한 여행자 거점 공간과 숙박시설 조성 등 총 21개 사업이 추진된다. 강진군의 고유한 자원인 고려역사문화, 자연생태에 기반한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과 삶과 여행이 연결되는 여행의 일상화 구현을 통해 여행자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계획공모형 사업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거점형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체류형 연계 관광 활성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개발팀장 권장주, 담당자 남지은**

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2021년 말 현재 전남도에는 슬로시티로 지정된 5개 지역이 있다. 2007년 12월에 아시아 최초로 담양군, 장흥군, 완도군, 신안군 등 4개 지역이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다. 2019년 6월에는 목포시가 추가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다. 2013년 장흥군이 지정 해제되었으나, 2022년 3월 슬로시티로 재지정되었다. 한편 국내에는 총 17개의 슬로시티 지정 지역이 있다.

슬로시티는 1999년 이탈리아의 그레베 인 키안티(Greve in Chianti)에서 시작된 느린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자연환경·전통산업·문화·음식 등)을 지켜나가는 지역 살리기 운동이다.

완도군은 청산도에 11개의 슬로길 코스를 조성하고 매년 4월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LOW 플라스틱 청산도 캠페인 등 지속가능한발전을 목표로 슬로시티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담양군은 자체적으로 3개의 슬로시티 마을을 선정하고 군민 전문가를 양성해 지역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3년간 슬로시티 농업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주도 공동체 육성과 발전을 꾀하고 있다.

목포시는 외달도·달리도, 1897 개항문화거리를 중심으로 슬로시티 브랜드를 강화하고 슬로시티 이념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9년 만의 슬로시티 재인증을 계기로 슬로투어리즘과 주민역량강화 등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도는 전남의 슬로시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정책팀장 심영희, 담당자 임그린**

1-2. 안전하고 청정한 관광환경 조성

가.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전남도는 지자체와 민간자원 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총 65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 안내소는 도청 앞 관광정보센터, 무안국제공항안내소, 목포역 종합관광안내소, 광주송정역관광안내소, 아시아문화전당내, 순천역 관광안내소 등이 설치되어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언어 불편 해소 및 관광지에 대한 맞춤 해설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도는 관광객에게 정확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36억 6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57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정비하였다.

전남도는 앞으로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전남 관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추진

전남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변화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해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전문가 평가(서면,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화순 도곡온천, 담양 담양호, 진도 회동, 신안 대광, 해남 땅끝, 고흥 우주해양, 영암 성기동, 무안 회산 백련지 등 관광지 8개소에 14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사업내용으로는 관광지 내 노후 시설물 개보수,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방지턱, 경사로, 신호등 등 무장애 환경 조성과 VR·AR 실감 미디어 체험 부스 설치 등이다.

전남도는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전남 관광지의 정돈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도 쉽게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및 체류형 관광지를 위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관광지로서 매력은 있으나 시설 노후화와 관광콘텐츠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노후 관광지를 지속 재정비할 계획으로 2022년에는 3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개발팀장 권장주, 담당자 김동윤**

다. 관광진흥기금 조성·운영

전남도는 전남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도내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및 한옥체험업, 여행업 등 민간 관광업체의 시설 확충 및 운영 자금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55개 업체에 310억원을 지원했다.

2022년도 융자지원 규모는 연 10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신축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0.5%(변동금리) 저금리로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에는 지원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리를 기존 1%에서 0.5%로 0.5%P를 경감하고, 융자지원 한도를 시설자금 기준으로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투자에 도내 관광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와 시군 출연금을 통해 2022년까지 600억원 기금을 조성하여 도내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여행 및 체험업 활성화 등 도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 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금조성액	54,000	24,000	6,000	6,000	6,000	6,000	6,000
융자지원액	30,956	10,460	9,352	2,111	2,132	1,340	5,561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정책팀장 심영희, 담당자 서민성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전남 도내에는 440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 중이며, 그중 외국어 해설사는 69명이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시군 추천을 통해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하는 100시간(이론 50, 실습·현장 50) 교육을 이수하고 약 3개월의 실무 수습 후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다.

도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남의 문화·예술·역사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전남 관광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남도한바퀴 등 광역적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속 시군뿐만 아니라 권역별 해설 및 인접 지역 설명이 가능한 광역 해설사를 양성.교육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문화관광해설을 이용한 관광객의 만족도와 추천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내실 있는 역량강화 교육과 신규해설사 확충을 통해 더 많은 방문객에게 양질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산업팀장 김석훈, 담당자 송다은

1-3. 지속가능한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육성

가. 지역축제 육성 및 산업화

전남도에서는 매년 100여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시기별로 봄(3~5월)과 가을(9~11월)에는 각 40여개, 여름(6~8월)과 겨울(12~2월)철은 20여개로 관광객 활동이 많은 봄·가을 축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도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지역축제의 내용, 운영능력, 개최성과를 평가하고 우수한 축제는 도 대표축제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목포항구축제, 여수거북선축제,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 곡성세계장미축제, 해남미남축제, 무안연꽃축제, 대한민국국향대전(함평),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황룡강노란꽃잔치(장성),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를 도 대표축제로 선정하고, 축제당 2천만원, 총 2억원을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는 보성다향대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이다. 우리 도는 전국 32개 문화관광축제 중 3개가 지정되어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은 문화관광축제를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남군과 진도군 공동으로 명량해전 승리를 기념하고, 이순신 장군과 전라도 백성들의 구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8년부터 '명량대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메인 행사인 명량해전은 AR로 전환했다. 유튜브 채널 명량대첩축제TV에는 온라인 관람객 13만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앞으로 도는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축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 콘텐츠 발굴을 통해 축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산업팀장 김석훈, 담당자 김양일

나. 다양한 관광산업 창업 육성

전남도는 관광산업 저변확대와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체 발굴,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한 관광 신산업 창업 및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관광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있다.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지역 고유 자원을 관광상품화해 창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매년 주민사업체 육성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55개의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43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관광두레는 '글로컬' 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모델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전남 특화 자원의 가치를 주민 주도 관광산업으로 확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관광 신산업 창업 지원 사업'은 2021년 신규 시책으로 3억4천만원 사업비로 IT플랫폼 등의 기술혁신과, 체험콘텐츠, 지역 자원시설 기반 등의 다양한 분야의 예비창업가를 모집하여, 역량교육 및 창업 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했다.

한옥·국악 연계 전통 체험시설, 숲 자산을 활용한 패키지 관광, DIY 기념품 상점 등 총 10명이 창업을 완료하여, 1억 6천 7백만원의 매출과 3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2022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15명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기존 창업자에 대해서는 고도화 지원 등 후속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청춘어람 육성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섬 관광 등 전남 특화 관광 분야의 전문인력도 육성하고 있다.

'청춘어람'은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어촌관광의 요람'이라는 의미로 전남의 청정한 섬·해양 관광 자원을 특화해 우수한 청년 관광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섬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8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섬 맥주' 상품 개발, 워케이션 상품 개발 등 8개의 섬 관광상품을 개발하였다.

2022년도에는 지원대상과 분야를 확대하여 12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전문은 취·창업 지원 등 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산업팀장 김석훈, 담당자 김현철

다.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강화

전남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도의 비교우위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남도여행 으뜸상품', '전남으로 체험여행가자' 등 2종을 운영하고 있다.

'남도여행 으뜸상품'은 미식, 블루투어, 종교 순례, 유네스코 세계유산, 웰니스, 예술·문학 등 전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 중심의 테마로 구성했다.

'전남으로 체험여행가자'는 농어촌, 레포츠, 음식, 웰니스, 문화, 친환경 등 체험코스를 테마로 구성했다.

전남의 비교우위 관광자원의 차별화와 남도만의 독특한 여행상품을 이용해 2019년에는 12,851명, 2020년에는 978명, 2021년에는 7,015명의 관광객이 전남을 찾았다.

2021년에는 도 관광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 TV홈쇼핑 판매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GS홈쇼핑을 통해 라이브 방송판매 3건, 관광객 3,660명 유치, 판매금액 3억 3,165만원을 달성했다.

2022년에는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민의 관광 기본권 보장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전라남도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 KTX 연계 상품 개발, 전남-광주, 전남-전북 연계 관광 코스 개발 등 상품의 다변화로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탑승 인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만 5천명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여행객의 사랑을 받는 전남의 대표 여행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로 달라진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비대면 안심 관광지, 워케이션, 펫여행, 캠핑 등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SNS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속 홍보했다.

그에 따라 전남관광 온라인 플랫폼인 남도여행길잡이의 SNS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팔로워 수가 2019년에는 13만 5천명, 2020년에는 138만 6천명, 2021년에는 148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 새로 개통한 남도여행길잡이 누리집은 방문자 수가 2019년에는 39만 4천명, 2020년에는 75만 1천명, 2021년에는 92만 8천명으로 늘어났다.

【 남도여행 길잡이 방문자 및 SNS 팔로워 수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530,227	2,137,833	2,414,063
SNS	블로그	109,966	1,340,040	1,432,014
	페이스북	17,421	32,946	37,897
	인스타그램	6,700	10,945	12,389
	유튜브	1,731	2,115	3,330
남도여행길잡이 (2019. 6. 개통)		394,409	751,787	928,433

2022년에는 젊은 연령층에 대한 관광 홍보 확대를 위해 전남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공간 마케팅을 실시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과 AR·VR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관광자원 가상 체험 홍보를 위해 12개 시군(목포, 구례,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의 대표 관광지 3곳을 선정하여 AR·VR 모바일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는 관광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여 중국·일본 중심의 마케팅에서 대만·태국·싱가포르·구미주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관광 설명회 및 홍보 마케팅을 실시했다.

2019년 대만 타이베이 국제 관광박람회, 태국 방콕 한류 박람회, 2020년 한-스페인 수교 70주년 국제 관광박람회 등 다양한 글로벌 관광박람회에 참석하여 전남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본 단오 떡 만들기 온라인 체험상품과 동남아·구미주 관광객 대상 라이브 랜선투어 상품을 출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해외 현지 지사와 협력하여 미국 LA 트래블 쇼, 말레이시아 자유여행객 세미나 등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여하며 환경 변화에 맞춘 해외 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2022년에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갯벌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여행상품으로 등록하고, 유네스코 유·무형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 홍보와 이벤트를 실시했다.

해외 SNS는 웨이보, 위챗, 샤오홍슈 등 7개 채널을 운영했다. 영문·중문·일문으로 번역하여 남도의 아름다운 계절별 관광지와 대표축제 등을 카드뉴스·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했다. 특히 중화권 웨이보 채널은 185만 2천명의 팔로워와 소통하여 과학기술통신부가 후원하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1년 올해의 웨이보 대상을 수상했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관광마케팅팀장 조형근, 담당자 박화숙

라.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KTTP) 사업 추진

전남도는 2020년 12월에 문체부 등 9개 부처[1] 합동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를 위해 추진한 KTTP(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었다.

KTTP 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8억원이다. 8개 핵심사업인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교통거점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지자체 시티투어 활성화 ▲스마트관광도시 ▲한류관광 활성화 ▲스마트쇼핑 활성화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12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도는 2020년 12월 민관협의체를 발족하였고, 한국관광공사·한국공항공사 등 실행 주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 순천에서 열린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00명 규모의 대면 콘서트로 개최했다.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철저한 방역과 함께 무사고·확진자 미발생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목포를 빛낸 옛 인물과 함께 주요 명소를 돌아보며, 연극·영상·노래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목포의 숨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로맨틱 선샤인 목포시티투어 상품'은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아울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관광안내소를 확장하고, 여행자센터를 설치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순천시와 무안군 터미널에 다국어 안내판과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또한, 원스톱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여수에 스마트관광도시와 순천에 스마트쇼핑 관광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

1) 외교부,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문화재청

2023년 전남관광플랫폼(J-TaaS, 모바일 앱)사업의 구축이 완료되면 플랫폼 간 연계로 지역 내 교통수단, 숙박 등 관광의 모든 영역에서 예약·결제, 맞춤 여행지 추천, 다국어 안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도 전남 KTTP 사업을 통해 관광 편의성을 제고하고, 숙박·교통 등의 관광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통합관광팀장 방종진, 담당자 정윤미

마. 전남관광재단 설립 운영

전남도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문화와 관광 분야 기능 분리를 통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7월 전남관광재단을 설립하였다.

(재)전남관광재단은 지자체, 민간기관, 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마케팅 및 관광지를 관리하는 한국형 DMO(지역관광추진조직)의 컨트롤타워로 통합적 관광 인프라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가공모사업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KTTP)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및 주민사업체를 적극 육성 지원하였고, 문체부 KTTP 관련 사업 및 관광공사 마이스산업 활성화 등으로 국비 60억원을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남 관광객 6천만명 달성과 관광일자리 1만개 창출 조기 실현에 기대를 모았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관광 분야 위축 및 활동 제약으로 한계가 있었다.

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운영

전남도는 2021년 6월 2022~2023년을 '전라남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전에 나섰다. 방문의 해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을 제작하고 다양한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통해 해양·생태·문화·음식 등 남도만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전남을 국내 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남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원클릭 스마트관광을 목표로 전남의 교통정보 및 관광지 정보와 숙박, 음식점 예약/결재가 가능한 J-TaaS(전남관광플랫폼)를 구축하여,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간체, 번체) 5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J-TaaS 컨설팅 연구용역과 행안부 정보화사업,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고 조달청 계약의뢰 및 입찰공고를 통해 2022년 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2022년 11월까지 거점지역인 5개 시와 무안국제공항 소재인 무안군을 우선 구축하고, 2023년 6월까지 17개 군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첫발을 딛는 무안국제공항의 관광안내소를 확장하고 여행자센터를 설치했으며, 무안공항과 무안·순천 터미널에 다국어 안내판과 키오스크도 설치했다.

아울러, '청정·힐링·안심쉼터, 전남으로 오세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발굴한 17개 신규사업과 기존 7개 사업도 시군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 세계유산 문화자원 관광상품, 호라이즌(horizon·수평선 지평선) 시즌 드라이빙 투어, 2022 전남 캠핑박람회, 남도 EDM 페스티벌, 드론 라이트 쇼, 청년 대상 남도 문화관광 페스티벌, 기차 '내일로' 연계 관광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2019년 처음으로 6,000만 명을 넘어선 6,255만 명으로, 2018년보다 1,182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은 3,877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38% 줄고, 관광지출액 역시 2019년 3조 3,470억 원 대비 1조 7,190억 원으로 48% 감소했다.

전라남도는 '2022~2023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환경 체질을 개선하여 더욱 편하고 안심·힐링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추진부서 **관광과장 박용학, 통합관광팀장 방종진, 담당자 김성효**

2.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2-1. 문화예술 기반 확충

가.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

1) 공립문화기반시설 조성

전남도는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복지 향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립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 말 현재 문예회관 20개소, 공공도서관 71개소, 박물관 40개소, 미술관 11개소, 문학관 11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문예회관 2개소, 공공도서관 14개소, 박물관 1개소, 미술관 2개소를 건립 중이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따르는 공립문화시설 건립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 건립 중인 공립문화기반시설 현황 】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사업기간	규 모 (연면적)	총사업비	추 진 상 황	
				공 정	준공
신 안 문화예술회관	2019~2024	지상 3층 (6,611㎡)	17,300 (도 2,000 군 15,300)	공사중	(2024년 3월 개관예정)
함 평 문화예술회관	2022~2026	지상 3층 (3,000㎡)	17,800 (도 6,000 군 11,800)	부지 선정중	(2026년 12월 개관예정)
목포시 어울림도서관	2019~2022	지하 1층, 지상 3층 (4,000㎡)	12,986 (국 5,795 시 7,191)	공사중	(2022년 10월 개관예정)
여수시	2021~2024	지하 1층	8,704	설계중	(2024년 10월

시 설 명	사업기간	규 모 (연면적)	총사업비	추 진 상 황	
				공 정	준공
어린이도서관		지상 3층 (2,500㎡)	(국 4,352 시 4,352)		개관예정)
순천신대 도서관	2020~2023	지하 1층 지상 2층 (5,689㎡)	18,000 (국 7,200 시 10,800)	공사중	(2023년 6월 개관예정)
순천오천지구 정원도서관	2020~2023	지상 3층 (2,800㎡)	10,000 (국 5,000 시 5,000)	공사중	(2023년 12월 개관예정)
광 양 광영도서관	2020~2022	지상 4~7층 (1,260㎡)	1,250 (국 625 시 625)	공사중	(23년 1월 개관예정)
광 양 금호공공도서관	2020~2022	지상 2~4층 (1,400㎡)	4,500 (국 2,250 시 2,250)	공사중	(2022년 6월 개관예정)
광 양 마동도서관	2022~2024	지상 2층 (1,600㎡)	6,000 (국 3,000 시 3,000)	설계중	(2024년 12월 개관예정)
나 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도서관	2021~2023	지상 2층 (1,900㎡)	6,714 (국 3,357 시 3,357)	설계중	(2023년 12월 개관예정)
곡 성 문화누리도서관	2020~2022	지상 2층 (800㎡)	2,570 (국 1,200 군 1,370)	공사중	(2023년 3월 개관예정)
영 암 공공도서관	2021~2024	지상 3층 (3,900㎡)	17,115 (국 5,028 군 12,087)	설계중	(2024년 9월 개관예정)
영 암 학산도서관	2018~2022	지상 2층 (829㎡)	2,200 (국 1,600 군 600)	공사중	(2022년 9월 개관예정)
무안군립 도서관	2020~2023	복합건물 내 5층 (1,300㎡)	4,000 (국 2,000 군 2,000)	공사중	2024년 1월 개관예정)
신 안 공공도서관	2021~2024	지상 2층 (1,312㎡)	5,300 (국 1,600 군 3,700)	설계중	(2024년 9월 개관예정)
신 안 다목적도서관	2021~2023	지상 2층 (3,052㎡)	4,240 (국 1,800 군 2,440)	공사중	(2023년 12월 개관예정)
여 수 시립박물관	2020~2024	지상 1층 (6,300㎡)	28,000 (국 11,200) 시 16,800)	설계중	(2024년 12월 개관예정)
신 안 동아시아	2020~2023	지상 2층 지하 1층	14,000 (도 5,600,	설계중	(2024.10월 개관예정)

시 설 명	사업기간	규 모 (연면적)	총사업비	추 진 상 황	
				공 정	준공
인권과 평화 미술관		(2,788㎡)	군 8,400)		
신안군립미술관 (인피니또 뮤지움)	2022~2024	지상 2층 (3,513㎡)	15,000 (도 6,000) 군 9,000)	설계중	(2025. 3월 개관예정)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정책팀장 이갑례, 담당자 박형렬**

2) 문화특화 지역 조성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역 역사·문화·관광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및 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 위주의 지원을 통해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2015년 여수 밤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남도내 7개소(문화도시 5개소, 문화마을 2개소)로 확대됐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1개 도시당 국비 연 3억원 내외(지방비 60% 매칭) 5년간, 문화마을 사업은 1개 마을당 국비 연 0.8억원 내외(지방비 60% 매칭) 3년간 지원하고 있다.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연번	시 군	지원규모		사업비		비 고
		문화도시	문화마을	국 비	지방비	
합 계		5	2	7,950	12,000	
1	여수시	1	1	1,740	2,610	2015년 ~ 2019년

연번	시 군	지원규모		사업비		비 고
		문화도시	문화마을	국 비	지방비	
2	순천시	1	-	1,500	2,250	2018년 ~ 2022년
3	나주시	1	-	1,470	2,280	2016년 ~ 2020년
4	광양시	1	-	1,500	2,250	2017년 ~ 2021년
5	담양군	1	-	1,500	2,250	2016년 ~ 2020년
6	해남군	-	1	240	360	2017년 ~ 2019년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정책팀장 이갑례, 담당자 박익태**

3) 법정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가 2021년 12월 전남 최초로 제3차 문화도시에 선정됐다. 목포시는 향후 5년간 국비 99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69억으로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목포시는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라는 비전으로 문화도시센터 구축, 문화도시 R&D, 문화다방, 문화갯물학교, 꼼지락실험실 등 20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현재 담양군이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있으며, 예비 문화도시는 1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 후 2022년 12월 문화도시 선정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정책팀장 이갑례, 담당자 박익태**

4)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시설 조성

유휴공간 문화재생시설 조성사업은 방치된 공장, 창고, 폐건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특정 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며 관광객 유입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어 경제성 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2014년부터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4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7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 중인 곳은 담양 담빛예술창고(2015년),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2017년), 담양 해동문화예술촌(2019년), 광양 예술창고(2020년)가 있다.

특히 전남도 최초로 2014년에 시작하여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한 담빛예술창고는 옛 양곡창고(남송창고)를 리모델링한 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대나무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고 문예 카페로 조성하는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매년 1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담양군의 대표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장흥군 옛 장흥교도소, 나주시 나주정미소, 무안군 옛 무안고등학교, 담양군 봉안정미소로 총 20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신규로 선정된 곳은 나주시 옛 나주극장, 곡성군 침곡역, 죽곡·입면장터의 3곳으로 향후 2024년까지 총 109억원을 들여 문화재생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정책팀장 이갑례, 담당자 박익태**

5) 작은영화관 조성

전남도는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소규모의 영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 10월 장흥 '정남진 시네마'가 처음 문을 연 이후 2021년 담양 '담빛시네마'(8월)까지 개관해 총 10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신안을 비롯한 4개 시군은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을 시작했다.

모든 영화를 전국 동시 개봉하여 지역 주민 모두가 문화 격차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시중 영화관의 60% 수준으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농어촌 지역에 새로 문을 연 영화관이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주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21년 말까지 3년간 누적 관람객은 66만명을 돌파하였다.

도는 앞으로도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도 영화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 작은 영화관 운영 현황 】

시군	영화관명	스크린수	총좌석수	개관연도
곡성군	곡성극장	2	95	2017. 12.
고흥군	고흥 작은영화관	2	142	2016. 2.
보성군	보성 작은영화관	2	96	2019. 4.
화순군	화순 시네마	2	124	2018. 2.
장흥군	정남진 시네마	2	99	2015. 10.
완도군	완도 빙그레 시네마	2	98	2017. 9.
진도군	진도 아리랑 시네마	2	98	2017. 7.
영광군	영광 작은영화관	2	109	2021. 3.

시군	영화관명	스크린수	총좌석수	개관연도
해남군	해남 시네마	2	132	2021. 7.
담양군	담양담빛 시네마	2	99	2021. 8.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산업팀장 이정석, 담당자 조규진**

6) 1읍면 1도서관 조성

전남도는 도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1읍면 1도서관 조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 및 시·군에서 운영하는 48개 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22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71개의 공공도서관과 343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또한, 시·군에서는 매년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조성을 통해 1읍면 1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농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정책팀장 이갑례, 담당자 윤석규**

7)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운영

전남도는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우수한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남도소리울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남도 전통국악의 전승·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남도립국악단의 상주 공간을 위해 2015년 5월 30일 개관했다.

남도소리울림터는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236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5,16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558석의 관람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습실, 분장실, 의상·소품실과 예술 전문극장으로 무대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공연환경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 남도소리울림터 외·내부 】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정책팀장 이갑례, 담당자 박익태**

전남도립국악단의 토요공연(매주 토요일 오후 5시)과 다양한 예술분야의 수준 높은 기획·초청공연이 진행되며 전문 예술인과 단체를 위한 대관사업을 운영했다.

또한,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국악강좌를 열어 우리 고유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다.

개관 이후 2021년 12월말까지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 외에 대관공연(88회, 30,701명 관람)과 기획·초청공연(60회, 16,324명 관람), 중앙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예술단체 공연(20회, 6,261명 관람)을 실시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강좌(2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앞으로 남도소리울림터는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견인 역할과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이 남도 관광의 명소가 되어 명실상부한 한국 전통예술의 중심이 되도록 기여할 것이다.

8)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전남도는 1810년 신유박해 이후 지방으로 피신한 천주교인들에 대한 대표적 박해 사건인 정해박해(1827년)의 진원지인 곡성성당 및 곡성읍 묘천리 일대 복원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2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곡성읍 소재 곡성성당을 정비하고,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일대 35,000㎡에 다목적복합시설, 주막, 가마터 체험장, 옹기가마 경당, 전시관 등을 조성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정약전의 박애와 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신안군 흑산면 진리 일대 42,368㎡에 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묵상의 집, 전시시설 조성, 선교사의 집, 문화공간, 방문자 센터 등을 포함하는 정약전 평화의 길을 조성하고 있다.

신안군 증도에는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대한민국 개신교 최초 여성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가 설립·담임했던 증동리 교회의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신안군 임자도에 기독교 체험관을 건립하여 임자 진리교회 48인 순교지 터 등 주변 기독교 유적지와 연계해 성지순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에는 선교유적 발굴 및 복원을 통해 근대 기독교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79억 원을 들여 목포시 온금동 부지 1,053㎡에 전시관, 근대역사 디지털관, 기획전시실, 체험실 등을 조성하고 역사와 체험의 배움 공간, 시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정책팀장 이갑례, 담당자 박익태

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1) 통합문화이용권

전남도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와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2019년에는 1인당 연 8만 원 지급되던 것이 2020년에는 연 9만 원, 2021년부터는 1인당 연 1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다. 사업 예산도 2019년 68억 원, 2020년 77억 원에서 2021년 98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02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부에게만 지원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수혜자 전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도민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21년부터 카드 자동재충전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았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카드가 재충전 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정책팀장 이갑례, 담당자 윤석규**

2)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행복전남 문화지소'

'행복전남 문화지소'는 2018년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계획에 따라 읍 단위 이하 행정구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해 현장의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만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실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으로 실시하며 1개 군(郡)마다 최소 1개의 지소를 조성하고 전문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및 컨설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협력 연수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교육사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행복전남 문화지소 운영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연번	운영지역	사업비		비 고
		국.도비	지방비	
합 계		250	250	
1	고흥군	50	50	3년차
2	해남군	50	50	3년차
3	무안군	50	50	3년차
4	진도군	50	50	2년차
5	신안군	50	50	3년차

※ 1개 군(郡) 추가 선정 예정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예술진흥팀장 권광일, 담당자 양승원**

3) 생활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2012년 주 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건전한 주말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

교육 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혜 범위를 확장했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교육사 등과 연계하여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9년에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만 3~5세 유아 및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문화예술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도별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아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연수 프로그램 등 시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예술캠프는 장애인 및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 전남도 서민배려시책으로 처음 추진했다. 지역 내 초·중학생 포함 장애인, 섬 지역 학생들까지 확대하여 예술치유 및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회에 걸쳐 60여명이 참가하여 총 180명이 교육 체험을 하였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고, 2022년에 하반기에 문화소외지역 초·중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연도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건, 개)

연도	수혜인원	지원금액	운영단체 수
계	4,794	2,852	125
2018	1,618	812	39
2019	1,005	564	23
2020	806	579	21
2021	650	370	17
2022(계획)	715	527	25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예술진흥팀장 권광일, 담당자 양승원**

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다.

2010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012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2년부터 재단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운영 역량을 갖춘 단체, 기관, 시설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운영단체 선정절차는 서류 평가, 현장점검, 인터뷰 심의로 진행되며, 선정된 단체의 행정 및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단체 대표자 간담회, 전문가 현장평가, 평가워크숍, 공동성과발표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 도민의 다양한 일상 속 문화향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 연도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개)

연도	수혜인원	지원금	운영단체수
계	1,887	1,408	90
2018	440	234	22
2019	304	212	12
2020	244	261	13
2021	439	290	20
2022(계획)	482	411	23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예술진흥팀장 권광일, 담당자 양승원**

5)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학교예술(국악)강사 지원사업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소양,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에 예술(국악)강사를 파견하여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전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의하여 학교를 선정하고 한국국악협회전남도지회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131명의 예술강사가 335개 학교에서 67,454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22년에는 357개교 112명의 강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 및 예술적 경험을 증대했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병행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실적 】

(단위 : 개교,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계획)
학교 수	343	336	335	357
강사 수	119	112	131	112
수혜자 수	108,998	118,586	67,454	42,170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예술진흥팀장 권광일, 담당자 김미선**

6) 남도 문학벨트 조성

전남도는 도내에 산재하여 개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학자원을 상호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학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에는 '문학길 투어', '문학체험', '문학교실', '백일장대회'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문학살롱', '문학콘서트', '문학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4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문학 페스티벌', '문학기행 북토크'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3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을뿐만 아니라 목포시에서는 전국 최초 '문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학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2022년에는 문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문학관등록심의회를 구성하여 도내 사립문학관 1개소를 현장심의를 거쳐 등록했다. 한편, 도내 문학단체 및 문학인을 대상으로 개인당 3백만 원, 단체당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소외된 문학 분야에 창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7)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전남도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비영리법인 43개소 설립을 허가하여 문화예술 관련 사업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공연 문화예술 단체의 전문성 인정, 세제 해택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법인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79개(법인 25, 단체 54)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무용 2개, 미술/시각 11개, 전시 1개, 연극 11개, 음악 27개, 전통 9개, 기타 18개 등이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정책팀장 이갑례, 담당자 윤석규

다. 문화예술 행사 진흥

1) 전남 민속예술축제 개최

전남민속예술축제는 남도의 전통 민속예술 발굴·전승에 초점을 맞추고, 멋과 흥이 어우러진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문화 축제로 1966년 '남도문화제'로 시작하여 2009년부터 '전남민속예술축제'로 명칭이 변경됐다.

2019년도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남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각 시·군 대표 28개팀(일반 18, 청소년 10)이 참가했다.

민속놀이, 농악, 민요 등의 경연을 펼쳤으며 일반부에서는 고흥군 마동마을 당제와 벅구놀이가, 청소년부에서는 진도군 고성 진도북춤이 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미개최되었고, 2022년도에는 장흥군 실내체육관에서 10~11월경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와 청소년 대상팀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전남도를 대표해 참가하게 된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예술진흥팀장 권광일, 담당자 김미선

2) 전남도립국악단 국제교류를 통한 전통문화 전파

전남도립국악단은 중국, 일본 등 전남 자매결연 지역을 대상으로 남도문화를 소개·홍보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저장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에 3회의 공연을 실시했고, 2019년 남도풍류-산시성 전라남도 교류에 2회의 공연을 실시했다.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 남도 전통 문예 강습은 매년 실시하였으나 2019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이다.

2022년 하반기에는 중국 장시성, 산시성 등에 풍류 공연을 실시하고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에 남도 전통 문예를 강습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예술진흥팀장 권광일, 담당자 김미선**

라. 전통문화 발굴·보존 및 창조적 발전

1) 종가문화 활성화

전남도는 전남 종가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전통문화 발굴·보존 및 종가문화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종가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까지 전남 종가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를 통해 104개의 종가를 발굴했다. 2022년 4월말 현재 지난 3차례 조사한 직계 10대 이상 종가에 미포함된 종가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10대 미만 소종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전문연구진을 구성하여 30개 종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내용에는 종가의 역사, 민속, 건축, 문헌, 제례, 음식, 생활문화 등 유·무형의 문화자원에 대한 현황조사와 가치평가 등이 있다.

전남 종가에는 인물, 정신, 의례, 생활도구 등 차별화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전통문화 유산이 종합적으로 간직되어 있다.

이에 종가문화의 전통이 살아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활용하기 위해 고택·종갓집 활용사업과 전남 고택과 주변 명소를 연계한 관광형 상품으로 남도고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전남 종가와 고택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발굴·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연, 의식주, 의례, 전통문화, 역사 체험 등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남도문예팀장 최정춘, 담당자 정연화

2) 전통 공예산업 육성 지원

전라남도는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전남 명품공예창작소'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예산업 집중 육성 및 공예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예창작 지원과 관련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 공예인 및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3년간 연속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시군 공모를 통해 전남 우수공예품의 전시·판매전 등 공예품 판촉행사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출품을 위한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을 52년째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와 자매결연 도시인 장시성과 도자기 분야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상호간 우호 증진과 더불어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남도의 제안으로 시작된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판매전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우수한 공예 자원의 발전과 브랜드 상품 개발 및 후진 인력양성 등 공예산업 육성 거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산업팀장 이정석, 담당자 조규진

3) 전통문화 발굴·보존을 위한 단체 지원

전라남도는 전통문화 발굴 및 보존을 위해 지역문화사업의 수행 주체인 전라남도문화원연합회 및 시군 문화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 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남 내 문화원은 각 시군별 1개소씩 총 22개소가 있으며, 문화원 간 상호교류 협력 및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도 단위로 문화원연합회가 설립·운영 중에 있다.

전라남도는 지방문화원 지원을 위해 2021년 5월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으며, 2022년 4월에는 문체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전라남도는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위해 문화원연합회에 문화원의 날 행사, 향토문화 학술대회, 전남문화 발간, 향토문화상 시상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시군 문화원에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방문화원이 전통문화의 발굴, 계승, 발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원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정책팀장 이갑례, 담당자 박익태

마. 도립미술관 건립 운영

2022년 3월 22일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은 개방성, 혁신성, 다양성을 토대로 세계 현대미술과 교류하겠다는 포부로 출발했다. 약 4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양시 옛 광양역사 일대 1만7,465㎡ 부지에 연면적 11,58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됐다. 9개의 전시실과 3개의 수장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온·항습·조명 등 해외 선진 미술관에 견줄 만한 수준의 시설을 갖췄다.

또한 공립미술관다운 독보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주요 전시장을 지하 1층에 집중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때문에 관람객은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선 1층 로비에서 지하로 내려 갔을 때 여느 미술관에서는 보기 힘든 층고 6m 높이의 전시장 시설에 감탄을 자아낸다. 덕분에 평면 회화뿐 아니라 초대형 현대미술작품 전시도 가능하다.

도립미술관은 개관 기념 기획전을 시작으로 전남 출신으로 한국미술사를 빛낸 작가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의재와 남농', '소전 손재형', '태양에서 떠나올 때' 등을 선보여 전남미술의 위상을 세웠다.

또한 동시대 및 국제적 현대미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해 '로랑 그라소', 'AES+F', '리움 순회전'를 통해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와 세계 미술사를 장식한 거장들의 명작을 선보였다. 전남미술과 국제 현대미술의 흐름을 관통하는 개관전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는 도민과 국내 미술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2022년 3월 현재 누적 관람객은 9만여 명에 이른다.

또한 개관전과 기획전 이외에 도립미술관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건 바로 미술관의 소장품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인 만큼 양적으로 다른 공립미술관과 비교할 수 없지만 남도 미술의 정신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미술관은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작품수집 추천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발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현재 도립미술관이 수집한 작품은 총 267건이다. 구입예산은 개관 준비단계 시기에 50억 원, 개관 이후 매년 20억 원에 달한다. 대표 작품으로는 전남 출신으로 한국미술사의 거장 허백련, 허건, 천경자, 김환기 작가의 작품이 있으며, 백남준, 한묵, 김창열 등 한국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공모 구입을 통한 꾸준한 작품 수집은 양질의 소장품 확보를 통한 미술문화 유산의 보존과 작가 창작 지원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5년간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컬렉션의 질을 높이고 지역 작가들의 창작을 지속 지원할 것이다.

또한 도립미술관은 작품 기증을 유도하는 데도 적극 앞장섰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구입에만 의존하면 컬렉션의 볼륨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그림이나 희귀자료 등을 기증받아 미술관의 아카이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화제가 되었던 '이건희 컬렉션' 기증뿐만 아니라 사회 저명인사들로부터 기증 행렬이 이어졌다. 가람화랑 송향선 대표, 유홍준 교수, 김정헌 작가, 사업가 박형선 대표 등의 기증으로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전남미술사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과 국제심포지엄도 진행하였다. 전남미술사 연구를 위한 구술 연구자료집 '남농 허건' 발행과 전남미술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 미술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공립미술관의 정체성 확립과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과제를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전남도립미술관의 운영을 통해 예향 전남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남미술문화를 견인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지속할 것이다.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뛰어넘어 국제

미술계에 전남 미술을 소개하고 세계 현대미술의 생생한 현장을 도립미술관에서 소개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전남도립미술관장 이지호, 관리팀장 정선호, 담당자 강재훈

2-2. 수묵의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전라남도는 시서화창(詩書畫唱)의 전통문화예술을 꽃피워 온 예향(禮鄕)이다. 특히 남종화의 화맥이 시작된 곳으로 공재 윤두서와 소치 허련, 남농 허건 등 수묵의 거장들의 숨결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처럼 훌륭한 문화유산인 수묵의 정신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8년 국내 최초로 전통회화를 테마로 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개최했다. 행사는 대중성과 예술성 부문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 수묵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두 번째로 열린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전통수묵을 초월한 다채로운 수묵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주전시관인 목포와 진도뿐만 아니라 광주를 포함한 도내 곳곳에서 특별전과 기념전을 함께 운영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당초 목표였단 관람객 30만명을 뛰어 넘는 41만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방문했으며, 사전예약제 및 강화된 방역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국제행사의 모범사례이자 비대면 전시 관람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앞으로도 수묵이 K-컬쳐를 선도하고, 세계 속에 빛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하도록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지속 추진하여 문화향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나. 수묵의 국제교류 및 세계화를 위한 해외전시

동양의 전통 예술을 대표하는 '수묵'을 매개로 아시아와 소통하고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 및 국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한국 수묵 해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공통 문화유산인 수묵을 매개로 아시아가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처음 개최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상하이에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홍콩한국문화원 공동으로 '수묵, 동방수묵지몽(水墨, 東方水墨之夢)'이라는 주제로 수묵 작가 30명(60여 점)이 참여한 전시회였다.

2019년에는 홍콩한국문화원과 함께 9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묵의 조형과 확장'이라는 주제로 한국 작가 20인, 홍콩 작가 10인 등 총 30명이 참여한 「2019 한국-홍콩 수묵 교류전」을 개최하여 전통 수묵기법에 충실한 작품 및 입체적 예술로 진화하고 있는 수묵의 발전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 49점을 전시했다.

2021년에는 한국 수묵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28인의 작품을 전시해 전통 수묵화 기법을 활용해 현대적 요소를 담아낸 한국 수묵의 미(美)를 선보였다.

앞으로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 및 인지도 제고는 물론 한국 수묵의 해외교류를 통해 세계 미술계에서 새로운 장르로 부각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남도문예팀장 최정춘, 담당자 정연화

2-3. 문화콘텐츠산업 성장기반 구축

가.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기반 조성

2017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총예산 212억원을 투입하여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9개 광역자치체에 설치·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진행한다.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지역 콘텐츠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내 강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역외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지역 콘텐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 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장비를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이 IP를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남 글로벌게임센터」와 「콘텐츠코리아랩」 등을 병행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산업팀장 이정석, 담당자 박수영

나. 지역 문화자원 융합콘텐츠 개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에 ICT를 접목한 융합콘텐츠 개발로 지역 문화산업을 키우고 있다. 도내 관광지에 AR·VR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전시관·박물관에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몰입형 콘텐츠를 설치했다.

2020년 강진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에 청자를 주제로 한 몰입형 콘텐츠를 설치하고 포토존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곡성 기차마을 내에 곡성의 생태환경을 소재로 한 체험형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다.

2020년 여섯 연예인의 좌충우돌 순천 여행을 그린 웹 예능과 순천을 배경으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드는 연예인들의 차박 여행기를 제작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순천시를 알리는 콘텐츠로 활용했다.

앞으로도 전남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지역 문화축제·공연 등에 ICT를 접목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지역 관광 인프라 조성과 동시에 콘텐츠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산업팀장 이정석, 담당자 박수영

다. 영상문화 확대 및 영상물 촬영 유치

전남도는 영상문화의 확대를 위해 작은 영화관조차 들어갈 수 없는 섬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산간오지 및 섬 등 문화소외지역에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동시에 문화나눔 프로그램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1년까지 총 254회 운영했으며 34,670명의 도민이 관람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도내 관광지 등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TV 드라마 등 영상물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5건의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를 하였고, 전남에서 2회 이상 촬영을 한 영화·드라마 제작사에 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에 한해 도내 소비액의 50%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2021년 1월 시군, (사)전라남도영상위원회와 함께 영상물 제작 및 촬영관련 정보 제공·지원, 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영상 관련 교육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단체와 연대·협력, 영상 관련 기반 조성 및 촬영지 관광자원 활용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한편, (사)전라남도영상위원회는 2003년 순천시·여수시·광양시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이후 동부권을 중심으로 영상 관련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사단법인 이사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사진을 개편하고 전남의 22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영상문화 확대 및 영상물 촬영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문화산업팀장 이정석, 담당자 조규진

3.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3-1.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및 미래역량 강화

가. 마한역사문화권 조사 연구·정비

마한은 기원전 3세기부터 5세기 말까지 영산강 유역 일대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고대 왕국으로 전남도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전남도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 뿌리의 근간인 마한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민선7기 들어와 본격적인 마한유적 조사.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4월에는 '전남의 마한유적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도내 11개 시.군과 8개 유관기관이 '마한문화권 지역 공동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한문화권 발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갔다.

2020년 5월에는 여러 차례의 정책 건의를 통한 각고의 노력 끝에 '마한'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마한문화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게 이르렀다.

2020년 11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한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마당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 영산강유역 마한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고대 해상왕국 마한을 품은 전남, 새로운 기상과 도약'이라는 비전 선포식을 가지고, 국제 학술대회, 도내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시상을 통해 마한 역사문화의 대국민 홍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2021년 6월에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는 대규모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영산강과 국립나주박물과 일대에서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를 개최하여, 3개 시도 대선과제 채택을 건의하였고, 마한특별전, 고대마한뱃길 재현, 자전거 대행진 등 부대행사를 통해 마한 복원 및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 외에도 미발굴 마한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였고, 담양 태목리 생활유적, 영암 내동리 쌍무덤 등 마한 유적에 대한 국가사적 승격을 적극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도는 전남의 본류인 고대 마한유적의 체계적인 발굴. 정비와 국가사적 지정 등을 통해 국가정책 반영과 역사적 가치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나. 마한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남도는 국내·외 연구기반 확대를 위한 종합적 자료를 제공하고, 마한문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한역사문화가 집약된 디지털 아카이브 '마한역사문화 전라남도 기록보관소'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2019년 5월 '마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6월 행정안전부와의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를 거쳐 1년여간의 용역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구축을 완료하였다.

"잠들었던 고대해상 왕국 마한을 깨우다"라는 주제 아래 학술자료, 일반자료, 디지털 안내판 등으로 구성된 누리집에는 학위논문 258종,

일반논문 1,125종, 단행본 393종, 보고서 369종, 발굴 유적·유물 사진자료 1,160종 등 3,600여 종의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안내판 콘텐츠를 통해 유적지 사진과 상세설명을 비롯해 오디오 음성안내 서비스를 지원하며, 유튜브와 연결해 VR 파노라마 영상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유적지에 가지 않아도 관련 정보 습득은 물론 현장감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집대성된 방대한 자료를 자유롭게 자료의 검색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마한의 문화 유산적 가치를 홍보하고, 유산의 대중적 향유를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추진부서 문화자원과장 유영광, 문화자원정책팀장 이미라, 담당자 김진영

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의 보수·정비는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 유산을 원형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2022년 2월말 현재 전남도에서는 총 1,306점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1) 지정문화재 보유 전국 4위

문화재 가치를 검토하여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 전남도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와 함께 문화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임에도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2년 2월 현재 1,306점(국가지정 530, 도지정 776)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수량으로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후손에게 전승·보전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남도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 국가·도지정 문화재 지정현황 】

(단위 : 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08	1,109	1,124	1,213	1,219	1,236	1,244	1,248	1,275	1,306
국가지정	369	374	377	461	462	475	486	490	501	530
도 지 정	739	735	747	752	757	761	758	758	774	776

2)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

매년 지정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학술조사와 고증을 통한 원형복원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332건, 도지정문화재 154건, 총사업비 71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문화재 모니터링 및 일상 관리를 통하여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미한 훼손은 신속히 복구하는 등 총 873개소에 대한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투자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27	563	445	704	446	778	461	651	486	718
국가지정	275	468	279	581	321	655	312	523	332	560
도 지 정	152	95	166	123	125	123	149	128	154	158

추진부서 **문화자원과장 유영광, 문화자원보존팀장 문인식, 담당자 배중호**

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활동 지원

전남도에는 53종의 무형문화재가 있으며, 이 중 기·예능 보유자가 50명, 전수교육 조교 18명, 기능 보유단체 26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존·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에게 전승 지원금 지원과 공개행사비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등을 통해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조상의 삶과 얼이 깃든 소중한 유산이 원형을 보존하면서 현대인의 생활 속에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지정 무형문화재 현황 】

연번	문 화 재 명	지정일	보유자	종 별	소 재 지
1	거문도 뱃노래	1972. 1.29.	정경용	선소리	여수시 삼산면
2	남도 노동요	1977.10.20.		선소리	
3	화순 한천농악	1979. 8. 3.			화순군
4	현천 소동패놀이	1982.10.15.	정홍수	예 능	여수시 소라면
5	광양 궁시장	1986. 9.29.	김 기	기 능	광양시 광양읍
6	나주반장	1986.11.13.			나주시
7	참빗장	〃	고행주	기 능	담양군 담양읍
8	우도농악	1987. 8.25.	김동언	설장고	담양군 봉산면
		〃	문한준	상 쇠	영광군 영광읍
9	진도북놀이	〃		예 능	진도군 지산면
		〃	박강열	예 능	〃 지산면
10	진도만가	〃	이희춘	예 능	〃 의신면
		〃	김기선	만 가	〃 지산면
		〃	오주창	만 가	〃 지산면
11	우수영 부녀농요	1988.12.21.	이인자	예 능	해남군 문내면
12	장산도 들노래	〃	강부자	예 능	신안군 장산면
13	가거도 멸치잡이노래	〃			〃 흑산면
14	담양 죽렴장	1990. 2.24.	박성춘	기 능	담양군 봉산면
15	송천 달집태우기	1994. 1.30.	김재철	세시놀이	순천시 월등면
16	해남 진양주	〃	최옥림	민속주	해남군 계곡면
17	진도 전통홍주	1994.12. 5.			진도군

연번	문 화 재 명	지정일	보유자	종 별	소 재 지
18	고흥월포농악	〃			고흥군
19	완도장좌리당제와당굿	1995.12.26.	강양대		완도군 완도읍
20	판소리	1996.10.24.	김향순	동편제흥보가	여수시 미평동
		〃	김순자	〃	목포시 용당동
		〃	박방금	동편제수궁가	목포시 산정동
		〃	추정남	판소리고법	해남군 해남읍
		〃	안부덕	동편제 춘향가	목포시 석현동
		〃		1인창무극 심청가	영광군
21	고흥한적들노래	1996.10.14.	박반심	설소리	고흥군 도덕면
			백형길	설소리	고흥군 도덕면
22	탱화장	1996.10.14.		불 화	
23	순천 구산용수제	1997. 5.15.		세시놀이	순천시 주암면
24	시조창	1999. 7. 5.		시조창	
25	남도잡가	2001. 9.27.	강송대	잡가	진도군 의신면
26	곡성 죽동농악	2002. 4.20.	박대업	상쇠	곡성군 곡성읍
27	청자장	2004. 2.13.	이용희	청자제작	강진군 대구면
28	옹기장	2013.12.19.	이학수	채바퀴타래기법	보성군 미력면
29	강진 신전들노래	2005.12.27.		들노래	강진군 신전면
30	진도 소포걸군농악	2005.12.27.	김내식	설북	진도군 지산면
				설농기	진도군 지산면
31	조도 닻배노래	2006.12.27.	조오환	풍장	진도군 의신면
32	무안 상동 들노래	〃	고윤석	들노래	무안군 무안읍
33	전남의례음식장	2008. 4.11.		의례음식	전남 일원
	장식음식	〃		장식음식	무안군 현경면
34	순천 삼설양굿	2008.12.26.		전통굿	순천시 대룡동
35	낙죽장	2009.3.20.	이형진	낙죽	담양군 봉산면
36	보성 강하주	2009. 7. 3.			보성군
37	담양 황금들노래	2009.12.31.	남귀희	선소리 들노래	담양군 수북면
38	가야금 산조	2010. 5.27.	선영숙	김병호류가야금산조	화순군 이서면
39	담양 선자장	2010. 5.27.	김대석	접선장	담양군 담양읍
40	악기장	2011. 9.20.		장구제작	장성군 장성읍
41	조선장	2013. 8. 5.	조일옥	전통한선 제작	신안군 흑산면
		〃	심정후	〃	목포시 서산동
		〃	마광남	〃	완도군 완도읍
42	화순도장리밭노래	〃	김금순	밭노래	화순군 도암면
43	신안 씻김굿	〃		씻김굿	신안 일원
	장산도 씻김굿	〃		씻김굿	신안군 장산면
		〃	진금순	씻김굿	신안군 장산면
	비금도 씻김굿	〃	유점자	씻김굿	신안군 비금면
44	영암 갈곡들노래	2013. 8. 5.	보존회	들노래	영암군 신북면

연번	문 화 재 명	지정일	보유자	종 별	소 재 지
45	화순 우봉들노래	2013. 8. 5.	보존회	들노래	화순군 춘양면
46	초고장	2013.12.19.	임채지	짚풀공예	곡성군 오곡면
47	목조각장	2013.12.19.	김규석	다식판, 떡살제작	담양군 대전면
48	광양 진월 전어잡이소리	2013.12.19.	보존회	전어잡이소리	광양시 진월면
49	고흥 혼맞이굿	2015. 8. 6.	김명례	혼맞이굿	고흥군 도화면
50	가야금 병창	2017.8.24.	김은숙	가야금 병창	장성군 황룡면
51	해남 씻김굿	2021.12.29.	이수자	씻김굿	해남군 황산면
52	각자장	2021.12.29.	곽금원	각자	여수시 여서동
53	대목장	2021.12.29.	김영성	대목	곡성군 옥과면

추진부서 **문화자원과장 유영광, 문화자원정책팀장 이미라, 담당자 김현아**

마. 지역 문화자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남도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문화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주민 자긍심 제고에 노력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등재 추진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972년 협약이 체결된 이후 2022년까지 179개국 1,154개소가 등재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5건, 잠정목록 12건으로 이 중에서 전남이 세계유산 4건, 잠정목록 5건이다.

전남의 세계유산은 '화순 고인돌유적',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한국의 서원'(장성 필암서원)이 있으며 2021년 7월 26일 등재된 한국의 갯벌(순천, 신안, 보성)은 우리나라에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두 번째 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전남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5개소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 13개소 가운데 40%에 이른다.

자연유산은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문화유산은 강진 고려청자 요지, 염전, 낙안읍성,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등이 있다.

강진 고려청자 요지는 고려시대 청자가마 대부분이 분포된 지역으로 1994년에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래 청자박물관 개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12년에는 발굴조사와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염전은 신안과 영광 천일염전을 대상으로 2010년에 잠정목록에 올라 학술조사와 비교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행정중심지인 읍치(邑治)이자 중세의 역사 도시로서 500년의 지속성을 지닌 정주 공간으로 가치가 뛰어나, 2012년에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국제학술대회, 민속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잠정목록 등재가 논의되고 있는 유산으로는 완도 청산도 계단식 경관 등이 있으며, 한국의 갯벌 등재 구역 확대(여수, 고흥, 무안), 강진 고려 청자요지 명칭 변경(한국의 고려청자 요지)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도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문화자원과장 유영광, 문화자원정책팀장 이미라, 담당자 이상석**

3-2. 도민 역사 인문자원 향유기반 마련

가.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전남도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의 건립 기본방향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남도 의병 역사공원(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의병의 구국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수행했다.

용역 결과 각종 사례조사와 분석을 거친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구상안은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23-3일원 36만㎡부지에 총사업비 44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8,300㎡ 내외 규모로 검토되었다. 전시 컨셉은 '모두가 모두를 기억하는 노정과 방법'으로 정하고, '이름 모를 이름 의병', '남도 의병 연대기', '무명의 위대함', '오늘의 의병' 등 4개 전시 공간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2025년 6월 1일 의병의 날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전시계획(안) 】



건축설계공모는 해외 저명한 건축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적 감각의 작품을 설계에 담아내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로 진행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도는 2025년 6월 1일 개관을 목표로 5,000점의 남도 의병 유물 구입과 전시.연구.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는 역사박물관과 더불어 의병을 소재로 한 역사공원 조성, 영산강 다야뜰 공원 조성 등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반영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문화자원과장 유영광, 의병박물관건립팀장 박병남, 담당자 이재연**

나. 남도 정신문화 계승.발전

전남도는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확산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남도 역사 · 인문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내 교육기관 등에 배포했다.

2019년에는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2019.7.9.)하여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인문학과 인문자원 발굴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도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에 총 8억원을 분담하여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사업기간은 2018년~2022년으로 5년간이며 선사시대~현재까지 총 33권(총설 1권, 통사 29권, 자료집 3권)으로 편찬된다. 원고량만 약 5만2천매에 달하며,

참여하는 집필진은 6개 분야 247명이다. 발간된 책자는 전국의 도서관, 교육기관 등에 배포된다.

한편, 전남도는 도내의 역사적 인물 · 사건, 유적지와 관계된 역사적 사실에 야사(野史)를 첨가한 「전남 역사이야기」를 도 누리집에 연재했다. 2017년~2022년 동안 주1회(매주 수요일), 연간 약 54회 연재됐으며, 연재된 이야기는 엮어서 책자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문화자원과장 유영광, 의병박물관건립팀장 박병남, 담당자 지수녕**

다.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

전남도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 수군의 주 활동 지역으로 이순신 관련 유적, 사료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전란(7년)시 이순신의 호국정신과 지역 의병장, 민초들의 활약상을 현창하여 대 국민 호국 및 전남을 역사의식의 고취 교육장으로 승화하기 위해 사업비 4,867억원에 34개 사업을 기획하여 이순신 호국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다.

2017년 12월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부터 2022까지 5년간 4,867억원(국비 2,967, 도비 470, 시군비 1,430)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2020년부터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지방이양 되어 국고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수의 사업을 균특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한 34개 사업 중 실제 추진하는 사업은 17개 사업이며, 그중 도지사 공약사업은 8개이다. 도지사 공약사업은 목포 고하도 역사유적공원 조성, 여수 선소유적 거북선 테마공원 조성, 곡성 능파 설산

역사공원 조성, 보성 이순신장군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해남 울돌목 체험형 관광명소화 조성,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장흥 회령진성 복원 정비, 강진 전라병영성 복원 사업이다.

【 17개 추진사업 】

(단위: 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사 업 비
1	목포 고하도 역사유적 공원 조성	40,000
2	여수 선소유적 거북선 테마공원 조성	10,000
3	순천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조성	35,000
4	광양 이순신 호국항쟁 현창 사업	36,300
5	곡성 능파 설산 역사공원	3,000
6	고흥 절이도해전 승전지 관광자원화	10,000
7	보성 이순신장군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30,000
8	의향의 도시 보성의 의병길 조성	10,000
9	해남 울돌목 체험형 관광명소화 조성	6,300
10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23,500
11	진도 명량대첩지 관광지 활성화	2,800
12	신안 장산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3,000
13	여수 방답진성 복원	20,000
14	장흥 회령진성 복원 정비	13,000
15	강진 전라병영성 복원	8,800
16	영광 법성진성 복원 정비	6,400
17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	9,000

추진부서 **문화자원과장 유영광, 의병박물관건립팀장 박병남, 담당자 지수녕**

3-3. 남도 특화 경관 조성

가. 남도특화 경관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전남도는「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시군대표 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남도특화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호기심을 끌 만한 특징 있는 생활환경 등 남도의 문화가 어우러진 숨은 명소를 찾아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 발전을 위한 디자인 모델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한 지역주민、전문가 참여형 사업으로 지역의 핫플레이스(Hot-Place)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여행수요가 국내수요로 전환되고 웰빙을 위한 소소한 여행, 모바일에 의한 여행플랫폼 변화 등에 따라 언택트 시대에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맞춰 맞춤형 경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문화자원과장 유영광, 경관조성팀장 박경애, 담당자 정승종

나.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전남도는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및 건강한 간판의식 확산을 위해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과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의 통합적 이미지를 높이고 간판개선 지역과 건물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등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민·관 합동 및 교차 단속을 실시해 매년 정비하고 있다. 도와 시·군,

옥외광고협회,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연 2회(상, 하반기) 실시하여 도민 의식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시군	사업량 (개소)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수익금)	도 비	시군비
2017~2019	20개 시·군	164	1,890	-	945	945
2020	6개 시·군	11	192	-	58	134
2021	17개 시·군	78	913	396	256	261

【 간판개선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시군	사업량 (구간,m)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시군비
2019	2개 시·군	2,642	1,100	500	600
2020	3개 시·군	2,130	1,700	730	970
2021	2개 시·군	1,975	1,000	600	400

추진부서 문화자원과장 유영광, 경관조성팀장 박경애, 담당자 윤세훈

4. 스포츠 활성화와 도민 건강증진

4-1. 체육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진흥

가. 전국종합대회 출전 및 실업팀 창단

전남도는 1945년 9월 전남체육회 설립 이후 76년 만에 자율성과 경영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전남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체육회 법인화를 추진해 2021년 6월 완료했다.

2021년 10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19세 이하로 축소하여 개최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남도 선수단은 금 21, 은 15, 동 23개 등 총 5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메달 순위는 이전 대회보다 5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하여 전남 꿈나무 선수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또한 2022년 2월에 개최된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금 16, 은 10, 동 6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종합순위 7위라는 성적을 거두었고, 5관왕 1명, 4관왕 2명, 3관왕 1명 등 많은 종목에서 다관왕을 배출하는 등 그동안 동계종목 불모지로 하위권에 머물던 전남체육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전남체육 진흥과 학교체육-실업팀 간 연계육성을 위해 도·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노력한 결과 2018년도 9월 함평군청 남녀 레슬링팀을 시작으로 2022년도 2월 화순군청 여자 복싱팀까지 시·군 4개 팀이 창단하였고 전라남도청은 2개 팀을 창단하였다.

특히,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시에는 창단지원금 1억원을 지원하고 우수선수를 확보하여 직장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영입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19년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펜싱 금 1, 동 1, 카누 은 2, 동 1, 우슈 금 1, 은 1, 동 1개를 획득하여 전남의 전국체전 순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근대5종팀의 서창완 선수는 202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녀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전남도청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

앞으로 학교체육과 도·시군 직장운동경기부간 연계 육성을 강화하여 지역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력 향상을 위한 팀 창단 및 연고팀 유치 현황 】

연 번	내 용	창단 및 유치일
1	함평군청 레슬링팀(남여) 창단	2018. 9.
2	전남도청 남자 우슈팀, 여자 스쿼시팀 창단	2019. 2.
3	나주시청 남자 육상팀 창단	2019. 5.
4	장흥군청 남녀 육상팀 창단	2020. 7.
5	화순군청 여자 복싱팀 창단	2021. 12.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체육정책팀장 김준철, 담당자 김은정**

나.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남도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도·시군 단위로 개최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였다.

또한 도민 수요에 따라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57명의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시군에 배치하였다. 또한 계약직 신분이었던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부터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종 대회가 취소되는 등 도민의 체육 활동이 위축되었다. 다행이 2022년 4월말에는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전남종합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졸업,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체육활동을 중단했던 장애인 체육선수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지역 내 각종 기업에서 체육선수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현재까지 7개 기업에 101명이 취업하였고, 2018년에는 장애인 실업팀이 창단되어 2022년 현재 4종목(론볼, 골볼, 축구, 배구) 4개 팀(27명)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한 종합 10위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2022년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서는 전남도 소속 김민영(스키)선수와 박영순(스키) 선수가 선수부와 동호인부에서 각각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고, 전라남도는 역대 가장 많은 8개의 금메달을 수상했다.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 결과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 시·도 성과평가' 부문에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1위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운영에 필요한 기금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전남도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독려하여 2019년 무안군, 2020년 강진군, 2021년 담양군·완도군·영암군·진도군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고, 현재 14개 시·군의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면서 장애인체육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 최근 생활체육 주요행사 개최 현황 】

행 사 명		추진시기	장 소	추진실적
전남생활체육대축전(2019년)		10.25.~10.27.	영암군	22시·군 / 20천명
도지사기(배) 생활체육대회		연중	도내일원	12개 대회 / 9,314명
종목별 동호인대회		연중	도내일원	26개 대회 / 9,240명
어르신 생활체육대회(2019년)		4.9.~4.10.	무안군	8종목 / 2,000명
전국생활체육대축전(2019년)		4.25.~4.28.	충북 일원	60개종목 / 1,000명
전남-서울 생활체육교류 (2018~2019)	참가	2018.9.28.~ 9.30.	영암군	4개종목 / 70명
	초청	2019.10.24.~ 10.26.	영암군	4개종목 / 70명
전남-경북 생활체육교류(2019년)	참가	5.15.~5.17.	경북 상주	5개종목 / 70명
	초청	6.3.~6.5.	영암군	5개종목 / 70명

※ 전남생활체육대축전 등 주요행사는 코로나 영향으로 2년간 개최 취소

【 도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

시군	배치인원	시군	배치인원	시군	배치인원
목포	17	여수	16	순천	20
나주	12	광양	12	담양	10
곡성	12	구례	12	고흥	10
보성	11	화순	13	장흥	11
강진	7	해남	12	영암	11
무안	10	함평	12	영광	11
장성	10	완도	5	진도	7
신안	16				

【 연도별 장애인체육선수 취업 지원 현황 】

연도	인원	세부내용
합계	101명	7개 기업
2019년	12명	한전KDN(12명)
2020년	55명	한전KDN(7명), 대신기공(10명), 포스코(6명), 호반건설(8명), 한전KPS(19명), 포스코ICT(5명)
2021년	34명	한전KDN(10명), 호반건설(3명), 한전KPS(5명), 포스코ICT(6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0명)

【 최근 5년 시·도 장애인생활체육 성과평가 결과 】

연도	순위	사 업 비			지원개소수
		계	도비	기금	
2018년	1위	234,000	130,000	104,000	113개(교실62, 클럽51)
2019년	13위	338,000	150,000	188,000	139개(교실85, 클럽54)
2020년	미실시	252,000	252,000	127,000	146개(교실100, 클럽46)
2021년	1위	417,000	290,000	127,000	163개(교실112, 클럽51)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체육정책팀장 김준철 , 담당자 임수민**

다.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전남도는 도내 소외계층 청소년 및 장애인의 스포츠 복지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3,500여명에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세부터 18세 연령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내 거주 장애인에게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도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액은 2021년 1인당 8개월간 최대 월 8만원에서 2022년 1인당 10개월간 최대 월 8만 5천원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생활체육 활동에 소외된 도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우리 道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현황 】

(단위 : 천원, 명)

연도	사업비				수혜 연인원
	계	기 금	도 비	시·군비	
2018	1,633,280	1,143,296	146,995	342,989	19,166
2019	1,882,080	1,317,456	169,387	395,237	21,562
2020	1,891,200	1,323,840	170,208	397,152	21,480
2021	2,234,880	1,564,416	201,139	469,325	25,432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생활체육팀장 김종원, 담당자 이태기**

라. 지역 내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전남도는 2015년도부터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인 체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대도시형 9억원, 중소도시형 6억원, 학교연계형 4억원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클럽은 설립부터 5년간 국비를 지원받는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1개 시·군 1개소 운영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개소의 스포츠클럽을 확충하였다. 현재 도내 공공스포츠클럽은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19개소, 학교연계형 17개소로, 전국 최다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운동선수 발굴 및 육성, 체육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스포츠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공공스포츠클럽 현황 】

연도	형태	클럽명	개소수
2015	중소도시형	세한스포츠클럽	1개
2016	중소도시형	곡성스포츠클럽	1개
2017	대도시형	여수스포츠클럽 순천스포츠클럽	2개
	중소도시형	나주스포츠클럽 광양스포츠클럽	2개
2018	중소도시형	영광스포츠클럽 진도스포츠클럽 강진스포츠클럽 해남스포츠클럽 보성스포츠클럽	5개
2019	중소도시형	구례스포츠클럽	1개
2020	대도시형	목포스포츠클럽	1개
	학교연계형	장흥축구스포츠클럽 여수테니스클럽 순천형씨름스포츠클럽 강진군 청자 F.C 강진에이스 테니스스포츠클럽 장성야구스포츠클럽 함평야구스포츠클럽 순천유도스포츠클럽 고흥축구스포츠클럽	9개
2021	중소도시형	장성스포츠클럽 화순스포츠클럽 장흥스포츠클럽 신안스포츠클럽 무안스포츠클럽 완도스포츠클럽	6개
	학교연계형	해남야구스포츠클럽 함평골프스포츠클럽 무안축구스포츠클럽 보성비봉마리나스포츠클럽 보성복싱마스터스포츠클럽 구례반달곰스포츠클럽 목포낭만배구스포츠클럽 영암육상스포츠클럽	8개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생활체육팀장 김종원, 담당자 문가영**

4-2. 수요자 중심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

가. 공공체육시설 확충

전남도는 도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확보해 공공체육시설 공급을 확대·지원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되는 본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문화활동 공간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스포츠 복지서비스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도내 22개 시·군에 1개소씩 건립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43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체육활동 차별을 해소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이고 6개소를 건립하고 있다.

【 국민 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건립연도	개 소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43개소	258,924	117,800	141,124
2018 이전	24개소	171,561	74,400	97,161
2019~2021	19개소	87,363	43,400	43,963

전남도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가족·자연 친화적인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체육공원 지원사업, 노인건강 체육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생활 체육공원, 노인건강 체육시설 건립 지원 실적(2018~2021)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개소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32개소	22,218	6,151	16,067
생활체육공원	4개소	3,700	1,110	2,590
노인건강 체육시설	28개소	18,518	5,041	13,477

한편, 여수 웅천 국민체육센터, 순천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신안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는 제로에너지 친환경 시설로 건립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여수 웅천 국민체육센터와 순천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순천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2023년 8월, 신안 반다비 체육센터는 2023년 12월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체육시설팀장 정경숙, 담당자 강유하**

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

전남도는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폭염, 비, 미세먼지 등 자연과 환경적 요인 등의 장애없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기는

여건을 마련하고 흥미로운 체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재미있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남도는 도내 13개 시·군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35개소 보급을 지원하였다. 현재 도내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32개소가 운영 중이고 3개소가 설치 준비 중이다.

【 최근 4년간 지원 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지원년도	개 소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35개소	2,400	1,200	1,200
2018	13개소	936	468	468
2019	7개소	504	252	252
2020	9개소	540	270	270
2021	6개소	420	210	210

전남도는 2022년 기금 2억 8천만원을 8개 학교에 지원하여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더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통합온라인 플랫폼을 설치하여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교 간 실시간 대항전도 개최하는 등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도내 초등학교와 공공체육시설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 체력을 향상시키고 스포츠에 대한 흥미도를 증진시키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체육시설팀장 정경숙, 담당자 강유하**

4-3.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강화

가.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1)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최

전남도는 2014년부터 매년 7억원(도비 2.5, 군비 4.5)을 투입하여 국수(國手)의 고장인 강진군, 영암군, 신안군 일원에서 한국기원과 전남바둑협회 주관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개최했다.

2021년 제7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12월 9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개막식과 국내 프로 토너먼트전, 폐막식과 세계 프로 최강전이 영암군과 신안군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스포츠대회가 대부분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2년 만에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중국과 대만, 일본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온라인으로 대거 참가하여 국내 프로전은 박영훈 선수, 세계 프로 최강전은 변상일 선수가 우승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아마추어 바둑인들의 대면 행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국수산맥바둑대축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전 세계 아마추어 바둑동호인을 대상으로 국제아마추어 바둑교류전과 전국 청소년 바둑대회를 온라인으로 펼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대회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다.

바둑TV와 K바둑방송을 통한 대회 생방송으로 바둑 팬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했고, KBS, YTN 등 공중파 뉴스와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SNS, 블로그 등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남의 특산품과 관광지를 홍보하는 등 대회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한국을 대표적인 바둑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2021~2023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유치·개최

전남도는 2021~2023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3년간 전남도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이 대회는 BWF(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대회의 하나로 199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고 등급의 배드민턴 국제대회이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하는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우리 지역 순천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24개국 300명의 국내·외 정상급 선수가 대거 참여하였으며, 주요 경기 장면은 전 세계로 TV로 중계되었고 국내외 동호인과 관광객이 경기장을 찾아 세계적인 선수들이 펼치는 경기를 직접 관람했다.

이번 대회는 수준 높은 경기로 배드민턴의 위상을 높였으며, 전남도의 대회 영상이 20개국에 송출돼 관광 전남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남도는 2023년 대회 역시 전남을 찾는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체육정책팀장 김준철, 담당자 김은정

3)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유치

전남도는 2008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후 15년 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유치하였다. 당초 2022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년 연기되어 2023년에 개최된다.

2023년 10월에 개최할 전국체육대회는 49개 종목(정식 46, 시범 3)으로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포함한 도내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31개 종목(정식 29, 전시 2)으로 도내 11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이에 도내 체육시설 인프라의 확충으로 참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270억원을 투입하여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을 포함한 5곳의 경기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21개 시·군의 49곳의 경기장에 445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약 4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국내 최대의 스포츠 축제로의 성공개최를 위해, 관광·문화·예술을 연계한 행사 개최와 맞춤형 홍보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숙박, 음식, 교통지원 등 철저한 준비로 체육대회 기간 전남도를 방문할 손님맞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전국체전기획단장 나영수, 체전기획팀장 이용진, 담당자 오성환**

나. 전국단위 및 민간공모 스포츠대회 개최·지원

전남도는 스포츠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단위 및 민간공모 스포츠대회를 개최·지원하고 있다.

도는 남도골프 인프라 홍보 및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년 인지도가 높은 프로 대회와 초중고 학생부 대회 및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골프관광객 유치와 골프 꿈나무 육성에 노력했다.

2006년부터 도지사배 전국 초등학생 골프대회와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개최를 전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초·중·고 골프연맹에서 주관하는 3~4개의 학생부 골프대회 개최로 매년 초·중·고 골퍼와 학부모와 지도자 등 1만여명의 골프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인지도가 높은 KLPGA 드림투어를 지속

유치하고 있으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또한 매년 2~3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골프대회 유치는 연간 2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도내 골프장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12억 6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108개 대회에서 2020년 8개 대회, 2021년 21개 대회로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2022년부터는 상당 부분 회복되어, 무안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총 101개 대회를 공모해 62개 대회가 확정되었다.

전남도는 민간공모 스포츠대회에도 7억 8천 5백만원을 지원했다.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20개 대회에서 2020년 5개 대회, 2021년 10개 대회로 급감했으나 2022년 17개 대회가 확정되었다.

도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등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종목별 기본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대회 추진사항을 확인하였다.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대회를 안전하게 개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전국규모 골프대회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예정)
지원 건수	7	8	8	7
지원 금액	148	160	164	130

【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예정)
지원 건수	108	8	21	62
지원 금액	785.7	50	430	528

【 민간공모 스포츠대회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예정)
지원 건수	20	5	10	17
지원 금액	443	62	180	284.4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생활체육팀장 김종원, 담당자 문가영**

다. 동·하계 전지 훈련팀 유치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등 안전상의 이유로 해외 전지훈련을 갈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지훈련팀은 동계 비시즌 기간 중 전력 극대화를 위해 국내 지역을 물색하였고, 그중 전남은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남은 특히 동계기간 중 전지훈련 장소로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전남의 따뜻한 겨울과 친환경적인 자연 요소가 운동선수들이 훈련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겨울철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먹거리, 최적의 스포츠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동·하계 전지훈련과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시·군에 있는 운동장, 체육관 등의 공공 체육시설 정비 및 부대시설 확충,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했다.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체육회와 합동으로 전지훈련 유치전략 종목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최근 3년 3,886개 팀의 108,632명이 전남을 찾았으며, 이로 인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비록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전지훈련 유치에 소극적인 시군이 있었으나, 도민의 안전을 고려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전남도는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등 더욱 많은 전지훈련 선수들이 전남도를 방문하도록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최근 3년간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실적 】

▸ 동계 전지훈련 유치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동계	2020년 동계	2021년 동계
연 인 원	599,545	280,615	257,207	61,723
인 원	69,810	32,479	32,833	4,498
팀 수	2,901	1,399	1,286	216
경제효과	50,961	23,852	21,862	5,246

▸ 하계 전지훈련 유치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하계	2020년 하계	2021년 하계
연 인 원	228,607	101,062	118,493	9,052
인 원	38,822	12,770	24,896	1,156
팀 수	985	432	485	68
경제효과	19,431	8,590	10,072	769

* 경제효과 산출기준 : 1인 1일당 84,999원(전남발전연구원 2019)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생활체육팀장 김종원, 담당자 이태기**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이!
부르면 OK!
동네
기동대'
보일러, 전자제품 등이
작동되지 않나요?
, 장판, 창틀 교체 등이
필요한가요?
변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한
어려운 이웃이 있나요?



제3장 부분별 성과

제6절 인구·보건복지

1. 인구감소 최소화와 안정적 인구구조 회복
2.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전남
3.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4.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5.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환경 조성
6.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등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극복

제6절 인구·보건복지

1. 인구감소 최소화와 안정적인 인구구조 회복

1-1. 인구 구조 변화 대응체계 구축

가. 2040 젊은 세대 유입·정착 모델 발굴

전남도는 시·군 특성에 맞는 젊은 세대를 유입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주·창업·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 커뮤니티 운영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고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해 시·군 특화사업 58개를 발굴하여 74억 3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유휴공간 180개소 재생산, 프로그램 참여 15,914명, 취·창업 202명 등 청년 인구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매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0개 사업에 46억원을 지원받아 육아통합지원센터, 청년센터 및 쉐어하우스 등 지역 내 육아·청년공간 등 다양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2021년에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청년작가들의 폐교 리모델링, 청년공방 조성 등을 통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도는 향후 젊은 세대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사업을 확대하여 전국 인구 유입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인구정책팀장 정혜정, 담당자 송은송

나. 인구문제 극복 인식개선 교육

전남도는 인구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인구에 대한 도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인구 및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 등 다양한 주제로 인구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인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애니메이션 제작(2018년), 초등학생 대상 마술로 배우는 인구교육(2019년) 및 인구교육 홍보영상 제작(2020년), 청・장년 대상 육아 및 가족생활 교육(2021년) 등 대상별 특화주제를 선정하여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 교육을 실시해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인구정책팀장 정혜정, 담당자 송은송

1-2. 청년이 공감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

가. 청년정책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도 청년정책협의체인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발굴・제시함으로써 전남의 청년정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에서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를 운영해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 제안서 작성 등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전라남도 청년센터는 청년 거점공간인 시군 청년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청년법인, 단체 등 10개 팀을 선발해 팀당 80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모임 20개팀을 선발해 활동비를 200만원씩 지원하여 청년공동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청년지원팀장 김경전, 담당자 박명희, 김은혜

나. 청년 주거안정 지원 확대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전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년 전·월세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2019년도 18세~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부터는 상용직·임시직 등 근무 유형과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까지로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 대출금 5천만원 이상 이거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전남에 사는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대출금액에 따라 월 최고 15만원이며 36개월간 지원된다.

【 청년 주거안정 지원 실적 】

(단위 : 명)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계	3,441	858	819	864	900
청년 취업자 주거비	1,772	443	373	456	500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1,669	415	446	408	400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청년지원팀장 김경전, 담당자 박명희, 김영삼

다. 청년 자립기반 마련 지원

전남도는 청년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 유입과 결혼 장려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사업을 시작해 1,577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였다. 2022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만 21~28세 청년에게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도 운영하고 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3년간 매월 10만원 적립 시, 적립금의 두배(720만원)를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약 3,000여명의 지역 청년들이 희망디딤돌 통장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또한 고학력·미취업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을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꿈사다리 공부방’ 은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 선생님으로 배치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매년 100여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과 고정적인 급여 제공 등으로 청년들의 자립 지원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립기반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내 청년인구 유출 최소화를 위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청년지원팀장 김경전, 담당자 김은혜, 이승은

1-3. 안정적인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

가.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귀농어·귀촌인의 증가는 농어촌 경제인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앞다퉈 귀농어·귀촌인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도 역시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2019년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도시민이 농촌이주 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 구성은 다양한 농촌체험, 마을 주민과 간담회 등 운영마을 여건에 따라 진행된다.

참가자는 14세 이상 타 시도 거주자로 전남에서 살아보기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선정된 참가자는 일반형은 5~30일, 특화형은 20~90일간 숙박비와 프로그램 체험비가 지원된다.

2019년 17개 시군, 30개 마을, 2020년 15개 시군, 25개 마을, 2021년에는 9개 시군, 13개 마을이 운영하였고, 총 1,591명이 참가하여 252명(16%)이 전남으로 전입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전국 104개 마을 중 전남이 최다 20개 마을을 운영하였다.

2022년에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특화형 4개 마을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27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31개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귀농어귀촌팀장 이승남, 담당자 김대경

나. 귀농어귀촌인 정착 지원시스템 구축

21세기 한국사회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귀농·귀촌 증가이다. 전국적으로 귀농어·귀촌 인구가 2013년 291,690가구에서 2020년 358,591가구로 7년간 66,901가구 20%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원생활, 주말농장 확산, 생태적 가치 선호 증가와 함께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전남도에서는 귀농어·귀촌인 유치를 위해 2016년부터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귀농어귀촌 상담・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2월에는 수도권 도시민 유치를 위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설치했다.

예비 귀농어·귀촌인 상담전용전화(전국대표 1577-1425)와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jnfarm.jeonnam.go.kr)을 운영하여 농가주택 및 농지정보,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비 융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TIME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권역별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와 귀농어인의 집을 조성하여 농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영농기술, 농촌 생활방식, 농가·주택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귀농어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귀농어귀촌팀장 이승남, 담당자 김대경

다. 귀농어귀촌인-지역민 공동체 문화 조성

귀농어귀촌인들이 농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도 지역민과 주요 갈등요인으로 선입견과 텃세가 50% 이상 차지한다.

우리 도에서는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여 2022년까지 총 50개 마을에 7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나무・꽃 심기 작업을 통해 마을경관을 조성하고, 마을 사랑방 운영, 멘토・멘티 결성 등 융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한다.

그리고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추진하여 2019년 112개 마을, 2020년 98개 마을의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해소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매년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대회를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을 통해 귀농어귀촌인들의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귀농어귀촌인이 지역민과 융화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정책 발굴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귀농어귀촌팀장 이승남, 담당자 김건우

1-4. 임신·출산환경 구축

가. 건강한 임신을 위한 맞춤서비스 확대

1) 신혼(예비)부부의 건강한 임신 지원

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 전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신혼(예비)부부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에서 유료검진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여성은 17만원, 남성은 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연도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인원 】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인원	4,455명	502명	1,083명	1,198명	1,672명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출산지원팀장 곽주민, 담당자 정혜진

2) 전남형 난임부부 지원

초혼연령 상승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자 2018년부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맞춤 한약, 뜸 등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사업시행 후 현재까지 430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이중 64명(14%)이 임신에 성공했다.

또한 2021년부터 도내 난임부부에게 체외 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소득과 횟수 제한없이 시술비 회당 30~150만원을 지원하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57명의 난임부부에게 지원했으며 이 중 3 가구가 임신에 성공했다.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출산지원팀장 곽주민, 담당자 채호승

나. 맘(MOM) 편한 출생·양육 친화환경 조성

1) 권역별 공공산후조리망 완성

전남도는 열악한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해남군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조성했다. 2018년 강진군에 2호점, 2019년 완도군에 3호점, 2020년 나주에 4호점, 2022년 순천에 5호점을 조성하여 전국 최초 권역별 공공산후조리망을 완성했다. 권역별 공공산후조리망 완성으로 산모들이 도내 모든 지역에서 30분 이내에 조리원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도시로의 원정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좌욕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2주 이용료는 154만원으로 민간후조리원보다 100만원 정도 저렴하며 최상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이용료의 70%를 감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1년 5월부터는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도 이용료 70%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 연도별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인원 】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용인원 (감면자)	2,152명 (1,060명)	372명 (217명)	505명 (295명)	371명 (186명)	904명 (362명)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출산지원팀장 곽주민, 담당자 채호승

2) 전남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06년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생・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서비스 이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꾸준히 넓혀 왔으며, 2021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부터는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이 출산가정까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전남도 출산·산모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서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2017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 부담 비용 중 10만 3천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상향하여 최대 19만원까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 연도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인원 】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용인원	15,928명	3,367명	4,423명	4,077명	4,061명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출산지원팀장 곽주민, 담당자 채호승

3)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전남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1년부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신생아 양육비는 출생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양육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10만원씩 지급했다가 꾸준히 지급금액을 증액하여 2021년에는 50만원씩 지급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출산가정에서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맘편한 임신 서비스' 를 통해 산모들이 출산 전·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적기에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누락방지와 이용자 편의 제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신생아 양육비 지급인원 】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급인원	40,346명	11,198명	10,854명	9,755명	8,539명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출산지원팀장 곽주민, 담당자 정혜진

3)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전남도는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 다자녀 행복카드제를 2008년부터 농협과 BC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시작했다. 막내가 만 13세 이하(태아 포함)인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제공했다.

2017년 7월에는 다자녀행복카드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태아까지 포함)까지로 확대하여 다자녀행복카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2018년 12월에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가정 용어의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021년 5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을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1년부터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게 육아용품비를 지급하는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지급대상 822개 가정에 50만원을 지급했다.

【 연도별 다자녀행복카드 이용인원 】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용인원	19,011명	4,086명	4,864명	4,598명	5,463명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출산지원팀장 곽주민, 담당자 정혜진

2.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전남

2-1.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 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및 성평등 실현

전남도는 2019년에 양성평등센터를 설립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 해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성인지 통계 작성 등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담보하는 한편, 양성평등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능력개발,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도 및 시군 공직자 15,991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에 대한 여성참여율 확대[1]로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 '양성평등 행복 전남 실현'에 노력하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양성평등 정책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여성정책팀장 김승희, 담당자 박수진

나.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전남도는 여성들의 정책의제 발굴과 도정참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회 · 인문 분야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참여 통로를 개설하는 등 도정의 파트너로서 여성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남여성리더스 아카데미, 페미니즘 대학, 여성인문아카데미「사람책을 만나다」등을 운영하여 역량을 강화했다. 도정의제 발굴과 정책참여 통로로

1) (2019년) 47.3%, (2020년) 45.2%, (2021년) 44.3%

'전남정책자문위원회 여성분관위원회', '전남여성정책포럼' 운영 및 지원, 여성 리더들의 공론의 장으로서 '성평등 마루' 등을 운영하여 도정 시책 개발 및 정책 제안, 의견 수렴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여성정책팀장 김승희, 담당자 박수진

2-2. 여성 취·창업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

가.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

전남도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2009년부터 설립·운영하고 있다. 전남 광역 1개소, 시군에 8개 총 9개 센터에서 전문적인 직업교육 훈련과 새일여성 인턴지원을 하고 있으며, 구직자 및 취업자에게 노무·고충 상담, 컨설팅 지원, 채용 기업에게는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전용 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또한 22개 시·군에서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연계한 취·창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대응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등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취업 재개가 어려운 여성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인센티브(취업준비를 위한 도서구입, 취업강좌 수강료, 면접비용 등)를 1인당 20만원, 생애 1회 제공으로 조기 사회복귀 유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일자리 연계를 위한 여성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권역별(목포, 여수, 순천, 나주)로 매년 개최하여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간의 만남의 장으로 기업에게는 채용 편의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는 현장의 취업정보로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 여성 취·창업교실 운영 실적 】

(단위 : 개, 명)

구 분	교육과정수	교육인원	수료인원	자격증취득자	취·창업자
2018년	54	975	913	627	321
2019년	55	1,023	972	666	316
2020년	44	757	720	582	218
2021년	52	922	896	598	25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여성정책팀장 김승희, 담당자 김지미

나. 여성 소기업 육성

전남도는 여성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과 경제기반 강화,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 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에게 멘토링 운영으로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현실적인 창업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창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2개 사업에 3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제품 포장재 개선, 홈페이지 구축, 카카오·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망 구축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재정과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여성 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앞으로도 기업의 상품가치 제고와 매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여성소기업마케팅 사업 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연 도	시군	지원기업	사업비
2018	8개 시·군	8	80
2019	8개 시·군	8	80
2020	5개 시·군	5	50
2021	9개 시·군	11	1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여성정책팀장 김승희, 담당자 김지미

다. 일.생활균형 환경 조성

1) 전남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전남도는 2020년 12월 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8월 「전라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전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일·생활균형 정책은 노동, 기업, 가정, 돌봄, 성평등 등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종합적 ·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 · 시행할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2020년 1월 전남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전남여성가족재단 내 설치하고 일·생활균형 정책지원 및 문화확산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공공기관 및 도내 기업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도내 '가족친화인증기관'을 2022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가족친화 인증 컨설팅 지원과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109개소였던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이 매년 증가하여 2021년 12월 기준 179개소로 확대되었고, 도는 앞으로도 가족친화 인증기업(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연도별 가족친화인증기업(관)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09	130	153	179
중소기업	63	81	99	123
대 기 업	1	3	3	4
공공기관	45	46	51	52

2) 일·생활균형 실천 선언식 개최

전남도는 전남형 일·생활균형 인식개선 및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7월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전남 일·생활균형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여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 선언의 장을 마련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전남도와 농협은행, 광주은행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출금리 우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여성정책팀장 김승희, 담당자 양관승

2-3. 공보육 확충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전남도는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 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 보육 취약지역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및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매입과 신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5개소를 확충하여 189개소[2]를 운영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국공립 수준의 양질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4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90개소를 운영했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보육지원팀장 김미경, 담당자 김민수

나.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전남도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가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2) ('18년) 114개 → ('19년) 147개 → ('20년) 168개 → ('21년) 187개 → ('22년) 189개

2018년에 차액 보육료 월 2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10,000명에게 차액 보육료 96억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9,300명에게 89억 2천 8백만원을 지원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학부모에게 보육료를 받을 수 있어서 정부 지원시설과 달리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가고 있다.

【 차액보육료 지원실적 】

(단위: 명,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2,300	2,952	11,467	2,886	11,330	5,744	10,000	9,60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보육지원팀장 김미경, 담당자 신주영**

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전남도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어린이집 운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 어린이집 6,500반에 78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영유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상황과 이로 인해 보육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에 처음 시행하였다.

2018년부터 정원을 충족하는 정규반에 반별 월 7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1년 이후에는 담임교사가 있는 모든 반에 월 1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실적 】

(단위: 개,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반 수	금액	반 수	금액	반 수	금액	반 수	금액
7,030	1,000	6,677	5,608	7,643	6,420	6,500	7,800

* 2018년~2020년 월 7만원 지원 → 2021년 이후 월 10만원 지원(반당)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보육지원팀장 김미경, 담당자 신주영

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전남도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374개소에 운영비 483억 4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에 64개소, 4억 8천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사무실, 화장실, 급식실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2022년은 33개소, 5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매년 발굴하여 이용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아동복지팀장 오경희, 담당자 박혜리

마. 수요맞춤형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전남도는 돌봄수요가 많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최근 4년 동안 18,454명에게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료 90% 상향 지원과 출퇴근 및 방과후 시간 마을 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도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개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가족행복팀장 민순희, 담당자 송경원

2-4.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전남도는 지난 2016년 '아동자립지원단'을 설치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 후 자립지원을 위해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자립지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왔다.

2022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인 맞춤형 자립지원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아동자립지원단'을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확대·개편하여 예산 5억 3,400원과 8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3명의 전담인력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상담지원까지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보다 원활하게 수요자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아동복지팀장 오경희, 담당자 김수경

나.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전남도는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하여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천만원(1회)을 지원하고,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보호대상 아동을 포함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학자금·창업· 주거마련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후원자 발굴 및 가입 확대와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 중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운 경계선지능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선별검사비용(30만원/인) 및 맞춤형 사례관리(연 50회/인)를 지원하는 등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아동복지팀장 오경희, 담당자 김수경

다.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전남도는 보호종료 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보호종료 후 재취업 및 학업을 위해 자립준비 기간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생활관 1개소(목포)와 LH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30명)을 2년간 제공하였다.

2022년부터는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60명에게 사례관리 및 월세지원(월30만원/인)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연 9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아동복지팀장 오경희, 담당자 김수경

3.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3-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강화

가.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전남도는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 11곳에 다문화가족의 자조 및 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소통공간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및 자립역량, 자녀양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 지원을 위한 자기주도형 활동, 다문화 자녀 간 소통, 교류활동, 언어발달, 학교적응력 강화 등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 2회 현장방문과 온라인 점검을 통한 결혼중개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21개 가족센터를 통하여 다문화 이해 및 다문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2019년 이주여성 상담소를 개소하여 가정폭력 상담과 사례관리, 법률·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보호하고, 의료·법률·출국 등의 지원을 위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전남이주여성쉼터, 여수이주여성쉼터, 여수다문화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본국으로의 출국절차 등을 지원했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다문화팀장 서남덕, 담당자 이영심, 서소희

나. 다문화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및 정착 지원

최근 5년간 전남도의 다문화 학생수는 전국 대비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내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전남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교육을 실시해 수용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21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은 가족센터를 통해 채용된 결혼이주여성 강사들이 직접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다문화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수용성을 확산하고 있다.

초기에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108개소에 실시했던 이 사업은 점차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등 범위를 넓혀 2021년도에 276개소로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웠던 20년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13,220회 수업을 진행했다.

한편 전남도는 345명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를 배출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던 결혼이주여성들이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질 높은 강의 제공을 위해 이해강사들의 보수교육 및 표준교육안을 계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다문화팀장 서남덕 담당자 이영심, 서소희

다. 다문화가족 경제역량 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전남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2018년부터 '결혼이주여성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77명이 수료하여 36명이 방과후 교사, 시간제 강사, 통번역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을 운영하여 120개의 출산 다문화가정에 같은 언어권의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와 관련된 산모의 요청사항 등 산모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 상담서비스 지원을 통해 도내 다문화가족 가정해체 위기상황 예방 등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모국어 상담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다문화팀장 서남덕, 담당자 이영심, 서소희

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전남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5개 시설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비,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한부모가족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와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썼다.

또한 입소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용품비 월 3~5만원과 수학여행비 연 10만원을 지원하고, 퇴소 가족 주택 마련 지원금을 지급하여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가족행복팀장 민순희, 담당자 송경원

마. 한부모가족 아동, 청소년한부모 등 지원

전남도는 7,200세대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중·고학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매월 지원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0~17세의 자녀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하여는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을 지급하여 학업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에 대하여는 대입자녀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동절기 부식비 등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가족행복팀장 민순희, 담당자 송경원

3-2. 아동·여성 사회 안전망 구축

가. 아동 학대 예방 및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

전남도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안전, 보호 개선 정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지속적인 보호·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등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 조성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립하고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22개 시군에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43명 및 전담요원 37명을 배치하여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등 5개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등 피해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실시로 인한 일시보호아동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1개소, 나주시) 및 일시보호시설(1개소, 무안군)을 신규 설치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 홍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정보연계협의체 구축·운영에 힘쓰고 있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아동복지팀장 오경희, 담당자 명나영

나. 여성 대상 폭력 예방 및 피해 여성 보호

전남도는 농어촌, 도서, 산간 지역 등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1366'과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상담과 보호,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별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인구가 많은 목포, 여수 등 4개 지역에 보호시설과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을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회의를 확대·개편해 전남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과 함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시책 심의 및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성범죄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경로당 등에 보급하고, 섬지역 여객터미널, 대합실 등에 폭력예방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나은주, 가족행복팀장 민순희, 담당자 조신웅, 이경호

4.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4-1. 도민 맞춤 기본생활 보장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우리 도의 수급자는 도 전체 인구의 5.5%인 101,475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전북, 부산, 광주, 대구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 수급자 현황 】

(2021. 12월 기준)

계		일 반 수 급 자		시설수급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76,686	101,475	71,217	96,006	5,469

수급자에게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수급권자의 소득 평가액을 차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큼을 지원한다.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3]가 있다.

3)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4인기준 153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 금품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4인기준 204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빈곤대물림 해소)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4인기준 256만원) 이하인 경우

【 맞춤형 급여 지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생계급여	60,718	58,461	60,040	68,704
의료급여	74,789	72,205	71,699	68,326
주거급여	73,784	76,018	80,974	85,014
교육급여	15,126	14,045	14,368	14,666
해상·장제급여	2,297	2,458	2,596	2,383

추진부서 **사회복지과 우홍섭, 생활지원팀장 이명화, 담당자 김하경**

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전남도는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1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5·18민주화운동관련자, 이재민, 시설입소자 등)과 2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제외한 수급권자)으로 19,2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 (급여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등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중 해산 및 사망 시 보장급여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46%(4인기준 235만원)이하 수급자
- (급여내용)
  · 해산급여 : 1인당 700천원, 쌍둥이 700천원 추가 지급
  · 장제급여 : 가구당 800천원 지급

【 연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및 예산액 】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의료급여 수급자 수			예산액
	계	1종	2종	
2018	77,686	59,328	18,358	410,069
2019	74,789	58,027	16,762	497,890
2020	72,205	57,034	15,171	502,712
2021	71,699	57,277	14,422	512,664

의료급여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등에 대한 진료비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9만 6천명 대상으로 1조 8,656억 원을 지원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1종 수급권자(단, 본인부담금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로 매월 1일 6,000원(1인당)을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수급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액이 차감하고 사용 잔액은 매년 말일까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등 88개 품목을 지원하며, 2018부터 2021년까지 4,612건 61억 8천 4백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정보 제공, 자원 연계 등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하여 도 및 22개 시·군에 47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하여 밀착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전남도는 향후 전남 내·외 지역의료기관 입원자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도 의료급여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사회복지과 우홍섭, 생활지원팀장 이명화, 담당자 박시연**

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1) 자활지원사업

전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자활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 근로유지형 ② 사회서비스형 ③ 인턴·도우미형 ④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된다.

도내에는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자활센터 1개소와 지역자활센터 23개소가 있다. 이들 센터는 자활근로사업 수행, 자활기업 창업지원, 취업알선, 각종 기술·경영지도, 자활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직업교육 등을 통해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자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자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개소당 연평균 1억 9천 5백만원에서 2억 2천 8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집수리 사업단, 청소사업단, 간병사업단, 재활용사업단 등 총 843개의 사업단을 운영해 12,902명의 근로능력과 자활능력을 배양했다.

【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등
2018	3,252	1,261	815	200	976
2019	3,329	1,333	733	234	1,029
2020	3,216	1,238	790	209	979
2021	3,105	1,197	788	202	918

앞으로도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위해 민간의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종합적인 자립 지원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목돈마련 저축)

전남도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 희망키움통장 사업 현황 】

구분	대상	지원액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본인저축액(월10만원) + 정부지원금 평균 월46만원(4인기준)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본인저축액(월10만원) + 정부지원금 월10만원
내일키움통장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	본인저축액(월10만원) + 정부지원금 평균 월28만원(장려금+수익금 등)
청년희망키움통장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	근로소득공제(월10만원) + 정부지원금 월55.8만원(4인기준)
청년저축계좌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	본인저축액(월10만원) + 정부지원금 월30만원

도는 2018~2021년 통장 가입유지 2,814가구에 125억 3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탈빈곤 의지를 고취시키고, 만기 해지 738명에게 취·창업 및 탈수급에 도움을 주었다.

【 희망키움통장 등 가입유지 가구 수 】

(단위 : 가구)

구 분	2018	2019	2020	2021
희망키움통장Ⅰ	64	28	22	29
희망키움통장Ⅱ	734	195	227	168
내일키움통장	145	257	218	261
청년희망키움통장	187	18	30	11
청년저축계좌	-	-	146	74

2022년 1월부터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개편 지원한다. 기존에 5종이었던 사업은 종료 후 일몰 사업으로 전환하고 3종으로 개편 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전남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목돈마련 저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 사항 】

개편 전		개편 후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저축계좌Ⅰ
희망키움통장Ⅱ	→	희망저축계좌Ⅱ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개편된 희망키움통장 사업 현황 】

구분	대상	지원액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본인저축액(월10만원) + 정부지원금 (월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본인저축액(월10만원) + 정부지원금 (월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만15세이상 39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저축액(월10만원) + 정부지원금 (월30만원)
	만19세이상 34세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본인저축액(월10만원) + 정부지원금 (월10만원)

추진부서 **사회복지과 우홍섭, 생활지원팀장 이명화, 담당자 박윤수**

라.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노숙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목포시 등 5개 시·군에 7개소의 노숙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운영 관리비 및 개보수 등을 위해 연평균 72억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노숙인시설에는 614명의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123명의 운영인력이 노숙인의 보호와 재활 및 자활에 힘쓰고 있다.

【 노숙인시설 운영 등 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수용인원	종사자	예산액
2018	681	114	6,132
2019	669	115	8,513
2020	638	122	7,128
2021	611	123	7,060

추진부서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지역보훈팀장 김상철, 담당자 최양운

마.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전남도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원을 늘리고 있다. 독립유가족이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독립유공자 미서훈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복회를 비롯한 12개 법정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라남도 보훈단체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	2022
지원액	602	630	738	883	818

* 2021년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 80백만원 예산 포함

2021년부터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도입하여 11,000명에게 27억원(1인당 연 24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지원액을 상향하여 연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에게 연 24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전라남도 보훈수당 지원현황 】

(단위 : 명, 억원)

수 당	대 상	지급시기	인원	예산		비고
				2021	2022	
참전명예	6.25 및 월남전 참전	2021.1~	11,000	27	39	
보훈명예	전몰·순직 군경유족	2022.1~	2,500	-	6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1인당 50만원)은 2022년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부부 지원 시 연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말의병과 독립운동 발생지역임에도 지금까지 서훈자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8월부터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단계는 2022년 상반기까지 3.1운동 관련 미서훈자를 발굴하여 서훈을 신청하고, 2단계는 2022년 하반기에 한말의병부터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 한 분의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발굴하여 후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추진부서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지역보훈팀장 김상철, 담당자 정문선

4-2. 사각지대 없는 맞춤서비스 제공

가. 현장밀착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

전남도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읍면동 복지센터에 찾아와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먼저 찾아가 발굴하고 상담하여, 대상가구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현재 모든 297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전남도는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 7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등 취약계층의 발굴과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은 물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13,423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여 46,835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하여 사례관리사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지역보훈팀장 김상철, 담당자 최양운

나. 위기가정 긴급지원

전남도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신속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2006년부터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도는 2018~2021년까지 위기 상황에 처한 76,995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찾아내 신속하게 지원하고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연도별 긴급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가구 】

(단위 : 가구, 명, 백만원)

연도	지원가구 / 인원	지원액
2018	11,534 / 18,515	7,275
2019	17,431/ 26,768	10,383
2020	18,926 / 30,509	12,217
2021	29,104 / 45,099	17,510

【 긴급지원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지원①	생계	o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1,304.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o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o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제공	643.2천원 이내 (중소도시,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o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지원②	교육	o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4.1천원 - 중 174.7천원 - 고 207.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③
		그밖의 지원	o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06.7천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o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지원		무제한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로 복합지원가능

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추진부서 **사회복지과 우홍섭, 생활지원팀장 이명화, 담당자 김하경**

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남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매월 서비스 이용액의 70~90% 금액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10~30%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기준중위소득 기준 】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140%	2,723	4,564	5,873	7,170	8,434

2022년에는 153억원을 투입하여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지원 및 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 10개 사업, 노인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10개 사업,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구렌탈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생애주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 연도별 사업 운영 현황 】

(단위 : 억원/명)

연도	사업비	이용자 수	일자리 수
2018	161	18,839	887
2019	169	21,354	936
2020	167	19,448	1,291
2021	166	19,718	1,353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관장 및 제공인력에 대한 품질교육, 인사·노무교육, 소진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17회)을 추진했으며, 신규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의무교육(8회)을 통해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시·군 직원들의 효율적인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위해 제공기관 현장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기준 정보와 업무서식을 제작하여 제공기관에 배포하여 업무 편의성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를 위해 산간오지 등을 찾아가는 '논두렁, 밭두렁' 사업을 통해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비스 제공 장소인 경로당, 복지관 등이 연중 휴관인 경우가 많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아동·노인 사업이 73%를 차지함에 따라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단활동 비율 조정 및 서비스 제공장소 변경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2021년도에는 집행률 95%를 달성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서비스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종사자 및 제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을 위해 홍보와 이용자 욕구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사회서비스원지원팀장 김 호, 담당자 이정희

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아동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및 이용자의 욕구 다변화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고자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2013년 10월 설립된 '전남복지재단'을 확대·전환하여 2021년 6월 개원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2022년 총사업비는 94억 원으로(출연금, 국도비보조금 등) 보육에서 요양까지 전 생애에 걸친 촘촘한 돌봄 구축을 위해 긴급돌봄, 공공위탁사업,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 직접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돌봄은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및 질병·사고 등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단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말 기준 214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

(2022. 4. 8.기준)

구분	계			코로나19 돌봄		코로나19 외 돌봄	
	소계	가정	시설	가정	시설	가정	시설
누계	256	76	180	52	34	24	146

또한, 국·공립시설 2개소 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 2개소 설치·운영을 목표로 하고 2022년 4월에 어린이집 1개소와 종합재가센터 1개소를 순천시에 개소했으며, 서부권역에 종합재가센터 추가 설치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관(시설) 역량강화를 위해 재무·회계·노무 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찾아가는 컨설팅과 시설평가 컨설팅 등 다양한 기관 지원 프로그램 21개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사 직접고용 및 처우개선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과 근무환경 개선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제고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이용자 신뢰도를 확보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경영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사회서비스원지원팀장 김 호, 담당자 이정희**

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과 삶의 질 개선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2021년 9월 「제1기(2021~20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종합계획에는 3개년 동안 4개 분야 18개 사업에 총 3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사자의 보수 및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제1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도민 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수립되었다.

복지수요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사자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적극 계획에 반영하여 기존 대비 파격적인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3개년 계획 투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분야	예산액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0,901	9,619	10,638	10,644
보수수준 향상	26,550	8,784	8,880	8,886
일·가정양립 근로 여건 조성	1,859	333	763	763
안전한 복지현장 조성	945	75	435	435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1,547	427	560	560

【 3개년 계획 사업별 추진사항】

분야	추진사업 내역
보수수준 향상	① 종사자 급여수준 개선 ② 전남형 단일임금체계 구축 ③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기준 통일 ④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일·가정양립 근로 여건 조성	① 장기근속휴가제 운영 ② 자녀돌봄휴가 운영 ③ 유급병가 지원 ④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안전한 복지현장 조성	① 종사자 소진예방 강화 ② 종사자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및 예방 추진 ③ 종사자 노무 지원 ④ 상해보험료 지원 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운영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① 직무역량 강화 교육 ② 보수교육비 지원 ③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④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확대 ⑤ 종사자 처우개선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제1기 처우개선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보수 지급을 위해 지방이양시설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기준 통일,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유급휴가제 운영, 종사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비정규직을 포함한 상해보험료 지원, 서비스 품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한 보수교육비 지원, 처우개선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도는 제1기 처우개선을 추진하며 발생한 보완 사항 등을 고려, 내실있는 처우개선을 위해 제2기(2024~2026) 처우개선에는 전문가·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남형 단일임금체계 마련,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분리→통합) 검토, 신규처우개선 사업 발굴 등 복지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지위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복지정책팀장 배성진, 담당자 정세훈

4-3.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가. 기초연금 지원

전남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소득기반 제공으로 노인 빈곤 완화와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했다.

만 65세에 이상의 어르신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액 이하를 수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단독	부부	단독	부부	단독	부부	단독	부부	단독	부부
선정기준액(만원)	131	209.6	137	219.2	148	236.8	169	270.4	180	288

매월 지급액은 소득액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월 2만 5천에서 30만원, 부부가구는 5만원에서 48만원이 지급되었고, 최대 지급액인 월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을 받는 지급 대상도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70%까지 확대되었다.

2022년에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3만원에서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6만원에서 49만 2,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노인인구의 80%까지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1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도는 앞으로도 소득, 재산 등의 변동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기초연금 지원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수급자(천명)	338	342	350	358
수급률	81.9%	81.0%	80.4%	80.4%

추진부서 노인복지과장 손선미, 노인정책팀장 김형국, 담당자 선수정

나. 경로식당 무료급식 확대

전남도는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복권기금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였다.

2018년 5,043명의 어르신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던 것을 매년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2022년에는 120%(627명)가 늘어난 5,670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급식단가를 2018년 3,500원에서 2022년에는 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높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 연도별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현황 】

(단위 : 명,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자	5,043	5,043	5,195	5,647	5,670
지원단가	3,500	4,000	4,000	4,500	5,000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로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체식·간편식 등 배달로 변경하여 결식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빵, 도시락 등 대체식 제공이지만 2021년 만족도 조사결과 89%의 어르신들이 만족하다고 답하였다.

전남도의 어르신 인구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무료급식 수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추가 예산 확보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 제공과 더불어 양질의 식사제공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노인복지과장 손선미, 노인정책팀장 김형국, 담당자 최민아

다. 노인일자리 확대 및 은빛장터 개최

전남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대거 생산연령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면서 초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복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는 노인의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으며, 2022년에는 1,898억원을 투입하여 52,93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상생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노인에게 적합한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 생산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은빛장터'를 2021년부터 추진하여 포장재 개발,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통해 노인생산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판매 활성화 도모하여 2021년 은빛장터 판매금액이 84.6백만원을 달성했다.

도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노인의 경제적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연도별 사업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33,379	42,455	46,760	51,860	52,938

추진부서 노인복지과장 손선미, 노인일자리팀장 최병록, 담당자 윤소영

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가급여)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는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1년 신규사업(5,561명, 33억 9백만원)으로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 특별수당 월 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최초로 교육을 실시(1,675명, 2천만원)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56개소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8~2021년까지 60,699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했다.

추진부서 노인장애인과장 손선미, 노인시설팀장 황경혜, 담당자 이복례

마.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 운영

전남도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가족 부양기능 약화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사례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개소 운영하는 등 매년 13억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는 ①노인학대 상담전화(☎1577-1389) 24시간 운영 ②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③노인 인식개선사업 ④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다.

학대피해 노인쉼터에서는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6개월)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 강화 및 심신 치유를 위한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학대피해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학대 발생 시 신속한 보호와 원가족 회복을 위해 전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

(단위 : 건, 명)

연도	사업추진 실적						
	사례신고		상담		교육(회)		쉼터 이용
	학대	일반	학대 사례	일반 사례	교육 횟수	교육 인원	
2018	337	410	6,550	760	401	20,689	26
2019	337	518	7,850	1,213	376	20,806	22
2020	314	385	6,923	878	210	7,346	30
2021	352	468	8,575	1,101	386	11,998	40

추진부서 노인복지과장 손선미, 노인시설팀장 황경혜, 담당자 권정태

바. 농어촌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전남도는 의료·복지혜택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중목욕장이 없는 읍·면단위 등에 농어촌 공중목욕장을 건립하여 2021년 12월말 현재 14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선7기 기간 중인 2019년~2021년 11개소를 추가 건립하였고 2013년 이전에 건립한 120개소에 대해서는 주 이용자인 어르신들의 안전 및 이동 편의를 위하여 개소당 1천만원을 지원하여 미끄럼방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10년 이상 운영으로 노후된 시설 43개소에 대해 보일러 및 물탱크 등 시설설비 교체와 소규모 개보수 공사를 지원하였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연 평균 5.7회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위생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건립한 공공목욕장 중 도(道) 건립 기준인 100㎡이상 목욕장 12개소에 운영비 연 2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설 목욕장이 폐쇄된 읍면 지역에 추가로 목욕장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목욕장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노인복지과장 손선미, 노인정책팀장 김형국, 담당자 선수정

사.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설치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와 청결한 식수 제공을 위해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2018~2019년까지 207억원을 투자하여 8,939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고, 2020~2021년까지는 24억원을 투자하여 9,136개소에 정수기 설치를 지원했다.

사업대상 선정기준으로는 공기청정기 미설치 경로당, 기 설치한 내용연수 경과 된 노후 공기청정기 교체, 경로당별 면적, 건물구조, 정화면적, 이용노인의 수요 등을 고려 개소당 1~2대를 설치하고, 기존 경로당에 정수기 운영비 개소당 연 24만원을 지원했다.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설치로 어르신들께서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심혈관 질환 및 천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결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연도별 사업현황 】

(단위 : 개소,백만원)

구분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공기청정기	2018~2019	8,939	20,733	5,183	4,665	10,885
정수기	2020	9,121	2,189		438	1,751
	2021	9,136	2,193		439	1,754

추진부서 노인복지과장 손선미, 노인정책팀장 김형국, 담당자 이동은

아.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전남도는 2009년부터 마을의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2022년까지 82억원을 투자하여 1,022개소에 설치했다.

사업 대상은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운영,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을 우선 선정했다. 또한 월평균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3kW 2~5만원, 5kW 5만원 이상)이 많은 경로당 등을 토대로 건물상태(옥상 활용 가능여부, 지붕 소재, 노후도), 마을 협조 등을 종합 판단해 선정했다.

2020년부터는 3kW만 설치하던 것을 5kW 규모까지 확대 지원했다. 그 결과 월 전기료 평균 절감액은 3kW 4만원에서 5kW가 8만 7천원으로 줄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전기요금 걱정없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18	120	900		450	450
2019	240	1,800		540	1,260
2020	240	1,980		594	1,386
2021	232	1,980		594	1,386
2022	190	1,506		452	604

추진부서 노인복지과장 손선미, 노인정책팀장 김형국, 담당자 이동은

자.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

전라남도는 2014년 8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2014~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공동생활홈 9개소, 공동급식시설 5개소, 공중목욕탕 3개소 등이 선정되 설치한 바 있다. 2018~2022년까지 도 자체사업으로 55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동생활의 집은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혹한기와 혹서기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과 상호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 취사시설, 욕실 등을 기존 이용공간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며, 공동거주형과 독립 거주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공동거주형은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여 낮에는 경로당, 밤에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독립거주형은 개별적 주거시설(원룸형)으로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도는 앞으로도 홀로사는 어르신의 소외감과 외로움 해소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주거·위생·안전 등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하도록 의료·문화·교육·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충족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연도별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18	6	240		120	120
2019	23	920		368	552
2020	8	320		128	192
2021	8	320		96	224
2022	10	400		120	280

※ 2014~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포함

추진부서 노인복지과장 손선미, 노인정책팀장 김형국, 담당자 이동은

4-4. 장애인 편의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가. 장애인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전남도는 근로 능력이 없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수당), 장애아동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사업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인 중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 바우처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2022년) 】

(단위 : 원)

구 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65세 이 상	만18세~만64세	만18세~만64세	만65세 이 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387,500	387,500	307,500	80,000	387,500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77,500	70,000	307,50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327,500	40,000	307,500	20,000	40,000

*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학송, 장애인복지팀장 강승완, 담당자 이동익

나.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 활동지원 활성화

전남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1개소에 92억 1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자립생활기술 훈련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 중증장애인생활지원센터 연도별 지원현황 】

연도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18	1,289	300	353	636
2019	1,189	311	263	615
2020	2,151	313	415	1,423
2021	2,254	313	436	1,505
2022	2,335	317	457	1,561

또한, 활동지원사업의 국비 보조 시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비를 확보하여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229시간 신설 및 등급구간 변경으로 활동지원 대상자들 대부분이 지원시간이 확대되어 제공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학송, 장애인재활팀장 김성철, 담당자 김영현, 이동익

다. 수요중심 장애인 맞춤 서비스 지원 강화

전남도는 중증 신장장애인 중 다른 법령에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에는 혈관 수술비와 신장이식 검사·수술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확대하였다.

지원대상도 2019년에는 전남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중 '2급 이상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서 2020년에는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이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20%인 자'로 확대됐다.

'신장장애인 의료 지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총 1,324명을 대상으로 총 10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

연도별	사업량(명)	사업비(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2019	346	20	10	10
2020	607	367	110	257
2021	371	669	134	532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학송, 장애인재활팀장 김성철, 담당자 최영균

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

전남도는 취업 취약계층인 9,18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 보장을 통해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일자리 유형으로는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안마사파견, 요양보호사 보조가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53억 4천 6백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동료 지원가 55명을 채용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였다.

2022년도에는 경제적 활동 기회가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전남형 공공일자리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권익옹호, 인식개선 등 3개 분야에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장애인일자리 연도별 사업현황 】

연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18	1,425	13,151	6,843	3,154	3,154
2019	1,593	16,304	8,424	2,396	5,484
2020	1,856	19,220	9,935	2,828	6,457
2021	2,014	21,455	11,075	3,114	7,266
2022	2,296	25,216	12,660	3,817	8,739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학송, 장애인재활팀장 김성철, 담당자 김영현

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인권침해 예방 강화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 및 가정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과 자활·자립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전남도는 장애인 생활시설 38개소(법인 23, 개인운영 15),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8개소 총 59개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매년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했다.

2019년에는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에 시설별 운영비 소요액의 64%까지 지원을 확대했으며, 2022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인 70%까지 확대 지원키로 하였다.

2021년에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자 추가채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종사자 710명에서 856명까지 총 146명 추가 채용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8채로 구성된 장애인 생활시설을 여수시에 설치하였으며, 2021년에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주시 생활시설 개축비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년 시설 기능보강비를 확대하여 지원해왔다.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지원시설수	운영비	기능보강비	입소인원	종사자
2018	53	27,602	1,829	1,292	696
2019	53	30,181	1,961	1,279	706
2020	53	33,698	675	1,288	710
2021	59	38,820	3,065	1,310	856

아울러, 도내 재가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18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7개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21개소, 수화통역센터 20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3개소 등 총 238개소가 있다.

2019년부터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무상급식을 위해 전 시설에 4억원을 지원하고 연도별로 지원액을 확대하고 있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일상생활 복귀 지원하고 있다. 피해 장애인 쉼터는 38명으로 재활상담, 의료, 심리재활치료를 제공하였다.

【 피해 장애인 쉼터 입소 현황 】

(단위 : 명)

연도	입소자 수			연령						
	계	남	여	계	18세 미만	18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64세	65세 이상
계	38	31	7	38	2	6	6	11	10	3
2015년	3	3	0	3		1		1	1	
2016년	6	5	1	6		1	1	1	2	1
2017년	10	9	1	10	1		1	2	6	
2018년	3	3	0	3			1	2		
2019년	7	6	1	7		1	2	2	1	1
2020년	3	1	2	3		1	1	1		
2021년	6	4	2	6	1	2		2		1

도는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이용시설이 없는 시·군에 설치 확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거주 장애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이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관기관, 장애인단체 등과 소통·협력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학송, 장애인시설팀장 서연수, 담당자 박담비**

5.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환경 조성

5-1.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전남도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 이용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2021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고난이도의 필수의료 진료기능을 수행하면서 진료-교육-연구, 인력파견 등 권역 (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기초(병의원, 보건소 등)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했다.

2019년 목포시의료원과 2022년 순천의료원을 각각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필수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 및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 해결하기 위한 연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2019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직영하여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정책추진과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술 전문 지원조직으로 운영 중이며, 도와 시·군간 공공보건의료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농어촌의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농어촌 특별세를 이용하여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시설·장비·차량 등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7~'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1,475,715	1,149,589	48,795	65,680	68,295	72,569	70,787
전남	298,473	229,753	9,963	15,713	13,393	18,435	11,216
비율(%)	20.2	19.9	20.4	23.9	19.6	25.4	15.8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113개소의 공공보건기관을 신·증축 또는 개보수하였다. 특히, 섬 지역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를 완도, 진도, 신안에 총 6개소 설치하여 도서지역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에 따라 보건지소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필요해졌고, 2020년부터는 기존 보건지소에 건강증진 기능이 확장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시군 12개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확대 지정하여 지역 현황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지역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의료장비 총 670건을 지원하여 장비를 보강하였고, 보건 사업용 차량 92대를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기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지속 개선하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지역 밀착형 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특히,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 시설 확충으로(순천 4→8실, 강진 4→7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9,476	3,720	7,000	5,788	8,192	4,776
순천의료원 (국비50%, 도비50%)	7,650	0	0	2,442	3,232	1,976
강진의료원 (국비50%, 도비50%)	12,420	1,760	5,300	1,800	3,560	0
목포시의료원 (국비50%, 시비50%)	9,406	1,960	1,700	1,546	1,400	2,800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를 위해 대학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1인당 2억원 이내)하여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및 의료자원 도시 집중 해소에 기여하는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지원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4**	**3**	**2**	**2**	**3**	**4**
순천의료원	5	1	1	1	1	1
강진의료원	6	1	1	1	1	2
목포시의료원	3	1	0	0	1	1

그 결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도민의 필수 의료 욕구를 해소하고 각종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에도 힘써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지역민의 만족도 상승 및 지역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민에게 최상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두, 공공보건팀장 박보서, 담당자 손성일, 문선희, 김세희

나. 병원선 기능 강화 및 순회진료 서비스 확대

전남도는 1971년부터 '섬 지역 건강지킴이 병원선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섬 지역 건강지킴이 병원선 운영' 사업은 도내 병원선 2척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부권(전남511호) 5개 시·군 77개 도서에, 서부권(전남512호) 6개 시·군 90개 도서에 운영하는 제도다. 무의도서 135개 도서는 연 4회, 육지와 원거리인 보건진료소만 소재한 32개 도서는 연 1회 병원선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병원선 2척이 11개 시·군 167개 도서를 연 5회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무의도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의약품 10종으로 구성된 안전 상비 의약품 261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 병원선 현황 】

구분(진료권역)	톤 수	놋 트	마력수	건조비 (억원)
전남 511호(여수권)	128	15	3,270	21
전남 512호(목포권)	170	16	5,400	45

【 무의도서 순회 진료 실적 】

(단위 : 명)

구 분	진료대상도서	진 료 실 적	
		실 인 원	연 인 원
병 원 선(2척)	167	36,253	88,992

더불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등 기관 간 협약으로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예술지원사업', '섬 아리랑' 등의 문화예술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57개 도서 879명의 섬 주민께 폭넓은 문화 향후 기회를 제공했다.

노인 자살률 및 치매노인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 지역 정신·치매 통합건강관리도 실시했다. 병원선과 '전남광역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전남광역치매센터'를 연계하여 우울증, 치매감별 진단검사를 33개 도서 894명에게 실시했고, 그 중 106명은 전문의 상담을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군 보건소에 연계 조치했다.

또한 병원선 내용연수가 도래한 전남511호의 대체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강남에서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건조되는 병원선은 하이브리드 복합추진방식의 친환경 병원선으로 물리치료실 신설, 의료 장비 현대화, 진료·검사일원화 등 필수 의료의 지역 격차 완화와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결과 병원선 운영으로 섬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보편적 의료보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전남도는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 유지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 전남 실현을 위하여 의료공공성 확보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두, 공공보건팀장 박보서, 담당자 김의중

다.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전남도는 취약 분야 의료 공급이 필요한 의료취약지역에 소아청소년과와 인공신장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운영비로 소아청소년에는 2억 5천만원, 인공신장실에는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29,673명, 인공신장실 10,010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 소아청소년과 및 인공신장실 이용자 수 】

(단위 : 명,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소아청소년과	6,291	7,148	5,739	10,495
인공신장실	-	-	4,763	5,247

또한, 2021년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그 결과 분만산부인과 5개소와 외래산부인과 4개소 등 총 9개소에 산부인과가 운영되도록 매년 개소당 5억원씩 총 31억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분만 서비스 제공과 출산 전·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이용자 수 】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분만산부인과 (출생아수)	209	265	304	301
외래산부인과	13,825	20,027	8,577	15,266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의사, 간호사 등이 산부인과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들에게 출산 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들이 대다수 원정 출산 및 외래진료에 의존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 추진하게 되었다.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이동 산전 진찰반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4개 지역에 월 2~3회 방문하여 임신부 및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에게 1인 총 10회 정도의 초음파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산전 기본검사 등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산부인과가 없는 4개 시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 진료 차량을 운영해 1,340명에게 임산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자 수 및 검사실적 】

(단위 : 명,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이용자 수	207	383	454	296
검사실적	501	1,023	1,248	756

추진부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두, 공공보건팀장 박보서, 담당자 손성일 송다이

5-2. 건강관리체계 구축

가.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소득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건강 문제 분석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인력 운용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추어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액 】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5,640	5,665	5,739

1) 방문건강관리

질환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개인별로 다양화되어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 건강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저하된 지역주민을 방문하여 복약지도,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5만 1천 가구를 등록하여 169만 2천 건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방문건강관리 실적 】

(단위 : 건,명)

연도별	사업대상	방문건강관리 실적		질환별 방문간호 환자수	
		등록가구	방문건수	고혈압	당 뇨
합 계	726,965	351,543	1,692,310	211,423	77,332
2018	185,473	90,210	475,135	52,650	19,150
2019	178,216	88,333	452,431	52,903	19,234
2020	180,637	87,300	423,885	53,120	19,454
2021	182,639	85,700	340,859	52,750	19,494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대전환이 진행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가 제한되어 AI·IoT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건강관리가 확대되는 추세다. 홀로 사는 노인이나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에게 활동량계, 체성분계 등을 제공하여 복약, 혈압 및 혈당, 운동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2018년 대비 8개 시군이 추가되어 2021년 1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으며, AI·IoT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8개 시군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대상, 방법의 다각화 및 다양화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지속 향상시키고 있다.

2)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흡연, 음주, 건강생활 실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별 표본추출, 조사 수행, 통계 표준화를 통한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한 건강 문제를 선별하고 지역에 알맞은 건강증진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흡연율과 월간 음주율은 지속 감소하여 흡연과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지만, 걷기 실천율과 건강생활 실천율은 정체 상태로 신체활동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 신체활동 분야

신체활동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체활동 부족은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은 심장질환, 당뇨, 일부암, 고혈압 발병 및 이들 질환에 의한 사망의 위험성을 낮춰주며 비만과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준다.

도는 생애주기·생활터별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인별 신체활동 증진 서비스, 신체활동 홍보 및 캠페인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아동의 비만 위험이 증가하자 아동 비만 예방사업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을 하고 있다. 31개 초등학교와 아동센터에서 영양 및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의 건강 식습관 형성과 신체활동량을 증진하였다.

도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신체활동 지식 및 실천 방법을 제공하고 모바일 앱 및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개인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신체활동 대상 】

생애주기	생활터	대상자
아동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초등학생, 취약계층 아동 등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등	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
성인	사업자 등	직장인(사무직, 생산직), 자영업자, 농어업인, 주부 등
노인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 독거노인 등

4) 금연 분야

흡연은 암,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서 대표적 건강 위험 요인이며,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이행하기 위해 2019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이 발표되고, 금연구역 확대, 금연 교육·홍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금연 치료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및 금연 성공률 】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등록자 수(명)	16,744	15,710	8,870	7,678
6개월 금연 성공률(%)	40.3	36.7	27.2	30.5

도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61,845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시설과 흡연행위 위반실태를 98,324건 정기 점검하였다. 또한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를 위촉하고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지역금연지원센터와는 서비스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장기·고도 흡연자 등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 금연구역 지정현황('21.12월 기준) 】

(단위 : 개소)

계	음식점	청사	유치원 초·중·고	실 내 체육시설	의료기관	기타
61,845	34,759	1,545	1,368	1,888	2,531	19,754

나. 만성질환자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수명 연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건강행태 변화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합병증 진행을 늦추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다양한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 암환자 관리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이다. 전남도의 암 환자 수는 2018년 10,635명으로 전국 245,874명의 4.32%를 차지하고 도내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4,128명에서 2020년 4,36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암을 조기 발견·치료하고,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암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30만 5천명에게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 암 검진비를 지원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환자 1,91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을 진단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재가 암 환자 6,217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통증관리, 환자 모임 등을 통해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합·지속 제공하여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

'광주전남지역암센터'에는 매년 1억 2천 3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맞춤형 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암 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암 환자의 진료, 암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남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활용해 지역에 거주하는 암 생존자의 통합지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암 생존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매년 1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하여 133회 1,231명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암 환자들에게 다양한지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2) 고혈압, 당뇨병 관리

전남도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4]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이며 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자 등록·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

4) 고혈압 2018년 21.8% → 2019년 29.1%, 당뇨병 2018년 11.2%→ 2019년 12.0%

센터를 운영하고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여 질병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만 2천명이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고혈압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2.6배 높으며, 당뇨병이 15년 이상 지속될 시 안질환이 90% 이상이 발생하는 등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안압, 콜레스테롤, 단백뇨 검사 등 검사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고 예후가 양호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군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지원단은 심뇌혈관질환 인식 수준 개선 교육·홍보, 보건소 역량 강화 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시군의 건강행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3)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건강요구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 건강 통계사업 운영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에 대한 지식 향상, 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남의 22개 시군이 매년 만성질환 사업과 관련한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여 통계분석 전략, 보건지표 생산, 사업계획 및 평가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우수사례를 시도 및 시군 간 공유하여 지역사회에 알맞은 사업을 운영·평가하여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건강관리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두, 건강증진팀장 나만석, 담당자 김다영, 하나, 정다영, 박영은

5-3. 치매 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가.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 제공

전남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치매노인 환자는 노인의 12.1%인 약 53천명으로 추정되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5]이다.

전남도는 치매 관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2015년에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지원, 지역 자원조사,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과 관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치매 예방 및 진단, 치매 관련 인적 물적 관리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매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22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 각 1개소를 개소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였다.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제고하고 있다.

치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60세 이상 25만 4천명에 대하여 치매 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을 실시했고, 치매 환자 치료관리비를 60세 이상 중위소득 노인 1만 8천명에게 매달 3만원씩 지원하는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도내 12개소의 공립요양병원 중 7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 악화 방지 및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켰다.

---

5) 65세이상 노인수 : ('19) 415천명 → ('20.) 423천명 → ('21.) 438천명
65세이상 치매노인수 : ('19) 49천명 → ('20.) 51천명 → ('21.) 53천명
치매 유병률 : ('19) 11.80% → ('20.) 11.94% → ('21.) 12.06%

2018년부터 치매 노인 실종 시 신속한 조기 발견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수색 기간 단축으로 환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 해소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켰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을 운영하였고 배회감지기 2,362대, 행복 GPS 257대를 무료 보급하였다.

치매 환자 조기 발견·치료,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행사 등 치매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다.

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지역 내 치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체계적인 치매 환자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두, 정신보건팀장 신영식, 담당자 박준영

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

도내 추정 중증 정신 질환자수는 약 1만 6천여명이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스트레스 요인의 증가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인구는 점차 느는 추세다.

전남도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관리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등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1)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강화

전남도는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2020년 22개 시군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별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알코올 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음주 폐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목포시와 여수시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중재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해 순천시에 청년조기중재센터(마인드링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국립나주병원에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하여 대규모 재해·재난 현장 심리지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도내 정신건강 증진시설은 총 53개소로 이중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은 21개소이며 3,639개 입원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병원 퇴원 후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관리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4개소와 정신재활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및 설비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에게 실질적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현황(2021. 12.기준)】

(단위 : 개소)

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년조기중재센터	정신의료기관(병·의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86	23	2	1	53	4	3

2)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전남도는 정신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응급입원 연계 체계를 강화하였다.

도내 10개 정신의료기관에 전남형 지정 정신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야간 및 휴일에도 입원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여 정신과적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365일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를 운영하여(1577-0199) 실시간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3)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많은 도민이 정신건강 위험요인에 지속 노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우울 위험군은 6배 증가하고 자살 생각 비율도 2.7배 증가하는 등 주요 정신건강 지표[6]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촘촘하고 선제적인 심리지원을 추진한 결과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우울 위험군 지수가 8.3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남도는 적극적인 코로나19 심리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23개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대상자별 심리적 안정 및 성공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였다.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코로나19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과도한 불안을 덜고 스트레스 예방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민을 위한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접근이 가능한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정신건강관리 앱 '터치마인드'를 자체 개발하고 무료 배포하여 2만 6천여 명이 앱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코로나19 정신건강 취약계층 심리지원을 위해 도내 현장대응인력 1,659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심리지원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현장 대응인력 306명을 찾아내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코로나 우울극복 「마음 쉼」 치유캠프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자 중 70%가 우울, 불안 등의 증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호남권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마음건강안심버스 서비스를 통해 현장대응인력 256명을 직접 찾아가 정신건강 상담, 마음건강 안내서, 심리안정용품 제공 등 현장대응인력의 정신건강 회복을 도왔다.

---

6)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 우울 위험군 : ('19) 3.2% → ('20.3.) 17.5% → ('21.3.) 22.8%, → ('21.12.) 18.9%
- 자살생각비율 : ('19) 4.6% → ('20.3.) 9.2% → ('21.3.) 16.3%, → ('21.12.) 12.4%

4)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전남도는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생명 존중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생명지킴이 8만 9천명을 양성하여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지역사회 자살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생명 안전망 구축에 힘썼다.

자살 수단은 목맴, 농약 음독, 가스중독, 추락 순으로 높다. 특히 전남은 전국 대비 농약 음독 자살 비율이 약 2배 이상 높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267개 마을 5,788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하였으며, 자살 빈발 장소에는 자살예방 로고젝터 155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응급실을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2개 의료기관(목포중앙병원, 순천성가를로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살시도자 64명에 대해 추후 관리하고 있다.

자살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된 자살고위험군 343명에 대해 상담·사례관리, 지역사회연계 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사랑 로고송에 공모된 76작품 중 대표송을 선정하여 마을방송을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마을이장들에게 음원을 배포하였다. 생명사랑 캠페인을 601회 실시, 생명사랑 사진전에 공모된 479작품으로 대표작을 선정하여 생명사랑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생명존중 및 치유문화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돌봄 체계를 강화하며 자살예방사업 및 코로나19 심리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두, 정신보건팀장 신영식, 담당자 김현미, 오지현, 유은지

5-4.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가. 응급의료 확충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고 장애 및 사망의 원인이 된다. 각종 사고의 증가와 질병 양상의 변화로 인하여 전남의 응급환자 수는 매년 약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22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남의 응급의료 목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합한 의료인에게, 적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

1)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병원 전 단계에서 적정한 현장 처치와 이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 총 42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19 구급차는 110대, 응급환자이송업의 민간 구급차는 50대, 의료기관 구급차는 262대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처치와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1대가 있고, 그 외 119 헬기 2대, 해경헬기 8대가 응급환자 이송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헬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59개의 헬기 착륙장과 203개의 인계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헬기 착륙장을 확충하고 있다.

응급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과 고립된 섬 등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기반의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서부권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목포한국병원과 12개 의료기관, 8개 보건기관이 협진 중이며, 동부권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성가롤로병원과 9개 의료기관이, 광주권은 전남대학교병원과 4개 병원이 협진 중이다.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다중이용 시설 등에는 자동심장 충격기 3,785대를 배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심정지 등 응급환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 경찰공무원,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체육시설·항공·철도·선원 등의 의료·구호종사자 등 직업종사자 2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및 올바른 응급처치 요령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병원 단계

병원 단계의 응급환자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목포한국병원, 순천성가롤로병원 등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들 응급의료 기관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응급의료기금과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응급실의 간호인력 난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 간호사를 취약지 의료기관 응급실에 파견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목포한국병원,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10개 취약지병원에 간호사 연인원 32명을 파견하여 응급실 운영을 돕고 있다.

그 외 전남권 외상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해 목포한국병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응급의료 질 향상 및 응급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3) 재난대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22개 시군에 각 2팀씩 44개 신속대응반을 상시 운영 중이다.

이와 별도로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에 각 2개의 DMAT팀(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하여 재난 상황에서 현장의 신속한 환자 분류와 응급처치, 병상확보 및 적정한 이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유증상 및 확진 환자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2020년부터 응급의료기관에 총 80병상(음압 51, 일반 29)의 응급실 격리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호흡기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응급의료 이송체계 확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식품의약과장 이영춘, 의료관리팀장 문권옥, 담당자 김선미, 김혜미

나. 국립 의과대학 설립 추진

1) 추진배경

의료서비스는 누구나 고루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며, 따라서 모든 국민은 건강한 삶을 위해 차별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를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고 있어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쏠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전라남도는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또한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도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연간 80만 명의 도민이 암, 뇌질환 등 중증질환과 중증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타 시도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 유출은 연간 약 1조 5천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특히 2019년부터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국내 정치권, 의료계까지 전국 이슈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이 재조명되었다.

이에 도는 열악한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도민의 건강 형평성 도모를 위해 '도내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지역발전 혁신과제로 정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의 역량을 집중했다.

2) 추진성과

전남도는 2020년 1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TF를 구성하였다.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5월에는 도내 의과대학 유치 5개 기관(전남도,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 순천대)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각 정당에 건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6월에는 범도민 민간 유치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7월 23일 정부·여당은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하면서 도민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의료계 집단 휴진과 9월 4일 의정합의(코로나19 안정화될 때까지 잠정 중단)로 의료인력 관련 논의가 중단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 의료 혁신 협의체' 등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2021년 2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계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정책제언을 수렴하였다. 4월에는 의과대학 설립·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설립 타당성 등을 검증했다.

5월과 6월에는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차례에 걸쳐 도민 토론회(목포, 순천)를 개최하였다. 또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여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알리고 의과대학 설립 당위성을 호소 하였다.

이외에도 도는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의과대학 설립 확정을 촉구 건의하였고, 국회나 중앙부처에도 지속 건의하였다.(15회 이상). 2022년 4월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김영록 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건의하였다.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의 의료자원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할 지역의 의사를 키워 낼 전남형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도는 앞으로도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식품의약과장 이영춘, 의료관리팀장 문권옥, 담당자 김수연

다. 한의학 산업화 기반 구축

전남도는 토종 한약 자원을 활용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남 미래의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로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7년에 (구)남도대학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17,000㎡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184㎡ 규모로 한의약 전문 연구기관인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개원했다.

이후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대구·경북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합병 2016년 1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방진흥원 한약진흥재단으로 승격하여 본원(경북), 2분원(전남, 서울)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남 분원에는 전문인력 33명이 한의학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토종자원 한약재 기반구축 2단계 사업[7]으로 2건의 토종 한의약 자원 기원감별 및 감별키트 개발과 100점의 토종 자원종자 기탁, 24건의 유전체 NCBI Genbank를 등록했다. 또한 소재은행 성분분석 및 자원 분양지원 62종, 지역 산업화 지원 7건 및 한의약 산업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으로 한의약 산업 인력 575명 교육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약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3단계 사업[8]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 5건(황금, 진피, 갈근, 백지, 숙지황) 등록 및 한약 실험정보 수집체계 마련을 통하여 다빈도 한약 90품목의 실험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실험정보 생산 등 기업지원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한약 비임상시험센터(GLP)를 장흥군에 유치(옛 장흥교도소 부지)하여 2017년 국비 9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8년 건립하였다. 2019년 시범 가동 후 4건의 GLP 추가 인증 신청 4건(복귀돌연변이, 염색체이상, 소핵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과 14건의 기업지원을 했다. 이를 통한 한약(재)에 대한 안정성·유효성 평가와 독성평가 연구로 한약에 대한 신뢰성 및 한약제제 수출판로 확보하였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래의 한의약 산업 속에서 한의약의 유효성 · 안전성 ·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전남의 한의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추진부서 식품의약과장 이영춘, 통합의료팀장 임선화, 담당자 김주연

7) 1단계 : 2012~ 2016년 80억, 2단계 : 2017~2021년 70억
8) 1단계 : 2011~2014년 10억, 2단계 : 2015~2019년 7억, 3단계 : 2020~2024

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남도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심야시간대에 복약 상담 및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20년 3월에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공공심야약국'은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연중무휴로 심야시간대(22:00~24:00) 운영하는 것이다. 2021년 총사업비 6억 6천만원을 확보하고 시군 및 약사회 협의를 거쳐 목포시 비타민약국, 순천시 오가네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일반약 판매 7,017건, 처방약 60건, 전화상담 151건의 실적을 올렸다.

2022년에는 여수시 백운약국, 광양시 공약국까지 추가 지정하여 심야시간대 의약품이 필요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약국에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119와 지역 약사회 등과 연계하여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시간 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사전예방,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약국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틈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추진부서 식품의약과장 이영춘, 통합의료팀장 임선화, 담당자 노홍선

5-5.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가. 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민 소득의 증가 및 생활 수준 향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고 변화하는 식생활 트렌드에 맞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1) 식품 제조·가공업소 관리

전남도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업소를 2018년 346개소, 2019년 397개소, 2020년 508개소, 2021년 583개소로 매년 확대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HACCP이란 식품 ·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 · 가공 · 조리 · 소분 · 유통 · 판매 · 소비의 전 과정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위해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 관리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전남도는 HACCP 인증업체 지원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으로 HACCP 시설개선자금을 최대 4억 원까지 8년 이내 상환, 1% 저리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가) 위생 점검 강화

전남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출입 · 검사를 확대하고, 상습적 또는 고의로 관련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를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 제제를 병행하는 등 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식품 생산 단계별 안전성 확보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 수준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식품 제조 가공업소 2,667개소에 대하여 원료의 입고·보관에서부터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기계 · 기구류 청결 상태, 첨가물 적정 사용 여부, 원료 보관 창고 등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

(단위 : 개소)

식품제조가공업	품목별(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과자류 등	장류	절임식품	김치류	다류 음료수	젓갈류	조미식품	기타	
2,667	263	216	329	133	791	113	206	616	5,372

추진부서 식품의약과장 이영춘, 식품안전팀장 김태령, 담당자 이순길

2) 식품 판매업소 등 관리 및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전남도는 식품 등의 보관·취급·판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예방을 위해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등과 같은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김장철, 휴가철 등 시기별 또는 테마별로 감시를 강화했다.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유통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중점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계절적 성수 식품과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유통·판매업소에 대해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식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 식품유통·판매업소 현황 】

(단위 : 개소)

계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기타
			식품자동판매기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기타		
7,252	1,341	225	1,921	825	491	307	2,089	53

추진부서 식품의약과장 이영춘, 식품안전팀장 김태령, 담당자 이순길

3)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비영리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2,120개소에 식중독과 같은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 자율 위생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봄 신학기와 식중독 취약 시기인 3월부터 10월까지 식재료 보관 상태, 칼·도마 등 조리기구의 소독 및 관리 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매끼 제공하는 음식물의 보존식 관리 상태 등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에 대한 급식관리자의 경각심과 역량을 높이고자 식중독 예보 지수 문자 발송, 찾아가는 현장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집단급식소 현황 】

(단위 : 개소)

계	학 교	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	병 원	산업체	기 타
2,120	815	176	586	229	215	99

추진부서 **식품의약과장 이영춘, 식품안전팀장 김태령, 담당자 이순길**

4)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최근 소비가 급증하여 배달음식점 이물 혼입 등 위해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높은 치킨, 피자, 김밥집 등 2,225개소 배달음식점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연 4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38,292개소의 모든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 연 2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식품 관련 협회·단체가 회원 업소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민·관이 공동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식품접객업소 현황 】

(단위 : 개소)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38,292	28,941	6,288	1,542	606	661	254

추진부서 식품의약과장 이영춘, 식품안전팀장 김태령, 담당자 이순길

5) 식중독 예방 및 식음료 안전관리

식중독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식품을 충분히 가열·조리하고 섭취하거나 위생적으로 취급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에 전남도는 식중독 발생을 줄이고자 인구 100만 명당 식중독 발생 목표치를 100명 이하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학교 815개소, 아동시설 및 복지시설 762개소, 산업체 215개소, 병원 229개소 등 총 2,120개소의 집단급식소와 여름철 생선회 취급업소 938개소, 행락철 김밥 판매업소를 식중독 취약업소로 지정했다. 분기마다 교육청(지원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한 식중독 사전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5~10월)에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대형음식점 영업자 등 3,000명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지수'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여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남도의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수가 전국 평균 116명 보다 9명이 적은 10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품 직접 취급자와 위생업소 종사자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전남 관광객 7천만 명 시대에 부응하는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식품의약과장 이영춘, 식품안전팀장 김태령, 담당자 이부심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전남도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확보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 200m이내 및 학원가 주변 603개소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총 1,197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있으며, 150개소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가 부정·불량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전담관리원 154명을 위촉,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시·군 공무원과 함께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과자·캔디·초콜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매년 500건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해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등 식품 규격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수거·폐기했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전국 어린이 및 청소년 비만율은 2008년 11.2%, 2014년 15%, 2020년 20.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아 비만의 약 4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소아 시절 식습관이 평생 식습관을 좌우하는 등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대상 급식 관리가 중요하다.

전남도는 2013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위생·영양을 고려한 체계적인 식단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국비(50%)를 지원받아 설치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9개소를 설치했으며 2021년 12월, 전 시군에 센터를 설치했다.

최소 2명부터 최대 15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 위생 및 영양관리 지도, 연령별 급식용 식단 및 조리법 개발, 교육자료 제공 등 영양관리와 위생 안전 컨설팅의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전남도는 도내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센터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

(단위 : 개소, 명)

개소 수	설치 시·군	종사인력		
		소계	남	여
22	22 (위탁 18, 직영 4)	139	9	130

다.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

전남도는 2006년부터 음식문화개선 실천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의 음식을 여럿이 먹는 문화에서 벗어나 위생 집게나 국자를 이용해 음식을 각자 덜어 먹거나 개인용 찬기에 담아 먹는 건강한 식사 문화를 조성하자는 운동이다.

모니터 요원 66명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매년 덜어 먹기 및 개인 찬기 사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에 정착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음식점을 대상으로 매년 위생용품(위생모, 마스크, 앞치마) 등을 제작·배부했다. 아울러 관광객 및 노약자 등 음식점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6,480개를 설치했다.

【 입식테이블 지원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지원량	6,480	240	240	1,000	5,000
사업비	3,036	168	168	700	2,000

전남도에서는 유래없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2020년 3월부터 '도민안심식당'을 전국 최초로 지정·운영했다.

도민 안심식당은 주기적인 소독·환기, 덜어먹기 또는 개인찬기 사용, 종사자 마스크 쓰기, 테이블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는 음식점 2,039개소를 지정·운영했다. 도민 안심 식당은 2020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안심식당' 사업의 모태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전남도는 안심식당 확산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자, 앞접시, 위생집게, 마스크 걸이 등 위생용품을 제작 배부했고,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3대 실천 과제(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가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관리했다.

【 나란히나란히 도민안전식당 】





또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했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3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전남도는 위생등급제 확산을 위해 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대상으로 18만원 상당 위생용품을 지원해, 2021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목표량 400개소를 초과해 895개소를 지정하는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표지판 】







전남도는 도민들이 식사 문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알기 쉽게 음식문화개선 홍보영상을 제작해 지역 TV와 라디오 등을 활용해 범 도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남도의 이러한 노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아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19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안심식당 사업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 전국 3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추진부서 식품의약과장 이영춘, 음식문화팀장 박시원, 담당자 김보아

6.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등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 극복

6-1. 감염병 정책 추진

가.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으로 명칭)은 전남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감염병 정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10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운영하였으며, 사업 간 연계 효율화 및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2019년 10월부터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위원 2명을 위촉하여 감염병 정보 공유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평소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 정책 개발, 발생 감시, 역학조사 및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며, 위기경보 2단계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하여 현장 역학조사 등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전담병원 방역 자문, 코로나19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코로나19 데이터 분석 등 코로나19 상황의 최일선에서 대응하였으며, 인구 10만명 당 환자발생률(2021년 12월말 기준)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26개 사업을 운영하여 1,5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시군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역량강화교육, 감염병 감시·홍보 등 128회를 제공하는 등 계절 감염병에도 적극 대응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감염병 정책 발굴, 감염병 대응인력 역량강화 등 감염병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 미, 감염병정책팀장 서미애, 담당자 노유리

6-2.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지원

가. 감염병 예방사업

1) 방역·소독 추진

하절기 환경 위생 취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조기 방제를 위해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구밀집지역, 쓰레기장, 축산농가, 하천과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28,963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일제 방역·소독을 143,578회 실시했다.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방역 약품 직접 살포를 통해 방역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고, 연무 소독보다는 분무소독 위주의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으로 방역 효과를 한층 더 높였다.

2) 생물테러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국제행사 및 대규모 국내행사 시 발생 우려가 있는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소방, 군,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책반을 구성하여 매년 민·관·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2개 시·군에서 격년제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대규모 1회, 소규모 10회 실시하여 생물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훈련도 매년 1회 실시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있다.

또한, 생물테러 조기인지를 위한 8개소의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2021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으로 보고하도록 생물테러 감시체계가 개편되어 운영한다.

3)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신종감염병·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 시 초동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현장 인력 지원을 위해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을 각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요원을 통해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병 신고를 확인·대처하고 있다. 2021년에는 21명의 감염병 전담요원이 채용되어 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신고 및 환자감시 자료 170,798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4) 장내기생충퇴치사업

장내기생충의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양성률이 높은 유행지역을 중심으로 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생충질환을 조기 발견·대처하는 한편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기생충감염병에 대해 홍보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21년에는 13개 지역에서 10,031건을 검사하여 양성자 346명을 발견하였고, 주민에게 치료제를 투약하고 2개월에서 3개월 후 재검사를 통해 완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국내 토착 기생충감염병의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 교육·홍보 및 관리사업을 추가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 47,040천원을 편성하는 등 기생충감염병 감소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 미, 예방대응팀장 이남희, 담당자 곽우승

나. 예방접종사업 지원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흔히 사용되는 공중보건 중재 수단의 하나로써, 예방 가능한 많은 질병 발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에 공헌하고 있다.

전남도는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고자 어린이 등 451만명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맞춰 영아(8개월 이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포진(취약계층 65세 이상) 예방접종, 취약계층(50~60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17만명에 대한 선택예방접종사업을 추진했다.

【 예방접종사업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52,418	25,903	29,233	33,775	29,690	33,817
국가예방접종	139,221	25,903	25,731	30,663	26,489	30,435
선택예방접종	13,197	-	3,502	3,112	3,201	3,382

국가예방접종사업은 2022년도 예산 304억 원으로, 어린이 44만 1천명 16종 예방접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5천명,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자궁경부암) 2만명, 성인 예방접종(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45만 5천명, B형간염 주산기감염 324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전남도는 선택예방접종사업(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에 34억원을 투입해 4만 2천명을 접종한다. 면역력이 낮아 심한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영아 1만명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대상 1만명 대상포진 예방접종, 50~64세 저소득 어르신 대상 2만 2천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에 대한 최신 국내외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방접종으로 도민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 미, 예방대응팀장 이남희, 담당자 김경화

다. 한센병 예방관리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한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무의탁 한센양로자 및 한센장애인 보호시설 지원 등으로 한센병력자의 장애 예방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2021년말 한센병 환자는 989명으로 국립 소록도병원과 여수애양병원에서 467명이 등록·치료받고 있다. 정착농원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522명에 대하여는 한센복지협회 부설의원과 여수애양병원 등에서 월 1회 또는 연 2회 이상 전문적인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여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에게 월 15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020년부터는 월 17만원으로 지급액을 확대하였다. 2021년 4월부터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를 추가 조사하여 2022년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다.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 미, 예방대응팀장 이남희, 담당자 곽우승

라.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견된 감염인을 대상으로 상담·보호·지원 등을 통한 건강관리와 추가 전파를 방지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감염취약계층인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조기 발견을 강화하고, 포스터·리플릿 배포, 순회홍보, 방문교육 등을 통해 에이즈 관련 지식을 전달하여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HIV 감염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지원으로 타인 전파 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2018년~2021년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HIV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총 7억 8,935만원을 지원하여, 감염인의 진료 부담을 덜었다.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 미, 예방대응팀장 이남희, 담당자 곽우승

6-3. 질병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가.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역학조사

전남도는 감염병 예방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에 총 23개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로 전남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감염병은 제2급으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제3급은 쯔쯔가무시증, C형간염 등이다.

【 연도별 감염병 발생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국	168,219	157,743	85,239	78,213
전남	7,666	6,093	4,070	4,144
비율	4.6	3.9	4.8	5.3

* 출처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2021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으로 감염병의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률이 97%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환자 발생 즉시 역학조사, 격리 등 방역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고 있어 발생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동남아 등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설사환자)에 대해서도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등 23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60개소 의료기관, 보건소를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병을 감시하고 있다.

2018년 대비 2021년에는 제2급 감염병의 발생률이 수두가 147% 감소, 유행성이하선염은 12% 감소하였고, 제3급 감염병의 경우 쯔쯔가무시증이 4.5% 증가하였고, C형간염은 11.7% 감소했다.

전남도는 급성감염병환자 관리로서 1급감염병 17종, 2급감염병 11종에 대하여 환자와 의사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격리입원 치료비 5천 1백만원을 지원했다.

【 연도별 급성감염병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예산	51	12	22	9	8
대상자 수	162	36	79	26	21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 미, 역학조사팀장 장순호, 담당자 김이슬

나. 결핵 전담인력 및 환자 관리

전남도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을 통해 결핵관리전담요원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33명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결핵환자의 복약 지도·사례상담·치료 순응도 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해 환자의 유병률 감소에 기여했다.

【 연도별 결핵환자 발생건수 】

(단위 : 명)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전국	112,354	33,796	30,304	25,350	22,904
전남	6,077	1,831	1,607	1,353	1,286

* 출처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만성감염병인 결핵 예방관리 및 조기 퇴치를 위하여 등록환자 관리, BCG 예방접종, 환자 조기발견사업, 주민홍보 교육 등을 중점 실시했다. 환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 치료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6개월 단독요법을 확대실시해 완치율을 높였다.

2020년 감염병 분야 사망자 584명 중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109명(18.7%)이다. 65세이상 결핵 사망은 103명(94.5%)를 차지하여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해 선제적 환자 발견과 예방·치료 목적으로 결핵 집단검진, 접촉자 검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연도별 결핵검진 실적 건수 】

(단위 : 명)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결핵검진	179,626	44,605	46,974	50,996	37,051
유소견자	536	87	47	260	142

특히, 2017년도부터 2019년에는 노인결핵 전수 검진을 통해 도내 65세 이상 노인 27만 3천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 검진을 실시하였고, 총 19만 9천명이 검진에 참여하여 389명의 유소견자를 추가로 발견했다.

도는 앞으로도 결핵 발병 취약 대상자와 시설에 대하여 검진을 지속 확대하여 결핵 예방과 조기 차단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 미, 역학조사팀장 장순호, 담당자 김이슬

6-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가.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대책본부 운영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전라남도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 비상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발령 시까지 운영하며, 대응팀 42명과 협업부서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방역대책본부의 임무 및 역할은 방역상황관리, 지역 대응책 마련,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격리자 관리, 의료자원관리를 총괄하는 것이다. 2022년도 예산은 2천 2백만원으로 본부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민을 위하여 비상방역대책본부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 미, 감염병정책팀장 서미애, 담당자 김지희

나.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전남도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0년부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 환자다. 지원 기간은 입원·격리 치료 또는 재택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날까지이다.

내국인의 경우 국가와 도가 치료비(본인부담금)를 절반씩 부담하고 외국인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무관한 치료비는 미지급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현황 】

(단위 : 명,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3.
인 원	308	1,583	355
금 액	249,642	1,027,886	215,992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미, 재택치료T/F팀장 김태은, 담당자 임해리

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및 관리

전남도는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3개소(시군당 1, 무안 2)에 예산 44억원, 의료인력 등 138명을 투입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총력 대응했다.

2021년 2월 26일 첫 접종 시작 후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군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다.

도민 예방접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기틀을 마련하고자 접종한 결과 1차접종(164만명) 90.1%, 2차접종(163만명) 89.3%, 3차접종(132만명) 72.7% 달성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실적 】

(2022. 3월 말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인구수	접종실적	접 종 률			
			전체	12세 이상	18세 이상	60세 이상
1차접종	1,826,609	1,645,905	90.1	97.6	99.0	96.6
2차접종	1,826,609	1,630,932	89.3	96.7	98.2	96.1
3차접종	1,826,609	1,328,153	72.7	78.9	83.0	91.7

전남도는 3차 접종률 80% 이상, 고위험시설 4차 접종 85% 이상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 미, 예방대응팀장 이남희, 담당자 김경화

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감염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의료원) 22개소 및 의료기관 35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유흥시설, 외국인 사업장 등 집단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늘어나는 검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명절이나 관광시즌에 맞춰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했다. 2022년 3월말 기준 보건소에서 6백 2만 7천명을 검사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였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방역물품을 정기·수시로 보급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는 인력을 파견하는 등 검사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선별진료소 근무 인력들을 위해 2021년 2억 3,157만원, 2022년 5억 4,836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한시적 추가 활동비를 지원하였다.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 미, 예방대응팀장 이남희, 담당자 곽우승

마.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전남도는 2021년 11월 26일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된 이후 보건소 간호인력 추가 배치 지원을 위해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월 345만원 기준의 보건소 간호사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상위 2개 시(여수, 순천)에 3명, 그 외 시·군(20개)에는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군별 재택치료 간호인력 채용 현황은 2022년 3월말 기준, 채용배정 인원 48명 중 34명을 채용하였고 12명은 채용 공고 중에 있다.

이 사업으로, 보건소는 재택치료 업무과중 해소와 급증한 재택치료자 의료상담 등 재택치료 관련 행정서비스도 원활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 20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지원금액	배정인원	비 고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1,745,600	46	보건소별 2명 채용지원 여수시, 순천시 3명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미, 재택치료T/F팀장 김태은, 담당자 김효욱

바. 재택치료자 관리 지원

전남도는 2021년 11월 26일부터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군 재택치료전담팀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시·군 부단체장 총괄 책임 하에 도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고 있다.

2022년 3월말 기준 전남의 누적 재택치료 환자는 총 354,502명(누적 확진자의 92.5%)이며 이 중에 282,845명은 완치되었다. 71,657명은 치료 중으로 집중관리군이 9,575명, 일반관리군이 62,082명이다.

집중관리군은 도내 80개 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전화로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 지원상담센터(도·시군 23개소, 의료기관 6개소)에서 재택치료와 관련한 행정·의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3월말 까지 총 306,441건에 달하는 상담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궁금증 및 도민의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일반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동네 병·의원 중심 387개 의료기관을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참여케 하여 호흡기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및 PCR검사, 전화상담·처방 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환자가 대면진료 필요시 진료·검사·처방 등 적절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29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와 의료취약지역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전남형 시설재택치료'를 추진하여 지금까지 총 1,073명을 안전하게 격리·치료하였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정책 완화 이후에도 재택치료는 당분간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변하는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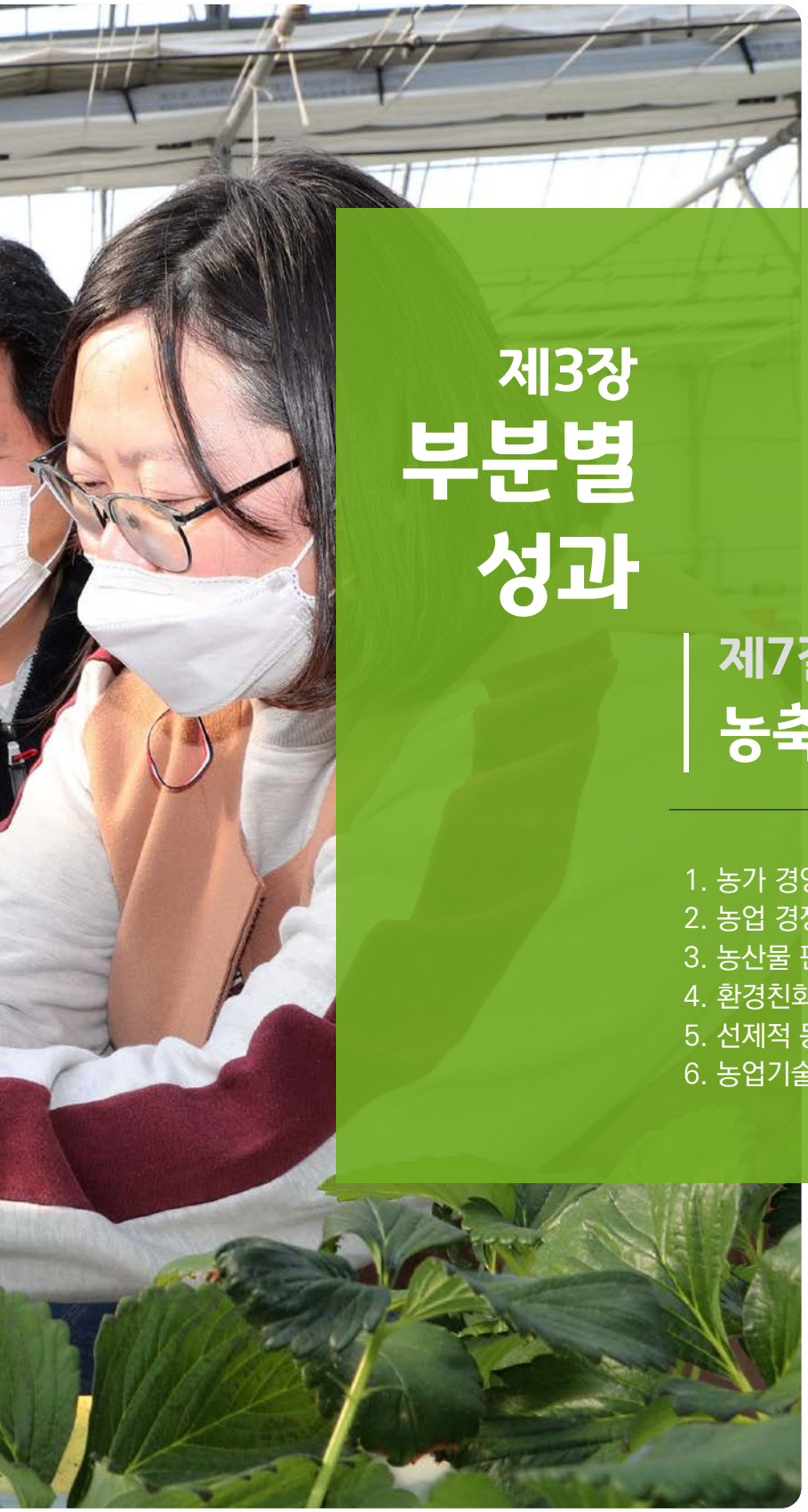
【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 현황('22. 3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원	의원	비 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80	74	6	집중관리군 관리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387	44	343	일반관리군 관리
호흡기전담클리닉	15	13	2	
전화상담·처방 동네 병·의원	116	5	111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292	71	221	도 지정 22개소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장 진미, 재택치료T/F팀장 김태은, 담당자 김효욱





제3장 부분별 성과

제7절 농축산

1.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
2. 농업 경쟁력 제고
3. 농산물 판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4. 환경친화형 축산 환경 조성 및 유통 활성화
5. 선제적 동물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6. 농업기술 개발 및 농업·농촌 활성화

제7절 농·축산

1. 농가 경영 안정망 구축

1-1. 농가 소득보전 및 농업기반 확충

가.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전남도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융자 지원 규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1,567억원,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총 6,328억원에 달한다.

2022년도 융자지원 규모는 50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1% 저금리로 제공한다.

또한, 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년 대출 금액 기준 6,000억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 시작한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은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거치기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종합자금, 산림종합 자금,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이 대상으로, 대출 시 최대 3년간 개인은 연 2백만원, 법인은 연 4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한편, 도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2,500억원을 목표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21년 말 현재까지 국비, 도・시・군 출연금, 이자 수입 등을 통해 2,072억원을 조성(목표 금액의 82.9%)해 2026년까지 무난히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기반 구축, 자금 부담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 농업정책자금 지원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993~2017	2018	2019	2020	2021
계	632,803	476,101	30,340	35,960	45,287	45,115
농어촌진흥기금	459,400	459,400	26,150	30,508	40,938	41,462
이자차액지원	34,345	16,701	4,190	5,452	4,349	3,653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경영팀장 선춘석, 담당자 박일규**

나. 농업인 월급제 지원

전남도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배분하여 농가 자금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9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작물의 경우 벼 3500㎡, 배 800㎡, 포도 780㎡, 사과 580㎡ 등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해야 한다. 월 지급액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해당 농협에서 고정 지급한ㄷ. 도는 농협에서 농가에 선지급한 월급액에 대한 이자를 해당 농협에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농업인에게 무이자 혜택을 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956농가에 22억 4천8백만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품목을 확대(9개 → 14개)하고, 신청기한도 연장(4월 → 6월)했다.

도는 앞으로도 농업인 월급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농업인 월급제 지원현황 】

(단위 : 농가, 백만원)

연 도	시군	지원농가	지 원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2019	16개 시·군	3,572	686	103	583
2020	18개 시·군	3,737	743	112	631
2021	19개 시·군	3,647	819	120	699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경영팀장 선춘석, 담당자 이윤주

다. 농가 기본소득 보전 직불금 및 벼 경영안정대책 추진

1)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통합·개편되어 운용하고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법)인이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 외에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추가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급하며 지급상한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이다.

개편 이후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의무교육이수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한다.

도는 앞으로도 신청인 누락 및 감액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과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감액 우려 대상자 집중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현황 】

(단위 : 호, ha,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농가수	382,116	190,204	191,912
면 적	431,009	219,283	211,726
금 액	890,301	447,203	443,098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식량정책팀장 김재천, 담당자 신유나**

2) 벼 경영안정대책비

전남도는 쌀 시장 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전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0.1ha 미만 벼 재배농가 및 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천 130억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부터는 매년 5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시군의 실정과 농업여건에 따라 직불금 100%, 직불금과 경쟁력제고사업, 경쟁력제고사업 100%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식량정책팀장 김재천, 담당자 마장훈

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전남도는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해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가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1단계 기반조성 컨설팅, 2단계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3단계 지속성장 컨설팅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법인경영체는 최대 3,000만원까지,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경영·대외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브랜드 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경영체 75개소, 개별경영체 11개소에 1,420백만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법인경영체 11개소, 개별경영체 4개소에 대해 1억 1천 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과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연 도	법인	개별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18~2021	75	24	1,420	852	284	284
2022	11	4	185	111	37	37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경영팀장 선춘석, 담당자 이주은**

마.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반시설 확충

1) 배수 개선

전남도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상습 침수지역의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75년부터 2030년까지 448지구 72,373ha에 2조 7,3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342억원을 투자해 55지구 6,570ha를 정비했다. 앞으로 1조 5,013억원을 투자해 246지구 30,588ha를 정비할 계획이다.

배수 개선 사업은 홍수 시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전망으로, 도는 앞으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배수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 】

연 도	사 업 량		사업비(억원)
	지 구 수	면 적(ha)	
계	202	41,785	12,322
2017까지	147	35,215	9,980
2018~2021	55	6,570	2,342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기반팀장 최연호, 담당자 박필영**

2)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등의 수리시설물이 설치된 후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돼 집중호우 및 태풍 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보수・보강하고, 토공 용・배수로를 구조물화해 효율적인 물 관리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1992년부터 2030년까지 총 1,173지구에 3조 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170지구를 개보수해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피해를 최소화했다.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

연 도	사 업 량(지구)	사 업 비(억원)
계	848	21,048
2017까지	678	14,722
2018~2021	170	6,326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기반팀장 최연호, 담당자 정동완**

3) 방조제 개보수

전남도는 시설이 노후되고 설계기준에 미달해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 우려가 있는 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해 재해 예방과 안전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98년부터 1,064지구에 1조 3,8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38지구에 1,377억원을 투자해 노후방조제 및 배수갑문 등의 개보수를 완료했다. 앞으로 137지구에 1,703억원을 투자한다.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31개를 선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 착수 대상지로 18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방조제를 사전에 보강함으로써 시설물의 붕괴를 방지하고 바닷물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해 농업 재해 예방과 농업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

연 도	사 업 량(지구)	사 업 비(억원)
계	927	12,147
2017까지	789	10,770
2018~2021	138	1,377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기반팀장 최연호, 담당자 조장근**

4)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전남도는 수리시설이 부족한 수혜면적 50ha 이상 지역에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수지,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83년부터 2030년도까지 총사업비 1조 8,812억원을 투입해 134지구 31,589ha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2개 지구 7,649ha에 사업비 1,153억원을 투자해 안전·편의 영농기반을 구축했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및 재해피해에 대비함은 물론 고품질 농작물 생산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

연 도	사 업 량		사 업 비 (억원)
	지구수	면 적(ha)	
계	85	24,473	12,431
2017까지	63	16,824	11,278
2018~2021	22	7,649	1,153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기반팀장 최연호, 담당자 정동완**

5) 지표수 보강개발

전남도는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기존 수리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나 수혜면적에 용수가 부족해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의 수원공을 확장·보강하기 위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1990년부터 2030년까지 총 217지구에 8,18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0지구에 920억원을 투자해 3,767ha의 답면적을 수리 안전화 해 가뭄 해소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내 농업생산기반이 현저히 개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 대응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앞으로도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농업환경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실적 】

연 도	사 업 량		사 업 비 (억원)
	지구수	면 적(ha)	
계	194	11,368	4,797
2017까지	154	7,601	3,877
2018~2021	40	3,767	920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기반팀장 최연호, 담당자 조영신**

6) 경지정리

경지정리 사업은 기계화 영농 촉진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불규칙한 농지의 규격화・집단화, 용・배수로 신설, 농로 개설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전남도는 1965년부터 2030년까지 211,845ha 38,78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735ha에 556억원을 투자했으며, 도의 2021년말 기준 경지정리율은 88.9%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통해 기존에 경지 정리된 구역 내 용・배수로, 농로 등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 】

연 도	사 업 량 (ha)			사 업 비 (억원)
	계	일 반	대 구 획	
계	188,527	153,559	34,968	26,047
2017까지	182,792	153,559	29,233	25,491
2018~2021	5,735		5,735	556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기반팀장 최연호, 담당자 이송희**

7) 밭기반 정비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 개발, 농로개설, 밭정지사업을 시행하여 현대화된 밭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37,797ha에 9,6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901억원을 투자하여 6,316ha를 정비했고, 2021년 말까지 밭기반 정비율은 83.2%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도는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1,980억원을 투자해 6,341ha를 정비할 계획이다.

【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 】

연 도	사 업 량(ha)	사 업 비(억원)
계	31,456	7,624
2017까지	25,140	6,723
2018~2021	6,316	901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기반팀장 최연호, 담당자 이송희**

8)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라남도는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 유통시설 간 연결 농로를 확·포장해 기계화 영농 촉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84억원을 투자해 450㎞를 정비했고, 주요 농로의 77.5%인 5,755㎞를 완료했다.

도는 2030년까지 7,421㎞, 7,9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농경지 내 농산물 운송편의 도모로 농업인들의 영농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

연 도	사 업 량(㎞)	사 업 비(억원)
계	5,755	6,033
2017까지	5,305	5,449
2018~2021	450	584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기반팀장 최연호, 담당자 조영신**

바. 살고싶은 농촌 조성

1) 농촌협약

도시와 농촌, 농촌 지역 간 정주여건 및 공동서비스, 경제활동 기반의 격차는 농촌의 삶의 질 저하와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해 지역 쇠퇴 및 경제 침체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농식품부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제도화하고 관련 예산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전남도 시·군은 지역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과 협약대상 생활권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통해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아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생활권 구현이라는 목표로 농촌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5개 시군에서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2021년에는 1개 시군에서 협약을 체결했고, 2022년에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도는 2023년 사업 공모에 대응하고자 시·군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전남도는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인 서비스 공급 기능 확대와 함께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소도읍 육성사업',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2015년 이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2021년까지 19개 시·군 101개 지구에 총사업비 1조 1,462억이 투입돼 농촌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사업과 주민 참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거점기능 중심으로, 중심성이 낮은 지역은 기초생활인프라 중심으로 투자 할 계획이다.

【 연도별 추진현황 】

(단위 : 지구수)

구 분	계	2018년까지	2019	2020	2021
계	101	95	2	3	1
중심지	6		2	3	1
중심지(일반지구)	86	86			
중심지(선도지구)	8	8			
중심지(통합지구)	1	1			

2)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읍·면 소재지 대상으로 배후마을에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 SOC시설을 확충, 기초생활거점 마을로 육성해 배후마을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부터 통합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됐으며, 전남도는 2021년까지 15개 시·군 31지구에 총사업비 1,231억원을 투입해 농촌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시·군 내 1·2계층 외 읍면으로 한정하고,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핵심 SOC시설은 지역현황 분석을 통해 거점지구 반경 300m 이내에 위치시켜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와 복합화, 단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현황 】

(단위 : 억원)

2019		2020		2021		2022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16	641	6	239	7	280	2	71

3)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 핵심사업으로 향토자원 육성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00개소를 선정했는데 전남도는 17개 시군이 선정돼 지구별 총사업비 70억원(국비 49, 시군비 21)을 투입해 4년간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을 펼쳐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 가공시설·장비 개선, 창업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지원해 지역의 농업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선순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현황 】

(단위 : 억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17	1,190	1	70	4	280	6	420	4	280	2	140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촌개발팀장 장영태, 담당자 김철홍**

사. 농지전용 허가 협의 및 진흥지역 관리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농지의 보전과 가용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경지정리 및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의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의 축절단, 잠식가능성, 주변 영농활동에 피해 여부 등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농지전용 허가(협의) 사유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하천정비, 도로개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전라남도 전체 농지전용 허가・협의현황은 33,017건 6,520㏊이다.

주목할 점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18년~2019년 기간에 농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전용 제한면적이 상향되고(진흥밖 1ha→3ha) 농지보전부담금이 완화(50% 감면)되어 농지전용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 농지전용 허가 협의 및 진흥지역 관리 】

(단위 : ha)

구분		2017		2018		2019		2020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6,946	1,534	8,674	1,626	8,204	1,856	9,193	1,504
허가협의	공공(도로,철도,기타)	695	741	503	322	1,059	344	1,067	550
	민간(주거,농업용,기타)	5,642	756	7,791	1,277	6,933	1,499	7,910	942
신고전용		609	37	379	27	212	13	216	12

그러나 최근 농지, 산지에서 무분별한 태양광사업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군 조례 제정 등의 노력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은 감소[1] 추세다.

1) 2018년 981ha → 2019년 638ha → 2020년 469ha

한편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농업인주택, 농업 관련 시설, 도로, 철도, 공공시설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농지에서 허용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전라남도)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관련 농지분야 협의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 등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9년~2020년 기간 중 장흥, 해남, 영암 진도 간척지 신규 지정으로 진흥지역 면적은 오히려 증가했다.

【 전라남도 농업진흥지역 현황 】

(단위 : ha)

연도	연도별 면적					
	농 업 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전년대비 증감		
				농 업 진흥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2018	222,245	184,130	38,114	-623	-3,253	2,629
2019	222,937	184,147	38,790	692	17	676
2020	223,654	184,839	38,815	717	692	25
2021	223,625	184,811	38,814	-29	-28	-1

2021년 초 LH사태 발생으로 국회에서는 농지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법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투기 우려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등 농지 관리체계가 강화됐다.

일환으로 필지별 농지의 소유와 이용현황 관리를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 으로 전면 개편된다.

전남도는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와 농지원부 등재 사항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임대차, 실경작 여부 등 일제정비 114만건을 실시했고, 농지대장으로 개편 이후 2023년까지 추진한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생산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보전의 기반으로 환경오염과 재해예방 등 다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 공공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량농지의 전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 농지관리와 보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이동훈**

1-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업외소득 창출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전남도는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내실화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585개소 82억 9백만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77개소 78억 6천 1백만원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국비 사무장 80명(21개 시・군, 18억 3천 9백만원)과 도비 운영 매니저 21명(13개 시・군, 4억 6천 7백만원)을 포함해 총 10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무장(운영매니저)은 체험, 홍보, 마케팅, 마을운영 등의 능력을 갖추고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 사무 관리,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마을 소득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사무장 채용비용 지원과 함께 농촌체험마을 운영상황 점검 및 평가를 지속 실시해 사무장(운영매니저)의 고용여건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지원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지 원 개소수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06~2017	585	8,209	3,173	1,410	2,963	672
2018	87	1,577	586	259	559	173
2019	83	1,733	629	275	592	237
2020	101	2,133	763	330	717	323
2021	106	2,418	852	397	853	316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경영팀장 선춘석, 담당자 이윤주**

나. 농어촌민박 활성화

전남도는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 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에 세 가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지원 사업이다. 농촌민박 서비스와 안전교육을 제공해 농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의식 고취 및 방문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2,545개소에 1억 9천 9백만원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3,277개소에 3,15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이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설치 지원 사업으로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간이완강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품목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0억원을 지원했고, 2022년에도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공동홈페이지 홍보비 지원으로 광고비 절감 및 예약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어촌 민박업체에 대한 관리와 지원으로 농촌관광의 소득증대에 힘쓸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경영팀장 선춘석, 담당자 이주은

다. 경관작물 재배·관리

전남도는 2005년부터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반 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관 조성 효과가 우수한 초화류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경관작물은 최소 2ha 이상, 또는 준경관작물은 최소 10ha 이상을 집단 재배해야 한다. 지급 단가는 헥타(ha)당 경관작물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 준경관초지 45만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791ha에 대해 376억 4천 4백만원을 지원했다.

2022년에는 5,514ha에 대해 82억 1천 7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작물은 유채, 자운영, 메밀 등이 주를 이룬다.

도는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현황 】

(단위 : ha, 백만원)

연 도	시군	면적(ha)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18~2021	20개 시・군	25,791	37,644	18,822	4,231	14,591
2022	20개 시・군	5,514	8,217	4,109	821	3,287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경영팀장 선춘석, 담당자 이주은

라. 중요 농업유산 발굴 및 보존

전남도는 농촌의 사라져 가는 전통 농업자원을 발굴하여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가농업유산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총 6개소로 2014년까지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구례 산수유 군락지, 담양 대나무밭이 등재되었고, 2018년에 보성 계단식 전통차와 장흥 발효차 청태전이, 2021년에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이 등재되었다.

이 중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2014년)과 담양 대나무 숲(2020년)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22년에는 세계농업유산인 완도 청산도와 담양 대나무 숲에 각 2억원, 2021년에 새로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강진 연방죽에 6억 5천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속적인 발굴 및 보존으로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중요농업유산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 전남도 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 】

시군	유산자원명	지정년도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2013년(국가중요농업유산), 2014년(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군	대나무 숲	2014년(국가중요농업유산), 2020년(세계중요농업유산)
구례군	산수유 농업	2014년(국가중요농업유산)
보성군	계단식 전통차	2018년(국가중요농업유산)
장흥군	발효차 청태전	2018년(국가중요농업유산)
강진군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2021년(국가중요농업유산)

추진부서 ○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농업경영팀장 선춘석, 담당자 이주은**

1-3.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인력수급 총력 대응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전남도는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부녀화로 농업 인력의 감소로 농업 생산성 떨어짐에 따라 농업 인적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젊고 유능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지역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내인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개별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거치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중 1%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1981년부터 2021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 23,204명(남 20,649, 여 2,555)을 선발해 총 6,368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도는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하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속적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선정 인원	성 별		분야별 인원		분야별 예산		
		남	여	경종분야	축산분야	계	경종분야	축산분야
2006~2017	2,801	2,298	583	2,088	793	344,334	251,545	92,789
2018	128	101	27	87	41	33,343	22,484	10,859
2019	131	106	25	94	37	35,125	25,106	10,019
2020	156	131	25	102	54	43,529	27,448	16,081
2021	144	124	20	99	45	40,039	27,503	12,536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이수형**

나. 학사농업인 육성

학사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미래 기술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사농업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고 농촌에 정착의욕이 강한 50세 이하인 자로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영농설계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연리 1%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10년, 운영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95명에게 834억원을 지원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26명에게 330억원을 지원했다.

원예, 과수, 특작 등 경종 분야는 농지, 고정식온실·하우스 시설, 과원 조성, 버섯재배사 등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고, 한우, 양돈, 양계 등 축산분야는 한우, 송아지 등 입식자금을 포함한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사 기반시설 등 설치 자금 등을 지원한다.

【 학사농업인육성 및 지원 현황 】

(단위 : 명, 억원)

구 분	계	2005~2017	2018	2019	2020	2021
육성인원	696	470	34	45	73	74
지원금액	819	489	38	69	106	117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이수형**

다.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건립

농업인단체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인 '전남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광주 농성동 소재)의 매각이 결정돼 새로운 사무실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남도는 농업인단체 사무공간과 농업인들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과 단체 및 농업인간 정보교류 활동과 소통 공간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전라남도 농업인지원센터'를 남악 오룡지구에 농도 전남의 위상에 맞게 건립한다.

농업인지원센터는 농산물 판매장, 회의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구성되며, 입주 시기는 2022년 하반기로 농업인단체 사무실·교육·행사, 학술대회 개최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0년 12월에 광주시 서구청과 기존 사무실 매각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센터 신축 건립 부지매입 사업비 확보와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이다.

총공사비는 70억원으로 2022년 5월에 센터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2022년 8월에 공사 착공해 2023년 6월경에 준공할 예정이다.

농업인지원센터 건립 후 전라남도 농업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대표성 있는 농업인단체에 위탁운영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김정관

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전남도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촌 일손 부족 현상으로 인건비와 생산비가 상승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2017년부터 도-시・군-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도와 시・군은 농업인과 농촌인력을 중개하는 전담 인건비와 농촌인력 수송에 따른 교통비 및 장기작업에 따른 관외자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중개수수료 무료, 왕복 수송, 상해보험료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접 시군 간 농작업반 교류 활성화로 시기를 탄력적으로 투입·조정해 중개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은 농작업 종류, 작업 시기, 인원 등을,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은 희망 근로지역, 작업가능 농작업, 희망 인건비, 작업기간, 차량 필요 여부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센터에서 실시간 데이터 관리를 통해 적정한 인력과 일자리를 중개해 준다.

2021년에는 15억원을 투자해 15개 시·군 21개소를 운영한 결과 6,839농가에 138,782명의 인력을 중개했고, 2022년에는 22억 5천만원을 투자해 21개 시·군, 3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는 농촌인력센터 운영을 통해 농가의 일손 부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도우면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 2021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실적 】

(단위 : 명)

시군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센터	여천	여수	순천	나주지부	원협	농업회사소	광양
농가	82	77	204	23	260	66	287
중개	3,800	1,200	5,000	9,000	10,409	4,340	3,500
시군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센터	다압	인력센터	곡성	구례	풍양	팔영	화순
농가	473	350	438	87	115	1,610	79
중개	2,000	5,000	3,342	5,000	1,500	4,200	9,000
시군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센터	정남진	강진	옥천	영암낭주	영암	군서	서영암
농가	72	115	26	166	93	126	45
중개	3,150	3,193	2,000	2,500	4,000	3,200	2,000
시군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센터	일로	무안	함평	나비골	영광	서영광	장성
농가	58	95	158	1,129	92	99	129
중개	4,000	3,000	5,200	4,500	3,000	3,157	2,400
시군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센터	삼서	청산	서진도	북신안	임자	압해	
농가	12	13	81	45	58	76	
중개	2,100	4,500	1,950	3,600	2,000	155	

【 2022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 】

시군	개소	인력중개센터 운영	
계	34	국고 자체사업【29】	도 지원사업【5】
여수시	1	여천농협	
순천시	1	순천농협	
나주시	3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 나주배원협, 나주시농업회의소	
광양시	2	광양농협, 다압농협	
담양군	1	담양군농업회의소	
곡성군	2	곡성농협, 옥과농협	
구례군	1	구례농협	
고흥군	2	풍양농협	풍향농협
보성군	1	득량농협	
화순군	1	화순군청	
장흥군	1	정남진장흥농협	
강진군	1	강진농협	
해남군	2	옥천농협	화원농협
영암군	4	영암낭주농협, 영암농협	군서농협, 서영암농협
무안군	2	일로농협, 무안농협	
함평군	2	함평농협, 나비골농협	
영광군	2	영광농협, 서영광농협	
장성군	1	삼서농협	
완도군	1	청산농협	
진도군	1	서진도농협	
신안군	1	압해농협	북신안농협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김정관**

마. 외국인 계절근로제 운영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 도입한 제도이다.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 한번씩 농어가의 신청을 받아 고용 인원을 배정한다.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2021년 343명을 배정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79명 고용했다.

2022년에는 433농어가에 1,230명이 배정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제한적이나 2022년 4월부터는 자가격리와 입국제한조치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가 농촌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계절근로제가 2022년 1월 대폭 개선 시행돼 소규모 농가 1주일 단위부터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다. 마늘, 양파 수확 등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전망이다.

MOU를 체결한 해남(베트남), 고흥(네팔), 무안(필리핀) 등은 해외 지자체와 함께 계절근로자를 선발한다. 나주, 강진 등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으로 추진한다.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는 지자체의 외국인 고용 및 입국지원 절차를 안내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또한 담양, 고흥, 해남, 무안군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시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격리 비용을 군비로 부담해 농가를 돕는다.

앞으로 도는 소규모 농가의 인력공급을 위해 시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수요 농가에 공급하는 전남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

(단위 : 명)

시군	합 계		농업		어업	
	농가	외국인	농가	외국인	농가	외국인
계	433	1,230	229	706	204	524
나주시	2	6	2	6		
광양시	9	31	9	31		
담양군	66	134	66	134		
곡성군	4	8	4	8		
고흥군	20	47	20	47		
장흥군	11	26	9	16	2	10
강진군	9	44	9	44		
해남군	34	134	34	134		
영암군	21	73	21	73		
무안군	6	25	6	25		
함평군	27	111	27	111		
장성군	10	28	10	28		
완도군	185	459			185	459
진도군	29	104	12	49	17	55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여성농업인지원팀장 차은령, 담당자 김정관**

2. 농업 경쟁력 제고

2-1.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 조성

가. 고품질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지원

1)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

UR 타결 이후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한 결과, 쌀 생산량 증대를 통한 쌀 자급은 달성했으나, 쌀 소비 감소 및 과잉 재고 등으로 쌀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ha 당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논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도 자체 예산 37억원을 확보해 매년 1,500ha의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도복에 강하고, 수량성도 보장되며 밥맛도 좋은 '새청무 벼' 품종을 단계적으로 공급 확대해 도 주력 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의 2021년 벼 재배면적은 155,434ha로, 숙기별로 조생종 6,409ha, 중생종 2,943ha, 중만생종 146,083ha로 각각 4%, 2%, 94%를 차지하고 있다. 벼 품종 수는 114종으로 고품질 품종 재배비율이 90%이며, 특수 품종 및 기타 재배비율이 10%를 점유한다.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은 새청무 44%, 신동진 26%, 새일미 6%, 일미 4%, 백옥찰 3% 등이다.

2021년 쌀 생산량은 79만톤으로 전년 66만 8천톤보다 1만 2천톤이 증가했고 전국 생산량 388만 2천톤의 20%를 차지했다. 10a당 쌀 생산량은 태풍·병해충 피해가 적고, 낟알 형성 시기 기상 여건이 좋아, 전년 대비 15.4% 증가한 508kg이다.

【 연도별 쌀 생산 추이 】

(단위 : ha, kg, 천톤, %)

연도	전 남			전 국			전국대비 (생산량)
	면 적	10a당	생산량	면 적	10a당	생산량	
2018	154,970	495	766	737,673	524	3,868	19.8
2019	154,091	471	725	729,814	513	3,744	19.3
2020	156,230	441	688	726,432	483	3,507	19.6
2021	155,435	508	790	732,477	530	3,882	20.3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식량정책팀장 김재천, 담당자 오선옥

2) 밭작물 생산

전남도의 보리 재배면적은 2020년에 10,343ha이고, 생산량은 29,277톤이다. 밀은 정부의 밀 산업 육성정책으로 재배면적이 지속 증가하여, 2020년에 재배면적 2,337ha에서 5,773톤을 생산했다.

콩 등 두류는 재배면적은 2020년에 9,939ha에서 12,339톤을 생산했고, 고구마 등 서류는 2020년에 재배면적 8,428ha에서 156,044톤을 생산했으며. 잡곡은 2020년에 재배면적 4,555ha에서 14,640톤을 생산했다.

밭작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남·구례·함평 등은 밀, 보성·해남·영광 등은 쌀보리, 해남·영암·무안은 고구마 등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 조직과 계열화를 도모하고 있다.

두류, 서류, 잡곡 등은 국내 소비성향에 맞춰 나물콩, 검정콩, 햇고구마, 식용 풋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을 생산토록 할 계획이다.

【 연도별 밭작물 생산실적 】

(단위 : ha, 톤)

구 분		2018	2019	2020
보리	재배면적	13,282	12,771	10,343
	생산량	25,938	38,237	29,277
밀	재배면적	1,513	1,814	2,337
	생산량	6,399	7,055	5,773
두류	재배면적	11,384	12,178	9,939
	생산량	15,897	16,954	12,339
서류	재배면적	7,865	8,777	8,428
	생산량	155,713	226,364	156,044
잡곡	재배면적	3,009	4,231	4,555
	생산량	7,503	15,830	14,640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식량정책팀장 김재천, 담당자 오선옥**

나.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농업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영농 조직을 2009년부터 2020까지 191개소를 육성했다.

지원 대상은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50ha 이상 들녘단위로 조직된 농업법인과 농협이다.

들녘경영체의 공동 면적에 따라 교육·컨설팅, 시설·장비와 사업다각화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컨설팅은 경영체당 3천만원을 총 5회까지 지원하고, 시설·장비 부문은 경영체당 1~5억원

이내로 총 3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사업다각화의 경우 경영체당 5~50억 내외로 총 2회까지 지원한다.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인 경영체는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2021년에는 들녘경영체를 타작물 생산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컨설팅 지원 53개소, 시설·장비 지원 15개소, 사업다각화 지원 1개소 등 총 69개소에 사업비 92억 7천 6백만원을 지원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떨어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들녘경영체를 더욱 확대 육성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식량정책팀장 김재천, 담당자 오선옥**

다. 농업기계화 지원

전남도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 선호도가 높은 기종을 중심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 구입 자금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78억원을 지원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04년 해남군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79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분소 설치 및 증설,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유형 및 농업기계 선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도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현황 】

(단위 : 개)

시군	개소수				
	계	2021	2020	2019	2004~2018
계	79	1	6	3	69
여수	1				1
순천	2				2
나주	7			1	6
광양	2				2
담양	2				2
곡성	12				12
구례	2		1		1
고흥	2		1		1
보성	4		1		3
화순	2				2
장흥	2		1		1
강진	4	1	2		1
해남	4			1	3
영암	3			1	2
무안	4				4
함평	3				3
영광	3				3
장성	3				3
완도	1				1
진도	3				3
신안	13				13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식량정책팀장 김재천, 담당자 마장훈

라.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

전남도는 매년 2~3건의 태풍과 봄 저온, 우박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매년 봄 한파와 저온으로 과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9년 3~4월 저온으로 배, 매실 등 3,900ha, 2020년 4월 8천ha, 2021년에는 1월 한파와 4월 저온으로 7,680ha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저온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2021년 예비비를 편성해 고흥, 완도, 진도 등 유자 주산지에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관수시설 7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무화과 동해방지용 부직포 6억 6천만원과 겨울배추, 녹차, 유자, 무화과 등 한파 피해 농작물에 대해 영양제 21억 3천만원을 긴급 지원하였다.

2022년에는 과수 한파·저온피해 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열풍 방상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등 20억원을 지원하여 재해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식량정책팀장 김재천, 담당자 정중기

2-2.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가. 신소득 원예특화 작목 육성

전남도는 2050년경 국내 육지부에서 가장 빠르게 아열대기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동시에 아열대 작물 재배의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알려진 아열대과수, 기능성채소 등 고소득 품목에 대해 일반 농업인을 비롯한 청년농업인, 귀농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2022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신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아열대과수 단지화와 기능성채소 산업화를 위한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유통기반이 열악한 신소득 작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단위 3ha 이상으로 단지화가 가능한 품목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사업참여 확대, 농가부담 완화, 청년농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율을 상향했다.

도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가 연구기관인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장성군)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해남군)와 연계를 강화하고, 품목별 집단화·단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시장교섭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원예산업팀장 성진섭, 담당자 김길석

나. 시설원예 현대화 및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

1)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토마토, 딸기, 멜론, 파프리카 등 원예 농산물의 품질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규모화 사업으로 515ha, 341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 31개소를 지정·육성하고 있다.

주요 지원대상은 채소류, 화훼류를 원예시설에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해당되며, 측고인상, 양액재배시설,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등 다양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첨단화하는 등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원예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현황 】

(단위 : ha, 억원)

구 분	계	2014~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규모	1,833	1,318	192	146	75	102
사업비	1,200	859	147	108	44	42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원예산업팀장 성진섭, 담당자 한인우

2)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

농촌인력 감소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시설원예, 과수 생산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자동, 원격제어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배에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산물 품질향상은 물론,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설채소(화훼류, 버섯 포함) 및 과수 생산 농업인으로, 온·습도센서 및 자동관수·관비설비, 모니터링 장비 등 농가가 필요한 설비에 대해 ha당 최소 2천만원(단순환경제어, 노지)에서 최대 6천만원(복합환경제어)을 지원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18.8ha에 대해 총 92억 2백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하여 농작물 생산량의 일부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에도 최대 3ha 규모의 온실신축비를 총 118억 6천 4백만원(2개소)을 지원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 시설·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농작업 효율 및 생산성 향상, 청년농업인의 유입·정착 유도 등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스마트팜 시설보급 현황 】

(단위 : 호, ha, 백만원)

구분	합계			시설원예 ICT			과수 ICT		
	농가수	면적	사업비	농가수	면적	사업비	농가수	면적	사업비
합계	303	168.6	11,922	267	144.4	10,773	36	24.2.0	1,149
2021	62	25.8	2,151	57	23.5	1,866	5	2.3	285
2020	56	33.1	2,268	49	28.2	2,078	7	4.9	190
2019	67	33.3	2,888	48	23.3	2,388	19	10.0	500
2018	33	26.6	1,895	32	24.6	1,861	1	2.0	34
~2017	85	49.8	2,720	81	44.8	2,580	4	5	140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스마트농업팀장 유덕규, 담당자 박상임, 배새롬**

다.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육성

WTO 및 FTA 확대에 따른 과실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북상, 아열대 기후화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는 품종 갱신, 무인방제시설, 관수시설 지원 등 과수 생산기반을 현대화하고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22억 원을 지원했다.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 정비 및 과수 거점 유통시설 건립지원에는 84억 원을 지원했다.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단위 과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한 과수

통합마케팅과 과실 브랜드 육성, 과실류 소비촉진을 위한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69억 원 지원했다.

또한 기후 온난화에 대응해 아열대과수로의 전환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사업에 58억원을 지원하고, 지속 육성한 결과 전국 면적의 33%를 점유하는 등 전국 최대 아열대과수 생산 지역으로 성장했다.

도는 앞으로도 시장개방, 기후변화, 소비패턴 변화,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과수산업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지원사업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18	7개 사업	11,184	3,710	1,292	3,185	2,997
2019	6개 사업	12,125	2,946	1,213	3,299	4,667
2020	5개 사업	8,313	1,669	1,030	2,860	2,754
2021	4개 사업	5,236	538	664	1,640	2,394
2022	4개 사업	8,382	2,846	868	2,899	1,769

추진부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원예산업팀장 성진섭, 담당자 김길석**

2-3. 유기농업 확산

가. 유기농업 확대와 지속가능 농업환경 보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이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전남은 1,484억원을 지원하며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과수・채소 등 품목 다양화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 인증농가의 지속가능한 실천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친환경농업단지 집적화를 통한 유기농업을 확대하고자 일정 규모(30ha)이상의 단지를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로 조성하고, 인증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유기농 벼 등 집적화 확대 사업에 485억원, 친환경농업의 생산・교육・체험・농촌관광을 연계한 유기농업복합타운 조성 및 유기농 생태마을 확대・육성에 190억원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관리 및 제초비용 절감 사업 391억원, 자원순환농업 기반조성 사업으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10억원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등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용수・생태계 등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생산 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추진한 함평군 백년마을은 친환경인증면적이 대폭 확대되었고, 도 지정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는 등 농업환경 보전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선도마을 우수사례로 운영되고 있다.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주경천, 친환경정책팀장 최광일, 담당자 김민서**

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안정적 영농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과 유기인증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및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준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연차에 따라 발생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국비 감소분(유기농 6년 차, 무농약 4년 차부터 미지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를 도입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4천ha, 146억원을 지원했다.

유기인증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농 인증농가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 소득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이다. 유기농 실천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일반농가의 자부담분(20%)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86억원의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은 저리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확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05년 설치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331건 633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앞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주경천, 친환경정책팀장 최광일, 담당자 문영연**

다. 과수·채소 등 인증품목 다양화

전남도는 유기농을 선도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현을 비전으로 제4차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0~2024)을 수립, 이에 따라 농가 경영 안정・소득증대・농업환경 보전을 중점으로 과수・채소 등 인증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에서는 친환경농업 질적 성장을 위해 무농약에서 유기농업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021년 12월 전남 친환경 인증면적(40,344ha)의 64%(25,816ha)를 차지하면서 유기농업이 무농약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으며 과수・채소 중심의 품목 다양화로 과수 전국 인증면적의 26.2%, 채소 전국 인증면적의 21.5%를 전남이 차지하면서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 집적화, 시설・가공・유통 현대화를 통한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2년에는 친환경 과수・채소 품목 확대 및 전문단지 조성에 6개소를 선정,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유기농 상향에 어려움이 많은 과수농가에 각종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해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과수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에 3.5ha를 선정, 사업비 8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주경천, 유기농육성팀장 진효선, 담당자 정정**

라.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전남도는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한 친환경 인증취소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1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친환경단지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단지대표 입회하에 방제 확인을 의무화했고, ▲농관원과 합동으로 병해충 발생 취약 시기(파종기 4~6월) 및 공동방제 시기(7~9월) 등에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친환경농가 통합메시징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업인에게 영농시기별 준수사항에 대한 문자를 발송했고, ▲인증취소 농가에 대한 보조금 환수로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도는 단순한 전달 교육 차원을 넘어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역할,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위해 안전성 관리 강화 순회교육을 실시해 친환경농업이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장 주경천, 친환경관리팀장 용승민, 담당자 최서희**

3. 농산물 판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3-1.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안정성 강화

가. 농산물 유통채널 다양화

1)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소비자는 저렴하게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는 로컬푸드가 새로운 유통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전남도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2월 26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안정적인 로컬푸드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를 위해 생산 농가에 대해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 재배시기 조절, 계약재배 등 생산 농가 조직화와 안전성 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농약 잔류검사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58개소이다. 참여 주체별로는 농협 47개소, 민간 11개소이다. 시・군별로는 목포 2개소, 여수 5개소, 순천 5개소, 나주 7개소, 광양 6개소, 담양 5개소, 곡성 2개소, 구례 1개소, 보성 1개소, 화순 7개소, 강진 2개소, 해남 2개소, 영암 5개소, 무안 2개소, 함평 1개소, 영광 2개소, 장성 2개소, 완도 1개소이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고,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

귀농인은 안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됐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당일 수확, 당일 유통·판매 원칙을 준수해 추진한다.

아울러,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 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보장, 도·농상생, 지속 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생산 · 소비 체계 활성화와 관련된 성과를 평가하는 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성공적인 푸드플랜 사업추진으로 나주시와 장성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유통기획팀장 성미숙, 담당자 최선웅**

2) 직거래 판매행사

전남도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농업인은 제값을 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직거래 판매행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남과 경북의 대표 농특산물 교류 판매행사를 통한 상호 우호 증진과 상생협력을 위해 2015년부터 「영호남 상생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력해 만리동광장, 마포구 DMC, 여의도 공원 등에서 「서울시 농부의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부산, 광주 등 대도시 소재 대형유통업체(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농협중앙회 등)와 함께 직거래장터 및 판촉행사를 운영해 15억 8천7백만원의 매출(2021년 기준)을 달성했다.

도는 앞으로도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3)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최근 농식품 유통시장에서 고성장 추세에 있는 TV홈쇼핑을 이용해 전남 농수특산물 판매를 확대하고자 국내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농수특산물 생산자 단체 및 제조·가공업체 약 40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TV홈쇼핑 참가비 1천 2백만원을 지원한다

2021년까지 공영홈쇼핑, NS홈쇼핑 등 5개 사와 전남 농수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특산물 발굴,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공동 마케팅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촉진 및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TV홈쇼핑 판매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매 출 액	15,882	1,691	4,122	6,658	3,411
참여업체	115	18	20	38	39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유통기획팀장 성미숙, 담당자 김성빈**

나. 수도권 학교·공공급식 활성화

전남의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대 및 도농상생 협력을 통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공공급식에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경기도 학교급식의 경우, 전국 8개 생산자단체 중 우리 도 업체인 농협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가 선정돼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간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경기도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공공급식 산지 지자체 전국 13개소 중 전남이 4개소(나주시, 담양군, 강진군, 영광군)로 최다 선정됐으며, 생산 농가와 서울시 자치구 간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 친환경 농산물의 수도권 학교·공공급식 공급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인지도를 높여, 서울시, 경기도 학부모 등 새로운 소비시장 확대 및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공공급식은 일반농산물과 달리 일정에 맞춰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어 생산 농가와 품목별 맞춤형 재배가 가능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생산 농가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유통기획팀장 성미숙, 담당자 김성빈**

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해 농산물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농산물 출하를 다원화해 산지 마케팅 대응력 강화를 위해 1992년부터 2021년까지 96개소에 2,83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시군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 조직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신설지원은 최소화하고 기존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기존시설 개보수 및 시설통합 등으로 중점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7개소, 150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1개소 57억원을 지원하여 도내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유통시설팀장 김지연, 담당자 정삼옥**

라. 전남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

1) 전남쌀 생산 및 수급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남은 2021년도 재배면적이 155천ha로 790천톤, 2020년은 156천ha 688천톤의 쌀을 생산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으로 면적은 일부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쌀 생산량은 평년보다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1990년 119.6kg, 2000년 93.6kg, 2019년 59.2kg, 2020년 57.7kg, 2021년

56.9㎏으로 지속 감소 추세다. 2021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27만톤 공급 과잉되어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은 역계절 진폭 전망으로 농가소득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내의 어려운 환경뿐만 아니라 대외적 정세 또한 쉽지 않다. WTO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수매제 폐지, 2004년 쌀 재협상으로 MMA 수입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쌀 산업은 국내 지역 간 경쟁에서 이제는 중국, 미국, 호주 등 세계 주요 쌀 생산국과 치열한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

전남은 공세적인 판매 확대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쌀 가격하락 수급안정 대책으로 정부에 대해 선제적 시장격리 건의, 격리시기·물량·방법을 명확히 한 제도개선 요구, 논 타 작물재배사업 부활 등을 지속 건의했다.

또한 수시로 농민단체와 지역 RPC의 의견 청취를 통해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 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제값 받는 전남 쌀이 될 수 있도록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전남 쌀의 세계화를 위해 소량이지만 몽골, 미국, 러시아 등 수출 확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2) 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저장·가공시설 개선 및 확충

전남도는 전남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도내 RPC를 대상으로 가공시설 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전남쌀의 품질 유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2022년 농식품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한 7개소 모두 선정되어 전국 사업비 기준 전남이 약 36%를 확보해 전남 쌀 생산·유통 활성화는 물론 지역별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품질 고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RPC 현대화를 지속 추진해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시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3)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 쌀 등 납품 확대

전남도는 수도권 지역에 전남 친환경 쌀의 학교급식 납품 확대를 위해 시·군, 농협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방안 체계를 마련한 결과 2021년도에 10,400톤을 학교급식에 납품했다.

2021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시·도별로 추천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3개소를 선정했는데 전남에서 담양군농협쌀공동사업법인, 인수영농조합법인 2곳이 선정돼, 2년간 제주도 내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 급식으로 업체당 연간 472톤씩 총 1,888톤의 전남 친환경 쌀을 공급한다.

도는 앞으로도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 전남 친환경 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 쌀 대량소비처 전남쌀 판매촉진 성과

도 및 시군 공무원, 농협·RPC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대형 유통매장 등 대량소비처에 전남쌀 우수성 홍보 및 전남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인 BGF리테일 업체와 MOU를 체결해 운영중인 전국 15천 여개의 CU편의점에서 전남 새청무 쌀 12,800톤을 김밥용으로 전량 사용하여 전남 쌀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렸다.

또한, 대도시 소비자에게 미질이 좋은 전남쌀 구입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고객화하여 전남쌀의 지속적인 판매 ·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쌀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택배비(사업량 1,700천 포/사업비 25억 5천만원)를 지원하고 학교급식 및 기업체 등 수도권 홍보·판촉활동을 위해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비(사업량 120천 개/사업비 3억 6천만원)를 지원했다.

온라인 판촉활동으로는 20·30대 비율이 많은 라이브커머스를, 40·5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TV 홈쇼핑을 통해 전국 전연령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남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격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했다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에게 전남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비지 판매장 릴레이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판매와 연결되는 전략 마케팅을 실시했고, 매년 설·추석 명절에 귀성·귀경객 대상 고향쌀 사 먹기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쌀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백설기데이, 가래떡데이 등 릴레이 마케팅을 추진했다.

도내 학생들에게 삼각김밥과 우유를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홍보했고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는 사탕 대신 백설기를 나눠주는 행사를 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는 가래떡데이 행사를 실시하여 교육청, 농어촌공사 등 관공서에 우리 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주제로 건강한 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전남쌀 품질 고급화에 대한 민·관 노력의 결과로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증산 위주의 정책에서 품질 위주의 정책으로 쌀 산업 정책이 전환되어 전남쌀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전남쌀이 15년 연속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을 수상받은 계기가 됐다.

이러한 성과는 전남쌀의 생산단계부터 미질관리를 위해 재배기술 지도・관리, 저장・최첨단 도정시설 확충, 수시 식미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한 결과이며, 확보한 고객의 구매성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생산과 판매에 활용하고 있다.

대도시 소비자에게 전남쌀 판매・소비기반 확보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다.

5)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

전남도는 우수한 전남쌀 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을 선발하고 있다.

【 2021년 전국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


▲대숲맑은쌀 (담양금성농협)



▲프리미엄호평 (강진군통합)


▲함평나비쌀 (함평군통합)



▲수호천사건강미 (고흥흥양농협)



▲나누우리 (순천시농협)



▲녹차미인보성쌀 (보성군통합)


▲사계절이사는집 (영광군통합)



▲황토랑쌀 (무안군통합)



▲한눈에반한쌀 (해남옥천농협)



▲백세미 (곡성석곡농협)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생산부터 가공・저장・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쌀을 선정하기 위해 품종 혼입율, 외관 품위, 식미평가 등 분야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10대 브랜드 쌀은 신문, KTX, 고속버스, TV 광고 등 다양한 매체로 대도시 소비자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남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브랜드 쌀은 해당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쌀 품질향상을 독려하는 등 전남의 전체적인 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양곡유통팀장 백계승, 담당자 김지훈

마.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지원

농산물우수관리(GAP)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까다로운 위해요소 관리기준을 통과한 때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은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작물별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하지 않을 때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및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전문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에서는 GAP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검사비와 함께 전국 최초로 GAP인증 신청 수수료 및 출장비도 지원해 GAP 인증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7,228ha였던 인증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해 2022년 2월 기준 13,042ha로 약 124% 증가했으며,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주관「제7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3개소 중 우리 도의 남도장터가 온라인 유통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별 주산 품목에 대해 GAP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신선농산물 주요 수출국에서도 GAP제도를 도입·운용함에 따라 수출원예전문단지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GAP 생산자조직으로 육성해 전남을 안전한 농산물생산 메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실적 】

(단위 : 농가, ha)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농 가 수	42,671	7,192	9,918	12,416	13,145
인증면적	40,977	7,228	9,676	11,550	12,523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유통시설팀장 김지연, 담당자 송지윤**

바. 농산물 꾸러미 배송사업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2,517개교 261,862명의 학생이 개학 연기 및 온라인 비대면수업 실시로 학교를 가지 못했다. 3월부터 시작된 비대면 수업이 4월에도 이어져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손해가 날로 누적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다.

전남도는 2020년 4월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비 3~4월분 104억 7천 4백만원을 활용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53개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 가정에 직접 배송했다.

또한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개학이 연기되자 학교무상급식비 75억원을 활용해 도 824개교 188,974명의 학생가정에 남도장터 상품권 4만원을 지원했다.

2차례에 걸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전라남도 농산물 1,428톤(곡류746, 채소류 594, 과일류 58, 기타 40), 235억원이 팔렸으며, 전라남도 농산물 판매 플랫폼인 남도장터 가입자가 23만명 증가했다.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코로나19 모범대응 사례로 전국으로 전파됐으며, 2020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재난상황에 학생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해 추후 다른 재난상황 발생할 시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 농식품부, 국회의원과 협의해 법을 개정했다.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유통시설팀장 김지연, 담당자 임동호

3-2. 고부가가치 창출 농식품산업 육성

가. 전통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1) 전통식품

한식 세계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식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남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된장・간장 등 전통장류와 김치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추진한 결과, 2021년 말을 기준으로 9개 시군 49개 업체에서 144개의 품목을 인증받았다.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으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해 지역 전통식품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낮은 인지도, 유통・판매망・마케팅 부족 등 판로확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업체에 R&D, 브랜드・마케팅, 박람회 참가,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19개소에 12억 2천 4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농촌융복합산업팀장 김영석, 담당자 이주헌

2) 김치산업

중국산 김치 파동과 식생활 변화로 김치소비가 줄어들면서 국산 김치소비 촉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산 김치자율표시제 인증을 확대하고, 김치제조업체 생산설비 자동화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전남 김치의 시장 쟁력 강화와 소비촉진에 나서고 있다.

김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음식점, 구내식당, 단체급식소 등에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을 추진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도내 5,022개소가 인증을 받아 전국의 41%로 가장 많은 수치이다.

한편, 도는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과 연계해 국산김치사용을 격려하기 위해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외식업소의 부담경감에 나서고 있다. 개소당 25만원을 지원하며 총 4,800개소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김치 제조업체에 배추김치 양념 속넣기 설비, 생산비 절감 장비 등 33대를 지원하여 생산설비 자동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증대로 전남산 김치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농촌융복합산업팀장 김영석, 담당자 박진아

나. 유망 식품산업 기반 조성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정간편식 시장의 고도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제품군의 다양화 및 차별화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개인당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간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가정간편식 산업이 향후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틈새시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돼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및 미래 식품 신시장 개척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1년부터 도내 가정간편식 제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및 소포장재 개발과 마케팅 ·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 · 가공시설, HACCP시설,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수한 식재료가 풍부한 전남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식품산업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농촌융복합산업팀장 김영석, 담당자 이주헌**

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전남도는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 2·3차 산업을 통해 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도는 농촌융복합산업인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남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 안테나숍 운영, 온라인 기획전, 홈쇼핑 지원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사업자의 판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 시·도별 인증사업자 현황(2022년 1월 기준) 】

(단위 : 개소)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구	대전	세종	인천	울산	광주
인증사업자	213	169	131	222	327	359	222	201	135	3	-	26	37	9	2

지원을 통해 전라남도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는 2018년 214개소에서 2022년 359개소까지 확대됐으며 전국 최다 인증경영체를 육성했다.

도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인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농촌융복합산업팀장 김영석, 담당자 박문규**

라. 전통주 산업 육성

전남도는 지역특산주 출고량 전국 1위로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전통주가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인지도가 부족하여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전남 전통주의 지역민 인지도 제고 및 홍보를 위해 「남도 전통술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2월~12월까지 이달의 전통주 11개를 24절기, 원료 수확시기 등을 고려, 선정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홍보하고 있다.

다양하고 우수한 남도의 전통주를 전국적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남도 주류제조업체의「국제주류박람회」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남도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유지를 위해 술 품질인증 확대를 추진(2021년 기준 7개 업체 18개 제품 인증)하고「남도 전통술 품평회」수상작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 출품하고 있다.

추진부서 농업정책과장 강하춘, 농촌융복합산업팀장 김영석, 담당자 박기정

4. 환경친화형 축산 환경 조성 및 축산물 품질고급화

4-1. 환경친화형 축산 환경 조성

가. 환경친화형 스마트 축산 육성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2차에 걸친 5개년 계획 추진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까지는 환경친화형 축산 5개년 계획을 통해 도민과 상생 발전하는 환경친화형 축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제1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5개년 계획 추진 결과 국내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여 2015년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산 한우고기를 홍콩에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크게 확대해 전문단지 조성 전국 1위(16,000ha, 전국의 52%)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 전국 1위(1,688호)를 차지했다.

2016년부터 제2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확대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373농가 지정과 정부 동물복지축산 농장 36호가 인증받았으며 한우는 전국 유일 1호로 지정받았다.

2021년부터 환경친화형 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72개 사업, 16,226억원)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전환을 추진한 결과, 2021년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전국 1위(1,347호)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스마트 축산농장을 확대해 환경친화형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확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고 FTA 개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정책팀장 김태원, 담당자 임경순**

나.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전남도는 친환경축산 실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산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8년에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부터 2026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추녹색축산육성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도 및 시·군 출연금,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은 화재 발생 등 긴급경영 회생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비로 운용한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2021년까지 934억원을 조성했으며, 친환경 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 축산 생산·가공·유통·판매 분야에 1,332억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화재 발생 등으로 긴급경영 회생이 필요한 농가에 18억원을 지원했다.

【 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 】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합계①+②		보조금①		융자금②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합계	787	135,035	282	1,832	505	133,203
2009~2017	442	63,444	160	1,525	282	61,919
2018	61	17,451	5	52	56	17,399
2019	56	18,516	5	64	51	18,452

연도	합계①+②		보조금①		융자금②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2020	159	17,696	105	123	54	17,573
2021	69	17,928	7	68	62	17,860

앞으로, 환경친화형 축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유통가공시설 등 친환경 축산 실천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정책팀장 김태원, 담당자 임경순**

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과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축사 신축, 노후 축사 개축・개보수는 물론 마을안・도로변의 축사 이전, 조사료 TMR배합기, 방역시설 등 축산시설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을 필한 농가 및 소・돼지・닭・오리 등 해당 축종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거나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융자 80%, 자담 20%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중・소규모 농가는 연리 1%, 대규모 농가는 연리 2%이다. 도는 2018년 129농가 410억원, 2019년 49농가 292억원, 2020년 88농가 394억원, 2021년 74농가 276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도내 4,629호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함에 있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2021년 12월 기준 4,152호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 완료했다.

【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

(단위 : 호, 억원)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농가수	340	129	49	88	74
지원액	1,372	410	292	394	276

앞으로도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으로 각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정책팀장 김태원, 담당자 오재철**

라. 축산 ICT 융복합사업 추진

축사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 ICT 융복합사업을 추진했다.

생산경영관리 시스템, 축사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사료자동급이기, 로봇착유기, 자동사양관리기 등 원격 제어 가능 자동형 장비 신규 구비 및 교체 등 축산시설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 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이며 융자는 2%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한우 축사 첨단화를 위해 한우 ICT 융복합 확산 사업비로 지방비 30%를 추가해 보조율을 60%까지 높여 농가별 1천 5백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

(단위 : 호, 억원)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농가수	627	133	134	172	188
지원액	410	100	70	140	100

앞으로도 스마트 축산 확대로 축산농가의 노동력은 절감되고 생산성은 향상되면서 소득도 증가하여 미래까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정책팀장 김태원, 담당자 오재철**

마.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확충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축산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가축분뇨 처리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077억원을 투입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등에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분뇨처리용 기계·장비, 퇴·액비 살포비, 공동자원화시설, 미생물 등을 지원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112억원, 정화 개보수 84억원, 액비저장조 171억원, 퇴·액비 살포비 189억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9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81억원, 퇴·액비 유통전문조직 86억원, 액비 성분분석기 1억원, 액비 부숙도 판정기 2억원, 미생물 193억원 등을 지원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등에 크게 기여했다.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2개소, 액비유통전문조직 34개소, 퇴비 유통 전문조직 31개소를 육성했다.

아울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은 1,347농가가 지정받았으며, 2030년까지 4,000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축산악취 개선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앞으로 양돈농가에 액비순환시설 및 정화방류시설 설치,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 미생물 공급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자원팀장 김성진, 담당자 정상묵**

바. 조사료 생산

1) 초지조성

1980년대 이전까지는 초지조성과 소 입식자금이 연계 지원되어 초지조성 사업이 활성화됐으나, 1990년 이후 농촌 지역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미 조성된 초지도 타 용도인 도로망 확충 등으로 전용돼 초지 관리면적이 점차 감소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활성화를 위해 초지조성 시 경운초지는 1ha당 8,185천원(국고 50%, 융자 50%), 초지관리비용은 최대 50백만원, 소요액의 80%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 초지 조성 및 관리면적 】

(단위 : ha)

연도	초지조성	초지제외면적	초지관리면적
계	53.2	433.2	27.784
2006~2013	42.4	242.6	19,205.6
2014		109.8	2,179.1
2015	9.9	37.5	2,151.5

연도	초지조성	초지제외면적	초지관리면적
2016	0.9	13.5	2,138.8
2017		29.8	2,109.0
2018		142	1,967.0
2019		15	1,952.0
2020		6	1,946.0
2021		14	1,932.0

2) 사료작물 재배

초식동물(소, 젖소 등)을 사육하는데 배합사료 위주의 사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남도는 겨울철 휴경 논을 활용하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해 사료비 절감 등 생산성 확대에 기여했다.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소 생산비 절감, 겨울철 휴경 논 활용 확대를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05년 1.5천ha, 2009년 19천ha로 대폭 확대했고, 2011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조사료생산 업무협약을 체결, 우리 도가 조사료 생산·공급기지로서 역할을 했으며, 2011년 32천ha, 2012년 39천ha, 2014년 51천ha, 2015년 46천ha, 2016년 47천ha, 2017년~2021년 49천ha를 재배했다.

조사료 품질향상 및 제품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를 중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톤당 60천원)하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품질 등급제를 시범 도입해 등급에 따라 사일리지 제조비를 5단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톤당 42～120천원)했다.

2021년에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종자 구입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트랙터 등 기계장비, 조사료 품질검사비 지원 등 사업비 788억원을 투자했다.

2022년에는 자급률 103%이상 유지를 목표로 조사료의 생산·공급 기반체계를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1,0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6천ha의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과 2개소의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운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3) 배합사료 수급안정

우리 도에는 204개소의 사료공장(배합사료 38개소, 단미사료공장 102개소, 보조사료공장 64개소)이 있다.

양축용 배합사료는 전국적으로 103개소의 배합사료공장에서 2,093만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 도는 5개소의 배합사료 공장에서 전국의 4.5%인 약 94만톤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 도는 사료의 품질향상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 246건의 사료를 수거해 검사했고, 부적합 사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조치 했다.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했고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현황 】

구 분	소 재 지	생산 능력 (1일)	생산실적 (천톤/년간)	
			2020	2021
계	5개소	1,310톤	1,033	934
농협나주배합사료공장	나주 문평 옥당 30	740	631	589
광주축협목포공장	영암 삼호 난원 1714	300	202	214
남양산업 (주)	강진 군동 호계 831	90	6	6
주)사조바이오피드	함평 함평 장년 1346-2	180	194	125

추진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경영팀장 이두규, 담당자 장용연, 윤재헌**

사.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

기후 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여 탄소 배출량이 2050년까지 0이 되도록 한다는 탄소중립이 정부 차원에서 이행 중이다.

첫째로 전국 최초로 사료원료 전처리시설과 사료 제조시설을 시범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료의 체내 흡수가 쉽도록 전환해 메탄가스와 질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모델 개발·보급으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둘째로 국내산 조사료 공급 확대에 필요한 가공 및 유통 생산시설 등 2개소 신규 설치에 39억 원, 대규모 조사료 재배 전문단지 1천ha 조성에 12억 원을 투입한다.

셋째로 가축분뇨를 비농업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써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에 에너지화 시설을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가스·전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1개소에 89억 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에 1개소 10억 원, 축산악취개선에 5개 시군 120억 원, 공동자원화시설 증축·개보수에 3개소 54억 원을 투입한다.

탄소 중립 이행대상에 축산업이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기존 관행적 축산을 전환할 초석이 되는 저메탄 사료모델 개발·보급 등의 시범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정책팀장 김태원, 담당자 오재철**

4-2. 축산물 품질고급화

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전남도는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등 친환경 사육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4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도비 25%, 시군비 75%의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인증 확대를 위해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지 농가의 출하 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당 100만원 이내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증 농가가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받으면 200만원, 정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지정을 받으면 100만원의 친환경 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인증 농가에는 각종 축산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 말 기준 1,688호(무항생제 1,667호, 유기축산물 21호)를 인증하여 전국 점유율 25%로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등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전남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실적 】

(단위 : 호, %)

연도	전남(a)	전국(b)	비율(a/b)
2018	1,416	6,159	23
2019	1,578	6,158	26
2020	1,651	6,403	26
2021	1,688	6,753	25

추진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복지팀장 박진영, 담당자 송정아

나. 수출 인프라 구축

FTA체결 등 개방화에 따라 각 나라와 축산물의 품목별(신선육, 가공육) 수출위생협약 체결 확대로 국내 축산물의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2015년 12월에 홍콩과의 한우고기 수출위생협약이 체결 완료되어 수출작업장 3개소(도축장 1, 가공장2)에서 2016년 18톤, 2017년 28톤, 2018년 7톤, 2020년 0.6톤으로 총 53.6톤을 수출했다.

우리나라와 홍콩 간 검역ㆍ위생협정에서 1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수출 대상을 한정한 데 따른 것이며 전남 지역은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34년 이후 단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한우고기 수출이 가능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21년 3월에 홍콩으로 한우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우리 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광역브랜드경영체, 지역축협,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농협중앙회나주공판장이 홍콩으로부터 수출작업장 등록 완료가 예정되는 2022년 8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한우고기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출작업장 위생관리, 수출품목 교역국 확대를 위해서 수출국의 수입위생조건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 및 수출위생조건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경영팀장 이두규, 담당자 윤재헌**

다. 한우산업 육성

한우는 5천년 민족의 자산이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 해왔다. 전남도에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육기반 안정과 품질 고급화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한우는 전국 94천농가 356만두, 전남 17천농가 60만두를 사육 중이며, 생산액은 2016년 4조 8천억원 이었으나 2020년 19조 8천억원으로 313% 급성장했고 전체 농림생산액으로는 미곡, 돼지에 이어 3위이다.

전남 한우의 개량을 촉진하여 품질고급화를 위해 한우등록, 육질개선, 목걸림장치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951백만원을 투자했으며, 이러한 결과로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016년 70.3%에서 2021년 74.5%로 5년간 4.2% 증가했다.

2018년부터 시작한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전남산 한우 송아지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생산・선발하여 전남산 한우 차별화 및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4개 시・군에 100억원을 투자했으며, 그 결과 전국 유일 3년 연속(2019년~2021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산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품질 경쟁력 확보는 물론 위생・안정성까지 높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축산정책팀장 김태원, 담당자 강대진**

5. 선제적 동물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5-1. 동물방역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가. 민·관 협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 구축

전남도는 깨끗한 자연환경, 넓은 갯벌과 농경지를 갖추고 있어 매년 겨울 철새가 증가하는 반면, 방역 여건이 열악한 오리[2]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은 방역여건을 갖추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18년 1월 10일 발생 이후 2년여간 비발생을 유지하다 2020년에서 2021년 겨울철에 9개 시군에서 21건이 발생하여 97농가 381만마리의 가금이 살처분되었고 521억원의 방역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에 전남도는 유럽, 러시아 등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을 사전 분석하여 2021년 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겨울철이 오기전에 모든 가금농장(699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전실,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및 농장 방역수칙 등 125개 항목을 점검 · 보강 완료하였고,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400호의 오리농장 마당·축사 둘레 소독 자동화에 60억원을 투입하고, 100호의 축사에 15억원 규모의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등 방역시설을 보강했다.

또한, 반복발생 · 밀집지역 등 위험지역의 108호의 오리농가에 대해 60억원 규모의 겨울철 사육제한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차단하였으며, 협회·계열사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방역 상황 공유 및 미흡상황 신속 보완 및 SNS · 시군별 on·off line 간담회 등을 통해 가금농가

2) 오리 축사의 82%가 가설 건축물인 비닐하우스에서 오리 사육

교육·홍보 강화 등 생산자 및 계열사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농가 주도 방역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전남도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금농가에 대한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 및 축산물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살처분 범위를 축소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살처분 범위가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내에서 2021에서 2022년에는 발생농장 반경 500m내로 축소되었다.

살처분 범위의 축소로 인한 방역대상 증가로 방역부담은 증가하였으나 선제적인 방역대책으로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10건 감소하였다. 살처분 두수 역시 지난해보다 349만수가 적은 32만수(전년대비 92% 감소) 살처분으로 가금농가 생산기반 유지 및 계란 등 축산물 수급이 안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방역비용도 전년 대비 405억 원을 절감하여(78%↓) 지방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3]를 거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회복을 위한 민 · 관 협력 및 선제적 방역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동물방역팀장 정인제, 담당자 손순옥**

나. 백신 기반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구제역은 발생한 국가에서 축산물의 국가 간 교역이 제약을 받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 재난으로 분류되는 가축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3월 26일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

3) (발생건수) (2020/2021) 21건 → (2021/2022) 11(10건 , 48%↓)
(살 처 분) (2020/2021) 381만수 → (2021/2022) 32 (349만수, 92%↓)
(방역비용) (2020/2021) 521억 → (2021/2022) 116 (405억 , 78%↓)

발생 이후 2019년 1월 31일까지 11차례 발생했다.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3조 3천억 원 이상의 재정적 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10년부터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는 특정 시기를 정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소·염소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아 농장별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수시로 접종한다.

도는 2019년부터 구제역 백신 비용을 모든 우제류 농가에 100% 보조·지원하고 있다. 이후 백신접종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은 2021년말 소 98.9%, 돼지 90.1%로 역대 최고 기록을 나타냈다.

소는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염소는 300두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뿐만아니라 백신접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해열제, 대사 촉진제 등도 공급한다.

또한, 99개단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농가 등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 소독을 지원하고 있고 민·관이 협력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구제역 검사를 시작한 1934년 이래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추진부서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방역정책팀장 정대영, 담당자 이경란**

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16일 국내에서 최초 발생되었으며, 우리 도는 비발생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유입 방지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이후로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의

인접한 41개 시군의 살아있는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하여 유입원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질병이 발생한 지역은 반출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농장 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홍보·점검하여 7대 방역시설 완료 농가가 전체 513호 중 68호(13%)이다.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하여 시군의 전담관 246명을 동원하여 꾸준한 교육과 점검을 하고 차단방역과 시설설치를 위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시군별 거점세척소독시설 24개소를 운영하여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3억원 규모의 소독약 30톤을 지원하여 축산시설과 농장에 배포하였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19톤 지원하였다.

질병 발생 모니터링을 위한 상시예찰 검사를 위해 양돈관련 축산시설 환경검사 1만 2천건, 양돈농장 돼지 1만 6천건, 도축장 출하 모돈 1만 7천건 등 총 4만 5천건을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야생멧돼지도 1만 2천두를 포획하였고 그 중 600여건을 검사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없는 청정한 전남을 위하여 앞으로도 농장의 시설강화,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지원, 질병 색출을 위한 검사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방역대응팀장 박석준, 담당자 정혜영

라. 현장 방역활동 강화와 방역 인프라 확충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활동을 위한 전문인력과 방역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전문 방역 인력으로는 공동방제단, 방역사, 공수의, 공중방역수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현장에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에 동원되는 등 방역 활동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다.

99개의 공동방제단은 소규모 농가와 가금거래 전통시장, 밀집사육지역 주변 등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소독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사 72명은 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와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는 현장의 수의사 108명을 공수의로 위촉해 예방접종, 채혈, 예찰 등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시군 등 방역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면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50명이며, 가축방역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돕기 위해 방역차량, 소독차량, 거점 세척·소독시설 등을 지원한다. 특히 방역환경이 열악한 농가에는 출입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 1,761개소에 울타리, 전실, 소독기 등 필수 방역시설을 지원했으며, 특히 2021년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리농가에 75억원을 지원하여 농장 마당 소독시설 설치, 축사 보온시설 보강등 방역시설을 강화하였다.

2017년부터 최신 건물형 거점세척소독시설 8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2022년 하반기까지 4개소를 추가 준공 예정이다. 현재 24개소의 거점세척소독시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소독배관 교체, 폐수정화장치 설치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현재 3개소가 개보수 완료했고, 2022년 하반기까지 17개소가 개보수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국가방역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는 ICT 결합형 거점세척소독시설이 23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가축방역의 첫 관문인 거점세척소독시설의 시군별 맞춤형 개선을 지속 추진해 현대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선제적 방역대응 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축산관계 시설과 농장에는 매일 수많은 축산차량이 출입하여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이들 차량에 대한 출입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월 현재 7,200여대의 차량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통신료와 설치비로 1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추진부서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방역정책팀장 정대영, 담당자 조정숙

5-2.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전남산 축산물 생산 공급

가. 축산물 안전관리 내실화

전남도는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생산단계 HACCP 인증 확대 및 안전성 검사 강화 등 안전 축산물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계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충제 일제 검사를 실시해 2020년부터 2년 연속 살충제 검출 제로화를 달성했다.

2020년 4월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53개소)에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는 2022년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제도를 가정용 계란 및 업소용 계란까지 확대하고 HACCP 컨설팅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축산물위생팀장 이영남, 담당자 박현미

나. 전주기 위생감시 기능 강화

전남도는 축산물 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정보, 언론・소비자단체 문제 제기 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위생감시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설・추석 명절, 하절기 등 시기별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정간편식, 온라인 축산물, 위생관리가 취약한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 달걀 취급업체, 유가공업체 등 총 1,832개소에 대해 연중 촘촘한 위생감시를 했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으로 확인된 22건은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식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 등 축산물 수거・검사 1천여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축산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2022년부터는 기존 시기별, 다소비, 취약분야 집중관리 외에도 축산물 운반업 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즉석 섭취 축산물 수거검사와 달걀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축산물위생팀장 이영남, 담당자 오현철

6. 농업기술개발 및 농업·농촌 활성화

6-1. 저비용 고소득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가. 저비용 자원 순환형 유기재배 실용화기술 개발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육성 제3차 5개년 계획(2015~2019)의 마무리하고 4차 5개년 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 제4차 계획은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과수, 채소 등 유기재배 품목 다양화를 목표로 하고, 전남 주요 원예작물의 토양 양분관리, 재배법, 병해충 관리 기술 등 종합관리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7년까지 벼, 콩, 유자 등 15 작물은 개발하였고, 추가로 갯기름나물, 양파, 토마토, 대파, 마늘, 단호박도 개발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유기농업 기술보급서 『쉽게 따라하는 유기농업자재 만들기』, 『병해충 방제 매뉴얼』, 『유용 미생물 활용 원예작물 친환경 선도농가 실천사례』 등을 발간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아울러, 미생물의 유기농업 활용을 위해 고초균 배양용 유기배지 영양원의 선발 및 품질 표준화로 제품화하였고, 배지 안정성 시험을 통해 유통 및 품질보증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대량배양을 위한 추가공정을 확립 한 후 특허출원 예정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농업인들이 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공익직불제준수사항 실천을 위해서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녹두, 석류, 강황, 세발나물에 대하여 비료사용처방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축분 퇴액비의 안전사용을 위해 2015년부터 법정규격을 설정하여 축산농가에 적용 관리하고 있으며, 퇴액비 법정규격 모든 항목에 대한 분석기반을 확충하여 매년 20여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80%를 차지하는 벼 유기재배지 문제 해충인 먹노린재와 왕우렁이의 발생생태를 구명하고, 친환경 관리기술을 개발하였다.

먹노린재는 전국 17,767ha에 발생하는 해충으로 논두렁과 산기슭에서 성충으로 월동하여 6월 중하순 벼에 피해를 준다. 이에 대한 방제법으로 종합관리모델을 개발하였다. 해충 발생 전후 방제방법과 재배적 조치법을 제시하였고, 미생물 배양물을 포함하는 유기농업 자재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및 산업화하였다.

왕우렁이에 의한 어린모 피해경감을 위하여 차추출물제, 황토유황 등 효과적인 유기농업 자재를 선발하였고, 논두렁 정비, 물꼬 관리, 왕우렁이 치패 투입 시기, 왕우렁이 수거 방법 등 논 종합관리모델을 체계화하였다.

추진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이진우, 농업환경팀장 최덕수, 담당자 김현지, 김효정

나.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1) 벼 연구분야

전남은 그동안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나 전남을 대표하는 품종이 없었고, 유통 쌀의 품질이 우수하였으나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타 도와 경쟁 가능한 전남 대표 벼 품종 개발을 위해 2016년 중만생종 밥쌀용 '새청무'와 2020년 밥쌀용 대립종 '강대찬'을 육성하였다.

2016년 육성한 신품종 '새청무(전남6호)'는 재배 안정성, 미질 및 밥맛이 뛰어나 2019년 벼 신품종 국가품종목록등재를 하였다. 2020년 600톤, 2021년 2,600톤의 정부 보급종을 생산·공급하였다. 2019년

부터는 새청무 품종에 대한 ‘전남 쌀 이미지 개선 및 명품화’ 사업을 실시했다. 종자생산, 보급, 유통을 위해 전남쌀대표품종생산자연합회, 광주전남RPC연합회, 농협전남지역본부 및 전남농업기술원 4개 기관의 협업으로 2021년 전남 벼 재배면적의 44%를 점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명실공히 전남을 대표하는 최고품질 품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800억 원 이상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강대찬’은 식당 등 소비자 요구도가 높은 대립종 고품질 품종의 필요요구 및 병해충과 쓰러짐에 약한 품종 ‘신동진’ 대체를 위해 개발되었다. 2022년부터 명품화 2단계 사업으로 ‘강대찬’중심 ‘풍광수토’ 원료곡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문모심기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드문모를 심게 되면 10a당 육묘상자가 관행 25개 대비 12개만 필요하다. 또한 생산성도 관행 대비 95%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별로는 3.3㎡당 37주를 심을 시에 분얼이 적은 ‘신동진’의 경우 수량이 92%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쓰러짐에는 더 강해지고, ‘새청무’ 는 10a당 81,000원의 소득 증진 효과가 있었다.

이상고온,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에 따른 농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가뭄에 따른 물 부족의 경우 이앙시기가 늦어져 이앙 한계기를 설정되어 있다. 중만생종 ‘일미’는 7월 4일, 조생종 ‘조명1호’는 7월 8일까지 이앙할 때 수량성이 이모작과 대등하게 유지되었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별 적응성 검토 결과 ‘일미’가 가장 안정적인 생육을 보였으며, 장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적응성 지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태양광 공급 확대 계획으로 영농형태양광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일환으로 태양광 하부경지에서 벼 재배 결과 노지 대비 약 80% 수량성을 확보하여 영농형태양광에 재배 가능한 작물로 평가하였다. 이 경우 태양전지 모듈 차광으로 인한

일사량의 감소에 따라 고온기 기온 및 수온이 노지보다 낮고, 온도 편차가 적어 고온회피 가능성이 있으며, 관개수가 23% 절감하여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새청무 브랜드 육성】



【전남 쌀 종자주권 독립선언】



대립종 신품종【강대찬】

추진부서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작물연구팀장 김길자, 담당자 안규남, 신서호**

2) 전작 연구분야

2020년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시험포장에 400㎾급 영농형태양광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시설의 구조는 15×25m 간격으로 지지 기둥을 설치하고, 모듈 높이는 5.7m로 하였다. 모듈의 규격은 1,024×2,024mm를 사용하였고, 모듈의 설치 간격은 차광률별로 2.50~3.75m로 하였다. 모듈은 고정식으로 남서 방향으로 설치되었다. 전체 시설면적은 3,900㎡(60m×65m)였다.

영농형태양광 하부경지에서 고구마, 녹두, 팥, 들깨 등 6개 작목을 대상으로 생육 특성과 수량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차광률별 3 처리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1.3% 차광률 조건에서 고구마의 최대 생산 조건은 60×35㎝ 정식 시 노지 대비 82%, 녹두는 60×25㎝에서 83%, 팥은 60×20㎝에서 88%, 종실들깨는 60×25㎝에서 87%였다.

영농형태양광 차광률, 모듈 형태별 일평균 발전량은 1,089kWh, 일 최고는 5월 1,834kWh, 일 최저는 7월 146kWh였고 32% 차광 단면

(20,967kWh) 대비 양면 1은 21,664kWh, 양면 2는 22,107kWh로 각각 3~6% 증가하였다. 차광률, 모듈 형태별 일 평균 발전시간은 4.1시간, 일 최고는 5월 6.9시간, 일 최저는 7월 0.5시간이었고 32% 차광 단면(738.2시간) 대비 양면은 752.9시간으로 2% 증가하였다.

2020년에 육성한 동부 '장알찬'은 덩굴이 없고, 일시에 익어 콤바인 수확이 가능하며, 10a당 수량이 185kg으로 표준품종인 옥당보다 15% 많다. 2021년에 육성한 적갈색 종피의 '홍원'은 습해에 강하고, 10a당 수량이 171kg으로 옥당보다 19% 많으며, 덩굴이 없고 일시에 익어 콤바인 수확이 가능하다. 앞으로 영광모싯잎송편 국내산 소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영광군을 중심으로 특화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에서는 육성한 노랑 녹두 품종인 '삼황'과 '진황'을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품종보다 수량이 5~14% 높으며, 중·대립종으로 전분과 숙주나물 생산 품질이 높고, 노랑색 녹두 종실로 수입산과 차별화가 가능하다. 우리 도에서 육성한 녹두 '산포'와 '다현'은 전국 재배면적의 90% 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영농형태양광 벼재배】



【영농형태양광 밭작물】



【홍원동부】

추진부서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전특작연구T/F팀장 윤창용, 담당자 최진실

3) 특・약용작물 연구분야

전남지역 치유농장 조성에 적합한 특·약용작물을 선발한 결과 약초원·산책로에는 방향성의 배초향, 일당귀 등 12개 작목, 수변 산책로에는 수생식물인 억새, 석창포 등 8개 작목이 적합하였다. 체험이나 학습용으로는 어린순을 식용할 수 있는 참취, 식방풍 등 13개 작목이 적합하였다.

일당귀 GAP 지침 설정을 위한 재배 기술로 화경(꽃대)을 2회 제거하면 수량이 906㎏/10a로 47% 증수하였다. 건조 방법은 열풍 건조기로 50℃, 75시간을 건조했을 때 감모율이 낮고, 변색 정도가 낮아 색도 값과 품질이 우수하였다. 건조 절편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상온과 저온저장 모두 PE(폴리에틸렌) 필름 포장재료가 색도 값과 감모율, 부패율, 유효성분 함량 감소율이 낮아 우수하였다. 또한, 꽃대를 2회 제거하면 수량이 906㎏/10a로 제거하지 않은 것에 비해 약 47% 증수하였다.

전남 특산 약용작물 표준품종 및 종자 생산기술 개발 시험 결과 재래종에 비해 수량과 방향성 오일 함량이 많은 배초향 '전남1호'를 선발하였다. 천문동, 배초향, 택사 채종기술을 개발하였고, 종자를 생산하여 7개 시·군 17 농가에 보급하였다.

참깨 재해회피 다모작 재배 기술은 5월 중순에 파종·육묘하여 6월 상순에 이식 재배하면 관행 대비 11% 경제성이 향상되었다. 2모작 한계기는 감자, 옥수수 후작으로 6월 하순까지였다. 쑥부쟁이 대량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적합 재배법으로 재식밀도는 20×13㎝, 시비량은 채소 관비재배 농도(N-P-K=19-19-19, 1,000배액, 2회 관수/일)로 재배하여 지상부가 15~20㎝ 자랐을 때 수확하면 1회에 917㎏/10a, 연간 총 5,500㎏/10a(6회/년)가 생산되어 관행 대비 275% 증수되었다.

전남도에서 육성한 흑목이 품종 '용아'와 전국 최초로 육성한 흰색 목이버섯 '새얀' 등 3품종을 종균배양소(4개 업체)에 품종보호권을 이전해 전국에 국산 목이버섯 품종을 5년간 61만 봉을 보급하였다. 전남지역 환경에 맞는 중고온성 느타리버섯 '아란'과 고품질의 맛좋은 노루궁뎅이버섯 '노루3호'를 육성하였다. '아란'은 병 및 봉지재배가 가능하며,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루3호'는 기존 재배 품종보다 수량이 30% 높고, 자실체가 단단하여 농가 반응이 우수하여 종균배양소와 통상실시 계약을 통해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노루궁뎅이버섯의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대비 수량이 37% 증수되는 품종별 최적 배지조합을 개발하였다. 흰색목이 새얀의 장기 저장과 갈변 억제를 위한 방법으로 수확 후 갈변 억제제 처리 및 열처리를 했을 때 갈변이 억제되었고, 3~4주간 저장 가능한 저장방법 및 조건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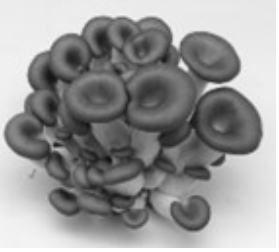
전남 특화 신 소득 버섯으로 야생버섯 중 '턱받이포도버섯'을 발굴하여 인공재배를 위한 배지조성 등 재배방법을 확립하였다. 버섯의 작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큰느타리와 팽이 재배 시 온도, 습도, CO_2를 생육단계별로 자동제어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생육모델을 개발하였고, 팽이버섯 재배시 배지 내 질소함량 1.8%, 억제기 온도 4℃로 설정하였을 때 35일까지 저장 가능한 수출용 팽이버섯 재배기술을 개발했다.



【쑥부쟁이 시설재배】



【턱받이포도버섯】



【느타리 아란】

추진부서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작물연구팀장 김길자, 담당자 안호섭, 김다미

4) 농기계 연구분야

고령화 대응 밭작물 기계화를 위해 소형 농작업용 편의 장비로 다목적 건조장치 등 5종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였다.

농작물 수확 로봇 개발을 위한 AI 기반 기초기술로 양상추 이미지를 수집하였고,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학습을 완료하였으며, 수확 및 운반 구현 로봇팔 구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추진부서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전특작연구T/F팀장 윤창용, 담당자 김영범, 김성안

다. 원예작물 스마트 생산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

1)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보급 및 안정생산기술

국내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하여 주요 원예작물의 신품종을 육성・보급하고 재배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양파는 금송이 등 5개 우수 품종에 대한 보호 출원과 품종등록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농가현장 실증을(고흥, 무안) 통해 조기 보급하였다. 상추는 수면 유도성분이 다량 함유된 ‘흑하랑’을 육성하여 품종 등록과 4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통상실시를 완료하였고('19), 12ha의 건강 기능성 식품원료 계약재배 단지를 조성하였다('21). 새로운 화훼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수국은 로열티 절감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품종 육성을 목표로 ‘그린아리’ 등 4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20~'21) 및 증식・보급을 위한 통상실시('21)를 완료하였다.

국내 우수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딸기 우량묘 생산 사업을 통해 국내 육성품종 무병묘를 매년 약 5만 주씩 생산하여 순천시 등 9개

시군에 총 20만 주(2018~2021)를 보급하였다. 전남 주요 화훼작물(장미, 수국, 국화 등)의 우량 종묘도 매년 약 5만 주씩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등 재배 농가의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궤도식 차량의 농업환경 적응성 검증을 하여, 향후 완성된 작업기로 양파 작업 시 97%의 노동력과 ha당 약 4백만 원의 생산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화훼류 틈새 작목인 불두화의 저온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일반재배보다 수확시기를 28일 단축하고, 절화용 스키미아 75% 차광재배 방법을 개발하여 절화 수량을 2.5배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추진부서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원예연구팀장 김선국, 담당자 유웅

2) 보급형 스마트팜 및 고도화 모델 개발

전남 시설원예 면적은 4,855ha로 전국 대비 9%를 점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설치는 496 농가 295.8ha에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원예 농가들이 서로 다른 제어 패널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으로 전환 시 유지보수 작업과 교체가 불편하며, 설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값싸고 편리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했다. 그 결과 기존 스마트팜 설치비용 대비 65% 수준으로 약 35%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도내 산업체 3개소에 기술이전 후 농협과 공동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75개소 197 농가(63.3ha)에 보급하였다.

또한, 스마트팜 농가들의 기술 확산을 위해 ICT 융복합 현장지원센터를 활용해 도내 스마트팜 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전화, 방문 상담, A/S 등 300건의 컨설팅을 하였다. 전남 시설채소 양액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하수와 양액 분석 처방을 매년 180건씩

실시하여 채소 수경재배 농가들의 고품질 안정생산과 분석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IoT,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농산업이 성장 원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첨단기술의 원예분야 적용을 위해 원예작물 4개 작목(멜론, 파프리카, 양파, 토마토)에 대한 이미지 기반 생육 측정 장치(로봇형, 고정형, 휴대용)를 개발했다. 그 결과 90% 이상의 측정 정확도와 생육진단, 생산량 예측의 기반 기술을 구축하였다.

추진부서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스마트농업연구팀장 정종모, 담당자 정수호

라.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사업화로 도내 농산물 가공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공헌했다.

최근 1인 가족 및 고령 인구 증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전남 농특산물을 이용한 고령친화식품 및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가공식품 소재화는 물론 고흥 유자 샌드쿠키, 신안 섬초 건나물, 진도 대파 즉석식품 등 29종의 지역특산 가공제품과 향장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개발한 가공기술의 현장적용 및 사업화를 위해 ‘저온발효 유산균 떡 제조방법’ 등 19건에 대해 특허 출원했고, 도내 17개 업체에 유상기술이전(기술료 1억 2백만원) 하였다. 특히, 산업체에 이전된 기술 중 강황 바디클렌저, 유자 만쥬 제품은 진도군 대표 관광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고령친화식품 약선보양 ‘호울죽’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 입점하는 등 사업화에 성공했다.

또한, 개발 기술의 현장 실용화 촉진 및 도내 가공 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10월 개발 기술 설명회와 특허출원 상담회를 개최하여 18개 업체에 무상 기술지원 하였다. 한편, 가공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시험연구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했다.

도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농산물 가공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진우, 가공유통팀장 마경철, 담당자 이유석

마. 차 신품종 육성 및 기능성 제품 개발

1) 차 신품종 개발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차산업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나무 신품종을 육성하고, 차 재배 농가에 신품종 묘목을 보급하여 기계 수확이 가능한 평지 다원을 조성하고 있다. 차나무 신품종 육성 및 우량 묘목 보급, 유기재배법, 스마트팜 재배기술 등 농가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기존 차밭의 80% 이상이 재래종, 일본, 중국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다. 이에 국산 품종 향녹 등 16종을 육성하여 최근까지 전남 보성, 강진, 장흥 등 주산지역에 15.3ha를 보급하였다. 최근에는 내한성이 강하고 수량성이 우수한 향녹(2018년), 진녹(2019년) 2품종을 육성하였다.

차나무 묘목을 연간 5만주 이상 삽목하고 있으며 농가에 4만 주 내외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 공모사업에 2021년 10월 선정되어 사업비 10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차나무 신품종 보급을 위한 종묘 생산 현대화 온실을 2022년에 신축할 예정이다.

차나무 신품종에 대한 보급을 활발히 하기 위해 유목기 재배관리를 위한 정지방법(수평+활형정지), 시비방법 등 기술을 개발하였다. 영농형태양광 하부 차 재배 수량은 관행 대비 8% 증수되었고 발전소득 포함 805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토양, 식물체 중금속에서도 안전성을 입증하였다.

유기재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재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애로사항을 정리하여 유기재배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차나무 시설재배 스마트팜 적용 시설 형태를 개발하였고 차나무 신품종 묘목 대량 증식을 위한 삽목 환경 및 관리기술 등을 개발하였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인 커피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국내 커피 시설재배 생산 산업화 모델을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 육종재배TF팀장 기광연, 담당자 이 슬, 박현석**

2) 차 음료 및 기능성 제품 개발

건강지향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차 기능성 소재화 및 가공제품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능성 가공제품으로 간 기능 개선 숙취해소음료, 항당뇨 제품, 다이어트 스틱분말제품 등 개발하였고, 해당 기술은 특허출원 및 도내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마쳤다. 또한 찻잎을 이용한 나노섬유 소재화 기술을 개발하여 마스크 등 생활용품에 활용하고자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음용 편이성을 강조한 제품을 개발하여 산업체와 연계한 상품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보성녹차라떼’는 민관연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개발 하였으며, 국내외 판매・수출을 통해 가루녹차 소비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금여울홍차’는 반자동 대량생산 제다공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원가를 절감한 고품질 국산 홍차로서 생산자단체에 이전하여 액상차 형태로 상품화하였다.

차 발효음료인 ‘콤부차’는 전남의 대표 특산물인 보성녹차·홍차, 유자, 표고버섯을 활용하여 발효·숙성기술을 정립하였는데, 관련 특허권을 도내 스타트업 업체에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전남 대표 콤부차 브랜드인 ‘아따(ATTA) 콤부차’로 런칭할 예정이다. 또한 콤부차를 분말 형태로 소재화하는 기술개발을 마쳤고 특허출원을 마치는 대로 산업체 기술이전하여 신속편이음료로 제품화 예정이다. 한편 차나무의 어린 가지를 로스팅하여 만든 ‘아지차(兒枝차)’는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의 저카페인 차 음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에 대응하여 ‘녹차 손세정제 제조기술 산업화’를 위해 유기농 화장품 전문업체인 ㈜에코먼트에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손세정제 3종을 시장에 출시하였다. 또 생산제품의 다양화와 해외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브랜드네이밍 전문업체인 아이코닉 브랜드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티유사이언스(주)와도 찻잎 추출물을 이용한 손세정제 제조기술, 차 가공제품 연구개발, 제품생산, 브랜드화, 유통, 판매 등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 새 기술의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성농협과 업무협약 및 기술이전을 통해 녹차 손세정제 ‘닥터그린’을 상품으로 출시하여 전국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 중이다. 현재는 항균 활성이 있는 녹차 나노섬유 소재화 기술 개발 중이다.

추진부서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 차연구팀장 최 정, 담당자 정아영, 정미진**

바. 비교우위 과수 신품종 육성 및 글로벌 확산

1) 신품종 육성, 보급과 유럽 등 품종 수출

전남 비교우위인 아열대 난지 과수인 키위, 비파, 석류 재배 농가의 안정 소득화를 위해 자체 품종을 개발하고, 신속한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까지 개발된 품종 수는 키위 17종, 비파 3종, 석류 2종으로 총 22품종을 선발하여 키위 400여 농가 189ha, 석류 9개소 59a에 시험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비파는 50여 농가 37ha 등 226ha에 보급하였다. 육성 품종은 키위 2개 단체, 비파 3개 단체에 기술이전 통상실시 중이다. 현재 국내산 '해금' 키위는 돌(Dole)사, 농협 등 대형 유통시장을 통해 팔리고 있다.

그중 키위 '해금', '해원' 2품종은 지난 2016년부터 유럽 수출을 위한 현지 시험 재배를 추진하여 2021년 3월 프랑스의 키위 회사와 유럽 28개국에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올렸다. 향후 25년간 이용권을 보장하고 1단계로 10년간 최소 100ha 보급을 확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약 30억 원의 로열티 수입이 예상된다.

한편, '해금' 품종은 추가적인 국외수출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와 시험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아프리카 대륙 등에서 추가적인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소프뤼레그사와 수출 계약식(2021. 3. 화상계약)】

추진부서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팀장 박재옥 담당자 김영민, 박신, 정현주

2)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재배기술 개발

기후 온난화에 따른 남해안 지역의 새로운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들의 증가와 이를 소득화 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의 특산 과수인 유자, 무화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 작목의 5개년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진청의 연구비와 연구 장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수탁하여 향후 약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의 내실화를 위해 작목별로 주관 부서인 과수연구소를 비롯한 각 8개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한 연구 방향은 최근 빈번한 저온 동해 극복과 스마트팜 실용화, 수출 경쟁력 있는 기능성 가공품 개발, 신품종 육성 기반 기술개발 등이다.

신종 과수류의 재배 매뉴얼 개발과 전남도 적응시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바나나, 망고, 체리, 양매 등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저온 피해 대응 매뉴얼, 아열대 과수 산업 동향 등 6종의 매뉴얼을 발간 보급하였다.

해안지역에서 올리브와 감귤류 등 소득화를 위한 적응성 품종 선발,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도 추진 중이다. 가공 분야에서는 먹는 화장품 '유주컷' 등 6종을 개발하였고, 산업체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유자 산업 활성화 협의체 구성】



【가공기술 민간이전 산업적용】

추진부서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팀장 박재욱 담당자 이보배, 정현주, 이소미

사. 유용곤충 대량사육 및 산업화 기술 개발

1) 식용곤충 안정생산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 및 사육기술 개발

식용곤충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 개선기술을 개발하였다. 쌍별귀뚜라미는 알 저장을 28℃에서 7일간 유지하다가 16℃에서 10일이 지난 후 28℃로 부화시키면 부화율이 85%로 높았다. 사육밀도는 40×120×60㎝에서 3,000마리 정도 사육했을 때 성충 무게와 생존율이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15평 기준 연 6회 사육 시 연간 2억 6천여만 원 수입을 예상할 수 있다. 수분 공급용 인공사료는 한천과 설탕을 혼합한 것이 좋았고, 은신처는 대나무 반절통을 사용했을 때 생존율과 개체중량이 좋았다. 산란처는 상토를 가장 선호하였고, 오아시스, 모래, 이끼 순이었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생산 극대화를 위한 사육온도는 29℃에서30일, 26℃에서 20일, 20℃에서 40일로 변화하는 것이 좋았다. 또한, 산란증대 먹이원을 제조하여 급이 하였을 때 시판 먹이원 대비 93% 산란증대 효과를 가져왔으며, 산란지속성 먹이를 급이 하였을 때 11주간 지속하여 176개의 알을 낳았다.

쌍별귀뚜라미는 동종포식이 심한 곤충인데, 장내 미생물을 배양하여 급여한 결과 생존율이 약 13% 증대되었다. 장수풍뎅이 질병저감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분양받은 Bacillus속 균주를 먹이원 발효톱밥에 1% 첨가하여 급이 했을 때 누디바이러스 감염시 생존율이 약 52% 정도 증가하였다.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는 누디바이러스병 방제에 생물적 방제균을 이용함으로써 친환경 방제를 기대할 수 있다. 갈색거저리에서 발생되는 녹농균병은 인식 부족으로 병징 파악이 어렵고 이병충의 관리가 소홀한데, Bacillus속 균주를 먹이원 밀기울에 1% 첨가하여 급이하였을 때, 녹농균 감염시 생존율이 약 18% 증가하였다. 뚜렷한 방제법이 없는

갈색거저리 녹농균병에 대해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과 조기 방제를 통한 질병 제어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추진부서 곤충잠업연구소장 이정희, 팀장 구희연, 담당자 이유범, 김성연, 김지수

2) 식용곤충 이용 식품 소재화 및 가공품 개발

거저리류를 이용한 식품 소재화 개발을 위해 고단백 곤충 추출물 제조법을 구명하였다. 저온 용매에서 추출 탈지 후 분리했을 때 분말의 이취감과 산패도가 감소하고, 단백질이 20% 증가하였고, 지방은 30% 감소하여 초콜릿, 어묵, 양갱, 비스코티 등 식품 개발이 가능하였다. 거저리류 기능 성분분석과 효능평가에서 미백, 항산화, 항균 효과가 확인되어 식품, 화장품, 미용 제품 등 가공품 개발이 가능하였고, 향장품으로 개발된 화장품과 비누는 업체에 기술이전 되어 상품화에 성공하였다.

축산환경 문제에 대비하여 곤충 단백질을 활용한 대체육 제품을 개발하였다. 갈색거저리를 첨가한 육류 대체용 패티 제품은 기존 대체육과 차별화되도록 글루텐을 빼고, 식감 개선과 영양성을 증대시켜 소고기 대비 아미노산은 23%, 불포화지방산은 27%가 높아지고, 포화지방산 21%가 감소하여 가공업체와 협력하여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곤충이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로 전망되고, 사육 농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갈색거저리를 저온용매 추출 후 동결건조하는 방법으로 탈지하였을 때 일반 유충 대비 단백질은 20% 증가하고 지방은 30% 감소하였다. 탈지 거저리를 이용하여 초콜릿을 제조하였을 때 선호도는 5% 첨가에서 가장 좋았고, 1%, 0.5%, 3% 순이었으며, 항산화 활성은 다크 > 밀크 > 화이트 순이었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갈색거저리, 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등 곤충을 이용한 고효율, 고기능성 반려동물 보조사료를 개발하였다. 반려견 사료는 모질개선 효과 물질이 2배 증가하였고, 피부재생 물질도 증가하였으며, 반려묘 사료는 필수아미노산이 증가하였다. 반려동물 미용 제품으로 개발한 미스트는 보습 효능이 높게 나타났다. 식용곤충의 효율적인 이용 기술 개발 및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곤충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로 농가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추진부서 곤충잠업연구소장 이정희, 팀장 구희연, 담당자 김현진, 임윤지

3) 양봉 기술 개발 및 기능성 분석과 가공제품 개발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국내 토종벌 봉군수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질병 저항성 신품종이 개발과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토종벌의 개량 벌통 사육기술도 점차 확대되어 유충 이충에 의한 여왕벌 양성 기술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토종벌 증식을 위한 인공 분봉 방법으로 유충 이충에 의한 여왕벌 양성 시 벌통 내 일벌에 의한 왕대 생산은 약 2주일이 소요되나 인큐베이터를 활용하면 1주일로 단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일벌에 의한 왕대 파괴를 막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부화 후 1~2일 이내의 유충을 왕완에 이충 후, 벌통 내에서 일벌에 의한 육아기간 1주일을 거친 후 왕대가 봉개되면 시판 항온기의 온도를 34℃, 습도 ±60%로 설정하여 봉개된 왕대를 왕롱에 각각 넣어 여왕벌을 생산할 수 있다. 항온기를 활용하여 여왕벌 생산을 체계화하면 봉군 증식이 가속화되고, 미교미 여왕벌 분양을 통한 소득화로 농가 신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다.

양봉산물 중 수벌 번데기 추출물의 기능성을 분석한 결과 멜라닌 생성과 산화활성 억제 등으로 우수한 미백효과를 보였고, 탈모예방, 항주름, 항산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저분자

단백질 제조기술 개발과 기능성을 구명하였고, 샴푸, 두피토닉, 마스크팩 등 가공제품 개발과 수벌번데기 첨가 단백질 강화 시리얼 레시피 설정 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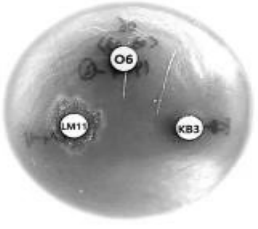
추진부서 곤충잠업연구소장 이정희, 팀장 구희연, 담당자 김정은

4) 산업곤충 질병관리 및 우량 꿀벌과 누에 신품종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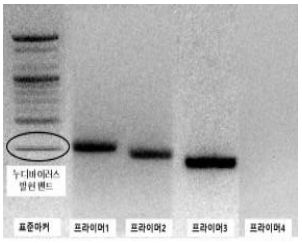
산업곤충을 대량 사육할 때 발생하는 병해충의 종류를 사전에 파악하는 조기 예찰, 진단기술 개발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육기술 보급을 위해 순천, 강진 등 곤충 사육 농가 질병을 동정하여 진균 4종, 세균 5종, 바이러스 1종, 누디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였다.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병과 거저리류 세균병 예방을 위한 내성 유도균주 3종을 선발하고 항균 활성을 확인하였으며, 누디바이러스 현장진단 키트 개발을 위한 특이 프라이머를 선발하였다.



【병사충 수집】



【항균활성확인】



【프라이머 3종 선발】

국가개발 꿀벌, 누에 신품종의 지역적응시험을 통한 능력검정으로 농가 보급체계 기반 마련하고, 고품질 우량 누에씨 자체 생산과 보급사업으로 꿀벌 신품종 지역적응시험 5종, 신규 육성 토종벌 벌꿀 생산성 검정, 현장 실증시험 2종, 누에와 뽕나무 신품종 지역적응시험, 누에 동충하초 생산능력 검정 등을 추진하였고, 매년 우량 누에씨를 농가에 보급하였다.

추진부서 곤충잠업연구소장 이정희, 팀장 구희연, 담당자 김지수, 김정은, 이유범

아. 축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축산소득의 96%는 소, 돼지, 닭, 오리 4 축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주요 축종 위주의 사육에 따른 축산소득 쏠림 구조는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국내 축산물 안전 문제, 질병 발생 등 국내외 축산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축산소득 다양화 정책의 일환 중 하나가 흑염소 산업 육성이다. 최근 흑염소 산업은 급속하게 산업화,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여건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육량을 늘리기 위해 외국종과의 무분별한 교잡과 장기간 근친교배로 인한 흑염소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는 흑염소에 대한 표준화된 사육 관련 매뉴얼이 없어 외국의 사양표준을 활용하는 실정이다.

낙후된 흑염소 산업 기반구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흑염소를 전남 축산업의 신성장 축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 ‘흑염소 산업화 연구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연구 계획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육종, 사양 프로그램, 전용사료, 식품 개발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전업화 및 규모화로 양・질적 성장 발전과 동시에 축산환경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정부의 각종 대책과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축산냄새 민원은 최근 5년 동안 4.5배 증가하였고, 농촌 지역의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냄새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장의 냄새는 농촌지역의 또 다른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공존하는 축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지역주민과 공존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냄새 없는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축산 냄새저감 연구과제 5개년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양돈농가·시설별 환경개선 종합기술 현장실증, 환경개선용 개발 미생물 보급 확대 및 현장 적용성 개선, 가축분뇨 에너지 및 자원화 기술 개발, 환경개선 기술적용에 따른 축산 냄새저감 우수농장 발굴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전남의 한우 사육 두수는 전국에서 2위 규모로 2021년 3월 말 기준 16,576 농가에서 59만 2천 두가 사육되고 있다. 사육두수의 증가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우 개량 희망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량 방법인 인공수정을 통한 송아지 생산은 고능력 한우 암소 사육기반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계획교배를 위한 보증씨수소 정액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우량한우 축군 조성과 개량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첨단 번식공학 기반 기술인 수정란이식 기술에 주목하고, 관련 기반 연구 시설구축 및 우량한우 암소 축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도내 한우 사육농가 및 축산농협 생축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우 우량암소 사육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 초음장비를 활용한 암소 난소내 난자 생검기술을 통해 이식 가능한 수정란의 생산효율을 30% 수준까지 확보하였다. 한편 수정란이식의 단점인 낮은 임신율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가 대리모 사양 관리 컨설팅을 추진하여 평균 30% 내외의 임신율을 최근에는 55%까지 향상시켰다. 또한, 수정란이식으로 분만한 송아지의 경매우시장 출하 결과 평균가격의 18.5%가 상회하여 한우 농가에서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높였다.

추진부서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팀장 유대중, 담당자 최영선, 구민정, 남철환, 노유진**

자. 농가 경영개선기술 개발·보급 및 수출·농업정보 제공

1)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경영모델 개발)

민선 7기부터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남 농축산물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농식품 생산비용 절감과 함께 농촌 6차 산업화 촉진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였다. 2019년부터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매년 5~6개 작목에 대한 재배생력화 등 농축산물 생산비용 절감 기술과 가공・체험 등 부가가치 향상기술을 종합한 경영모델 사업을 추진하였다.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은 작목별로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경영모델을 개발・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제시한 모델을 서면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순으로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하였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농가가 농업경영 성과분석 방법을 익히고, 사업계획 검토 및 수정을 수행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파, 애호박, 토란, 갓, 땅콩, 홍화, 버섯, 젖소, 양봉 등 16개 작목(축종)에 대한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경영모델 개발을 완료하였다.

가) 작목별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경영모델 실증연구 추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축산물 경영모델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비 절감과 부가가치 향상 기술 투입 전후 경영 성과를 분석하는 경영모델 실증연구를 추진하였다. 3년간 개발한 16개 경영모델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모델 도입 전후 수량, 단가, 경영비 등 수익성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경영모델 도입면적 확대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채소류에서는 토란을 수확부터 출하까지 생력화 하는 올인원 시스템 구축, 삼면포장기를 활용한 들깻잎 포장작업 개선, 애호박 품질향상과 수량 증대를 위한 고설배드 재배기술 투입 등 생산비용 절감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경영모델을 개발하였다.

토란 뿌리·껍질제거기 투입과 알토란 박피기 도입 등 올인원시스템 구축으로 10a당 경영비는 248만 2천 원에서 179만 4천 원으로 27.7% 절감되었으며, 노동 투입시간은 259시간에서 124시간으로 52.1% 절감되었다. 경영모델 투입 후 10a당 소득은 417만 8천 원에서 486만 7천 원으로 16.5% 증가했으며, 본 모델을 20ha 면적에 확산할 시 농가소득은 1억 3천 7백만 원 향상, 생산비는 3억 1천 5백만 원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애호박 고설 스티로폼 양액배드 재배기술을 활용할 경우 10a당 수량은 18,843kg에서 24,543kg로 30.2% 증가했으며, 경영비는 765만원에서 720만 4천원으로 5.8%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모델 투입 후 10a당 소득은 1,290만 7천 원에서 1,957만 2천 원으로 51.5% 증가했으며, 본 모델을 20ha 면적에 확산할 시 농가소득은 158만 원 향상, 생산비는 3억 1천 3백만 원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수류는 황금향 하우스 원격제어시스템과 선별기, 저온저장고를 이용한 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증대, 스마트팜 기술 투입과 체험판매장 구축으로 비파 6차산업화 경영모델을 개발하는 등 농산물 생산비용 절감과 부가가치 향상을 함께 고려하여 모델개발에 주력하였다.

황금향 하우스 원격제어시스템과 선별기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10a당 수량은 1,316kg에서 1,513kg로 15% 증가했으며, 노동

투입시간은 382시간에서 334시간으로 12.7%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모델 투입 후 10a당 소득은 261만 2천 원에서 433만 8천 원으로 66% 증가했으며, 본 모델을 10ha 면적에 확산할 시 농가소득은 1억 7천 2백만원 향상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파 하우스 스마트팜, 병해충 경감시설 도입으로 10a당 수량은 1,100kg에서 1,127kg으로 2.5% 증가했으며, 노동 투입시간은 1,052시간에서 1,026시간으로 2.5%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모델 투입 후 10a당 소득은 1,621만 4천 원에서 1,875만 8천 원으로 15.7% 증가했으며, 본 모델을 20ha 면적에 확산할 시 농가소득은 5억 8백만원 향상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작목별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경영모델 확산

농축산물 경영모델 개발로 발생한 경영개선 효과를 도내에 확산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에서는 사업농가 현장에서 지역민, 귀농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현장 연시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부터 사업농가에서 사업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핵심투입기술 설명과 시설, 장비를 시연하는 연시회를 13회 개최하였으며, 농업인 270명이 함께 사업 농가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도민이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결과를 직접 평가하는 ‘도민평가단 현장평가’에서 농축산 분야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부터는 경영모델을 직접 도입하려는 신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개발한 경영모델 중 성과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 작목별 경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 역량강화 교육】



【들깻잎 현장 연시회】

추진부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팀장 손장환, 담당자 김민현, 마은미

2) 어깨동무컨설팅 경영기법 확산과 농가 경영개선 지원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강소농·귀농인 등 신규 농가와 친환경 재배 농가에서 경영기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5년 이후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에 경영기록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기록 결과를 분석하고, 참여 농가의 농장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개선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 경영기록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어깨동무 컨설팅' 경영기법을 개발하였다.

어깨동무컨설팅은 기존의 경영진단 컨설팅과 달리 '경영기록장을 작성하는 농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경영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 경영을 진단하고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이다.

가) 경영기록 데이터 기반 어깨동무컨설팅 추진

2016년 최초로 어깨동무컨설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시범적으로 사과, 참다래, 토마토를 컨설팅 대상 작목으로 선정하여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2017년부터는 농가의 컨설팅 도입 요구도가 높은 배,

딸기를 추가로 대상 작목으로 선정, 어깨동무컨설팅을 확대하였다. 또한, 컨설팅 기법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참여농가 수는 2018년 25호에서 2019년 41호, 2020년 52호, 2021년 71호로 증가하였다.

어깨동무컨설팅 대상 작목은 경영기록장 기장 대상 작목 중 농가 컨설팅 요구도가 높은 5개 작목(사과, 배, 참다래, 딸기, 방울토마토)으로 선정하였으며, 컨설팅 내용은 작목별 10~20호 기장농가와 재배기술・병해충・토양・경영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함께 기장결과, 농장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재배기술 및 경영진단 컨설팅, 컨설팅 발전방안을 토의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컨설팅 도입 2년차에는 컨설팅 기법을 체계화하고, 참여농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참여농가 대상 효과 분석, 사업 확산 콘텐츠 개발 실증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결과 참여농가 45호 중 36호(64%)가 어깨동무 컨설팅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마케팅, 병해충, 토양 분야의 집중적인 컨설팅을 요구하였다.

기장 우수농가 5호를 대상으로 어깨동무컨설팅 참여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a당 작물 소득은 2015~2017년 평균보다 11.5%에서 최대 41.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어깨동무컨설팅】



【딸기 어깨동무컨설팅】

나) 지역특화작목 재배농가 어깨동무컨설팅 기법 확산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어깨동무컨설팅이 농가의 호응도가 높으나, 컨설팅 기법을 여러 시군, 더 많은 작목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어깨동무컨설팅 기법을 확산하기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컨설팅을 추진하고, 농가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컨설팅 확산 지원사업'을 발굴했다.

도에서는 5개 작목(사과, 배, 참다래, 딸기, 방울토마토)을 고정적으로 추진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특화작목 및 우수 작목반을 대상으로 경영역량 강화 및 우수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어깨동무컨설팅을 추진하였다.

2020년, 2021년에는 5개 시군에서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컨설팅이 추진되었고, 2022년에는 7개 시군으로 확대하였는데, 2020년에는 곡성 노지 풋옥수수, 구례 양봉, 고흥 한라봉, 보성 딸기, 함평 포도를 대상으로 어깨동무컨설팅과 12개소의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나주에서 토마토, 곡성 멜론, 고흥 시설오이, 해남 대파, 영광 한우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13개소의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나주 토마토, 곡성 멜론, 구례 단감, 고흥 시설오이, 강진 수국, 장성 복숭아, 완도 비파 작목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16개소의 경영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컨설팅을 통해 경영기록장 데이터를 활용한 경영진단과 재배기술 지도와 경영개선을 달성하여 우수경영체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한 경영 지도사업 체계 확립에 이바지하였다.

다) 컨설팅 참여농가 영농 애로사항 해결 경영개선 지원

어깨동무컨설팅을 추진하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가 경영개선 방안은 모색할 수 있으나, 농가 여건상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상의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 개선, 인건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투입에 필요한 농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농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에서는 어깨동무컨설팅 참여 농가에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어깨동무컨설팅 농가 경영개선사업'을 도입하였다. 농가로부터 경영개선 사업계획을 공모, 내외부 평가위원이 사업 현실성과 기대성과 등을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018~2021년간 매년 20호를 사업대상 농가로 선정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생산성 향상 기술도입, 비용절감 시설 및 농기계, 판매 개선, 가공시설, 편의 장비 등 부가가치 향상 등을 지원하였다.'



【컨설팅 참여농가 애로사항 청취】



【경영개선 농기계 구입 지원】

추진부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팀장 손장환, 담당자 마은미, 김민현**

3) 영농의사결정 지원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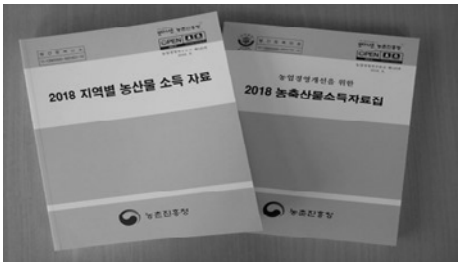
대내외 농업여건과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성향 변화에 대응하여 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도내 농업인에게 영농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도는 매년 48개 작목 749농가를 조사하여 작목별 총수입·경영비·소득 등 수익성 분석정보를 제공하였다.

2020년부터는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조사체계를 농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하고, 농산물 수익성 분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원에서 749호를 전담 조사하는 광역 조사체계를 도입하였다. 이 해부터 매년 농산물 소득조사 요원 7명을 채용, 조사·분석방법 교육 및 현장실습을 거쳐 조사현장에 투입하였다.

전남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과 농가 수를 고려하여 2018년에는 감자, 배, 고구마 등 36개의 통계작목과 유자 등 13개의 지역조사 작목을 조사하였다. 2019년에는 작목의 특성에 따라 500여 농가를 기록 농가로 전환하였고, 2020년에는 시설장미를 제외한 48 작목, 2021년에는 시설고추(억제)를 제외한 47 작목을 조사하였다. 2022년에는 신소득 유망작목으로 농업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아열대 작목(레드향, 망고, 강황 등)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여 51 작목의 수익성을 분석하여 도내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산물 소득조사 요원 교육】



【농산물 소득분석 자료집】

추진부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팀장 손장환, 담당자 마은미, 김민현

4) 전남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 경영개선, 농식품 소비활성화 연구

전남도는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식품 판로 발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자료 신뢰도를 높이고, 과수 재배 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도내 주요 과수류 조성비를 분석하였으며, 전남농업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고,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등 대내외 농업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자 패널'을 선정, 3년간 농가 자산, 기술 수준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였다.

또한, 전남의 신품종 농산물과 신기술 적용 농식품의 빠른 시장진입과 판매처 개척을 위해 소비자테스트, 도매시장 테스트를 통해 상품 평가의견, 시장진입방안 정보를 제공하였다. 2021년에는 '전남 우수 농식품 품평회'를 2차례 개최하여 농식품 홍보와 판매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앞으로 전남도는 고소득 농가의 경영 성공사례를 발굴,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농업인 교육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법인 중심 농업 규모화를 위해 농업법인 경영실태 조사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농업경영 활성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팀장 손장환, 담당자 마은미, 김민현

5) 농업정보 제공 및 수출 활성화 기술 지원

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고객기반 확충 등 농업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강화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을 위해 35개소, 1,094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장 확대 및 마케팅, 스마트스토어 등 정보화 교육과 인터넷・모바일・SNS 등을 활용한 e-비즈니스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하였다.

IT시대를 선도하는 농가육성을 위한 정보화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39건을 발굴·홍보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남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대상작 ‘SNS로 국내시장 벗어나 중국시장 개척’을 전국 단위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에 출품하여 대상을 받았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미디어 방송장비 및 기반구축을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20여 명의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였고, 홍보 동영상을 52건(영문 10건 포함) 제작하여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확대와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양성을 이룩하였다.

또한, 농업 관련 기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용한 농업정보를 수집・가공해 주간(483회)과 월간(80회, 총 205,800부)으로 농업정보지를 제작·배부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최신 농업기술정보 66,758건을 제공하였다.

추진부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팀장 김병삼, 담당자 홍우진, 정우철

나) 전남 지역특화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지원

수출 기반이 부족한 가공식품 경영체(법인) 대상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6개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마케팅 판로활동과 수출을 하였고, 지역특화 작목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출확대 생산,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을 하였다.

농업기술센터 주관 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출물량 확보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상품개발 및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수출확대 마케팅보드 4개소, 7개 농식품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전라남도 우수 가공식품의 중국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현지 마케팅 채널 운영을 통한 시범 판매를 위해 10개의 제품을 발굴하여 수출 전단계 컨설팅과 현지 온오프라인 매장입점, 온라인 라이브 방송 및 온프라인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소규모 농식품 가공농가 수출판매 지원사업을 통하여 5품목을 대상으로 미국 베트남 등 7개국을 대상으로 e-마켓플레이스에 입점, 온라인 상담 및 바이어 미팅, 수출상담회(20회)를 통해 시범수출(7.6천 USD)을 추진하였다.

전남 신품종 딸기의 생산기간 연장과 경도의 강점을 살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딸기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육묘시설 기반을 2019년 4개소(강진, 해남, 고흥, 보성), 2020년 4개소(담양, 강진, 함평, 장성)에 시범 구축하였다. 8개소에서 연간 32만 본의 신품종 수출 딸기 정식묘를 전문생산단지에 보급하여 재배면적을 3.2ha 확대, 112톤 딸기를 생산(10억 원)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소한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한 유자 제품의 중국 유학생과 연계한 온라인 판매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남 지역특화 가공식품 판매대회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연합회와 공동으로 판매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참가를 원하는 유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쇼핑몰에 상점을 개설하였다.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에 필요한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교육, 일정 기간에 유학생이 직접 홍보·판매하여 가장 많이 판매한 유학생에게 상장과 상금을 시상하였다.

유학생 연계 판매대회는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귀국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며, 쇼핑몰에 상점이 개설되어 꾸준한 판매로 이루어지므로 비대면 시대의 효율적인 수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대면 판매에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확대 및 해외 소비자 구매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양한 농식품의 수출 마케팅 전략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전남 수출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기술지원으로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도모를 위해 전문가 합동「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30회, 수출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교육'을 10회(745명) 추진하였다.

수출품목 종합기술지원을 통하여 5개 작목을 대상으로 수출현장 애로사항을 파악, 수출단계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종합컨설팅을 9회 실시하였다. 2020년에는 싱가포르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메리퀸, 죽향, 비타베리, 킹스베리에 대한 소비자간 기호도 조사를 하였다. 각 작목에 대한 품목별 수출 활성화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담양 딸기, 해남 쌀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기술지원을 통해 수출단계별 컨설팅 18회, 수출대상국 맞춤형 포장 패키지 제작, 기술 보급서를 제작·보급하였다.

추진부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팀장 김병삼, 담당자 홍우진, 조경철**

다) 농식품 판매기술 개발

최근 온라인 농식품 판매증가에 발맞추고 직거래 확대 및 전남도내 우수농장 생산품 홍보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해피굿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의 주도적인 운영으로 온라인 직거래 판매 촉진 및 농촌 활력 우수사례로 발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약 240여 품목의 전남 농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매년 온라인 매출액 20여억 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해피굿팜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9천 8백만 원을 투입해 광고, 박스, 포장테이프, 달력 등 홍보물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증진을 위해 ‘농장체험 팜파티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곡성, 고흥, 화순 등에 총 26농가를 선정하였고, 2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팜파티를 총 42회 추진하였으며, 팜파티 추진전략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21년부터 온라인 소비트랜드 대응 소비자 양방향 소통형 판매방식인 ‘라이브커머스’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이후 농가 경영개선 효과를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라이브커머스 실전 교육은 30명을 대상으로 총 11회 실시하였으며, 라이브커머스 현장 컨설팅은 순천, 함평 등 4개소,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추진부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팀장 김병삼, 담당자 김효중, 홍우진**

라) 농업빅데이터 수집, DB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은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농업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에 대한 환경·생육·경영정보 등을 수집하여 생산성 향상과 수확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컨설팅과 플랫폼을 연계한 영농의사결정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작물(딸기, 완숙·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커피나무)과 노지작물(양파, 마늘, 고추, 배추, 밀) 등 대표적인 작물에 대해 (기후)환경, 생육, 양액, 토양 및 농가경영 정보 등 100여 항목을 수집하였다.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조사요원을 지난 2017년 13명으로 시작하여 2018~2020년 14명, 2021년 15명, 2022년에는 18명 채용하여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 수집 농가로 선정된 전남지역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1회 현장을 방문하여 정식부터 수확까지 전주기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육에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표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현장에 컨설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① 빅데이터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각화프로그램 개발 특허출원 ② 인공지능을 이용한 딸기 무게측정 정치 및 방법 특허출원·기술이전 ③ 시설채소 최대수량 증대 환경관리기술 길라잡이 책자 발간 및 보급(400부) ④ 시설·노지채소 빅데이터 분석결과 보고서 발간 및 데이터기반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다.

추진부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팀장 김병삼, 담당자 조경철

6-2.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 및 농업.농촌 활성화

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

1)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농촌 성장 및 지역 활력화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청년창업을 위한 혁신기반으로 미래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및 농산업 고부가가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청년창농타운’을 2018년부터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여 2021년 11월 30일 개관하였다. 창의적인 청년창업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해 16과정 142명의 창농교육을 추진하여 창농자의 역량강화와 창농타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스마트팜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제공, 창업 후 실패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올해 8개소를 추가하여 총 28개소로 확대 조성하였다.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단계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진입단계 청년을 위한 농업 현장실습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농과대학생 6명을 실습시켰고,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24명 실습 청년을 모집하여 경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10개소,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지원 20개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5개소를 지원했다. 지속적인 청년농업인 성장을 위해 청년 창업농 유통조직체 지오쿱(ZIOCOOP)」

지원과 으뜸청년농업인(5명)을 선발하여 농촌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지원하였다. 특히, 청년창농타운 후속사업으로 2022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국비)을 48개소 24억 원을 확보하였다.

【 청년 창농타운 조성 】

- ❑ 목　　표: 농산업 창업경영체 160개 육성(창업 120개, 성장 40개)
- ❑ 조성기간: 2019 ~ 2021(3년)
- ❑ 사 업 비: 118억 원(균특 59, 도비 59)
- ❑ 주요내용: 창업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시설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추진부서 농촌지원과장 박용철, 청년창농기술팀장 박인구, 담당자 정현철, 김민수

2)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와 연계한 생산자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지역농업을 이끌어 가도록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의를 체계적으로 육성했다.

농촌지도자회는 친환경농업의 선도 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이다. 농업·농촌 여건변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신규 회원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수회원 확보 운동으로 13,181명의 회원을 유지하였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교육 및 시군연합회 품목별 역량 강화교육을 57회 1,299명 추진하였다.

생활개선회는 농업・환경・문화를 지키고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 농업인단체다. 전문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249개회 8,38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연구과제모임 활성화와 향토음식 실습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개최해 시군 독거 가정, 코로나19 마스크 나눔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80년대 이후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청년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 1만명 육성을 목표로 '4-H회원 1+1 배가운동'을 2년째 추진했다. 배가운동은 전라남도4-H본부, 전라남도4-H연합회, 4-H지도교사협의회가 참여하여 2019년 대비 2021년에 25%(126개회 6,764명)의 회원이 증가했다. 특히, 청년회원은 36%(21개회 1,161명)가 증가하였고, '청년4-H Idea Link'(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과제 활동 품목연구 동아리) 14개 회 171명을 조직하여 21회 255명의 회원이 활동했다.

【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현황 】

(단위 : 명)

단체명	조직수	회원수
농촌지도자회	254	13,181
생활개선회	249	8,380
4-H회	126	6,764

추진부서 농촌지원과장 박용철, 인력육성팀장 이민규, 담당자 양동희

3) 농촌지도기반 조성

일선 농촌진흥기관의 기술 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 및 장비 확충 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30개소 160억 2천 4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농업인 교육지원 서비스 향상과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기반시설 15개소를 조성하였였다.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 및 영농현장 애로기술 대응 강화를 위해 미생물배양 장비, 종합분석 장비, 농산물 가공 교육 장비 등 185종 230대의 장비를 지원하여 전문농업기술 지도체제 확립과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에 이바지하였다.

추진부서 농촌지원과장 박용철, 기획홍보팀장 기옥재, 담당자 강상구

4) 농촌지도사업 홍보

사회 전반에서 정책홍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농업인, 도시 소비자 등 고객·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 효과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농촌지도사업 홍보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 연구 개발된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기술과 특허출원, 교육 등 당면 실천 기술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전남에 맞는 아열대 작목 육성과 4차산업혁명에 발맞춘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기술 등을 중점 홍보하였고,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전남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남 귀농인・청년창업농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귀농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여 농업・농촌에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자 ‘귀농인・창년창업농 우수사례’ 성과를 집중 홍보하였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유튜브 채널 ‘신바람 농부’를 개설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출연해 귀농 이유, 농사 체험, 성공스토리 등을 영상으로 풀어 홍보하였다. 특히 전남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 농업방송실 스튜디오에서 청년창업농, 지오쿱 회원들이 직접 출연 쇼호스트가 되어 농특산물 홍보영상물을 제작,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추진부서 농촌지원과장 박용철, 성과확산TF팀장 정석근, 담당자 김지인

나. 농업환경 변화 대응 현장 실용화 신기술 보급

1) 쌀 생산비절감 및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

쌀은 우리 민족의 지난 5,000년간 주식으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남도에서는 쌀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향상 기술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전남 쌀 안정생산을 위한 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과 벼 항공 직파재배 시범,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수출단지 조성으로 가공용 즉석밥, 발아현미, 올벼현미녹차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개발 유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였다.

그 중 특히 식량작물 수출생산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2018년부터 476톤의 우리 도 쌀을 미국, 러시아 등에 수출하였다. 완도에서는 5차에 걸쳐 우리 도에서 육성한 '새청무쌀' 52톤을 러시아에 수출하여 전남 쌀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가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최고품질 쌀 재배 매뉴얼 확산으로 우리 쌀 품질향상과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율 95% 이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최고품질 쌀을 생산했다.

우리 도 육성품종을 조기에 확대보급 시키고자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재배 시범사업 등을 매년 추진하여 2019년 ‘새청무’ 14천ha에서 2021년 67천ha 까지 확대 재배하였다.

이러한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재배 시범사업은 전남쌀의 품질향상을 꾀하는 한편 ’ 새청무쌀‘이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이 2019년 1개 지역에서 2021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우리 도 육성품종을 보급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 도 육성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등 시범사업을 통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에서 ‘새청무쌀’ 품종이 3개나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자급률 제고 기술보급

우리 도는 밭작물 생산비 절감 및 자급률 제고로 국민의 먹거리 안정화를 위해 밭작물 기계화 등 시범사업을 발굴해 다수확 기술지원 및 신기술 선도 농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8%인데 비해 밭작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경지가 균일하지 못하여 파종, 이식, 수확의 기계화율이 저조하다. 이에 논콩 재배에 적합한 기계를 개발하여 파종 노력 절감을 위해 논 이용 콩 생산 기계화사업, 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밭작물 기계화율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기능성 쌀귀리, 보리, 밀 등 잡곡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 시범사업, 신기술 종자 확대 보급 시범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최근 소비자 선호에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기계화율 제고로 농업경쟁력 확보를 꾀했다. 밀 용도별 맞춤형 생산 및 블렌딩 단지 조성 시범, 가공·유통연계 콩 전 과정 기계화 모델 구축 시범,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 국내육성 맥주보리 품종이용 맥아제조 및 산업화와 기능성 및 원맥 생산 단지조성, 기능성 쌀보리 재배단지 조성 및 안정생산 기술 시범과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환경개선 시범 등 밭작물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생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잡곡 자급률 향상을 위해 밀 산업 밸리화를 추진하여 밀 제분공장 증설을 통해 고품질 밀을 생산 보급하는 등 잡곡 자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가공기술 향상 등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힘쓸 계획이다.

3)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확충 및 기술지원

최근 친환경 농업은 유기농 중심으로 친환경 내실화를 다지고자 차별화된 정책추진과 더불어 저비용 유기농 실천을 위해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지원을 위해 도내 PLS 및 푸드플랜 등 안전성 분석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시군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11개소를 구축하였다. 특히 저비용 친환경 농업 기반확충을 위해 유용 미생물 공급확대와 친환경인증 지원을 위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토양 정밀분석으로 양분종합관리 기술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미생물 생산기반구축으로 유용 미생물 배양실을 21개소 운영하여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슈도모나스 등 13종 생산・공급하여 유기농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친환경 인증지원을 위한 종합검정실을 활성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토양개량제 성과측정,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이행점검 등 정책지원 토양검정과 농촌진흥청의 대표필지 토양검정 등을 수행하였다. 총 토양시료 483,886점의 분석과 시비처방서 606,153부 발급하였으며, 이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분석은 279,997점으로 58%를 차지하였다.

또한, 종합검정실 분석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담당자와 검정 요원에 대한 도단위 분석 교육을 추진하여 담당자 분석능력 향상 및 분석결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했다.

정책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질소거름 알맞게 주기 운동으로 화학비료사용 감축을 지원했으며, 토양검사는 등록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11,000농가 28,733,721㎡의 벼 재배면적을 점검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성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및 저비용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원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벼 병해충 예찰포 22개소(기술원 1, 시・군 센터 21)와 관찰포 358개소를 설치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주기적으로 예찰하고 있다.

예찰포에서는 유아등, 포자채집기 등 장비를 활용해서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열병 분생포자와 벼멸구 등 비래해충 채집상황과 포장 병해충 발생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또한, 관찰포는 농가포장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병해충 발생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반적으로 병해충 발생이 많았으며, 특히 친환경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먹노린재 다량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 벼멸구 등 비래해충은 전년에 비해 발생량이 감소하여 피해가 크지 않았다

2020년에는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먹노린재를 비롯한 월동 해충과 벼 생육 초기 물바구미 등 저온성 해충이 증가하였고, 겨울철 고온다습한 기온과 유례없는 긴 장마로 잎집무늬마름병, 도열병 등 발생이 많았다. 이에 따라 대농업인 홍보 활동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누리집 등에 발표하고, 약제 지원을 통한 방제 활동에 주력했다.

2021년은 지구온난화로 가장 문제가 되는 벼 키다리병은 본답에서 일부 발생했으나 온탕소독에 석회유황합제를 활용한 새로운 종자소독 기술 보급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줄무늬잎마름병은 겨울철 저온으로 월동 애멸구 밀도가 낮았고, 중국으로부터 비래량도 적었으며, 저항성 품종 확대재배와 체계적인 방제기술 지원 등의 노력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추진부서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작물환경팀장 박진영, 담당자 변규환, 박정선

5) ICT 활용 디지털농업 기술 현장 확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대두와 미래농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영농인력 부족, 농촌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관행농업을 벗어난 '스마트팜' 조기 확산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전남 도내 단동하우스 3,571ha(전체 4,719ha 중 75% 차지) 중 84%가 0.5ha 미만의 소규모 영세농가인 현실에서 대규모 위주의 기존 고가의 스마트팜 시설 도입은 어려웠다.

이에 전남에서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조기 확산을 위해 농협 협력사업으로 기존 30%에서 10~20%로 농가 부담을 줄였다. 2019~2022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개소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 64농가 21.1ha, 2020년 64농가 20.7ha, 2021년 69농가 21.5ha로 2021년까지 총 75개소 197농가 63.3ha에 보급형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하였다.

기존 스마트팜 대비 설치비는 33~38%, A/S비용은 75%를 절감하였고, 보급형 스마트팜 도입으로 수량은 6~10%, 소득은 13% 증가하였으며, 노동력은 17~21%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농업 현장 스마트영농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21개소, 고도화 8개소를 조성하여 시설재배 관행 대비 수량 5.7% 증가, 경영비 7%, 노동력 20%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2019~2020년까지 시설재배에 집중된 스마트팜 기술을 노지 작물에 맞게 적용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 지역별 특성 고려 노지작물 스마트 영농 모델 실증 ‘사업으로. 무안(양파, 20.8ha), 장흥(블루베리, 5.6), 신안(대파, 19.8ha), 영광(대파, 12.3)로 총 4시군에 2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2022년에도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국비 사업으로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 1개소, 노지 3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상이변 등의 상시화에 따른 불리한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노지 작물의 안정 영농과 악성 농작업 경감을 위해 노지 스마트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6) 원예작물 저비용·고품질·안정생산 기술보급

WTO 체제 이후 농산물 수입 개방이 자유화되면서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와 함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교류 감소,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식량안보가 강화되면서 국내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 대두와 비용 절감, 고품질 안정생산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 농촌진흥기관 육성 우리 품종 보급을 확대하여 자급률 향상과 로열티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2018년 ‘추황배’ 등 14개소 101ha, 2019년 ‘단영마늘’ 등 18개소 77.8ha, 2020년 단감 등 20개소 88ha, 2021년 양파 등 18개소를 육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국내육성 품종 다양화 등 23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가 생산비 절감, 저비용 안전생산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적용과 기계화 실증을 우선 추진하였는데, 2019년도 9개소 183.8ha, 2020년도 16개소 45ha, 2021년도엔 34개소까지 확대 보급하였다.

한편, 이상기상 상시화에 따른 원예작물 병해충 사전예방과 기상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8년 이상기상 대응 돌발해충 피해예방 시범 4개소, 채소류 염류장해 및 친환경 병해충 예방 기술보급 시범 8개소 31ha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엔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을 확대하여 17개소 39.2ha를 추진하여 병해충 발병률을 5% 미만으로 낮추었다. 2020년 이상고온 대응 온도 저감 기술 등 17개소 56ha, 2021년에는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기상재해 경감 시범 등 16개소를 추진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노력하였다.

7) 권역별 아열대작목 육성 단지화·규모화·소득화 추진

지구온난화에 따라 2080년까지 한반도 경지면적의 62.3%가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소득증가와 세계화,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아열대・열대작물의 소비 증가와 함께 새로운 고소득・기능성 작목으로 인식되면서 도내 시군의 특성화 사업도 다양해지고, 6차 산업을 연계한 소득원으로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남의 따뜻한 기후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가능성 또한 한반도 어느 지역보다 높아 전라남도에서는 2018년 권역별 아열대작목 육성 방안을 수립하여 재배권고안을 마련하였고, 2019~2023년까지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개 권역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과 연차별 재배 확대로 적정 규모화・단지화・소득화에 노력하였다.

2019년 아열대작목 육성 시범단지 조성 시작과 더불어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전남농협’과 전남 아열대작목 육성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5. 30.)하는 등 농가 조직화와 소통·역량 강화에 노력하였고, 전남 아열대작목 공동브랜드 ‘오매향’을 런칭하는 등 농협연계 판로확보 및 유통체계 마련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바나나, 애플망고 등 5과종 16.5ha 25개소를 조성하였고, 2022년에는 10개소 6.3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내 아열대작목 재배 추이는 농촌진흥청 선발 작목을 기준으로 2019년 566농가 102.8ha(전국 재배면적의 25.3%), 2020년 521농가 115.6ha(39%), 2021년 550농가 125.2ha로 재배면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제주에서만 재배되고 있던 바나나를 도입하여 2020년부터 해남군을 중심으로 육성, 현재 도내 10농가 2.5ha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10a당 2천만원에서 3천 6백만원의 소득(조수익)을 올렸다.

앞으로도 전남지역 적합 재배기술 정립과 품질 고급화, 유통·판로확보를 위해 맞춤 컨설팅 및 자체 연구회 육성 등으로 전남 아열대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8) 지역경제 선도 지역별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 지원

농산물 수입 개방과 소비감소, 작목별 과잉생산,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독자적인 특화작목 육성·산업화를 통해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7년부터 집중육성 하였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공개평가로 매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원을 하였으며, 지역 내 분야별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과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현안을 반영토록 지원하였다.

2017년 고흥 석류 등 6작목 선발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 161억 원(도비 44억 원)을 투입하여 총 23사업 21작목을 선발·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품질 고급화는 물론 가공상품 개발 및 해외 수출시장 공략으로 판로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군별, 작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업 참여 농가들의 평균 조수입 39.6%, 소득 51.2%가 증가하여 만족도가 높고(2020년 기준), 사업 참여를 통해 ’20년 기준 상시 42명, 비상시 1,201명 등 1,243명의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성, 곡성 등에서는 귀농인 신규농장 조성을 통한 창업 효과도 거두었다.

또한,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 제시를 위해 2017~2019년 육성 작목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 정책연구로 제안·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하였으며, 3년 지원 종료 후에도 연계 가능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육성한 특화작목으로는 2017~2019년 석류(고흥), 화훼(순천), 생강(광양), 블루베리(장흥), 생대추(함평), 모시(영광), 2018~2020년 칼라포도(나주), 딸기(강진), 부추(해남), 약용채소(장성), 2019~2021년 풋고추(영암), 단호박(진도), 2020~2022년 토란(곡성), 참다래(보성), 복숭아(화순), 시금치(신안), 2021~ 오이(구례), 포도(강진), 고구마(해남), 체리(장성), 2022~ 포도(함평), 복숭아(영광), 비파(완도)로 총 23개 사업 21작목이다.

추진부서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원예특작팀장 채연경, 담당자 오치환, 용희경**

9)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냄새저감 기술보급

축산 악취 저감 등 지속 가능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 20개 시군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광합성균, 고초균 등 13종, 377만톤을 생산하여 135천여 농가에 공급하였다. 시군에서 미생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배양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 주기적인 교육을 하였다. 공급하는 미생물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오염도 조사 등 품질관리와,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악취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돈사 내부 악취제거 기술 및 안개분무 시스템을 도입하여, 축사 내부의 냄새 물질인 암모니아를 시범 전 대비 88%, 메틸머캅탄 100%, 트리메틸아민 43%를 저감하였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지역의 축사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감소 하였다.

10) 첨단기술 활용 축산물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

축사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등으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사육환경을 개선하였다.

ICT를 활용한 온습도, 환기 관리 및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을 통해 육계 폐사율을 19%, 스트레스 3% 감소 등 가축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돈사 환경개선을 위해 기화열을 이용한 냉풍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돈 폐사율을 37.5% 감소시키고, 농가소득을 12.7% 높였다. 한우의 경우, 반추위 삽입형 센서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밀사양과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체별 맞춤형 사양 관리로 생산비를 절감하였다.

또한,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하였고, 가축 생산성을 30% 향상하였다.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최적 사양관리로 소득을 6% 높였다. 가금류 왕겨 자동살포 및 퇴비

생력화 시스템을 보급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살포 노동력을 50% 절감하였다.

전남 낙농가를 대상으로 2008년 8월 조직한 ‘전라남도 목장형 유가공 연구회’는 40여명의 회원이 매년 주기적으로 유가공 실습, 정보교류,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열어 우유 가공능력을 높였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치즈 체험과 자연 치즈 전시회 등을 열어 유가공 소비 확대에도 기여했다.

11)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사료비 절감 기술 보급

국내 우수 조사료 생산 및 TMR을 활용한 한우, 흑염소 자가 배합사료 제조기술을 보급하였다. TMR 자가 배합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우농가 배합비 조성 및 프로그램을 교육하여 사료비를 20% 이상 절감하였다.

조사료 품질 고급화 기술 및 미생물을 투입하여 조사료 수확 시 품질 좋은 건초 및 헤일리지를 생산하였다. 이를 통해, 수입 건초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우수 조사료 생산기반을 마련하였다. 논에 벼 대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옥수수 등 동·하계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 안정 및 조사료 자급률을 높였다.

농산부산물을 활용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흑염소의 품질을 높이고, 사료비 절감을 위한 자가 TMR 사료 제조기술을 보급한 결과 사료비를 22～30% 절감하였다. 또한, 신품종 IRG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국내산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였다.

12) 곤충산업 소득 자원화 기술보급

곤충산업을 새로운 농가 소득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반조성 및 소비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메뚜기목 곤충의 안정생산과 상품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식용곤충 조리·외식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곤충요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곤충 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국내육성 우수품종인 장원벌 등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화분생산은 9% 증가하였고, 화분 선별시간을 83% 감소시켜 20%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스마트 양봉 기술을 보급한 결과 수벌 번데기 생산량은 136% 증가하였고, 응애 방제비를 32% 절감하였다. 토종벌 회전식 소초광을 보급하여 꿀 채밀량을 16% 늘렸다. 매년 피해가 늘고 있는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을 갖는 계통을 1,000군 이상 보급하여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였다.

추진부서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축산기술팀장 신길호, 담당자 임종준,정소영**

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전남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 농업 리더 양성과 작목별 생산비 절감, 유기농업 등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를 기본방침으로 단계별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을 추진했다.

도에서 실시한 농업인 교육은 2018년부터 단기과정으로 ‘전문기술교육’, ‘정보화 교육’, ‘귀농인교육’, ‘농업기계교육’, 장기과정으로 ‘전남생명농업대학’,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경영자과정’ 등 369과정 11,984명이 수료했다.

중점교육으로 유기농업, 미래농산업·신성장 소득작목 교육, 농식품 6차산업·여성창업 교육, ICT, 농용로봇, 드론 등 생산비 절감 교육,

전자상거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물인터넷 농업활용 과정 등 농가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장기과정인 전남생명농업대학은 저비용 고소득 농업실천 선도 농업인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8개 반 226명을 선발하여 미래농업 리더·약용작물반 등 친환경 농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전문인력 202명을 배출하여 차세대 지도자로 육성했다.

1)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유기농업 전문교육, 기후변화 대응 신성장 소득작목 교육, 농식품 6차산업, 여성 농업인 창업교육, 품목별 생산비 절감 기술교육을 현장학습 중심으로 2018년 961명, 2019년 1,016명, 2020년 539명, 2021년 456명의 맞춤형 현장체험 프로그램 교육을 추진했다.

특히 생산비 절감, 유기농업, 농·식품 6차산업 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가 경영개선에 필요한 교육들을 확대 운영했고, 수요자 중심교육, 품목별 우수 학습현장 발굴을 통해 이론과 현장학습 병행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실적 】

(단위 : 명)

2019		2020		2021	
계획인원	수료인원	계획인원	수료인원	계획인원	수료인원
890	1,016	1,060	539	625	456

추진부서 농업교육과장 유영후, 전문교육팀장 최만수, 담당자 김양진

2) 정보화 교육

전라남도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적응력 확대와 동시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정보화 교육은 2018년 7과정 162명, 2019년 9과정 221명, 2020년 7과정 184명, 2021년 7과정 155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나아가 판매까지 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 교육, 유튜브 활용 1인 미디어 제작, SNS활용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향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용교육을 확대하여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 농업인 정보화 교육실적 】

(단위 :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200	162	230	221	270	184	240	155	175	

3) 귀농·귀촌인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은 귀농・귀촌(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2018년 13과정 442명, 2019년 13과정 456명, 2020년 9과정 185명, 2021년 9과정 204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나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타도 시민에게는 귀농·귀촌 준비기초 교육, 초보 농업인에게는 재배작목 선택 및 재배기술 교육, 농촌생활기술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멘토(선도농가)・멘티(신규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귀농 이주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줌

으로써 귀농인들의 영농현장에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농어촌의 활력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귀농인 교육실적 】

(단위 :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400	442	390	456	270	185	270	204	225	

추진부서 농업교육과장 유영후, 농기계교육팀장 이광수, 담당자 박성국

4) 농업기계 교육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영농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촌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영농에 필요한 각종 신기종 및 첨단 농업기계 교육을 2018년부터 81과정 3,607명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업기계 취급 · 조작기술, 기기별 고장 원인 분석 및 처리방법, 정비 · 사후관리 요령 등이며, 영농철에는 영농현장에서 직접 고장 난 농업기계를 점검해 주는 영농현장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 농업기계 교육실적 】

(단위 :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1,150	1,247	1,150	1,226	667	441	762	693	845	

추진부서 농업교육과장 유영후, 농업기계교육팀장 이광수, 담당자 이기용,박성국

5) 도시소비자 교육

도농이 상생하고 도시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확대 운영이 필요하여 2015년 신설된 과정이다. 도시소비자를 초빙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전남의 우수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직능단체, 일반 도시민 471명 대상으로 교육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위해 영농현장 및 체험장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현장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됐다.

【 도시소비자 교육실적 】

(단위 : 명)

2018		2019		2020		2021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계획	수료
120	124	120	129	120	97	120	121

추진부서 농업교육과장 유영후, 전문교육팀장 최만수, 담당자 신누리

6) 전남생명농업대학 운영

전남생명농업대학은 생명식품산업을 선도할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우리 도가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에 개설했다. 지역별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 의지가 강한 정예요원을 선발하고, 친환경농업 지도자 및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전문 인력양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 전남생명농업대학 교육인원 현황 】

(단위 : 명)

연도	과정수	입학생	수료생	실적(%)
계		1091	1019	95
2005(제1기)	1	40	37	93
2006(제2기)	2	86	81	94
2007(제3기)	2	60	59	98
2008(제4기)	3	75	71	95
2009(제5기)	3	60	59	98
2010(제6기)	3	60	60	100
2011(제7기)	3	70	70	100
2012(제8기)	3	60	59	98
2013(제9기)	3	64	61	95
2014(제10기)	3	73	71	97
2015(제11기)	3	71	57	80
2016(제12기)	3	80	72	90
2017(제13기)	2	66	60	91
2018(제14기)	2	60	56	93
2019(제15기)	2	60	57	95
2020(제16기)	2	60	47	78
2021(제17기)	2	46	42	91

학사운영의 내실을 위해 친환경농업 전문가를 학장으로 위촉하고,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대학교수, 분야별 선도농업인, 공무원 등 디지털농업과 친환경농업 전문 강사진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4차산업혁명을 대비 첨단 농장, AI, 3D프린팅 등 디지털 농업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면서 개별 생산・유통 중심에서 조직화・규모화 및 브랜드파워 확보 등 유통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뒀었다. 수료 후에도 수료생들은 각 지역에서 생산·유통 전문가와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추진부서 **농업교육과장 유영후, 농기계교육팀장 이광수, 담당자 김진두**

7)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전남도는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5개 교육기관(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농업기술원, 한국온실작물연구소)에서 우리 도 주요품목 위주로 16개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 교육인원 현황 】

(단위 : 명)

연도	과정수	대학별 수료현황					
		계	순천대	전남대	목포대	농업기술원	온실작물연구소
계		1,607	501	391	220	217	278
2009~2010(1기)	12	110	33	38	7	22	10
2011~2012(2기)	12	214	50	56	39	31	38
2013~2014(3기)	15	289	99	50	39	46	55
2015~2016(4기)	16	356	111	90	48	41	66
2017~2018(5기)	16	333	111	81	46	40	55
2019~2020(6기)	16	305	97	76	41	37	54

농업마이스터대학은 2년 4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무농약 인증으로 인한 농가 소득향상과 원가절감 실현을 위하여 신성장 핵심품목 위주로 학과를 개설하여 농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2020년까지(제1기~제6기) 1,60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2021년에는 제7기 교육생 327명을 모집하여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양성해 나아가고 있다.

추진부서 농업교육과장 유영후, 전문교육팀장 최만수, 담당자 신단비

8) 농업경영자과정 운영

농업인 교육체제 개편으로 2009년부터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품목 위주의 교육인 마이스터과정을 보완한 1년 과정의 농업경영자과정을 우리 道 자체사업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 교육인원 현황 】

(단위 : 명)

연도	과정수	대학별 수료현황			
		계	순천대	전남대	목포대
계		4,338	2,168	1,386	784
1993~2006	124	2725	1150	1159	416
2009	4	103	55	28	20
2010	5	142	85	29	28
2011	4	112	82	-	30
2012	6	173	87	86	-
2013	5	136	83	24	29
2014	5	105	61	20	24
2015	6	135	95	20	20
2016	6	126	86	20	20
2017	6	123	84	-	39
2018	6	118	79	-	39
2019	6	113	72	-	41
2020	6	112	74	-	38
2021	6	115	75	-	40

순천・목포대학교에 위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수요조사를 거쳐 스마트농업, 농업경영・가공・유통, 융・복합, 귀농귀촌과정 등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맞춘 교육을 하고 있다.

농업경영자과정은 1993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농업특성화교육으로 변경되었는데, 2009년부터 다시 개설하여 2021년까지 4,33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앞으로도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할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업교육과장 유영후, 전문교육팀장 최만수, 담당자 신누리

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 촉진

1) 특산자원 활용 융복합 및 마케팅 기술지원 시범사업

전라남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과 농업농촌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보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과 부가가치 향상 기여를 위해 다품목 · 다기능 결합을 통한 새로운 융복합 상품 개발, 상품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 시군에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역 특산자원 협의체 구성 및 역량 강화, 융복합 상품개발 및 상품화, 생산기반 조성,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참여경영체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했다.

장성군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과・쌀을 이용한 브랜드 육성을 위해 상품화 연구용역을 통한 10종의 상품개발(떡류 3종, 빵류 2종, 과자류 5종), 브랜드 개발 및 상표출원, 전문인력 양성, 가공기반 구축,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다.

영광군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모시・쌀・깨・고구마 등을 활용한 영광 모시떡 브랜드 육성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굳지 않은 떡의 제조기술을 적용한 모시앙금절편(동부, 깨, 고구마), 모시크림찹쌀떡(딸기, 고구마, 인절미)과 모시 기능성을 활용한 디저트류 3종(모시쿠키, 모시피낭시에, 모시구운도넛)을 개발, 가공생산 거점 및 동부전처리장 조성, 융복합상품 생산판매를 지원하였다.

【 2019~2021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

사업 기간	시군	사업명	참여 농업경영체
2019 ~ 2020	장성	감과 사과를 이용한「감사」브랜드 육성 * 감+사과+쌀 ⇒ 떡류, 제과 · 제빵류	미르당, 북하특품사업단, 옐로우드림
2020 ~ 2021	영광	지역특산자원활용 융복합 떡산업 육성 * 모시+찹쌀/쌀+팥/깨/고구마 ⇒ 모싯잎찹쌀떡류・앙꼬절편류・디저트류	다송유통 영농조합법인, 낙원떡집, 공달푸드, 영광본가, 희망이샘솟는떡집

또한, 급변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업인 생산제품의 판매처 발굴, 제품홍보 등을 위한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시범사업을 2018~2021년 총 6개소 추진하여 우수상품 발굴・육성, 경영체 마케팅 역량 강화, 가공상품 온-오프라인 시장론칭 행사를 지원하는 등 유통 마케팅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

【 2019~2021년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 추진현황 】

사업 기간	시군 (추진주체)	추진내용
2018	도 (농업기술원) *2개소	○ 소규모 가공경영체의 마케팅 능력 배양 : 25농가 - 마케팅 교육(20일, 25농가), 팜파티 지원(2회) - 국내 식품박람회(2회), 중국 절강성농업박람회 참가(10농가) -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입점(22농가), 공영홈쇼핑 론칭 (1농가, 매출 30백만원) ○ 청년농업인 유통조직체「지오쿱협동조합」활성화 지원 : 1개소 - 동경식품박람회 참가(19농가, 27품목) - 온라인 공동판매 쇼핑몰 구축 - 공동브랜드(CI, 슬로건, 디자인) 개발, 패키지(3종) 제작 지원 - 지역특화 가공식품 상해식품박람회 참가, 중국수출(28품목)
2019	도 (농업기술원)	○ 유통조직체 구성 - 소규모 농식품 가공농가 자율모임체(1개, 37명) ○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 29회 406명 ○ 전문가 컨설팅 : 34회 17개소 ○ 국내외 박람회참가 및 판로개척 지원 : 7회
	진도 (농업기술센터)	○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우수가공상품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추진 - 온라인 파메킹 프로모션, 소셜커먼스, 위메프 입점, 온라인 판매기획전 운영(농부의 식탁) ○ 마케팅 역량강화 및 브랜드 개발 교육 : 42회 42명 ○ 전시홍보 및 판매행사 : 1회
2020	담양 (농업기술센터)	○ 사업 대상 경영체 모집 선정(14개소) ○ 참여 대상자 56명(가공상품 25농가, 111종) ○ 유통연합・연구회 등 유통조직화 구성 ○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 구성 및 활동7회 ○ 오프라인 마케팅(14개소) : 4건 20일(매출 20.1백만원) ○ 온라인 마케팅(30개소) : 온라인몰 4개소 입점(매출 20백만원) ○ 마케팅 활성화 교육 12회 201명
2021	도 (농업기술원)	○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2회 50명) ○ 수출 카달로그 제작, 가공상품 전시 홍보 3회 ○ 남도장터 가공상품 입점지원(44건) ○ 라이브커머스 지원(2농가) ○ 광주미래식품전 홍보(11.4.~7.) ○ 농식품 품평회 2회(5. 7. 11. 11.)

2)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및 가공 표준화

전라남도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을 5개 시군에 추진하여 2년간 10억 원 지원으로 농업인의 공동이용 가공시설 설치,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가공기술 개발 상품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시설운영은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동생산자법인을 조직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련 교육 이수, 장비 사용료 납부 후 직접 장비를 이용하여 자가농산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개소의 공동가공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18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 2018~2022년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 추진현황 】

지원년도	지역	규모	주요 생산품목
2018～2019	담양	489㎡	딸기잼
2019～2020	보성	446㎡	딸기잼, 키위칩, 키위 젤라또
	신안	495㎡	누룽칩
2020～2021	나주	490㎡	(가공센터 설치 중)
2021～2022	곡성	585㎡	(가공센터 설치 중)

이와 관련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농산물가공기술 균일화・표준화로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을 12개소에서 수행하여 농산물 가공제품 표준화 연구용역, 제품개발, 공정 매뉴얼 제작, 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해남군농산물가공센터에서는 2021년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 품질검사실과 가공센터 위생관리를 위한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농업농촌 자원활용 치유프로그램 개발

전라남도는 2021년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4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에서 농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예・곤충・동물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마을 5개소, 치유농장 16개소를 발굴・육성하여 도시민 또는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유관기관인 전남, 광주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치유농업을 도입한 치매예방교실을 8회 시범운영 한 후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고, 치유농업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4)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농촌교육농장 육성 및 품질관리

농촌교육농장 사업은 농촌과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지원으로 67개소, 2020년부터는 도비 지원으로 6개소를 육성했다.

이 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농업 · 농촌 생활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농업 · 농촌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는 학교 밖 농촌체험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농장주가 학교 교육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농장 교사양성 교육을 매년 추진했고,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품질 인증제에 대비하여 현장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2018년 8개소, 2019년 17개소, 2020년 25개소, 2021년 16개소의 교육농장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농촌교육농장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고, 치유체험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농업인의 안전과 능동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6개소 추진하였다. 보조구 및 안전장비를 보급해 불안전한 작업 관행을 개선하여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위험성을 감소시켰다.

농업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생활화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0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마을 또는 작목반의 공동작업장 안전시설 개보수 등 불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였다.

2019년에는 고령 농업인의 노동 부담경감 및 건강한 노년 생활 지원을 위해 수확 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5개소에 922대의 소형운반기기를 보급함으로써 농산물 수확 및 운반 편리성을 높였다.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우수사례(마을, 작목반)를 발굴하여 농촌진흥청 주관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분야 경진대회에서 2020년 화순군이 최우수상을, 2021년 고흥군이 우수상을 받았다.

추진부서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농촌자원팀장 정현희, 담당자 김보미

마.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1) 추진현황

전남도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주제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 2021국제농업박람회(이후 박람회)를 전남 나주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했다.

박람회는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과 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로 농업의 활로 개척과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민과 농업인의 교류 활성화로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해왔다. 2021년은 5회째다.

특히 2021년에 개최된 박람회는 농업이 전통산업을 넘어 첨단기술 서비스산업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고, K방역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4차산업혁명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주제와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 이라는 부제로 기존 농업 관련 박람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농업발전을 위한 공통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박람회를 구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전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로서 21세기 박람회의 패러다임을 유도하였다.

2) 개최 성과

박람회는 43개국 392개의 기업 및 바이어가(해외 105개, 국내 287개)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20개국 250개 유치 목표를 1.5배 초과 달성했다

KOTRA, aT,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현장판매 18억, 수출계약 389억 원, 구매약정을 통해 2,000억 원, 총 2,409억 원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우수 농수산물 판매기업의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관람객은 총70만 8천 명(현장11만명, 온라인 59만 8천명)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석이 불가한 해외기업을 위해 온라인 전시관(40국, 169개사, 460개 제품)을 별도 운영하면서 박람회의 경제적 만족도 조사에서 96.1%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해외참가자들은 온라인 전시관 참가 및 화상 상담회를 통해 한국 시장을 개척하고자 차기 박람회의 참가를 표시하였다.

또한, 국제학술행사를 통해 농업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였으며, 관련 참여자는 농업경영 및 귀농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농업 관련 종합박람회로서 전방위분야의 농업박람회로 분석되었다.

3) 종합 평가

코로나19로 인한 철저한 방역시스템 적용,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한 성공적인 박람회였으며, 각박한 농업 현실에 물꼬를 열어주는 비즈니스 박람회의 입지를 확인하였고, 다양하게 준비된 콘텐츠로 일반 관람객도 농업의 소중함과 농업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었다.



【개막식】



【업무협약식】


【국제심포지엄】

추진부서 사무국장 정한로, 기획부장 심재명, 전시·시설팀장 양선옥





제3장 부분별 성과

제8절 해양수산

1.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2. 섬·어촌 발전 기반 구축 및 해양관광 활성화
3.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확충
4. 어업 경영안정 지원 및 인재양성
5.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강화

제8절 해양수산

1.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1-1. 항만 SOC 확충 및 기초 생활기반 조성

가. 여수·광양항 최첨단 스마트 복합항만 구축

광양항은 1986년 개항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총 108개 선석, 총 연장 25.5km 규모로 일반화물 368백만톤, 컨테이너화물 272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국제 무역항이다.

전남도는 광양항을 최첨단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광양항 컨테이너 3-2단계 부두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수광양항 발전 추진협의회', '해양항만 활력추진단', '전남도의회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총사업비 6,915억 원을 확보하였다. 2026년까지 기술용역과 R&D를 통해 항만자동화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여 컨테이너 부두 4선석을 구축하고, 이후 실적과 경험이 확보된 항만자동화 기술을 국내 항만에 도입하여 세계 컨테이너 항만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광양항내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고, 新해양산업을 집적·육성하기 위해 2020년 중마부두 일원에 국내 유일의 해양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Test-bed),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등을 조성하였다. 현재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항만 기술을 선도할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입주하였으며, 광양항을 국가 해양산업 R&D 전략거점으로 육성한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309억 원 생산유발효과와 102억 원 부가가치 유발 및 198명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광양항 배후단지는 2021년까지 94%가 분양되었고, 2022년까지 잔여 부지 전체가 입주 완료되어 추가 부지 확보가 시급하다. 이러한 배후단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풍 일반산업단지 1단계 부지의 일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고, 북측배후단지를 조성하여 효과적인 수출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여수광양항 발전 추진협의회'는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여수·광양항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배후단지 활성화, 컨테이너 부두 경쟁력 제고, 관광활성화 등을 주제로 협의회를 2회 개최한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연기해오던 협의회 회의를 2022년부터 위원장인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재추진하고 있다.

2015년 발족한 '해양항만 활력추진단'은 12건의 연구과제를 채택했고, 4개 분야 16개 사업 2조 7천억 원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발굴·건의했다. 또한 2021년 '전남도의회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양항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혁신을 통해 항만 설비의 자동화·지능화로 물류를 최적화시키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이익을 극대화하여 최첨단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구축과 인근 배후산업과 연계한 배후단지를 확충하여 자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광양항 물동량 처리실적 】

(단위 : 천 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물동량 처리실적	301,927	309,707	273,321	292,058

추진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항만물류팀장 최성희, 담당자 이준길

나. 목포항 지역 핵심산업 지원항만 개발

1897년 개항한 목포항은 국토 서남단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대중국 및 동남아지역 진출에 유리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남권 물류 중심 항만으로써 26선석이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목포항을 서남권 지역 핵심산업 지원항만으로 육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신항, 북항, 내항, 남항 각 항만별 특화개발을 추진한다.

신항은 자동차 전용선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5만 톤급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을 추가 건설해 신항의 주력화물인 자동차를 연간 50만대 이상 처리하는 자동차 수출 및 환적 중심기지로 구축한다. 또한 서남해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만 톤급 철재부두 1선석을 신설하고, 배후단지 238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에 1단계 배후단지 485천㎡가 준공되었고, 향후 2030년까지 목포신항에 723천㎡의 배후단지가 조성되어 항만의 부가가치와 물동량을 창출할 예정이다. 목포신항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안전사고와 물류비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9km의 왕복 4차 전용도로를 건설하여 물류비용 및 교통사고 절감으로 향후 30년간 총 655억 원의 편익을 가져올 것이다.

북항의 경우 전국 수산물의 최대산지로써 위판장, 가공공장, 저장시설, 직판장, 선수물자 보급시설을 갖춘 친환경 수산물종합단지를 조성해 서남권 수산거점종합단지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수협 이전과 수산업 기능 강화에 대비하여 소형선부두 413m를 조성 중이며, 아울러 북항의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 목포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교통량 증가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내항은 삼학도 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공원 및 도시성장·정보화·세계화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여객과 관광, 역사・문화・레저 거점 항만으로 본격 개발된다. 3만 톤급 여객부두 1선석(230m)을 신설해

여객서비스를 제고하고, 해양관광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반동 수제선(400m)을 정비해 친환경 명품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목포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된 남항은 현재 관공선 및 예부선부두로 이용 중이며, 전남도는 향후 수변산책로 및 공원, 워터프런트 등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주변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해양관광 및 연구시설 도입 등을 통한 친수 및 해양복합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항만물류팀장 최성희, 담당자 이준길

다. 다기능 지방항만 건설

전남도는 전국 60개의 무역항 및 연안항 중 15개의 항만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 항만은 9개소(무역항 1, 연안항 8)이다.

2010년에 「항만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9개 항의 개발 및 유지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으로 지방관리 항만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아 주체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있다.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완도항 등 9개 항만의 39개 개발사업 3,071억 원이 반영되었고, 이중 홍도항 등 8개 지방관리 연안항은 전국 최다인 1,788억 원(20.8%)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지난 5년간(2018~2022) 전남도의 연안 여객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방파제, 물양장, 여객선터미널 등의 항만시설 확충과 재해예방등 노후시설 개량에 1,82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항만기반시설을 정비했다.

앞으로 지역 간 원활한 육·해상 운송 체계 구축과 지역민 중심의 물류·교통·어업 등 다기능 고부가가치 지방항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만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 항만개발사업 추진실적 】

(단위 : 억 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항만 개발 및 유지보수	1,826	393	386	332	346	369

추진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항만개발팀장 이광남, 담당자 김지연

1-2. 어촌 정주여건 개선

가.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전남도는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섬 주민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목포, 완도, 여수 등 7개 시·군 168개 섬 주민들에게 13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8,340원 미만 구간은 1,000원, 8,340원~3만원 이하는 5천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구간은 6천원, 5만원을 초과하는 운임구간은 7천원만 섬 주민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또한, 섬 주민이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차량 선적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도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억 원의 사업비로 섬 주민 부담금 중 1,0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30억 원을 지원하여 도내 여객선 운항 전 구간(1,320개)에 대해 1,000원 단일요금제를 적용하여 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국의 대표 연안여객 해상 교통 지원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 2018~2022년 지원 실적 】

(단위 : 백만 원)

지원년도	사업량 (섬개수)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50%)	도비(20%)	시군비(30%)	
계		61,147	30,528	12,746	17,873	
2018	141	9,964	4,982	2,491	2,491	50:25:25
2019	141	9,964	4,982	1,993	2,989	
2020	168	13,756	6,878	2,751	4,127	
2021	168	13,665	6,787	2,751	4,127	
2022	168	13,798	6,899	2,760	4,139	

추진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연안해운팀장 김준열, 담당자 박성일

나.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전남도는 섬 주민이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LPG,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생활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섬 주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시 해상운송 지연이 발생하면 생활연료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목포시 등 8개 시군, 41,111가구에 31억 원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생활필수연료가 안정적으로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에는 8개 시·군 164개 도서 22,237가구에 11억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관리 강화를 위해 섬 주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활연료 해상 운송비를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 2019~2022년 지원 실적 】

(단위 : 백만 원)

지원년도	사업량 (섬개수)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계		**4,350**	**2,175**	**653**	**1,522**	
2019	171	460	230	69	161	6월시행
2020	172	1,320	660	198	462	
2021	173	1,380	690	207	483	
2022	164	1,190	595	179	416	

추진부서 ○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연안해운팀장 김준열, 담당자 장윤정**

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섬 주민들에게 취사용 LPG를 포함한 쌀, 라면 등 모든 생필품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섬에서 생필품 구입 시 인근 내륙지에서 섬까지의 운송비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도시민보다 20~30%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하는 섬 주민들에게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부터 20개 도서, 1,633가구에 25억 원의 예산으로 생수, 쌀, 밀가루, 채소, 세면도구 등의 생필품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남도는 도내 유인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정주여건에 소외 받지 않도록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2018~2022년 지원 실적 】

(단위 : 백만 원)

지원년도	사업량 (섬개수)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30%)	시군비(70%)	
		2,480	**744**	**1,736**	
2018	171	1,100	330	770	8개시군
2019	172	640	192	448	8개시군
2020	197	245	74	171	8개시군
2021	136	268	80	188	7개시군
2022	20	227	68	159	6개시군

※ '18년 12월 해운법 개정에 따라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2019. 6. 12. 시행)

추진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연안해운팀장 김준열, 담당자 장윤정**

1-3.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가. 해양쓰레기 제로화

전남도는 해안선이 6,873㎞(전국 15,282㎞)로 전국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서는 2,165개 섬(유인도 272, 무인도 1,893)으로 전국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서남해안의 지리학적인 특성인 리아스식 해안과 해류의 흐름으로 인해 전남은 해상기인 쓰레기,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전남도는 2019년도부터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슬로건으로 관련 예산(2019년 5억 7백만원 → 2022년 10억 6천 5백만원)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2019년 3만 2천톤 → 2021년 3만 4천톤)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청정한 전남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수거처리 확대를 위한 5개 전략(발생최소화, 수거처리 효율화, 기반시설 확충, 해양쓰레기 자원화, 국민공감대 확산), 2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자정결의대회(4월, 고흥군)를 시작으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전남바다 만들기'를 위한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연안 정화의 날'을 운영하여 17,900명 참여, 2,928톤을 수거 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친환경섬유기업인 효성티앤씨·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폐그물(나일론)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원사를 생산할 수 있는 해양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의 첫 발을 내딛었다.

2019년부터 2021년에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58,306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12개 시군, 7,737.9톤 수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129개소, 육상집하장 설치 44개소,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648명을 선발하여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해양쓰레기 제로화'는 2018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용역을 토대로 추진하였으며, 2019년부터 매년 발생량은 10% 감축하고 수거처리량은 15% 확대하여 2026년에는 발생량과 수거량이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도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수립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추진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정책 추진 후 성과분석, 전라남도 해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종합 관리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연안 정화활동 】



【 해양폐기물 자원 재활용 업무협약 】

추진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해양보전팀장 김영지, 담당자 조나영

나. 연안어장 환경개선

기후변화와 침적폐기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병해가 빈발하는 과밀화된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1993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다가, 2020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2021년까지 전국 어장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어장 뿐만 아니라 패류·마을어장 및 공유수면을 포함한 면적 82,450ha에 762억 원을 투자하여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 경운 및 바닥고르기 등 정화활동을 추진하였다.

어촌계 및 주변 공유수면 중심으로 개별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다가 과밀·노후화된 만(灣)단위의 대규모 어장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되어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시행되었고, 2020년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및 전남 해역기초조사를 통해 전라남도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다.

특히, 환경보전 관리해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득량만 2개소와 가막만 1개소, 총 3개소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개소당 50억 원이

투입되어 오염퇴적물 처리, 어장 청소 등 어장환경개선, 어장 재조정 및 입식비 지원 등 재생사업이 추진되어 깨끗한 전남바다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는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부유쓰레기 수거 및 도서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정화선(전남914호)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쓰레기 4,968 ㎥ 수거·처리하였고, 92일 동안 적조 예찰 및 방제활동으로 수산생물 피해 방지에 기여하였다.

추진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해양보전팀장 김영지, 담당자 조영송

2. 섬·어촌 발전 기반 구축 및 해양관광 활성화

2-1. 지속가능한 섬 발전 기반 구축

가. 국립「한국섬진흥원」유치

국립 한국섬진흥원이 전남도의 정부 건의 9년 만에 목포시 삼학도에서 공식 출범했다. 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와 정책 수립을 통해 섬의 가치를 높이고,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섬의 날' 제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동력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를 맺었다.

그리고 2019년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으로 2021년 4월 14일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성공하였다.

전라남도는 전국 섬의 65%인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섬의 보고이며, 섬 연구기관과 단체가 집적되어 있어 섬 발전 정책과 연구 수행의 최적지다. 특히 '한국섬진흥원'이 위치한 목포 삼학도는 전남도가 세계 최초로 섬의 날 제정을 건의하여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

'한국섬진흥원' 유치는 전남도가 섬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해 국가 섬 정책을 주도한 성공 사례이자, 대한민국 섬 정책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남도는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대한민국 섬 정책의 세계화를 주도하며, 섬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섬정책팀장 이경석, 담당자 백지선

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확정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미래 섬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섬은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지닌 보고이다. 최근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5개의 섬을 품고 있는 '섬의 고장'인 전남도는 일찍이 섬의 숨겨진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하고, 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 설립과 섬 관련 국제행사 개최에 꾸준히 힘써왔다.

2020년 행정안전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제출, 2021년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 대상 선정, 2021년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국제행사 개최 승인까지 여수시민을 비롯한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돌산진모지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30개국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게 될 이번 행사는 6,00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4,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을 보유한 국가 간 협력과 연대의 장, 세계 섬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게 된다. 박람회장에서는 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제관, 섬의 미래·문화·생태를 보여주는 부제관, 공동관, 섬 살림 문화관, 해상교량박물관 등 8개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가·지자체별로 1일 1섬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스페셜 데이, 연륙·연도교 투어, 힐링 섬 투어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도가 명실상부 세계적인 섬의 메카로 도약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함께

섬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섬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섬정책팀장 이경석, 담당자 백지선

다. 주민 참여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

전남의 섬은 전반적으로 수려한 풍광(기암절벽·방풍림·해변·희귀 동식물 등), 풍부한 인문학 자원(역사·민속·전설 등), 맛있는 먹거리(농수축산물·약초 등) 등 관광객 유치에 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섬을 제외한 다수의 섬은 열악한 정주여건 및 관광기반시설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광기반시설이 주민편의시설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섬 관광 활성화(소득 증대)'를 꾀하고, 나아가 '해양관광(Blue Tourism) 시대를 선도'하고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섬의 매력과 주민 역량·의지'를 평가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24개의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하여 1,06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섬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생태 여행지'로 가꾸어 나가는 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섬은 매년 8~10억 원씩 5년 동안 총 40~50억 원을 지원하며,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가고 싶은 섬」 20곳을 선정하여 섬별 매력에 초점을 맞춰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그 중 여수 낭도·손죽도, 고흥 연홍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생일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기점 소악도 등 10곳이 개방되었다. 섬 주민이 섬을 직접 가꾸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섬의 관광자원을 해설하는 섬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섬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 중 2015년에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반월박지도는 2021년 미국 CNN과 폭스뉴스, 마타도어 네트워크, 독일 최대 위성TV 프로지벤, 홍콩 여행잡지 유 매거진, 영국 로이터 통신 등 세계적 언론에서 소개되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2021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관광공사 지정 한국 관광 100선에 이어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었다.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섬'이었던 반월박지도는 보라색 꽃이 피어나는 청도라지와 꿀풀이 많은 섬의 특색을 살려 섬에 보라색을 입히고, 라벤더와 아스타국화 등을 심어 사계절 보랏빛 꽃피는 퍼플섬이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1년 28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이제는 섬 주민과 여행자들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생태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반월박지도를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시킨 것처럼, 전남의 섬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리고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남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연도별 선정한『가고 싶은 섬』목록 】

연 도	가고 싶은 섬
2015	낭도(여수), 연홍도(고흥), 가우도(강진), 소안도(완도), 관매도(진도), 반월박지도(신안)
2016	장도(보성), 생일도(완도)
2017	손죽도(여수), 기점소악도(신안)
2018	여서도(완도), 대마도(진도)
2019	탄도(무안), 우이도(신안)
2020	안마도(영광), 선도(신안)
2021	금당도(완도), 금호도(진도)
2022	연도(여수), 옥도(신안)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섬발전팀장 이경석, 담당자 백지선**

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지역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개발 대상 섬에 대하여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중 특수상황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성장촉진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1차(1988~1997) 1,985건, 1,751억 원, 2차(1998~2007) 2,677건, 6,265억 원, 3차(2008~2017) 846건, 9,355억 원을 투입하여 연륙·연도교, 선착장, 도로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도서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했다. 2018년부터 시행한 4차 계획(2018~2027)에서는 7,262억 원(680건)을 투입할 예정이다.



【 진도 나배도(연도교) 】



【 영광 송이도(해안도로) 】

전남도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주민들이 섬으로 돌아오고, 살고 싶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섬 지역이 미래성장 동력의 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억 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7,262	774	818	788	787	766	707	683	655	664	620
국 비	6,820	728	771	745	743	722	664	638	611	620	578
지방비	442	46	47	43	44	44	43	45	44	44	42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섬발전팀장 이경석, 담당자 한성문

2-2.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 조성

가. '어촌뉴딜300' 사업 실시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어항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 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4년간 '어촌뉴딜300' 사업에 전남도 15개 시·군 9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선착장과 대합실 등이 노후되어 개선이 시급한 기항지도 26개소 선정되었다. 계획된 사업비는 국비 6,521억 원을 포함하여 총 9,315억 원으로 2021년까지 7,638억 원이 투입되었다.

【 어촌뉴딜300 사업현황 】

(단위 : 개, 억 원)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어촌뉴딜	98	26	37	19	16
기 항 지	26	1	7	8	10
사 업 비	9,315	2,322	3,627	1,689	1,677

* 어촌뉴딜 300개소 중 98개소(33%), 기항지 54개소 중 26개소(48%)

지난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신안 만재항이 '어촌뉴딜 300' 사업을 준공했다. 그동안 여객선 접안시설과 선착장이 없어 주민들과 방문객이 바로 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작은 배로 옮겨 타던 불편함과 위험을 해소시켰다. 또한 목포에서 5시간 40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2시간 10분으로 단축되어 일일생활권이 확보되었다. 만재도가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섬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전남도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하여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목표로 낙후된 선착장 개선, 방파제 신축 및 개축, 여객터미널 마련 등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섬어촌개발팀장 형남준, 담당자 김록청

나. 지방어항 건설

전남도는 1994년부터 '지방어항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 연안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국가어항 34개항,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방어항 93개항,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92개항, 비법정 어항인 소규모 항·포구 883개항 등 1,102개의 항·포구가 분포되어 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방어항 93개항에 대하여 자연재해에 강하고, 수산·물류·관광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2021년까지 지방어항 74개항에 대하여 3,717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어업활동 및 수산물 유통기지이자 어촌 정주환경의 핵심 기반인 어항은 어촌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써 어선세력의 변화, 어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개발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률은 63%로 낮은 상황이다.

전남도에서는 기존 어항의 조기 준공을 위해 재원 확보·투자에 노력하고, 어항을 중심으로 어장, 어촌, 해양관광을 연계한 사업과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어항이 어촌의 정주 생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섬어촌개발팀장 형남준, 담당자 나명수

다.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요즘 사회 트렌드에 따라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전국 118개소, 전남 28개소)의 원활한 운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문 상시인력인 사무장을 매년 공모로 채용하고 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은 체험객 응대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부터 홍보·마케팅, 사무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관광객들에게 쉼과 먹거리, 놀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 다양한 체험, 생태학습 등 어촌체험마을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어촌체험마을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량있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양성하고자 매년 2기에 걸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양성 과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어촌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섬어촌개발팀장 형남준, 담당자 유재영

2-3. 해양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활성화

가. 해양관광·레저·휴양 인프라 조성

1)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조성

전남도는 남해의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거점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Infinity)풀, 스킨스쿠버 시설, 바다갤러리, 해양복합센터 등이 결합된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30억 원을 투자하여 보성군 회천면 일원(율포솔밭 해수욕장) 78,890㎡(부지면적)에 걸쳐 레저·액티비티 시설(해양복합센터), 경관·조망시설, 휴식·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정식 개관하여 다양한 체험시설과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양레저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남해안 권역 체류형 관광지 개발 및 명소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해양레저팀장 임진출, 담당자 김형구

2)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전남도는 해양치유산업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한 완도군에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20억 원을 투자하여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해수욕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7,740㎡로 건립 중인 치유센터에는 테라피실 등 해양치유공간과 해조 치유실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준공 전까지 해양치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2023년 3개월간 시범운영 후 정식 개관으로 전 국민에게 해양자원을 이용한 치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해양레저팀장 임진출, 담당자 전효선

나.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

1)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마리나) 조성

아름다운 해안선과 해상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도는 미래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해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한 23개항을 마리나 항으로 개발하여 요트마린 실크로드(요트길)를 조성하고 있다.

요트마린 실크로드는 4개 로드(아일랜드로드, 장보고로드, 엑스포로드, 영산강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46㎞에 이른다. 아일랜드로드는 목포·영광·신안 권역으로 242㎞, 장보고로드는 완도·해남·진도·장흥·보성 권역으로 283㎞, 엑스포로드는 여수·고흥·광양 권역으로 233㎞, 영산강로드는 영암·나주 권역으로 88㎞이다.

지금까지 목포 57선석, 여수(소호) 50선석, 여수(이순신) 150선석, 보성(비봉) 34선석 등 4개 마리나 291선석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수 웅천에 300선석 규모의 거점형 마리나 항을 78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개발 추진 중이다.

또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11개소(목포, 여수 소호·웅천·엑스포, 광양, 남열, 해남 화원, 완도, 진도, 영광 향화도, 영암호)의 마리나항만 개발을 준비 중에 있다.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남도의 6,873㎞에 이르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2,165개의 아름다운 섬을 만끽할 수 있는 요트 길을 조성하여 요트관광 대중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해양레저팀장 임진출, 담당자 전효선

2)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지원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 신항 일대에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 동안 해양과 연안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했다.

104개국과 10개 국제기구, 820만 3,956명이 참여한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했고,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다.

박람회 종료 후 부지시설과 건물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복합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여수선언실천위원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사후활용 연계사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총 1,132억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치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박람회재단 100%, 투자기업 50%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다.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경관개선을 위해 2019년 3억 원, 2020년 5천만 원, 2022년 3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및 관람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전남도와 여수시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유치 적극 협력의 결실로 180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해양교육원을 건립 및 2021년 9월에 개관하였고,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하여 2023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은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해양수산부, 전남도와 여수시가 함께 7월에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박람회 정신 계승사업을 발굴하는 등 박람회장 시설연계 및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개발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해양레저팀장 임진출, 담당자 전효선**

다. 해양레저분야 활성화 및 저변 확대

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

전남도는 경남도, 부산시와 함께 남해안 광역해양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여 남해안권 국제관광 거점 조성 및 요트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전남 여수~경남 통영~부산시를 잇는 남해안 요트관광 코스를 조성하여, 2020년부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대회로 2020년에는 총 9개국, 429명이 참가하였고, 2021년에는 11개국 350명이 참가하여 인쇼어레이스 등을 펼쳤으며, 2022년에는 7월에 개최 예정이다.

앞으로도 3개 시·도의 남해안 상생발전 협력을 통해 남해안컵 국제 요트대회를 요트 문화 대중화 및 요트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최대 요트대회로 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전 세계 요트인을 대상으로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홍보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해양레저팀장 임진출, 담당자 전효선

2) 해수욕장 운영

빼어난 해안과 바다 풍광이 아름다운 전남 해수욕장은 여름 휴가철이면 100만 명 이상의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전남도는 차별화된 비교우위 자연환경을 적극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 최적의 휴식과 손색없는 힐링 장소를 제공해 왔다.

* ('18.) 99만 명 → ('19.) 120만 명 → ('20.) 92만 명 → ('21.) 65만 명

해수욕장 이용객이 안전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샤워장, 화장실 등 각종 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한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를 시범 시행하여 피서객의 밀집도 완화 및 관광객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시·군, 소방,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 마을운영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전예약제 】



【 구명조끼 착용 홍보】

2020년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부문 '우수 해수욕장'으로 해남 송호와 완도 신지명사십리가 선정되어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설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해수욕장 사전예약제」의 2년 연속 안정적 운영으로 코로나19 감염(확진) 및 전파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48개 개장 해수욕장의 모든 이용객 발열체크, 손목밴드 부착, 안심콜 운영, 철저한 거리두기 및 다중이용시설 수시 소독 등 방역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였다.

또한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민·관 합동 119수상구조대 운영과 안전요원 채용 및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전남 해수욕장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진부서 ●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해양레저팀장 임진출, 담당자 김형구**

3) 전국단위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개최 및 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최근 국민 소득향상 및 경제적 여건 개선으로 여가 시간이 증가하여 레저활동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레저스포츠

수요 및 레저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규 레저인구 유입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에서는 천혜의 해양 여건을 활용한 다양한 종목의 대회 개최 및 체험 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17.) 580만 명 → ('23.) 1,000만 명 예상 ※ 출처 : 한국통계진흥원

2018년에는 전국단위 대회로 국제파워보트, 바다핀수영, 레저뻘배, 비치발리볼, 윈드서핑 등 6개 대회를 개최하고 요트, 스킨스쿠버, 카약 등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40,586명이 참여하는 등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했다.

2019년에도 서핑, 비치사커, 레저뻘배, 비치발리볼 등 7개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17,552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 요트대회 】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또한, 일반인 대상 카누, 카약, 요트, 윈드서핑, 보트조종 등 7개 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36,000명에게 해양 레저스포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다양한 레저스포츠 대회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두 개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레저문화의 접근성 향상과 신규 레저인구 유입을 위해 7개 체험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운영한 결과 23,306명이 사회적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해양레저팀장 임진출, 담당자 김형구

2-4.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전남도는 유네스코로부터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 물새 등 서식지, 문화다양성, 지역민의 보전의지까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남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면적은 1,160.71㎢이며, 신안갯벌 1,100.86㎢(85.7%), 보성벌교갯벌 31.85㎢(2.5%), 순천만갯벌 28㎢(2.2%) 등 전체 면적 1,284.11㎢ 중 90.4%를 차지하고 있다.

신안갯벌은 높은 해조류(144종), 대형저서동물(568종), 멸종위기 무척추동물(2종), 고유종(35종) 등 갯벌 생물의 주요 서식처이다. 물새류(86종)의 중요서식지이자, 무수한 무인도서는 저어새를 포함한 물새의 보금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보성·순천 갯벌은 넓은 원형갈대군락과 염습지에 염생식물(24종), 멸종위기 무척추동물(5종), 고유종(19종)의 갯벌 생물의 주요 서식처이다. 또한 물새류(120종)을 비롯한 국내 가장 많은 흑두루미의 중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세계유산 3개 시·군 외에도 12개 시·군에 걸쳐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우수한 갯벌(무안, 영광, 고흥, 해남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담부서를 신설(2022.1.17.)하여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연안개발 등으로부터 전남 갯벌의 생태계 가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갯벌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기반조성, 갯벌 우수성 홍보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

【 전남 갯벌 등재 현황 】

(단위 : 면적 ㎢)

지정명칭	위 치	세계유산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도립공원
계	3개소	1160.71	66.8	1162.78	185.331
신안갯벌 (증도,비금·도초 포함)	신안군 일원	1100.86 (2021. 7. 26.)	31.3 (2011. 9. 1.)	1100.86 (2018. 9. 3.)	162.263 (2008. 6. 5.)
보성 벌교갯벌	보성 벌교읍 일원	31.85 (2021. 7. 26.)	7.5 (2006. 1. 20.)	33.92 (2020. 12. 31.)	23.068 (2016. 1. 28.)
순천만갯벌	순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일대	28 (2021. 7. 26.)	28 (2006. 1. 20.)	28 (2003. 12. 31.)	-

추진부서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 최석남 갯벌보전관리추진팀장 한미영 담당자 신 선

나. 갯벌 생태계 복원

전남도는 간척·매립 등으로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고 염생식물과 잘피 군락지 조성 등 갯벌 식생을 조성한다. 갯벌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인근 폐염전 부지를 매입하여 훼손된 갯벌을 재생·복원하고, 화포해역에는 수십 년간 쌓인 굴 초(礁)를 제거하여 갯벌의 개활 면적을 확대하는 기능개선형 갯벌복원(3.5㎢)을 추진하였다. 신안군 추포해역은 암태~추포를 잇는 폐노둣길(L=1,060m, B=7.2m)을 철거하여 해수 소통형 복원을 추진하는 등 갯벌 생태계 복원을 선도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한 갯벌 식생 복원 사업에 '신안군 북부권역

갯벌식생 복원사업'을 유치('21.12.)하여 국비 105억 원을 확보하였다. 칠면초, 해홍나물, 퉁퉁마디 등의 염생식물과 잘피 군락지를 조성하여 탄소흡수원(blue carborn)을 확충하고 있다. 신안 지도와 증도 지역에는 갯벌 생태계서비스 가치 실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갯벌 생태계(식생) 복원사업은 갯벌을 보전·관리하여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갯벌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해양생물에게 적합한 산란서식지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갯벌은 1㎢당 연간 약 69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해양수산부 연안습지 기초조사).

【 갯벌복원 추진 실적(계획) 】

(단위 : 백만 원)

사업지구	복원유형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계	4개 사업	35,700		
순천 장산 ('16~'18)	갯벌재생형	6,700	폐염전부지 갯벌 재생	
순천 화포 ('21~'23)	기능개선형	7,000	굴 초 군락 제거 및 갯벌 기능 개선 3.5㎢	
신안 추포 ('21~'23)	해수소통형	7,000	폐노둣길 철거 L=1,060m	
신안 북부 ('22~'25)	식생복원	15,000	염생식물·잘피 복원 10.4㎢ 탐방시설설치 L=4km 어부림 조성 L=3km	

추진부서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 최석남 갯벌보전관리추진팀장 한미영 담당자 곽 건

2-5. 해양수산 생태체험 및 청소년 교육 활성화

가. 해양수산과학관 내실화

국민들에게 해양수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는 수산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산 교육장의 역할 수행을 위해 1998년도에 개관하였고, 해양수산에 대한 볼거리가 가득한 전시 관람 시설로 특히, 어린이와 학생을 비롯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표적인 전시시설이다.

대형 원통형 수조(40톤)를 리모델링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살아 있는 물고기를 전시하고,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연구·생산하는 양식어종을 기획 전시하고 있으며 전남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 중심으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9개 수조에서 붉바리, 동갈돗돔, 강담돔, 범돔 등 다양한 해수 관상어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도어(道魚)인 참돔을 비롯 돌돔, 벵에돔, 명태, 연어 등 토산어종을 포함하여 16백여 마리를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3D 영상관」에서는 실제 바닷속 풍경을 주제로 한 입체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 전시시설물 콘텐츠 강화를 위해 체험 수족관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그동안 체험 수족관은 다양한 수산생물을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수조와 갯벌 수조 등으로 구성되어 유치원 및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교육·학습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시설 전반의 노후와 전시환경에 대한 관람객의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람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추어 2022년 7월 중에는 관람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 관람객 유치 현황 】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계	1998~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관람객	9,398	8,168	594	273	278	43	42
관람료	4,361	3,779	279	193	85	25	0

앞으로 다양한 과학적 요소 및 디지털 체험을 확대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체험과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장 김호진, 전시관리팀장 김영준, 담당자 박충열

나. 섬진강어류생태관 활성화

섬진강의 천(天)·수(水)·지(地)를 테마 주제로 2008년 3월 11일 개관한 담수생물 전시관으로 섬진강 서식 생물과 세계 각 강하천에 서식하는 어류를 포함한 총 90여 종, 19천여 마리의 다채로운 생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연간 8만 명 이상 찾는 지역 관광명소이다.

【 관람객 유치 현황 】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관람객	574	85	91	90	86	80	116	26	-
관람료	450	48	45	59	85	24	144	45	-

* 2020. 8월 경 섬진강 수해 피해로 인한 복구공사로 임시휴관

2009년에는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시설과 2010년 전라남도 전문과학관으로 등록하여 국내 최대 담수생물 전시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섬진강 연어자원 조성, 황어·다슬기 등 토산어종의 자원회복 등도 더불어 추진하고 있다.

생태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문 해설사를 운영하고, 2016~2018년까지 총 30억 원(국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현대적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전시물 구축, 생태문화 공간 재구성, 생동감 넘치는 전시 스토리로 구성하였고 시설물을 보강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소년부터 어른들까지 생태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앞으로 타 전시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흥미와 감동이 살아있는 새로운 전시 소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체험교육 시설을 확충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장 유병동, 팀장 정요한, 담당자 기세운

3.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확충

3-1. 수산물 생산 규모

가. 수산물 생산량·생산액

전남도는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 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산물 연간 생산량이 2021년 기준 199만 톤으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 생산액은 3조 1,002억 원으로 전국의 39%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전국 수산물 생산 일번지로써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과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 수산물 생산량, 생산액 】

(단위 : 천 톤, 억, %)

구 분	생산량	전국 대비	'20년 대비		생산액	전국 대비	'20년 대비	
			증감	비율			증감	비율
계	1,988	58.8	111	5.9	31,002	39.0	2,104	7.3
양 식 어 업	1,811	75.6	111	6.5	19,359	58.8	2,388	14.1
어 선 어 업	163	17.3	△6	△3.3	9,322	22.5	△754	△7.5
내 수 면 어 업	14	32.3	6	68.1	2,321	44.6	471	25.5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정책팀장 전창우, 담당자 신소정

3-2. 미래형 양식산업 선도 기반 구축

가. 첨단 스마트양식 고도화

전남도는 수산양식 산업의 종적·양적 성장, 사후대응 방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량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양식어업을 미래 식량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양식 생산력 증대, 기술보급, 양식단지 조성, 자동화·기계화 등 양식산업의 육성·발전 내용을 포함한 '전남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기후변화, 어촌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양식산업을 기술집약적 구조로 재편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2020년부터 4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u-IT융합 자동화 시스템도 (2개소, 4억 원) 도입하고 있다.



【 Aquaculture 1.0에서 Aquaculture 4.0까지의 변천사 】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양식산업팀장 정정민, 담당자 이준

나. 친환경 양식어업 기반 확충

전남도는 해양미세플라스틱, 양식 부산물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응해 각종 수산 시책을 추진 중이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73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과 유기수산물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식부산물 친환경 처리기반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와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역, 다시마 채취과정에서 발생되는 해조류 부산물을 그대로 바다에 폐기할 경우 낭장망, 자망 등에 걸려 다른 어업과 분쟁을 발생시키고, 주변 어장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어 2010년부터 수거 및 재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투입예산은 60억 원, 수거량은 34,876톤에 이른다.

또한, 기존 김활성처리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10억 원을 들여 친환경 김활성처리제 신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복 초기 배합사료의 국산화와 수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4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용 중에 쉽게 파손되어 어장을 오염시키는 스티로폼 부표 대신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이 현저히 적은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스티로폼 부표 대비 고가인 친환경 부표 구입가 70%를 보조해, 양식어가의 부담을 낮춰 친환경 부표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2022년 전남 양식어장에 설치할 부표는 5,440만 개로 추정되며, 이 중 친환경 부표가 1,562만 개 가량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일정 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021.11.12.)해, 양식업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여 친환경 부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전남도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친환경 부표 공급을 위해 1,222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친환경 부표 보급 시 회수되는 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위해 15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내 양식어장의 친환경 부표 사용 100%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확보와 시·군, 수협, 어촌계, 수산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어업인의 참여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친환경 부표 지원실적 】

(단위 : 만 개, 억 원)

구 분	계	2015~2018	2019	2020	2021	2022
보급개수	1,562	319	56	346	255	586
지원금액	1,222	195	52	112	277	586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양식산업팀장 정정민, 담당자 이 준**

다. 양식어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

전남도는 FTA체결에 따른 양식수산물 수입에 대응하고 어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2016년부터 양식시설 및 양식생물 채취·관리 자동화 장비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어촌인구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매년 어업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인력 수급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식어장 자동화 관리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채취기, 선별기, 고압세척기, 사료공급기 등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도입은 양식어업을 노동 집약적 사업에서 기술 집약적 사업으로 도약하게 함으로써 경영비 절감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보급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까지 총 213대를 보급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조류종자이식기 208대, 고압세척기 188대, 물김채취기 164대, 사료공급기 80대 등 총 929대(72억원)를 보급했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고령화와 열악한 근로 여건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고압세척기 】





【 꼬막선별기 】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양식산업팀장 정정민, 담당자 윤보은

라. 수산분야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양식어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해수열 히트펌프, 인버터,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양식어가에 보급되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시설 중 해수열 히트펌프는 유류 대비 난방비가 60% 절감되고, 인버터는 수압에 따라 모터 회전수를 조절해 전기료가 15% 절감되어 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비용을 낮출 수 있어 어업인들의 수요가 많다.

양식어가에 공급되는 에너지 절감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농어촌공사에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1,010억 원을 지원해 536어가에 1,026대를 보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는 주요 양식품종인 넙치, 전복 등 육상 양식장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해 난방비, 전기료 등 고정비용을 낮추어 소득을 높일 수 있게 경영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친환경 에너지 보급실적 】

(단위 : 대, 억 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보급어가	536	62	87	146	121	120
보급현황	1,026	147	166	245	236	232
지원금액	1,010	142	200	257	222	189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정책팀장 전창우, 담당자 장경준

3-3. 고소득 양식수산물 전략품종 육성

가. 미래 유망품종 생산기반 확충

전남의 굴 양식면적은 1,842ha로 582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 이는 전국의 18%에 해당한다. 이 중 개체굴은 150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량을 중국, 대만 홍콩에 수출한다.

기존 연승수하식 덩이굴보다 5~10배 높은 가격을 받아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체굴은 외국에서 인기가 높고, 국내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및 호텔 등에 고가에 납품하고 있으며, 매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양식과정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량도 현저히 줄어들어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효과도 뛰어나 탄소중립 실천도 가능하다.

전남도는 개체굴을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고흥군과 신안군을 중심으로 개체굴 시범양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개체굴 양식기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개체굴 양식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개체굴은 양식 초기 시설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2025년까지 1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개소의 개체굴 양식장 시설을 지원해 500ha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전업어가, 귀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개체굴 종자배양, 양식 생산방법 등 양식기술 교육을 병행하고, 패류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체굴의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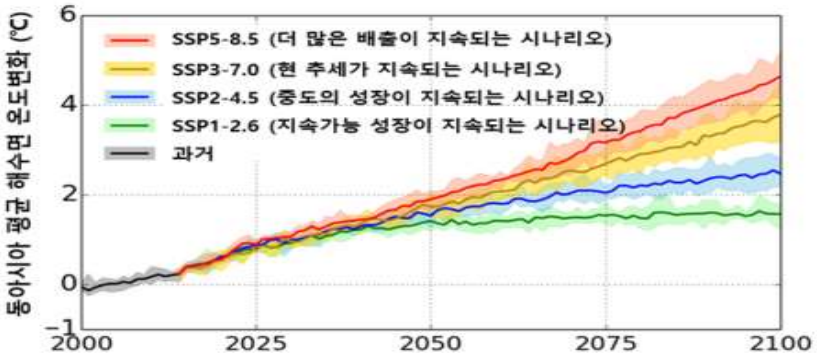



【 전남 신안군 개체굴 유통 】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양식산업팀장 정정민, 담당자 윤보은

나. 기후변화 대응 해조류 안정생산 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과 2000년대부터 급속히 늘어난 김, 전복 등 주요 양식어장의 장기 사용으로 어장환경 악화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출처 :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

【 현재(1995~2014년) 대비 2000~2100년의 연도별 동아시아 평균 해수면 온도 변화(℃) 】

이에 전남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을 통해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 패류(전복, 굴 등) 등 82,428ha 도내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조사측량과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생산력이 저하된 1,591ha 양식장을 이설하여 품종별 양식 여건에 맞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가두리 교체(15억 원),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5개소, 37억 원) 지원과 함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 활성처리제도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장관리와 각종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어장환경 개선 및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 연안어장 재배치 실적 】

(단위 : ha, 억 원)

구 분	계	2011~2018	2019	2020	2021	2022
조사측량	82,428	56,998	12,070	5,491	2,469	5,400
지원금액	122	52	20	20	20	10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정책팀장 전창우, 담당자 장경준
양식산업팀장 정정민, 담당자 이준

다. 전복 양식어장 관리

전복 가두리 시설량은 2003년 15만 칸에서 2010년 49만 칸, 2020년 110만 칸으로 지난 17년간 7.3배 증가했고, 전복 생산량은 2003년 1,138톤에서 2010년 6,436톤, 2020년에는 19,734톤을 생산하여 지난 17년간 17.3배 증가했다.

이처럼 급속도로 성장하는 전복산업은 양식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러한 전복 생산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수한 종자 생산과 고품질 배합사료 공급에 있다.

중국산 수입 전복종자 배합사료 공급으로 인한 대량폐사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복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활용한 전복종자 전용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21~'23)을 건립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방류로 인한 친환경 양식수산물의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외 경쟁력 확보와 수출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국제인증(ASC) 지원과 더불어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활성화 하고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유기·무항생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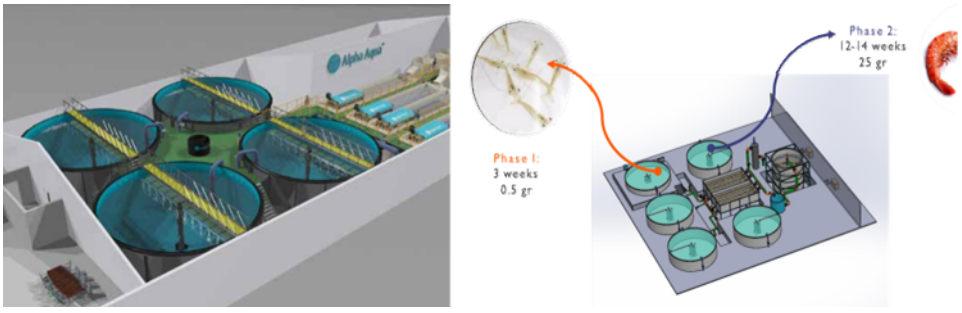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정책팀장 전창우, 담당자 장경준

라. 고부가가치 새우 양식산업 육성

국내 연간 새우 소비량은 약 9만톤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약 72%인 6.5만 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남은 국내 최대 새우 생산지이지만 국내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흰다리 새우의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여 새우의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여름철 고수온기 대량폐사 예방 및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효모, 유산균, 고초균 등)을 공급(16만ℓ, 8억 원)하고 있으며,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새우 중간육성 시설을 지원(10개소, 9억 원)하여 분업화 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속 발전 가능한 친환경 새우 양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왕새우 배합사료 공장을 건립(1개소, 50억 원 / '23. 국비 건의)하고, 집단폐사 저감을 위한 순환여과식 기반도 구축(스마트 양식클러스터, 400억 원) 할 계획이다.



【 RAS기반 흰다리새우 양식 순환여과시스템 】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양식산업팀장 정정민, 담당자 이준

마. 첨단기술 도입 내수면업 활성화

전남도는 내수면 양식에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을 접목한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화순군 능주면 일원 19,859㎡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기계화·자동화 시설을 구축하는 집단화된 첨단 내수면 스마트양식단지를 조성 중이다.

AI를 기반으로 조성된 양식장은 자율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동력이 절감되며 각종 재해에 능동적인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생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가공·유통·체험 시설과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6차 산업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자원조성팀장 곽은주 담당자 최재영

3-4. 체계적 수산자원관리로 어업생산성 회복

가.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전남도는 체계적 수산자원관리로 해양생태계 보존 및 어업생산성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해역의 특징과 서식 생물을 고려하여 해역에 적합한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있다. 1971년부터 2050년까지 80년간 2,905억 원(93,819ha)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2,310억 원을 투자하여 16개·군 844개소 46,346ha를 조성하였다.

2021년부터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참문어(여수), 낙지(무안, 함평), 참조기(신안), 쥐노래미(신안) 등 지역 특화 품종에 대한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에 나섰다.

또한 수출 유망품종이며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의 체계적인 자원관리 및 증대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3개의 해역을 선정하여 해삼의 서식 기반을 조성하였고, 건강한 해삼 11백만 마리를 방류하였다.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감성돔, 능성어, 전복 등 우수한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4억 원, 22백만마리를 방류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을 관리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자원조성팀장 곽은주 담당자 최재영

나. 효율적인 어획관리로 연근해어업 생산량 회복

연근해 어업자원이 어선세력 증대로 인하여 척당 단위 생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에 맞춰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고 있다.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감척사업은 선령이 오래되거나 규모와 어획강도가 크고, 어업분쟁이 많은 업종 등에 대해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및 해체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 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감척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어획강도가 큰 연안자망, 연안통발 등 연안어선 186척과 낭장망 등 정치성 어구 162건, 근해어선 8척 등 총 375척에 대해 27,62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근해 어선 감척을 추진했다.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실적(2018~2021) 】

(단위 : 척,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018~2019		2020		202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356	27,622	294	15,089	46	5,238	16	7,301
연안어선	348	18,754	294	15,089	43	2,694	11	977
근해어선	8	8,868	-	-	3	2,544	5	6,324

2023년부터는『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2.7.12)되어 정치망 어업까지 감척사업에 포함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종별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어선어업팀장 정 주, 담당자 황선영**

다. 어업질서 확립으로 수산자원 보전

수산자원 보전과 청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며 어업인의 풍요로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수산자원은 오래전부터 무주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선점논리에 의해 남획되고 있고 생계유지 측면과 불법어업이 갖는 경제적 이익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탄 기업형 싹쓸이 연·근해어선어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김 등 해조류 양식이 고소득 품종으로 각광 받으면서 불법 무면허 양식어업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불법어업 단속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3월에는 수산분야 3대 질서(어장·어로·유통)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어업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실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22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처분 하였다. 또한 지도·단속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2021년 3월에는 노후 어업지도선 2척을 대체 건조하여 신규 투입하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 사전 예고제 실시와 어업인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불법어업 사전예방에 중점을 둠으로써 안정적 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어업질서 확립으로 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불법어업 단속실적 】

(단위 : 건)

연도	계	해면							내수면
		소계	통발	삼중자망	자망	양식	새우조망	기타	
계	1,609	1,588	201	56	123	734	37	386	21
2017	326	322	61	37	19	72	10	106	4
2018	305	301	44	7	28	119	13	83	4
2019	398	391	41	8	34	200	12	90	7
2020	422	419	38	4	32	265	1	71	3
2021	158	155	17	0	10	78	1	36	3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어업지도팀장 김형주, 담당자 신규호

라. 어업인 자율참여형 수산자원관리 확산

전남도는 우수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총 297개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수공동체 64개소를 선정하여 120억 원을 지원하였다.

우수공동체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장관리, 자원조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 선정되었으며, 공동작업장, 관리선 구입, 종패 살포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증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촉진을 위해 2017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장 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여수시 등 11개 시군에 41명의 사무장이 채용되어 활동 중이며 공동체의 행정 및 기술지원 등 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창출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실적 】

(단위 : 개소, 억 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우수공동체 지원	94/119.8	14/23	12/22	11/11	27/30	30/33.8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	179/33.6	22/4.4	37/7.3	38/7.3	41/7.3	41/7.3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자원조성팀장 곽은주 담당자 최재영

3-5. 기후 변화 대비 신품종 개발

가. 수산 10대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 연구

FTA, 기후변화 등 대내·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수산업의 능동적 대처 및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어류 분야(능성어, 참조기), 패류·무척추 분야(전복, 꼬막, 해삼), 해조류 분야(김, 톳, 갈조류), 미래전략 분야(뱀장어, 갑오징어)로 수산물 주요 10대 품종을 선정하여 2019~2023년까지 5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 집중 연구, 고품질 품종 개발, 미래 성장 동력 고부가가치 전략 품종에 대해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과를 살펴보면 산업화 기술 지원 품종은 김, 참조기, 꼬막이다. 김의 경우 3품종(해모돌1호, 해풍2호, 햇바디1호)에 대한 품종 출원(1품종) 및 등록(2품종)을 완료하여 김 신품종에 대해 사상체(종자) 분양으로 어가 경영 소득에 이바지하였다. 참조기는 양식기술 고도화 및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종자 생산업체 및 양성 어가에 매년 수정란과 종자를 분양하여 어류양식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자원 남획에 의한 꼬막 자원량 감소에 따라 인공종자 생산으로 꼬막 중간 육성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기술 개발 완료로 해역 실증단계에 있는 품종으로 전복, 능성어, 톳이 있는데 전복은 기후변화 대응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슈퍼왕전복) 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현재 생산 해역별 환경에 적합한 종 선발 및 보급을 위해 현장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능성어 또한 고수온에 강하고 아열대성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연중 생산 가능한 양성 기술 개발과 가두리 월동 실증 실험을 통한 최적 양성 환경을 구명하여 양식기술 매뉴얼을 정립, 어업인에게 보급하고 있다. 톳은 양식에 필요한 종자를 자연 군락지에서 어린 엽체를 채취하여 사용하고 있어 종자 수급이 불안정하고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는 품종이다. 종자구입비와 시설비 등 경영비 절감하고 자연서식지 보존을 위해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단계별 시험 양식을 통한 완전양식 매뉴얼을 확립하여 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기술 개발 진행 품종으로 꼬막(우량 품종 개발), 해삼(양성 단계별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갈조류(고수온에 강한 품종 개발), 갑오징어(갑오징어 양식 가능성 진단 연구), 뱀장어(성성숙 유도로 인공종자 기술 개발) 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기술 개발 진행 및 완료된 품종에 대한 실증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인에게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주요 핵심 품종에 대한

1단계(2019~2023년) 추진이 완료되면 정확한 연구기술 분석으로 2단계(2024~2029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양식 및 어가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10대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 연구 로드맵 】

분 야		2019	2020	2021	2022	2023
어류	능성어	중간양성, 본양성 및 기술이전				기술이전 및 산업화
	참조기	축제식 양식 연구	당년 양식 생산기술 확보		대량생산체계 구축 및 산업화	
패류 무척추	전복	고수온 · 질병에 강한 우량전복 개발			전복 생산 해역별 적합 종 선발 및 보급	
	꼬막	양식장 개선효과 및 종자 발생량 조사		중간양성기술개발 및 지원 우량품종개발 및 인공종자 산업화		
	해삼	우량종자 생산 모니터링 연구 및 무급이 도지양식 실험		조기종자생산 기술 확립	육상 및 가두리 중간육성·양성 연구	
해조류	김	해풍2호 품종등록	해모돌1호 보급 햇바디1호 출원	햇바디1호 재배시험, 해풍2호, 햇바디1호 보급		햇바디1호 품종등록
	톳	톳 인공종자 생산연구		톳 뿌리 육상 배양 및 종자 대량 생산 연구		
	갈조류	우량모조 발굴 및 현장 시험양식 · 5품종(다시마 2, 미역 2, 곰피 1)			품종 보호 출원 및 재배 시험	
미래전략	뱀장어	우량 친어 확보 및 친어 사용기준 연구		안정적 성숙유도 및 대량수정란 생산 기술연구		어미 안정화 기술개발
	갑오징어	초기먹이 탐색, 초기먹이생물 생산 및 양성연구			중간양성 및 양식가능성 진단	

추진부서 ◦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장 이경식, 여수지원장 서명배, 담당자 서원일**

나. 멸종위기 토종참김 복원 및 신품종 개발

김은 해조류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김은 그 우수함을 인정받아 K-Food

대표 품목으로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수출 6억 불을 달성하였고, 이제는 세계인이 즐기는 수산물이 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김 생산량은 1억 5,376만 속(1속 260g)으로 2020년 생산량 대비 2.7% 증가하였고, 또한 올해의 경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양식되고 있는 김 품종은 방사무늬김(일반김), 모무늬돌김(돌김), 잇바디돌김(곱창돌김) 3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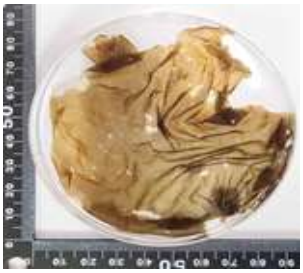
예전에 남해안의 주요 양식품종이었던 참김은 최근 환경적인 요인과 광양만 개발 등으로 자원이 감소하면서 현재는 자연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멸종위기종이 되었다.

참김은 부드러운 촉감과 맛, 고유의 향미가 뛰어나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많이 양식되어온 종이다. 그러나 참김과 비슷한 방사무늬김의 뛰어난 환경적응성 및 번식력에 밀려 점차 양식 대상종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멸종 위기의 토종 "참김" 주요 양식지역이었던 여수시, 광양만에서 수년간의 조사를 통해 최초 참김을 찾아내 종자 확보에 성공하고, 양식 대상종으로 복원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발굴한 '토종 참김'은 최대 엽장 60㎝, 엽폭 40㎝ 정도로 형질이 우수하다. 성장은 다소 느리지만, 김의 맛을 결정하는 아미노산 함유량이 많고 맛이 좋아 품질을 우선시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는 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종 참김' 복원화 연구를 통해 양식 가능성과 품질 및 내병성, 수익성 등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 후 김 양식 어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참김 엽체 】


【 종자생산 】


【 시험양식 】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장 김지환, 김연구팀장 이영재

다.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전남도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9%[1]를 차지하는 제일의 수산도(道)지만 고·저수온, 집중호우 등에 따른 양식생물 폐사 및 질병 확산, 유해생물(적조, 해파리)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9년부터 해역별 어장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수집한 해황자료와 타 기관의 기상 및 조석예보 자료 등을 연계하여 어업인에게 스마트폰 앱「전남바다알리미」를 개발 구축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시·군별 어장관측장비 설치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계	남부해역	동부해역	서부해역
계	106	32	42	32
시·군명(정점수)		완도(17), 해남(13) 강진(2)	여수(19), 고흥(16), 장흥(4), 보성(3)	목포(1), 무안(3) 신안(16), 함평(1) 영광(2), 진도(9)

1) 전남 1,987천톤 / 전국 3,381천톤(2021. 12월)



【 어장관측장비 】



【전남바다알리미(앱)】



【설치정점 】

추진부서 ○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장 양석우, 연구기획팀장 김민영, 담당자 신종표**

구축·운영하고 있는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은 총 40억 원, 2018~2022년까지 5년 사업이다. 2018년~2019년까지 관리시스템 및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였고, 2022년까지 13개 시·군 해면 양식장에 총 106개소의 어장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해황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장기간 수집·축적된 실시간 해황 자료를 빅데이터화 하고, 양식전문가의 관측 분석을 통해 양식 품종별 먹이 급이, 출하, 채묘 등에 대한 최적의 양식 행동 요령 제공 등 대어업인 서비스 강화로 안정적인 양식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어패류 양식 기술개발

유용미생물[2]은 현재 농업, 축산업, 의료,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수산양식 분야에서는 아직 일반화 되어 있지 않다.

수산 양식 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어패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양식 어패류의 먹이로 천연물질 및 미생물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2)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는 미생물 균으로 광합성세균, 효모균, 유산균, 방선균, 사상균 등 말함

그러나, 수산 양식 분야에서는 미생물의 활용·이용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 수행이 저조한 반면 초기 먹이 생물의 배양 등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어패류 양식을 위한 환경 개선, 사료의 질적 개선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건립하여 대량 배양 연구 중이며, 추후 양식 어가에 보급함으로써 친환경적 양식 어패류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어패류의 사료효율 및 수질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사료첨가제로 이용성을 검토하여 양식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서대철, 전복팀장 김춘철, 담당자 남혜리

마. 미이용 해조류 전복사료 현장적응 실험

미이용 해조류(괭생이모자반, 파래, 미역귀용 엽체 등)는 완도, 진도, 신안 뿐 아니라 제주도까지 유입되어 연안생태계를 파괴하며 해안에 퇴적되어 부패되는 과정에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해안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어선의 조업과 선박 항해에 지장을 주며 해조류 양식장의 시설물 파손이 심각하여 양식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괭생이모자반 수거량 】

(단위 : 천톤)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거량	27.5	0.3	3.9	1	6.3	16

※ 어업피해(단위 : 백만원) : (2015)356 → (2021)1,969

어린전복의 먹이는 천연규조류 및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배합한 전복용 배합사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불안정한 공급과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배합사료의 단가를 상승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전복양식 어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중 12천 톤 정도 소비되는 어린전복의 배합사료에 미역과 다시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연중 공급이 가능하며, 면역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해조류 사료 원료 개발이 절실하다.

앞으로 양식업·어촌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서대철, 해조류팀장 임종악, 담당자 임종악

3-6. 우량 종 보존 및 종자생산 방류로 자원 조성

가.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어선업의 현대화, 남획과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남 연근해 생산량은 1990년에 29만 7천 톤에서 2020년 18만 톤으로 약 39%(11만 7천 톤)이 감소하였다. 미래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근해 수산 자원량 증강과 도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품종인 대하, 보리새우, 갑오징어, 주꾸미, 낙지, 참문어 방류를 추진하고 자원조성 품종을 확대하고자 민어, 박대, 병어의 어미확보 및 종자생산기술 연구개발과 낙지 목장화 사업을 통해 자원량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갑각류(대하, 보리새우) 25,400만 마리를 도내 11개 시·군 해역에 방류하였으며, 두족류(갑오징어, 주꾸미, 낙지, 참문어)는 260만 마리를 도내 6개 해역에 방류했다. 낙지는 갯벌어장에 조위망을 설치, 어미낙지 교접 방사 관리를 통하여 자원량을 조사한 결과 1.1~2.7배 증가하였다.


【 보리새우 종자 방류 】


【 민어 종자생산 】


【 낙지목장 】

앞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을 위해 방류 품종의 다변화와 방류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장 김종기, 갯벌연구팀장 송지훈, 담당자 정병길, 최준범

나. 이매패류 인공종자생산 연구개발

이매패류는 수중 식물성 플랑크톤을 여과섭식 하는 조개류로 새조개, 굴, 홍합, 꼬막, 가리비 등이 해당하며 펄과 모래에 잠입하거나 암반과 같은 기질에 부착하여 생활한다.

예로부터 연안역에 대량 서식하여 국민 식생활의 주요 영양 공급원이었으며, 국내 소비와 수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전남도 어업인 소득원으로 중요한 품목이다. 2021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남 패류 생산량은 51만 톤으로 전국의 23% 수준이며 생산액은 8,251억 원으로 전국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패류 양식산업은 낮은 이동성과 개방된 서식환경으로 연안 간척과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자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자연채묘 기술이 개발된 굴, 지중해담치, 새꼬막 등 일부 품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연산 생산력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17년 전문 연구시설을 건립하여 먹이원인 부유성 미세조류의 대량배양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조개·우럭조개·가리맛조개·코끼리조개 등을 선도 품종으로 선정하여 인공종자 양식기술 개발과 종자 방류를 통한 연안 자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새조개, 우럭조개 등 7종의 종자 생산 기술을 확보하였고, 새조개 유생 1억 마리(0.2㎜), 우럭조개와 가리맛조개 종자 60만 마리(4~10㎜)를 전남 연안에 방류하여 자원조성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이매패류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유성 미세조류 11종을 확보하여 어업인에게 무상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이매패류 자원관리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종자 양식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지속적인 종자 방류를 통한 자원조성을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원 보존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미래수산연구소장 이경우, 미래수산팀장 박충국, 담당자 이동근

다.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 확대 및 자원조성

내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남획, 환경오염, 외래어종 유입 등으로 지역 토산어종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내수면 어업인구도 줄고 있어 내수면 생태계 복원, 어업인 보호 등을 위해 내수면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내수면 토산어종의 우량종자 대량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02~2021년까지 도내 주요 강, 하천 등에 뱀장어, 붕어 등 토산어종 10종, 2,762만 마리(54억 원)를 방류해 오고 있다.

또한, 자체 생산한 붕어, 잉어는 1987~2021년까지 283만 마리를 유상 분양하고, 무상으로 주요 강, 댐에 516만 마리를 방류했다. 또한, 빙어, 은어 수정란은 나주시 등 12개 시군 댐·호, 저수지에 157,325만 개를 방류하여 자원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매입방류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민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품종을 선정하여 161만 마리 이상을 방류하고, 자체 생산한 붕어, 잉어 등 10만 마리 이상, 빙어, 은어 수정란 5,000만 개 이상을 방류할 계획이다.

앞으로 내수면 토산어종 우량종자생산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모색하고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지속적인 양식어가 기술보급과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방류량을 확대 하겠다.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장 주용석, 민물고기팀장 김영훈, 담당자 조동옥

라. 수산종자(해조류, 전복) 종 보존

전라남도는 2021년 기준 국내 생산량의 약 95%인 1,621천 톤의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김류 76%, 다시마 98%, 미역 96%가 주 생산품종이다.

전복 양식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완도를 중심으로 전남에서 97% 이상 생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패류 양식 산업이며, 양식 생산량은 2003년 1,300톤에서 2021년 23,000톤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생산량 증가가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한정된 해역 내에서 시설 확장에 따른 양식장 환경 악화로 해조류 종자는 양식초기 폐사가 발생하고, 전복도 밀식, 기후변화 등으로 대량 폐사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해역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국내 순종 보존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이후부터 어업인의 성장 중심적 생산을 위해 중국에서 아열대산 김(하이타넨시스)을 불법으로 유입시켜 맛과 향이 뛰어난 국내 고유품종인 잇바디돌김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중국산과 국내산 전복을 교잡하여 무분별한 종자생산을 통한 양성으로 국내 해양환경에 적응이 어려워 폐사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폐사 우려로 단기간 양성한 중소형 전복의 집중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많다. 또한, 교잡종자 대량생산과 판매, 방류 등으로 국내 순종 전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해역에 적합한 품종 개발 및 어업인 보급과 국내 순종 어미 확보를 통한 정자 동결보존 등 전복 및 해조류 양식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서대철 해조류, 전복팀장 임종악, 김순철 담당자 박용빈, 오준영

4. 어업경영 안정 지원 및 인재양성

4-1. 어가 경영안정 지원

가. 어업경영 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

최근 어촌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며 어촌소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2021년 3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된 다른 사업들과 달리 2012년도부터 시행 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육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도서만을 지원했으나 매년 조금씩 범위를 확대해 현재 전 도서는 물론 접경지까지 포함하여 2021년에는 8,255개 어가를 대상으로 61억 원을 지원했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실적 】

(단위 : 명, 억 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인 원	9,325	8,849	8,436	8,255
금 액	44	58	59	61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발표로 국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위축에 대응하고, 친환경양식 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양식 실천 어가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첫 도입되어 320어가 대상 61억 원을 지원했고 어업인 수요가 높아 2022년도에는 465어가를 대상으로 10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 첫 도입되어 연근해 어업인 40어가에 8억 원을 지원하였다.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정책팀장 전창우, 담당자 신소정

나. 안전하고 편안한 어업활동 지원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력 절감 및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소형어선이 신속히 대피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어구 손질 등의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선의 친환경 현대화 기계·장비 지원으로 안전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기관 대체 372척, 어선장비 등 및 설비대체 1,807척,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255대, 복합다기능부잔교 시설사업 339대 등 총 784억 4천 6백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사업 내역(2018~2021) 】

(단위 : 척, 대, 백만 원)

사 업 명	합 계		2018~2019		2020		2021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노후기관 및 장비 대체	2,179	18,091	1,009	9,599	613	4,725	557	3,767
소형어선인양기	255	21,877	127	10,911	59	5,066	69	5,900
복합다기능부잔교	339	38,478	141	16,545	90	9,946	108	11,987

어업인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사고와 어선의 각종 해난사고, 태풍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도록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어선원 보험 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어선 재해보험은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의 손상으로 입은 손해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80%를 지원하며, 도내 10톤 미만 어선 12,241척이 가입하였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장애 및 사망 등의 재해 발생 시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77~82%까지 지원하며, 도내 100톤 미만 어선 15,020척이 가입하였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재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만15~87세 맨손어업인, 양식어업근로자, 염전근로자 등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80%까지 지원하며, 20,568명이 가입하였다.

【 어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 실적(2018~2021) 】

(단위 : 척, 명, 백만 원)

사 업 명	합 계		2018~2019		2020		2021	
	가입량	금 액	가입량	금 액	가입량	금 액	가입량	금 액
어 선 재해보험	12,241	5,376	5,803	2,499	3,194	1,399	3,244	1,478
어선원 재해보험	15,020	4,167	6,344	2,023	4,109	1,038	4,567	1,106
어업인 안전보험	20,568	943	9,844	367	5,332	279	5,392	297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어선어업팀장 정 주, 담당자 서민영

다. 양식수산물 자연재해 예방 강화

기후변화로 인해 연안 양식어장에서 고수온, 적조, 해파리 등에 대한 양식수산물 피해가 연례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현황 】

(단위 : 회, 억 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횟 수	4	7	5	4
금 액	746	331	263	464

전남도는 자연재해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어장정보 시스템을 구축(4개소)하여 예찰·예보를 강화하고 어업인이 스스로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수온, 적조 등 피해가 발생하기 전 산소공급기, 액화산소 발생기 등 대응·방제장비를 구축하고(111억 원),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동 또는 수심 조절이 가능한 양식시설물 교체를 지원(121억 원)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경영 재개를 위한 수산생물 입식비, 시설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2021년부터 해양오염 예방 및 양식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를 공급(6억 원)하고 있다.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입은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함으로써 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넙치, 전복, 굴 등 17종 양식수산물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도입하였고, 전남도는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김, 미역, 뱀장어, 전복종자 등 11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부터 어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돕고 있다.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양식산업팀장 정정민, 담당자 손세진

4-2. 어업 정착 지원

가. 청년어촌정착 지원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수산업을 시작한지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중 만 40세 미만 어업인 매월 80~1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생활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치품 구입은 제한된다.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 300명 이상의 도시 청년들이 전남으로 돌아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갈수록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농어촌에 젊은 일손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창업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며, 사업자들도 대부분 만족하며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전남은 전국 배정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3년에서 5년으로 지원기간 확대와 금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어촌정착 지원 현황 】

(단위 : 명,억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선정자	456	54	88	103	105	106
지원금액	45.6	4.4	8.9	10.2	11.0	11.1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최종천, 수산경영팀장 전영호, 담당자 김형국

나. 어업활동 지원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어업인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상황일 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이며, 전남은 전국 사업량의 83%를 차지한다.

지원 조건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 중인 어업인, 3일 이상 입원 또는 임신 출산부,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업인 등으로 최대 60일까지 지원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자가격리 대상자면 사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1일 지원 금액은 10만 원이며 지원금액 중 어업인 자부담은 2만 원이다.

현재는 사업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점차 사업 신청어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중앙부처에서도 어업인 복지를 위해 사업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어업활동 지원 현황 】

(단위 : 어가,억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어가	355	35	55	70	95	100
지원금액	14.5	2.1	2.8	3.0	3.3	3.3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최종천, 수산경영팀장 전영호, 담당자 김형국

다.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 창업과 주택구입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2021년까지 1,376명에게 2,407억 원을 지원했다.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 】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계	2017 이전	2018	2019	2020	2021
인 원	1,376	597	155	198	199	227
금 액	2,407	857	287	400	412	451

대상자는 어촌 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 거주자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어촌에 이주하거나 사업신청일 이전 어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창업 자금은 세대당 300백만 원, 주택마련 자금은 세대당 75백만 원 한도까지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전남도는 귀어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귀어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활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장 서영준, 어업인교육팀장 고민영, 담당자 고상준

라. 이동수리소 운영

어업용 기자재(어선) 수리가 어려운 도서 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무상 이동수리 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로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 지역으로, 매년 수리업체와 어촌계를 선정하여 약정체결을 맺고, 선외기 등 소형어선에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등의 수리 및 무상점검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회에 10만 원이며, 연 2회까지 무상수리 지원이 가능하다.

전남은 13개 권역에 국·도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160여 개의 어촌계에 평균 2,500여 척의 어선을 무상 수리 지원하며, 어선 부품을 교체해 주고 있다.

앞으로 전문수리 업체의 질 높은 현장 서비스 제공과 함께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사업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동수리소 지원 현황 】

(단위 : 척, 개)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어선수	13,636	3,151	2,749	2,441	2,712	2,583
부품교체	30,401	7,700	6,724	5,293	5,415	5,269

* 전남 어선수(2021년 기준) : 14,400척(전국 대비 45% 차지)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최종천, 수산경영팀장 전영호, 담당자 김형국

4-3. 어업 전문인력 양성

가. 수산경영대학과정 운영

어업 종사자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 수산업을 선도할 수산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2007년부터 지역 대학교의 전문가를 활용한 수산경영 대학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조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수산벤처대학에서는 벤처과정과, 경영자과정을 마련하여 수산경영·마케팅에 대한 전문수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전남대학교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은 어업관리, 수산양식, 기술개발 등 수산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산업 종사자 또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입학동기와 참여의지를 평가하여 매년 15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2021년까지 2,088명의 전문 수산인재를 양성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우수 후계 인력이 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해양정책팀장 장광열, 담당자 정지민

나. 항만물류 인재 양성

전남도는 도내 순천대학교와 광양소재 한국항만물류 고등학교의 항만물류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만물류 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 인재 양성사업은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순천대학교가 협력하여 해운항만물류분야의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력 양성을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 발굴 및 학술·연구 활동의 지원을 확대하고,

광양만권 GSC(Global, Smart, Cross-functional) 해운항만물류 대학원을 특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다. 지원 규모는 매년 국·도비 등 225백만 원이며 2021년에는 국내외 논문 11편 게재, 국내외 학술대회 20건 발표, 사례분석 보고서 19건, 정책연구보고서 9건 등의 실적이 있었다.

항만물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지역 내 항만물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도내 항만물류업계에 취업을 지원하고, 우수인재의 역외유출 방지와 기업의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항만물류 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대비 특강, 현장견학, 인성캠프, 영어캠프, 물류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여 졸업과 동시에 항만물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여수 광양항 등 항만물류 운영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항만물류팀장 최성희, 담당자 조아라

다. 우수 어업인 육성

전남도의 미래 수산인력 육성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수산업 경영인, 수산계 고교생, 여성어업인 등을 육성하고 있다.

수산업 경영인이 국내외 수산 선진지의 신기술 습득을 통해 도내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선진 수산기술이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현장견학을 매년 60명 씩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 수산계 고교 3개소, 350여 명 대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실습장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수산분야의 청년 인력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16,700여 명의 여성 어업인이 어업 경영주체로서 어촌 지역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마련과 전라남도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을 운영을 통해 여성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추진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해양정책팀장 장광열, 담당자 정지민

라. 미래 수산 전문인력 육성 교육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 갈 진취적 인력 육성, 실질적 소득과 연계되는 수산업 비전 제시를 위해 4개 분야, 11개 과정, 7,900명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팬데믹 시대 도래에 발맞춰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도입・활성화 시켰다.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단계별 방역수칙에 맞게 적절한 혼합교육(소규모 집합+온라인)을 실시・운영하였다.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기술교육과 어류·패류·해조류 양식, 수산가공 등 분야별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어업인의 교육 편의를 위해 현장소통 교육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귀어교육, 어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 및 사고예방을 위한 어업인 건강관리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정책 홍보 및 현장소통을 위한 어촌지도자 교육,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자율관리 선진화 교육, 어업인후계자 교육, 질병 방역교육, 양식현장 기술교육 등을 운영하여 어업인이 어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귀어학교 교육】



【건강관리 교육】



【현장 견학】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장 서영준, 어업인교육팀장 고민영

마.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 어촌을 선도할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어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2단계로 구분된다.

【 최근 5년간 수산업경영인 육성 현황 】

(단위 : 명,억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산업경영인	2,025	636	889	36	251	213
지원금액	3,827	1,079	1,562	74	598	514

1981~2022년 현재까지 총 13,462명을 선정하였으며, 전국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 및 시·군 단위의 연합회를 구성하여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는 영어 종사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고,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향후 기반조성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1인당 3억 원 한도까지 지원되며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우수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은 1인당 2억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앞으로 새롭게 수산업을 시작하는 어업인들에게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확대 및 기술보급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최종천, 수산경영팀장 전영호, 담당자 김형국

4-4.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강화

가.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전남도 등록어선은 27,966척(2020년 기준)으로 전국 65,744척 대비 42.5%를 차지하며 이 중 10년 이상된 어선은 17,514척(62%)으로 노후화되었고 어업인 연령도 50~80대가 69.4%에 달해 어선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 간 도내 어선사고는 연평균 462건이 발생하였고,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장비, 해상통신망 등 기반시설 부족과 운항 부주의, 정비불량 및 조업중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어선사고 예방 및 어선원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도내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장비를 매년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018대 34억 9천 4백만 원의 자동소화장치, 팽창식 구명조끼, 초단파무선전화 등 어선안전장비를 보급했다.

또한 어선사고 다발시기(11월~익년 5월) 노후어선과 사고취약 어선 위주로 어선안전 검사기관, 수협 등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선안전점검(연 549척)을 실시하였고 매월 1일을 '어선안전의 날'로 지정 주요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어선사고 예방 안전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앞으로도 어선안전 장비보급 확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 및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원인이 되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사항을 상시 점검, 어선원 보험가입 확대 등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 낚시어선 안전관리

국민소득 향상으로 레저활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속, 음주 운항, 정비불량 등 낚시업자 및 선장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 하고있는 실정이다.

【 낚시어선 이용객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2018~2021) 】

(단위 : 척, 명,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낚시어선	724(16%)	838(전국 18%)	860(전국 19%)	860(전국 19%)
이 용 객	746,000	856,000	916,000	789,000
사고발생	68	71	56	56

이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이 증가하는 봄철부터 가을철에 매년 2~3회씩 우리 도와 시·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낚시어선에 대한 출항 및 승선인원 제한 명령 발동 등 자체 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낚시어선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 낚시객 간 2m 이상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선내외 마스크 착용 등을 안내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을 위해 낚시 명예감시원 제도 활성화, 실효성 있는 낚시 전문교육 실시, 낚시어선 자체 점검 매뉴얼 배포 및 사고가 빈발한 지역 대상 안전수칙 집중 홍보 등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어선어업팀장 정 주, 담당자 최재원

5. 수산물 가공·유통산업강화

5-1. 가공산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

가. 수산물 가공품 생산 현황

2020년 전남도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천 톤(8.6%) 증가한 296천 톤을 생산하였으며, 생산액으로는 전년 대비 2,164억 원(17%) 증가한 1조 5,137억 원을 생산하였다.

전남도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 1,305천 톤의 2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았으며, 생산액은 전국 6조 2,201억 원의 24%로 전국 최대이다.

주요 품종별 생산현황은 미역, 김 등 해조류가 208천 톤, 9,423억 원으로 전체 생산량의 70%에 해당되며, 다음으로 참치 15천 톤, 710억 원, 조기 9천 톤, 1,458억 원 등의 순으로 생산되었다.

가공업체별로는 1,636개소로 전년 대비 52개소가 증가하였으며, 냉동품 633개소, 절임식품 154개소, 해조류건제품 11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 2019~2020년 주요품목별 가공품 생산현황 】

(단위 : 톤/백만원)

순위	품목	2019년		2020년		증감현황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합계		219,298	1,022,242	243,994	1,218,721	24,694	196,480
1	미역	96,017	109,169	125,755	169,691	29,738	60,522
2	김	44,560	574,735	38,889	698,669	-5,672	123,934
3	해조류	41,433	67,289	43,238	73,981	1,805	6,692
4	참치	15,029	71,071	14,891	71,484	-138	414
5	조기	9,558	145,874	9,717	152,025	158	6,150
6	삼치	6,521	19,627	4,806	13,964	-1,715	-5,663
7	오징어	6,180	34,477	6,698	38,907	518	4,431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수산가공팀장 김두용, 담당자 김수민

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전남도는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화순군과 해남군에 2016년부터 7년에 걸쳐 290억 원을 들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역별 거점단지는 고부가 수산식품 개발, 가공 및 상품화, 유통·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수산물을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상품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20개소 중 현재 전남도는 3개소를 운영중에 있다. 최근 공사중인 2개소가 마무리되면 총 5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는 수산가공 R&D, 제품생산, 기업지원, 안전성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수의 수산물종합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선어와 건어물을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등 지역 소득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영광 칠산타워는 전망대를 활용한 관광수요 창출, 향토음식점 운영, 수산물 판매센터 등을 통해 지역 수산식품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한편, 조만간 운영을 앞둔 화순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에서는 천연조미료, 액젓, 해조류 장아찌 등 발효식품과 가정간편식,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생산하게 될 예정이며, 해남수산식품 거점단지는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전복과 김을 활용해 전복장, 전복소스, 건전복, 김자반 등 수출용 가공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특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거점단지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수산가공팀장 김두용, 담당자 정명수

다. 가공시설 현대화 및 고차가공 시설 확충

전남도는 2004년부터 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산지 수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까지 404개소를 지원했으며, 총사업비 3,728억 원으로 국·도비 1,080억 원, 시군비 1,067억 원, 자담 1,580억 원을 투입했다.

또한,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트렌드에 대응하여 수산식품 품질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46개소를 지원했으며,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국·도비 23억 원, 시군비 13억 원, 자담 23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수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시설'을 2021년까지 36개소, 105억 원 지원하였으며, 해조류의 위생적인 건조를 위해 고온·열풍을 이용한 '친환경 수산물 위생건조' 사업을 2021년 1개소, 8억 원을 지원하였다.

2022년에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2개소에 160억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26개소에 35억 원, HACCP 시설 3개소에 6억 원, 친환경 수산물 위생건조 2개소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공장의 시설현대화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 지원현황 및 계획 】

(단위 : 개소/억 원)

구 분	합 계	2018. 까지	2019	2020	2021	2022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416/3,891	345/3,034	26/328	20/228	13/138	12/163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90/114	-	-	-	46/59	44/55
수산물 가공공장 HACCP 시설	39/111	26/73	4/13	4/13	2/6	3/6
친환경 수산물 위생건조 시설	3/24	-	-	-	1/8	2/16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수산가공팀장 김두용, 담당자 이진호**

라. 규모별 저온저장시설 지원

전남도는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해 안정된 유통망 구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규모별로 공동 저온저장시설(100평 이상), 중형 저온저장시설(100평 이하), 소형 저온저장시설(10평 이하)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공동 저온저장시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9개소에 총사업비 182억 원, '중형 저온저장시설'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4개소에 총사업비 138억 원, '소형 저온저장시설'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980개소에 총사업비 219억 원을 투입했다.

2022년에는 '공동 저온저장시설' 5개소에 50억 원, '중형 저온저장시설' 8개소에 38억 원, '소형 저온저장시설' 190개소에 24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수산물 생산능력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현황 및 계획 】

(단위 : 개소/백만 원)

구 분	합 계	2018. 까지	2019	2020	2021	2022
공동저온 저장시설	24/23,240	8/6,220	1/720	6/4,800	4/6,500	5/5,000
중형저온 저장시설	52/18,062	16/4,080	6/1,352	13/4,500	8/3,900	9/4,230
소형저온 저장시설	2,170/24,376	1,061/11,584	333/3,996	333/3,996	253/2,400	190/2,400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수산가공팀장 김두용, 담당자 이진호

5-2.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기업 지원

가.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운영

전남도는 2018년부터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제품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창업지원'을 위해 시제품, 브랜드 개발, 기술지도 및 투자 IR지원 등을 지원하며, '기업육성'을 위해 가정간편식 개발, 대형 이커머스 입점 지원,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향상'을 위해 수출제품 개발, 해외시장 마케팅, 투자유치 컨설팅 등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하여 177개 기업 육성지원, 29개 신규 창업, 887명 고용창출, 2,902만 불 수출 성과를 이루었다. 2022년에는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지원 40개사, 고용창출 167명, 매출증대 8.7%, 수출향상 5%, 신규창업 4개사를 목표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K-씨푸드 확산 및 HMR, 간편식품, 건강식품 등 개발에 주력하여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연계 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현황 및 계획 】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 업 비	82억 원	17억 원	17억 원	16억 원	16억 원	16억 원
수혜기업	217개사	46개사	48개사	38개사	45개사	40개사
고용창출	1,092명	149명	290명	166명	320명	167명
기업창업	33개사	9개사	6개사	8개사	6개사	4개사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수산가공팀장 김두용, 담당자 이진호

나. 수산식품 신제품 개발 및 R&D사업 지원

전남도는 수산식품 개발 및 기능성 물질 연구와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2007년 해양바이오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중에 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연구개발,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연구개발 운영 성과를 보면 해조류·전복 가공제품 등 208개社, 2,325개 시제품 생산을 지원했으며, 기술이전도 7건 수행하였다. 또한 귀어가·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양식 및 가공기술을 교육해 98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157명의 취·창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해조류 16종에 대한 48개 추출물에 대한 기능성을 검증하였고

41건의 특허출원과 23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사업화 지원을 앞두고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하루면역, 김·청각 젤리, 대장유산균, 전복만두, 해조두유 등 해조류와 전복을 이용한 음료와 기능성제품, 간편식 등 30여 종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해조류와 전복, 머드 등 해양치유 소재를 활용하여 피부질환, 항염증, 비만개선, 중금속 제거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해조류와 전복내장에서 유래한 다당류 추출물이 COVID-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 및 치료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세계적인 해양의약 학술지 '마린드럭스'에 발표(2021. 4. 15.)된 바 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통해서는 2021년부터 24억 원을 지원해 '김' 성분 분석결과를 빅데이터화해 AI를 활용한 스마트 자동 품질검사 기술 개발 및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식품 위해요소를 저감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영세한 수산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제품을 개발하고 국제 식품인증 취득 지원 등 기업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1인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편의성 중심의 즉석식품 산업 확장에 따라 '22년에는 수산물을 활용한 유망한 가정간편식 제품을 공모·선정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해 지원을 통한 집중 육성을 추진한다. 한편, 고령화 추세에 발맞춘 기능성·균형있는 영양 등을 감안한 다양한 고령 친화형 식품소재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수산가공팀장 김두용, 담당자 정명수**

5-3.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가. 수산물 수출 실적 현황

전남도는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 수출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근 5년간(2018 ~2022) 1,099억 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2018년 2억 2천만 불, 2019년 2억 6천만 불, 2020년 2억 8천만 불, 2021년 3억 5백만 불을 수출하여 수산물 수출액의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했다. 그중 김 수출액은 김 가공품 수요증가로 2018년 1억 1천만 불, 2019년 1억 5천만 불, 2020년 1억 7천만 불, 2021년 2억 4백만 불로 꾸준히 상승했다.

앞으로도 5년간(2022~2026) 수출기업 50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수출상품개발, 샘플제작 및 운송비를 135개소에 2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관광객 대상 수산식품 면세점 2개소 개설에 120억 원을, 활수산물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에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력시장의 수출을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 전남도 수산물 수출액 현황 】

(단위 : 천 불)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16,358	223,110	263,035	277,594	304,781
김	105,887	109,806	145,717	167,932	203,650
미 역	18,479	18,079	21,759	21,544	14,945
톳	22,444	17,966	20,406	16,161	13,901
다시마	1,650	1,703	1,987	2,330	1,089
전 복	44,023	45,137	44,191	41,633	43,844

넙 치	5,099	3,589	2,327	1,882	2,116
기 타	18,776	26,830	26,648	26,112	25,236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수산유통팀장 황국주, 담당자 나두연

나. 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수출물류센터 구축 운영

전남도는 일시 대량 생산되는 수산물에 비해 부족한 제빙·저빙·냉동·냉장시설 확충을 위한 수산물 산지유통물류센터 건립과 검역시행장 지정을 통해 산지에서 원료수급~가공~수출까지 원스톱 통관서비스 구축이 가능한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구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근 5년간(2017~2021) 7개소에 830억 원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개소에 1,242억 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5년간(2022~2026) 부족한 제빙·저빙·냉동·냉장시설 확충과 휴식을 아우를 수 있는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19개소, 1,638억 원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물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수출용 수산물 활컨테이너 10대, 20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물 수출을 확대해 어업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수출물류센터 구축 운영 지원현황 】

(단위 : 백만 원)

연 도	사업량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07~2016	11개소	124,282	126,712	32,560	117,229	38,644
2017~2021	7개소	83,079	31,732	8,170	26,728	16,449
2022~2026	19개소, 10대	163,750	2,400	67,685	59,865	33,800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수산유통팀장 황국주, 담당자 이대섭

다. 노후 수산시장 개보수 및 현대화

전남도는 2006년부터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수산물 최종 소비지인 노후된 수산시장의 시설·장비 개보수 및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2019~2021) 8개소, 52억 원을, 2006년~2015년까지 75억 원을 지원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산물 판매시 상온 노출하는 전통시장의 위생환경 개선 및 선도·온도 관리를 위해 소형 수산물 쇼케이스 보급,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시설, 해수정수시설, UV살균시스템,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후된 수산시장 시설·장비 개보수 뿐만이 아닌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노후 수산시장 개보수 및 현대화 지원현황 】

(단위 : ha,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지 원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06~2015	17개소	7,492	2,704	0	1,675
2019~2021	8개소	5,170	1,320	231	1,959
2022~2027	20개소	14,300	4,300	4,300	5,700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수산유통팀장 황국주, 담당자 이대섭

5-4. 천일염산업 지속 성장기반 마련

가. 소금산업 연구기반 확충

양질의 서남해안 갯벌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는 천일염은 전통 발효식품 제조는 물론 우리 몸에 이로운 각종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 세계적 비교 우위의 천연자원으로, 갯벌 천일염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 홍보, 제도개선 기반시설확충 등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가 연구기반 구축과 생산·유통 환경 선진화로 산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기 위해 천일염 특성화 연구기관인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고품질 천일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기능을 집중해 가고 있다.

아울러 전남도는 2009년부터 소비촉진을 위해 각종 전시·박람회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광물로 분류되었던 천일염이 2008년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 및 가공 제품을 홍보하고 전남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소금박람회에서는 천일염의 정보·기술 교류 및 활용방법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21년 천일염 생산현황 】

구 분	면적 (ha)	업체수(개소)	생산량(톤)
전 국	3,659	956	281
전 남	2,890	890	264
점유율	79.0	93.1	94.0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 수산식품안전팀장 박현아 담당자 이은솔

나. 생산공정 자동화 및 수급조절 기반 확충

전남도는 천일염 생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자동채염기, 전동대파기 등을 보급하여 생산시설 자동화 기반을 조성하고 천일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장기저장시설, 유통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근 5년간(2017~2021) 1,012대의 자동화장비를 보급하였으며 지원 규모는 23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2020~2021년 전남도는 홍수출하 시기 대비 천일염 보관시설 확충으로 수급 조절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천일염 임시야적장(2개소, 신안·영광군)을 조성하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5년간(2023~2027) 안전하고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천일염종합유통센터(1개소, 150억원), 장기저장시설(15개소, 1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공정 자동화 장비를 확대해 천일염 생산 현장 인력을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 나갈 예정이다.

【 생산시설 자동화기계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17	583	8,151	2,364	979	1,655	3,156
2018	139	3,933	1,180	294	886	1,573
2019	287	3,906	1,172	195	976	1,563
2020	316	3,993	1,198	240	958	1,597
2021	249	3,003	901	180	721	1201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 수산식품안전팀장 박현아 담당자 이은솔

5-5.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

가. 수산물 위생·안전 체계 구축

전남도는 2019년부터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물 양륙·선별·위판·배송 전 과정에 위생시설을 갖춘 저온위판장 건립, 자동선별기·저온차량 구입을 지원하여 수산물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최근 3년간(2019~2021) 전국 11개소 중 전남도에서 7개소가 선정되어 11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시군을 모집하여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위생·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산물 위생·안전 체계 구축 지원현황 】

(단위 : ha,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19~2021	7개소	11,905	4,683	863	2,857	3,502
2022~2027	20개소	22,133	8,735	1,551	5,311	6,536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수산유통팀장 황국주, 담당자 이대섭

나.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생산・저장

·출하되어 소비자에게 거래되기 이전단계에서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불량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안전성조사),「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10조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67품목에 대하여 중금속, 방사능,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잔류농약, 신종유해물질, 유기물질 등 유해물질 91항목을 조사하며「식품위생법」제7조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매년 조사항목과 품종을 늘려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다.

도내 22개 시·군 수산물 안전성조사 담당자들은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양식장 및 위판장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수거하여 의뢰하면, 물리적·이화학적 전처리를 하고 기기분석, 미생물 배양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제를 운영해 신뢰도를 높이고 결과는 생산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해양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도 매월 공개하고 있다.

【 연도별 수산물안전성 검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건 수	5,418	1,312	1,292	1,336	1,478

그 동안 조사 실적은 12,068건(2011~2021년)으로 매년 목표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외 위해정보 또는 문제가 야기되어 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소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장 양석우, 수산물안전관리팀장 박정욱, 담당자 김수정

다. 수산생물 질병 방역 관리

양식시설 또는 집합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조기 대응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수산생물 예찰 및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5,626개소 양식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총 8,049건의 예찰을 실시하였고, 양식 어가의 질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452점의 예찰·방역 물품을 지원하였다.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생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생충 발생 어가에 총 3,848통의 구제 약품을 지원하여 질병 확산을 방지하였다.

【 수산생물 질병 예찰 추진현황 】

(단위 : 건, 통, 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3월 말 기준)
질병 예찰	8,049	925	1,285	2,722	2,640	477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	3,848	1,145	975	754	950	24
방역물품 지원	3,452	238	419	956	1,584	255

또한 질병 발생 의심어가, 방류사업 수산생물, 적조 출현에 따른 긴급 방류 등의 전염병 검사를 위해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 2개소(여수, 완도) 운영하여 수산생물에 대한 신속·정밀한 병성감정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총 2,184건의 병성감정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추진하였다.

【 병성감정실시기관 운영 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	2013~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월 말 기준)
계	2,184	1,020	258	222	300	331	53
병성감정	1,050	403	110	97	182	207	51
방류검사	1,134	617	148	125	118	124	2

앞으로 안전한 수산생물 생산 및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산생물 예찰·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최종천, 연구개발팀장 박인배, 담당자 정선경





제3장 부분별 성과

제9절 지역개발

1.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2. 사회기반시설(SOC) 르네상스 시대 개막
3. 도민 행복 주거복지 실현
4. 도민 행복 토지행정 구현
5. 서남해안 관광벨트 중심 기업도시 개발
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제9절 지역개발

1.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1-1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1) 광역도시계획 분야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 도는 광주권(2001~2020), 광양만권(2003~2025), 서남권(2005~2025) 등 3개 권역 15개 시·군 11,483㎢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먼저,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 전 지역과 함평군 해보·월야·나산면 일부지역을 포함한 2,995㎢이며, 계획인구는 220만명으로 2003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축·개발축 등 공간구조와 생활권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1973년 1월 17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287.11㎢를 대상으로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를 대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26.93㎢를 해제 가능면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광역공급시설 확보계획을 반영하였다.

현재,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계획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화되고 있는 시·도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개발구역 조정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은 여수·순천·광양시 등 3개 도시의 연담·광역화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광양만권 전역이 포함된 5,279㎢이며, 계획인구는 115만명으로 2006년 5월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역도시의 기능분담을 위해 여수시는 산업지대의 휴식처로서 여가 및 관광허브 기능을 부여하고, 순천은 교육·문화·관광·공공업무·배후주거기능을 부여하고, 광양은 광양항 배후로서 국제교역 및 물류서비스와 배후주거기능을 부여하여 도시발전축을 형성하였다.

특히 광양만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속도로 3개 노선, 국도 5개 노선, 내부순환도로 2개 노선 등 총 10개 노선의 도로망 계획과 대량화물 내륙수송 활성화를 위해 전라선 복선전철화와 3개 시를 순환하는 경전철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육상교통과 연계한 해상물류 수송과 해양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양컨테이너부두, 율촌2산단 부두, 여수신항 확충, 여수 구항 정비 등 총 4개 항만시설계획을 반영하였다.

2025년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은 도청 이전, 기업도시와 무안국제공항건설 등 서남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다. 목포, 무안, 영암, 해남군 전 지역과 완도·진도·신안 일부지역이 포함된 3,711㎢을 90만명의 인구를 갖는 광역도시를 성장시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계획으로 2009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2순환 6방사형의 교통축과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무안공항과 남악 등을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섬 개발의 활성화와 국비지원을 위하여 다도해 특정지역 지정 계획과 영산강 살리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반영하였다.

광역도시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계획으로 국가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계획을 근거로 수립하게 되며, 자치단체 간에 대립되는 대규모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으로 계획 간에 협의 조정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해 나가고 있다.

2)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분야

2003년 1월 1일 제정·시행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과 10만 이상 도시, 기업도시가 지정된 군 지역에 대하여는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시·군에 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담양·화순·해남·영암·무안·함평·장성군 등 12개 시·군이며, 도시·군관리계획은 22개 시·군 전부가 해당된다. 2021년말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9개 시·군이 완료했고 화순군 등 3개 군이 정비 중에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은 18개 시·군이 완료했고 여수시 등 4개 시·군이 정비 중이다.

도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15,440㎢중 도시지역은 11.1%인 1,719㎢, 관리지역은 22.4%인 3,457㎢, 농림지역은

41.1%인 6,34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5.4%인 3,919㎢로 2018년과 대비하여 도시지역은 1.0㎢가 증가하였고 관리지역은 17㎢ 증가, 농림지역은 12㎢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 증가하였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에 결정 면적은 731.7㎢로 결정 관리되고 있으며,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시·군 담당자들과 실효대비 점검 등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보전녹지 지정 8개소 5.3㎢, 국공유지 실효유예 63개소 3.1㎢ 등 1,788개소 24.5㎢를 정비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 도시·군계획시설 26,691개소 731.7㎢ 중 3.6%인 2,046개소 26.3㎢가 실효되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원의 경우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에 따라 민간이 70%이상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목포시·순천시에서 4개소, 1.3㎢를 추진하고 있다. (목포 산정공원 1개소 0.5㎢, 순천 삼산공원 등 3개소 0.8㎢)

한편,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기업투자 불편해소, 시·군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한 용도지역·지구·시설 결정(변경) 심의·자문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30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25회 99건, 2019년 15회 60건, 2020년 15회 54건, 2021년 14회 69건 등 매년 60건이 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심의하였다.

【 전라남도 도시·군계획 수립현황 】

(2021. 12월)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면적(㎢) (육지+해면)	계획인구 (인)	목표 연도	최 종 승인일	면적 (㎢)	계획인구 (인)	목표 연도	결 정 고시일
계	10,419.86	2,099,470			15,402.93	2,381,828		
목포	112.49	300,000	2030	2019.12.30	112.49	260,000	2025	2020.08.13
여수	3,853.64	340,000	2035	2020.05.21	1,024.82	374,000	2020	2015.04.30
순천	936.06	340,000	2030	2016.11.01	936.06	320,000	2025	2019.01.03
나주	603.54	195,000	2030	2017.03.03	604.54	160,000	2025	2019.01.24
광양	497.65	270,000	2030	2016.09.09	497.65	240,000	2025	2017.11.30
담양	455.00	52,500	2030	2018.02.12	455.88	51,000	2025	2019.03.21
곡성	-	-	-	-	548.42	32,000	2020	2015.11.19
구례	-	-	-	-	443.14	30,000	2025	2017.04.20
고흥	-	-	-	-	1,179.47	64,100	2025	2017.05.25
보성	-	-	-	-	743.88	43,200	2025	2020.03.12
화순	786.21	86,000	2020	2009.05.14	786.84	70,178	2015	2010.12.29
장흥	-	-	-	-	653.63	45,000	2025	2018.08.09
강진	-	-	-	-	563.22	49,000	2025	2017.06.29
해남	1,045.30	90,000	2035	2020.07.23	1,045.35	125,000	2025	2018.08.30
영암	565.79	210,000	2020	2016.08.16	630.80	125,000	2025	2019.03.21
무안	652.92	100,000	2030	2017.03.31	484.86	100,000	2025	2018.12.20
함평	392.76	45,970	2030	2016.05.24	426.08	41,000	2025	2018.01.11
영광	-	-	-	-	554.63	60,000	2025	2018.09.13
장성	518.50	70,000	2020	2006.11.03	518.58	66,850	2020	2017.01.05
완도	-	-	-	-	1,079.72	51,000	2025	2018.09.20
진도	-	-	-	-	994.06	33,500	2025	2020.12.17
신안	-	-	-	-	1,118.81	41,000	2025	2019.10.31

추진부서 **지역계획과장 송광민, 도시계획팀장 염승열, 담당자 배준호, 최준영**

나. 쾌적한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도시·택지개발사업

도시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도시 주택난 해소와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총 55지구 30,644천㎡이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택지개발사업 25지구 19,895천㎡, 도시개발사업 30지구 10,749천㎡이다.

이 중 택지개발 24개 지구 17,090천㎡, 도시개발 14개 지구 4,341천㎡ 등 총 38개 지구 21,431천㎡는 개발을 완료했고, 택지개발 1개 지구 2,805천㎡, 도시개발 16개 지구 6,408천㎡는 개발 중이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으로 2018년 고흥 남계지구 2021년 오룡 6-1단계를 준공하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천 용당지구 등 5개 지구를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였고, 광양 성황지구 등 9개 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신규로 지정하였다.

【 전라남도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

□ 추진지구

(단위 : 천㎡, 세대, 명)

시군	지 구 명	시행자	면 적	호수	인구	사업기간	비 고
합계	1지구		2,805	9,823	24,550		
무안	오 룡	전남개발공사	2,805	9,823	24,550	2005~2024	77%

□ 준공지구

(단위 : 천㎡, 세대, 명)

시군	지 구 명	시행자	면 적	호수	인구	사업기간	비 고
합계	24지구		17,090	111,156	402,833		
목포	상 동	LH공사	183	3,661	14,644	1988~1992	준 공
〃	하 당1	목 포 시	2,789	15,000	60,000	1989~1996	〃
〃	연 산	LH공사	171	2,925	11,115	1993~1996	〃
〃	용 해1	LH공사	241	2,632	9,739	2000~2004	〃
〃	용 해2	LH공사	331	2,762	8,286	1998~2013	〃
목포/무안	옥암, 남악	목포시, 전남개발공사	6,240	19,552	58,656	2003~2015	(남악신도시 일부준공)
여수	여서, 문수	여 수 시	1,259	15,976	63,900	1986~1995	준 공
〃	미 평	〃	298	1,991	7,964	1991~1995	〃
〃	둔 덕	LH공사	63	1,026	4,104	1992~1997	〃
〃	죽 림	LH공사	674	3,922	11,766	1992~2008	〃
순천	금 당	전라남도	751	6,750	27,000	1990~1992	〃
〃	연 향1	순 천 시	763	7,530	30,120	1989~1992	〃
〃	조 례1	〃	184	420	1,680	1993~1996	〃
〃	조 례2	LH공사	173	3,279	13,092	1989~1992	〃
〃	왕 지	순 천 시	325	2,897	10,140	1996~1999	〃
〃	금 당2	〃	530	3,144	11,005	1996~1999	〃
〃	연 향2	LH공사	365	2,464	9,117	1992~1999	〃
〃	연 향3	순 천 시	288	1,976	6,915	2000~2004	〃
〃	오 천	순 천 시	591	3,679	10,628	2012~2015	〃
나주	대 호	LH공사	145	1,810	5,430	2000~2002	〃
고흥	남 계	LH공사	141	900	1,980	2004~2019	〃
화순	광 덕1	전라남도	81	627	2,695	1989~1991	〃
〃	광 덕2	〃	159	1,298	5,582	1990~1991	〃
〃	광 덕3	〃	345	4,935	17,275	1994~1997	〃

【 전라남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 추진지구

(단위 : 천㎡, 천명)

시군	지구명	시행자	면 적	사업기간	시행방식	계획인구	비고
합계	11지구		5,901			79.1	
목포	임 성	LH공사	1,990	2018~2024	환 지	20.0	착공준비중
여수	죽 림1	전남개발공사	986	2018~2024	수용 및 사용	13.9	32%
순천	복 성	(주)모던21	74	2017~2022	〃	2.6	90%
	왕 지2	왕지2지구조합	438	2018~2025	환 지	7.1	30%
	풍 덕	풍덕지구조합	555	2019~2023	〃	7.0	착공준비중
광양	성황·도이	광양시장	655	2009~2022	혼 용	7.1	90%
	목 성	㈜부영주택	668	2009~2022	수용 및 사용	17.2	13%
	성 황	㈜장대건설	68	2020~2022	〃	1.7	실시계획 수립 중
	대 근	광양시장	279	2018~2023	환 지	1.8	실시계획 수립 중
영암	교 동	영암군수	177	2019~2023	수용 및 사용	0.2	실시계획 수립 중
함평	기 각	(주)수성주택	11	2012~2022	〃	0.5	65%

□ 구역지정지구

(단위 : 천㎡, 천명)

시군	지구명	시행자	면 적	사업기간	시행방식	계획인구
합계	5지구		507			10.6
순천	왕 조	㈜제이제이주택	33	2018~2023	수용및사용	1.2
나주	삼 영	디에스종합건설	94	2020~2023	〃	1.9
광양	성황·도이2	광양시장	293	2019~2025	환 지	4.2
	덕 례2	남화토건(주)	50	2021~2025	수용및사용	1.9
함평	영 월	센트럴투자개발(주)	37	2019~2024	〃	1.4

□ 준공지구

(단위 : 천㎡, 천명)

시군	지 구 명	시 행 자	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14지구		4,341	44.5		
목 포	백 련	목포시장	86	2.4	2011~2016	
순 천	연향・상삼	㈜삼덕건설	31	1.6	2004~2016	
	왕조(운곡)	순천시장	411	1.1	2005~2010	
	용 당	덕진종합건설(주)	45	2.1	2013~2019	
	용 당 2	(주)정원주택개발	38	1.7	2017~2020	
나 주	송 월	나주시장	298	3.0	2006~2010	
	남 평	나주시장	303	6.2	2008~2018	
광 양	중 동	㈜리체	53	2.0	2008~2016	
	도 촌	광양시장	24	0.2	2002~2006	
	마 동	마동도시개발조합	548	4.2	2008~2015	
	와 우	광양시장	636	9.8	2012~2020	
	광영・의암	광양시장	546	6.5	2012~2021	
담 양	담빛문화	담양대숲마루(주)	1,277	3.6	2014~2020	
영 암	동 무 2	영암군수	45	0.1	2008~2014	

* 2000년 이전 준공지구는 제외

추진부서 지역계획과장 송광민, 도시계획팀장 염승열, 담당자 김인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영택, 담당자 양순실

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287.11㎢이었으나 2018년까지 집단취락지역 등 16.29㎢를 해제하여 270.82㎢를 관리 중, 장성 집단취락지역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에 장성 일부 편입으로 2.71㎢를 해제하여 현재는 268.11㎢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면적은 26.93㎢(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로 2018년까지 15.69㎢를 해제하였고 2019년 장성 집단취락지역과 2020년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에 장성 일부 편입으로 2.71㎢를 해제하여 현재는 잔여면적 8.53㎢를 관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해제 잔여면적 8.53㎢(도 3.88㎢, 시·군 4.65㎢) 중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0.72㎢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개발수요에 따라 배분하여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

【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군별 현황 】

(2021. 12월)

구 분		계	나주	담양	화순	장성
면적(㎢)	당초	287.11	42.9	115.18	41.70	87.33
	현재	268.11	39.42	108.50	41.19	79.00

【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

(2021. 12월)

구 분		계	도	나주	담양	화순	장성
면적(㎢)	당초	26.93	6.21	5.03	7.76	1.43	6.50
	현재	8.53	3.88	1.67	1.25	0.96	0.77

추진부서 지역계획과장 송광민, 도시계획팀장 염승열, 담당자 강병주

1-2. 지역성장거점 육성

가.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그간의 방법·절차 등을 개선하여 양적 증가와 주민에 의한 지역재생과 협치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환·확대되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지역을 재개발·재건축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역량의 강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주민주도와 행정공공기간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지방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균형발전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

사업대상지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시행됨에 따라 우리도는 전라남도만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는데 중점을 두고 다수의 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공모담당자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관계기관 토론회, 연찬회로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컨설팅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주민·전문가·공무원과 교류, 경험치를 쌓아나갔다.

이러한, 주민·공무원·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노력으로 현재 우리도에서는 22개 시·군 90개 지역에서 총 9,246억 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되어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현황 】

구분	시군	사업량(개소)	사업기간	사 업 비(억 원)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90		9,246	3,979	2,986	2,281
도시재생	21	50	'14~'24	9,115	3,913	2,921	2,281
소규모	15	40	'18~'22	131	66	65	

* 민선7기(2018년~) 선정 : 81개소, 총 사업비 7,609억 원(국비 3,169억 원)

아울러, 지역주도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주민주도 협력단체가 22개 시·군에 구성되고, 마을단위 사회적기업 262개소가 운영중이며, 마을관리를 위해 활동할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여 11개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탄탄한 뿌리를 형성, 도시재생의 열매를 맺기위한 토대를 쌓아가고 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노력과 열정으로 지역자원의 고유한 가치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재생되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을 기대한다.

추진부서 지역계획과장 송광민, 도시재생팀장 윤환기, 담당자 장호훈

나. 지역경제활력을 이끌 지역개발

1)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추진

전남도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에 그 인근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8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전라남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개발계획은 성장촉진지역 18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과 거점지역 6개 시·군(목포·여수·순천·광양·영암·무안)의 134개 4조 9,030억원(국비 8,608억원, 지방비 1조 2607억원, 민자 2조 7,815억원) 중 국비2,387억원을 투입하여 3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02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2027년까지 계획에 반영된 지역개발사업이 모두 완료 되어,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지역계획과 송광민, 산단지역개발팀장 김성수, 담당자 박은석, 추윤재

2)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의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역개발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문가, 주민 의견수렴 등 전략회의를 실시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공모에 참여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수요맞춤지원(연계)사업, 투자선도지구 36개 사업 785억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각종 기반조성 사업에 다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지역계획과 송광민, 산단지역개발팀장 김성수, 담당자 추윤재

3) 일로~시종 지역간 연계도로 개설사업

전남도는 2018년부터 '일로~시종 지역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로~시종 지역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근거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영암~목포·무안 지역 연계 발전 및 교류 촉진을 위해 2018년 국토부로부터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2020년 실시설계보완 후 착공했고 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에서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까지 교량 1개소(963m)를 포함한 2차로(폭원 9.5~10.5m) 3.84㎞를 개설하는 공사로, 855억원의 도비가 투입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영산강을 횡단하여 영암 동부권과 남악 신도시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영산강, 회산백련지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부서 지역계획과 송광민, 산단지역개발팀장 김성수, 담당자 박은석

4) 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몽탄~동강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전남도는 2020년부터 '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몽탄~동강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근거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두 지역을 연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두 사업은 2020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그 중 '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사업 발주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2년 내 사업 착공할 계획이고, '몽탄~동강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2022년 내로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도는 두 사업에 1,738억원을 투입하는데, '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는 1,250억원과 '몽탄~동강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는 488억원을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석곡~북면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도로 10.5km에 2차로(폭원 9.5m) 터널 1개소(1,135m)로, '몽탄~동강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도로 2.1km에 2차로(폭원 9.5~10.5m) 교량1개소(638m)로 계획 중이다.

단절된 지역간 연결을 통해 교류를 촉진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부서 지역계획과 송광민, 산단지역개발팀장 김성수, 담당자 박은석, 추윤재

다. 남해안권 발전사업 추진

전남의 서·남해안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정부 지역공약 및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토대로 중장기 종합전략 계획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경남 등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고시(2020. 6. 29.) 했다.

종합계획 변경으로 전남도 해안권 16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에 4가지 전략분야 49개 사업을 반영하여 국비 5조 6,339억 원을 포함한 총 10조 7,73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및 관광 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분야별 사업비 내역 】

(2022. 4. 기준)

분 야	개소수	사 업 비
합 계	49	10조 7,730억원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21	5조 7,477억원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10	1조 1,456억원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13	3조 351억원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육성	5	8,446억원

이를 토대로 전남도의 섬·바다·갯벌 등 자연·생태환경 및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자원 육성 및 활성화 도모, 해양경관 및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해양관광 실현, 우수한 자연·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광역관광 네트워크 구축, 이와 연계한 전남 주력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관광 동반성장 기반 구축 등 우리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까지 전남도는 7개 사업에 대해 국비 36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35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고지원 확보활동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대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지역계획과장 송광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영택, 담당자 박장철

1-3. 산업단지 조성

가. 신성장 특화산업단지 조성

1) 권역별 산업구조 현황 및 특화계획

광양만권은 1970년대 중반 정부의 중화학공업 발전정책에 힘입어 여수 석유화학단지 및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산업 집중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과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로의 전환 곤란,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 중화학공업발전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의 시설 현대화와 신기술개발 등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목포 등 서남해안권의 산업생산 비중을 보면 단순 농수산물 가공 등 소규모 가내공업 형태가 대부분이나 신안 8.2GW 해상풍력, 대불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하는 서남권 산단 대개조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① 광주송정~목포간 호남선 KTX 건설 ② 남해안 철도(보성~목포) 건설 ③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④ 흑산공항 건설 ⑤ 호남선 KTX 경유에 따른 무안공항 활성화 ⑥ 연륙·연도교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이에 동남아 등 중국 진출의 지리적 장점을 가진 전남 서부권지역은 향후 조선 · 물류 산업, 해상풍력 산업, 항공MRO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2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전력 이전, 한국에너지공대 개교(2022. 3. 3.) 등에 따라 나주 혁신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에너지

관련기업 1,000개사 유치 및 일자리 2만개 창출을 위한 '에너지밸리'와 '전남·광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2019.11, 18.92㎢)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나주 혁신산업단지 인근에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120만㎡를 조성하여 ①에너지 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②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에너지 新산업 클러스터 조성, ③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플랫폼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미래비행체, 이차전지, 우주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적극 지정·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등 광주시 인근지역과 전남에서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산업단지는 광주시보다 지가가 싸고, 시장 접근성, 인력조달 및 정보수집 용이, 편리한 교통망 등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 국가·일반 산업단지 조성현황

도내에 산업단지로 지정 승인을 받아 조성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35개소에 228,967천㎡로, 조성률은 83.8%이다.

국가산업단지는 5개소(여수, 여수 삼일비축, 광양, 영암대불, 빛그린), 일반산업단지는 31개소(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17개 시·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개소(순천)이다.

도는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유해업종만 입주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에너지·생물 등 신성장 산업 입주와 수요자 맞춤형 용지공급 등으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전남 산업단지 조성현황(2021. 4분기 기준) 】

(단위 : 천㎡, %)

시·군	산 업 단지명	지정 면적	개발 대상	조성현황	
				면적	조성률
합 계	35개소	217,157	125,958	105,506	83.8
국가산단	5개소	174,871	83,671	76,879	91.9
여 수	여 수	51,229	35,632	34,210	96.0
여 수	삼일비축	4,157	3,777	3,777	100.0
광 양	광 양	96,405	29,091	24,634	84.7
영 암	대 불	20,852	12,942	12,942	100.0
함 평	빛그린	2,229	2,229	1,316	59.1

시·군	산 업 단지명	지정 면적	개발 대상	조성현황	
				면적	조성률
일반산단	30개소	42,096	42,096	28,645	68.0
목 포	삽 진	217	217	217	100.0
〃	대 양	1,545	1,545	1,545	100.0
〃	세라믹	116	116	116	100.0
여 수	오 천	222	222	222	100.0
〃	율 촌 1	9,107	9,107	9.082	99.7
〃	율 촌 2	3,793	3,793	0	0.0
〃	묘 도	368	368	26	18.0
순 천	순 천	577	577	577	100.0
〃	해 룡	1,593	1,593	985	61.8
나 주	문 평	323	323	323	100.0
〃	나 주	549	549	549	100.0
〃	혁 신	1,789	1,789	1,789	100.0
〃	신 도	298	298	298	100.0
광 양	황 금	1,116	1,116	679	60.8
〃	신 금	398	398	398	100.0
〃	익 신	474	474	474	100.0
〃	세 풍	2,427	2,427	474	19.5

담 양	담 양	581	581	581	100.0
화 순	생물의약	755	755	755	100.0
장 흥	바이오식품	2,892	2,892	2,004	69.3
강 진	강 진	655	655	655	100.0
해 남	화원조선	2,056	2,056	139	6.8
영 암	삼 호	2,971	2,971	2,971	100.0
“	용 당	351	351	0	0.0
무 안	운 남	85	85	51	60.0
함 평	동함평	739	739	739	100.0
영 광	전기자동차	1,652	1,652	1,652	100.0
장 성	나 노	901	901	901	100.0
진 도	군 내	686	686	418	61.0

시·군	산 업 단지명	지정 면적	개발 대상	조성현황	
				면적	조성률
도시첨단	1개소	190	190	8	4.0
순 천	도시첨단	190	190	8	4.0

3) 농공단지 조성

도는 2021년까지 21개 시·군 69개소(11,810천㎡)를 지정해 지금까지 60개소를 조성 완료했고, 조성 중인 농공단지는 11개소(화양한옥, 해룡선월 남평, 운곡, 자연드림파크2, 대서, 동강특화, 몽탄, 명암축산, 영광식품, 해양생물)이다.

입주 희망 기업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복합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특화농공단지는 3개소(순천 외서, 고흥 무인항공, 해남 식품특화2)를 신규로 조성 및 육성할 계획이다.

농공단지 분양현황은 분양공고 면적 7,885천㎡ 중 7,685천㎡이며, 분양률은 97.5%이다. 미분양된 201㎡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통해 이른 시일 내 분양 완료할 계획이다.

【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2021. 말 기준 】

구 분	지정면적 (천㎡)	조성완료 (천㎡)	분양 현황(천㎡)				평당분양 가격(천원)
			분양공고	분양면적	미분양	분양률	
농공 단지	11,431 69개단지	10,192 60개단지	7,885	7,684	201	97.5	51,419원/㎡

추진부서 지역계획과장 송광민, 산단지역개발팀장 김성수, 담당자 고재갑, 이경윤

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1)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국가·일반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근로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순천 일반산단('16~'21, 102억원), 여수 오천일반산단('18~'23, 134억원), 여수국가산업단지(용역 중) 3개소가 선정되었고, 총 2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도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농공단지는 35개소이며, 노후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위해 근로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34개소, 42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2년에는 여수화양, 담양무정 등 10개소에 균특 21억원 지원(시군비 포함 42억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개선에 따른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기업 생산성 증대와 시설 개보수사업 지속 추진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 촉진 도모를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산업단지 기반시설

도는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물류 수송 기능 강화 및 입주기업 생산활동 중대 기여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입도로는 여수국가산단 등 17개 산업단지에 1조 5천억원, 공업용수는 12개 산업단지에 786억원 지원하였다.

앞으로 무안항공특화산단, 광양 세풍산단 진입도로에 4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 조성될 산업단지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지역계획과장 송광민, 산단지역개발팀장 김성수, 담당자 고재갑, 이경윤

1-4.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건설사업 품질향상

전남도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해빙기, 우기, 하반기) 현장 안전점검 및 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주요 안전사고 유형인 추락 및 협착 등을 대비하여 위험공정 작업 전 현장관리인의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시작하는 '작업허가제'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제도를 시행중이며, 또한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원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건설 관련 17개 분야에 20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기술사항에 대한 평가·심사를 통해 지역 건설 기술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 공법 및 자재를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한 '공법·자재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 건설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전남도는 도내 건설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등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다.

지역 건설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위원회를 개최하고있으며, 지금까지 도내 대형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제고 및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국가 발주 대형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등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모색하고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상생 발전 워크숍' 개최를 통해 건설산업 활성화 및 기술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남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지역계획과장 송광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영택, 담당자 박종문

2. 사회기반시설(SOC) 르네상스 시대 조성

2-1. 철도 구축

가.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목포) 건설

전남도는 오송~목포간 호남고속철도(259.9km)를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통 및 생활축의 양대 기간망으로 형성하기 위해 지난 199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2003년 11월까지 50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했으며, 2004년 10월 중부권 분기역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을 시행해 2005년 6월 중부권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확정했고, 2006년 8월 기본계획을 고시, 2008년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Ⅰ단계 구간(오송~광주송정)은 2009년 12월 착공해 2015년 2월 준공했고, Ⅱ단계 구간(광주송정~목포)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기본계획이 2012년 8월 변경 고시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2014년 9월 나주,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가 적게 드는 기존선로 개량방안을 수년째 검토해, 2016년 8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2015년 7월 15일, 부처간 이견이 없는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우선 추진하고 고막원~목포 구간은 지속 논의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이에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말 착공해 2019년 6월 기존선 고속화를 마쳤다.

고막원~목포 구간은 2017년 3월 28일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정부안의 통과와 'Ⅱ단계 사업 조기 완공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마침내 2017년 11월 30일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최종 확정됐다.

도는 2018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계획된 사업 기간보다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했다.

마침내 호남고속철도 Ⅱ단계는 2020년 7개 공구로 나누어 4개 공구(1·3·6·7)는 일반공사로 발주하고 3개 공구(2·4·5)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으로 추진되어 착공하였다.

2020년 12월 도 주관으로 국가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가 경유하는 나주시, 함평군, 무안군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토지보상, 민원해결 등 주민불편 해소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는 호남고속철도 Ⅱ단계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Ⅱ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접근성이 대폭 확충되어 수도권 이남지역과 경남권, 전남 동부권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철도

경전선은 삼량진역에서 광주송정역을 잇는 277.7㎞의 간선철도 노선이다.

도는 일제강점기 개통 후 비전철 단선철도로 남아있는 경전선의 전철화를 통한 영·호남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를 위해 광주

송정~순천구간의 선형개량 및 전철화를 꾸준히 건의하여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다.

이후, 2012년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용역시행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사업) 발표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도는 2019년 4월 도민 명예기자단, SNS 서포터즈단 등 170여 명과 함께 경전선의 전철화 조기 추진 필요성을 알리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388㎞, 6시간 30분 열차 타기 '느림보 열차' 체험행사를 가져 전 국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2019년 12월 광주송정~순천간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경전선 전 구간 개량이 확정되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

전 구간 전철화 및 개량이 완료되면 목포역, 광주송정역과 부산 부전역 사이를 잇는 경전선과 보성~임성리 철도(남해선)와 함께 목포~부산 전 구간이 연결되어 최대 6시간 30분대의 운행시간이 2시간 20분대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 보성~임성리 철도(남해선) 건설

전남도는 목포권과 광양만권을 연계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동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보성~목포간 남해안철도 건설을 1998년 12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했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사업은 2000년에 기본계획(용역비 40억원)이 완료되고 경제성(B/C 1.04)이 인정되어 2003년 12월 2개 공구 17.6㎞가 턴키공사로 착공했으나, 2007년 국토교통부의 준공사업 우선 추진방침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다.

도는 2009년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을 재조사해 당초 복선전제 단선에서 단선으로 계획을 축소 변경했다.

이후 도민들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8년이 지나서야 중단된 2개 공구(2, 7)의 공사를 2015년 2월 재개했으며, 나머지 5개 공구(1, 3~6)도 2015년 11월 착공했다.

도는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단선 철도를 단선전철로 변경하는 전철화사업을 반영했으며, 철도사업과 병행해 전철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2018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하였다.

2017년 10월 궤도, 건축 시스템분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8년 6월 완료하였고, 2019년 11월 보성~임성리 전철화사업이 KDI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통과하였다.

2019년 9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구간(2, 7) 궤도 공사가 착공되었고 2022년 3월 현재 노반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철화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전철화 사업까지 준공되면 시운전 등 전체 시설물에 대한 종합 시험을 거쳐 개통할 계획이다. 목포~부산간 소요시간이 6시간 40분대에서 2시간 20분대로 크게 단축돼 남해안 권역의 동반 성장 및 동북아경제권를 연결하는 신성장동력이 되어 본격적인 남해안시대 개발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추진현황

전남도에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사업 및 반영된 철도망 구축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건의사업

①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노 선 : 전북익산~전주~남원~전남 곡성~순천~ 여수

▸사업량/사업비 : L = 180.4㎞(복선전철) / 총 5조 7,700억원

② 호남고속선(제주연장)

▸노 선 : 서울~목포~해남~완도~제주

▸사업량/사업비 : L = 167.0㎞(복선전철) / 총 16조 8,000억원

③ 서해남부선(서해안철도)

▸노 선 : 목포~무안~함평~고창~부안~군산

▸사업량/사업비 : L = 141.40㎞(단선전철) / 총 2조 3,056억원

④ 광주대구선(달빛내륙철도)

▸노 선 : 광주~담양~남원~거창~합천~ 대구

▸사업량/사업비 : L = 203.7㎞(단선전철) / 총 4조 850억원

⑤ 광주나주선(광역철도)

▸노 선 : 광주~효천~혁신도시~ 나주

▸사업량/사업비 : L = 21.0㎞(복선전철) / 총 8,770억원

⑥ 광주화순선(광역철도)

▸노 선 : 광주~소태~선교~화순

▸사업량/사업비 : L = 12.4㎞(복선전철) / 총 5,225억원

⑦ EUM정비기지

▸사업구간 : 전남 여수시 일원

▸사업량/사업비 : 1식 / 총 3,000억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사업

① 전라선

▸노 선 : 전북익산~전주~남원~전남 곡성~순천~여수
▸사업량/사업비 : L = 89.2㎞(복선전철 고속화) / 총 3조 352억원

④ 광주대구선

▸노 선 : 광주~담양~남원~거창~합천~ 대구
▸사업량/사업비 : L = 198.8㎞(단선전철) / 총 4조 5,158억원

⑤ 광주나주선(광역철도)

▸노 선 : 광주~효천~혁신도시~ 나주
▸사업량/사업비 : L = 28.1㎞(복선전철) / 총 15,235억원

③ 군산목포선(추가 검토사업)

▸노 선 : 목포~무안~함평~고창~부안~군산
▸사업량/사업비 : L =121.0㎞(복선전철)

□ 진행 중인 사업

①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건설

▸노 선 : 광주송정~나주~무안국제공항~목포(2015 ~2025)
▸사업량/사업비 : L = 77.8㎞ / 총 2조 5,253억원

② 보성~임성리철도(남해선)건설

▸노 선 : 보성~장흥~강진~해남~목포(2002 ~2023)
▸사업량/사업비 : L = 82.5㎞ / 총 1조 6,159억원

③ 경전선 건설사업 추진 : 총사업비 협의 중(기획재정부)

▸노 선 : 광주송정~나주(혁신도시)~보성~순천(2020 ~2028)
▸사업량/사업비 : L =122.2㎞(단선) / 총 1조 7,703억원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철도공항팀장 허재철, 담당자 김순종, 김갑수**

2-2. 도내 1시간대 도로망 구축

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전남도는 국가기간교통망 남북2축 간선도로 연결 완성으로 중·서부권과의 접근성 및 관광 연계성을 향상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광주~완도간 고속도로(88.61㎞) 개설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도는 1999년 12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된 이후, 2013년까지 지역주민·지자체·정치권이 공동으로 정부에 수차례 사업 착수를 요청했고, 4차례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나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도는 교통수요 등 여건 변화와 우리 도민의 숙원을 사유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한 끝에 2014년 광주~해남구간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해 타당성 재조사 실시 결과, 광주~강진간 51.11㎞ 구간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우선 착공했다.

사업 구간 축소에 따라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조기 완공을 위해 1단계(광주~강진, 51.11㎞)를 2024년 개통을 목표로 2017년 8월에 우선 착공했으며 민선 7기 동안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도는 잔여구간인 2단계(강진~해남, 37.5㎞) 또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됐으므로 1단계(광주~강진)와 연계해 2024년 이전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도로계획팀장 조선희, 담당자 김재곤 . 류원식

나.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전남도는 대도시 생활권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광주 하남~장성 동화~장성 삼계 구간 15.4㎞에 대해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1,1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매칭 예산으로 투입되며, 전라남도 구간 7.4㎞, 광주광역시 구간 8.0㎞에 대해 각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사를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광주~장성축 광역도로 확충으로 지역간 연계 교통망 확보 및 생활권 확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기회 부여와 인접 영광의 한빛원전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를 위한 방재도로 확보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07년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2009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된 후 2015년까지 국토교통부 재정투사심사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결과 민선7기인 2020년에 경제성분석(B/C)에서는 0.95로 다소 낮았으나 종합평가(AHP) 결과 0.59로 어렵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도는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21년에 즉시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광주광역시와 용역을 완료 후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도로계획팀장 조선희, 담당자 김재곤 . 임정우

다. 광주3순환 고속도로

광주3순환 고속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간 도로 등급체계 일원화로 고속교통망 기능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 도심 통과 차량을 우회시켜 도심권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나주 금천~장성 진원~담양 대덕~화순 도곡~나주를 연결하는 순환망 도로로 총 5개 구간 98.6㎞에 대해 3조 5,640억 원이 투자된다. ▲1구간 승촌~본량 14.85㎞ 2,087억 원, ▲2구간 본량~진원 16.15㎞, 4,951억 원, ▲3구간 진원~대덕 17.0㎞, 4,573억 원, ▲4구간 대덕~화순 32.0㎞, 1조 3,508억 원, ▲5구간 화순~금천 18.6㎞, 1조 521억 원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구간(승촌~본량)은 전남도에서 2013년에 국지도 49호선으로 개통되었으며, 3구간(진원~대덕)은 2008년에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개통 공용중이다. 또한 2구간(본량~진원) 중 9.5㎞는 2022년 준공을 목표를 3,063억 원을 투입해 공사 중에 있다.

나머지 5구간(화순~금천)은 민선 7기인 2022년 2월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되었으며, 조기에 착공토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 중에 있다. 아울러 4구간(대덕~화순)에 대해서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도로계획팀장 조선희, 담당자 김재곤 . 류원식

라. 연륙·연도교 건설

전남도는 교통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확충과 섬, 해변 등 해양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도로망 조기 구축과 국도 77호선 등 연결을 위해 2030년까지 114개소에 14조 6,106억 원을 투입해 연륙·연도교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6조 6,315억 원을 투입해 66개소를 준공했으며, 10개소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등 국가계획에 반영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도로계획팀장 조선희, 담당자 김재곤 . 류원식

마. 국도 확·포장 및 우회도로 건설

전남도는 1994년부터 지역 간 연결 간선도로를 확충하고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국도 확·포장 및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2030년까지 총 126개 지구에 13조 8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21년까지 10조 2,465억 원을 투입해 126개 지구를 건설했으며, 그 중 102개 지구는 준공했다.

도는 2022년에 1,918억원을 투입해 국도 77호선 압해~화원, 화태~백야,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24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서지역과 해안의 접근성을 향상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도 77호선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조기에 건설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도로계획팀장 조선희, 담당자 김재곤 . 류원식

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전남도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2027년까지 총 39개 지구에 3조 3,994억 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담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보상비는 지방비 100%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1년까지 27개 지구에 2조 1,522억 원을 투입해 21개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6개 지구는 추진 중이다.

2022년에는 6개 지구에 439억 원을 투자해 도계~장성 지구는 준공할 예정이며, 남평~화순 등 5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는 공사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공사비와 보상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도로계획팀장 조선희, 담당자 김재곤 . 임정우

사.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

전남도는 1981년부터 지역간 도로망 연결체계를 구축과 농수산물 및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7조 3,7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8개 노선, 1,963㎞의 지방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2011년까지 매년 평균 300~400억원의 양여금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했으나, 2012년 이후 양여금이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가용할 예산이 줄어들어 순수 지방비로 매년 평균 982억원을 투입했다.

도는 지방도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계속사업 지구는 구간별로 조기에 완공하고, 대규모 신규공사 발주는 지양하고, 공사 중 보상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선 보상 후 착공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연도별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실적 】

(단위 : ㎞, 억원)

연도	사 업 량		사 업 비
	지 구 수	연 장	
2020	31	113.26	1,065
2021	30	111.66	1,131
2022	35	124.16	1,800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도로시설팀장 조준호, 담당자 김보형**

2-3. 도로 유지관리

가.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관리

1) 지방도 유지관리

전남도는 1992년부터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형이 좋지 않은 급커브 도로나 도로구조 기준에 미달한 도로, 굴곡위험도도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로 및 갓길 정비사업을 통해 지방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도는 2021년까지 지방도 54개 노선 2,898㎞와 교량 508개교 및 터널 18개소에 대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차로 개선, 설해대책 수립,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등에 4,567억원을 투입했다.

도는 2022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14개 분야에 406억원을 투입할 것이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형개량 등 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위임국도 유지관리

전남도는 2009년부터 도내 국도의 31.7%인 9개 노선 24개 구간 600㎞와 교량 109개교, 터널 7개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했다.

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험도로 개선, 병목지점 개선,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도로유지 보수 등 총 1,201억원을 투입해 유지·보수했다.

도는 2022년에 국도 위험도로 개선 등 5개 분야에 266억원을 투입할 것이며, 도로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국, 보수팀장 허정환, 담당자 김우형, 김태민
포장팀장 김용채, 담당자 변정원
교량팀장 배경석, 담당자 박윤석, 신성환

나. 마을 앞 보행로 및 지방도 갓길 정비사업

전남도는 2016년에 5개년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235개소, 144㎞, 총사업비 926억원)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도 인접 농경지와 마을 통과 구간의 보행로, 갓길을 정비하고 있다.

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 앞 보행로 39개소와 갓길 47개소에 207억원을 투입해 정비했고, 2022년에는 23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국, 포장팀장 김용채, 담당자 변정원

다.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

전남도는 관리하는 지방도 내 교량 중 지진에 취약한 교량을 우선순위를 정해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도 상 교량은 총 508개소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52억원을 투입해 55개소를 보강했다.

도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이용 빈도가 높은 교량, 길이 100m 이상의 장대교량부터 단계적으로 성능보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국, 교량팀장 배경석, 담당자 박윤석, 신성환

라.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전남도는 도로 파손 방지와 사고예방을 위해 고정검문소(남평)와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 총 215,754대를 검차해 311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50,683천원을 부과했다.

【 연도별 과적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

(단위 : 건/천원)

구분	2019	2020	2021
검차/적발	81,239 / 115	73,289 / 83	61,226 / 113
과태료 부과	54,702	43,161	52,820

추진부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국, 장비팀장 문주현, 담당자 김성환

2-4. 공항 활성화

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도는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서 중국·일본·동남아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운항 노선 확대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취항을 시작한 무안국제공항은 개항 초기 15천 명이던 이용객이 2019년에는 일본, 중국 및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몽골(울란바토르),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29개 노선 5,195편의 국제선이 운항하였고, 국내선은 제주, 김포 2개 노선

1,386편의 국내선이 운항하여 총 6,385편 895천명이 이용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COVID-19) 발생에 따른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강화 방침으로 국제선 운항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되면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었고, 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에 따른 국내선 운항마저 감소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은 급감하였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꾸준히 노력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를 전구간 착공하였고 서부권 지역의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도 2호선과 무안국제공항간 연결 도로의 4차선 확포장공사도 완료하였다.

또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대형항공기 취항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재 2,800m인 활주로 연장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활주로를 3,160m로 연장하는 안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1,871면인 주자장을 3,284면으로 증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객청사 재배치, 면세점 확장, 셀프체크인 설치 등을 위한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중에 있다.

국제선 및 국내선 신규 노선 유치 등을 위한 항공사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항공사와 협력하여 무안국제공항 이용 및 활성화 공모전을 추진하여 2021년에는 500여 명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고 홍보 사진 및 영상을 제작 응모하기도 하였다.

도는 위드 코로나 재개에 따른 국제선 취항 증가와 함께 흑산공항 개항,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이용객 증가에 따라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현재 개발중인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항공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미래 성장동력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현황 】

(단위 : 편, 천명)

구분	'07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운항	224	875	923	1,237	1,499	2,355	2,330	2,146	3,818	6,585	930	612
여객	15	91	96	133	178	312	322	298	543	895	113	21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공항개발팀장 홍일권, 담당자 이명재

나. 흑산공항 건설

전남도는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 제공 및 관광객 편의 증진, 해양영토 수호 전진기지 구축 등을 위해 '흑산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1,833억 원을 투입해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683천㎡ 부지에 50인승 이하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1,200m (B=30m)의 소형 공항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3년 3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높은 경제성(B/C 4.38)이 인정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12월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 심의를 위해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자연환경 훼손, 철새 이동 경로 방해 등을 이유로 공원계획 변경 보류를 결정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새 보호 대책과 관계부처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을 보완 제출하였지만, 국립공원위원회는 항공기의 조류 충돌 가능성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이유로 보류 판정을 유지하고 계획보완을 재요구하였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항의 집회 개최 및 청원서 제출 등 통해 흑산공항 건설공사의 조기 추진을 요구하였고, 도는 건의문 제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면제 건의, 공항 필요성 홍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0년 8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해제(대체편입) 기준을 제시하자 신안군에서는 지도 선도갯벌 5.3㎢를 대체부지로 선정하였고, 대체부지에 대해 환경부와 해수부의 이견 조율 과정에 해수부가 비금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변 해역 5.5㎢를 대체부지로 제시하고 이를 환경부에서 수용하면서 2021년 7월 국립공원 총괄협의회의 심의가 통과되어 국립공원위원회의 개최를 기다리는 중이다.

전남도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2022년 상반기에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2년 연내 공사 착공을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중이다.

흑산공항 건설로 중국 등 불법조업 선박 감시 및 해양 영토수호와 더불어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서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공항개발팀장 홍일권, 담당자 이명재**

2-5. 도민 이동권 보장

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등 운영

전남도는 장애인,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현재 22개 시·군 총 182대(2021년 12월 말 기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도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요청이 있으면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도록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기존에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기본 2㎞ 500원, 1㎞ 추가 시 100원, 시내버스 요금 상한)으로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콜택시 보완 수단으로, 보행이 가능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토록 하여 기존 장애인 콜택시 수요를 줄임으로써, 휠체어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대기시간을 단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1년 9월부터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우처택시 89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 했던 대기시간이 단축되자 바우처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도입 이후 전체 교통약자 이용객 수가 증가 하였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교통기획팀장 이병권, 담당자 위문일, 정영준

나. 교통취약지역 이동 지원

전남도는 2014년부터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100원 택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00원 택시사업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이 콜택시를 불러 100원만 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에 데려다주고 100원 이외의 차액은 지자체가 택시회사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도는 '100원 택시사업'에 주민들의 참여 제고를 위해 오지마을별로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시회사, 이용자, 이용권 배부 방법 결정 등 운영에 참여시키고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했다.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 오지마을 주민들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거나 생필품 구입을 위해 장보러 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동시 비싼 택시요금을 주고 이동해야 했다.

도는 100원 택시 사업을 통해 오지마을 주민이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100원 택시 사업은 미국 뉴욕타임즈에 소개 되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용객 인터뷰 내용 중에 100원 택시는 "신의 선물이나 다름없다"라는 발언이 실린 것이다.

오지마을의 대중교통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추진 과정의 일환으로 100원 택시 사업을 활용하여, 교통 이동권 보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100원 택시 사업 운영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사업대상			소요사업비			
	시군	대상지역(마을)	이용자수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8	22	880	26,558	5,631	1,100	330	3,648
2019	22	975	28,274	6,073	2,530	330	4,820
2020	22	988	32,450	7,829	2,780	330	3,970
2021	22	1,331	33,124	7,042	1,194	330	5,518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교통기획팀장 이병권, 담당자 위문일, 정영준**

다. 교통안전문화개선 추진

전남도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 5.9명보다 2배 이상 높은 15.5명이며, 보행자 위반, 안전 운전 불이행에 의한 사망자는 202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 등의 교통안전문화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379개소, 317억원 및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1,156개소, 223억원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며, 유관 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도는 전남교통연수원을 활용해 운수종사자·어린이·노인 등 4만 6천명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전남 교통안전 토론회, 범도민 전진대회, 각종 세미나를 통한 홍보와 TV·라디오 언론매체를 활용한 기획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도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교통관리팀장 박병수, 담당자 최성근**

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이륜차) 관리

2021년 12월 말 기준 전남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172,282대로 전국 24,911,101대의 약 4.7%를 차지한다. 또한, 이륜차 등록 대수는 111,058대로 전국 2,213,837대의 약 5%이다.

도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연 2회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3,515대를 단속하는 등 도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도내 6개 시·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에서는 시설과 인력 조건에 적합한 민간 자동차 검사소 150개소를 지정,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 및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도와 시·군에서는 도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5대 불법 주·정차구역을 중심으로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터미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교통관리팀장 박병수, 담당자 정성혁

3. 도민 행복 주거복지 실현

3-1. 주거 안정화 지원

전남도 내 주택 수는 802,043호(2020년 12월말)로 주택보급률은 112.6%에 이르지만,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285,171동(35.6%)으로 전국 평균(20.83%) 보다 높고, 빈집(2.4%)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노후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빈집의 실태를 파악해 농어촌 체험과 귀농·귀어민에게 리모델링 후 공급하는 활용방법과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등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가. 행복둥지사업 추진

전남도는 2016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비수급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행복둥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행복둥지사업은 주거안전시설(구조, 전기, 가스 등)과 생활편의시설(단열, 누수, 부엌, 화장실 등) 개선에 중점을 두고 불량 노후주택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의 도움을 받아 전라남도건축사회, 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약을 맺고 재능기부를 받아 민·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2016~2021까지 130억원을 투입해 872가구를 지원했고, 2022년에는 16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201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국가·독립유공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복권기금 확보를 통한 가구당 25백만원 내외 지원으로 주거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 연도별 행복둥지사업 추진실적 】

(단위 : 가구)

구 분	합 계	2016 ~2018	2019	2020	2021
합 계	218	348	167	192	165
기초생활수급자	110	181	82	113	103
차상위계층	103	158	69	65	51
국가·독립유공자	5	9	16	14	11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주택행정팀장 김지호, 담당자 김상수

나. 주거급여 지원사업

전남도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재도 내 소득, 가구원수, 주거유형(주택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2015년 6월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급여 체계로 지원해왔으나, 통합급여 체계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자격을 상실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그해 7월부터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4개 급여로 분리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2018년 중위소득 43%이하에서 2022년 중위소득 46%이하로 늘리는 등 꾸준히 확대해왔다.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확대 지급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 소득,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급여,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에게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 개보수(경, 중, 대)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도는 2018년 35천가구(임차 33, 수선 3)에 518억원, 2019년 38천가구(임차 34, 수선 4)에 639억원, 2020년 40.7천가구(임차 38, 수선 2.7)에 717억원, 2021년 41천가구(임차 39, 수선 2)에 7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했다.

도는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2년 중위소득(천원)	1,945	3,260	4,195	5,121
주거급여(중위소득 46%이하)	895	1,500	1,929	2,356

【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지붕,욕실, 주방개량 등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주택행정팀장 김지호, 담당자 이용헌

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전남도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주택 내에 이동 편의시설(출입문·화장실 손잡이,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사업이며,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가구로서 장애등급, 가구당 장애인 수,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을 모두 지원하며, 소용 비용(가구당 380만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5)한다.

도는 2018년 200가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89가구를 지원했고, 2022년에도 190가구를 지원하여 농어촌 장애인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실적 】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지원가구	767	200	189	189	189
지원액(천원)	2,914,000	760,000	718,000	718,000	718,000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주택행정팀장 김지호, 담당자 이용헌

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전남도는 1976년부터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낡은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에 지원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하며, 대상은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의 신·개축을 하는 주택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개축,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 연 2%의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및 2024년까지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2021년까지 2조 0,195억원을 투입해 주택 93,059동을 개량했고, 2022년에는 1,459동을 개량할 계획이다.

도는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 가구 등을 우선해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인구유입과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주택개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연도별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실적 】

구 분	합 계	1975~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
사업량(동)	93,059	86,888	1,415	1,752	1,545	1,459
사업비(억원)	20,195	16,962	827	796	772	838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주택행정팀장 김지호, 담당자 이서현

마. 전라남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기본법」 제6조 및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도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담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2021.7.)했다.

물량공급에 중점을 둔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주거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정책방향을 설정하였고, 인구·가구 등 주거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했다.

도는 소득계층 간의 주거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주거종합계획 정책 추진 방향 】

추진방향	추진전략
1. 지역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추진	1) 블루시티 설계지침 수립 및 보급 2) 전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3) 전남형 귀농·귀촌 주거지 설계지침 수립 및 조성 4) 주거지 통합형 실버주택 설계지침 수립 및 보급
2. 전남형 주거복지 기반 구축	1) 주거복지 기반 강화 2) 주거수준 향상 3) 주거부담 수준 완화 4) 맞춤형 주택자금 지원
3.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추진	1)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추진 2)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문화 구축
4. 정비와 관리를 통한 삶터의 질 개선 활성화	1) 체계적인 노후주택 및 빈집 관리 추진 2)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지 정비 확대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주택행정팀장 김지호, 담당자 김상수**

3-2.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전남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안전점검비, 화재대비 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민 다수가 주거약자로서 자체 관리가 어렵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22년도 지원 규모는 도비 240백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화재대피시설(비상문 자동개폐 장치 등), 근로자(경비원, 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단지 내 공용시설비용물 유지보수 지원이 해당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1까지 290개단지 2,124백만원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 했다.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주택행정팀장 김지호, 담당자 김승연

나. 공동주택 품질 관리

전남도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2014. 4. 10.) 했다.

1)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구조·시공·토목·기계·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6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점검시기는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 공사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 총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2022년부터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골조 중 품질점검을 통해 슬래브 두께, 완충재 설치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으로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줄어드는 등 건전한 주택건설 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했다. 도는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 함으로써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에 힘쓸 계획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최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6개 단지 2,329건의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2) 공동주택관리지원단 구성·운영

전남도는 2015년부터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용역, 공사의 사업자문과 단지 관리비 집행실태 감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건축사 등 9명으로 구성하고, 관리비 컨설팅(관리비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 등)과 조사·감사(관리비, 잡수입, 관리규약 준수 등) 업무를 수행했다.

관리지원단은 2015년 9월부터 2021년까지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64건의 불합리한 회계집행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주택행정팀장 김지호, 담당자 김승연, 이서현

다. 빈집 정비사업

전남도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은 19,471동이며, 2021년까지 264억원을 투자해 39,969동을 정비했고, 빈집을 정비 후 부지를 농어촌 마을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마을 주차장, 한뼘 공원, 마을쉼터, 운동시설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다.

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빈집정보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빈집 관리와 빈집 정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약으로 빈집정보 시스템인 공가랑을 통해 구축·운영하고 있다.

【 빈집정비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1,518	1,836	1,449	2,064	1,443	2,021	1,356	1,481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주택행정팀장 김지호, 담당자 이서현

라.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전남도는 도민의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9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보조금을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5월에 제정된「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목욕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한편, 도는 2019년 1개, 2020~2021년 20개 등 총 21개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도 시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200여 개 건축물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시군	개소	지 원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19	순천시	1	26	13	-	13
2020~2021	8개 시군	20	518	259	-	259
2022	22개 시군	202	5,386	2,693	-	2,693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건축안전T/F팀장 조영현, 담당자 이관후

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전남도는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고단열 벽체, 고효율 설비 등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이며, 소요 비용(약 ㎡당 100만원 소요)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7:3)한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대상 사전 조사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시군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유도, 2020년 72개소, 2021년 84개소가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녹색건축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제1회 녹색건축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토부장관상을 수상('21. 10.)하였다.

도는 앞으로도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주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침체된 우리 지역 건설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실적 】

구 분	합 계	2020	2021
개소	156	72	84
사업비(백만원)	54,096	27,954	26,142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건축관리팀장 김선주, 담당자 이유나

바. 새꿈도시 조성사업 추진

전남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에 맞춰 농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세대 이상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인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새꿈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새꿈도시 조성사업 재정지원 세부지침」을 개정(2021. 4.)해 지원 기준세대를 100세대에서 50세대로 낮췄다. 새꿈도시 조성사업 기반시설비는 지구당 최대 30억원(도비15, 시군비 15)까지 지원할 수 있다.

도는 2009년에 새꿈도시 후보지로 38개소를 최초 지정한 후 2022년 현재는 4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 담양 매산지구, 담양 대덕지구, 무안 월선지구 4개의 선도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은 150천㎡의 부지에 300세대 입주 계획으로 지금까지 1단계 50세대에 129명이 입주 완료했으며, 담양 매산지구는 211천㎡의 부지에 298세대 입주 계획으로 대지조성 공사 중에 있다.

담양 대덕지구는 95천㎡의 부지에 100세대, 무안 월선지구는 227천㎡의 부지에 239세대 입주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다.

도는 새꿈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테마형 새꿈도시를 발굴하고, 기 후보지 대상 각종 박람회 및 행사 참여 홍보, 민간개발 사업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팸투어 등 입주자 홍보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주택행정팀장 김지호, 담당자 김승연

사. 한옥마을 조성

전남도는 2006년부터 농어촌 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한옥(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주민과 후손들이 마을을 보존하면서 도시민들이 돌아와 활력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는 2007년부터 행복(한옥)마을 110개를 선정해 한옥 1,869동 건립을 위한 보조, 융자, 기반시설비 등 939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1,507동을 완공하고 362동을 조성하고 있다.

도는 2016년에 사업 명칭을 '행복마을'에서 '한옥마을'로 변경하고, 신청 자격을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에서 신청 시 신축 예정부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완화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을 최대 4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그 결과 귀농, 귀촌, 은퇴자 등 새로운 인구가 마을에 유입되고, 도·농 교류 활성화와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 한옥(행복)마을 및 건립 대상자 선정현황 】

(단위 : 개소, 가구,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7 ~ 2017	2018 ~ 2021	비 고
마을수	110	107	3	
가구수	1,869	1,736	133	
보조금	31,139	30,329	810	
융자금	46,725	40,586	6,139	
기반시설비	15,750	15,600	150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주택행정팀장 김지호, 담당자 김상수

아.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전남도는 2010년부터 한옥 문화관광 명소화, 한옥 산업분야 지역 인재 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한옥을 주제로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했다.

도는 2019년까지 7차례 박람회를 개최해 한옥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참여업체 확대 등 한옥의 산업화를 위해 노력했다.

도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박람회를 2019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산업의 정보교환 및 습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 한옥건축박람회 추진실적 】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기 간	2010.10.26 ~10.31	2012.10.27 ~ 11. 1.	2013.10.31 ~ 11. 5.	2015. 4.9. ~ 4.12.	2016. 4.7. ~ 4.10.	2017. 4. 6. ~ 4. 9.	2019.10.11. ~ 10.13.
주 제	천년의 유혹, 녹색의 감동	천년을 품은 지혜, 미래를 짓는 한옥	한옥의 현대화	한옥, 그 오래된 미래	한옥의 재발견	미래건강 주거 한옥 4.0	역사가 있는 건축, 살고 싶은 집 한옥
주요행사	7종, 34개 행사	6종, 17개 행사	7종, 27개 행사	5종, 17개 행사	5종, 24개 행사	5종, 25개 행사	5종, 5개 행사
방문객	약 92천명	약 75천명	약 102천명	약 200천명	약 120천명	약 200천명	약 20천명

추진부서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주택행정팀장 김지호, 담당자 김상수

4. 도민 행복 토지행정 구현

4-1. 토지거래 안정화

가.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조사·결정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며, 부동산 보유세 및 개발부담금 등 산정과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의 급여 대상 선정,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남도는 도민 생활에 밀접한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산정과 지역 간 지가 균형을 위해 시·군 담당자의 직무 연찬을 수행하고,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와 주택의 특성 자료 일치를 추진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누락된 토지가 없도록 매년 조사 필지 수를 증가시켜 2021년에는 523만 필지(전체 필지 수의 89.7%)를 조사하였다.

또한,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토지의 실거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지가 상승률이 10.43%(전국 평균 상승률 9.95%)로 높게 나타났다.

도는 앞으로도 개별토지가격 현실화 등 도민의 요구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현황 】

연 도	조사필지 수(필)	지가총액(억 원)	평균지가(원/㎡)
계	19,995,176	5,055,296	43,213
2018	4,777,459	1,123,923	9,726
2019	4,926,336	1,211,596	10,399
2020	5,060,187	1,289,501	10,999
2021	5,231,194	1,430,276	12,089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토지관리팀장 박석호, 담당자 신혜윤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

전남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기업도시, 산단 조성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7개 시·군, 10개 지역, 9.14㎢(도 면적의 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의 적합 여부를 검토받아 시장·군수의 승인 후 토지거래 하여야 한다.

실수요자 거래는 신속하게 허가하고, 투기성 거래는 불허가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의 위장증여·전매와 같은 불법적 거래를 금지하는 등 내실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허가구역을 해제(또는 축소)하는 등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는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때 허가 대상 면적 】

지 역		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150㎡를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	150㎡를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를 초과하는 토지
	임 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

【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

지 역		면 적 (㎢)	지정 기간	지정 사유
7개 시·군, 10개 지역		9.14	도 전체 면적 (12,345㎢)의 0.1%	
목포시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유달동 일원	0.21	2020.12.03.~2024.12.02. (4년)	목포 서산, 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여수시	만흥동 일원	0.27	2019.01.10.~2023.01.09. (4년)	만흥동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
	돌산읍 우두리 일원	0.20	2017.10.01.~2022.09.30. (5년)	돌산 상포지구
	여천동, 선원동 일부	0.30	2020.10.13.~2025.10.12. (5년)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
순천시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	0.48	2021.05.12.~2026.05.11. (5년)	순천 연향 뜰 도시개발사업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덕산리, 장산리 일원	1.66	2021.10.31.~2024.10.31. (3년)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 역		면 적 (㎢)	지정 기간	지정 사유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일원	2.36	2022.02.03.~2025.02.02. (3년)	나주 에너지 공대 연구소 및 클러스터
광양시	덕례리, 도월리 일원	1.18	2020.05.07~2025.05.06. (5년)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1.30	2019.11.13~2024.11.12. (5년)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1.18	2020.06.18.~2024.06.17. (4년)	고흥 우주 해양 리조트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토지관리팀장 박석호, 담당자 이대완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리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에 대한 관리 제도가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등 무질서한 부동산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전남도는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개발업자를 2007년부터 등록 관리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124개 업체를 신규 등록하였고 그중 66개 업체는 폐업·이전 등을 하여 58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규모 】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면적)
연면적 3천㎡ (연간5천㎡)이상	3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5천㎡(연간 1만㎡) 이상

【 전라남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현황 】

구 분	합 계	신 규	폐업, 이전, 취소
업체 수	58	124	66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토지관리팀장 박석호, 담당자 이대완

4-2.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전남도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전남의 경우, 목포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목포시의 경우 농지와 임야만 해당 된다.

2021년 12월 말 기준 확인서를 발급 신청한 토지는 41,792필지이며, 이 중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는 19,158필지이다.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을 위한 공고를 진행(19,055필지) 중이거나 이의신청으로 기각된 토지(2,678필지) 등이다.

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

(단위 : 필지)

연 도	확인서 신 청	발 급	미 발 급			
			소 계	공 고	기 각	취 하
계	41,792	19,158	22,634	19,055	2,678	901
2020	8,995	543	8,452	8,357	32	63
2021	32,797	18,615	14,182	10,698	2,646	838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지적팀장 김승채, 담당자 김영신

나. 지적확정측량 검사

지적확정측량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골프장 등 대단위 토지개발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토지의 지번, 지목 등을 지적공부에 새롭게 결정·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매년 아파트 등 택지개발사업,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골프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 성과와 지번, 지목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매년 실시하였고, 지적확정측량 사전 협의제와 컨설팅 제도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추진해 왔다.

특히 광양 와우지구, 무안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해남 산이 구성지구 신규등록 등 지적확정측량을 신속하게 검사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크게 기여했다.

【 지적확정측량 검사 현황 】

연 도	검사 필지 수(필지)	검사 면적(만㎡)
계	7,346	4,121
2018	580	964
2019	2,636	1,884
2020	3,643	827
2021	487	446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지적팀장 김승채, 담당자 김영신

다. 측량업 등록 관리

측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측량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업종별로는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등 11개 측량업이 있다.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등 8개 측량업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은 시·도지사에게 측량업을 등록하여야 측량업을 영위 할 수 있다.

전남도에는 총 251개의 측량업체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을 할 수 있고, 공공측량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 조사, 설계 등을 할 수 있다.

일반측량업은 공공측량의 설계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과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 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할 수 있다.

【 전라남도 측량업 등록 현황 】

구 분	합 계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비 고
업체 수	251	15	114	122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지적팀장 김승채, 담당자 고진수

라. 지적 전산망 활용을 통한 토지정보자료 제공

전남도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시·군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신분증을 상속인은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찾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호주 상속자,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적 전산망을 활용하여 조상 땅 찾기, 이외에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사법기관 수사, 각종 체납자 세금 징수 등을 위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96,306명 7,646,488필지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했다.

【 토지정보 제공현황 】

(단위 : 필지/㎡)

연 도	합 계		조상 땅 찾기		개별법에 따른 자료제공	
	제공 인원	제공 필지	제공 인원	제공 필지	제공 인원	제공 필지
계	196,306	7,646,488	27,965	133,097	168,341	7,513,391
2018	46,507	1,578,238	6,144	27,802	40,363	1,550,436
2019	39,931	1,668,978	6,489	31,119	33,442	1,637,859
2020	55,016	2,547,820	7,335	36,142	47,681	2,511,678
2021	54,852	1,851,452	7,997	38,034	46,855	1,813,418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지적팀장 김승채, 담당자 구진경

4-3. 도민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정보 구축

가.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공간정보는 실제 사물의 위치정보에 속성 정보를 덧입힌 융합·복합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실생활 속에 또 다른 가상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공간정보화 사업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와 속성 정보들을 컴퓨터와 같은 정보매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생활 편익을 위한 각종 도정 시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2004년부터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다 2020년에는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공간정보를 통합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공간정보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은 항공 영상 기반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영상 공간정보시스템, 공간정보 도민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참여마당(민간 개방), 드론 영상을 관리하는 드론 운영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간정보 분석시스템은 통신과 카드 정보(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그 외 중앙 연계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공간지원체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매년 민간빅데이터(SK통신+카드매출)를 구입하여 이동인구·유입인구·매출현황 등을 공간정보 분석시스템에 탑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이슈화되는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전라남도 공간정보 시스템 】

시스템명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공간정보 분석 시스템	중앙연계 시스템
	항공영상 공간정보	공간정보 참여마당	드론운영 관 리		
구축 년도	2020 ~ 2021			2015 ~ 2016	2006 ~ 2009
활용 및 주요 내용	항공영상 과지적도 중첩사용 *내부행정	관광명소, 여행지 등 방문 후기 *도민이용	드론촬영 신청, 결과 등 관리 *내부행정	공공,민간 빅데이터 분석 *내부행정	각종 토지정보, 공간정보 제공 (부동산종합공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공간지원체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내부행정

또한, 도는 2015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드론(무인비행 장치)를 도입해 택지 등 주요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항공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3D촬영 드론을 기종을 추가 도입하여 실·과 및 시·군 행정업무지원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 효율 증대 및 대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드론(무인비행 장치)촬영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2021년까지 501개소, 636.5㎢를 촬영하고 정사 영상을 만들어 시·군에 제공하여 19억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드론(무인비행 장치) 촬영 현황 】

연 도	촬영 현황		예산 절감(억 원)	비고
	개 소	면 적(㎢)		
계	501	636.5	19.1	㎢당 3백만 원
2015~2017	115	156.6	4.7	
2018	56	62.2	1.9	
2019	80	133.9	4	
2020	130	146.1	4.4	
2021	120	137.7	4.1	

공간정보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시, 농업, 산림, 해양, 환경 등 여러 분야의 흩어진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누구나 찾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는 각 시·군별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공간정보팀장 윤성식, 담당자 김창일**

나. 지하 시설물 전산화사업

정부는 1994년 12월과 1995년 4월 연이어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7대 지하 시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에 대한 위치정보를 공간정보 DB화하여 통합 관리하기로 하고 우선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지하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1997년 여수시를 시범지역으로 시작해 2021년까지 6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11,888㎞(5개 시는 전체지역, 17개 군은 군청 소재지 및 읍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을 현장 조사·탐사하고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전산화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도로상의 시설물과 상·하수도 등 7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하 매설물 설치 시 가스관 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를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주변 지역의 상수도·하수도·통신·전기·가스·난방·송유의 위험시설물의 현황을 즉시 파악해 조치함으로써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공동 활용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미 구축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하공간 3차원으로 표현한 지하 지도를 구축 중이며 2010년 이전 당시 지하 시설물도를 단순 옮겨적은 "시"단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측량 및 탐측하여 정확도 개선사업을 통해 더욱 정확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 중이다.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공간정보팀장 윤성식, 담당자 김창일

다. 주소정보사업 추진

도로명주소란「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를 표기해 사용하는 주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제가 도입한 지번 주소체계를 100여 년간 주소로 사용했다. 그러나 지번 주소체계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1개의 지번에 많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번만으로는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은 화재·범죄 등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우편 배달·위치 찾기 등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지번 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여 생활주소로 사용해 왔으며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전면 사용한 이후 현재 주민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대부분의 공적 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되어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와 같은 각종 민원 서류와 고지서에도 도로명주소로 발급 통지하고 있다.

최근, 주소정보산업 지원 등 주소정보를 이용하는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2020년)하여 2021. 6. 9.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도시변화에 대응 가능한 고도화된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그 관리 근거가 마련되었고, 사업 중심이었던「도로명주소법」을 관리·활용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 불편 개선, 도민 참여 확대, 산업 지원 등이 보완되었다.

도는 도로명주소 찾기 편의를 위해 13천 개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92천 개, 건물번호판 591천 개, 기초번호판 17천 개, 주소정보안내판 220개를 설치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주소정보 시설물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또한, 도로명주소법 시행 이후 도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해 도·시군 간 합동 방문 홍보(전통 시장, 축제장, 교육 기관, 택배 업체 등), 동영상 홍보(버스 안내판, 전광판 등) 등을 매년 추진한 결과 시·군별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93%에 이르렀다.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공간정보팀장 윤성식, 담당자 엄태철

라. 주소정보를 활용한 위치 찾기 선진화 추진

도는 주소정보를 활용한 위치 찾기 선진화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물주소 부여, 국가지점번호 부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 부여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업무용 빌딩, 병원 등의 동·층·호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우편물, 택배의 분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물류비용 절감 및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도는 다중·다가구 주택에 4천 건(2018~2021년)을 부여하였고 앞으로는 상가, 업무용 빌딩, 병원 등 건물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등 시대변화에 맞추어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일환으로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10종 시설물에 2021년 말 기준 도내 10천 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였다.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사물 중 도민 안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물에 주소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안전시설 사물주소 부여 대상 】

졸음쉼터	육교 승강기	소공원	비상 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또한, 도는 건물이 없는 산악·하천·도서 등 긴급구조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고 취약지역에 위치 찾기의 편의를 위해 국가지점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 지점의 위치를 10자리 수로 구성한 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판은 2021년 말 기준 도내에 7,598점이 설치되어있다. 매년 공원·도서 등 사고 취약지역에서 현장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시·군과 한전 및 국립공원공단에서 추가로 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도민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 누리집 안내 지도에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국가지점번호판을 도내 사고 취약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건물번호가 없는 지역의 위치 찾기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공간정보팀장 윤성식, 담당자 신승대

4-4. 디지털 지적 구축

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전남도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계로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아날로그 방식의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 7기에 들어서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국비 확보 노력으로 2019년부터 4년 연속 전국 최다 사업비 390억 원을 확보하여 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도는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변형·마모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 전 국토의 15% 가량이(전남도 14%) 지적도와 불일치하여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3,800억 원,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확한 지적도 구축을 위해 가로·세로·높이 1㎜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량하는 첨단 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하여, 3D 입체 지적정보를 수치로 구현하는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가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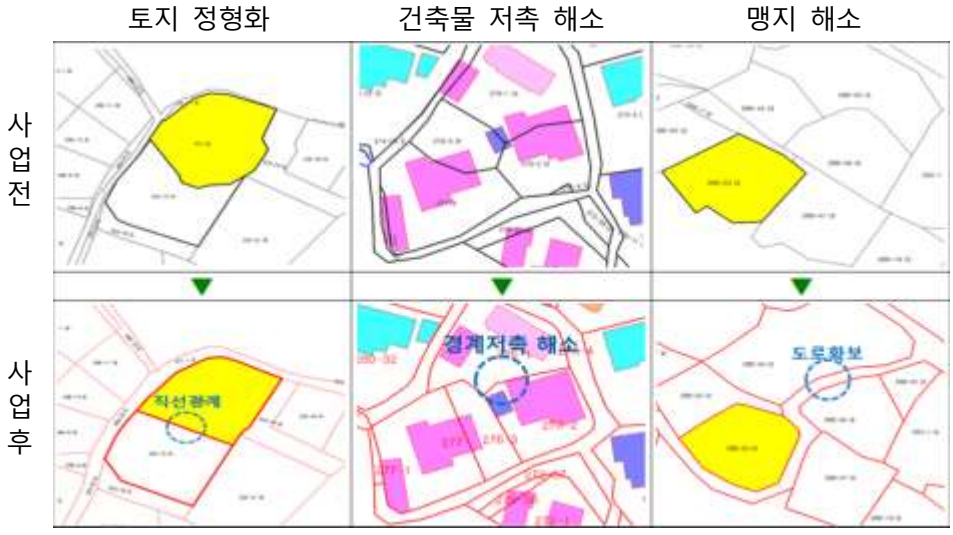
도는 2030년도까지 569만 필지에 대해 국비 1천8백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국비) 372억 원을 투입하여 362개 지구, 216,024필지를 추진 완료했다. 재조사사업을 10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재조사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민선 7기로 4년간 국비 확보율은 3배, 추진율은 2.7배로 수직 상승했다.

2022년에는 99개 사업지구 68,416필지에 대해 사업비(국비) 13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무인비행 장치(드론)를 투입,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정확한 토지이용 현황 파악과 경계 조정을 하고 있으며, 경계 협의·결정 시 토지소유자의 의견 반영에 중점을 두어 주민들의 사업 참여율과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정형화되고, 건축물 저촉 문제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도민의 재산 가치가 상승된다. 또한, 필지 단위의 지표·지상·지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토지이용이 편리해질 뿐 아니라, 토지활용도 증가로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 토지 활용 가치 향상 사례】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지적재조사팀장 김성연, 담당자 김수현

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전남도는 「공간정보관리법」 제6조 및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적측량의 위치 기준을 일제 강점기의 기준이었던 지역 측지계(동경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측지계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도면에 공간정보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계측지계보다 약 365m 편차가 발생하는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해왔다.

우리 도에서는 2016년 9월 시범사업을 필두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2개 시·군의 도해 지역 542만 필지, 수치지역 11만 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변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2022년부터는 미변환 수치지역 31만 필지를 변환하기 위해 도비 3억 원을 투입해 3개 시·군(59,664필지)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시·군의 수치지역 세계측지변환을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0~2024년까지 총 52억 원을 투입해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기준의 GNSS 좌표로 변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세계측지계 변환 현황 】

구 분	변환 대상	변환 완료	변환율(%)
도해 지역	542만 필지	542만 필지	100
수치 지역	42만 필지	11만 필지	26
지적기준점	6.5만 점	2.6만 점	42

추진부서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지적재조사팀장 김성연, 담당자 정다운

5. 서남해안 관광벨트 중심 기업도시 개발

5-1.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1) 구성지구

구성지구는 2006년 6월 1일 자본금 60억원으로 SPC인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주)가 설립되었고, 이후 주주간 추가 출자 협의로 보성건설(주) 549억원, (주)한양 151억원, 광주은행 9억원, 전남개발공사 90억원, 한국관광공사 11억원, 전라남도 90억원으로 총 자본금 900억원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성지구 개발방향은 태양에너지와 생태정원, 스마트도시를 콘셉트로 첨단산업 유치와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골프장, 생태정원 등 여가와 힐링을 위한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2020년 1,588㎡ 부지에 98MW급 태양광발전단지와 세계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306MWh를 조성하여 운영 중으로 연간 133GWh의 전기 생산과 6만5000t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를 내고 있다.

18홀 규모의 국내 최초 수로형 골프장 '솔라시도 CC'를 2021년 8월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골프장 주변으로 56만평 규모의 골프앤빌리지를 조성하여 태양광발전소를 활용한 기본소득 공유형 주택단지 분양을 추진 중에 있다.

기업도시 주변 천혜자연을 활용한 생태정원 도시 건설과 관광레저 산업도시 구축을 위해 2021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주제별 산책길, 예술정원, 어린이정원 등 9개 테마 정원과 미술관 등을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해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 등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00억원을 지원받아 자율주행, 무선충전,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스마트 기반구축을 통해 생태자원과 첨단IT기술이 조화롭게 결합된 스마트 블루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투자유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0월 5,700억 규모의 6차 산업형 유럽마을 테마파크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425억원 국비를 투입하여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건립해 전시장, 교육시설, 체험시설, 탄소중립 홍보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병원, 호텔 등 기반시설 유치와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연료발전단지 등의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형 관광레저도시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삼호지구

삼호지구는 2006년 9월 17일 14억원의 자본금으로 SPC인 서남해안레저(주)가 설립되었고 당초 대주주인 금호산업(주)에서 2009년 7월 1일 에이스회원권거래소(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주주 간 협의로 에이스회원권거래소(주) 283억원, 삼환기업(주) 2억원, 한국관광공사 90억원, 전라남도 75억원으로 총 자본금 450억원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삼호지구 개발방향은 골프 테마 관광레저도시로 63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과 페어웨어 빌리지, 마리나 빌리지를 중심으로 한 골프 중심 관광레저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2014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단계 사업인 골프장 45홀과 골프장 진입도로를 2020년까지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2차 2단계 사업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5차 개발계획과 4차 실시계획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토교통부 변경 승인과 직선형 #3 골프장(18홀)과 페어웨이빌리지에 대한 부지 조성을 위한 토공을 2025년 12월까지 마무할 계획이다.

현재 #3 골프장(18홀) 조성과 4차선 서측진입도로에 대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2차 2단계 주요 사업인 페어웨이빌리지 및 공동주택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 산업시설, 숙박시설 용지 조성과 기업도시 진입도로 연계도로 및 내부 간선도로 등의 설치를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삼호지구의 홍보와 마케팅 개선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 개설등을 추진하여 외부 투자자 유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3) 삼포지구

삼포지구는 2006년 9월 13일 자본금 75억원으로 SPC인 KAVO(주)가 설립되었고 이후 2007년 6월 22일 MBH가 27억원을 2008년 2월 2일 전남개발공사가 40억원을 우선 납입하고, 2008년 7월 26일 전라남도가 173억원, SK건설(주) 148억원, 전남개발공사 50억원, 신한은행 40억원, 농협중앙회 40억원, 광주은행 7억원을 납입하여 총 자본금 600억원에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0년 10월 25일 MBH 지분 102억원을 SK건설(주)가 인수한 이후 2012년 5월 18일 SK건설(주)지분을 전남도 또는 전남개발공사 지정 제 3자에게 무상 이전에 합의했다.

이후, 민선 7기에 들어서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투자자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목포도시가스가 KAVO 투자를 결정

하였고 2021년 6월 지분 양도를 결정하였다. 2021년 12월 지역기반 기업인 목포도시가스를 사업시행자로 추가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 5년 연장으로 다시금 본격적인 삼포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삼포지구 개발방향은 자동차 테마 관광레저도시로 현재 1단계, 2단계로 나뉘에 진행 중이며. 1단계는 2011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입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사업 시작을 위한 기본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2023년 8월에는 자동차 튜닝산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관광·레저단지 등 2단계 사업구역 발전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개발기획팀장 이원형, 담당자 김진수,김종규,이세혁

나.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정주 인구 57천명(23천세대)과 연간 500만 여명의 관광객 접근성 향상과 기업도시 투자촉진 등 조기 활성화를 위해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추가 개설이 필요했다.

우리 도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사업 타당성과 진입도로 개설 필요성을 건의하여 2012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2014년 12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고를 하고 2015년 6월에 기본설계를 심의하여 설계 적격업체 선정을 통해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했다.

2015년 11월에 해남구간 1공구는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영암구간 2공구는 금호산업(주)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최종 선정하여 12월 9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기업도시 진입도로의 주요 구조물인 영암호 횡단교량의 안전하고 장기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장비의 도입이 절실하여 사업승인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차례 건의와 설득을 통해 2021년 9월 추가 사업비 7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의 대표시설인 영암호 횡단교량의 홍보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에 교량 명칭 공모를 실시하여 2022년 1월 “솔라시도대교”로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2년 상반기 중에 도 및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명이 결정된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목포·광양간고속도로 및 국도 2호선 서호IC에서 솔라시도 지구 내 지방도 806호선을 잇는 구간으로 총 길이는 10.83㎞, 4차로이며, 이중 솔라시도대교(2.2㎞)는 아치교의 특색있는 디자인(아치클라이밍)과 교각 부분 어울림 광장 설치로 교량 자체가 관광명소화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37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되며, 2022년 3월 현재 종합 공정율 91.4%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준공 계획이다.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개발기획팀장 이원형, 담당자 김진수,김종규**

5-2.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가. 산업위기지역 미래형 전기차 부품개발 사업

자동차 선진국들은 F1경주장 인근에 정부 주도로 대규모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그중에 튜닝산업이 핵심이다. 전라남도 또한 해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국제공인 1등급 F1서킷을 활용한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5월 조선업체 경기 불황으로 영암 대불산업단지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고용위기지역인 대불국가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의 미래차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지역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형 전기차 부품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미래형 전기차 부품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26억원을 투입하여, IOT 활용 스마트 브레이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기술개발 8개 과제와 전기차 연구기반 구축, 기업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미래 전기차 핵심부품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시험 및 평가, 검증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전기차 안전인증 취득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조립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국내 튜닝 시장이 활성화되면, 2022년 이후에는 5조 5,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남도는 국제 자동차경주장과 자동차 부품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자동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튜닝밸리조성팀장 이병래, 담당자 심홍식

나.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전남도는 고부가가치 첨단 자동차 튜닝산업 선점을 위해 2017년부터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영세한 국내 튜닝부품 기업을 단기간 내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사업화, 기반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28억을 투입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48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튜닝부품 시험·평가를 위한 금속분석시스템, 마모측정시스템 등 13종 연구장비도 구축했다.

2021년부터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도내 소재한 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확약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한국자동차연구원(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이 영암군 국제자동차경주장 인근에 입주하고 있어 자동차 튜닝 부품에 대한 실증 시험 및 인증·평가 지원을 통해 도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튜닝부품 기업의 차부품 제조, 관리 등 기술경쟁력을 높여 국내 튜닝 산업을 선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튜닝밸리조성팀장 이병래, 담당자 성소망

5-3.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가.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

영암군 기업도시 삼포지구에 위치한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전세계 41개 1등급 서킷 중 국내 유일한 서킷으로 F1대회 뿐만 아니라 F3, GT 등 모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이다.

서킷 총 길이는 5.615km로 전세계 9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모터스포츠 전용 경주장으로서 국제자동차연맹의 기준을 만족하는 트랙 안전 구조와 최첨단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회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바로 통제하는 레이스컨트롤 빌딩, 500여명의 기자단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 참가팀의 회의 및 휴식 공간으로 마련된 14개동의 팀 빌딩 등 레이싱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12만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경주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카트 경기장, 오프로드 경기장, 오토캠핑장 및 야구장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다.

타 국제 행사의 경우, 시설물의 사후활용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제자동차경주장은 2013년 F1대회가 중단된 이후 프로모터 및 동호회 등에서 각광을 받으며 연간 280여일이 활용되고 있다. 혹서기, 혹한기, 서킷보수기간을 제외한 293일의 임대가능 여건을 감안하면 280일의 활용은 96%의 가동률을 보여준다.

사용료는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고 1일기준 최저 1천만원부터 최고 4천만원까지 코스별 사용료가 운영수입금으로 관리되고 있다.

3~10월 주말에는 각종 국내외 대회 및 동호회 행사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주중에는 자동차 성능테스트 등 다양한 기업 참여로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모터스포츠 대회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간 문화 교류를 위해 개최하는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을 비롯하여 국내 최고 등급인 6,000cc 스톡카가 참가하는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가 참가하는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현대자동차가 주최하는 원메이크(One Make) 레이스인 '현대N페스티벌', 모터사이클 대회인 '코리아 로드레이싱 챔피언십', '코리아 슈퍼바이크', 레이싱 입문과정인 'KIC-CUP 투어링카' 등 다양한 대회를 통해 모터스포츠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축제인 '전남GT(Grand Touring) 대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행사로 자동차 대회 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 오프로드, 드리프트 등 국내 모터스포츠의 모든 종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개막식, 그리드워크 등 다양한 서킷 문화행사가 함께 열리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매년 10월에 개최되고 있다.

'전남 GT'는 전남의 브랜드 제고 및 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중심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대회로 육성하여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통해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경주장운영팀장 양시봉, 담당자 오홍록

나.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조성

전남도는 2018년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차별화된 체험공간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주장 부지내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8.8억원(국비 23.9, 도비 54.9)을 투입하여 자동차복합문화공간(4종), 레저스포츠 파크(5종), 모터레포츠 게임장(1종), 클래식 전기카트(1종)을 2021년 12월에 완료했다.

또한, 국제자동차경주장 카트장 2층에 24석 규모 시뮬레이터 모션 체험 영상관을 비롯해 카레이싱 시뮬레이터 기구 등 총 6종류의 장비 42대와 35개 이상의 가상체험시설 콘텐츠를 2022년 7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모터스포츠 뿐만이 아닌 레저스포츠 체험과 자동차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하여 가족, 연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 업 명	소요예산	추 진 현 황
계	78.8억원 (국24 도54.8)	11종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38억원 (국11, 도27)	자전거도로, 트레킹 코스(경주장 둘레)
		드라이빙 센터(상설블럭 앞)
		네트어드벤처(A=303㎡)
		가상체험시설(카트장 2층) * 22년 준공예정

사 업 명	소요예산	추 진 현 황
레저스포츠 파크	35억원 (국11, 도24)	인라인스케이트장(L=206m)
		어린이드라이빙 체험시설(A=461㎡)
		드론 연습장(A=240㎡)
		짚와이어(L=200m)
		발물놀이장(A=510㎡)
모터레포츠 게임	3.8억원 (국1.9, 도1.9)	경주용 시뮬레이터, RC카 4세트 설치, 관람용 모니터 1대 등
클래식 전기카트	2억원 (도비)	클래식 전기카트(전기카트 6대 도입)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경주장운영팀장 양시봉, 담당자 방영홍, 박진우**

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6-1.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비한 산업단지 조성

가. 예측 가능한 산업용지 중장기 수급계획 마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신덕지구, 화양지구, 율촌지구, 광양지구, 경도지구, 하동지구의 6개 지구를 구분하여 각 단지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보완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2003년 10월 30일 5개 지구 24개 단지(88.98㎢)를 대상으로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중 산업단지는 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단지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재 총 4개 지구 7개 단지(25.01㎢)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개발 완료 및 개발 중에 있다.

산업용지 적기 공급 및 투자유치를 통해 포스코 2차전지, 롯데케미칼 등 2차전지 및 신성장 산업의 대규모 유치로 분양이 전년 대비 3.3배(22→0.73㎢) 증가함에 따라 향후 10년을 대비한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마련, 선제적으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광양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물류거점 확보를 개발전략으로 삼고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의 성장을 위해 환적화물 활성화를 위한 기능 확보와 함께 제철 관련 재료 및 비철금속 거점화를 통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지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부서 개발부장 유호규, 산단조성과장 기낙구, 담당자 박성태

나. 산업단지 활성화 및 신속한 개발

황금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개발을 착수하여 1단계(0.77㎢)는 2022년, 2단계(0.35㎢)는 2025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개발중에 있으며, 2018년 분양공고된 면적의 24%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최근 입주 문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접된 광양항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율촌지구는 여수 국가산단의 화학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철강산업 등 기존 기반산업을 연계한 생산기능과 인근 산단 물류기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으며 이 중 율촌제1일반산업단지는 199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99%의 개발이 완료되어 97.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율촌제2일반산업단지는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도부터 광양항 준설토 매립을 시작하여 2017년에 1단계(1.41㎢) 준설토 투기는 완료되었으며 2단계에 대한 매립이 2026년 완료할 계획에 따라 율촌제2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신덕지구는 광양만권 산업유치 지원 및 외국인 정주를 위한 교육·의료허브로 개발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배후기능 수행과 교육·주거·레저 등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룡일반산업단지는 1단계 0.33㎢는 2010년에 완료되어 임대산단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2-1단계(0.65㎢)는 2021년 준공되어 분양이 완료되었고 2-2단계(0.61㎢)는 새로운 민간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

세풍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 2월에 1단계 부지(0.47㎢)가 조성 완료되었고, 2017년 11월에 조성부지 일부(0.08㎢)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세풍산단 내 항만배후단지 0.41㎢가 지정됨에 따라 2023년 2-1단계 준공 이후 잔여 단계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조감도 】

추진부서 **개발부장 유호규, 산단조성과장 기낙구, 담당자 양지훈, 정양운**

6-2. 배후 주거단지 및 해양관광 기반 조성

가. 명품 배후 주거단지 신대배후단지 조성

신대지구는 교육, 주거, 상업, 레저 등 기능을 담당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대표적인 배후단지로써, 총사업비 5,600억원 투입, 2.68㎢ 규모로 조성되었다.

신대배후단지 개발은 3단계로 추진되었다. 2008년도 착공을 시작으로 1단계(택지1, 1,543천㎡)를 2012. 4. 5. 준공하였고, 2단계(택지2, 520천㎡)를 2013. 7. 12. 준공하였으며, 2022년 3단계(골프장, 793천㎡) 준공을 목표로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전체 면적의 44.2%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신대배후단지는 친환경 주거단지로써 상업・업무, 교육・공공, 산업・유통 기능은 물론, 순천 부영 C.C가 입지하고 있어 레저・힐링까지 가능한 전남 최고의 복합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더불어, 배후단지 내 도서관 등 공공시설 추가 건립이 예정되어 주민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시설로는 2022년 12월 준공하는 '순천 신대도서관' 이 있다.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열람실 440석을 포함 일반자료실 외 인물자료실, 소규모 극장, 강당, 작가의 방 등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남 최대 규모로 건립된다. 신대도서관은 누구나 산책하듯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도심 속 자연을 콘셉으로 신도심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소통과 휴식 공간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2021년 10월 착공한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는 총사업비 387억원을 투입, 2023년 5월 준공예정으로 동부권에 흩어진 도 산하기관들을 아우르는 다목적 청사를 건립해 동부지역 주민에게 종합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부권 주민이 도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하도록 행정전산망과 연결된 스마트민원실이 마련되고, 대강당, 북카페, 다목적전시실 등 지역민의 휴식・소통공간으로 건립된다.

신대배후단지는 동북아 경제 중심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주거배후단지로써 신도시 조성의 성공적 사례이며,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중인 선월하이파크 역시 명품단지로 개발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추진부서 개발부장 유호규, 지역개발과장 김영찬, 담당자 김경한

나. 고품격 청정휴양지 화양복합관광단지 조성

화양복합관광단지는 해양레저시대를 대비하여 관광·레저·스포츠·휴양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남해안권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2003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8.97㎢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18홀) 및 수련원(2곳)을 건설하여 운영중이며, 274객실과 세계 최장인 루프탑 인피니트 수영장(170m)이 있는 콘도를 금년(’22)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콘도가 완공되면 기업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화양지구 내 국도77호선 개설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접근성이 향상되고, 관광여건 호전으로 화양지구의 투자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제기했던 토지 민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구간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이 낮은 테마파크 지구 제외를 추진하는 등 실현 가능한 지구에 투자유치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진부서 개발부장 유호규, 지역개발과장 김영찬, 담당자 류승훈

6-3. 미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가. 철강·화학 주력산업 기업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확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단이 위치하여 산업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2019년 7월부터 시작한 투자기업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 3월까지 잠재투자기업 1,085개사와 타깃기업 377개사를 발굴하였다. 유관기관・앵커기업 방문, 전문가그룹 자문 등 네트워크 활동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 152개사 기업유치, 4조 5천억원 투자실현, 5,4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율촌・해룡산단을 중심으로 철강・화학 관련 금속가공업체, 화학업체는 최근 5년간 63개 업체가 입주하는 등 뿌리산업 중심의 산업이 급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기능성화학 기업 유치를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롯데케미칼(주), 그 자회사인 삼박엘프티(주)와 율촌 제1산업단지에 4,500억원 투자 및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자동차용・전자기기 등의 고기능성 첨단소재 공장 증설과 수소 등 신산업에 투자를 통해 주력산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기업, 여수국가산단 화학기업 등 기존 주력 앵커기업과 KTR 등 R&D 센터와 연계를 통해 기능성 화학소재 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마그네슘 등 경량 금속 소재기업 사업모델 개발 및 연관 기업유치를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투자기획부장 정종석, 투자혁신과장 박나리, 담당자 이종관

나. 미래 신산업 기업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포스코그룹과 이차전지 소재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율촌·세풍산단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양극재를 비롯해 이차전지의 용량과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리튬, 유가금속 추출, 전구체 등의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그간 율촌 제1산업단지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리튬솔루션, 포스코HY 클린메탈을 통해서 총 1.8조원의 투자를 이끌었는데, 현재 양극재 9만톤이 현재 생산 가동 중으로 이는 전기차 100만대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또한, 포스코그룹과 함께 율촌·세풍산단에 8,5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구체 9만톤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면 국내 전구체 자급률이 2025년까지 60%이상 높아져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차전지 연관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차전지산업 외에도 광양만권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능성화학과 수소, 데이터센터, EV경량 첨단소재 등 신성장산업을 미래 먹거리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투자기획부장 정종석, 투자혁신과장 박나리, 담당자 이종관

6-4. 맞춤형 기업지원 및 혁신생태계 강화

가. 입주기업 경영활동 지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하기 좋은 산단 환경 조성 및 입주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기업에 맞는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업 맞춤형 One-Stop 인력양성 지원사업' 을 추진하여 42명의 기능(용접)인력을 양성했다.

경영활동 시 발생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법률·세무·회계·노무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사랑 자문단' 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18건을 자문하였다

입주기업 생산제품 판로 확대 및 해외 홍보 지원을 위해 생산기업과 주요 생산제품을 소개하는 '입주기업 생산제품 안내' 책자를 매년 제작·배포하였으며 2021년에는 영어와 중국어로 전자책(e-book)형태로 제작하여 각종 전시회 및 행사에서 모바일용 기기를 이용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7개 유관기관과 협약하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월에 입주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달라지는 기업지원 제도와 다양한 시책을 안내함으로써 기업 경영 활동을 지원했다.

2022년에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율촌·해룡산단 고용 인력 유지·확보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통근 편의를 제공하고자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4,431명이 이용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국립나주병원 등 지역사회 전문 보건인력을 확보하여 33개사 76회

2,197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정신건강상담,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율촌·해룡산단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산단 동향 정보를 공유하여 소통과 상생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단을 조성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에 기여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투자기획부장 정종석, 기업지원과장 이인수, 담당자 서은숙

나. 광양만권 혁신생태계 조성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은 신산업·서비스 규제혁신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자구역 운영방향을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의 글로벌 신산업 거점 조성'으로 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혁신성장의 일환인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산업부, 산업연구원, 여수·광양·순천시 및 하동군,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하여 ① 기능성화학 ② 그린에너지 ③ 금속소재·부품 ④ 물류·운송 4개 산업군에서 50개 산업코드(5단위)를 핵심전략산업으로 도출하였고, 산업부에서 2021년 11월에 최종 확정하였다.

산업부의 혁신성장 중심의 글로벌 신산업 거점 조성 방침에 따라 2021년에는 혁신생태계조성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되었다. 기업비즈니스 역량강화 차원에서 기업의 시제품제작 지원, 마케팅지원, 디자인 제품 개선,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총 8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29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2022년은 도출된 핵심전략산업 중에서 금속·소재 부품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제품개선, 특화컨설팅, 인증획득 등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입주기업, 연구소, 대학 등 광양만권의 차별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조성사업을 통해 수혜기업은 시장경쟁력과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 교류가 강화되어 향후 광양만권에 입주한 기업의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부서 투자기획부장 정종석, 투자혁신과장 박나리, 담당자 이종관





제3장 부분별 성과

제10절 환경·산림

1. 대기질 개선 추진 및 생태자원 보전·이용
2. 수질환경 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3. 폐기물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4.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5. 「숲속의 전남」 확대 및 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
6. 산림휴양·생태관광 육성
7. 산림자원 연구 및 맞춤형 휴양서비스 제공
8. 안전한 보건·환경 관리체계 구축

제10절 환경·산림

1. 대기질 개선 추진 및 생태자원 보전·이용

1-1. 미세먼지 관리 대응체계 구축

가.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전남도는 맑은 공기, 푸른 하늘, 청정 전남의 비전을 가지고 '24년까지 환경부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기준(15㎍/㎥) 보다 낮은 14㎍/㎥ 이하를 목표로 상시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대기측정망 설치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도 특성 및 시기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개 부문 22개 세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20년부터 '24년까지 1조 9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및 운영

도내 주요지역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미세먼지·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도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기환경측정망은 '16년 22개소에서 24개소가 늘어난 4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5년까지 4개소를 추가하여 50개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촘촘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된 대기환경측정망의 종류는 도시대기측정망 39개소, 중금속측정망 7개소이다. 도시대기측정망은 22개 시·군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SO2(이산화황),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O3(오존), NO2(이산화질소), CO(일산화탄소)와 기상상황(풍향, 풍속, 온도, 습도)을 측정하고 있다.

【 도시대기측정망 설치현황 】

연번	시·군	위 치	설치연도	교체연도
1	목포시	동부로31번길 20, 용당1동 주민센터	1994	2016
2		삼향천로 28, 부흥동 주민센터	2013	-
3	여수시	무선로 190, 여천동 주민센터	1991	2015
4		서교1길 28, 서강동 주민센터	1991	2020
5		여수산단로 1201, 한국환경공단	1996	2017
6		여문1로 71, 문수동 주민센터	2007	2018
7		덕충안길 95, 만덕동 주민센터	2012	-
8		화양면 평촌길 2-6, 화동경로당	2018	-
9		율촌면 동산개길 2, 율촌 (구)보건지소	2018	-
10		상암로 601-1, (구)상암보건지소	2018	-
11	순천시	장명로 30, 시청별관	1994	2017
12		연향번영길 54, 연향도서관	2008	2018
13		해룡면 호두길 127, 호두정수장	2009	2020
14		순천만길 513-25, 자연생태관	2009	2020
15		해룡면 매안로 162, 해룡면 신대출장소	2017	-
16	나주시	빛가람로 719, 빛가람동 주민센터	2017	-
17	광양시	중마중앙로 109, 광양소방서	1992	2018
18		담안길 87-24, 태인동 정수장	1994	2017
19		봉강면 조양길 46, 봉강면 주민센터	2002	2011
20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청	2004	2014
21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신관	2017	-
22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9, 농업기술센터	2018	-
23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보건의료원	2018	-
24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11, 고흥읍 주민세터	2018	-
25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744-3, 벌교 숲공원	2018	-
26		보성읍 현충로 42-36, 원봉3구 마을회관	2020	-
27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9-24, CCTV 관제센터	2018	-
28	장흥군	장흥읍 홍성로 23, 정남진 도서관	2017	-
29	강진군	강진읍 동성로 72, 주차장	2018	-
30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14, 해남읍 주민센터	2017	-
31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338-3, 영암소방서	1997	2020
32		영암읍 역리 119, 영암종합체육관	2019	-
33	무안군	무안읍 성내1길 2, 무안읍 주민센터	2018	-
34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39, 구 노인복지회관	2018	-
35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61, 영광읍 주민센터	2017	-
36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1, 장성읍 주민센터	2017	-
37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567, 신지면 문화센터	2018	-
38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진도여성플라자	2018	-
39	신안군	암태면 장단고길 7-63, 암태면 주민센터	2017	-

중금속측정망은 4개 시·군 주요 산단 주변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Pb(납), Cd(카드뮴), Cr(크롬), Cu(구리), Mn(망간), Fe(철), Ni(니켈), As(비소), Be(베릴륨), Al(알루미늄), Ca(칼슘), Mg(마그네슘)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 중금속측정망 설치현황 】

연번	시·군	위 치	설치연도	교체연도
1	여수시	무선로 190, 여천동 주민센터	1995	2015
2		시청동1길 23, (구)학동 보건소	1994	2015
3		율촌면 모래목길 20-1, 여흥3구리 회관	2015	-
4		묘도1길 51, 온동마을 스포츠센터 옥상	2021	
5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078, 신대수정 공원	2021	
6	광양시	중마중앙로 109, 광양소방서	2021	
7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9로 27, 삼호읍농어촌복합체육관	2020	-

2) 전라남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시행 계획

우리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16년 23㎍/㎥ 대비 '21년 15㎍/㎥로 35%를 낮추어서 전국 내륙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24년까지 14㎍/㎥이하(환경부 기준 : 15㎍/㎥)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수립된 국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과 연계하여 실천계획으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통합되는 전라남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산업, 도로·수송, 생활·농업, 도민건강보호, 연구협력강화, 교육·참여 등 총 6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산업부분 724억 원,

수송·도로부분 6,394억 원, 생활·농업부분 3,504억 원, 도민건강보호 253억 원, 연구협력강화 26억 원, 교육·참여 10억 원으로 총 1조 911억 원을 '24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부문		중점 추진과제
배출량 감축	산업부문	☐ 전남 6개 시·군 총량제 실시 ☐ 배출허용기준 및 NOx 배출관리 강화 ☐ 화학·조선 사업장의 VOCs 관리 ☐ 철강·발전시설의 배출 저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및 배출원조사 ☐ 드론과 IoT 기반 자율감시 플랫폼 구축
	도로·수송부문	☐ 운행차 저공해화 전환 가속화 사업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관리 강화 ☐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 ☐ 건설·농업기계 운행장비 관리강화
	생활·농업부문	☐ 도로재비산 및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 비산먼지 발생원 저감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 농어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도민건강	도민건강보호	☐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 민감·취약계층 미세먼지 복지기반 강화
연구협력	연구협력강화	☐ 광양만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 광역 대기환경 협력체계 구축
교육소통	교육·참여	☐ 미세먼지 교육·홍보 강화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도입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미세먼지대응팀장 정은영, 담당자 전상민**

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급속한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5년 이전(EURO-3)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되어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특정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지원하고, Tier1이하의 노후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지원하는 LPG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유력한 주범의 하나인 경유자동차 감소를 위해 운행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단위 : 대)

구분	2016 ~ 2018	2019	2020	2021
계	8,300	15,484	12,732	16,874
조기폐차	8,300	14,845	11,133	13,340
매연저감장치	-	256	879	2,314
PM-NOx 동시저감장치	-	12	-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	4	-	4
건설기계 엔진교체	-	119	90	264
LPG 화물차 신차구입	-	248	630	952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미세먼지대응팀장 정은영, 담당자 박지선

다.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1)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노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질소산화물(NOx)의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해오고 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1년까지 일반가구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8,165대의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9,855대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 보일러 보급 현황 】

(단위 : 대)

합계	2018년까지	2019	2020	2021
18,165	184	733	7,229	10,019

2) 어린이 통학차 LPG차 전환 사업

우리 도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경유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까지 총 434대의 경유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였으며, 2022년에는 355대를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인 6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에서는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규 등록할 수 없어, 친환경 LPG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할 실정이다.

【 어린이 통학차 보급 현황 】

(단위 : 대)

합계	2018년까지	2019	2020	2021
434	100	77	92	165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생활환경팀장 서금렬, 담당자 임세화

라. 친환경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사업

우리 도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11년부터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해오고 있다.

2021년까지 전기자동차 11,131대(승용 7,577, 화물 1,383, 버스 22, 이륜 2,149), 수소자동차 296대 보급하였으며, 전기충전기 3,499기, 수소충전소 2개소를 보급하였고, 2021년에는 수소충전소 7개소 추가 구축을 확정하여 조속한 운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전기자동차 7,678대(승용 4,772, 화물 2,027, 버스 25, 이륜 840, 굴착기 14) 수소자동차 1,102대(승용 1,100, 버스 2)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56,000대, 수소자동차 10,000대 보급 및 친환경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기충전기 15,000기, 수소충전소 25개소를 구축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크게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친환경자동차 보급 현황 】

(단위 : 대)

구분	계	2018년까지	2019	2020	2021
전기자동차	11,131	2,478	1,606	2,534	4,513
수소자동차	296	-	27	103	166

【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

(단위 : 기, 개소)

구분	충전기·소	
	전기충전기	수소충전소/(구축중)
계	3,499	2/(7)
목포시	382	(1)
여수시	425	1/(2)
순천시	605	-
나주시	441	-
광양시	276	(1)
담양군	105	-
곡성군	61	-
구례군	53	-
고흥군	50	(1)
보성군	84	-
화순군	103	-
장흥군	49	-
강진군	55	-
해남군	123	-
영암군	110	-
무안군	215	-
함평군	48	(1)
영광군	121	(1)
장성군	79	1
완도군	65	-
진도군	20	-
신안군	29	-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생활환경팀장 서금렬, 담당자 여호용**

1-2.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운동 추진

가.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운동 추진

전남도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과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비산업부문(가정, 상가, 학교 등)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실태 분석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을 안내하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매년 약 2,500개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과 저탄소 친환경 실천운동(저탄소 명절, 친환경교통주간, 기후변화주간, 온·쿨맵시 등)을 전남기후환경네트워크 등 도내 환경분야 민간단체 등과 함께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을 널리 전파하는 탄소중립 실천가(구 그린리더)를 2021년까지 총 2만명 이상 양성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운동을 확산하고 생활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분야 전국 지자체·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를 2019년에 여수에서 개최하는 등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재원, 담당자 최대일

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종합계획 추진

전남도는 도민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대와 실천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실천분야 온실가스 2백만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약 2,0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대 과제 16개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도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전남도의 탄소중립 정책과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종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과 실천운동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사회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의미를 되새기는 탄소중립주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탄소중립의 인식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 도 본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탄소중립 실천 선언과 일회용컵 사용하지 않기 등 10대 탄소중립 실천과제를 지정하고 1일 4가지 이상 실천하는 탄생천사(1004) 챌린지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전국 시·도 중 16위 → 6위로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온실가스 감축률 5%에서 3% 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선도마을, 탄소중립 거점센터, 탄소중립 실천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전남도는 매년 탄소중립 실천 종합계획을 수립, 도민들의 탄소 중립 실천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재원, 담당자 최대일

다. 탄소포인트제 등 인센티브 확대

1)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학교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전남도는 2021년말 기준 235,687세대가 가입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도 참여 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가입하거나 시군 환경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8,587세대가 신규 가입하였고 온실가스 58,691tonCO_2-eq를 감축하였으며 2,668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전남도는 2022년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사업비 1,100백만원을 확보,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들이 온실가스 저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 】

(단위 : 세대, tonCO_2-eq, 백만원)

연도	가입세대수	온실가스 감축량	인센티브 지급	
			지급세대	지급액
2021	235,687	7,211	29,565 (상반기)	369 (상반기)
2020	227,777	13,805	54,980	766
2019	220,.333	16,155	62,994	832
2018	214,762	21,520	53,659	701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재원, 담당자 박재은

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매년 3, 4월에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방법은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 직접 가입하여야 한다. 참여자의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1년까지 455대 중 온실가스 저감차량 287대에 2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전남도에서는 2022년도 1,810대의 참여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90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도민들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단위 : 대, $tonCO_2$-eq, 천원)

연도	참여대수	인센티브 지급대상	온실가스 감축량	인센티브 지급액		
				계	국 비	시군비
2021	280	178	95.4	13,640	6,820	6,820
2020	175	109	43.7	8,420	4,210	4,210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재원, 담당자 박재은

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은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학교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위 공간 내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에너지 사용실태(전기, 수도 등)를 파악·분석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참여를 안내하는 사업이다.

가정, 상업시설 등 비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나 차지하고 있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는 물론 비산업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 참여방법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우리집 탄소가계부(http://udo.kcen.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무료로 컨설팅은 진행된다.

전남도는 2022년도에도 1,300여개소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이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교육·홍보·캠페인도 추진한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는 한국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을 이수 후 일정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1종에서 3종까지 자격을 부여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95명의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가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지자체에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현황 및 컨설팅 실적 】

(단위 : 명, 개소)

연도	컨설턴트(명)				컨설팅 실적(개소			
	계	1종	2종	3종	계	가정	상가	학교
2018	117	41	29	47	2,918	2,745,	168	5
2019	125	38	29	58	2,850	2,638	212	
2020	128	34	24	70	2,401	2,378	23	
2021	125	40	31	54	2,129	2,099	30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COP33유치팀장 최세균, 담당자 고미나

1-3.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 추진

가. 당사국총회 개요

유엔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리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고, 1995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당사국총회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당사국)을 대표하는 고위급(장관급) 인사가 참석하여 기후변화협약 이행방법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는 당사국 대표, 지방정부, 기업, 언론, NGO 등 3만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환경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나.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 기반 구축

2008년부터 전남과 경남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여수를 중심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제안하고 최초로 정부에 건의하여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였으나, '녹색기후기금(GCF)' 대한민국 유치를 확정하고 당사국총회는 유치 경쟁국가인 카타르에 양보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공동 유치를 노력해 온 전남과 경남은, 2018년 5월 당시, 전남 김영록 도지사 후보와 경남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동서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 모여 "전남-경남 상생발전 정책협약"을 맺고 '남해안권 국제회의 공동유치 합의'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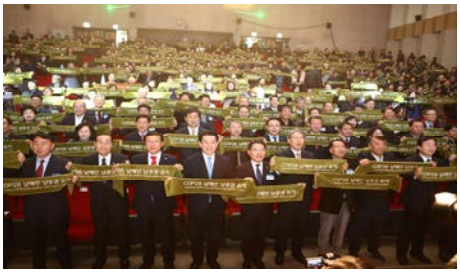
먼저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 12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다. COP28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전남도와 COP28 유치위원회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협력을 통해 BH, 중앙 부처 및 주요 인사들에게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및 개최도시 선 지정을 20여 차례 건의를 지속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COP28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타당성 및 경제효과 등을 분석하고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주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제24회 전라남도 도민의 날('20. 10. 25.), 김영록 도지사, 김한종 도의회 의장,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윤재갑, 소병철) 5명, 지자체, 의회, 체육회, 사회단체 및 기업(엘지화학) 등 민·관·산·학 대표 16명이 COP28 유치 결의 서약식을 통해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당위성을 역설하고 결의 확산을 다짐했다.



【 COP28 유치위원회 출범 】



【 제24회 도민의 날,
COP28 유치 결의 서약식 】

라. 민·관 협력을 통한 COP28 유치 본격 추진

2021년 1월,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 COP28 유치T/F팀에서 COP28유치추진단(1단, 3팀)으로 행정조직을 구성,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 유치위원회를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전남·경남도지사, 여수시장 및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장(하동군수) 4명이 맡았다. 2021년 2월 26일

유치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공동위원장 4명 및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장 군수가 "COP28 대한민국 유치와 함께 개최도시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서명한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하며 정책적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COP28 공동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10개 시·군에서 전남 보성군, 경남 고성군이 추가됨에 따라 12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본격 추진했다.





【 유치위 정기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 건의) 】

마. 대한민국 11개 광역 자치단체,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지지

또한 2020년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및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까지 11개 광역지자체와 온실가스 다 배출 지역인 남해안 남중권이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영·호남이 하나되어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계기가 될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를 지지하였다.



【 이용섭 광주시장 】



【 이철우 경북도지사 】



【 최문순 강원도지사 】



【 이춘희 세종자치시장 】

바. 대한민국 유치 표명과 UAE COP28 개최 확정

2021년 5월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환경 분야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인 COP28 대한민국 유치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10월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COP28 개최를 지지하고,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향후 COP33 개최를 지지하기로 하였다는 상호 합의를 발표하였다.

이에 2008년부터 노력해온 당사국총회 유치 노력이 다시 한번 무산된 데에 대한 지역민의 상실감은 컷으나, 전남도는 2028년 개최 예정인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재 도전을 표명했다.

사. COP33 유치 재도전

2021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당사국총회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라남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COP26을 참관하며 시설, 교통·숙박인프라 등 개최여건을 살펴보고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전라남도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클레이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방 탄소중립 국제포럼, 국제기후환경센터 국제 포럼에 참석하여 전라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는 등 해외 유수 국가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COP26 총회장 그린존 인근에 전라남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대한민국과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을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전라남도의 COP33 유치 의지를 알렸다. 또한 총회장 안팎에서도 각국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 COP26(영국, 글래스고) 참관 】

2021년 3월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전라남도는 탄소사냥꾼 운동 등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역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COP33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로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의 대한민국 국가 위상 제고는 물론 해묵은 동서 갈등을 타파, 동서 통합 및 국가균형발전의 성장동력,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 및 남해안 남중권 마이스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고자 한다.

여수 중심의 남해안남중권에서 COP33 공동개최를 통해 지자체가 협력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세계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이다.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COP33유치팀장 최세균 담당자 고미나

1-4. 생활환경 관리

가. 소음·진동 관리

우리 도는 공장·건설공사장·도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배출업소를 관리해 오고 있다.

2021년 우리 도의 소음 민원 건수는 2,449건으로 이중 생활소음 민원이 전체의 98.9%이며, 생활소음 중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73.3%를 차지하고 있다.

【 연도별 환경관련 민원 현황 】

구분	환경관련 민원	계	공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2018년	4,825	1,809	16	17	1,776
2019년	5,065	1,849	12	29	1,808
2020년	7,070	2,728	3	23	2,702
2021년	7,144	2,449	11	15	2,423

또한, 우리 도는 소음 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5개 市(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를 대상으로, 20개 지역, 100개 지점에 대해 매년 환경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생활환경팀장 서금렬, 담당자 임세화

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활동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도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총 22개 시설군, 848개소이다.

【 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공항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시설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실내주차장	목욕장업
848	-	1	3	3	1	2	15	10	2	172	9	109	314	10	25	5	22	-	7	38	49	51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시설의 유지,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과 봄철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생활환경팀장 서금렬, 담당자 임세화

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활동시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조명기술이 개발되어, 과도한 빛 공해에 의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라남도 주요지역의 빛 환경 실태를 측정·분석하고 빛 공해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2021. 6.~2022. 1.)하였다.

앞으로 전라남도 지역특성에 맞는 빛 공해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한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생활환경팀장 서금렬, 담당자 여호용

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운영

우리 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알선, 조정 및 재정(책임) 절차 등을 통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환경분쟁조정사건 133건을 접수해 재정 81건 알선·조정·합의 37건, 기타(철회·이송 등) 15건 등 모두 해결하였고, 2017년부터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책사업인 '이동 상담실 운영'으로 민원 146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앞으로도 환경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를 구제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생활환경팀장 서금렬, 담당자 여호용

1-5. 환경교육 및 협력 강화

가. 환경교육과 도민의식 강화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알고, 환경을 위한 마음으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도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 등 마음 속 깊은 곳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환경을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고, 환경 지식과 기능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환경교육은 환경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이며, 누구나 그리고 평생에 걸쳐 이루어야 하는 교육이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2014년에는 우리 도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 환경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기 전라남도 환경교육발전계획(2014~2018)을 수립하여 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통한 환경교육 기회 확대, 행동하는 시민 육성, 시민과 함께하는 체계적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목표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제2기 전라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 서비스 확대 등으로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통한 환경복지를 증진하고, 학교·사회 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로 범도민 실천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며, 4대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유아의 자연생태 현장학습 및 청소년, 대학생들의 환경교육 체험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활용하여 도내 교육기관으로 찾아가는 환경보전 실천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최근 미래세대 가상공간(메타버스)을

활용, 새로운 컨텐츠를 도입하여 최근 이슈인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각 수요자(유아, 청소년, 일반 등)별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 및 환경교육 민간단체의 지역기반을 탄탄히 다져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환경교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며,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환경분야 교사·민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변화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3개의 전남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고, 도 교육청, 학교, 민간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환경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국내외 환경분야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 학교 환경교육

환경교과 선택과 환경교사가 없는 가운데, 최근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강조와 진로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환경탐구동아리 활동이 지원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ESD(지속가능발전) 교육 에너지 분야 프로그램을 초·중학교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60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환경 동아리 활동은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5개교에 교당 5백만 원씩 지원, 2018년 초에 전라남도교육청 부설 환경교육센터를 개설하였고, 환경교육 관련 교재 3종을 발간 보급한 바 있다. 환경교육 캠프는 지리산생태탐방원, 여수YMCA 가사리생태교육관, 신안 섬생태연구소 등에서 6회 개최하였으며, 교원 환경교육 연수를 3회 실시하였다.

2) 사회 환경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환경교육 시설, 그리고 환경교육 관련 사회단체 등에서 교양 및 전문가 과정의 사회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남의 주요 환경교육 관련 기관은 4개의 환경교육센터(전남 자연환경연수원, 신안 섬생태연구소, 여수YMCA 가사리생태교육관, 전라남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전남기후환경 네트워크,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 무안황토갯벌랜드, 순천대학교 에코에듀테인먼트, 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 그리고 각 시군 민간차원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등에서 사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학교와 연계한 4개 기관·분원·체험장에서 유치원, 학교(초·중·고) 교육과정에서 1,671회 29,000명, 전남자연환경연수원 및 신안 섬생태연구소, 여수YMCA가사리생태교육관, 전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남기후환경네트워크 등 6개 기관, 53개 과정, 1,572회, 35,000명이환경교육을 수료하였다.

【 2021년 학교 환경교육 운영 현황 】

○ 학교 환경교육(교육청)

기관명	교 육 명 (주 요 내 용)	교육대상	횟수	인원 (명)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생태학교 운영(생태환경실천교육)	유19,초94, 중21,고12	교당 10회	27,000
	친환경생태학교 운영(탄소중립중점교육)	초4,중7, 고7	교당 20회	2,700
	친환경생태학교 운영(학교숲생태놀이터조성)	초중고 25교 예정	교당 10회	3,000
	학교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유초중고특 각종 857교	교당 3회	190,000

○ 교육청 환경교육기관(2개소)

기관명	교 육 명 (주 요 내 용)	교육대상	횟수	인원 (명)
순천만 생태 문화 교육원	찾아오는 · 찾아가는 생태문화교육	초,중	120회	2,400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초,중	54회	1,100
	자유학년제 생태문화 진로메이커교육	중	10회	200
	지역연계 생태문화 체험학습	초,중	20회	400
	지역교육공동체 지원 생태문화 체험학습	초,중,청소년	20회	400
	학부모 및 주민 생태문화교육	학부모,주민	70회	1,050
순천만 생태 문화 교육원	마을생물다양성 프로그램	초,중	20팀	300
	기후행동 1,5℃ 함께 지키기 실천프로그램	유,초,중,고	50팀	2,000
	생태환경 소나기캠프	초,중,고	20회	400
	ECO-BF스쿨	초,중,고	50회	1,000
	생태환경 동아리 ECO 프로젝트	초,중,고, 교직원	30팀	650
전라 남도 자연 탐구원	체험중심 자연탐구교실	유,초,중	100회	2,000
	백암 그린 교실	유,초,중	20팀	400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육	초	40팀	800
	생태환경교육 교사 연수	교원	2회	80
	생태환경교육 학부모 연수	학부모	2회	80

【 2021년 사회 환경교육 운영 현황 】

○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3개소)

기관명	교 육 명 (주 요 내 용)	교육대상	횟수	인원 (명)
전남 자연 환경 연수원	청소년 환경 집중교육 프로그램(탄소중립)	청소년	200	8,000
	찾아가는 환경보전 실천순회교육 (기후변화, 미세먼지, 탄소중립)	청소년	60	1,000
	자유학년제 환경분야 직업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40	1,000

기관명	교 육 명 (주 요 내 용)	교육대상	횟수	인원 (명)
	(환경보건, 대기전문가, 전자문서 디자이너)			
	환경교육 직무연수 (환경교육, 탄소중립, 산림, 자원순환)	일반	8	100
	탄소중립 방문 환경교육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일반, 청소년	200	4,000
	비대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환경보건)	일반, 청소년	30	2,000
	주부 및 일반인 대상 기후변화 환경교육(탄소중립)	일반	3	700
	아트싸이언스(환경)페스티벌 (해양환경,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일반, 청소년, 유아	252	1,000
	그린탐구 나눔 한마당 (해양환경,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청소년	18	400
	탄소중립 환경 캠프(여름방학, 갯벌 등)	청소년, 유아	3	500
	동그라미(장애인) 탄소캠프 (탄소와 산림환경)	청소년, 유아	2	100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문강사 양성 (정책, 해양, 수질, 토양, 대기, 산업)	일반	2	200
	전국 환경 영어 스피치 대회 (탄소중립 주제 선정)	청소년	1	200
섬생태 연구소	찾아가는 환경보전 실천순회교육(탄소중립)	청소년	99	1,750
	기후생태교육사업 (시민생태아카데미, 교사 특수분야 연수, 고등학교 환경진로체험교육. 초·중학생 생태캠프)	일반, 청소년	63	1,200
	신안군생태교육원 운영사업(방문객 생태교육·직원 인건비)	일반, 청소년	45	850
	신안군학생대상 생태교육사업(생태체험교육·생태캠프)	일반, 청소년	33	1,000
	섬생태마을학교(생태체험교육)	청소년	30	650
	생태동아리 활동(생태체험교육)	청소년	10	120
	유치원 환경교육(유치원 생태교육)	유아	6	120
	시니어 환경교육(어르신 환경교육)	일반	6	120
	생태와 문화 캠프(생태체험교육)	청소년	3	80

기관명	교 육 명 (주 요 내 용)	교육대상	횟수	인원 (명)
	생태아카데미(대학생생태특강)	일반	12	300
	교사 생태교육연수(교사생태특강)	일반	5	100
	환경교육 워크샵(강사생태교육워크샵)	일반	12	150
	학부모 생태연수(학부모생태특강)	일반	10	400
여수 YMCA 가사리 생태관	찾아가는 환경보전 실천순회교육(탄소중립)	청소년	50	1,000
	유엔기후변화협상게임(탄소중립/SDGs)	일반, 청소년	40	1,000
	체험환경교육 (탄소중립/기후에너지 · 자원순환)	청소년	70	1,500
	성인(가족)체험환경교육 (탄소중립/친환경)	일반, 청소년, 유아	30	500
	유아 숲체험 (다문화, 다함께 숲에서 놀자)	유아	50	1,000
	여름방학 환경캠프	유아, 청소년	10	500

○ 환경교육 민간단체(3개소)

기관명	교 육 명 (주 요 내 용)	교육대상	횟수	인원 (명)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유치부 환경교육(탄소중립의 이해)	유아	4	150
	방과 후 환경교실 (자연환경의 중요성,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식, 환경 모둠판 만들기)	청소년	15	180
	청소년 환경교육(생명의 근원 물)	청소년	10	200
	환경지도자 육성교육(지속가능한 지구환경)	일반	1	30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교육(신재생에너지 현장 체험)	일반, 청소년	15	130
전남 녹색 환경 지원 센터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교육 (생활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후보호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일반	1회 (8강)	100
	미세먼지저감 활동가 양성교육 (미세먼지 대응 행동지침 등을 알려	일반	1회 (10강)	50

기관명	교 육 명 (주 요 내 용)	교육대상	횟수	인원 (명)
	미세먼지 대응 기여)			
	자원순환 활동가 양성교육 (탄소중립 실현에 맞춰 생활속 실천할수 있는 자원순환 활동, 탄소중립 활동 시민교육)	일반	1회 (10강)	50
	전남형 그린뉴딜 전문가 양성교육 (전남지역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그린뉴딜 전파 및 홍보를 위한 활동가 양성교육)	일반	1회 (8강)	30
	찾아가는 환경담당자 역량강화교육 (환경측정 관련 환경관리 담당자 이해도 향상 및 관리 감독 강화)	일반	5회 (5강)	50
	환경측정분석 전문인력 양성교육 (환경측정 분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관계자 업무 능력 향상)	일반	1회 (8강)	30
	층간소음 갈등 상담가 양성교육 (공동주택 관리인력 및 주민주도의 자율적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일반	1회 (6강)	50
	화학물질 환경안전 전문가 양성교육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환경・안전 전문가 양성교육)	일반	1회 (7강)	30
	기후보호 청년 전문가 양성교육 (기후변화와 환경일자리를 접목시켜 특화된 청년 전문가 양성)	일반	1회 (7강)	50
	소규모 사업장 환경관리인 역량강화교육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재고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교육을 통한 환경업무 역량 강화 기여)	일반	1회 (5강)	20
	전남 생태해설사 양성교육 (전남의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 심각성, 이해를 통해 전남생태관광 및 자연보호 교육 활성화)	일반	1회 (8강)	30
전남 기후 환경 네트 워크	탄소중립 환경놀이한마당 (신나는 재・활용놀이, 재생에너지체험, 햇님요리)	일반, 청소년, 유아	45	600
	찾아가는 기후교실 '탄소중립 생활실천' (탄소중립 생활 속 실천교육,제로웨스트만들기)	일반, 청소년, 유아	40	600

기관명	교 육 명 (주 요 내 용)	교육대상	횟수	인원 (명)
	탄소중립 실천가 그린리더양성(초급/중고급) (탄소중립-초급 3시간, 중급 20시간)	일반, 청소년	32	660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양성 (보수 4시간/기본 6시간/심화 6시간)	일반	3	130
	재미있는 환경교실 '싹쓰리 줍줍 플로깅' (탄소중립-자원순환)	일반, 청소년, 유아	45	600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환경정책팀장 현병옥, 담당자 이종호**

나. 환경홍보 및 민·관 협력 추진

경제 발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가 모임인 환경단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환경분야 민간단체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분야 민간단체 등 등록 현황(전라남도) 】

(2021. 12. 31. 기준)

계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134	50	84

매년 민간환경단체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 활동과 환경보전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모집하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에는 14개 단체, 79.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민간환경단체와 정례적인 회의 및 각종 간담회를 통해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민간환경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환경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환경교육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라남도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환경정책팀장 현병옥, 담당자 이종호

1-6. 생태자연환경 보전·이용

가. 우리 도의 자연환경

1) 지형과 토지

우리 도는 동아시아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양면이 바다에 접해 있으며, 동쪽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경계로 경상남도와 서쪽은 황해를 건너 중국과 남쪽은 제주도와 북쪽은 전라북도와 접하고 있다.

전남은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 고조와 여가 및 휴양거점으로서 해양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고, 생물자원과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향후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조력, 바이오산업은 새로운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어 친환경자원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남의 자연자원의 가치는 보전되고,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도의 면적은 전 국토의 12%인 12,312㎢로 그 지형적 특색이 동은 높고 서는 낮은 동고서저의 형태를 나타내고, 북은 높고 남은 낮아 북고남저의 형태를 띄고 있다. 다만 동쪽이 북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산성을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특색과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동서해안은 모두 침강량(沈降量)이 많은 해안으로 만과 반도, 좁은 해협, 그리고 무수히 많은 도서가 불규칙하게 분산되어 있어 이른바 한국식 해안이라는 별칭이 있는 리아스(rias)식 해안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도서는 2,165개(무인도 포함)로 전국의 65%를 차지하고 세계적인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도서는 전부 육지의 침강결과로 생긴 육도(陸島)로서 대부분이 산지 또는 언덕으로 평지는 극히 적은 편이다.

다도해 연안은 침강해안의 특징으로서 좁은 해협에 의하여 육지와 연결되는 여수, 고흥, 장흥, 해남 등의 4대 반도가 돌출하고 있고, 그 사이에 수심이 얕은 광양, 순천, 보성, 강진 등의 만이 깊숙이 만입되어 있으며, 그 외해(外海)에도 많은 도서들이 분포해 있다.

우리 도의 전체 면적은 12,318.8천㎢이다. 임야가 6,991.1천㎢으로 전체 면적의 56.8%를 나타내며, 농경지 답의 경우 2,048.4천㎢으로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이 1,157.5천㎢로서 9.4%를 차지하고 있다.

2) 기후

전남의 기후는 해안 및 도서지방과 내륙 산악지대에 있어 기온의 차이가 크며 해안선이 길고 바다에 접한 면적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지만 내륙산악지대는 연안지방과는 현저한 차이로 기후의 교차가 크고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남의 기후는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기후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지리적 위치로 보아 한반도의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어

바다에 면한 지역이 넓고 해안선이 길어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백산맥, 노령산맥 등의 산악지대와 이들 산지로부터 발원한 하천들이 형성한 내륙의 분지지역들은 해안 및 도서지방과는 기후적 차이를 나타내어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나타낸다.

전라남도의 겨울철에는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쪽에 위치한 지역과 지리산에 인접한 지역에 많은 양의 강설을 보이며, 여름철에는 태풍의 진로방향에 놓여 있어 강풍과 많은 양의 강우를 보인다.

2021년 전남의 연평균 기온은 14.8℃ ~ 14.9℃(평년대비 +0.9℃)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1월(-9.1℃ ~ 9.1℃)과 10월(17.1℃~22.5℃)은 기온 변동폭이 역대 가장 컸다. 연 평균 강수량은 1,363.2㎜로 평년 1216.0㎜ ~ 1,598.8㎜와 비슷했다.

전남도에서는 지방자치시대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보전과 상충하고 있으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 경관 가치가 우수한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이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자연생태팀장 정병현, 담당자 진호춘**

나. 자연생태계 보전 대책

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가) 야생동물 관리 여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관리 인식 및 체계가 미흡하여 많은 생물들이 멸종 위기의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지정하였고, 이어 2011년 7월 2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60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07종을 지정하여 포획·채취 등을 금지하고 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60종) 】

구 분	종 명
포유류 (12종)	늑대, 대륙사슴,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소니, 여우, 작은관코박쥐, 표범, 호랑이
조류 (14종)	검독수리,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매, 먹황새, 저어새, 참수리,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호사비오리, 흑고니, 황새, 흰꼬리수리
양서·파충류 (2종)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어류 (11종)	감돌고기, 꼬치동자재, 남방동사리, 모래주사,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여울마자, 임실납자루, 좀수수치, 퉁사리, 흰수마자
곤충류 (6종)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산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무척추동물 (4종)	나팔고둥, 귀이빨대칭이, 두드럭조개, 남방방게
육상식물 (11종)	광릉요강꽃, 금자란, 나도풍란, 만년콩, 비자란, 암매, 죽백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라솜다리, 한란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207종) 】

구 분	종 명
포유류 (8종)	담비, 무산쇠족제비, 물개, 물범, 삵,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조류 (49종)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촉새, 검은목두루미, 고니, 고대갈매기,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구 분	종 명
	독수리, 따오기, 뜸부기, 먹황새, 무당새,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해오라기, 뿔쇠오리, 뿔종다리, 새매, 새호리기, 섬개개비, 솔개, 쇠검은머리쑥새,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올빼미,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덤불해오라기, 큰말똥가리, 팔색조, 항라머리검독수리, 호사비오리, 흑기러기, 흑두루미, 흑비둘기, 흰목물떼새, 흰이마기러기, 흰죽지수리
양서・파충류 (6종)	고리도룡뇽,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표범장지뱀
어류 (16종)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꺽저기, 꾸구리, 다묵장어, 돌상어, 모래주사, 묵납자루, 백조어, 버들가지, 부안종개, 열목어, 좀수수치, 칠성장어, 한강납줄개, 한둑중개
곤충류 (20종)	깊은산부전나비, 꼬마잠자리, 노란잔산잠자리, 닻무늬길앞잡이, 대모잠자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뚱보주름메뚜기, 멋조롱박딱정벌레, 물방개, 물장군, 소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애기뿔쇠똥구리, 여름어리표범나비, 왕은점표범나비, 은줄팔랑나비, 참호박뒤영벌, 창언조롱박짝정벌레, 큰자색호랑꽃무지,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무척추동물 (28종)	갯게, 거제외줄달팽이,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금빛나팔돌산호, 기수갈고둥, 깃산호, 대추귀고둥, 둔한진총산호, 망상맵시산호, 물거미, 밤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붉은발말똥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연수지맨드라미, 염주알다슬기, 울릉도달팽이, 유착나무돌산호, 의염통성게, 자색수지맨드라미, 잔가지나무돌산호, 착생깃산호, 참달팽이, 측맵시산호, 칼세오리엽새우, 해송, 흰발농게, 흰수지맨드라미
육상식물 (77종)	가는동자꽃, 가시연,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개가시나무, 개병풍, 갯봄맞이꽃, 검은별고사리, 구름병아리난초, 기생꽃, 끈끈이귀개, 나도승마,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노랑만병초, 노랑붓꽃, 단양쑥부쟁이, 닻꽃, 대성쓴풀, 대청부채, 대흥란, 독미나리, 두잎약난초, 매화마름, 무주나무, 물고사리, 방울난초, 백부자,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분홍장구채, 산분꽃나무, 산작약, 삼백초, 새깃아재비, 서울개발나물, 석곡, 선제비꽃, 섬개야광나무, 섬개현삼, 섬시호, 세뿔투구꽃, 손바닥난초, 솔붓꽃, 솔잎난, 순채, 신안새우난초, 애기송이풀, 연잎꿩의다리, 왕제비꽃, 으름난초, 자주땅귀개,

구 분	종 명
	전주물꼬리풀, 정향풀,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제주고사리삼, 조름나물, 죽절초, 지네발란, 진노랑상사화, 차걸이란, 참물부추, 초령목, 칠보치마, 콩짜개란, 큰바늘꽃, 탐라란, 파초일엽, 피뿌리풀, 한라송이풀, 한라옥잠난초, 해오라비난초, 혹난초, 홍월귤, 황근

나) 야생생물 관리 강화

각종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20~30년 이내에 지구상의 전체 생물종 20~30%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도는 2000년 3월 4일에 「전라남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2017년 12월 28일에 「전라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2021년 11월 4일에 「전라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도내 자연환경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총 51개소 지역 71.43㎢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연번	시군	소 재 지	면적(㎢)	지정연도	비고
계	51개소		71.4251		
1	목포	죽교동 산42-2	0.9900	2008	
2	여수 (4개소)	중흥동 산 195-1외 3	0.1220	2011	
3		돌산읍 율림리 산7외 2	0.1000	2003	
4		중흥동 산190-1	0.1000	2007	

연번	시군	소 재 지	면적(㎢)	지정연도	비고
5		화양면 창무리 665-13외 2	1.0000	2006	
6	순천 (4개소)	석현동 산1-1	0.1000	1987	
7		송광면 신평리1-1	0.1300	1987	
8		승주읍 죽학리48-1	0.1770	1987	
9		조곡동 산 64-1	0.0300	1987	
10	나주 (3개소)	경현동 산38-1	0.4000	2008	
11		다도면 판촌 산188-6외 6252	4.4500	2009	
12		다도면 덕림리 산36번지	0.0469	2017	
13	광양 (4개소)	광양읍 칠성리 산2	0.1600	1998	
14		봉강면 조령리 산173-1	0.1000	1997	
15		중군동 산11외26	0.3900	2001	
16		진상면 어치리 산308	2.5800	1995	
17	담양	용면 도림리 산154외 13	0.6100	1995	
18	곡성 (4개소)	고달면 호곡리 산83외 31	1.9000	2008	
19		곡성읍 월봉리 산27-1	1.1000	2008	
20		오곡면 구성리 산3-1외 29	1.7000	2008	
21		죽곡면 원달리 산189-1	4.2000	2008	
22	구례 (3개소)	광의면 방광리 산1-1	0.2000	2002	
23		마산면 황전리 산20-1	0.4000	2007	
24		토지면 내동 산368, 외곡리 산 367	5.8000	2007	
25	고흥 (3개소)	고흥읍 남계리 산57	0.1093	1998	
26		두원면 운대리 산40외 6	0.1025	1997	
27		금산 신평 산256-19, 오천 산 98-77 등	4.1059	2010	
28	보성 (3개소)	문덕면 죽산리 산77-1외 3	3.3300	1993	
29		복내면 동교리 산157외 13	0.1900	1996	
30		회천면 영천리 167-1외 13	0.2600	1996	
31	화순 (3개소)	남면 유마리 산1-1	2.4000	1998	
32		춘양면 가동리 산151	0.9400	1998	
33		한천면 금전리 19외 444(유지)	0.4900	1998	
34	장흥 (2개소)	유치면 봉덕리 산10-1	0.1100	1998	
35		장흥읍 덕제리 산1-1외 6	0.1900	1998	
36	강진 (2개소)	성전면 월남리 산116-2	0.5000	2007	
37		칠량면 명주리46-1외 6	3.9300	2003	
38	해남	삼산면 구림리 산8-1	3.4000	1992	
39	영암 (3개소)	영암읍 용흥리 산 18-1	0.7500	2016	
40		금정 쌍효 산72, 연소 산31-1	0.3600	2009	
41		영암읍 개신리 산89-2 외 26	7.6500	2015	
42	무안	몽탄면 달산리 산144-1외 22	1.2500	1996	

연번	시군	소 재 지	면적(㎢)	지정연도	비고
43	함평	대동면 서호리 318외 185	0.9780	2008	
44	영광	불갑면 모악리 산1외 3	1.9600	2002	
45	장성 (3개소)	삼계 수산·덕산·수옥리	1.0150	2013	
46		북하면 신성리 산25	7.4105	2002	
47		장성읍 유탁리	0.1780	2013	
48	완도 (2개소)	보길면 부황리 산10-20외 2	0.3600	2003	
49		완도읍 군내리 산855외 1	0.1000	2003	
50	진도	군내면 세동리 1321	0.7700	1997	
51		의신면 사천리 산1	1.8000	1999	

3)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건립·운영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자연복귀가 점차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야생동물의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사고나 밀렵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연복귀를 돕기 위해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의사, 재활사 등 총 9명의 운영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21년도에는 멸종위기종 157개체, 천연기념물 258개체 등 870개체의 야생동물을 구조했으며 구조기술 노하우의 축적으로 매년 구조실적이 향상되고 있다.

【 전라남도 야생동물 구조센터 현황 】

위치	건립 년도	규모 및 장비	건립비 (백만원)	구조센터 전경
순천시 순천만길 922-15	2007	· 부지면적 4,665㎡ (건축면적 846㎡) · 구조차량, X-ray, 혈액분석기, 생화학분석기 등 32종	1,000 (국비 500 시비 500)	

【 야생동물 구조 현황 】

연도	구 조			치 료					보호종 구조	
	계	조류	포유류	계	관리	방생	박제	폐사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계	2,342	1,571	771	2,342	32	628	0	1,682	1,629	1,139
2021	870	615	255	870	30	238	-	602	157	258
2020	813	535	278	813	1	212		600	813	505
2019	659	421	238	659	1	178		480	659	376

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관리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도내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도내 지정 현황은 3개 시·군(순천, 완도, 신안 전역), 4,177.1㎢이다.

도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조사, 생물자원 전시, 홍보물 제작 등 자체 예산을 지원, 지속적인 지역민들과 상생협력을 통한 생태계보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 】

구역명	지정시기	지정면적(㎢)	비 고
계		8,216.13	
신안다도해	2009. 5. 26. (2016. 3. 19. 확대)	3,238.74	
순천시 전역	2018. 7. 25.	938.40	
완도군 전역	2021. 9. 15.	4,038.99	

5) 반달가슴곰 및 사육곰 보호시설(생츄어리) 건립추진

우리 도와 구례군은 2021년 환경부의 사육곰 몰수 보호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부터 2023년 까지 총 사업비 9,000백만 원(국비 4,500, 군비 4,500)을 투입하여 전남 구례군 마산면 지리산자락에 반달가슴곰 및 사육곰 보호시설(생츄어리)을 조성 중이다.

반달가슴곰과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된 사육곰들을 보호하여 동물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지리산권 생태관광의 랜드마크 관광기반 구축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반달가슴곰 및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사업 개요 】

위치	사업 기간	규모 및 장비	건립비 (백만원)	보호시설 조성 예시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10-14 일원	2021 ~ 2023	· 부지면적 12,320㎡ · 곰 생태학습장, 사육시설, 의료시설, 방사장 등	9,000 (국비 4,500 군비 4,500)	

6) 습지보호구역 관리

현행 「습지보호법」에서는 습지를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하며, '내륙습지'는 육지 및 섬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하며, '연안습지'는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 지역을 말한다. 전남도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나 국내 총 2,499개소의 내륙습지 중 386개소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내륙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습지보호구역 관리는 장기적으로 전남도의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증진 및 환경친화적 이용 체계를 위해 습지 훼손지를 지속적으로 복원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매력적인 생태공간으로 만들 예정으로 전남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습지는 홍수조절에 있어 절대적 기능을 발휘하고 영양분과 먹이 공급 기능, 지구상 존재하는 탄소의 40%를 저장할 수 있는 탄소의 흡수 및 저장소의 기능 및 인간이 지구에 생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후 조절 기능도 하고 있어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전라남도 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

습지보호지역명	지역	지정일	면적(㎢)	비 고
담양하천습지	담양	2004. 07. 08.	0.981	-
신안장도 산지습지	신안	2004. 08. 31.	0.090	람사르습지
순천 동천하구	순천	2015. 12. 24.	5,394	람사르습지
섬진강 침실습지	곡성	2016. 11. 07.	2,037	-

도는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을 통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등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체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순천 동천하구 습지, 동천하구 이사천 절강습지,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습지보전·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주요 습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협요인 대응 등 중장기적인 보전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인근 지역사회 및 다양한 환경변화 요소를 반영하여 전남도 만의 특색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지원 실적 】

지원 연도	사업대상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2019	2개소(순천, 곡성)	1,086	·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 탐조대 설치 및 무논습지 조성 · 토지보상 등 습지복원
2020	2개소(순천, 곡성)	2,856	
2021	3개소(순천, 곡성)	5,854	
2022	3개소(순천, 곡성)	7,571	

7)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원

전남도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지역 및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장과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남도에서는 철새먹이 제공 및 쉼터 제공을 위해 도내 대규모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농작물을 존치하고 미수확 농작물 손실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손실보상 기준은 환경부 지원단가 기준을 고려하여 시군별 추진협의회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단가를 산정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대규모 철새도래지인 순천만, 영암호, 금호호, 고천암호, 군내호, 흑산도 및 흑산권역 도서로 총 6개 지역이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구.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실적 】

지원 연도	사업대상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2019	순천, 해남, 진도	1,290	· 대규모 철새도래지 농작물(벼, 보리) 미수확 보상 · 철새 쉼터 제공
2020	순천, 해남, 진도	1,290	
2021	순천, 해남, 진도	1,290	
2022	순천, 해남, 진도, 신안	1,763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자연생태팀장 정병현, 담당자 진호춘, 윤재웅**

다. 자연환경보전 대책

1) 무등산권 국가(세계)지질공원 관리

무등산은 광주시, 화순군, 담양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서쪽으로 영산강유역 및 나주평야와 광주의 경계에 접하고 동쪽으로 섬진강 유역을 아우르고 있는 호남의 명산이다.

무등산은 백악기 시설 화산활동으로 생겨나 현재는 화산활동이 없는 사화산이다. 화산활동으로 생긴 화강암이 주를 이루고 서석대와 입석대로 불리는 주상절리대가 대표적인 지질명소이다.

무등산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2014년에 국내에서 6번째로 국가지질공원 지정되어 역사·문화, 생태학·지질학적 가치를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았고, 2018년에는 국내 3번째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지질유산보전 및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무등산국가지질공원 내에 총 지질명소 23개소로 이중 전남지역에는 11개가 있는데, 화순군 10개소(입석대, 광석대, 지공너덜, 시무지기 폭포, 만연사 선캄브리아기 화강편마암, 적벽, 서유리 공룡화석지, 백아산 석회동굴, 운주사 층상응회암, 화순 고인돌 장동응회암), 담양 1개소(신선대와 억새평전)가 있다.

【 무등산 국가(세계)지질공원 현황 】

구분	지정일	면적(㎢)	지정권자
무등산국가지질공원	2014. 12. 10.	246.3 (담양 17.4, 화순 95.2)	환경부장관
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	2018. 04. 17.	1,051(담양 455, 화순 95)	유네스코

* 국내 ⌐ 국가지질공원 13개소 : 제주,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강원 등
⌙ 세계지질공원 4개소 : 제주,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질명소 해설판 설치, 지질공원 해설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가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 연도	사업대상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2019	담양, 화순	60	· 지질명소 해설판 설치 · 지질공원 해설사 인건비 · 홍보물 제작 배포 등
2020	담양, 화순	140	
2021	담양, 화순	40	
2022	담양, 화순	40	

특히, 광주·전남 상생 협력하여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립을 위해 4개 지자체(광주시, 전남도, 담양, 화순) 추진하고 있으며 4년마다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받기 위해 국내외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지원,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지원 】

지원 연도	사업대상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2019	담양, 화순	80	· 지오트레일 토론, 트레일 · 지오마라톤, 지오음악회 · 홍보영상 제작 등
2020	담양, 화순	100	
2021	담양, 화순	100	
2022	담양, 화순	100	

【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 】

지원 연도	사업대상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2010	-	-	·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홍보 · 지질명소 관리 · 네트워크 형성(MOU) 등
2011	전남대학교	100	
2012	전남대학교	100	

2) 국립·도립공원 관리

우리 도는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무등산,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등 6개의 국립공원과 조계산, 두륜산, 천관산, 불갑산, 벌교갯벌,

신안갯벌, 무안갯벌 등 7개 도립공원으로 총 13개의 국·도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특성상 광주·전북·경남 등과 공원구역이 겹쳐 있고 전국 22개 국립공원 면적(6,726.298㎢)의 37.3%인 2,513.046㎢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년마다 실시하는 제3차 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각 공원별로 편입·해제지역을 확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관계부처 협의하고 있고 추후 공원별로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전남도 내 국립공원 지정 현황 】

공 원 명	지 정 일	면 적(㎢)	비 고
지리산국립공원	1967. 12. 29.	100.809	구례
내장산국립공원	1971. 11. 17.	33.818	장성
월출산국립공원	1988. 06. 11.	56.219	영암, 강진
무등산국립공원	2013. 03. 04.	27.771	화순, 담양
다도해해상국립공원	1981. 12. 23.	2,266.221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한려해상국립공원	1968. 12. 31.	28.208	여수

국립공원 외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시도에서 지정·운영하는 도립공원은 전국 도립공원 30개소 중 전남도는 7개로 국립공원과 같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도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의 도립공원 면적은 전국 30개 면적(1,149.113㎢)의 25.8%인 297.053㎢로 지난 2018년에 신안갯벌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최근 불갑산도립공원계획 결정 고시, 무안갯벌·신안갯벌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공고를 완료하였다.

【 전남도 내 도립공원 지정 현황 】

공 원 명	지 정 일	면 적(㎢)	비 고
조계산도립공원	1979. 12. 26.	26.750	구례
두륜산도립공원	1979. 12. 26.	32.910	해남
천관산도립공원	1998. 10. 13.	7.936	장흥
불갑산도립공원	2019. 01. 10.	7.004	영광
신안갯벌도립공원	2008. 06. 05.	162.263	신안
무안갯벌도립공원	2008. 06. 05.	37.122	무안
벌교갯벌도립공원	2016. 01. 28.	23.068	보성

전남도는 도립공원 탐방객 편의 제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관리를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18조의 6을근거로 도립공원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립공원 7개소에 대해 공원별 면적, 관리인력,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으로 각 시군 공원관리부서에서 필수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 도립공원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 】

지원 연도	사업대상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2019	6개 도립공원	510	· 공공요금, 일사사역인부임 · 시설물 유지보수 등
2020	7개 도립공원	700	
2021	7개 도립공원	700	
2022	7개 도립공원	700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우수한 자연환경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고, 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생태탐방, 자연학습

및 관찰 등 기회 제공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훼손 방지를 위한 생태공원, 자연환경 이용·관찰을 위한 생태탐방로, 교육·홍보를 위한 자연생태교육 및 홍보관 조성 등으로 시군에서 목적에 부합한 사업대상지가 있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도는 1998년부터 2021년까지 23년간 총 62개소 2,493억원을 지원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건전한 이용 기반을 구축하였다.

2022년에도 9개 시군 15개소에 사업비 217억원을 투입하여 생태공원, 생태탐방로, 생태 홍보관 등을 조성하고 있다. 단, 업무지침에 따라 타당성조사비, 토지매입비, 용지보상비, 진입도로,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 조성에는 지원할 수 없다.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지원 현황 】

지원 연도	사업대상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2019	11개 시군 18개소	19,054	· 생태공원 조성 · 생태탐방로 조성 · 자연생태 홍보관 조성 등
2020	11개 시군 17개소	16,850	
2021	9개 시군 16개소	17,145	
2022	9개 시군 15개소	21,750	

4)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전남도에서는「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환경보호와 자연보전을 고려한 적절한 개발과 활용으로 관광자원 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은 한세대 뿐만 아니라 후세대 역시 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자원 보전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 향상', 여행자에게는 '양질의 경험 제공', 지역사회와 여행자를 위한 '양질의 환경 유지'를 목표로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내 생태관광지역은 환경부에서 공모를 통해 '14년에 순천시 순천만이 최초 지정되었으며 '16년에 완도군 청산면 상서마을과 신안군 흑산면 영산도를 지정·관리 중이다.

【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 현황 】

지원 연도	사업대상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2019	순천	86	· 체험프로그램 운영 · 생태관광해설사 운영 · 마을 환경정비 등
2020	순천	50	
2021	순천, 완도, 신안	224	
2022	순천, 완도, 신안	246	



【 순천시 순천만 】



【 완도군 상서마을 】



【 신안군 영산도 】

추진부서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자연생태팀장 정병현, 담당자 진호춘, 윤재웅

2. 수질환경 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2-1. 수생태계 복원

가. 3대강 및 지류·지천 수질개선

도내 3대강(영산강, 섬진강, 탐진강)의 수질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공급 및 아름다운 친수 공간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2,757억원(국비 1,662, 지방비 1,095), 2022년 3,643억원(국비 2,330, 지방비 1,313)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신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산강은 유역면적이 좁고 유로가 짧음과 동시에 유지용수가 절대 부족하여 자연 자정능력이 떨어지고,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여 구조적으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2025년까지 본류 구간 중 광주, 나주, 함평, 무안은 3등급(보통 물) 그 외 구간에서 2등급(약간 좋은 물) 수준의 수질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섬진강·탐진강은 본류 전체 구간에서 1등급(좋은 물) 수준의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까지 1등급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류·지천 수질개선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치·이수 중심의 인위적으로 정비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퇴적오니 준설, 인공습지, 생물서식지, 여울·어도, 생태호안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8개 시·군, 8개 하천에 사업비 17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22년에는 8개 시·군, 8개 하천에 183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또한 강·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농도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총량(농도×유량)으로 제한하여 수질을 관리

하고 있으며, 도내 3대강(영산강, 섬진강, 탐진강)을 18개 단위유역으로 구분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16개 시·군별로 배출허용량을 제한하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 도내 3대강 주요지점 수질측정 결과(BOD) 】

(단위 : mg/l)

수 계	측 정 지 점	'18년	'19년	'20년	'21년
영산강	담 양(금성면 금월교)	1.4	1.7	1.6	1.3
	광 산(나주시 노안면 학산교)	5.8	5.0	5.5	5.3
	나 주(나주대교)	5.8	4.8	5.2	5.3
	무안 1(몽탄면 명산리)	3.0	3.3	3.0	3.1
	무안 2(삼향면 옥암리)	2.2	1.8	1.5	1.9
섬진강	곡 성(오곡면 압록리 예성교)	1.0	0.9	1.1	1.1
	구 례(토지면 송정리 간전교)	0.8	0.8	0.8	1.0
탐진강	탐진강 1(장흥군 부산면 유양교)	1.4	1.3	0.9	0.8
	탐진강 2(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2.2	2.2	1.3	1.3
	탐진강 3(강진군 군동면 석교교)	2.1	2.0	1.3	1.1

추진부서 물환경과장 최재화, 수질개선팀장 노일상, 담당자 조재규, 김희근

나. 강·하천 살리기 민간 참여 확대

전라남도 내 3대강(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수계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하천변 부유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방지 활동 등을 지원하는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강·하천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7개 시·군(영산강 8, 섬진강 6, 탐진강 2, 기타 1)에 392억 원을 투자하여 102,231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하구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경관 등 훼손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도민들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환경오염 행위 신고·감시 및 수질 정화활동 등 '지방하천 환경지킴이'를 운영하면서 취업취약계층 등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환경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질보전 홍보·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등 강·하천 살리기 운동을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도는 앞으로도 강·하천 및 도내 3대강 수계 수질오염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해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 민간 참여 강·하천 살리기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1,020	25,961	2,487	2,514	6,456	3,602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39,203 (102,231톤)	25,961 (72,980톤)	2,167 (3,277톤)	2,094 (3,265톤)	5,916 (13,894톤)	3,065 (8,815톤)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1,700	-	300	400	500	500
강・하천살리기 운동	117	-	20	20	40	37

추진부서 물환경과장 최재화, 수질개선팀장 노일상, 담당자 민진영

2. 수질환경 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2-2. 상·하수도처리 시설 및 관리체계 구축

가. 상·하수도 시설 확충

우리 도 상수도 보급률은 91.9%(환경부 상수도통계, 2020년)로 전국 평균 97.5% 보다 낮다.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과 섬 지역이 많아 관로연장은 길어지고 혜택을 받는 인구는 적기 때문이다. 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도 어려워 상수도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조 2,658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서시역의 식수원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2,575지구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은 92.7%까지 높일 계획이다.

【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 】

시군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총급수량 (㎥)	1인1일 급수량 (ℓ/인/일)	취수 시설 (개소)	정수 시설 (개소)
전라남도	1,884,455	1,731,959	91.9	241,936,941	381.5	79	88
목포시	227,178	226,459	99.7	30,605,305	369.3	-	1
여수시	284,866	272,056	95.5	38,598,190	387.6	4	5
순천시	284,238	277,322	97.6	32,612,194	321.3	3	4
나주시	118,251	100,519	85.0	13,848,101	376.1	-	1
광양시	153,332	135,981	88.7	17,452,634	350.7	-	2
담양군	47,199	39,244	83.1	4,995,335	347.8	2	1
곡성군	28,514	24,598	86.3	3,684,755	409.3	2	2
구례군	25,925	20,376	78.6	4,142,487	555.5	2	4
고흥군	64,923	50,641	78.0	8,524,253	459.9	7	7

시군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총급수량 (㎥)	1인1일 급수량 (ℓ/인/일)	취수 시설 (개소)	정수 시설 (개소)
보성군	40,921	25,143	61.4	3,816,182	414.7	3	3
화순군	63,359	57,522	90.8	9,238,252	438.8	4	5
장흥군	38,334	35,841	93.5	4,570,807	348.4	-	0
강진군	35,042	24,770	70.7	3,220,419	355.2	2	2
해남군	70,218	56,680	80.7	7,793,736	375.7	4	4
영암군	57,868	53,296	92.1	14,375,658	731.5	4	4
무안군	87,630	87,331	99.7	12,065,193	377.5	-	0
함평군	32,685	31,372	96.0	4,310,427	375.4	1	1
영광군	54,026	51,869	96.0	7,404,474	390.0	5	5
장성군	45,457	42,450	93.4	5,411,685	348.3	1	1
완도군	52,128	50,481	96.8	5,952,061	322.2	11	12
진도군	32,659	32,309	98.9	4,362,726	368.9	10	10
신안군	39,702	35,699	89.9	4,952,067	379.0	14	14

※ 2020년말 환경부 상수도 통계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82.7%(환경부 통계연보, 2020년)로 전국 평균 94.5%에 비해 낮으며,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2022년에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등 3,437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84.4%까지 높일 계획이다.

【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현황 】

(단위 : 명, %)

시·군	총인구	하수처리구역내			구역외	보급률
		계	하수	폐수		
전라남도	1,884,455	1,558,855	1,523,330	35,525	325,600	82.7
목포시	227,178	222,637	222,625	12	4,541	98.0
여수시	284,866	250,266	250,266	0	34,600	87.9
순천시	284,238	277,988	277,988	0	6,250	97.8
나주시	118,251	93,735	93,735	0	24,516	79.3
광양시	153,332	149,691	147,833	1,858	3,641	97.6

시·군	총인구	하수처리구역내			구역외	보급률
		계	하수	폐수		
담양군	47,199	36,848	36,848	0	10,351	78.1
곡성군	28,514	23,454	22,834	620	5,060	82.3
구례군	25,925	24,212	23,620	592	1,713	93.4
고흥군	64,923	38,482	38,482	0	26,441	59.3
보성군	40,921	25,892	25,892	0	15,029	63.3
화순군	63,359	53,262	52,762	500	10,097	84.1
장흥군	38,334	27,828	27,828	0	10,506	72.6
강진군	35,042	23,699	21,991	1,708	11,343	67.6
해남군	70,218	37,881	37,499	382	32,337	53.9
영암군	57,868	44,579	18,141	26,438	13,289	77.0
무안군	87,630	63,653	63,142	511	23,977	72.6
함평군	32,685	24,834	24,834	0	7,851	76.0
영광군	54,026	34,941	34,941	0	19,085	64.7
장성군	45,457	29,986	29,986	0	15,471	66.0
완도군	52,128	35,076	33,604	1,472	17,052	67.3
진도군	32,659	22,917	21,485	1,432	9,742	70.2
신안군	39,702	16,994	16,994	0	22,708	42.8

※ 2020년말 환경부 하수도 통계기준

추진부서 **물환경과장 최재화, 먹는물관리팀장 장경신, 담당자 김상중**
하수관리팀장 조민재, 담당자 김지석

나. 노후상수도 현대화 및 스마트 관망관리 추진

1)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노후상수도 시설(관로, 정수장) 현대화를 통해 이물질 유입 및 녹물 발생 등을 예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노후된 상수관로로 인한 누수를 저감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도내 상수도 관로 21,046km 중 상수도관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로는 3,038km(14.4%)으로 수도관 노후화에 따라 누수율이 22.9%(전국 10.4%)를 보이고 있으며, 양으로는 연간 56백만 톤에 이른다.(2020년 말 기준)

상수도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8개 시·군 23개소에 3,962억원을 투자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17개 시·군 22개소에 1,215억 원 반영하여 추진 중이다.

2) 스마트 관망관리 추진

상수도 운영에 ICT기반을 접목하여 수질과 수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수도 시설에 접목되는 대표적인 ICT 기술은 스마트미터, 스마트 수압계, 자동 드레인, 수질측정장치, 관세척 등이 있다.

도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12개 시·군 12개소에 71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2년에는 17개 시·군 17개소에 471억을 반영하여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22개 전 시·군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적수사고 등 발생시 각 가정에 적수유입을 자동으로 차단하게 되고, 전 시·군의 관망 계측자료를 중앙(영·섬수도지원센터)에 전송하여 체계적인 상수도 공급체계가 구축된다.

추진부서 ● **물환경과장 최재화, 먹는물관리팀장 장경신, 담당자 김상중**

다. 지하수 보전 관리

최근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와 양질의 수자원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개발이익의 분배와 사회적, 환경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신규 수자원 확보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용 수자원이던 지표수뿐만 아니라, 보조 수자원으로 이용되어 왔던 지하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지하수가 주요 수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과 효용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지도 부족과 무계획적인 난개발로 인하여 지하수는 더 이상 미래 수자원으로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용도별 지하수 이용 및 시설현황 】

(2020년 말 기준, 단위 : 공, (천)㎥/년)

구분	총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용	
	개소(수)	이용(천 톤/년)	개소(수)	이용(천 톤/년)	개소(수)	이용(천 톤/년)	개소(수)	이용(천 톤/년)	개소(수)	이용(천 톤/년)
전남	256,462	392,734	119,937	102,501	962	13,947	135,370	274,360	193	1,926

* 기타 : 온천수, 먹는샘물 등

한번 오염된 지하수를 원상복구 시키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하수를 온전히 보전하고 후대에까지 영구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지반침하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고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전남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2015. 11.16.)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2016. 1.)하여 운영 중에 있다.

추진부서 물환경과장 최재화, 먹는물관리팀장 장경신, 담당자 변대일

3. 폐기물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3-1.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확충

가. 생활폐기물 처리 및 공공선별 시설 확충

1)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도 내 생활폐기물 연간 발생량은 823,881톤이고 가정 발생 생활폐기물이 638,054톤(77%), 사업장 발생 생활폐기물이 185,827톤(29%)을 차지하며, 처리량은 재활용 390,837톤(47%), 소각 153,021톤(19%), 매립 262,660톤(32%), 기타방법 17,363톤(2%)이다.

각 가정, 단독주택,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을 확충하였고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고 품질 개선을 위하여 공공선별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매립시설은 시설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시설, 우수 배제시설, 가스 처리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가연성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소각시설이 없는 시·군에는 신규 소각시설을 확충하거나 대체처리시설을 설치해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4월 현재까지 매립시설은 각 시·군에 총 62개소(목포 1, 여수 8, 순천 2, 나주 1, 광양 1, 담양 1, 곡성 1, 구례 1, 고흥 3, 보성 2, 화순 1, 장흥 2, 강진 1, 해남 1, 영암 1, 무안 1, 함평 1, 영광 1, 장성 1, 완도 11, 진도 5, 신안 15),

소각시설은 14개 시·군에 51개소(여수 6, 담양 1, 고흥 3, 보성 2, 장흥 1, 강진 1, 해남 2, 영암 1, 무안 1, 영광 1, 장성 1, 완도 9, 진도 4, 신안 18)이 운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매립, 단순 소각 방식을 탈피하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등 폐자원의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 공공선별시설 확충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와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되어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전남도는 목포, 보성, 담양, 함평에 총 133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선별시설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광양, 장흥, 해남에는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설비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까지 각 시·군에 총 34개소(목포 1, 여수 2, 순천 1, 나주 1, 광양 1, 담양 1, 곡성 1, 구례 1, 고흥 1, 보성 2, 화순 1, 장흥 1, 강진 1, 해남 1, 영암 1, 무안 1, 함평 1, 영광 1, 장성 1, 완도 8, 진도 1, 신안 4)의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공공선별시설)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및 재활용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물환경과장 최재화, 자원순환팀장 윤근상, 담당자 정현지

나. 재활용동네마당 확대 설치

1)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전남도는 단독주택, 농어촌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의 재활용 문화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2)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종이, 비닐, 병, 캔, 페트병 등 재활용 품목별 분리수거함과 구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며 쓰레기 발생량, 가구 밀집도, 지역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한 장소에 설치한다.

201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12억원을 지원받아 13개 시·군에 총 182개소(여수 8, 순천 37, 광양 4, 담양 19, 곡성 14, 보성 8, 장흥 9, 강진 3, 해남 31, 영암 19, 장성 11, 진도 12, 신안 7)를 설치하였다.

2022년부터 시행한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정착 등을 위하여 앞으로는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활용동네마당을 확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부서 물환경과장 최재화, 자원순환팀장 윤근상, 담당자 정현지

3-2. 영농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가. 공동집하장 확충

1)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용기 등이 불법소각 되거나 무단투기된 채로 방치되어 농촌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등 문제화 됨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 공동집하장 설치 추진

농민이 쉽게 영농폐비닐을 운반·배출할 수 있고 차량 진입이 쉬운 장소를 선정하여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가 구분하여 적재하고 있으며 농민 등 담당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결 상태를 관리 유지하고 있다.

3) 공동집하장 설치

2018년 128개소, 2019년 85개소, 2020년 73개소, 2021년 105개소

추진부서 물환경과장 최재화, 자원순환팀장 윤근상, 담당자 김지연

나.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1) 추진배경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빈병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할 경우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비닐·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 영농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2018년 폐비닐 33,222톤, 농약빈병 8,974천개, 2019년 폐비닐 33,247톤, 농약빈병 9,345천개, 2020년 34,063톤, 농약빈병 9,493천개, 2021년 폐비닐 35,380톤, 농약빈병 12,874천개 처리

3) 수거보상금 지원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공동집하장에 분리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에서 수거 후 수거량에 따라 배출자(농민 또는 마을이장·부녀회장 등 마을대표)에게 수거보상금으로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상태에 따라 60원~160원/kg, 농약빈병은 유리병 300원/kg, 플라스틱병 1,600/kg, 봉지류 3,680원/kg이 지급된다.

【 수거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계	14,608	3,380	3,616	3,790	3,822
폐비닐	10,956	2,491	2,713	2,899	2,853
농약빈병	3,652	889	903	891	969

추진부서 물환경과장 최재화, 자원순환팀장 윤근상, 담당자 김지연

3-3. 노후 슬레이트 철거

가) 추진배경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는 노후화에 따른 석면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어 슬레이트 조기 철거 및 처리가 필요하다. 우리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2021년 기준 172,465동이며, 경상북도 다음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다.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단위 : 동, '21.1.기준 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구분	합계	주택	축사	창고	공장	기타
전 국	953,701	633,625	49,329	210,682	11,326	48,739
전라남도	172,465	125,963	7,221	32,251	788	6,242

나) 슬레이트 철거 추진 및 성과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및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5천동(26%)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였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대상은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이며, 분야별 철거·처리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 우선지원가구 1동당 전액 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352만원 지원, ② 주택 지붕개량 : 우선지원가구 1동당 1,000만원, 일반가구 1동당 300만원, ③ 비주택 :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지원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조속한 철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매년 예산 확보를 통해 2030년까지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부서 물환경과장 최재화, 자원순환팀장 윤근상, 담당자 박수현

4.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4-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관리 강화

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3일부터는 전국을 4개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전남 6개 시·군(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과 광주광역시 전 지역이 지정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5년 단위로 연도별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는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부권 내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을 '18년 배출량 대비 질소산화물 23.1%, 황산화물 35.8%, 먼지 12.5%를 감축('24년 할당량 기준)할 계획이다.

【 남부권 총량관리사업장 지역배출허용총량(단위: 톤) 】

구 분		남부권	전남	광주
질소산화물 (NOx)	2020년	60,722	57,019	812
	2021년	59,639	56,001	798
	2022년	52,447	49,166	784
	2023년	48,707	45,618	770
	2024년	45,038	42,138	756
황산화물 (SOx)	2020년	40,503	39,280	43
	2021년	36,580	35,471	43
	2022년	29,927	29,013	43
	2023년	26,151	25,347	43

구 분		남부권	전남	광주
	2024년	22,218	21,528	43

※ 먼지(TSP)는 공통연소시설만 총량관리제 적용 중이므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은 미설정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환경관리팀장 박승영, 담당자 박준영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전남도에서는 총 4,72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사건 발생 이후 2019년 7월 주요 산단 환경관리 강화 및 효율적 악취 관리를 위해 환경관리과, 악취관리과를 신설하고 대기측정 인력을 증원하는 등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총량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총 18명을 증원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접규제 수단으로 사업장 규모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2021년에는 2,332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364개소 위반사업장(위반율 15.6%)은 행정 및 사법조치 등을 실시했다.

또한, 도내 주요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장 감시를 위해 유해대기 측정차량 2대와 드론 6기 등에 16억원을,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30기 구축에 4.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여수산단·삼일자원비축산단 전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악취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여수산단 및 주변의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총 191억원을 투자해 여수산단 화학사고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및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산단의 대기 및 수질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포스코광양제철소는 '18년부터 '21년까지 총 6,226억원을 발전시설 탈질 및 집진기 교체, 환경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확대 등의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였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강화, 환경점검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소통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환경조사팀장 정종원, 담당자 김동현

다.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2020년 5월 선정된 스마트그린산단의 10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85억원, 지방비 45억원(도비 30%, 시비 70%)으로 총 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지하시설물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스배관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고도화한다. IoT를 기반으로 한 대기유해물질 측정기, VOC 분석시스템, 지능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측정기 39개소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여수산단은 환경부 화학사고대응시스템, 화학물질 유.누출 모니터링시스템, 국토교통부 스마트 통합 플랫폼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산단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환경오염.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산단으로 거듭나게 된다.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환경지도팀장 박동균, 담당자 양연재

4-2. 중소·영세 사업장 저감시설 설치 지원

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남도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중소기업)에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개 시군 484개 사업장에 총 29,458백만 원 지원하였으며, 2022년 에는 16개 시군 214개소 3,630백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중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2021년)은 대기개선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광역단위 지원 및 사업장 여건에 적합한 기술·재정적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전남 광양시가 선정되어 30개 사업장 총 50억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의 개선을 통해 중소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남도 내 미세먼지 저감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환경관리팀장 박승영, 담당자 진효진

나. 중소·영세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중소·영세 사업장 환경기술지원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기술지원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와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4~5종에 대해 환경컨설팅을 지원한다.

우리 도에서는 유관기관 협업 및 전문 인력을 통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남환경기술인협회,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술지원 절차는 사업장에서 기술지원 신청을 받은 후 전담지원팀을 구성하고, 현장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순이다.

주요 지원분야는 대기·폐수, VOCs, 악취, 비산먼지 등이며, 세부 기술지원 내용은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의 공정을 진단·개선하고 관리 운영상 기술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해소한다.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영세(4~5종 배출업소) 1,872개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190개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환경민원팀장 신창우, 담당자 임현준

5.「숲속의 전남」확대 및 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

5-1. 경관·소득숲 확대 조성

가. 조림·숲가꾸기 사업 추진

1) 조림 사업 추진

조림사업은 리기다 조림지에 대한 갱신조림과 형질불량 임지·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미입목지 등에 지역과 산지특성에 맞는 조림을 실시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림 내용으로는 목재·바이오매스 등 산업용재 공급 및 단기소득을 위한 경제림 조성, 주요도로변·관광지·생활권주변 등 경관조성을 위한 큰나무 조림, 지역의 특색 있는 산림자원을 특화하는 지역특화림 조성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식재수종으로는 편백, 백합, 황칠, 후박, 가시나무, 상수리, 헛개 등 40여종에 달하고 최근에는 고령화·건강지향의 시대를 맞아 호두나무, 개암 등 견과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 조림 추진상황 】

(단위 : 천ha)

계	1차·2차 치산녹화 (1973~1987)	3차 자원화 (1988~1997)	4차 지역산림 (1998~2007)	5차 지역산림 (2008~2017)	6차 지역산림 (2018~2021)
323	192	55	36	30	10

【 주요 조림수종 】

(단위 : 천ha)

구분	편백	소나무	삼나무	백합	상수리	밤나무	황칠
면적	80	10	18	6	22	18	4
비율	24.7%	3.1%	5.5%	1.9%	6.8%	5.5%	1.2%

'숲속의 전남' 실현을 위해 기능을 다한 녹화수종은 우리 지역 비교우위 자원인 편백, 황칠 등 미래에 가치가 있는 경제수종으로 교체하고, 야산 등 생활권 주변의 접근이 용이한 산림에는 약용·식용 등 단기 소득숲을 조성하고, 꿀벌산업 육성·농작물 화분 매개 증진·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유지 등을 위해 공유림과 마을단위에 밀원 자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추진부서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자원팀장 강신희, 담당자 최진석**

2) 숲가꾸기사업 추진

우리 도의 산림은 수령 31년 이상(Ⅳ령급) 나무가 전체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10년 내 본격적인 목재생산 시대 도래가 예상된다.

따라서 임목형질을 향상시켜 가치 있는 산림으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숲가꾸기 작업종별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공익림가꾸기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숲가꾸기 산물은 수집하여 톱밥·칩, 서까래, 연료 등으로 활용하며, 빈 공간에는 더덕 등 소득작목을 입식하고 숲가꾸기 지역 내 베어질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높은 수목은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나무은행을 운영하는 등 자원 재활용 및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칡덩굴제거 사업은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의 경관을 개선하고 조림지의 수목 생장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뿌리굴취·약제살포·덩굴걷기·소금처리·병행작업·친환경효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년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연중제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2~3회 반복제거 및 대상지별 발생 위치와 칡 밀도를 고려한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숲가꾸기 작업 후】



【공익림 숲가꾸기】

또한,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조림지의 풀베기 작업 시 식재묘목의 피해배상기준을 도입하여 조림목 피해방지와 산림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모했다.

앞으로도 숲가꾸기 사업의 현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 】

(단위 : ha)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61,931	36,676	29,516	36,111	31,334	28,294
조림지가꾸기	109,929	23,178	20,219	23,996	22,136	20,400
어린나무가꾸기	14,351	3,223	1,826	3,203	3,099	3,000
큰나무가꾸기	37,651	10,275	7,471	8,912	6,099	4,894

추진부서 산림산업과장 김재광, 산림자원팀장 강신희, 담당자 최연봉

나.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전남도는 숲의 계획적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연경관과 산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2015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추진 일환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새마을회, 부녀자회, 청년회, 노인회, 마을 이장단 등 5인 이상 주민 모임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생활권에 적합한 숲 조성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마을숲을 만들어 가고 있다.

블루 이코노미 대표숲으로 여수 장도에 바다、하늘、섬、숲 등 청정 블루자원으로 활용한 예술의 숲을 추진하고 있다. 장도 예술의 숲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 다도해 정원숲, 난대숲, 숲길 등을 조성하다. 순천시 백강로 주민참여숲은 도로변 불량 시설을 제거하고 그 곳에 숲을 조성하여 도로환경 개선에 기여함이 매우 컸다.

전남으로 귀촌하는 서울시민의 교육기관인 영암 미암 서울농장 쉼터 조성으로 교육생 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안락한 쉼터 제공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보성역 녹차골향토시장 일원에 주변 천연림을 훼손하지 않고 특색있는 숲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이용과 경관을 개선하였다.

여수 죽림리 쉼터숲, 해남 온인마을숲, 고흥 남영마을 쉼터숲 등 생활권 주민 이용이 가능한 쉼터 기능과 경관을 향상하는 다양한 숲을 조성하였다.

【「숲속의 전남」만들기 주민참여숲 연도별 조성현황 】

연도	개소수 (개소)	사업비 (억원)
계	187	160
2018	91	40
2019	55	40
2020	22	40
2021	19	40

추진부서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자원팀장 강신희, 담당자 김원희

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서남해안 섬숲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에만 고유하게 형성된 독특한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을 의미한다. 이 섬숲과 더불어 원주민들이 몇 천년동안 살아오면서 형성해온 도서숲 문화의 인문학적 의미를 포함한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지나친 이용과 개발로 고유의 서남해안 섬숲은 대부분 훼손되거나 퇴행되고, 도서벽지 등에 협소하게 일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서남해안 섬지역의 수려한 자연풍광과 식생,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전해야 할 해안의 산림자원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남도는 일부 남아 있는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을 보존하고, 훼손되고 퇴행된 숲을 되살려 고유의 식생 경관을 만들어 생물다양성 가치 제고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서남해안 섬숲 경관복원 계획을 수립했다.

섬숲 복원계획 수립을 위해 경관、생태、환경、조경、관광、산림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큰 틀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신규 국고사업에 선정되어 2029년 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최소 10년간 장기 계획으로 목포시 등 15개 시군에 서남해안 난대숲 복원·조성을 시작했다.

전국 최초로 2020년 신안군 안좌도, 자은도 2개 지역 40ha에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동백나무, 가시나무,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먼나무 등 난대 상록활엽수를 식재했다.

2021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영광군, 진도군에 45ha,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도서지역 특색있는 난대림 경관복원을 추진했으며, 2022년에는 광양시, 해남군, 무안군, 완도군, 신안군에 85ha, 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앞으로도 블루 이코노미 블루투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연계 섬별 향토·문화·역사성을 부각한 다양한 섬지역 난대숲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남해안 섬숲 경관복원사업 연도별 조성현황 】

연도	대상시군	면적 (ha)	사업비 (억원)
계		170	185
2020	신안군	40	43
2021	목포시 등 6개 시군	45	49
2022	광양시 등 5개 시군	85	93

추진부서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자원팀장 강신희, 담당자 김원희**

라.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신안군 하의도 故 김대중대통령 생가 일원에 남북평화와 민주화를 상징한 평화의 숲 조성으로 서남해안 관광문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한반도 평화의 숲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남북을 아우른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하늘、바람、섬、숲 등 전남의 블루 자원을 활용, 블루 이코노미 대표숲으로 조성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50억원(조성 250억원, 토지매입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신안 하의도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화합 평화의 상징숲을 조성하고자 '평화의 탄생', '인동초 정신', '평화의 마당' 등 김 전 대통령의 일생을 스토리텔링하여 세 개의 테마로 나누어 조성 계획이다.

「평화의 탄생」 공간은 하의도 선착장에서 생가와 그 주변을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과 소년 김대중을 추억하는 공간으로 생가 앞에는 소통과 화합의 '후광 평화광장'을 조성한다.

「인동초 정신」 구간은 생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린시절 수학했던 덕봉서당, 하의 초등학교를 지나 섬 반대편 큰바위 얼굴(죽도)까지 고통을 이겨내고 남과 북을 아우른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되새기는 구간으로 '김대중 기억의 숲길' 을 조성한다.

「평화의 마당」공간은 생가 반대편 큰바위 얼굴 주변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큰바위 얼굴(죽도)과 서남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해양 노을공원'으로 조성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후광 평화광장' 생가 진입로 320m 구간 폭30m에 후박나무, 굴거리나무, 조록나무 서양호랑가시나무 등 상록교목 150그루를 식재해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평화의 숲길'을 조성했다. 생가 뒷편 해양테마파크 주변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신 '배롱나무 정원'을 보완、조성했다.

2022년에는 21억 원의 사업비로 '후광 평화광장' 생가 진입로 평화의 숲길을 완성하고 방문객에게 역사적 가치를 부각할 후광 기념관(정치사진 박물관)을 조성한다.

【「한반도 평화의 숲」 주요사업 내용 】

(단위 :억원)

구 분	소 계	2020	2021	2022	2023
소 계	250	20	70	90	70
▸ 후광 평화광장	120	20	60	40	-
평화의 숲길	50	20	20	10	
김대중광장	20		10	10	
태극마당	10		10		
우리꽃정원	10		10		
배롱나무정원	10		10		
갯벌정원	20			20	
▸ 후광기념관	30				30
▸ 큰바위얼굴 오션뷰	20			20	-
▸ 김대중 기억의 숲길	30			10	20
▸ 후광언덕숲	20		10	10	
▸ 난대숲 복원	30			10	20

추진부서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자원팀장 강신희, 담당자 김원희

마. 나무은행 운영

나무은행은 개인·단체·유관기간에서 기증한 수목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목 중 보전 가치가 있거나 조경수로 이용가치가 있는 수목을 수집해 공공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나무은행 제도를 운영하여 그동안 감사원 모범사례, 행정안전부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버려지는 수목을 도시숲, 가로수, 휴양림 등 각종 공공사업장에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녹지공간 확충에 앞장섰다.

전남에는 '21년 기준 총 52개소(536,539㎡)의 포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목과 관목을 포함하여 5만 4천여 그루가 관리되고 있다. 매년 풀베기와 고사목 제거, 가지치기, 관수 등 사후관리 작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5년간 나무은행 운영 실적 】

(단위 : 그루, 백만원)

연도별	수집실적	활용실적	활용비율	예산절감액	비고
계	134,209	126,159	94%	9,743	
2017	54,929	55,233	101%	4,046	
2018	27,212	23,798	87%	1,175	
2019	12,193	7,364	60%	809	
2020	10,852	9,877	91%	962	
2021	29,023	29,887	103%	2,751	

추진부서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자원팀장 강신희, 담당자 최연봉

5-2.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목재이용 활성화

가. 산림현황 및 산지이용

1) 우리도 산림현황

우리 도의 산림분포는 크게 나누어 난대림, 온대림으로 구분하며 난대림지대는 연평균 기온이 섭씨 14도 이상으로 크고 작은 남해안 도서 지역을 포함하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수종은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이 생육하고 있으며, 온대림 지대는 연평균 기온이 섭씨 6~14℃로 주로 소나무, 참나무류, 느티나무, 대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으나 계속된 조림사업으로 편백, 삼나무, 리기테다 소나무 등 인공조림 성공지도 많이 볼 수 있다.

산림면적은 687천ha로서 전국 산림면적의 10.9%를 차지하고 있고도 전체면적의 56%나 된다.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97천ha(14%)이며 공유림은 34천ha(5%), 사유림이 556천ha(81%)로 거의 대부분이 사유림이나 소유규모가 영세한 10ha미만의 산림소유자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수탈과 6.25전쟁으로 인해 산림이 황폐화되어 1970년말 ha당 평균입목 축적이 10㎥에 불과했으나 산림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한 제1·2차 치산녹화사업(1970~1988)과 제3차 산지자원화사업(1988~1997), 제4·5차 산림기본계획(1998~2017) 제6차 지역산림계획(2018~2037) 실시로 현재는 ha당 입목축적이 128.2㎥까지 늘어났다.

이는 지속적인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했고 산불 등 각종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경제임업과 환경임업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산림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관리할 것이다.

【 최근 산림자원 변동 추이 】

(단위 : ha, 천㎥)

연도	산 림 면 적			임 목 축 적			평균축적 (㎥/ha)
	면적	증감	비율	축적	증감	비율	
2007	695,283	△402	△0.06	58,795	10,830	18.42	84.6
2008	695,315	32	0.001	63,331	4,536	0.07	91.1
2009	694,963	△352	△0.05	68,489	5,158	7.53	98.6
2010	694,787	△176	△0.02	67,955	△534	△0.78	97.8
2015	690,237	△4,550	△0.66	77,071	9,116	11.8	112.6
2020	686,852	△3,285	△0.49	88,049	10,978	14.2	128.2

2) 그동안 산림정책의 흐름

우리 산림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대부분 황폐해졌다. 1972년 이전에는 황폐한 산지 복구와 새로운 임정체제 구축을 위한 '산지녹화 복구기'로 제1차 치산녹화 5개년 계획에는 '치산녹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산림녹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여 산림사업이 국가 경제면에서 비중이 증대했다.

1973년부터 1987년까지는 '치산녹화기' 로 본격적으로 황폐한 산지 복구와 강력한 산림보호, 대규모 속성수 및 장기수 조림을 추진해 국토녹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는 '산지자원화기'로서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지자원기반을 조성했다. 이 시기에는 나무 심기 수종의 다양화와 숲 가꾸기 사업의 확대 및 경영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지·산주·산촌'을 포함하는 종합 임정 전개의 토대를 마련했다.

1998년부터는 자율경영 임정으로 가기 위한 '경영기반 구축기'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산림사업의 육성과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증진하며 산지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산촌과 도시, 사람과 숲이 공생하는 산림경영을 실현하는 경영임정기로 접어들고 있다.

2020년 12월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에 따라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시도별 연차별 계획에 맞추어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산림정책의 변천과정과 산림의 변화 】

구 분	녹화 착수기 ('72년 이전)	1차 치산 녹화기 ('73~'78)	2차 치산 녹화기 ('79~'87)	3차 산지 자원화기 ('88~'97)	4차 지역 산림계획 ('98~'07)	5차 지역 산림계획 ('08~'17)	5차 지역 산림계획 ('18~'37)
산림면적 (천ha)	769 (100%)	734 (100%)	713 (100%)	698 (100%)	696 (100%)	690 (100%)	687 (100%)
- 국 유 림	62 (8%)	64 (9%)	63 (9%)	63 (9%)	75 (11%)	90 (13%)	97 (14%)
- 공 유 림	35 (5%)	33 (4%)	33 (4%)	31 (4%)	31 (4%)	33 (5%)	34 (5%)
- 사 유 림	672 (87%)	637 (87%)	617 (87%)	604 (87%)	590 (85%)	567 (82%)	556 (81%)
조림면적 (천ha)	연료림 조성	105	87	55	36	30	30
임목축적 (㎥/ha)	3	12	28	53	69	112.6	128.2
황폐지복구 (ha)	76,495	3,591	2,843	477	47	149	-
산림휴양 시설(개소)	-	-	-	-	26	21	147
산촌개발 (개소)	-	-	-	2	16	23	41
임도시설 (km)	-	-	82	1,230	580	569	1,796

추진부서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정책팀장 나혜란, 담당자 안승욱**

3) 산지이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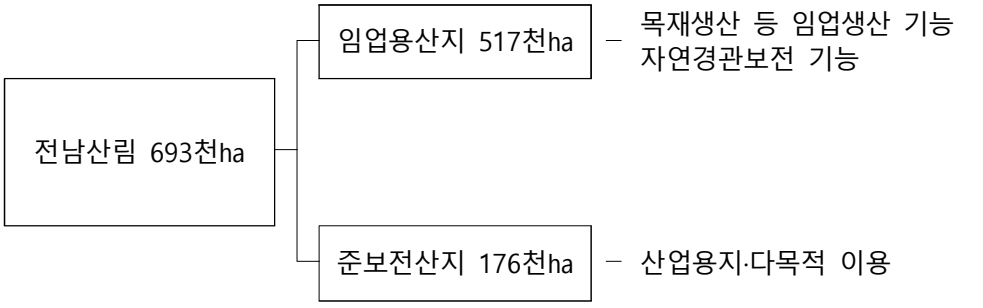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토지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일정 부분을 산지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림의 경제·환경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림의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현실이므로, 국가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 산지관리의 기본방향을 산림경영 및 자연생태계·경관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산지는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타

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산지에 대한 각종 개발수요는 가급적 준보전 산지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산지이용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첫째, 산지 이용 구분체계에 의한 합리적 보전과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산업 용지 공급과 산지의 다목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셋째,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설정하여 경제·환경기능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이용체계를 다음과 같이 재편하여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산지이용체계 】



DDA/FTA협상 등으로 농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농촌은 값싼 수입 농산물에 밀려 점점 기반이 붕괴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쌀·보리 위주의 농사보다는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소득을 창출해야 할 상황이다. 목재 생산기반을 조성해 가면서 숲 속에 다른 작물을 심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이나 단기 소득작목 육성에 많은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세계 각국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홍역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지전용과 골재·석재 채취, 광산개발 등이 이루어져 많은 산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지의 보전과 이용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산지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의 강화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도는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산림개발을 통한 국토 보전과 산림의 자원화 촉진, 그리고 공익기능 증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보호팀장 안병석, 담당자 양현

나. 산림탄소 거래기반 구축

민선7기 기후변화 대응「미세먼지 먹는 ECO숲 마켓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저감효과 분석, ECO숲 조성, ECO마켓 운영 등을 통한 산림탄소 거래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전남지역 주요 조림수종 및 난대수종별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나무식재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7.26배 낮게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수목의 잎과 가지 등에 차폐되고 흡착되어 공기 중으로 확산이 방지되며 감소 또한 빠르게 진행되며, 계절별로 봄, 겨울에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상록수 및 난대수종 식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수종별 미세먼지 저감능력 측정 결과 】

수종별	편백	소나무	비자	동백	황칠	은목서	홍가시	녹나무	백합	대나무
저감률(%)	71	85	79	57	67	57	68	67	85	59

ECO숲 조성은「숲속의 전남」만들기 생활권 확대로 가로수, 도시숲, 미세먼지 저감숲, 섬지역 경관숲 등 다양한 경관숲·소득숲을 7.5천ha 조성하였고, ECO마켓 운영을 통하여 전국 최대의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마련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192건(전국의 41%)을 등록했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산림경영 52건(15,940ha), 식생복구 136건(166ha), 신규조림 1건(7ha), 재조림 등 3건(3ha)이 등록됐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소나무, 참나무 등 30년생 기준 ha당 연간 이산화탄소 평균흡수량은 5~15톤으로 평균 10톤 정도이다.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현황(전남) 】

구 분	등록건수(건)	등록면적(ha)	연간탄소 흡수량(tCO_2)	총탄소 흡수량(tCO_2)
계	192	16,116	280,718	6,513,624
거 래 형	39	5,778	52,925	1,592,642
비거래형	153	10,338	227,793	4,920,982

온실가스 감축(흡수) 실적을 업체 거래 또는 상쇄배출권 전환을 통해 할당업체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고 있는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으로는 순천만국가정원 식생복구사업(77ha)이 2020년 11월 .6일 온실가스 감축사업 정부(농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았다. 순천만국가정원 식생복구사업을 통한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387톤으로 20년간 총 감축량은 7,740톤이며, 배출권 거래시 예상수익(20년간)은 178백만원으로 예상된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은 전국 5건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조성(식생복구), 경북도청 천년숲(식생복구), 인재군청 국도변 가로수(식생복구), 한국도로공사 도로변 조림(신규조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방풍림(신규조림) 등이 있다.

추진부서 ●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정책팀장 나혜란, 담당자 안승옥**

다. 친환경 목재산업 육성

최근 자연친화적인 목재를 활용한 목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특색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목재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전시공간 마련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목재문화체험장 주요 프로그램은 숲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으로 급별 강의를 추진하고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 기본재료를 제공하여 자연물을 활용 조형물 등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등의 도입으로 바이오에너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목재펠릿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지역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

앞으로도 목재산업 육성 및 생활권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목재이용 지역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실적 】

(단위 : 백만원)

명 칭	주요시설	조성기간	사업비	비 고
8개소			43,692	
장흥 우드랜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장, 관리실, 목재전시관 등	2006~2008	5,200	개 장
고흥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장, 전시실, 세미나실 등	2010~2014	5,200	개 장
영암 왕인박사 목재문화체험장	예체험장, 전시실, 세미나실 등	2010~2014	5,192	개 장
화순 유마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장, 전시실 등	2011~2013	5,200	개 장

명 칭	주요시설	조성기간	사업비	비 고
광양 백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장, 전시실, 세미나실 등	2011~2018	5,200	개 장
구례 섬진강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장, 전시실, 세미나실 등	2016~2018	5,700	개 장
목포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장, 전시실, 목공강의실 등	2018~2021	3,000	개 장
순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장, 전시실, 생애체험실 등	2019~2022	9,000	조성중

추진부서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자원팀장 강신희, 담당자 정은재

5-3. 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

가. 산불방지대책 추진

산불예방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산불조심기간인 봄, 가을에는 도 및 시·군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소방서, 군부대, 산불협회,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지역 산불방지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위반시는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산불위험이 높은 산림 154천ha와 등산로 698km를 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취약 지역 등산로 입구에는 산불감시원 등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재난문자, TV 산불예방 캠페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차량을 이용한 거리방송 및 마을 계도방송을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5,704개 마을이 참여하여 2021년까지 이행률은 99%를 달성했다.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대응을 위해서 산불감시 카메라 158대와 감시용 드론 16대로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감시원에게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지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위치 파악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군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의용소방대, 군부대 등 2만 5천명을 지상 진화대원으로 편성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운영했고, 조기진화 및 대형 산불 확산방지를 위해 산림청 헬기 4대, 임차헬기 8대 소방헬기 2대 총 14대의 헬기를 출동 대기상태로 운영하고 공중 계도방송을 지속해서 전개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산불발생현황 】

연도	발생건수	면적(ha)	피해액(천원)	원인별				
				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	성묘객실화	어린이불장난	방화범기타
계	177	49.79	2,785,237	53	57	13	1	53
2017	33	4.33	272,810	9	14	1		9
2018	39	6.26	377,747	9	10	6		14
2019	37	12.97	608,503	6	16	3		12
2020	36	8.19	612,223	7	13	1		15
2021	32	18.04	913,954	22	4	2	1	3

추진부서 ○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보호팀장 안병석, 담당자 정성표**

나. 다목적 사방사업 추진

지진·해일 및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가 집중화, 빈발화 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으로 인해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해소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 도는 여수시 등 21개 시·군에서 2,361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고, 매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도시설지, 대규모 형질 변경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정비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및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예방하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연계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에 따라 산지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 지질, 지형 특성상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산사태나 홍수범람 등의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비가 집중되고 국지적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으며, 특히 태풍의 주 진로권에 해당되어 사방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사방사업은 황폐산지를 단순 복구 등 녹화위주의 산지· 해안사방을 주로 추진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재해방지, 용수 공급, 환경보전기능을 갖춘 사방댐, 계류보전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방사업을 산림휴양 등 다목적 시공으로 전환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1) 산지사방

황폐지, 절개지, 산사태발생지 등에 비탈면의 물매를 완화시키고 유수분산, 소규모 기초공작물 시공과 병행하여 파종, 식재로 표토의 침식력을 약화시켜 토사유출과 붕괴를 방지하고, 나지를 녹화피복시켜 상류유역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2) 사방댐

황폐계류상 종·횡 침식으로 인한 돌, 자갈, 모래, 흙 등 붕괴물질을 억제하여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피해를 저지하기 위해 폭 20~70m, 높이 4~6m로 설치하는 횡단 공작물을 말한다.



【실행 전. 장흥 대덕 연지】



【실행 후】

3) 계류보전·복원사업

산지와 접속되는 황폐계류 홍수시 계천 범람으로 도로 및 농경 유실 및 하천 종·횡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산기슭을 고정, 물매를 완화시켜 하류 피해를 막는 것으로 주로 둑쌓기와 횡 공작물 등을 물매에 맞춰 계통적으로 시공한다. 이를 통해 황폐계류가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모래나 자갈 등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며 홍수범람 등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관과 조화된 계류(순천)】



【농경지 주변전경】



【경관편익시설 설치】

4) 산림유역관리

500ha 이상의 산림유역 중 산사태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수계유역 전체를 종합하여 각종 재해방지, 수원함양,

수질정화, 산림자원 증식, 산림환경기능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에 강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산림사업이다.

5) 해안사방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 연접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안방재림,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한 해안침식방지사업 등을 말한다.


【해안침식방지 조성 전(완도)】


【해안침식방지 조성 후(완도)】


【해남 구성 방재림 조성】

【 사방사업 현황 】

구 분		단위	계	1973 ~2017	2018	2019	2020	2021
산지사방		ha	7,187	7,120	9	20	21	17
야계사방		km	945	807	34	35	35	34
사 방 댐		개소	1,069	942	41	39	17	30
산림 유역 관리	설계	개소	32	18	5	5	2	2
	조성	개소	32	18	5	5	2	2
해안침식방지		km	80	51	7	7	8	7
해안방재림		ha	134	112	7	6	5	4

추진부서 ○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보호팀장 안병석, 담당자 김규석**

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우리도는 우량 소나무림, 난대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산림병해충에 대한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산림에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산림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솔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밤나무해충 등 10여 종이 있으며, 소나무류에 피해를 주는 3대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는 피해가 가장 크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소나무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침입 후,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이다.

1997년도에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금정암 주변에서 전남 지역 처음으로 발생되었으나 피해목을 완벽 방제하여 전국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했으며, 이후 2001년도부터 목포 유달산 및 도서지역과 영암, 신안에서 발생했고, 선제적인 방제로 3개 시·군 모두 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 청정지역 지정 : 영암('08.1.1), 목포('10.1.7.), 신안('20.9.3.), 해남('21.12.6.)

전국 15개 시·도 135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여 방제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2010년에 경남 남해·하동 등 재선충병 발생지와 연접한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지역에서 인위적인 이동으로 추정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2018년에 담양군과 2019년에 장성군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방제 중에 있다.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는 1929년과 1963년 무안과 고흥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소나무림에 지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 남방계 해충인 솔껍질깍지벌레는 분포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피해도 '중' 이상 지역 및 국립공원 등 주요지역에 임업적방제(재해저감사업)

후 나무 주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등 해안가 우량 해송림 보전을 위해 종합방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솔잎혹파리 방제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재선충병 방제 방법으로 처리하고, 미발생지역은 사전 임업적 방제(강도의 솎아베기)를 실행하여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목축적의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생태계가 변하면서 잠재 병해충의 돌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최근 FTA 확대로 임산물의 국제 교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외래 병해충의 침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산림병해충(돌발·외래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해충별로 임업적방제(피해목제거, 재해저감사업 등), 화학적방제(나무주사, 항공방제, 지상방제 등), 생물학적 방제(천적방사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제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화되는 산림 병해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 등 적극대처로 방제품질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병해충 5년간 방제실적 】

(단위 : ha)

연도	계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밤나무해충	
	발생	방제	발생	방제	발생	방제	발생	방제
계	13,575	23,869	4,663	3,558	1,892	1,663	7,020	18,648
2017	5,419	4,544	1,255	577	433	236	3,731	3,731
2018	2,476	5,302	967	708	469	294	1,040	4,300
2019	2,708	5,710	1,163	1,094	540	365	1,005	4,251
2020	1,926	4,862	1,008	582	281	550	637	3,730
2021	1,046	3,451	270	597	169	218	607	2,636

추진부서 산림산업과장 김재광, 산림보호팀장 안병석, 담당자 김유리

라.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노목, 희귀목, 명목 등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보호수로 지정해 체계적·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산림문화로 자산화하고 있으며, 생육기능 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보호수의 생육개선과 생활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보호수 지정현황 】

총본수 (본)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기타
4,140	2,131	756	459	166	76	552

【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실적 】

(단위 : 본, 백만원)

연 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1,452	6,048
2017	225	1,020
2018	225	1,020
2019	334	1,336
2020	334	1,336
2021	334	1,336

토사의 유출·붕괴, 비산방지, 생활환경보호·유지, 수원함양, 기타 경관의 보전과 비사 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기능별로 환경보전에 힘쓰고 있다. 그 중 산림 내 식물종 또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구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생태적 숲가꾸기 및 보호·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생물종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원시림, 희귀식물자생지, 진귀한 임상, 유용식물자생지, 고산식물지대, 산림습지지역, 자연생태 보전 등 유형으로 구분한다.

앞으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다양성 증진을 위한 현지 내 보호활동 강화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지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

구 분	계(ha)	재해방지	수원함양 (1종)	수원함양 (2종)	수원함양 (3종)	경관	산림유전 자원
필지수	4,613	1,084	664	2,294	154	379	38
면 적	29,553	754	1,398	6,859	732	19,755	55

【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

지정현황 (개소)	면적 (ha)	주요 수종별								
		계	느티	팽나무	비자	이팝	소나무	서나무	노각	기타
21	55.09	4,667	96	116	2,563	31	1,096	91	330	344

추진부서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산림보호팀장 안병석, 담당자 정성표, 김유리**

6. 산림휴양·생태관광 육성

6-1. 산림휴양문화·치유시설 기반 확대

가. 산림휴양·치유시설 조성 관리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산림에 대한 휴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0년부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지역별 차별화된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외계층 배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산림휴양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산림휴양 수요를 면밀히 분석·파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분야 개발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산림치유(Forest Therapy)는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울증, 고혈압, 아토피 피부염, 주의력 결핍, 화병 등 정신과 신체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 지역의 숲에는 자연 치유 성분인 피톤치드와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불리우는 음이온이 풍부하고 피톤치드의 주성분인 알파피넨은 국내 타 지역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치유의 숲에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숲속의 집, 치유센터, 치유숲길, 일광욕장, 명상공간, 숲체험장, 경관조망대, 체력 단련장, 체조장,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산림작업장 등 산림치유 시설이 설치된다.

【 치유의 숲 조성현황 】

(단위 : ha, 백만원)

명 칭	사업기간	면적	사업비
8개소		304	16,297
장흥 정남진 편백치유의 숲	2010-2014	184	4,500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2011-0215	120	11,797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2013-2018	55	5,000
광양 백운산 치유의 숲	2012-2017	55	10,000
고흥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2013-2018	100	28,000
해남 흑석산 치유의 숲	2016-2018	50	3,800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	2016-2019	125	7,730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2016-2019	51	5,400

전남도는 지역별 차별화된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외계층 배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누구나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휴양림 조성현황 】

구 분	명 칭	조성년도	위 치	면적(ha)
계	15개소	-	-	1648
공유림	화순 백아산 자연휴양림	1990	화순군 북면 노리리 산63	100
	장흥 유치 자연휴양림	1991	장흥군 유치면 신원리 산2-1	100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1992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113-1	160
	고흥 팔영산 자연휴양림	1993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350-1	186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1994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15-1	36
	해남 흑석산 자연휴양림	1995	해남군 계곡면 가학리 산1	100
	화순 한천 자연휴양림	1997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산1-1	148
	강진 주작산 자연휴양림	2007	강진군 신천면 수양리 65-1	169
	순천 자연휴양림	2011	순천시 서면 운평리 160	90
	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	2012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산391	229
	신안 다도해 자연휴양림	2013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271	33
	구례 산수유 자연휴양림	2015	구례군 산동면 탑정리 산18	34
	완도 수목원 자연휴양림	2018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산16-1	112
	영암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중	영암군 미암면 미암리 48-1	46
사유림	화순 무등산편백 자연휴양림	1992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산168	70
	광양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2006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산125	35

【 산림욕장 조성현황 】

명 칭	조성년도	위 치	면적(ha)	비고
31개소	-	-	**691**	-
목포 양을산	2011	목포시 상동	14	-
여수 봉화산	2005	여수시 돌산읍 대복길	33	-
나주 나주호	2017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5	-
나주 식산	200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48	-
담양 시루산	2017	담양군 담양읍 삼다	21	-
구례 견두산	2009	구례군 산동면 용산로	10	-
고흥 운조루	2010	구례군 초지면 운조루길	23	-
고흥 동촌	2004	고흥군 고흥읍 학교길	31	-
고흥 마치산	2012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6	-
보성 용암	1997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50	-
보성 활성산	2007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50	-
화순 만연산	2007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2	-
장흥 보림사비자림	2002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로	10	-
장흥 억불산	2004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100	-
해남 구수골	2011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5	-
영암 용치골	2009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5	-
영암 뱅뱅이골	2009	영암군 금정면 금오길	21	-
영암 미암	2009	영암군 미암면 미암리	85	-
무안 물맞이골	2005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40	-
함평 천지	1999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14	-
함평 모악산	2002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길	10	-
영광 장암산	2020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	10.2	-
장성 홍길동우드랜드	1998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10	-
장성 모암	2000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26	-
장성 제봉산	2006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5	-
진도 죽제산	2007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5	-
진도 청용등	2009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5	-
진도 운림	2019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5	-
신안 송공산	2009	신안군 압해읍 수락길	16	-
신안 증도	2009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	7	-
신안 임자	2013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길	8.8	-

【 숲속야영장 조성현황 】

구 분	명 칭	조성년도	위 치
계	6개소	-	-
공유림	서면 운평 숲속야영장	조성중	순천시 서면 운평리 산160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중	광양시 황길동 산45-1일원
사유림	고흥 동일오션힐즈	2022	고흥군 봉일면 봉영리 산517-1
	보성 호남정맥 숲속야영장	2018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산2-2
	화순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중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14
	장성 삼계 숲속야영장	조성중	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산145-3 일원

추진부서 산림휴양과과장 박형호, 산림생태관광팀장 문미란, 담당자 임형석

나. 산림복지단지 조성·관리

전남도는 2019년부터 광양시에 산림서비스 도민수요 충족을 위해 복합기능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전남 도내 최초이자 전국에서는 국·공립을 포함 8번째이다.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광양 산림복지단지는 기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과 함께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시설 등 풍부한 산림체험시설을 총 150억원을 투자하여 확충한다.

도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백운산권에 전 생애주기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도민 삶이 변화하는 복지시설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산림휴양과과장 박형호, 산림생태관광팀장 문미란, 담당자 임경식

다. 2022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산림치유 저변 확대와 치유도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2 세계 산림치유대회를 개최한다. 도지사를 중심으로 관련 실국별 협조사항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발굴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국제행사 개최의 필요성 검토 및 관리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한 주무부처 선정에 있어 산림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수행 승낙 및 업무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 지원 및 역할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대회 기간 전국단위 행사 및 각종 회의 유치, 치유포럼 및 강연 등 중앙부처와 전국단위 각종 행사를 유치하려고 한다. 행사장소 동선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종합체육관(하니움) 등 기존 시설물 활용과 만연산 산림치유센터, 생태숲 등 기존 산림휴양치유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사후관리 부담이 없도록 계획에 반영하여 대회장을 조성했다.

【 2022 세계산림치유대회 사업개요 및 주요 프로그램 】

기　　간 : 2022. 9. 30.(금) ~ 10. 3.(월) [4일간]
장　　소 : 만연산 치유의 숲,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호수공원 등
참가규모 : 9개국, 2,000여 명(전문가 50, 치유지도사 400, 참가자 1,550)
소요예산 : 600백만원(도비 300, 군비 300)
주요내용 : 전문가 초청포럼 및 강연, 치유프로그램 시연, 치유음식체험 등
주최/주관/후원 : 전라남도/화순군/산림청·산림치유포럼

추진부서 산림휴양과과장 박형호, 산림생태관광팀장 문미란, 담당자 임형석

라. 국가산림문화자산 발굴·관리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 생태·경관·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으로 산림 문화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을 발굴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전남도는 우수한 도내 산림자원을 산림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현지 타당성 조사, 산림청 지정 심사 등을 거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2개소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모니터링 강화로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용 강화를 위해 주변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현황 】

지정번호	명 칭	소 재 지	수량
2015-0001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77-9	408주
2015-0002	완도수목원 가시나무 숲가마터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1	1식(5기)
2015-0003	해남 관두산 풍혈 및 샘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산70-2	11곳
2015-0009	나주불회사 비자나무와 차나무숲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212-13	비자나무 16천본 차나무 33ha
2016-0004	유달산 저수저사댐과 사방시설	목포시 온금동 6-2	1개소
2016-0005	고흥 나로도 편백 숲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87-141	9,000여본
2016-0011	신안 반월 당숲	신안군 안좌면 반월리 237임	2,377㎡
2017-0003	담양 용소	담양군 용면 용연리 산10-32	0.31ha
2017-0004	신안 대리 당숲	신안군 하의면 대리 산26	31,297㎡
2018-0001	담양 죽녹원 대나무숲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외 121	182,433㎡
2019-0016	함평 모평마을숲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635	1개소
2020-0012	함평 나산 모정마을숲	함평군 나산면 신평리 119	10,586㎡

추진부서 산림휴양과과장 박형호, 산림생태관광팀장 문미란, 담당자 김선주

6-2. 숲길·임도·산림레포츠 조성·관리

가. 숲길 조성·관리

전남도는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생활권 산책 숲길, 장거리 도보여행 숲길 등 숲길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숲길 조성·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민이 가까이서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접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행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숲길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숲길 운영 관리 추진을 통해 숲길 관광 활성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산림휴양과과장 박형호, 산림생태관광팀장 문미란, 담당자 김선주

나. 임도시설 조성·관리

임도는 임업경경과 원활한 산림 보호 관리를 위해 산림 내 설치하는 차로도 도에 임도가 최초로 개설된 곳은 1960년대 후반에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소재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림이다.

우리 도의 임도설치 장기목표는 5,200km로써 이는 ha당 임도밀도를 8.5m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1984년 이후 지금까지 개설한 임도의 총 연장은 2,810km로서 이는 ha당 약 4.7m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3,388km(5.64m/ha), 2040년까지 5,200km(8.5km/ha)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합리적인 산림경영, 자연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기본목표로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산림휴양 문화, 산림레포츠 등 다양한 기능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테마 임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임도시설 현황 】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총 괄			제1차임도 설치계획 ('01~'05)	제2차임도 설치계획 ('06~'10)	제3차임도 설치계획 ('11~'15)	제4차임도 설치계획 ('16~'20)
	계	'84~ '00	'01~' 20				
임도 (km)	2,810	1,680	1,130	184	165	360	421

추진부서 산림휴양과과장 박형호, 산림생태관광팀장 문미란, 담당자 김휘영

다. 산림레포츠 문화기반 조성·관리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산림레포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 시간, 농촌생활시설 등을 활용하여 산림레포츠시설을 머물면서 즐기는 모험과 체험공간으로 확장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산림레포츠 체험교실 운영하면서 자유학기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기회 제공하려고 한다. 또한, 산림레포츠 문화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산림레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산림레포츠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산림레포츠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기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접근성이 낮은 곳은 테마형 임도를 개설·활용하여 산림레포츠 자원화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다양한 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존 산림레포츠 활동 중심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콘텐츠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명칭	사업내용	사업비
5	-	-	9,241
공립	순천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MTB센터, 다운힐, 크로스컨트리 등	4,600
공립	곡성 기차마을 산악자전거	다운힐, 트레킹길 등	1,800
공립	보성 제암산 산악자전거	크로스컨트리, 다운힐 등	2,210
사립	여수 국가대표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착륙장, 교육장 등	231
사립	곡성 기차마을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착륙장, 교육장 등	400



< 산림레포츠의 종류 >

추진부서 산림휴양과과장 박형호, 산림생태관광팀장 문미란, 담당자 임형석

6-3. 생활권 녹색공간 및 정원 인프라 확충

가. 정원문화확산 및 산업화 기반구축

전남도는 정원을 생활권에 조성하여 소통과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고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2019. 12.27.)」와 시행규칙(2020.5.7.)을 제정해 정원문화·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 조례 주요내용
- 정원·휴양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6조),
  정원·휴양문화의 확산 지원(제10조),
  정원·휴양문화산업의 지원(제11조),
  정원관리사 양성(제13조),
  박람회의 개최(제17조)

순천만국가정원을 정원문화·산업 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정원 운영·관리비 80억 원(국비 40, 지방비 40)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정원지원센터를 통해 정원전문가 양성과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정원의 세계화를 위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 행사개요
- 기 간 : 2023. 4. 22. ~ 10. 22.(6개월간)
  ※ 30개국+a / 800만명 목표
- 장 소 : 순천만국가정원 + 연향뜰 + 도심전체
- 공 인 : 정부승인(기재부), AIPH 승인(국제원예생산자협회)
- 주 최 : 산림청, 전라남도, 순천시
- 주 관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사업비 : 527억 원(국비 83, 도비 43, 시비 148, 수익금 253)
- 내 용 : 국가정원 리뉴얼, 도심전역 생활정원 조성, 한반도 분화구정원 등

아울러 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테마의 지방정원 조성과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 지방정원 조성현황 】

구 분	사업량	대상정원
조 성 중	8개소	강진만 지방정원(5년차), 구례지리산정원(4년차), 화순 고인돌정원(4년차), 광양 백계산 동백정원(3년차), 보성 차정원(3년차), 장성 황룡강 지방정원(3년차), 목포 갓바위지방정원(1년차), 신안 암태도 암석지방정원(1년차)
보완사업	2개소	순천만국가정원 실내정원, 죽녹원 지방정원
조성완료	1개소	담양 남도정원(죽녹원 내)

【 민간정원 등록현황 】

연도별	등록 정원
2017년	고흥 힐링파크 쑥섬쑥섬, 담양 죽화경, 보성 초암정원, 고흥 금세기 정원
2018년	구례 쌍산재, 보성 갈멜정원, 고흥 장수호 힐링정원
2019년	장흥 하늘빛 수목정원, 화순 허브뜨락, 고흥 하담정
2020년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 보성 성림정원, 장흥 왈넛차유정원, 구례 천개의 향나무 숲 정원
2021년	순천 화가의정원, 나주 3917마중, 보성 꿈꾸는 숲 선유원, 해남 문가등

전라남도는 정원문화 육성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정원 운영·관리, 도시숲·정원관리인, 스마트가든 조성, 박람회 개최 지원, 생활 밀착형 숲(정원), 지방정원, 공동체정원, 도심권 생활정원, 정원 페스티벌, 한국정원 체험공간 조성, 고흥 만남의광장 오감체험숲, 두륜산 권역 길정원 조성, 남악 모두누리 열린숲, 국제정원박람회 미래정원 조성, 정원전문가 양성, 민간정원 및 사립수목원 보완사업, 워크숍 등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추진부서 산림휴양과장 박형호, 정원산업팀장 이주미, 담당자 서민재

나. 가로경관 조성

미세먼지, 도시열섬 현상 등의 심화로 도심내 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인식이 증대함에 따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녹지 연결숲으로써 가로수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아름다운 해안경관의 특징을 잘 살리고, 미세먼지·도시열섬 완화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가로수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로수 식재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총 7,494km, 약 3,144천 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수종으로 벚나무, 홍가시나무, 배롱나무 등 약 117여 종을 식재하였다.

특히, 역사·문화·향토수종 등 특색있는 수종을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형 가로수길 조성·관리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아울러, 내륙과 차별없는 수종선정과 획일화된 식재패턴에서 벗어나 전남 해안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해안경관 개선을 위한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225.4km의 천년 가로수길을 조성하였다.

기후·지형·경관을 고려하여 서남해안 권역을 중심으로 가고 싶은 섬, 지역축제와 연계한 천년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테마가 있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으로 도시경관 창출 및 랜드마크화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민원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며,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가로수 식재실적 】

(단위 : km, 주,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	재 원 별			
	거 리	본 수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462	734,595	29,500	-	14,750	14,750	-
2019년	169	104,223	10,420	-	5,210	5,210	-
2020년	175	343,605	9,580	-	4,790	4,790	-
2021년	118	286,767	9,500	-	4,750	4,750	-

추진부서 **산림휴양과장 박형호, 정원산업팀장 이주미, 담당자 조수연**

다. 도시숲 조성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권 녹지공간 축소, 대기오염과 도시열섬현상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높은 지가(地價)와 균특회계 도시숲 사업 예산의 '20년 지방이양으로 도시숲 확충 여건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나, 도시숲·가로수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생활권 내 녹지를 확대한 결과,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11.51㎡/인(전남 22.05㎡/인)으로 2017년보다 14%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1인당 총 도시림 면적(256.62㎡/인)의 4.5% 수준으로 도시지역 내 도시숲 조성 면적 대비 실제 휴식, 산책, 도시 미기후조절 등 도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권 도시림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의 기후에 맞는 향토 수종을 이용하여 하천·도로 주변의 자투리땅, 학교, 사회복지시설, 폐선부지 등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2005년 여수시를 비롯한 4개 시 3.3ha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60ha의 숲을 조성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1,006ha의 숲이

조성됐다. 예산규모도 2005년에는 6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83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그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다.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은 숲 조성시 주민, 기업, 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이웃간 소통의 장이 되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등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됨에 따라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숲 조성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도시숲 조성실적 】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2015 까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면 적	1,006	623	53	88	80	61	42	59
사업비	117,703	55,859	4,640	13,200	12,986	16,298	7,810	6,910

추진부서 산림휴양과장 박형호, 정원산업팀장 이주미, 담당자 이정혜

6-4. 산림교육 서비스 강화

가.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자연과의 바람직한 과계를 형성하게 하는 숲교육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남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전인적(全人的)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숲체험원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하며,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체험학습공간(전체규모의 30% 이상) 과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 위험 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숲 교육의 효과로는 유아의 창의성, 집중력, 탐구능력 등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워주며, 인지적·정서적·사회적 자아개념을 형성시켜 준다.

또한, 신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공격성을 감소, 심리안정 등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유아들이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 내 「유아숲체험원」을 늘려가고 있으며, 2022년까지 19개소를 조성하고, 23개소를 등록 운영하고 있다.

【 유아숲체험원 조성현황 】

(단위 : ha, 백만원)

명 칭	면적	사업비
19개소(공립 18, 사립 1)	**51.4**	**5,773**
미암생태숲 유아숲체험원	1.7	70
가학산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1.0	283
양을산유아숲체험원	1.5	300
곡성군 청계동 유아숲체험원	1.0	300
제암산 유아숲체험원	3.0	300
우드랜드 유아숲체험원	1.5	200
대죽도 유아숲체험원	4.2	500
여수가시리생태 유아숲체험원	1.0	200
순천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6.0	200
한천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1.2	200
보은산 유아숲체험원	1.0	200

명 칭	면적	사업비
신대 유아숲체험원	1.0	300
빛가람 유아숲체험원	2.7	300
구례수목원 유아숲체험원	1.1	400
물무산 행복숲 유아숲체험원	2.5	400
지리산정원 유아숲체험원	1.0	200
한재골수목정원 유아숲체험원	1.0	200
곡성군 삼인동 유아숲체험원	1.0	220
섬진강도깨비마을 유아숲체험원	18.0	1,000

추진부서 산림휴양과과장 박형호, 산림생태관광팀장 문미란, 담당자 김선주

나. 산림교육·치유 활성화

전남도는 증가하고 있는 산림교육의 수요에 부응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산림교육·치유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업 육성 및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고 있다.

지원 규모는 최근 3년간(2020~2022) 5,799억 원에 달하며 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분야에서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산림교육·치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도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도시숲·공원, 정원 등 생활권 숲을 활용한 산림교육서비스 제공하여 도민 편의를 확대하고 산림교육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도는 앞으로 비대면 콘텐츠 개발, 휴일·가족단위 소규모 운영 등 운영방식 다변화로 산림교육 참여인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산림휴양과과장 박형호, 산림생태관광팀장 문미란, 담당자 김선주

6-5.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화 기반조성

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도 내 산림의 81%가 사유림이나 임업의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익률이 낮아 대부분 영세형태로 경영되고 있어 임업소득이 타 분야(농업, 어업)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표고버섯, 떫은감, 산나물, 산약초 등 우리 도 비교우위 품목에 집중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산림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원 규모는 2022년도 97억 원, 최근 3년간(2019~2021) 336억 원에 이른다.

주로 임산물 재배단지·시설 구축과 생산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여 임업인의 직접적인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 생육환경 개선 목적의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작물 생산성을 제고하고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먹거리로서의 임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목재생산 중심의 산림경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기소득작물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도록 2021년까지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을 2,183개소에 지원하여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임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지속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임업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계	43,414	10,148	13,717	9,801	9,748
친환경임산물 재배	4,282	1,527	1,227	831	697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26,120	4,974	9,038	5,678	6,430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3,012	3,647	3,452	3,292	2,621

추진부서 산림휴양과과장 박형호, 산림경영팀장 김해연, 담당자 권성미

나.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

임산물은 생산 시기별 홍수 출하가 발생하고 저장기간이 짧아 생산량 및 수급 조절이 필요하고,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과다한 유통비용 발생으로 수입 임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가공·유통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임산물 가공·유통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지와 소비자를 연계한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지역 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과 경영능력이 제고되도록 임산물 지리적표시등록을 확대하고, 가공제품 생산·개발과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규격화·표준화·브랜드화 및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속해서 지원하여 지역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친환경 임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국내산 친환경 임산물 유통업체에 대해 저장·가공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 생산자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지원하여 청정 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차별화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유통·판매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불량 임산물 유통근절을 위해 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 임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유통체계 개선을 주력할 계획이다.

【 청정임산물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6,339	12,144	6,276	7,633	4,573	5,713
임산물 상품화지원	10,048	2,035	2,245	1,972	2,007	1,789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14,009	2,587	3,621	3,361	2,516	1,924
유통구조개선	12,282	7,522	410	2,300	50	2,000

추진부서 **산림휴양과과장 박형호, 산림경영팀장 김해연, 담당자 한겨레**

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전남도는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고,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96년부터 1개 마을당 약 14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광양시, 담양군 등 10개 시·군에 29개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산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등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산촌생태마을의 산촌자원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개발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추진하고, 특히 귀산촌 인구 유입으로 산촌의 인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소재지	마을명	사업비 (백만원)	조성기간	주요시설
총계		29개 마을	41,467		
광양	다압 금천	금천	1,479	1999~2001	특산물판매장,산막
	봉강 조령	조령	1,463	2006~2010	산촌체험관
	옥룡 동곡	답곡	1,679	2010~2014	문화센터
	다압 고사	고사	1,461	2011~2014	산막, 음식체험장
담양	대덕 운산	운산	1,513	2011~2012	체험센터, 식당
	월산 용흥	용오름	1,533	2011~2013	체험센터, 식당
곡성	죽곡 유봉	유봉	1,081	2008~2010	산촌문화회관
	오산 단사	단사	1,507	2010~2013	산채체험관
구례	산동 위안	상위	1,260	1997~2000	산촌체험관
	산동 탑정	정산	1,493	2009~2013	산촌체험관
	토지 내동	당치농평	1,493	2009~2013	산촌체험관
고흥	고흥 영남	사포	1,463	2008~2009	펜션, 작업장 등
보성	웅치 용반	용반	1,432	2011~2014	한옥펜션
	율어 선암	선암	1,541	2007~2009	산림문화회관
	겸백 수남	수남	1,284	2008~2010	마을회관
	복내 일봉	일봉	1,524	2008~2010	산림문화회관
	노동 대련	대련	1,495	2008~2010	산림문화회관
화순	도암 봉하	봉하	1,400	2005~2006	체험장
	백아 노치	노치	1,400	2011~2013	체험장
	청풍 백운	백운	1,400	2011~2013	체험장
장흥	유치 신월	월암	1,523	2000~2002	가공시설
	용산 운주	운주 · 봉황	1,463	2006~2008	임산물건조장
	장동 하산	산동	1,081	2009~2010	산림소득센터
	장동 용곡	거개 · 두룡	1,283	2009~2010	문화복지시설
	장동 북교	방이 · 석교	1,523	2011~2012	산촌체험관
영암	금정 아천	아천	1,263	2003~2005	저온저장고, 회관
장성	서삼 증암	증암	1,412	2012~2013	숙박시설
	서삼 대덕	대곡	1,495	2009~2011	숙박시설
	북하 신성	남창	1,523	2012~2012	숙박시설

7. 산림자원 연구 및 맞춤형 휴양서비스 제공

7-1. 미래 유망 산림자원 발굴 및 신기술 보급

가. 기후변화 대응 탄소숲 시험림 조성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온실가스 제로(zero, 0)를 위해 120여개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동맹에 가입한 이래,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에서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탄소흡수원을 적극 활용한 전략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에, 도유림에 탄소흡수 · 미세먼지 저감 · 유망 산림 바이오 소재 발굴 등을 위해 탄소흡수능이 뛰어난 수종을 대상으로 탄소저감숲 시험림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0년 기후변화 대응 난대수종 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해남군 마산면 일원 도유림에 앞으로 10년간 6개 연구지구와 4개 보전지구로 구성된 165ha의 대규모 시험림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대상지에 우리 지역 대표 난대수종(붉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을 식재하여 수종별 탄소흡수력 검정과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시험림 6ha를 조성하였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난대수종의 분포 범위와 분포지역이 급속도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20년간 분포면적은 약 2.7배 증가하여 가까운 미래 우리지역 대표 임상으로 변모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난 난대수종 발굴을 위한 시험·연구를 지속하여 탄소흡수원으로써 기능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산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연차별 시험림 조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지역 적합 신품종을 개발, 우량 산림 종묘자원 생산 등 선도적인 시험림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생명자원과장 최우영, 담당자 조지웅

나. 유망 산림수종 육성 및 산업화 연구

1) 종자 채취 및 종자공급원 관리

미래가치 있는 숲 조성에 필요한 건전한 묘목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우량종자 채취 및 종자공급원 관리가 중요하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채종림, 채종임분, 수형목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조림정책에 따라 필요한 종자를 채취하며 산림용 묘목 대행생산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종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미래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해 지역 비교우위 수종으로 편백, 황칠 등 16종이 우량하게 자라고 있는 38개소, 18ha, 49,261본에 대해 종자공급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미래가치 있는 수종을 신규 발굴 하고, 종자채취 여건을 감안하여 채종량이 부족한 수종에 대해서는 채종면적을 확대 지정 하는 등 안정적인 종자 공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산림용 종자채취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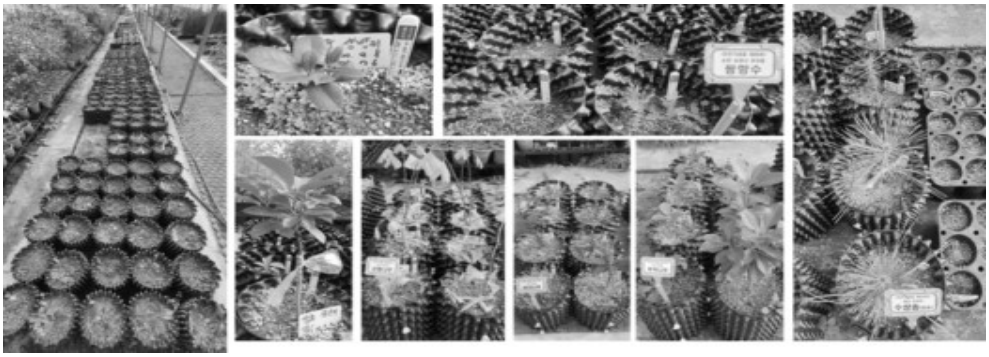
연도	수량(kg)	수종
2018	3,109.4	편백, 상수리, 백합, 황칠
2019	2,559	편백, 상수리, 백합, 황칠, 비자
2020	2,586	편백, 상수리, 백합, 황칠, 비자
2021	2,503.2	편백, 상수리, 백합, 황칠, 비자

추진부서 ○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생명자원과장 최우영, 담당자 임은혜**

2) 천연기념물(수목) 후계목 수집·증식 연구

천연기념물(수목) 후계목 육성은 산림의 생태적, 역사적 가치성을 계승하고, 유전자원보전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연구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종자 및 삽수를 채취하여 25종 71그루(천연기념물 45, 도 기념물 25, 상징목 1)에 대하여 종자번식, 삽목, 접목 등 그루당 50개체씩 총 2,160개체를 증식·관리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이 대부분 나이가 많고 잎·줄기·종자채취도 극히 소량으로 제한되어 증식에 어려움이 있으나, 천연기념물의 가치를 되새기고 도민과 함께해온 역사를 미래 세대와 공유할 중요한 매개체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생명자원과장 최우영, 담당자 박종석**

3) 지역적합 특용수(산수유, 정금, 수국) 재배 연구

임업인 소득 창출 및 새로운 소재발굴을 위하여 유망 특용 수종인 산수유나무 신품종 출원 및 도내 육성기반 구축을 추진 하고 있다.

구례군 산동지역에서 선발한 우수개체의 신품종 특성은 과육이 크고 종실 무게가 많은 수종, 화서가 크며 오랫동안 유지되는 품종 등 총 7품종 120개체를 대상으로 시험포 조성 및 재배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토종 블루베리로 알려져 있는 정금나무의 대량증식법 개발을 위해 종자파종, 삽목·접목 등의 최적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종자파종의 경우 20% 발아율을 확인하였고, 파종 방법에 따른 발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정금나무는 토종 산림자원으로 단기소득 임산자원 및 기능성식품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절화용으로 개발 중인 수국 개체 중 정원용 자원으로 육성 및 신품종 출원을 위해 535개체를 1차 선발하여 노지재배 지역 적응성 시험을 추진하면서 화서가 크고 오랫동안 꽃이 피는 개체 10종을 선발하였다. 앞으로 종자번식 및 삽목 등 증식을 위한 연구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생명자원과장 최우영, 담당자 양천은**

4)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방안 연구

산림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칡덩굴을 활용하여 자원 수집 최적화, 섬유질 분리 후 복합방적사(실)를 개발하여 가정용 섬유(타월, 이불, 베개커버, 앞치마 등) 10종에 대한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다.

전남지역 칡덩굴 분포 면적은 32천ha 정도이며, 매년 10천ha 정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칡덩굴은 버려지거나, 폐기물로 처리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자원을 산업적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섬유질을 분리하여 새로운 소재로 개발한 것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및 탈석유화, 환경규제 강화 등 정부정책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목재자원 업싸이클링 이용 증대 연구와 버려지는 칡덩굴을 이용해 생분해성 양묘용 포트 용기를 개발하는 등 미이용 산림자원을 산림바이오산업의 미래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섬유질 분리 자동화 기기】


【성형 전 부직포 제작】


【칡덩굴 포트 성형(75t)】


【용기묘 제작】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생명자원과장 최우영, 담당자 어지현

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생활권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

1)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검경

전라남도에서는 1997년 구례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하여 2001년, 2003년도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다가 2010년 이후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와 청정 지역 확대를 위해 예찰 및 검경을 실시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8년에 담양군, 2019년에 구례군, 장성군, 해남군, 2020년 곡성군, 2021년 함평군, 2022년 화순군에서 신규 발생되었다. 기존 감염지역 중 신안군은 2020년, 해남군은 2021년에 청정지역으로 선포되어 도내에는 총 11개 시·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계획적이고 빈틈없는 예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경을 위해 연간 교육 및 검경 실명관리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미감염확인증 발급으로 소나무의 원활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시 각종 조사 지원 등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병 피해 최소화, 확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연도별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및 미감염확인증 발급 현황 】

연도	감염의심목 시료 검경 본수	미감염확인증 발급 건수
2018	3,289본(검출 234본)	150건(4,410본)
2019	4,707본(검출 357본)	320건(8,841본)
2020	12,546본(검출 2,957본)	237건(6,217본)
2021	26,383본(검출 4,992본)	320건(7,590본)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생명자원과장 최우영, 담당자 김천하

2)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발생 상황 조사

주요 산림병해충의 발생원인 및 시기 예측, 동태 구명으로 산림병해충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병해충 및 잠재 해충의 확산 위험에 대응코자 예찰 및 발생상황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병해충 15종에 대해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주요 병해충 이외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병해충에 대해서도 예찰 및 조사를 통해 발생 시 긴급방제에 활용하고 있다.

15종의 조사 항목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조사, 참나무 시들음병 매개충 우화조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페로몬 유인 트랩 조사, 솔잎혹파리(우화조사, 충영형성률), 솔껍질깍지벌레, 미국흰불나방, 소나무허리노린재,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양버즘나무 흰가루병, 벚나무 빗자루병, 이팝나무 잎녹병, 특정지역 병해충 조사, 유아등에 의한 돌발해충 조사이다.

도내 발생한 돌발병해충으로는 2019년 미국흰불나방, 2020년 큰붉은잎밤나방, 2021년 수검은줄점불나방이 있었고, 언론을 통한 적극 홍보와 피해 지역 및 인접 지역에 피해 상황을 공유해 긴급방제에 활용하는 등 피해확산을 조기에 저지하였다.

앞으로도 주요 산림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속 대응으로 산림을 비롯한 생활권에서 대발생하여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권 및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생명자원과장 최우영, 담당자 김형철**

3) 생활권 수목진단 서비스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비전문가에 의한 진단 및 부적절한 농약 사용 방지를 위해 지역거점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12년 개원한 전라남도공립나무병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60건, 2019년 130건, 2020년 130건, 2021년 137건을 진단하였다.

해마다 충해 진단 의뢰가 가장 높았고, 피해수종으로는 소나무에 대한 의뢰가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연간 병해, 충해 등 생물적 피해가 약 50%를 차지하고, 기상적, 물리적, 생육환경, 인위적, 생리적, 관리부적절 등 비생물적 피해가 50% 가량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진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각종 기술 자료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알기 쉬운 생활 속 수목 병해충」책자를 발간하여 도 유관기관 및 일반인 등에 배포해 지역 거점 공립나무병원으로서 생활권 수목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생활권 수목진료 진단현황 】

(단위 : 건)

연도	진단결과별									
	병해	충해	기상적	물리적	생육환경	인위적	생리적	관리부적절	기타	합계
2018	21	54	24	1	12	9	8	16	15	160
2019	12	59	4	6	7	6	10	11	15	130
2020	24	42	5	4	6	6	18	21	4	130
2021	20	52	10	1	5	7	17	22	3	137

추진부서 ●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생명자원과장 최우영, 담당자 마혜린**

4) 수목병해충 농약직권등록시험

국내외에서 유입·발생하는 병해충이 다변화되면서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이 늘어가지만 수목을 대상으로 한 병해충에 적합한 농약이 현저히 적은 실정으로 수목 병해충에 치료 효과가 우수한 약종을 선발·등록하여, 수목진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코자 한다.

2020년에는 무궁화 목화진딧물에 대해 4가지 약제 중 3가지 약제의 효과 입증으로 등록이 진행 중이고, 2021년에는 영산홍 극동등에잎벌, 느티나무 미국흰불나방의 2가지 해충에 대해 각 4가지 약제 모두 효과가 입증되어 등록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안전한 농약사용 여건을 마련하고 건강한 수목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수목 방제약제 등록 시험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수목병해충 농약직권등록시험 현황 】

연도	시험작물 /대상병해충	약제	함량	지역	방제가 (%)
2020	무궁화 /목화진딧물	설폭사플로르 입상수화제	7	나주	100
				해남	100
		벤퓨라카브 입상수화제	30	나주	100
				해남	100
		아세페이트 수화제	50	나주	100
				해남	100
2021	영산홍 /극동등에잎벌	에토펜프록스 캡슐현탁제	20	나주	100
				화순	100
		사이안트라닐리프롤 분산성액제	5	나주	100
				화순	100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입상수화제	5	나주	100
				화순	100
		플룩사메타마이드 유제	9	나주	100
				화순	100
	느티나무 /미국흰불나방	루페뉴론 유제	5	나주	95.5
				화순	97.6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나주	100
				화순	100
		에토펜프록스 유제	20	나주	100
				화순	100
		디플루벤주론 수화제	25	나주	98.2
				화순	100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생명자원과장 최우영, 담당자 마혜린

7-2. 산림바이오소재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가. 전남형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1) 역할 및 필요성

비교우위 난대수종(붉가시나무, 모새나무 등)을 활용한 식·의약·향장품 등 바이오소재 공급으로, 새로운 임업소득창출과 산림바이오산업을 선점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 거점단지 조성

조직배양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소재로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연구시설인 비즈니스센터와 대량생산을 통해 임업인과 바이오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증식시설인 종자양묘기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묘목과 유묘를 생산할 스마트 온실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바이오 식물 대량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3) 운영방안 및 향후계획

기업체와 임업인 그리고 연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용화 가능한 바이오식물에 대하여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대량공급 체계를 확보함으로서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산림자원의 선도연구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바이오소재연구에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산림바이오산업을 이끌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바이오과장 이석면, 담당자 신순호

나. 임산업 주도 미래 핵심 산림자원소재 발굴 연구

1) 역할 및 필요성

생물종에 대한 새로운 국제질서(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CITES 등)가 정립됨에 따라 자국이 보유한 생물자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별히 산림자원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산림자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개발이나 식품산업에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의 산림자원은 국토의 면적에 비해 수종이 많으며 또한 높은 고유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동안 산림자원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자원으로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산림자원소재 발굴 연구

가) 산림생명자원 추출물은행 소재 확보 및 산림자원소재 개발

2018년부터 도내 자생 유망식물자원의 정보화·산업화 방안으로, 산림생명자원 추출물을 제조하여 산림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산업화 소재 발굴에 활용코자 하였다. 2022년 현재 산림수종 50종, 건조시료 346점, 추출물 844개를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다.

산림생명자원 추출물 연구로 산림자원소재의 분류학적 검증 및 소재 발굴 연구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산림수목자원이 갖는 무한한 가치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변화 및 시장 변화에 맞춰 고품질 다수확 품종을 육성, 새로운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 소재를 제공하고, 임업경영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바이오과장 이석면, 담당자 김현우

나) 산림버섯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 연구 추진

기후변화와 버섯시장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 기술 개발 및 우량품목 발굴을 통해 버섯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산림버섯연구실, 2019년부터 트러플 연구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산림버섯 82종 347균주를 확보하고, 2018년에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지정되었다.

2019년에는 참바늘버섯의 안전성 및 독성평가 연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았으며, 본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참바늘버섯 인공재배방법」특허를 도내 재배농가에 기술이전(2개소)하여 산업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트러플 인공재배 연구, 표고원목 스마트팜 연구, 버섯이용 가죽소재 개발 연구 등 다양한 국가차원의 R&D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우수한 연구 결과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22년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진균류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바이오과장 이석면, 담당자 김현석

다) 산림자원소재 연구 성과

산림자원소재 연구 성과로는 도내 유망 산림자원의 안전성 확보, 식·의약효능 규명, 재배기술 개발 등으로 이를 통해 소득자원을 발굴하고, 산업적 활용으로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한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산권 등록 68건, 심사 중 4건으로 총 72권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꽃송이버섯、참바늘버섯、황칠나무、동백나부 등 41건의 기술을 이전하였고 국내외 학술지 270건 게재를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바이오과장 이석면, 담당자 조건웅

7-3. 산림학교 운영 등 도민 대상 산림서비스 확대

가. 수요자 맞춤형 임업인 전문교육 산림학교 운영

1) 역할 및 필요성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산림학교는 전남 중·서부권 유일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 지정 「제2018-2호」)으로 전남도 및 광주권 임업인들의 교육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어 도내외 임업인들의 임업후계자 선발조건 및 산림사업 자금지원 조건 충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 제공으로 현장 중심의 이론과 기술을 보급하여 전문임업인을 양성하고 산림분야 일자리를 창출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

2) 산림학교 임업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2년'산림버섯 재배기술 교육'을 시작으로 2021년 '귀산촌 아카데미' 등 6개 과정으로 확대, 임업인 전문교육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67회 교육, 1,14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 산림학교 운영현황 】

연도	추진실적(수료자/회수)								
	계	버섯	조경수·특용수	귀산촌	산약초	임산물	버섯종균 기능사	목공예	꽃차 만들기
계	455명/29회	105명/5회	36명/2회	109명/5회	68명/3회	50명/2회	32명/6회	38명/5회	17명/1회
2019	229명/12회	56명/2회	24명/1회	56명/2회	23명/1회	28명/1회	23명/3회	19명/2회	-
2020	110명/5회	19명/1회	-	24명/1회	28명/1회	22명/1회	-	-	17명/1회
2021	116명/12회	30명/2회	12명/1회	29명/2회	17명/1회	-	9명/3회	19명/3회	-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귀산촌 정착 지원 및 임업분야 기초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 '귀산촌아카데미', 임업소득분야의 고도·전문화에 따른 버섯 재배기술 전문인재 양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버섯 재배기술', 작목별 맞춤형 재배기술과 창업 컨설팅 등 최신의 임업소득 트렌드를 제시하는 '조경수 및 특용수 재배교육'과 '산약초 재배교육'이 산림학교 대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임업후계자 보수교육(「산림청 훈령 제1432호」)의 신설로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하는 등 도내 예비 귀산촌인들과 신규 임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프로그램 준비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완료 후에는 각 과정별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전문강사 섭외, 교육 프로그램의 변경·보완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바이오과장 이석면, 담당자 김우진

나. 치유의숲 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1) 치유의 숲 운영

2019년 5월 10일 정식 개장한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은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및 생물종다양성 연구를 바탕으로 조성된 연구소의 수목 유전자원과 식산(食山)이 어우러진 곳이다.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은 근교에 위치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민들과 전남도민, 광주광역시민들이 주로 방문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산림치유센터(832.45㎡), 방문자센터(249.8㎡), 유아숲체험원(20,000㎡), 치유숲길(1.5km) 등이 있다.

2) 산림 복지서비스 지원

산림자원연구소는 고유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문동기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자원 및 관리속성에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기법을 적용, 양질의 치유·휴양 및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산림복지서비스 분야의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가 속한 산림복지전문업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여 이용객들에게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빛가람 치유의 숲을 이용한 대상별 7종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치유센터 내의 치유장비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스트레스 지수 등을 측정,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 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통해 국민 건강에 더 기여하고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움직일 전망이다.

【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명	550	5,186	254	2,8643	71	528	225	1,815

나) 숲해설

연구소의 설립 배경 및 연구 수종에 대한 이야기를 숲해설 프로그램에 녹여 연구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연구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숲해설을 전달하고 있다.

오색딱따구리, 청설모, 천연기념물(팔색조) 등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텔링을 탐방객에게 전달하고 나는 꼭 곤충왕이 될 거야 (산림청 인증제 2018-46호), 어서와 곤충직업체험은 처음이지? (산림청 인증 제 2019-33호) 등 다양한 숲해설을 진행하므로써 다채로운 경험과 연구소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였다.

IPA분석 결과 주변에서의 소개 및 추천을 통해 숲해설에 참여하는 이용객이 다수를 차지해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숲 해설의 만족도 및 서비스의 질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숲 해설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연구소 정문에 위치한 방문자센터 내에 산림복지전문가들을 상시 배치해 두고 있다.

【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명	747	7,859	184	3,099	210	1,719	353	3,041

다) 유아숲교육

유아숲교육은 연구소 내'전라남도 유아숲체험원'(서부지방 산림청 제 45호, 2020.10.14.)에서 4월부터 11월까지(혹서기 8월 제외) 진행된다. 해당 교육은 매월 1회씩 규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정기반과, 정기반 참여가 어려운 기관을 위해 별도로 수시반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명	704	7,279	225	1,815	353	3,041	238	2,415

연구소는 풍부한 자연생태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산이랑 단이와 떠나는 숲속여행(산림청 인증 제2018-45호) 등 다양한 숲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문 자격증을 지닌 유아숲지도사를 통해 자연친화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아숲체험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및 생태체험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시설 등을 보완하고 있다.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산림바이오과장 이석면, 담당자 손영하**

7-4. 완도수목원 전시 및 휴양기능 강화

가. 완도수목원 산책주간 운영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하면서 청해진이라는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완도호랑가시 등 희귀 난대식물 765종이 자생하는 난대림과 아름다운 다도해상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간직한 곳으로 인간과 자연의 정서적 교감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유일의 난대수목원이다.

1991년 완도군 군외면 초평1길 156 도유림 일대(2,033ha)에 개원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전시, 보전, 교육, 연구 및 관광 등 학술·휴양적 기능을 두루 갖춘 산림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열대·아열대식물을 전시하고 있는 온실, 난대 산림 사료 전시공간인 산림박물관, 산림전시관, 산림환경교육관 등 다양한 전시 시설과 동백나무원, 방향식물원, 희귀식물원 등 식물의 특성별로 31개 전문소원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치유, 휴양기능은 물론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자연적 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정서적 수요 충족을 위해 완도수목원은 2011년부터 매년 공연· 전시·체험·교육·휴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완도수목원 주간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1~2회 숲속음악회를 개최,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시·볼거리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다채로운 전시컨텐츠 운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도 수목원 방문객이 감소되었을지언정 완도수목원 방문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2019년 총 103,923명, 2020년 총 41993명, 2021년 총 37,279명이 완도수목원을 방문하였고, 2022년 1분기에는 8,086명이 방문하였다.

앞으로 일상활동 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예년 이용객 수(연간 1만명)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후, 개최가 예상되는 각종 지역축제(완도 해조류 박람회, 장보고축제 등)와 연계 및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등 수목원으로서의 고유의 기능만이 아닌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숲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완도수목원장 오찬진, 담당자 박영근

나. 완도수목원 식물유전자원 전산화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대면적의 상록활엽수가 자생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난대림이다. 완도수목원은 1991년에 개원하여 31년 간 다양한 식물자원 확보를 통해 아열대 온실과 테마별로 조성된 무늬식물원, 방향식물원, 동백나무원 등 31개 전문 전시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31개 전문 전시원에는 1,920종 약 30,445개체의 식물유전자원이 전시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31년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한 수목 유전자원의 이력을 전산화 하여 이력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31개 전문 전시원의 캐드를 활용한 도면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증식한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전산화 및 이력관리 등을 추진 중이다. 전산화와 함께 전시원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수목에 대해 이력 및 식물관리를 위한 추적표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화 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완도수목원장 오찬진, 담당자 김광일

다.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등 이용객 서비스 증진

완도수목원은 완도읍 장좌리 산16-289 도유림 일대(112ha)에 2014년부터 완도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8년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다.

완도자연휴양림은 해발 340m에 객실이 위치해 있어 국내 최대 난대림과 청정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완도자연휴양림은 관리동인 방문자센터를 비롯해 숲속 놀이터, 전망데크, 산책로 등을 갖췄다.

해발 644m의 상왕봉을 따라 왕복 1시간 거리의 등산로를 산책하다보면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등 산소 배출량이 많은 난대수종들이 자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숲속의 경관, 소리, 음이온, 산소, 햇빛과 수많은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 등의 다양한 환경요소가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치유해준다. 이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가 시간을 자연과 함께 보내고자 숲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따라 완도자연휴양림에서는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자연휴양림 진입로를 신규 개설(2021년 개통)하여 완도읍에서 휴양림까지 소요시간을 10분이상 단축시키며 휴양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2022년에는 콘트리트 진입로 구간을 아스 팔트로 포장하고, 친환경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여 야간통행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또한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진입구간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산악지역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휴양림 내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 완도자연휴양림만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느끼고자 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연간 5~6개월 한시 운영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운영기간 동안 객실 가동률이 85%에

달하였다. 2021년에는 가동률 88.5%로 도내 17개 국공립자연휴양림 가동률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완도자연휴양림은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숲속의 집(객실)과 산림휴양관 등 휴양시설을 늘려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완도자연휴양림 객실 이용객 현황 】

연도	이용객수(명)	가동률(%)	비 고
2018	10,085	53	2월 개장
2019	11,230	54	
2020	6,310	77	5개월 한시 운영
2021	8,055	85	6개월 한시 운영
2022	3,840	86	1분기 이용객 수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완도수목원장 오찬진, 담당자 권병근**

8. 안전한 보건·환경 관리체계 구축

8-1. 국제적 적합성을 갖춘 시험검사 품질보증체계 구축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지속적인 FTA 확대에 따라 각 국의 상이한 시험 분석 결과로 인해 국제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보증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운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국내 검사기관의 보호 및 검사결과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보증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염병 확산 차단과 환자발생 최소화 등 감염병 예방에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매년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87종 이상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실험실 검사 품질보증과 진단표준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핵심인 식품 등의 검사 업무는 많은 인력과 장비 등의 인적·물적 자원과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 중의 하나이며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들에 대한 기준 규격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이를 위해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과학적 위해평가 및 모니터링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의 향상과 검사결과에 대한 정밀성과 정확성의 확보를 위해서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검사능력(숙련도)과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능력을 평가받고 있다.

환경분야는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뢰성 보증체계인 숙련도 평가, 시험검사방법의 유효화, 측정 불확도 추정, 장비관리를 중점사항으로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시험검사능력 향상과 환경오염물질 시험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도 관리는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와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로 구분되며, 그 결과의 판정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숙련도시험(proficiency testing)이란,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현장평가(on-site assessment)는 평가위원을 통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시스템 및 시행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보건 22개 분야 49개 항목과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의 환경 8개 분야 84개 항목 숙련도 평가에서 모두 '적합, 양호'(아래 표 참조) 및 '만족'(아래 표 참조)의 평가를 받았으며, 2021년 질병관리청 주관 '생물안전관리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매 3년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더불어 매년 수질·토양·먹는물 분야는 국제인증기관(ERA, Sigma-Aldrich RTC Inc.)에서 실시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도 참가하여 '만족' 판정을 받아 연구기관으로서 신뢰도 제고와 위상을 높였다.

또한, 도, 시·군 업무담당자와 측정분석기관 대상기관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여 높은 호응도와 만족도를 얻었다.

【 2021년 보건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평가 】

구분	감염병		구분	식・의약품		
주관	질병관리청		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항목 (37)	후천성면역 결핍증 (HIV/AIDS) 3,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 종감염증(CRE) 3, E형간염 바이러스 1	코로나19, 메르스, 호흡기세균 8 인플루엔자, MMR 4 일본뇌염, 매개체전파 세균・바이러스 18	평가 항목 (12)	오염물질 (벤조피렌) 1, 영양성분 (비타민B1) 1, 보존료 (안식향산) 1, 식품미생물 3	의약품 1, 위생용품 2, 유전자변형 식품 1	중금속 2
결과	적합		결과	양호		

【 2021년 환경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평가 】

구분	실내 공기질	대기	악취	먹는물	폐기물	수질	토양	환경유해인자
주관	국립환경과학원							
평가 항목 (84)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일렌 TVOCs 폼알데히드(7)	굴뚝 (먼지) (1)	복합악취, 아세트알데히드, 뷰틸알데히드, 스타일렌, 톨루엔, 자일렌 (6)	NH_3-N, F-, NO_3-N, Cl-, SO_4^{2-}, 시안, As, Pb, Hg, Cd, Cr,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벤젠, 파라티온, 다이아지논, 페놀, 총대장균군, 살모넬라, 쉬겔라, 분원성연쇄상구균(21)	Cd, Pb, Cu, Cr, Cr6+ TCE, PCE (7)	BOD, COD, SS, 총질소, 총인, Cd, Pb, Hg, As, Cu, Cr, Mn, 시안, 페놀류, TOC, 노말헥산 추출물질, 클로로폼, 벤젠, Cr6+, 총대장균군, 생태독성 (A, B, C, D) (24)	Cd, Zn, Cu, Pb, As, Ni,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TPH, 벤조피렌 (12)	모래 (납, 카드뮴, 비소), 도료 또는 마감재 (납), 바닥재 (카드뮴, 납) (6)
결과	만족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 신미영, 담당자 윤연희**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박귀님, 담당자 오길영

8-2.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와 식·의약품 안정성 확보

가.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 등 법정 제1급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도민의 건강보호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빈틈없는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은 전체 발생이 감소하는 반면, 해외유입으로 인한 발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학교, 직장의 급식시설 확대, 해외여행객 증가로 감염병의 해외유입 사례는 산발적이지만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할 개연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 7개 의료기관의 협력을 받아 연중 설사환자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세균(10개속)과 바이러스(6종)에 대한 설사원인 병원체 규명 및 유행예측으로 신속·정확한 감염병 감시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권역별(호남권) 질병대응센터, 22개 시·군 보건소, 병·의원과 공조하여 엔테로바이러스 및 인체 병원성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발생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에 따라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위험 등 파급 효과가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직원 등),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아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등), 전염성 결핵환자와의 접촉자(가족접촉자 등) 및 취약(감염우려계층) 등을 대상으로 결핵환자로부터 감염되었을 잠복결핵감염자를 찾아내어, 양성자에 대한 치료로 향후 결핵환자로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HIV 감염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성매개감염의 발생예방과 성매개감염병 감염인에 대한 치료강화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확인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감염병 검사실적 현황 】

(단위 : 건)

연도	설사 질환	잠복 결핵	식중독균	항생제내성 (CRE)	장내세균, 수두, A형간염 등	에이즈 및 성매개질환	병원성 비브리오	레지오 넬라증
2018	678	2,181	2,509	156	861	174	2,248	1,183
2019	1,776	2,260	1,670	393	528	156	2,226	1,163
2020	1,838	2,903	786	444	388	197	2,440	1,093
2021	1,536	3,744	1,776	484	665	195	1,600	1,103

현재 우리나라에는 87종의 법정 감염병이 지정되어 있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재 49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표준화,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감염병 정도평가에 참여하여 “우수” 진단기관으로 신뢰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군 보건소 및 병·의원 검사실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과 식중독균 원인병원체를 규명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진단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감염병 발생자료와 신기술 정보 제공으로 감염병 확산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 신미영, 담당자 윤연희**

1) 신종감염병 신속대응

국제교역과 인적교류의 확대로 코로나-19(COVID-19),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스(SARS), 신종플루,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의 해외유입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의 유행으로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신종감염병 예방 및 신속진단을 위해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 발생 시 케이(K)-방역으로 전 세계 모범이 되었다.

단 한 번의 발생으로 인적,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로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 주요 감염병 검사현황 】

(단위: 건)

연도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일본뇌염	레지오넬라 백일해 성홍열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MMR)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 발진열 (발열성질환)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코로나19 바이러스
2018	22	57	28	233	102	-
2019	37	49	146	72	111	-
2020	3	95	25	29	110	116,799
2021	-	3	9	29	92	469,982

2) 기후변화 질병매개체 감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관련 감염병인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쯔쯔가무시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등 해외유입 감염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도내에서 감염병 매개체 분포와 병원체 보유실태 파악 등 장기적인 조사 감시를 통해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매개체 전파질환의 유행 및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 질병매개체 분류 및 병원체 검사 】

(단위: 건)

연도	모기	털진드기	참진드기
2018	34,368	9,415	3,899
2019	12,566	6,218	23,568
2020	31,695	4,160	2,748
2021	2,685	382	4,599

인플루엔자·호흡기바이러스 감시사업을 통한 새로운 백신주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과 일본뇌염 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유행예측 조사사업과 도내 토양 중 탄저균검사, 국제행사장내의 생물테러 대응 감시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 감염병 감시사업 및 생물테러 대응활동 현황 】

(단위: 건)

연도	일본뇌염매개모기 밀도조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사업	생물테러 대응활동 및 토양탄저균
2018	9,796	593	560
2019	17,374	656	823
2020	13,888	2,622	700
2021	51,475	556	740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1과장 임현철, 담당자 김진영

3) 동부권 감염병 신속 진단검사 시스템 구축

전남 동부권(7개 시·군: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보성·고흥)은 인구 밀집도가 높으나(전남 인구의 190만명의 47%, 90만명), 감염병 진단검사 인프라 부재로 감염병 차단의 선제적 요소인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또한 동부권에서 서남권(무안)까지 장거리 검체 이송에 따른 감염병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권역별(서부, 동부)로 진단검사시스템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동부권에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동부권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동부권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스템구축】

- (검사 시작일) 2020. 10. 29.
- (위 치)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 순천시 소재
- (검사인력) 보건연구관 1, 보건연구사 5
- (주요장비) 유전자분석기 4, 핵산추출기 3, 생물안전작업대 2
  - 동부권 코로나-19 진단검사시간 단축(7시간 → 3.5시간)
  - 보건환경연구원 일일 처리건수 확대 (1,000건 → 3,000건)

앞으로 도내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과 과도한 감염병 진단검사 업무의 분산을 위해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이 2023년 6월 완공 예정 추진 중에 있다.

규모는 부지면적 2,213㎡에 진단센터 1동 3층(1,782㎡) 건물에 생물안전 3등급시설, 혈청검사실,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실 등을 구축하여 법정 감염병 및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동부권 감염병 확산에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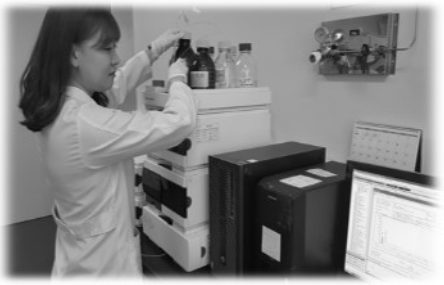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담당자 하태만

나. 유통식품·의약외품 기준·규격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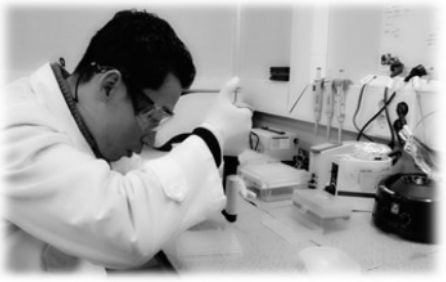
1)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와 기준.규격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써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목적으로 부정·불량 식품 근절 등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사전 예방관리와 식품안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어린이기호식품 안전성 검사】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 22개 시·군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학교 등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검사를 통한 식중독 예방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중금속 오염도조사 등 매년 9천여 건의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험·검사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부정·불량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에 신속하게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국 위생부서에 통보함으로써 부적합 제품 긴급회수 명령 및 행정처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환경 검체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의 유전자형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식중독 발생 시 원인추적이 용이하도록

사전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도내 식중독 발생 차단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 식품 등 검사 현황 】

(단위 : 건)

연도	계	일반가공식품 등 검사	건강기능 식품 검사	미생물 오염도 검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2018	8,847	7,446	153	400	848
2019	9,072	7,785	154	314	819
2020	8,775	7,608	138	225	804
2021	8,743	7,706	117	150	770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장 박 숙, 담당자 나환식

2) 유통 의약외품 등 안전성 확보와 기준·규격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통 의약외품 · 화장품 등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곰팡이 오염도, 유전자 변형식품 여부 등의 검사를 통하여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도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유해요소 오염도 조사로 다소비 수산물의 실효성 있는 안전성 검사로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하였으며, 일본산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 및 오염수 유출 논란에 대한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로 도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의약외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성분 확인과 함량, 중금속 검사를 통한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하여 생활다소비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김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의 유효성분과 무기산, 중금속

등의 기준 준수 여부 검사를 수행하여 좋은 품질의 김 생산과 해양환경보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험 · 검사능력 향상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숙련도 평가에서 정확도와 신뢰성을 인정받았고 품질관리 기준 기관평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책사업으로 '김 가공에 따른 영양과 기능성 성분 변화 연구(2021년)', '전남산 김의 품종별 영양 및 기능성 성분 연구(2020년)'를 추진하였고, 관련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김에 대한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였고,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 의약외품 · 식품 · 위생용품 등 검사현황 】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의약외품 등					
		의약외품	방역약품	화장품	김활성처리제	불법유해화학물질	의약품/한약재
계	1,176	273	41	1,171	110	173	8
2018	352	43	41	222	15	31	0
2019	403	50	-	277	28	48	0
2020	541	90	-	363	37	44	7
2021	480	90	-	309	30	50	1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식품 등					위생용품 등	
		방사능	수산물	유전자변형식품	첨가물	곰팡이오염도	위생용품	기구 및 용기포장
계	3,842	782	435	224	71	1,532	686	112
2018	841	176	98	84	24	339	100	20
2019	921	163	89	55	21	399	169	25
2020	909	171	82	37	17	375	198	29
2021	1,171	272	166	48	9	419	219	38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 윤기복, 담당자 이연주

3) 유통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 유통 농산물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 전에 농약잔류량을 검사해 유해 농산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으며, 시기별 다소비 또는 부적합 빈발 농산물, 식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 등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이바지하고 있다.

【 농산물 잔류농약 등 검사현황 】

(단위 : 건)

연도	계	경매전 (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농산물 중금속 등 검사	기획수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2018	743	129	378	236	-
2019	1,396	355	693	203	145
2020	1,381	376	675	220	110
2021	1,382	376	619	274	113

매년 1,300여 건의 도내 유통 농산물을 검사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도 식품의약과 및 관련 시・군에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도민의 식탁 안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험・검사능력 향상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야에서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음을 인정받았다.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장 양호철, 담당자 서욱현**

8-3. 깨끗한 공기·물·토양 환경보전

가.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전남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6조에 근거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05건의 검사를 실시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에서 부적합 9건을 적발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현황 및 부적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검사실적	60	82	80	83
부적건수	2	2	1	4
부적현황	어린이집 2	노인요양원 1 어린이집 1	어린이집 1	어린이집 4
부적항목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

【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적용대상 시설 (법 제3조) 】

▸ 다중이용시설 26개 시설군,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26개 시설 구분		규 모
1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환승통로 등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 포함)	연면적 2천㎡ 이상
3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이상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이상
5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 이상
6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 이상
7	도서관	연면적 3천㎡ 이상

26개 시설 구분		규 모
8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천㎡ 이상
9	의료기관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10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11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 이상
12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연면적 430㎡ 이상
13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14	대규모점포	모든 시설
15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연면적 1천㎡ 이상
16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17	학원	연면적 1천㎡ 이상
18	전시시설	옥내시설로 한정
1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 이상
20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2천㎡ 이상
21	업무시설	연면적 3천㎡ 이상
22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23	실내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24	실내체육시설	관람객 수 1천석 이상
25	목욕장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이상
2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박귀님, 담당자 오길영**

나. 수질측정망 운영

1) 운영현황

환경부의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공공수역 하천수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이 파악과 수질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하천수 13개 지점(영산강 수계 9, 탐진강 수계 2, 기타 수계 2)에 대한 하천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 수계별 조사대상 】

수계	지점명	측정망 위치	좌표(DMS)		비고
영산강	지석천1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35°18′34.61″	126°47′36.93″	능주교
	지석천2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35°17′23.6″	126°46′26.72″	중앙교
	화순천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34°59′37.96″	126°57′44.06″	죽청교
	황룡강1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35°0′41.57″	126°56′42.45″	장안교
	황룡강2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35°2′39.79″	126°50′27.42″	제2황룡교
	고막원천1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35°7′37.74″	126°37′23.95″	환곡교
	고막원천2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35°1′47.09″	126°35′41.84″	석교
	함평천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5°4′13.72″	126°31′27.82″	기산교
	함평천2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35°0′58.09″	126°31′47.51″	학야교
탐진강	탐진강1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34°43′40.12″	126°54′27.02″	별천교
	금강천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34°39′32.87″	126°53′17.29″	감천교
기타	이사천2	순천시 교량동	34°55′05.21″	127°28′57.98″	양율교
	광양서천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34°34′55.13″	127°20′41.68″	서천교

2) 조사 횟수 및 분석항목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횟수와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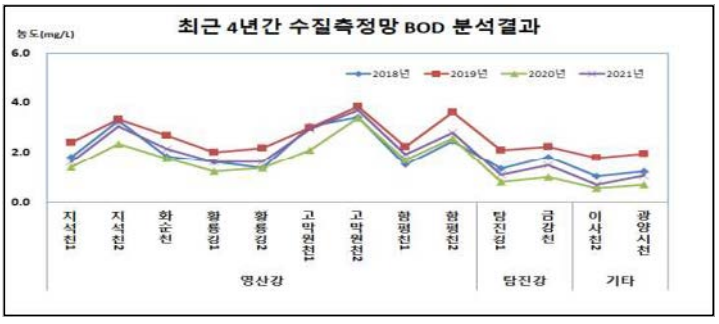
【 조사 횟수와 분석항목 】

조사횟수 및 항목		비 고
1회 / 월	1회 / 분기	※ 항목 선정 기준 : 하천 수질환경 기준 및 하천보호 상 필요한 항목
〔19개 항목〕 현장측정 : pH, 용존산소(DO), 수온, 전기전도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암모니아성질소(NH_3-N), 질산성질소(NO_3-N), 총인(T-P), 페놀류, 분원성대장균군, 총대장균군, 용존성총질소(DTN), 용존성총인(DTP), 인산염인(PO_4-P), 클로로필a, 총유기탄소(TOC)	〔27개 항목〕 매월 검사항목(19개), 카드뮴(Cd), 시안(CN), 납(Pb), 6가 크롬(Cr^{6+}), 비소(As), 수은(Hg), 안티몬(Sb),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하천의 유량이 적을 때 또는 계절적 변동이 심하거나 기타 오염물질 유입량 변화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횟수를 증가

3) 지금까지 추진실적

매월 하천수 13개 지점에 대해 156건을 직접 현장 출장하여 시료 채취한다. 수온 등 현장측정 분석항목은 채취지점에서 측정하고 실험실 시료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시험·분석을 실시한다. 시험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 및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에 매월 익월 10일까지 서면 보고하고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eis.nier.go.kr)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수질측정망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분석결과 】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박귀님, 담당자 오길영

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1) 운영현황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과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오염우려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뉘는데, 오염우려지역은 지역 환경청(전남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운영하고 일반지역은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일반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으로 지역 구분을 하고 용도별로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나뉜다.

2) 조사시기 및 자료관리

조사시기는 상반기 4~5월, 하반기 10~11월 분석을 실시하며,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기준(20개 항목) 및 전기전도도 등 21개 항목에 대해 연 2회 측정·분석한다.

지자체의 시·군·구에서는 일반지역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수질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7월과 익년 1월에 시도에 통보한다. 시·도에서는 취합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분석 및 재검사 실시 등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지점관리(변경, 행정조치)와 측정지점별 위·경도 좌표를 확인하여 제출한다.

측정결과의 판단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따라 기준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단, 음용은「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조사지점별 수질기준의 적합 여부,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 주변 오염원과의 상관성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측정망 운영결과를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에 입력한다.

전라남도에 구축된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22개 시·군 각 5개소씩 110개소이다. 일반지역은 도시지역 43, 농림지역 29, 자연환경보전지역 5, 관리지역 33개소로 지역 구분을 하고, 용도별로는 음용수 52, 생활용수 35, 공업용수 1, 농업용수 22개소로 전라남도내의 지점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전라남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지점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대상	생활	농업	공업	음용
계	110	35	22	1	52
목포시	5	3	-	-	2
여수시	5	2	2	-	1
순천시	5	2	-	-	3
나주시	5	3	-	-	2
광양시	5	2	2	-	1
담양군	5	1	-	-	4
곡성군	5	2	1	-	2
구례군	5	-	1	-	4
고흥군	5	2	-	-	3
보성군	5	4	1	-	-
화순군	5	-	1	-	4
장흥군	5	1	2	-	2
강진군	5	-	-	1	4
해남군	5	4	-	-	1
영광군	5	1	3	-	1
무안군	5	-	-	-	5
함평군	5	-	-	-	5
영암군	5	-	-	-	5
장성군	5	2	2	-	1
완도군	5	-	3	-	2
진도군	5	4	1	-	-
신안군	5	2	3	-	-

3) 지금까지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지하수 수질측정망 모니터링 결과 총 362건을 분석했으며, 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총 59건(부적율 16.3%) 이었다.

오염물질별 초과현황을 살펴보면 총대장균군 42개소, 질산성질소 17개소, 비소 5개소 순이었다. 총대장균군 항목이 가장 많은 초과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다. 초과지점은 재검사 실시 및 오염원인 파악과 향후 오염추이를 계속 관찰할 계획이다.

【 연도별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현황 】

(단위 : 건, %)

2019			2020			2021		
검사	기준초과	초과율	검사	기준초과	초과율	검사	기준초과	초과율
108	18	16.7	112	18	15.9	142	23	16.2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장 이덕안, 담당자 배주순**

라. 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자체별로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토양환경보전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운영기관에 따라 전국의 토양측정망 2,000개 지점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 2,690개 지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1) 토양측정망운영

- 운영기관 : 환경부, 2,000 지점(영산강유역환경청 : 317지점)

구 분	측 정 망
목 적	전국의 토양오염추세 파악
운영방식	조사지점 고정
조사항목	22항목(중금속 8, 일반 13, pH)

2) 토양오염실태조사

- 운영기관 : 지자체, 2,690 지점(2021년 기준, 도내 251지점)

구 분	측 정 망
목 적	오염우려지역 오염실태 조사
운영방식	조사지점 매년 변경
조사항목	22항목(오염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pH)

관할 구역안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금속제련소 지역 등 대상지역 종류 및 세부 산정기준표에 따라 지역을 선정한다. 조사대상지역 종류 이외의 지역이라도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아 오염실태파악 및 오염토양복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종합 분석한다. 토양 정밀조사결과 우려기준 등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토양오염상태, 오염원현황, 오염토양복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연도별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은 2018년 203지점에서 2021년 251지점으로 증가 추세이며, 지점별 실태조사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및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에 매년 12월 말까지 서면 보고하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향후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조사예정지역으로 선정하여 오염추이를 지속해서 관찰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 연도별 조사지점 및 실적 】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실 적	268	277	281	295
조사지점수(총계)	203	211	226	251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26	68	57	52
공장폐수 유입지역	7	9	5	27
원광석 · 고철 등 보관 · 사용지역	48	21	10	11
금속제련소지역	1	-	-	-
폐기물처리 · 재활용 관련지역	26	37	32	18
금속광산 주변지역	-	-	-	-
교통관련 시설지역	39	26	64	40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	3	-	2	18
토지개발지역	-	6	-	6
산업단지 주변 등 주거지역	3	4	4	6
어린이놀이시설 지역	40	30	36	39
순환 수렵장	-	-	-	-
지하수 오염지역	2	-	-	1
산지 등 복구 공유 수면 매립지역	1	2	2	1
토양염정화·정화 토양 사용지역	2	2	4	2
사격장 관련시설	4	2	3	1
철도관련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지역	1	4	7	5

※ 실적은 조사지점수(표토)와 심토의 합계건수임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담당자 양정고**

마. 먹는물 안전성 확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이 공급되도록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도민이 의뢰하는 민원시료와 시·군에서

의뢰하는 관원시료, 그리고 연구원 자체에서 연구목적 등 필요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59개 항목과 옥내 급수관은 7개 항목, 저수조의 경우 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참고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은 지방상수도 76개소, 마을상수도 610개소 및 소규모급수시설 1,090개소이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지하수법 제7조)나 신고(지하수법 제8조)를 해야 한다. 이러한 지하수는 용도에 따라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각각의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음용수의 경우 46개 항목을 2년에 1회(단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는 3년에 1회) 검사하고 있으며, 생활용수 20개, 농·공업용수 15개 항목을 3년에 1회 검사하고 있다. 또한,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와 먹는샘물(원수, 제품수) 및 지하수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수자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검사정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의 행정 실천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준 초과시설은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분석과 재검사 실시함으로써 수인성 감염병 사전예방과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시설 수질검사】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생적인 물 공급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수는 연 1회 46개 항목, 정수기 통과 수는 분기 2개 항목(탁도, 총대장균군)을 검사하고 있다. 우리원에서는 인근지역 교육지원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직접 시료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수원지 파괴 등 유사시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등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도내 총 180개소로 정부지원시설 74개소, 지자체시설 40개소, 공공시설 66개소로 분류되어 있으며, 음용수의 경우 47개 항목에 대해 1회/년, 생활용수의 경우는 20개 항목에 대해 1회/3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로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전남 도내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 5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 3~8회 실시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47개 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 즉시 통보하여 음용중지와 재검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장마철 등 다량의 강우 직후에는 도민들에게 사용을 자제하도록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덧붙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지하수 중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미네랄성분이 풍부하며, 건강에 유익한 특이성분이 검출

되는 등 수질이 우수한 지하수를 조사하여, 자체 개발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질평가지수인 J-Index를 이용하여 '전라남도 지정 명품 지하수 50선'을 선정하고 도민에게 유익하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추가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영장수, 목욕장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수질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 초과항목과 초과농도 등 부적합 내용을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 2021년 상수도·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

(단위 : 건)

계	상수도	지하수	사회복지시설	먹는물 공동시설	목욕·수영·온천수
7,172	1,962	4,879	138	54	189

2) 먹는물 분야 정도관리

먹는물의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능력과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및 '환경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56호, 2017.12.22.)에 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도관리 현장평가는 3년(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으며, 5회 연속 '적합'평가를 받았다. 또한 매년 자체적으로 내부숙련도시험, 장비 검교정을 실시하여 분석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1년도 숙련도 시험은 21개 항목(암모니아성질소, 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황산이온,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벤젠, 파라티온, 다이아지논,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페놀, 시안, 총대장균군, 살모넬라,

쉬겔라, 분원성연쇄상구균)에 대해 평가받은 결과 '기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미생물 항목을 제외한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ISO 17025 국제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서 국제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3) 정수장수질관리요원 교육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업무) 및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정수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수질검사 능력 함양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수질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연구원에서 2일간 시·군 상수도 업무 담당자와 정수장 수질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상수도 관련 최신 법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수질측정장비 교정 등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정수처리와 수질관리, 복합수질에 대한 정수장 선제적 대응기법, 관망진단 및 배급수 수질관리, 일일 및 주간 검사항목 분석방법 및 정수장 수질측정기기 실습 등으로 이루어지며, 정수장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정수장 수질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물관리 능력 향상으로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군간 정수장 수질정보 공유 및 상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 수질분석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맑은 물 공급에 크게 기여한 업무 유공 공무원, 민간인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바 있다.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장 이덕안, 담당자 배주순

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1) 운영현황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2개 종류의 대기 관련 측정망(국가측정망 : 교외대기, 국가배경농도, 유해대기물질,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산성강하물, 지구대기, 대기오염집중, 미세먼지성분(PM-2.5), 항만, 지자체측정망 : 도시대기, 도로변대기, 대기중금속)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말 기준 국가측정망은 전국 각 시·군에 총 208개소, 지차체측정망은 총 631개소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02년 7월 환경부로부터 도시대기측정망 9개소와 대기중금속측정망 2개소가 전남도로 이관했다. 2021년까지 39개 도시대기측정망과 7개의 대기중금속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전라남도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현황 】

(2021년 12월말 기준)

시·군	측정소명	소 재 지	용도지역	설치년월(교체시기)
목포시	용당동	동부로 31번길 20, 용당1동 주민센터 옥상	주거	1994. 11.(2016. 10.)
	부흥동	삼향천로 28(옥암동) 부흥동주민센터	주거	2013. 8.
여수시	서강동	서교1길 28-1(서강동)	주거	1991. 11.(2020. 12.)
	월내동	여수산단로 1201(월내동) 여수산단 월내 폐수종말처리장	공업	1996. 1.(2017. 9.)
	문수동	여문1로 71(문수동) 문수동주민센터 옥상	주거	2007. 7.(2018. 12.)
	여천동	무선로 190(선원동) 여천동 주민센터 뒷편	자연녹지	1991. 10.(2015. 9.)
	덕충동	덕충안길 95 만덕동주민자치센터	상업	2012. 2.

시·군	측정소명	소 재 지	용도 지역	설치년월 (교체시기)
				(2017. 10.)
	화양면	화양면 평촌길 2-6 화동경로당	계획관리	2018. 6.
	율촌면	율촌면 동산개길 2 율촌면 보건지소	공업	2018. 6.
	삼일동	상암로 601-1 상암보건지소 (상암동)	주거	2018. 6.
순천시	장천동	장명로 30(장천동) 순천시청 별관 옥상	상업	1994. 12. (2017. 10.)
	연향동	연향번영길 54(연향동) 연향도서관 옥상	주거	2008. 7. (2018. 8.)
	순천만	순천만길 513-25(대대동) 순천만 자연생태관 옥상	생산 녹지	2009. 6. (2020. 9.)
	호두리	해룡면 호두리 276-9 호두정수장	자연 녹지	2009. 6. (2020. 10.)
	신대	해룡면 매안로 162 순천시립신대도서관	주거	2018. 11.
나주시	빛가람동	빛가람로 719 빛가람동 주민센터 옥상	상업	2017.10.
광양시	중 동	중마중앙로 109 광양소방서 옥상	주거	1990. 5. (2019. 1.)
	태인동	태인길 376(태인동) 태인폐정수장 사무실	공업	1995. 7. (2018. 1)
	진상면	진상면 신시길 227(섬거리) 진상면사무소	주거	2002. 5. (2011. 9.)
	광양읍	광양읍 인덕로 1100(칠성리) 광양읍 2청사 옥상	주거	2004. 2. (2014. 10.)
담양군	담양읍	담양읍 면앙정로 730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연구동 뒤편	생산녹지	2017. 10.
고흥군	고흥읍	고흥읍 터미널길 11 고흥읍사무소	주거	2018. 12.
화순군	화순읍	화순읍 동헌길 9-24 화순군 CCTV 관제센터	주거	2018. 11.
장흥군	장흥읍	장흥읍 홍성로 23 정남진도서관	주거	2018. 9.
해남군	해남읍	해남읍 남부순환로 114 해남읍사무소	2종 주거	2018. 2.

시·군	측정소명	소 재 지	용도 지역	설치년월 (교체시기)
영암군	대불	삼호읍 대불주거9로 27 삼호읍농어촌복합체육관	공업	1996. 4. (2010. 8.)
	영암읍	영암읍 낭주로 202-2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	주거	2019. 12.
무안군	무안읍	무안읍 성내1길 2 무안읍사무소	2종 주거	2018. 12.
함평군	함평읍	함평읍 중앙길 39 함평군노인복지회관	주거	2018. 10.
영광군	영광읍	영광읍 물무로2길 61 영광읍사무소	주거	2018. 7.
장성군	장성읍	장성읍 영천로 211 장성읍사무소 옥상	주거	2017. 11.
완도군	신지면	신지면 신지로 567 신지면 문화센터	주거	2018. 10.
진도군	진도읍	진도읍 진도대로 7195 진도여성플라자	주거	2018. 11.
신안군	신안군	안좌면 중부로 860 신안군 측정소	계획관리	2018. 11.
구례군	구례읍	구례읍 동편제길 30	주거	2019. 6.
강진군	강진읍	강진읍 동성로 72	주거	2019. 4.
곡성군	곡성읍	곡성읍 학정3길 6	주거	2019. 9.
보성군	벌교읍	벌교읍 체육공원길 35	주거	2019. 9.
	보성읍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42-36	주거	2020. 12.

【 전라남도 대기중금속측정망 설치 현황 】

(2021년 12월말 기준)

시·군	측정소명	소 재 지	용도 지역	설치년월 (교체시기)
여수시	여천동	무선로 190(선원동) 여천동 주민센터 뒷편	자연녹지	1991. 10. (2008. 3)
	쌍봉동	시청동 1길 23(학동) 구)보건소 옥상	상업	1991. 6. (2008. 3.)
	율촌면	모래목길 20-1 여흥 3구리사무소 옥상	준공업	2015. 9.
	묘도동	묘도12길 51 온동마을 스포츠센터 옥상	자연녹지	2021. 9.
광양시	중동	중마중앙로 109 광양소방서 옥상	주거	2021. 8.
영암군	대불	삼호읍 대불주거9로 27 삼호읍농어촌복합체육관	자연녹지	2020. 12.
순천시	신대리	해룡면 신대리 2077	자연녹지	2021. 12.

전라남도 도시대기측정망 전송체계는 아래 표와 같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 업무담당자 및 유지보수 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년 업무연찬회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업(한국환경공단 호남본부)으로 측정소 운영·관리기술과 수준 향상을 위해 매분기별 3개 측정소를 선정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전년도 확정자료를 토대로 '전라남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대기오염측정망 자료전송 체계 】

시·군별 측정소 데이터 전송	⇨	• 보건환경연구원 - 자료 1차확정, 전송 - 월보 자료 제출 - 대기오염 경보 발령 (미세먼지, 오존)	⇨
		• 도 동부지역본부 • 영산강유역환경청 • 한국환경공단(NAMIS)에 자료입력 • 국립환경과학원(자료 최종확정)	⇨
			환경부 공표 (월별, 연도별)

2) 대기오염 측정항목

도시대기오염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SO_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_2), 오존(O_3),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총 6개이다. 대기중금속 측정항목은 총 12개로 납(Pb),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망간(Mn), 철(Fe), 니켈(Ni), 비소(As), 베릴륨(Be), 알루미늄(Al), 칼슘(Ca), 마그네슘(Mg)이며, 이 중 알루미늄(Al), 칼슘(Ca), 마그네슘(Mg) 3개 항목은 2016년 7월부터 추가 분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대기중금속오염도 변화 】

(농도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잠정)
납(Pb)	0.0118	0.0162	0.0087	0.0074	0.0058
카드뮴(Cd)	0.0001	0.0003	0.0003	0.0003	0.0002
크롬(Cr)	0.0004	0.0008	0.0011	0.0011	0.0018
구리(Cu)	0.0040	0.0069	0.0066	0.0050	0.0054
망간(Mn)	0.0157	0.0202	0.0158	0.0145	0.0176
철(Fe)	0.2192	0.3061	0.3397	0.2554	0.3860
니켈(Ni)	0.0013	0.0027	0.0020	0.0015	0.0023
비소(As)	0.0018	0.0021	0.0010	0.0016	0.0012
베릴륨(Be)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마그네슘(Mg)	0.1083	0.1012	0.1388	0.1101	0.0882
칼슘(Ca)	0.2943	0.5199	0.4200	0.3077	0.3422
알루미늄(Al)	0.0906	0.1175	0.1587	0.1436	0.1828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관리과장 박찬오, 담당자 문 희

사.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근거하여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환경부는 고농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국가 대기오염 예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을 1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기질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내일이나 모레의 대기질을 매일 4회(5시, 11시, 17시, 23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을 예측·발표하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대기환경기준과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일일 평균을 기초로 4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분하는데 PM-10과 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된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15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PM-10, PM-2.5) 실시간 농도가 건강유의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도록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보는 현재 시점에서 지역별 측정소의 실시간 농도 측정값을 기준으로 시·도에서 발령하고 있다.

가) 측정소 현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대기질 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2021년까지 22개 시·군 전역에 설치하여 총 46개 대기오염측정망(도시대기측정망 39개소, 대기중금속측정망 7개소)을 운영하고 있다. (표 8-19, 표 8-20 참조).

【 미세먼지 예보기준 】

(2018. 3. 27. 시행)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미세먼지 경보 기준 】

(2019. 2. 13. 시행)

경보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 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 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미세먼지 환경기준 】

(2020년 기준)

항목	기준 시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영국	EU	WHO
PM-10 (㎍/㎥)	일평균	100	150	100	50	150	50	50	50
	연평균	50	-	-	25	70	40	40	20
PM-2.5 (㎍/㎥)	일평균	35	35	35	25	75	-	-	25
	연평균	15	12[P] 15[S]	15	8	35	25	25	10

※ P) Primary, S) Secondary

나) 미세먼지 정보 확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시간 농도 정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 사이트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및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에서 '에어코리아 앱'을 설치하면 전국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자료가 실시간 공개되므로 누구나 대기오염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 발령 문자전송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전라남도대기질정보시스템(https://air.jihe.go.kr) 또는 전화(☎ 061-240-5371~8)를 통해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대기질 경보 상황을 받아 볼 수 있다.

다) 2021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내역

2021년 7월부터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기존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부권(7개 시·군), 서부권(8개 시·군), 중부권(7개 시·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 O 동부권 :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 O 서부권 :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진도, 신안
- O 중부권 : 나주, 담양, 화순, 장흥, 강진, 장성, 완도

2021년 미세먼지 주의보는 총 13일 19회(동부권 9회, 서부권 10회), 미세먼지 경보는 5일 4회(동부권 2회, 서부권 2회) 발령했으며, 발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현황 】

(농도 단위 : ㎍/㎥)

일자	권역	항목	경보 단계	발령구분		해제구분		지속 시간	권역 최고 농도
				시간	농도	시간	농도		
2.1.	서부권	PM-2.5	주의보	(2.1.) 22:00	84	(2.2.) 02:00	29	4	86
2.7.	서부권	PM-2.5	주의보	13:00	76	22:00	28	9	84
3.16.	동부권	PM-10	주의보	13:00	225	16:00	70	3	223
3.29. ~ 3.31.	동부권	PM-10	주의보	(3.29.) 07:00	301	(3.29.) 08:00	505 (경보대체)	1	489
			경보	(3.29.) 08:00	505	(3.30.) 15:00	145	31	1057
			주의보	(3.30.) 18:00	138	(3.31.) 01:00	98	7	138
		PM-2.5	주의보	(3.29.) 09:00	108	(3.30.) 01:00	33	16	147
	서부권	PM-10	주의보	(3.29.) 07:00	262	(3.29.) 09:00	488 (경보대체)	2	405
			경보	(3.29.) 09:00	488	(3.30.) 18:00	115	33	1084
			주의보	(3.30.) 18:00	115	(3.30.) 19:00	90	1	115
		PM-2.5	주의보	(3.29.) 11:00	111	(3.30.) 14:00	32	27	135
4.17.	서부권	PM-10	주의보	13:00	175	16:00	71	3	194
	동부권	PM-10	주의보	15:00	159	17:00	80	2	155

일자	권역	항목	경보 단계	발령구분		해제구분		지속 시간	권역 최고 농도
				시간	농도	시간	농도		
5.7. ~ 5.9.	서부권	PM-10	주의보	(5.7.) 17:00	313	(5.7.) 18:00	431 (경보대체)	1	504
			경보	(5.7.) 18:00	431	(5.9.) 06:00	140 (주의보 전환)	36	746
			주의보	(5.9.) 06:00	140	(5.9.) 11:00	77	5	136
		PM-2.5	주의보	(5.7.) 18:00	100	(5.9.) 06:00	34	36	166
	동부권	PM-10	주의보	(5.7.) 20:00	275	(5.7.) 22:00	372 (경보대체)	2	365
			경보	(5.7.) 22:00	372	(5.9.) 07:00	138 (주의보 전환)	33	456
			주의보	(5.9.) 07:00	138	(5.9.) 11:00	92	4	136
		PM-2.5	주의보	(5.7.) 23:00	79	(5.9.) 07:00	33	32	90
5.24. ~ 5.25.	서부권	PM-10	주의보	(5.24.) 22:00	177	(5.25.) 12:00	89	14	203
	동부권	PM-10	주의보	(5.25.) 11:00	157	(5.25.) 14:00	76	3	157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관리과장 박찬오, 담당자 김학림

2) 오존 경보제 운영

전남도는 대기 중 오존(O_3)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한 주의보를 발령하여 도민의 생활환경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995년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존경보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를, 0.3ppm 이상이면 경보를,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 오존 경보 기준 】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 ppm 이상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 ppm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 ppm 이상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 ppm 이상 0.3 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 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 ppm 이상 0.5 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오존경보제 운영결과 주의보를 총 137회(74일) 발령했다. 2021년의 경우 총 41회(26일)로 22개 시·군 중 여수 9회, 순천 17회, 나주 1회, 광양 12회, 장흥 2회를 발령했으며. 월별로는 4월에 2일, 5월에 4일, 6월에 8일, 7월에 2일, 8월에 5일, 9월에 3일, 10월에 2일 발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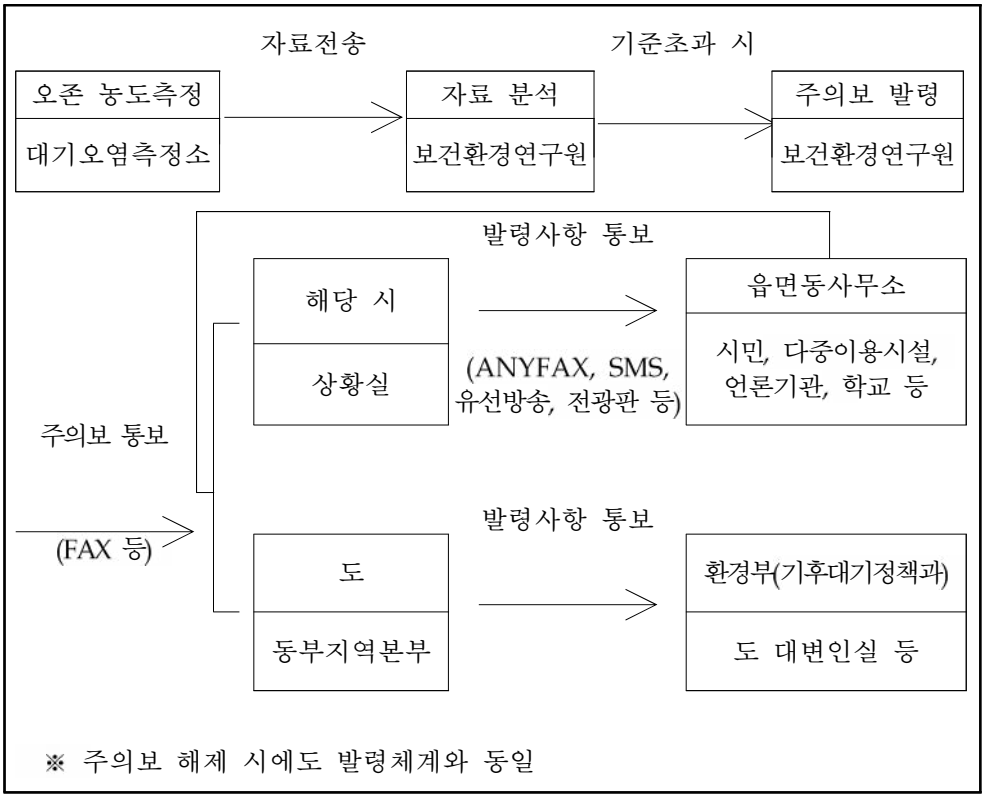
도는 2022년에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운영하며, 경보발령 시 신속한 전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근무반을 편성(토, 일, 공휴일 포함)했다.

【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

연도	발령횟수	지역(횟수)
2021	41회	여수(9), 순천(17), 나주(1), 광양(12), 장흥(2)
2020	32회	여수(7), 순천(12), 나주(4), 광양(7), 보성(1), 곡성(1)
2019	64회	목포(2), 여수(7), 순천(28), 나주(1), 광양(14), 장흥(5), 무안(1), 함평(1), 영광(2), 장성(1), 신안(2)
2018	26회	여수(12), 순천(7), 광양(7)

* 경보,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우는 없음

【 오존경보 발령 체계 】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관리과장 박찬오, 담당자 유휘선

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소음·진동·악취관리

1) 사업장 유해물질·소음·진동 환경감시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허용기준물질 37항목(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 가동개시, 개선완료, 환경감시 및 민원발생에 따른 검사의뢰 시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시료 채취하여 시험 분석한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당 도, 시·군은 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기본부과금 산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 1차 대응 후 민원 등 필요시 우리원에 의뢰하면 관계자 참관 하에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결과 통보 및 기술지도하고 있다.

환경소음측정망은 환경부 운영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우리도 환경소음측정망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 시, 100개 지점을 선정하여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동부지역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우리 원은 관할 시청에서 측정한 소음실태결과를 취합하고 정리해 통보하고, 누리집에 공개한다.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박귀님, 담당자 오길영**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담당자 이정일

2) 악취 배출원 적정관리

악취관리과가 2021년 2월에 동부지원에 신설되었으며, 사업장악취, 축산악취 및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 및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악취물질을 분석·연구한다.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다.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악취'와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악취물질'로 22종으로 구분되며, 악취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라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법으로 나누어 검사하고 있다.

전라남도 내에 악취관리지역은 2013년 여수화양농공단지(96천㎥), 2019년 여수산단(32,550천㎥), 2019년 삼일자원비축산업기지(4,156천㎥)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실태조사 지점은 악취관리지역, 경계지역, 악취영향지역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환경대기질조사와 악취배출사업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항목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 기상요소 등으로 환경대기질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새벽, 주간, 야간에 측정하며 악취배출사업장은 28개소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악취물질을 측정한다. 분석결과는 해당기관과 인터넷에 공개하며 해당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매년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악취배출원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은 국가산업단지 내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을 유해대기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 100여종에 대해 모니터링한 후 사업장 배출원 추적으로 입체적인 환경모니터링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악취물질의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검사현황 】

(단위 : 건)

연도	계	대기오염도	소음·진동	악취
2018	2,067	894	233	940
2019	4,151	2,676	218	1,257
2020	4,561	2,972	429	1,160
2021	3,735	2,285	431	1,019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악취관리과장 김익산, 담당자 박혜영

자. 산업폐수 및 폐기물 관리

산업폐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로 산업폐수로 인한 도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폐수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폐수배출시설은 2,863개소로 검사항목은 시·군에서 환경감시를 위해 의뢰하는 시료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5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이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은 32개 항목이다.

하수 및 분뇨방류수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891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78,992개소이며, 검사항목은 하수·개인하수·분뇨방류수 등의 시료를 대상으로 7개 항목을 분석하여 시험결과를 시·군에 통보한다.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이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며, 사업장폐기물은 인체 위해성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지정폐기물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 11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립장 침출수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독성이 매우 높은 폐수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한다. 도내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방류수에 대해 28개 항목을 검사하여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적정처리 여부를 감시한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적정량의 농약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 및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고 있다. 도내 16개 시·군 41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을 대상으로 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8개 항목을 검사한다. 검사결과를 환경부에서 인터넷으로 공개함으로써 적정량의 농약 사용과 골프장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 폐수·하수·폐기물 등 검사 현황 】

(단위 : 건)

연도	계	폐수	하수	폐기물	침출수	골프장농약
2018	2450	590	742	215	197	706
2019	2623	550	914	276	152	731
2020	2449	509	811	220	153	756
2021	2529	621	757	244	160	747

추진부서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담당자 양정고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 김양기, 담당자 박송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도민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김영록 도지사 민박간담회
도곡 모산마을 방문기념



제3장 부분별 성과

제11절 자치행정

1. 소통과 참여의 으뜸 자치 구현
2. 화합과 상생의 미래 구현
3.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4. 으뜸 전남을 공감하는 도정 홍보
5. 청렴 전남 실현
6.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

제11절 자치행정

1. 소통과 참여의 으뜸 자치 구현

1-1.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열린 도정」확대

가. 도민 대화의 장 확대

전남도는 시·군의 비전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느껴왔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도지사가 직접 시·군을 방문하는「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를 추진했다.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2019년도 도민과의 대화는 민선 7기 도정 발전 방향을 도민에게 설명 드리고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였다. 도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자세로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또한, 농공·산업단지, 지역기업, 영농조합, SOC 현장 등 현안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CoviD-19)이 발생,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 확산되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민생현장은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제일주의의 도정을 실천하기 위해 도민과의 대화를 2년 만에 재개했다. 코로나19를 감안해 백신 접종자 위주로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더욱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방식을 도입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도지사가 대화를 직접 주재하면서 도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했다.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도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지 않았으나, 도민 제일주의를 실천을 위해 민생현장을 수시로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였다.

2019년 도민과의 대화는 2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22일간, 2021년에는 3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22일간, 목포시 등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9,139명(2019년 5,060명/2021년 4,079명)이 참여했으며, 22개 시·군의 시장·군수, 도의원 및 시·군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장, 언론인, 주민대표 등이 함께 했다.

2019년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총 333건(시군 44건, 주민 289건) 295.8억원의 건의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는 총 213건(시군 23건, 주민 190건) 159.9억원의 건의를 받았다.

시·군 현안 및 주민의 건의에 대한 사업비로 시·군별 5억원씩 110억원을 매년 균등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부족한 재정에 도움을 주었다.

【 도민과의 대화 현황】

- 2018년 : 미실시, 민선7기 출범으로 수시 현장방문 대체
- 2019년 : 2019. 2. 18. ~ 3. 28.까지(기간 중 14일간), 민생현장 방문 대화
- 2020년 : 코로나19로 미실시, 민생현장 수시 방문 대체
- 2021년 : 2021. 3. 12. ~ 11. 25.까지(기간 중 22일간)

【 시·군 현안사업 지원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사업비	110	110	110	110
지원기준	시군별 5억원	시군별 5억원	시군별 5억원	시군별 5억원 (잠정)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행정팀장 강성일, 담당자 강성규**

나. 도-시·군 소통·협력체계 강화

전남도는 도와 시·군 간 상호협력 강화로 상생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행정을 추진했다.

상생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시책은 매년 실시되는「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로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군의 재정부담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는「시·군 행정지원담당관제」운영이다. 도 본청 국장급 11명, 과장급 22명 등 총 33명을 22개 시·군별로 행정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AI, 각종 재해·재난 등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도 차원의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세 번째는「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운영이다. 국정과제 및 도정의 당면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에 대한 논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민선7기(2018. 7. 1.~2022. 6. 30.) 동안 코로나19 방역 공동대응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 등을 위해 총 20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네 번째는「도-시・군 정책간담회」이다.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도와 시군의 당면 현안을 논의·협의하고 추진 중인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등 상호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운영됐다.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행정팀장 강성일, 담당자 강성규, 고동열

다. 주민주도형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

2020년 7월 14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하였다.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 분야는 전라남도 민선 7기 핵심시책인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와 궤를 함께 하며 전남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전남도는 마을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고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였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00개 으뜸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당 매년 3백만원씩 3년간 총 9백만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270억원(도비 108, 시군비 162)이다.

【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개요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1000개)		■		■		■					
2차(1000개)				■		■		■			
3차(1000개)						■		■		■	
예산 (억원)	도비	30	12	60	24	90	36	60	24	30	12
	시군비		18		36		54		36		18

2021년에 추진한 1,000개의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로 변모시켜 주민의 자긍심과 자신감이 함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후된 담장 등에 벽화를 그리고 쓰레기가 방치되었던 장소에 꽃밭과 주민 쉼터 등을 조성하여 마을의 이미지를 개선하였다. 마을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을 설치하고 마을 골목 갤러리를 운영하는 등 특색있는 아이디어도 많았다.

또한, 농어촌에서 사용한 폐비닐, 폐어망 등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수거장 설치를 통해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며, 주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마을 가꾸기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 2021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현황 】

구분	추진내용	추진실적(개소)
	계	1,000
경관 개선	정원조성(꽃밭, 꽃길, 화분 등)	615
	벽화조성	191
환경 개선	환경정화(쓰레기 처리, 분리수거함 설치 등)	134
	소규모 노후시설 개선(우편함, 대문, 우물, 정자 등)	23
기타	기타(안내판 설치, 빈집정비, 쉼터 조성 등)	37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과 유대감이 강화되었고 주민화합 및 마을공동체 정신회복 등 성숙한 주민자치 문화를 형성하였다.

전남도는 향후 전문가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8,000개 마을로 늘려가는 등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자치분권팀장 김신안, 담당자 홍의송**

라. 사회혁신 활성화 기반 구축

전남도는 도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삶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환경 급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위기,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다양 복잡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사회환경과 현안 우선순위가 달라 기존처럼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표준화된 정책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어, 지역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회혁신 패러다임이 나날이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맞춰 2019년부터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민과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민 참여공간 개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탄소저감·환경정화 등 총 66개의 주민 주도 사회혁신 사업을 발굴해 6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정서지원 및 나눔냉장고 운영,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등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다른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160여 개 기관·단체를 추진위원회로 구성하였다. 도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별로 추진위원회에 구성된 기관·단체의 기술과 자원을 연계해 지역문제 해결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전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2022년까지 총 65개의 실행의제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한 친환경 비료 제조, 홀몸

어르신댁에 초인종, 안전손잡이 설치 등 우수한 사회혁신 모델을 발굴해 왔다.

아울러, 2021년에는 지역 사회혁신을 활성화하고 전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사회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주체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총무과장 강종철, 총무팀장 고민정, 담당자 김소연**

1-2. 도민이 행복한 소통공감 행정 실현

가.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 소통채널 운영

전남도내 다양한 의제를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청원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 2020년부터 「소통人전남」을 운영하여 제안 393건, 청원 290건 등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도민 중심 행복소통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도정홍보와 주요시책 설명 및 도민의 고충과 여론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삶의 현장 속 소통을 추진했다.

정보 사각지대의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과 소통을 통해 일상생활 속 고충 불편 해소 등 도민 체감 및 행복지수 향상으로 소통 공감 행정을 실현하였고, 도정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소외·취약계층과의 소통을 정례화했다.

또한, 전남사회단체연합회의 적극적인 도정 주요 정책 참여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통합 및 도정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도내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교류·협력 소통 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했다.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 소통기획팀장 이석호, 담당자 조선아**

나. 도민 생활현장 모니터단 운영

우리 도민행복소통실에서는 일상생활 속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나 제안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의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민원메신저'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라는 도민 생활현장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 민원메신저는 우리 도 주관으로 2003년 최초 민원 모니터 요원 43명으로 시작하여 2019년 300명으로 증원 후, 현재 제11기 238명의 명예직 자원봉사자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민원메신저는 도정 발전과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 도민의 일상생활 속 고충·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을 통해 생활밀착형 고충 불편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지역사회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발굴부터 해결방안 제시, 캠페인까지 직접 참여하는 도민 주도형 문제해결과 소통행정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제11기 민원메신저는 온라인을 통한 고충 불편사항 제보에서 2021년 역대 최다인 550건을 달성한데 이어 2022년에는 700건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 소규모 교통안전캠페인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과 도민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8년부터 190명을 2년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8기 111명의 참여단이 활동하고 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제안 및 국·도정에 관심이 많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제8기에는 역대 최다 실적인 1,752건의 정책제안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2020년 '안전신문고앱 위치찾기 기능 개선' 제안이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반찬 나누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등 꾸준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며 큰 귀감이 되었다.

이처럼 생활현장 모니터단은 도민과의 대화 등 주요 도정에 참여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 등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으로 도정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온정 있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 소통기획팀장 이석호, 담당자 김기영, 유기현**

다.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행정기반 확대

지자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필요성 증대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보편타당한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가치의 확산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보장체계 확립, 내부역량 강화, 지속적 인권강화 방안 마련 등 인권행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부서 설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8년 8월 자치행정과 내 ‘자치인권팀’을 도민행복소통실 내 ‘소통인권팀’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2019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권업무만을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인권상담실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편리성을 강화하였다.

전남도는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통해 ‘모두가 자유롭고 존엄한 으뜸 전남 인권공동체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남형 인권 비전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이행 방안 및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농어촌, 섬, 오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노인, 다문화 비율이 높은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4대 정책목표, 14개 추진방향, 47개 정책(단위)과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 된다.

도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인권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인권에 대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무원 대상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은 7,764명(2018년 1,021명, 2019년 1,923명, 2020년 30명, 2021년 4,79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찾아가는 시군 순회 인권교육’을 통해 15,849명(2018년 2,446명, 2019년 2,548명, 2020년 9,296명, 2021년 1,559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다.

또한, 염전근로자 임금 체불, 외국인 근로자 노동 착취,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권 관련 사회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와 공동주택 입주민 및 시설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인권 취약계층이 더 이상 불합리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9년부터 매년 ‘도민 인권증진 문화행사’를 열어 세계인권선언(1950.12.10.)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기념식 개최, 인권연극 상영, 인권토론회 개최, 인권공모전 수상 작품 전시 등)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담은 인권의식 확산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였다.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 인권센터장 제갈래원, 담당자 윤영철

라. 신속·공정한 도민 인권침해구제 활동 전개

도민행복소통실 인권센터는 도민 누구나 상임 도민인권보호관과 상담이 가능하며, 조례에 근거하여 도 및 관계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해 도 기관 및 단체에서 신청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 업무처리 절차 】

❶ 상담 및 조사 신청접수	❷ 사건 조사	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결정	❹ 조사결과 통지
(문서, 구술, 전화)	(신청 또는 직권)	(인권침해구제회의)	(결과 및 개선권고)

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은 도민에 대한 인권구제·제도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괴롭힘 등 상담·조사를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상담·조사 침해 167명(317회), 차별 53명(90회), 기타 123명(406회), 조사 39건(인용 13건, 기각 9건, 각하 3건, 이의신청 3건, 취하 8건)과 현재 상담 35명(96회), 조사 5건(인용 1건, 각하 1건, 취하 1건, 조사중 2건)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 인권침해구제회의는 합의제 기구로 분야별 변호사, 장애인·여성·노인·청소년 등 인권전문가 9명(상임 1, 비상임 8)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권침해, 차별행위 조사 신청 시 객관적인 사실 확인 및 인권적 판단의 근거 조사, 결과 후 권고·의견표명·정책권고 결정을 하였다. 현재 제55회차(2016년 9월부터 2022년 3월 22일) 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인권 사각지대 해소, 현장 밀착형 인권보고, 사전예방 활동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 및 직장 갑질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도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전남청소년미래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현재 2022년 6월부터 11월 하반기까지 총 6회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인권구제 핫라인은 인권구제 활동 협조, 인권침해 제보·신고, 인권센터 업무 안내, 인권 이슈 및 동향 공유, 인권현안 논의의 장으로 2021년 11개 기관과 도 인권센터 및 인권단체로 기관 담당자 10명, 도 6명으로 현재 16명이 운영하고 있다.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 인권센터장 제갈래원, 담당자 박현정

마. 지역 중심의 풀뿌리 자원봉사 활성화

2021년 12월말 현재 우리 도 등록 자원봉사자는 2017년 대비 9만 3천여명이 증가한 561,825명으로 전체 도민의 31%에 이른다. 도민 6명 중 2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자원봉사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큰 폭으로 감소한 자원봉사활동도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 중에 있다[1].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지역 중심의 풀뿌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시군 소규모 봉사단체 육성 등 지역사회 생활 밀착형 봉사활동을 강화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농촌 일손돕기 알선 창구'를 연계해 고령 및 장애 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일손 부족 농가 2,000여 가구에 5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적기에 참여했다.

특히 섬 무인화 가속에 따른 작은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등 재능기부형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재능기부 봉사단체의 DB를 구축(166개 단체)해 전문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이·미용, 목욕봉사, 말벗 서비스 등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에 대응하였다.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유·무형의 자원봉사 자원을 확충하였다. 도 자원봉사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를 독립 청사로 이전(2021. 7월)하고, 운영 예산 또한 대폭 증액해 광역센터로의 독립성과 재무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민간자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도내 50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대면 자원봉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비대면(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온라인 자원봉사 교육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생활민원, 정책제안 등의 '온라인 공익적 모니터링 활동'[2]을 자원봉사활동 범주에 포함 함으로써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하였다.

---

1) 연간 자원봉사 활동 총 인원 : (2020년) 498,238명, (2021년) 515,881명
2) 온라인 교육(2021년~) : 11,192명 수강, 공익적 모니터링활동 1,008건, 26,400시간

또한, 양적 성장과 함께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체계를 확대·강화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적극 운영하였다. 총 1,085명의 우수자원봉사자(연간 100시간 이상)를 선정하였으며 할인가맹점도 598개소를 확보하였다.

그 밖에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특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440백만원) 등 시군 자원봉사 지원사업을 확대·지속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 민간협력팀장 최방주, 담당자 한진우

바. 재난현장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자원봉사자 49,169명의 헌신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자원 연계 기능 부족 및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재난현장에서의 효율적 자원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자원봉사 지원 체계를 정비·구축하였다.

첫째, 재난(자연, 사회) 발생 초기 신속한 구호와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300)'을 구성하였다. 17개 민간단체 300명의 정예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긴급자원봉사단은 재난현장 봉사활동 경험을 살려 재난 발생 초기에 이재민 긴급구호, 시설물 복구지원, 교통안내, 의료, 방역 지원 등의 재해 복구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도 소방본부가 운영하는 '재난현장 도민 긴급 심리회복 지원팀'(상담사 14명)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를 확대했다.

둘째, 대규모 재난 발생시 도 및 시군 재해대책본부에 설치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체계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재편하였다.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규정하였다. 자원봉사 모집, 배치, 교육, 활동지원 등 총 8단계로 운영체계를 간소화하고 활동 매뉴얼은 현장실무 중심으로 재구성 정비하였다.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3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체제를 전환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4,062명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였다.

셋째,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적, 인적 자원을 확충했다. 이동세탁차량 6대(도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를 추가 확보하고 도 자원봉사센터에 재난업무를 전담할 ‘재난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였다. 또한 재난관련 예산을 증액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복구장비 등 지원 물품을 사전 확보하였다.

전남도는 재난대응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매뉴얼을 표준화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배포하고 시군 합동 시뮬레이션 교육도 계획 중에 있다.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 민간협력팀장 최방주, 담당자 한진우**

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확대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 등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이 전남지역 민생현장 곳곳에 공익활동을 펼치고,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뒀다.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민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131개가 설립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 625개가 등록되어 전남도 내에 활동 중에 있다.

이들 단체를 통해 ‘내 삶이 바뀌는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해 바르게살기 운동 전라남도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지부 등 5개 단체에 사업비 총 337백만원을 지원했다.

이중 도내 국민운동단체(2개)에 152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남도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정 주요 시책인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 활동을 펼쳤다.

또한, 도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를 위해 ‘방범대 근무복’ 지원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50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2022년 3월말 현재까지 150백만원 3,744명에게 지원했다.

특히 도내 사회단체들은 어려운 도민을 돕고,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캠페인 등을 집중 추진하여 훈훈한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전남도는 도민들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변경·등록을 지원하여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등 건전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다.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 민간협력팀장 최방주, 담당자 송문경, 박솔이**

아. 도민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전남도는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및 온오프라인 민원 접수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진정·생활민원 처리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사회배려

대상자 민원창구’ 운영, ‘청각·언어 장애인 수어상담 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기본적으로 민원의 접수·분류·이송 등 처리절차 기준을 준수하고, 나아가서는 민원처리 현황 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복합민원, 거부처분 이의신청 및 반복·중복 민원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변화의 원동력인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남도는 도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실시간 의견 수렴으로 성립된 사안을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온라인 도민청원제’를 마련해 열린 도정을 구현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사례로 평가받아 국무총리상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온라인 여권 발급 서비스와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행과 여권심사·교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착오 발급을 예방하고, 여권 발급 처리 기간 단축, 사회적 약자 여권 무료 등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 민원팀장 고현영, 담당자 김규리**

1-3. 동부지역 도민소통 강화

가.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운영

전라남도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는 동부권 7개 시군 도민 가운데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와 시군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됐으며, 민선7기 출범 이후 60여건의 시책제안과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백운 산림박물관 건립 지원, 미세먼지차단 숲 예산확보,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누리집 구성 등 다양한 활동과 사업이 이뤄졌다.

도는 앞으로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확대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도정에 반영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등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

- 구성근거 : 자체시책(구성일 2014. 12. 23.)
- 임　　기 : 2년, 연임 가능
- 위　　촉 : 100명(여수・순천 23, 광양 20, 곡성・구례 7, 보성・고흥 10)
- 운영방법 : 정기회(연2회), 임시회(필요시)
- 주요기능 : 도정, 시군 주요시책 발굴・자문 및 도정현안에 대한 제안・건의

추진부서 운영지원과장 곽영호, 동부정책팀장 장익상, 담당자 박승국

나. 동부권 도정홍보 강화

전남도는 도민의 도정 참여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부권 도정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역할을 위해 동부권 5개 방송사와 탄소중립 실천,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산불 예방 등 10여 회의 도정 캠페인 방송을 제작·실시하였고, 지면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활용하여 블루이코노미, 탄소중립 205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지면·배너 광고를 57회 실시하였다.

또한 라디오 도정홍보 인터뷰를 16회 실시하여 동부지역본부의 환경·산림 현안사업을 소개하였으며, 공씨 이야기, 명품치유의 숲, 랜선여행 등 18편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 홍보하였다.

그리고 통해 옥외전광판,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50탄소중립 도정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도민의 도정 이해도를 높였다.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도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도정 홍보 전문 의견을 반영한 홍보콘텐츠 개발로 도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전남도청과 도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운영지원과장 곽영호, 홍보팀장 신동신, 담당자 양선영**

다.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전남도는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동부지역 7개 시·군 도민에게 장거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137종(道 위임 73종, 환경 분야 53종, 산림 분야 11종)의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처리결과 2021년도에는 10,355건을 처리했으며 2018년 대비 103% 증가하였다.

【 민원처리 현황 】

(단위 : 건수)

연 도	계	道 위임	환경민원	산림민원
2018	5,103	4,014	778	311
2019	7,105	5,150	950	1,005
2020	7,348	5,032	1,297	1,019
2021	10,355	8,011	1,335	1,009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현장방문 민원 접수제'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해 나가고 있다.

【 현장방문 민원접수 현황 】

(단위 : 건수)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5,988	3,335	4,452	4,357	3,844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높이고, 민원시책 발굴을 통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운영지원과장 곽영호, 동부민원팀장 이건재, 담당자 박순호

1-4. 출향향우 교류·협력 강화

가. 출향향우와의 행복한 이음,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전라남도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전남의 위상 제고와 고향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출향도민을 예우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사랑도민증은 2021년 7월말 12개 광역향우회와 업무협약 및 1호 발급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다.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출향도민 5,300여 명이 도민증을 신청하였고 4,600여 명이 발급받았다.

전남사랑도민증을 소지한 출향도민은 할인가맹점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숙박·레저시설 등 협약을 맺은 할인가맹점에서 입장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를 통해 고향의 농수산물 구입 시에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도내 할인가맹점은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120개소가 운영 중이다.

할인가맹점은 출향도민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도내 관광을 즐기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을 기반으로 출향향우와의 행복한 이음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증 신청 절차의 편의성은 높이고 할인가맹점 등 이용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사랑도민증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고향사랑추진단장 오종우, 출향도민팀장 선준식, 담당자 박정현

나.「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2021년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전남도는 법률 제정 단계에서부터 국회 상임위, 법사위 등에 법안 제정의 당위성 및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득하여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법률 제정 이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시행을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남도는 사전 준비를 위해 2021년 12월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하여 시·군 농민단체, 기관 등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추진경과, 해외사례 분석(일본 고향납세), 정책 의견 제언 등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2022년 1월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향사랑추진단을 발족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범도민 인식제고와 참여확대, 기부활성화 방안 강구, 상반기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사전 대응, 기부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준비 등 차질없는 사전준비로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 관계법령 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남사랑 도민증과의 연계를 통한 홍보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발전 동력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로드맵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력	신설											
법령	시행령 제정 및 표준 조례안 배포(행안부)						도 조례 제정					
시스템	ISP 수립 및 예산 협의·협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답례품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 답례품목 및 기금 용도 검토									답례품목 결정		

추진부서 고향사랑추진단장 오종우, 고향기부금팀장 유묘상, 담당자 박순용, 정규원

1-5. 자주재원 확보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

가. 안정적 세입 확충

전남도는 민선6기 획기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 연속으로 ‘지방세 3조원 시대’와 ‘도세 2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와 같은 전남도의 지방세수 증가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더불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추가 발굴, 체납액 징수 노력,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렌터카 기업유치 등 적극적인 지방세수 확보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목표액(A)			징수액(B)			징수비율(B/A)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2021	32,044	19,100	12,944	37,307	22,225	15,082	116.4	116.4	116.5
2020	31,153	18,220	12,933	35,647	21,408	14,239	114.4	117.5	110.1
2019	24,024	12,450	11,574	27,148	14,051	13,097	113.0	112.9	113.2
2018	21,843	10,140	11,703	23,922	11,651	12,271	109.5	114.9	104.9

지방소비세는 2019년에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6%로 세율을 인상하였고, 2020년부터는 21%로 추가 인상하여 2018년 징수액이 2,883억원에서 2019년에 4,877억원으로 1,994억원이 증가되었고, 이후 2020년에 1조 210억원, 2021년에는 1조 774억원을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인상 및 방사성 폐기물,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 화학물질, 시멘트 등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관련 시・도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입법활동을 추진하였고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됨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70억원의 도세 추가세입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경마장과 경륜・경정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레저세는 사업장이 없는 우리 도에는 세입이 배분되지 않았으나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세입만큼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17개 시・도에 배분하자는 건의가 수용되어 2022년부터는 우리 도로 15억원 이상의 세입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18년부터 도와 시군이 공조하여 대형 렌터카 업체를 유치하여 차량 230,463대가 도내에 등록됨으로써 취득세 등 약 2천억원의 지방세수를 증대시켰다.

【 렌터카 세입현황 】

(단위 : 대, 억원)

구 분	등록기간	등록대수	세입액
합 계		230,463	2,039
해 남	2021 ~ 2021	20,000	207
신 안	2020 ~ 2022	94,000	746
함 평	2018 ~ 2019	26,463	266
보 성	2014 ~ 2018	90,000	820

추진부서 **세정과장 위훈량, 세정팀장 김양선, 담당자 김대형**

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전남도는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이월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매년 차량 밀집지역(톨게이트,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3개 기관(도, 경찰청, 도로공사)합동 체납차량 단속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의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전년대비 1,660억원이 증가된 3조 7,307억원을 징수했으며, 이월체납액은 374억원(47.2%)을 징수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전남도는 이월체납액 징수율 도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

(단위 : 억원, %)

연 도	이월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2021	793	192	601	374	91	283	47.2ㅊ	47.4	47.1
2020	799	189	610	393	98	295	49.2	51.6	48.4
2019	777	182	595	379	100	279	48.9	55.1	47.0
2018	736	169	567	377	97	280	51.3	57.4	49.5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627명에 대하여는 11월에 체납액, 성명, 주소지 등 체납자 인적사항을 관보 및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잠재적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켰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주 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차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확대·개발이 용이한 중요 잠재 수입원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 압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 시·군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신규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연도별 지방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 : 백만원)

과목별		2018	2019	2020	2021
계		103,182	111,975	120,025	146,378
경상적 세외수입		26,065	29,672	24,578	24,583
	재산임대수입	536	1,120	640	648
	사용료수입	4,843	4,570	3,621	3,914
	수수료수입	3,235	3,324	3,253	3,348
	사업수입	1,148	1,374	1,172	1,399
	징수교부금수입	4,878	7,793	8,248	8,586
	이 자 수 입	11,423	11,491	7,644	6,688
임시적 세외수입		77,117	82,303	95,447	121,795
	재산매각수입	1,420	3,473	8,207	6,245
	부담금	14,798	15,661	12,233	13,231
	과징금 및 과태료 등	931	700	575	2,911
	기타수입	59,218	62,380	72,504	98,351
	지난년도수입	750	89	1,928	1,057

추진부서 **세정과장 위훈량, 체납징수팀장 정홍일, 담당자 김영구**
세외수입팀장 박정희, 담당자 배용만

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전남도는 탈루·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 및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자 매년 취약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2018년에는 198억원, 2019년에는 150억원, 2020년에는 139억원, 2021년에는 145억원의 탈루·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2021년의 경우에는 640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도세 117억원, 시·군세 28억원 등 총 145억원의 탈루된 세원을 발굴했는데, 주요 발굴 유형은 지방세 미신고·과소신고 누락분이 5,755건 69억원, 비과세·감면분 목적사업 미사용 과세전환 1,991건 64억원, 지방세 중과세 및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가 110건 12억원 등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과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민경제 활성화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159개 법인과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선정한 모범납세자 91개 법인,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일자리창출기업 60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함으로써 기업활동 지원과 더불어 성실납세 분위기를 고취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해서 탈루·숨은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 연도별 세무조사 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1	2020	2019	2018
발굴세액		145	139	150	198
지방세	도 세	117	110	109	161
	시군세	28	29	41	37

추진부서 세정과장 위훈량, 세원개발팀장 조성규, 담당자 정정욱

라.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

전남도는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세무상담을 운영해왔다.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도민에게 우리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2년 제4기 마을세무사 67명을 위촉하였고, 2021년에는 1,722건의 상담실적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25여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표창하고 대출·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여 도민들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영업 금지된 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배제 등 1,978건에 약 64억원의 지방세 지원을 하였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까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하여 기존 계좌 자동이체 방식 이외에 12개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확대하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 위택스(위택스 모바일앱), 시중은행의 '모바일 금융앱(6개)과 앱카드(7개)'를 이용한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를 시행했다.

한편, 2018년부터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진부서 세정과장 위훈량, 세정팀장 김양선, 담당자 오 헌, 서애진
세원개발팀장 조성규, 담당자 박경원

1-6. 적극적인 재무 운용

가. 도내업체 보호.육성 및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전남도는 유망한 지역업체 보호·육성과 각종 계약 시 도내업체 참여제도를 적극 적용하였고 계약행정의 전(全) 과정을 공개하여 발주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역의 창업·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도 초기 수요가 부족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달청과 지역 혁신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판로 확보를 통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협약 내용 】

- 도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상품 발굴
- 벤처창업 조달상품 지정과 벤처나라 등록
- 벤처창업 조달상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
- 도내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
- 도내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실증지원
- 도내 혁신조달 정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또한, 지역 제한을 통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하도급 계약은 지역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지역 제한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지역업체가 49%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였다.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의 전과정을 공개하여 계약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추진부서 **회계과장 이길용, 계약팀장 이건창, 담당자 조은희**

나. 내실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도, 시·군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 기초금액(예정가격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민선 7기 4년간 총 5,170건의 심사를 진행해 2,663억 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노무비, 각종 제경비 등의 임의적 축소 관행을 개선하여 견실시공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타 지역 제품으로 설계된 850개 제품 400여억 원어치를 가격과 성능이 유사한 도내 생산제품으로 전환하여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계약심사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계약심사 중점처리 기간'을 정하고 '찾아가는 현장 출장심사' 등을 운영, 총 60회(254건)의 출장 심사를 통해 시군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민간공사 원가 무료 자문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계약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회계과장 이길용, 계약심사팀장 김재인, 담당자 김지훈

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전남도는 6조 5,237억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6조 3,456억원(97%)은 행정목적(공용, 공공용, 보존용, 기업용 등)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으로, 1,780억원(3%)은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유재산 관리의 개념이 재순의 단순 유지 및 관리 차원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용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도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매년 일반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했다.

2021년 조사결과 무단으로 점용·사용되고 있던 62건을 적발, 4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가능한 유휴토지 23건 중 입찰 및 수의에 대한 대부계약을 통해 1백만원의 임대수익을 거두었다. 또한, 누락되어 도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7,058건 3,921천㎡를 찾아 대장에 등재했다.

그리고 실제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538건은 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된 29건은 매각하여 41억원의 세입을 올리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추진부서 회계과장 이길용, 재산관리팀장 정훈조, 담당자 김창선

2. 화합과 상생의 미래 구현

2-1.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기반 마련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70여년이 지나 유족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국가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였다.

2020년 7월 28일 제21대 국회에서 소병철 국회의원 등 152인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021년 6월 25일 제388회 국회 임시회에서 행안위와 법사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하여, 2021년 6월 29일 국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와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위령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2022년 1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가 출범하였고, 이를 지원할 명예회복위원회 여순사건지원단과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 각각 구성되었다. 또한, 위원회 아래 각각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합동추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피해조사 실시, 여순사건 교육·문화 사업, 역사유적지 발굴·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배보상 근거 마련, 여순사건의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 희생자 위령과 추념을 위한 위령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여순사건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관계 】

	실무위원회 (전라남도지사)	⬅ 위임, 의결 / 처리, 실행 ➡	위원회 (국무총리)
진상규명 신고	• 신고 접수(실무위원회 구성 이후 1년) • 사실조사(사실조사단 운영)	→	•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위원회 의결) * 필요할 경우 직권 조사 실시 • 자료수집 및 분석(개시결정일부터 2년 내)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조사 등 완료 후 6개월 내)
희생자 유족 신고	• 신고 접수(2022.1.21.~2023.1.20.) • 사실조사 후 의견서 첨부, 위원회에 심의·의결 요청	→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 의료·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결정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기획운영팀장 김형성, 담당자 박신영**

나. 여순사건 피해조사 실시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피해 신고·접수를 2022년 1월 21일부터 실시했다.

신고 대상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 기간 중 여순사건으로 희생당한 사망·행방불명·수형·후유장애 희생자이며, 진상규명 신고는 희생자 및 유족과 친족,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경험·목격자, 경험·목격자에게 직접 전해 들은 사람,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이며, 희생자(유족) 신고는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방계혈족(제사를 지내는 자, 무덤을 관리하는 자)이 신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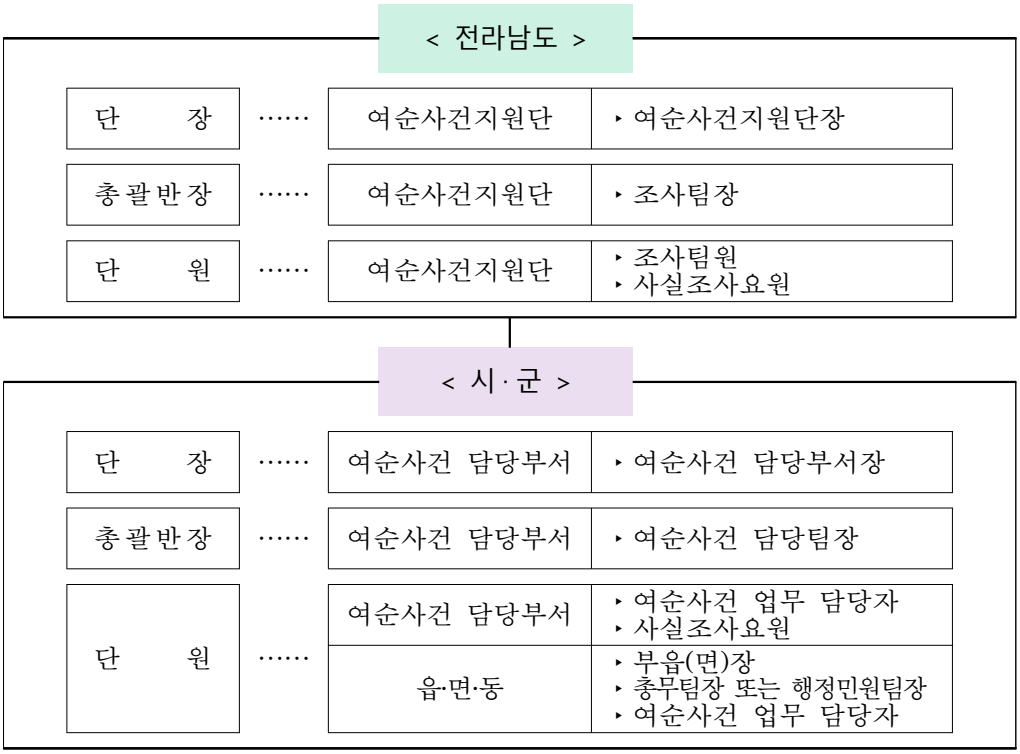
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책임공무원 지정과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옥외매체(버스터미널, KTX역 등), 언론매체를 통한 여순사건 신고·접수를 홍보하고, 찾아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접수를 운영하여 신고·접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접수된 건들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위원회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거쳐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여순사건 피해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조사요원을 채용하여 기본·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분야 전문직 직원도 채용하였다.

전라남도는 사실조사요원 교육 및 효율적인 사실조사단 운영으로 내실있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구성체계 】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조사팀장 김경탁, 담당자 선은경, 임은화, 문지원**

다. 여순사건 위령사업 및 교육·문화사업 추진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매년 합동추념식을 개최하여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추모와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전라남도 주최 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주관 추념행사로 격상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또한, 역사유적 정비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10억 8백만원을 투입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위령탑 보수, 유적지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추진했다.

각 시·군의 여순사건 유적지를 통합 관리하여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역사유적지 정비계획도 수립했다. 여순사건의 피해가 컸던 전남 6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의 위령탑, 위령비, 집단학살지, 격전지 등 70개소에 대하여 유적지 내 시설물 현황, 보존상태, 여순사건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유적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연도별 정비 및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추후 정비계획에 따라 대내외적인 통계자료와 연도별 국비 확보자료로 활용하고 추념식, 전시회, 견학 등 교육문화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도는 여순사건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문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 문화행사, 전문가 강의・교육 등을 지원하여 여순사건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여 여순사건을 다룬 창작오페라 '1948년 침묵' 공연을 지원하고 '동백' 영화를 공무원 및 주민 대상으로 상영하였다. 또한 '동백꽃 필 때까지' 만화를 제작하여 교육·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순사건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전문가, 해설사 교육도 지원하였다.

도는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아픔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식 변화를 위해 역사적 사실 영상제작, 시・군, 민간단체, 유족회 등의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심사관리팀장 조인천, 담당자 안현숙, 방성은, 양소진

2-2. 김대중 대통령 정신 확산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가. 김대중 대통령 평화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

전라남도는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지도자이신 故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선 7기에는 2021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 용서와 화해, 생명과 평화의 정신을 주제로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서 유명 석학들이 참여(36명)하여 「2021 김대중 평화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세계적 지도자들의 참여로 행사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평화, 화해, 치유의 경험 등을 이른바 MZ 세대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비전과 실천과제를 논의한 자리였다.

우리 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인과 함께하고 빌리브란트 재단, 넬슨 만델라 재단과도 향후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라남도를 ‘평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한 몫 하였다.

2023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김대중 평화회의를 성대히 개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전라남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2021 김대중 평화회의 개요】

- 기　　간 : 2021. 10. 26.(화) ~ 10. 28.(목) / 3일간
- 장　　소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전야제 : 목포 평화광장)
- 소요예산 : 10억 원(도비)
- 주　　제 : 코로나19를 넘어 세계평화를 향하여!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행정팀장 강성일, 담당자 성정훈**

나. 호남권 통일+센터 건립 추진

전라남도는 남북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한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시발점으로서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국제산업・물류・교통의 전진기지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서 남북교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민・관 합동으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20년에는 통일부 공모사업으로 호남권 통일+센터를 전남에 유치하고, 2021년 4월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호남권 통일+센터는 2018년 인천 시범센터 개소 이후 시도권역에는 처음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지역 내 산재해 있던 하나센터, 남북교류평화센터 등의 사업을 통합하여 통일 관련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센터 건립은 국비 3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9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전남 목포시 용해동에 지상 3층(대지면적 2,200㎡, 건축면적 881㎡, 연면적 1,970㎡) 규모로 계획했으며, 2021년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2월 본격 착공해 1년 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센터 구성은 평화통일 자료실과 통일체험 전시관, 카페, 전남하나센터, 상담실, 쉼터, 교육실, 다목적체험실, 사무처 사무실, 남북교류평화센터, 회의실, 대강당 등으로 배치했으며, 남북교류협력 상담, 북한이탈주민 지원, 통일교육, 평화통일 공감 프로그램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남도는 호남권 통일+센터를 중심으로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중앙·지방·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협업 모형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다가올 통일 미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 남북교류팀장 이성훈, 담당자 정은영**

다.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전라남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2010년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업·창업, 청소년교육, 생계지원 등 집중 지원 분야를 선정하였다. 전남하나센터를 통해 2013년부터 정착지원 시스템을 본격 구축하였고,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전라남도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마치고 도에 전입거나 타 시도에서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장착지원 시스템이 추진된 2013년도 당시 523명이었고 그 후 증가세를 유지해 현재 647명이 됐으나 그 증가폭은 최근 정체된 상황이다. 정체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 및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경유하는 국가 간 이동 제한에서 비롯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도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전남하나센터의 지원사업 및 민간단체 활동이 다소 위축되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소득단절가정, 질환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생계비 및 방역물품 지원으로 대응하였다.

전라남도는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확대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국가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지역적응센터 사업 외에 전남도 자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업체 협업,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임산부, 생계위기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이탈주민가정 청소년들의 빠른 사회적응을 위해 문화활동 체험 및 학원비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교육청, 고용청, 경찰청 및 다양한 민간단체가 교류하며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한다.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 남북교류팀장 이성훈, 담당자 김용희**

2-3. 전남 5·18 민주정신의 계승·발전

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기념사업 추진

1980년 5월 당시 민주화운동은 공간적으로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에 소재한 광주시에서 시작되어 전라남도 내 타 지역으로 확산되며 전라남도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1986년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3808호, 1986. 5. 8.)이 제정되고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행정구역상 분리되면서, 5·18과 관련된 기념사업은 지금까지 광주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전라남도 내 5·18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 및 담당자의 부재로 기념사업의 지속성·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5·18 민주화 및 과거사지원센터팀이 신설하였다.

5·18관련 전담팀 신설 후 2019년 도내 5·18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전라남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사위원회 주관으로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 5·18행사를 개최하였다.

39주년 기념 전라남도 5·18기념문화제는 5·18유공자 및 유족, 시민단체 등 3천여 명의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역 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 30주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열리는 범도민 차원의 행사였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는 5·18 당시 총탄 자국이 남아 있는 옛 도청 현판을 복원하여 현재 전라남도청 앞 광장에 설치하고, 2020년 5월 15일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과 옛 전라남도청 현판 제막식을 함께 개최하였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는 기념식 외에도 각종 문화행사, 학술세미나, 학생·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각종 행사들이 연기 및 취소되기도 했다.

41주년 기념 전라남도 5·18기념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동시에 기획하여 기념식, 남도 오월문화제, 학술토론회, 5월 버스순회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도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내실있는 5·18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의 위상을 제고하고 5·18민주정신 계승에 앞장설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5·18민주화 및 과거사지원센터팀장 김용수, 담당자 김자현**

나. 5·18유공자와 유족 예우를 위한 지원

전라남도는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5·18민주유공자 예우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19년부터는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매월 7만원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외에도 도내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전체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하는 민주명예수당을 신설하여 5·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했다.

전라남도는 그 밖에도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5·18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및 교통부름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5·18민주화 및 과거사지원센터팀장 김용수, 담당자 김자현**

3.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3-1.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전남도는 2018년도부터 지역의 미래 발전을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재는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으뜸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희망인재육성과를 신설하고 청소년, 청년, 일반 도민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인재육성 9대 중점 사업을 마련해 추진했다. 다음 해에는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7월에는 전담 수행기관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총 4,849명의 으뜸인재를 발굴·육성했으며, 2022년에는 3대 분야(새싹인재, 핵심인재, 혁신인재)에 16개 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으뜸 인재들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재능을 환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장종국

3-2.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새싹인재」

가. 예능영재 키움 사업

도내 청소년 중 예능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음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예능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주말과 방학을 활용해 전문 교습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지역 예술고(전남예고, 진도 국악고, 광양 창의예고)의 우수한 강사진을 활용해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 영재 245명을 선발하여 수준 높은 전문교육을 제공했다.

첫해 운영 결과, 저변이 열악한 국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진도 국악고를 운영기관에 추가하고, '예향 전남'의 명맥을 이어갈 재목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2021년에는 동부권 학생들의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양에 있는 한국 창의예고까지 포함해 지역의 꿈나무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의 꿈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으로, 분야별 유명 예술인을 초청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을 가미하는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 예능영재키움 성과발표회】


【전남예술고 전문교습】

【 2019~2021년 예능 영재 키움 사업 선발 현황 】

(단위 : 명)

학교별	계	분야별				학교급	
		서양음악	국악	미술	무용	초	중
계	245	66	73	72	34	110	135
전남예고 (2019~2021)	191	57	47	60	27	94	97
진도국악고 (2020~2021)	33	-	26	-	7	7	26
창의예고 (2021)	21	9	-	12	-	9	12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교육지원팀장 김재근, 담당자 문혜미**

나. 청소년 노벨캠프

이공계 분야에 관심 있는 도내 33개교 191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과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 연구수행을 지원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참여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팀당 6백만 원의 연구수행비를 지급했다.

2019년에는 미래 노벨상을 꿈꾸는 화학, 물리 분야에 관심 있는 고교생 20명을 선발하여 미국, 스위스의 노벨상을 수상한 대학과 연구소에서 직접 강의를 수강하고 다양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해외연구소 탐방 대신 22팀 88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설정한 과제를 연구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는 18개교, 21팀 83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의 연구 과정이 정교하지 못해 효용성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팀별 연구과제 선정과 중간실적 등 전 과정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노벨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남의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신산업의 핵심인 창의적인 과학 인재가 되길 기대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욕시립대 창의연구활동 수업】



【MIT 대학 탐방】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교육지원팀장 김재근, 담당자 서장원

다. 공공기관 진로체험 교실

도는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도 산하 출연 및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과 진로를 탐색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도내 66개교 1,070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실습 중심의 미래산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21년부터는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체험기관으로 확대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일부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이 몰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기관별 운영 횟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드론체험 】



【한국수력원자력 체험 】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교육지원팀장 김재근, 담당자 문혜미**

라. 대학선배 멘토링

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입시, 진로 등 정보 접근 기회가 취약한 지역 청소년에게 학습 동기와 미래 설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선배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멘토-멘티 50명이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멘토링과 함께 4차 산업혁명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음 해에는 남도학숙 재학생 25명과 도내 청소년 25명을 선발하여 서울권 학교를 방문해 진로 진학 상담을 할 수 있는 2박 3일 멘토링 캠프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여파로 취소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도는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멘토-멘티 간 온-오프라인 멘토링 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개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대학선배 멘토링】



【 멘토링 특강】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강유라

마. 생각을 깨우는 인재학당

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성과 변화 대응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출신 석학과의 만남을 통해 인문 교육과 역사문화 탐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도내 고교생 50여명을 대상으로 도올 김용옥 선생과 함께 4박 5일 동안 논어 강좌와 마한 역사탐방 등을 통해 인문학적 지식을 쌓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진하지 못했지만, 2022년 이후에는 역사, 철학 등의 석학들을 초청하여 인문학 교육과 함께 강연을 열어 도내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인문학 캠프, 전남인재학당 운영 】



【 전남인재학당, 역사탐방 】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교육지원팀장 김재근, 담당자 서장원

3-3. 세계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가. 새천년 으뜸인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 있는 인재에게 최장 12년간 재능계발비를 지원하는 '새천년 으뜸인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에 '전남스타 100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해 다음 해에 '새천년 으뜸인재'로 변경했다. 이후 매년 재능과 인성을 겸비한 지역의 숨은 인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으뜸인재 발굴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 고, 대학생과 학교밖 청소년(14~24세)이며, 신규로 선발된 인원과 계속 지원 인원을 합산하여 연간 200명 내외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은 으뜸인재로 선발된 해부터 해당 신분의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대학생은 선발된 해부터 소속 학교/학과의 정규학기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시/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으뜸인재에게는 맞춤형 재능계발비(대학생 연 6백, 고교생 5백, 중학생 3백)를 지원하며, 도에서는 반기별로 으뜸 인재의 활동 성과와 실적을 점검해 으뜸인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복지시설 등에 방역지침이 강화돼, 으뜸인재의 개별적인 재능나눔 활동에 제약이 있고, 학생들의 재능계발비 사용에 다소 통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활동과 헌혈 등의 자율 봉사를 함께 추진하고, 재능계발비 사용에 학생들의 자율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새천년 으뜸인재 선발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지원인원			분야(신규인원 기준)		사업비
	합계	신규	기존	미래	예체능	
2019년	53	53	-	5	48	500
2020년	130	99	31	48	51	850
2021년	186	89	97	44	45	1,500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강유라

나.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도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해외 석·박사 유학비를 지원하여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소가 전남이거나 도내 소재 초, 중, 고, 대학교 중 하나를 졸업(예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 등 지원하는 전공 분야에 제한은 없다.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와 두 번의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전공 분야의 전문성과 발전 잠재력은 물론 리더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지역공헌 의지까지 다방면에서 꼼꼼히 평가하여 매년 3명을 선발한다. 전라남도 해외유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2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 1기에 선발된 인원은 각각 미국 조지워싱턴대 바이오데이터 석사과정,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박사과정, 미국 프린스턴대 환경공학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세 학생 모두 국내 학부 시절 장학금과 각종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학비를 해결하면서도 우수한 성적을 놓치지 않은 인재들이다.

2021년, 2기에 선발된 인원은 미국 MIT 물리학 박사과정, 독일 프리드리히 화학 박사과정, 미국 예일대 로봇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MIT 물리학 박사과정을 수강 중인 서 모 학생은 학부 시절부터 국제학술지 1 저자로 게재될 정도로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지속적인 교육봉사를 실천했으며, 프리드리히 화학 박사과정을 수강 중인 김모 학생은 지역대학 출신임에도 훌륭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다만, 고향을 지키고 있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발굴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2022년부터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에게 최종 선발 시에 ‘전남 거주 가산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취지에 대한 도민의 공감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선발 인원을 5명으로 늘려 더 많은 인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비유학생 선발 심층면접 심사】



【전남도 제1기 도비유학생 증서 수여식】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강유라

다. 글로벌 전문인재

도는 지역 대학생들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을 갖고 세계무대에서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 사업명은 '중화권 전문인재 육성사업'으로, 대중국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계획하였다.

2020년도에 공모를 통해 주관대학으로 목포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목포대를 중심으로 순천대, 동신대 등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85명의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중국 어학능력 교육, 신남방 정책 특강, 국내외 현지 연수비 등을 지원하여 중화권 전문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당초 계획했던 해외 연수와 국내캠프 등의 핵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미-중 갈등 양상과 국가별 인재의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본 사업이 종료되면 추진 방향과 내용을 재편하여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강유라

라. 지역대학 연구인재

도는 2019년도에 도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청장년 296명을 대상으로 5개 산업 분야(마이크로그리드, 드론, MICE, VR·AR, 푸드스타일링)를 선도할 고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존 인력양성 사업과는 차별화된 실무이론과 실습 위주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남산업 선도인재 육성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했다.

이론수업과 실무교육(심화과정 포함)의 유기적인 연계로 교육효과를 높이고, 분야별 자격증 취득은 물론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대회 참가·발표, 대회 참가·수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20년도에는 「미래산업 연구인재 육성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 산업체 재직자와 취업준비생 109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나갈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3개 산업 분야(에너지신산업, 바이오, VR/AR) 실무이론과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한 전문적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미래먹거리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산업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였다.

2021년도에는 수도권에 비해 연구 경험이 적은 지역 대학원생들이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기 연구인재 역량강화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추진하였다.

도내 소재 대학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대학원생 22명을 선발해 지역의 미래 산업과 현안을 주제로 공공기관과 기업부설 연구소 등과 협업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석사과정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182만 2천 원, 박사과정의 경우, 도(道)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227만 8천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했다. 학생들은 연구주제의 특성에 따라 최장 10개월까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았다.

전남대 양 모 학생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9개월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유방촬영 전용 MR^2-PET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동신대 이 모 학생은 라파아동발달센터에서 10개월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학령기 설소대 수술로 아동 조음 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연구기관과 지역대학 간에 다양한 공동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도 지역대학 연구인재 육성사업 참여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참여 인원	출 신 대 학				과 정		사업비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동신대	석사	박사	
2021년	22	6	11	4	1	19	3	508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강유라

3-4.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가. 도민행복대학

전남도는 우수한 전남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남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남도학 강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도학 첫걸음'이라는 교재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

2020년부터는 도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해 '일상에서의 시민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동체 의식 성장과 사회참여 시민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층간소음 문제를 비롯한 생활 접점의 지역문제 해결과 다문화 등의 생활 속 이슈와 관련된 참여형 토론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생활밀착형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시민교육 전용 교재를 개발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추진하였다.



【함께하는 남도학 운영】



【광양녹색연합 시민교육 운영】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이론 위주의 지역학 중심 교육으로 단순함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지역 문학 등 도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부교재를 개발하고, 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을 병행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김덕

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혁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도내 최고경영자, 기관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최신 경제·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4회(순천, 광양, 나주, 영암)에 걸쳐 총 398명이 참석하여 도내 기업인 및 기관 단체장 간 교류를 확대하여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트렌드 등과 관련한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다.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기존의 특강과 조찬을 겸한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식을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특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실시간 최대 300명 이상이 방송에 참여하는 등 양질의 강의를 전 도민에게 확대해 제공했다.

아울러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전남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전달하여 기업과 공공기관 간 소통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월 1회 또는 수시로 경제 동향을 '10분 브리핑' 형식이나 경제 필독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사후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 행사를 통해 기업인·기관단체장 간 기업 성과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지역의 혁신 글로벌 리더를 계속해서 양성할 계획이다.



【제1기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제2기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청소년지원팀장 허세웅, 담당자 박소영

다.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단체 간 소통 증진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라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과 2021년에 총 3회에 걸쳐 도내 사회단체, 마을기업, 여성단체 회원, 청년 리더 등 총 259명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각 사회단체 구성원의 맞춤형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운영했다.

앞으로는 지역공동체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혜자 중심으로 맞춤형 전문 강의를 확대 운영하고, 유관 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제1회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제2회 지역공동체 희망더하기】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청소년지원팀장 허세웅, 담당자 박소영

라.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도내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해보는 과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총 13개 분야에 45개 팀 182명을 선발해 청년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팀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공모전 입상, 웨딩·영정사진 봉사활동, 캐릭터 상품 제작을 통한 전시회 납품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다만, 기존의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내용이 유사해 2022년부터는 지역 대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도전과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천함으로써 미래인재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교육지원팀장 김재근, 담당자 서장원**

3-5. 평생교육 기반 확대

가. 평생교육 추진역량 강화

전남도는'평생학습을 통해 도민의 삶이 성장하는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교육에 소외된 농어촌 등 38개소를 대상으로 '배움행복 마을학교'사업을 지원하여 자립적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배움 학습동아리'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자발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앞장섰다.

특히, 2019년부터'동네방네 배움틈' 사업을 통해 3년간 150여 개소를 발굴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들의 학습공간으로 공유하고 활용해 일상 속 틈새 학습과 근거리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100세 시대 전문화된 기술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도민의 고용 가능성 증대와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전남 행복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20여 명의 도민이 바리스타 등 전문 자격증 과정 등을 이수하고, 2018년에는 인생 이모작 지원 프로그램 5개 과정을 운영하여 100여 명이 새로운 인생을 위한 재취업 과정에 참여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30여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신중년 세대들의 자립적 경제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기술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시군 평생학습 추진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평생교육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군에 37개의 지역별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순천에 유치하여 전남의 우수한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대외적으로 홍보했다.

도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 도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중추적인 역할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해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도민에게 행복과 활력을 전달하는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교육지원팀장 정무혁, 담당자 김덕

나. 평생교육 소외계층 지원

교육에 대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비문해 인구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전라남도 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되어 도민의 문해력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매년 문해의 달 행사와 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여 비문해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자긍심을 고취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문해 학습자의 학습 이해도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해'전남형 문해교육 부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대면 학습이 어려운 도민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했다.

2021년에는 문해교육 학습자를 위한'남도 문해UP'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하여 비문해 도민들의 문해교육 참여 기반을 확대했다. 도내 문해 학습자 380여 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생활문해교실'을 운영해 글자 해득 교육을 넘어 경제 등 기초 생활능력 교육을 제공하여 문해 학습자들의 이해의 폭을 확대했다. 또한 문해교사 전문교육을 통해 4년간 190여 명의 초·중등 과정 문해교사를 양성했다.

한편, 장애인의 평생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지원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일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은 각 시·군 마다 최소 1개소 운영을 목표로 2020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3개소, 2022년에는 5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년간 4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잠재력 발굴과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 참여를 유도했다.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윤재광, 인재육성팀장 정무혁, 담당자 김덕, 국현채

3-6. 청소년 활동 기반 확대

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전남도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을 지역 간에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9개소, 숙박이 가능하고 생활관이 함께 있어 자연과 더불어 단체수련 활동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원 13개소,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간단한 수련 활동이 가능한 청소년문화의집 23개소,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수련 활동이 가능한 청소년야영장 5개소 및 유스호스텔 8개소를 포함해 총 5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3개 시설에 202억 3,800만 원을 투입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공간의 기능을 보강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계	23	20,238	4	7,051	8	5,588	11	7,599
시설확충	10	12,006	2	4,751	4	3,000	4	4,255
기능보강	13	8,232	2	2,300	4	2,588	7	3,344

도는 2022년에도 87억 2,100백만 원을 투입해 청소년수련시설 7개소를 확충하고, 4개소 시설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청소년지원팀장 허세웅, 담당자 이경훈

나. 학교 밖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보호, 교육, 의료 등 맞춤형 학업 복귀와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와 22개 시군에서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2,115명을 지원했다.

【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현황 】

(단위: 명)

연 도	인 원			
	소계	학교복귀	검정고시	자격취득, 취업 등
계	2,115	296	1,343	476
2021년	843	151	423	269
2020년	699	131	400	168
2019년	573	14	520	39

아울러 2015년부터 제도권의 초·중학교 무상급식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적 차별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2020년도에 378명, 2021년도에 439명의 미인가대안교육시설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다. 2022년도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청소년지원팀장 허세웅, 담당자 안선영

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

도는 2018년부터 매년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20만여 건을제공했다. 이를 위해 도와 22개 시·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CYS-Net)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출·성매매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료·법률서비스와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지역 필수 연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소 운영 등을 추진했다.

도는 청소년 안전망 운영으로 지역단위 컨트롤 타워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다수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도 CYS-Net이 중심이 되어 사각지대 없는 위기 청소년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실적】

(단위: 명)

구분	합계	개인 상담	사업수행 프로그램	전화상담	심리검사	그룹지원 서비스	기타
2021	213,328	28,306	1,506	25,403	2,894	41,195	114,024
2020	163,111	22,618	899	22,515	1,896	23,882	91,301
2019	232,435	37,810	1,215	23,518	2,864	46,009	121,019
2018	212,993	37,064	807	23,164	2,242	34,437	115,279

* CYS-Net : Communift Youth Safety-Net
* 기타(사이버상담, 집단프로그램, 집단심리검사 등)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청소년지원팀장 허세웅, 담당자 박소영

3-7. 특성화된 명문 도립대학 실현

전남도립대학교는 대학의 주축인 학생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여기는 대학으로서 창의적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고, 도정 방침에 부응하는 학과를 개설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남권 평생직업교육 거점대학으로서 전남의 시·군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호남권 전문대학 중 처음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학 일자리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산업현장 수요 및 직무에 기반한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기능적 일원화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와 전남테크노파크 공동주관으로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난 극복을 위해 지역 강소기업 20개 업체가 참여한 '미니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급변하는 취업시장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전남도의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지역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2학년부터 지역 제한 없이 모든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으로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전남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추진부서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윤영주, 관리팀장 채은정, 담당자 박건송

4. 으뜸 전남을 공감하는 도정 홍보

4-1. 수요자 맞춤형 도정 홍보

가. 홍보 매체별 도정 홍보

전남도는 민선 7기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방송, 신문, 옥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의 비전과 성과를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홍보하고 있다.

전남의 이미지 제고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시기에 맞는 홍보 주제를 선정했으며, 매체별 특성과 홍보대상을 고려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광고를 추진했다.

또한, 복지 및 일자리 정책, 인재육성, 출산 장려 등 도민 체감형 행복시책을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예방 및 극복 캠페인(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관리에 주력했다.

지역 지상파 방송인 광주 KBS, 광주·목포·여수MBC, KBC와 지역 라디오 방송인 광주CBS, 전남CBS, 광주CPBC, 광주BBS 등을 활용, '블루이코노미', '전남형 뉴딜 및 상생일자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민선 7기 역점시책 홍보 캠페인도 적극 추진했다.

전국단위 매체인 YTN, 연합뉴스 등을 통해 전남의 비교우위 자산인 농수산물과 관광을 홍보했고, 청정지역 이미지를 활용하여 투자유치와 귀농어촌 정책 등을 알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전국·지역 일간신문과 주간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는 분야별 도정 홍보와 함께 '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등의 행사도 적기에 홍보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과 역, 도심의 전광판에는 남도 장터, 관광 콘텐츠, 투자유치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일상에서 쉽게 도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전남도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다.

추진부서 대변인 최영주, 홍보기획팀장 박희경, 담당자 신성윤

나. 도민 명예기자단 운영

전남도는 도민의 도정 참여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민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명예기자는 도정 소식지인 「전남새뜸」에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 여론, 지역 및 향우 소식, 기관단체 동정, 미담사례, 도내 숨은 관광자원 등을 취재해 투고하는 등 도민과 도정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2000년 주부명예기자로 시작해 2011년 향우명예기자 영입으로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전국 16개 시·도에서 129명이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 주요업무 보고서, 뉴스레터 등 도정 관련 각종 소식을 도민명예기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정 홍보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도정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도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정 홍보 및 취재 활동 등 명예기자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농번기 농촌봉사활동, 온정나눔 바자회, 각종 재난 시 피해자 위문 등 다양한 봉사와 사랑 나눔을 통해 지역 구석구석에 도정을 홍보하는 메신저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추진부서 대변인 최영주, 홍보기획팀장 박희경, 담당자 김현지

다. 도정 소식지(전남새뜸) 발행

전남새뜸은 다양한 도정 정책과 지역 소식을 전하는 도정 소식지로써 월 2회, 매회 6만부를 발행한다.

마을회관, 경로당,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전·현직 의원(국회, 광역, 기초), 기업인,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학계, 종교·복지단체, 타 시·도 및 해외 향우회 등에 배포하여 홍보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전남도는 지역 언론과의 차별화된 도정 홍보 영역 구축을 위해 문화면을 보강하고, 도정 뉴스 지면을 강화하여 전남새뜸 발행 방식을 개선했다. 도정 Q&A, 그래픽 뉴스 강화 등 형식을 다양화시켜 독자의 시선을 집중하고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지면으로 발행되는 도정소식지는 고령층이 많은 전남도의 특성 상 온라인 정보 접근성이 낮은 도민과의 소통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지면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1997년부터 발행된 도정소식지를 디지털화하여 도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게 했다.

앞으로도 도정 홍보와 도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대변인 최영주, 홍보기획팀장 박희경, 담당자 김현지

4-2. 신속한 언론 대응 시스템 강화

가. 도정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 지원

전남도는 민선 7기 도정의 비전과 철학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해 신문, 방송,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정을 적극 홍보했다.

조선일보, 광주일보, 목포투데이 등 전국·지역 일간신문과 주간신문, 잡지, 지역 신문 등을 통해서도 도정 역점시책을 구독자들에게 널리 홍보했다.

또한, 목포·여수MBC, 광주·전남CBS 등 9개 라디오 방송에 도정홍보 고정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간 단위로 도정 주요 현안사업과 새로운 제도 등을 내부 전문가가 대담 형식으로 홍보해 도민들이 생생한 도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확하고 현장감 있는 취재지원을 위해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수시로 열어 언론과의 교감을 확대하고 생동감 있는 현장 취재지원을 통해 도정 역점 사업을 홍보하는 등 소통 강화에 힘썼다.

특히, 2019년부터 추진한 도민 행복시책의 혜택을 다양한 홍보 매체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진부서 대변인 최영주, 홍보지원팀장 강경문, 담당자 김지인

나.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주요도정 및 시책추진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등 언론사의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 신속 대응하는 등 도정 신뢰도 향상과 이미지 제고에 앞장섰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도정 홍보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1일 10건 내외의 주요 도정 소식을 신문·방송·통신사 등 300여 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했다.

아울러, 실·국 현안 사업에 대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했다.

추진부서 대변인 최영주, 보도지원팀장 방준환, 담당자 장종대, 강형구

4-3.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영상 홍보

가. 영상 보도자료 제공

전남도는 역동적인 현장 영상·사진을 신문·방송·통신 등 다양한 매체에 일평균 3건 이상을 적기 제공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정 주요 시책 홍보를 추진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도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정뉴스를 제작했으며 '전남 행복시대' 보도사진 전시회로 언론과 도민의 소통 기회를 마련했다.

주요 정책과 시책,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명소 등을 주 1회 도정뉴스로 자체 제작해 도청 디지털홍보시스템, 시·군청, 전남개발공사, 지역 케이블TV 방송에 주 30회 송출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인 광주MBC, 목포MBC, 여수MBC, KBC 광주방송에 현장의 생생한 영상을 신속하게 제공해 민선 7기 도정 역점시책 홍보에 힘썼다.

인터넷방송 '전남TV' 누리집에서는 전남소식(도정 주간뉴스, 기획취재뉴스 등), 영상홍보관(아름다운 영상, 도정홍보CF 등), 공모전 한마당(보물찾기영상공모전, 디지털사진공전) 등 4개 분야, 18개 항목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했다.

]

특히, 2021년에는 주요도정 행사 사진 2천 997장을 전국 주요 일간지, 통신, 인터넷 매체 등에 제공하고, 도 정책·행사 영상 642개, 사진 2천 997개 파일을 방송사에 제공해 송출되도록 했다.

전남의 역사와 행정 기록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도정자료 DB 구축사업을 추진해 전남 사진영상기록원을 운영하고 도민의 정보 접근 이용 편의를 위해 전남사진영상기록원 모바일웹도 개발했다.

추진부서 ○ **대변인 최영주, 영상홍보팀장 박용식, 담당자 정성빈, 임세미**

나. 도민 참여형 영상 콘텐츠 제작

전남도는 전라남도 디지털 사진 공모전,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 도정뉴스 등 도민참여형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전라남도 디지털 사진공모전은 매력있는 전남의 자연경관과 친환경 자산을 발굴하고 브랜드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공모를 통해 8천 225점이 응모, 총 487점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명 관광지, 시책 사진 입상작은 국내·외 관광객을 전남도에 유치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전남의 아름다움을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는 200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798편이 접수돼 152편이 선정됐다.

휴대폰, 캠코더, 카메라, 드론 등을 이용해 촬영·제작된 영상자료(1분 30초~4분)은 도정뉴스, 지역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되고 있다.

입상작은 도 누리집,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방송 전남TV, 공중파 TV, 케이블 TV 등 언론사 보도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방송 전남TV(www.jntv.go.kr)는 전남의 도서·산간 오지 등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주민에게 무료학습강좌를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도 열어주고 있다.

특히 '청년이 꿈꾸는 전남'을 설계하고 청년에게 우리 도의 청년 시책과 청년 활동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알리기 위해 '슬기로운 청년생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월 1회 3분 내·외의 분량으로 도 주관 시책과 22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을 종합홍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추진부서 대변인 최영주, 영상홍보팀장 박용식, 담당자 정성빈, 임세미

4-4.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홍보

가. 전라남도 소셜미디어 운영

전남도는 IT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기기 보급 확산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홍보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형 홍보를 위해 2010년 블로그와 트위터, 2012년 페이스북, 2014년 유튜브, 2015년 카카오스토리, 2017년 인스타그램, 2019년 포스트를 개설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매체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뉴미디어팀을 신설하고 2020년 5월 유튜브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유튜브를 통한 도정 홍보콘텐츠 제작 및 도정 홍보를 본격 전개했다.

그 결과 유튜브 콘텐츠 누적 조회수와 구독자가 2020년 대비 각각 67%, 172% 성장하는 등 쌍방향 소통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맞춤형 복지정책', '살기 좋은 전남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했으며, 화순국제백신포럼, 국제농업박람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 홍보도 강화했다.

아울러, SNS 각 매체 특성을 고려한 주요 도정소식, 축제 및 행사, 관광명소 등을 분류하여 적기에 안내했고, 알려지지 않은 전남의 볼거리, 먹을거리,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와함께 기상, 재난, 안전, 건강, 계절정보 등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맞춤형 홍보도 병행했다.

특히, 유튜브 크리에이터(2020), SNS 서포터즈(2014~)를 운영하여 도내 명소탐방, 행사참여, 실시간 리포트, 미담사례 등 도정 주요 정책 현장을 생동감 있게 취재해 전남의 일상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

앞으로 웹툰, 인포그래픽, 영상 등 시각적 전달력이 높은 홍보자료를 보강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SNS 서포터즈 등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민 생활에 유용하고 재미있는 전남의 소식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대변인 최영주, 뉴미디어팀장 고황석, 담당자 박병철**

나.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운영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http:www.jeonnam.go.kr)은 1997년 10월에 개설했으며, 그동안 정보 기술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총 4회 개편했다.

2015년 10월 컴퓨터와 휴대전화,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접속기기와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 누리집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후장비와 시스템을 교체했다.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실과별로 자료 관리자를 지정해 10개 분야, 1,345개의 콘텐츠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누리집 회원은 30,658명으로 1일 평균 19,575명이 접속하여 도정소식을 접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누리집은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 및 모든 누리집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했으며, 다양한 모바일기기를 지원하는 최적화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신속·정확한 코로나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별도 누리집을 구축하여 확진자 현황 및 각종 도민 지원대책,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등을 상세히 제공했다.

누리집에 '이순신의 7년', '전남 역사이야기' 등 총 5편의 자료를 연재해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남도의 정서를 반영한 연재자료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누리집 내용 중 유익한 정보를「전라남도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매주 누리집 회원 및 수신희망자 약 23천명에게 제공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구현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누리집 개편과 전산장비 교체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대변인 최영주, 뉴미디어팀장 고황석, 담당자 홍경숙

5. 청렴 전남 실현

5-1.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전라남도는 도민이 행복한 '청렴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은 ▲청렴 체감수준 향상, ▲청렴 공감대 확산,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반부패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상생 협력 등 4개 분야에서, 30여 개 세부과제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2등급을 달성한 이래, 외부청렴도에서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과 부패 척결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시책과 내부 소통·공감 강화로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청렴윤리팀장 이정준, 담당자 이승진

나.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전라남도는 도민이 행복한 청렴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해 내실 있는 반부패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수기관으로 3회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21년에는 3개 분야 2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반부패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새로이 공직사회에 도입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하여

공공재정 환수제도,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였다.

또한 시·군 및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시책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반부패 정책이 사각지대 없이 도내 전 공공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힘을 모았다.

전라남도는 2022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중단없는 반부패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청렴윤리팀장 이정준, 담당자 박종원

다. 청렴문화 확산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전라남도는 투명하고 청렴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범도민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8년 10월 「전라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민간 부문의 부패방지 대책 등에 대한 도민과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공공 6개, 민간부문 17개 등 23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청렴실천협약을 맺고, 1기관 1실천 과제와 공동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운동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28개 기관·단체가 모인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매년 '빛가람 청렴문화제'를 개최하여 지역 청렴거버넌스의 모델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도 2021년 9월 '제7회 빛가람 청렴 문화제'를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문화제로 개최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자율과 협력이라는 기조로 관내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실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청렴윤리팀장 이정준, 담당자 박상구

5-2.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는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및 타 법령 위반사항 등을 밝혀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해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재산등록 심사대상은 지자체장, 지방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세무·감사 등 특정분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소방공무원 등이다.

2021년도에는 1,400여 명의 재산을 엄격히 심사하였으며, 재산공개 대상자 327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전라남도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청렴지원팀장 이정준, 담당자 장석규

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정한 유착 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2021년도에 총 15명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www.jeonnam.go.kr)에 공개하였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청렴지원팀장 이정준, 담당자 장석규

5-3. 도정을 뒷받침하는 감사행정

가. 시군 종합감사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위임사무와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시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은 보성군, 구례군, 곡성군, 고흥군, 광양시, 영광군 순으로 6개 시·군에 대하여, 2020년은 해남군, 화순군, 여수시, 강진군, 담양군, 순천시, 목포시, 장성군 순으로 8개 시·군에 대하여, 2021년은 함평군, 진도군, 장흥군, 완도군, 영암군, 무안군, 나주시, 신안군 순으로 시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8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37,255백만원에 대한 재정상 처분을 요구하는 등 2,125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를 조치하였다.

【 시군 종합감사 처분 실적(2019~2021년) 】

구 분	대상 기관	처분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명)				재정상 처분(백만원)			
			계	징계	고발	훈계	계	추징	감액	회수등
계	22	2,125	780	44	-	736	37,255	7,296	6,067	23,892
2019	6	609	244	14	-	230	6,917	1,279	1,945	3,693
2020	8	961	302	15	-	287	16,121	4,508	2,318	9,295
2021	8	555	234	15	-	219	14,217	1,509	1,804	10,904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시군감사팀장 강미선, 담당자 최일범

나. 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전라남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3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397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하였고, 60명에게 징계·훈계 등 신분상 조치와 13억원을 추징·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통해 도정에 누수가 없도록 자정역할을 해왔다.

한편 2022년부터는 종합감사 실시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감사의 질 향상 및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 종합감사 추진 실적(2019~2021년) 】

구 분	대상 기관	처분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명)				재정상(백만원)			
			계	징계	고발	훈계	계	추징	감액	회수등
계	33	397	60	14	0	46	1,363	0	640	723
2021	13	137	31	8	-	23	836	-	640	196
2020	9	94	9	2	-	7	436	-	-	436
2019	11	166	20	4	-	16	91	-	-	91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자체감사팀장 박성열, 담당자 정형태

다. 특정감사

1) 「빈집 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6개월간 「빈집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를 추진하여 도내 빈집의 실태와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내 빈집 실태 파악을 위해 시·군에서 1·2차 빈집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 감사관실에서는 7개 반 14인의 감사인이 2회에 걸쳐 마을단위 표본지역을 선정하여 검증하였고,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토연구원, 한국농촌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감사성과를 제고하였다.

【 빈집 유형별/ 소유자 동의 유무별 현황 】

빈집총계 (호)	철 거 형				활 용 형			
	소 계	철거 동의	철거 부동의	확인 불가	소 계	활용 동의	활용 부동의	확인 불가
19,727 (100%)	11,003 (55.8%)	2,303 (11.7%)	7,104 (36.0%)	1,596 (8.1%)	8,724 (44.2%)	531 (2.7%)	6,001 (30.4%)	2,192 (11.1%)

※ 빈집 총계 19,727호 중 슬레이트(석면 성분) 구조 빈집은 9,032(45.8%)호로 확인

감사 결과를 보면,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라남도 내 빈집은 총 1만 9,727호가 존재하고, 이 중 철거형은 1만 1,003호, 활용형은 8,724호로 조사되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빈집 관련 「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 미수립 및 조례 정비 소홀, 형식적인 빈집 실태조사 추진, 적극적인 빈집 활용방안 모색 소홀, 슬레이트 구조 빈집 정비에 소극적 대처, 빈집 정비 관련 예산 및 인력 등 확보 노력 부족 등이 시·군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전라남도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빈집정비를 위한 인프라(조직, 예산, 인력 등)를 구축하는 방안,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빈집

플랫폼(빈집은행)을 구축하는 방안, 빈집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빈집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 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도내 빈집의 정확한 실태와 활용방안에 초점을 둔 이번 감사를 통해 빈집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 감사결과를 시·군 및 본청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향후 빈집정책 추진에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정책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감사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분석형'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현안을 적시성 있게 해결함으로써 도민과 지역에 힘이 되는 감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자체감사팀장 박성열, 담당자 정형태

2) 전라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조사

전라남도는 도민의 공직자에 대한 토지투기 우려 해소와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도·시군 공직자 등 토지투기 의혹에 대한 선제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72명으로 구성한 「전라남도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을 운영하여 공직자와 공사 임직원 등 총 21,763명을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도내 40개 개발지구의 토지 취득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전라남도 공직자 투기 조사 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취득자에 대해 2021년 6월 「전라남도 토지 투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투기 의심 대상 3건(5명, 9필지)에 대해 수사 의뢰 대상으로 최종 확정 후 수사의뢰 하였다.

앞으로도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공직자 등의 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공직조사팀장 윤두환, 담당자 전수현

3)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

그동안 매년 증가하는 보조금 규모에 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2019년부터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분야 특정감사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6회 진행하여 행정상 91건, 재정상 23억원을 조치하였다.

감사결과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후관리 소홀, 정산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담당공무원의 보조사업 업무추진 시 누수를 예방하고자 보조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와 감사지적 사례를 정리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활동과 더불어 보조사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최근 3년간('19.1.~'21.12.) 보조금 특정감사 실시 현황 】

연도	감사명	처분 건수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건)					회수액
			계	시정	주의	통보 등	계	경고		징계		
								주의	훈계	경	중	
합계		103	91	24	56	11	12 (2기관)	0	12 (2기관)	0	0	2,317
2019	자활사업, 가축분뇨 처리	51	50	10	40		1 (1명)		1 (1명)			120
2020	천일염, 농업법인, 지방투자촉진	20	14	6	8		6 (1기관)		6 (1기관)			2,192
2021	사회복지시설	32	27	8	8	11	5 (7명)		5 (7명)			5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보조금감사팀장 양완길, 담당자 이해경, 박주남, 최용준

5-4. 적극행정 지원

가. 사전 컨설팅감사

전라남도는 사후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도 본청·소속기관·출자기관·출연기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380건을 처리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했다.

【 사전 컨설팅감사 연도별 실적(2018년~2021년) 】

합계(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80	83	118	93	86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 사전 컨설팅감사 연도별 수상 실적 】

사전 컨설팅감사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2018년~2021년 기관 표창)			
우수 기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라남도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 종합감사 기간에 대상기관 현장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홍보하고 적극행정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이해하고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에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컨설팅감사팀장 정부경, 담당자 안춘선**

나. 적극행정 면책

전라남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긴 부분적인 실수 등에 대한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건을 처리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를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했다.

【 적극행정 면책 연도별 실적(2018년~2021년) 】

합계(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5	3	6	8	8

특히 2021년에는 감사 부담 경감을 위해 감사 현장에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면책심의회도 운영했다(장흥군 현장면책 1건).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컨설팅감사팀장 정부경, 담당자 안춘선

다. 찾아가는 컨설팅

1)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전라남도는 2019년부터 청렴도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건설현장 컨설팅은 도 발주 2천만원 이상 진행중인 공사 및 용역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사관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2019년 274건, 2020년 213건,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89건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관급자재 적기공급, 예상치 못한 장애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애로·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컨설팅이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게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부패행위 근절,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기술감사팀장 김광호, 담당자 정문호

2) 찾아가는 민간보조사업 현장컨설팅

전라남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보조사업의 효과성 창출을 위해 국·도비 사업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2020년부터 시행하였다.

2020년 76개, 2021년 77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두 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사전 검토, 보조금 교부결정, 집행관리, 정산보고 등에 대한 추진단계별 유의사항 안내 및 현장의견 청취 등 사업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및 교육 관련 보조사업이 대부분 취소되는 가운데, 보조단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 요청이 많아 사업부서의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업비 정산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전라남도는 컨설팅을 통해 그동안 보조금 분야의 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목적 외 사용,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회계절차 위반 등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사업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서별 상담사례를 적극 홍보해 사후 지적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중심의 지도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보조금감사팀장 양완길, 담당자 이해경

5-5. 공직기강 확립 및 도민고충 처리

가. 공직감찰 및 소극행정 점검

전라남도는 명절 전·후, 연말연시, 선거기간, 휴가철 등 상대적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6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여 주의·시정 등 행정조치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35명(징계 11명, 훈계 24명)을 문책 요구했다.

특히 공직자 음주운전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음주운전 근절 홍보 등의 노력으로 음주운전 적발자가 2020년 5명, 2021년 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행정 및 책임있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극행정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여 주의·시정 등 행정조치와 16억 원을 부과·회수하는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21명(징계 2명, 훈계 19명)을 문책 요구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집중감찰 및 소극행정 점검 등을 강화하여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공직조사팀장 윤두환, 담당자 전수현, 곽지애, 김영랑

나.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

전라남도는 감사관실 내 공직조사팀에서 도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시·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여 억울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충민원 접수현황은 2019년 445건, 2020년 758건, 2021년 773건으로 이중 도에서 직접 처리한 비율은 2019년 91%, 2020년 86.5%, 2021년 90.4%로 나타났으며, 도에 직접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충민원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원회를 통해 2020년에 2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등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사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청렴지원관 김병중, 공직조사팀장 윤두환, 담당자 김정윤, 이승홍

6.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

6-1. 창의적·전문적인 행정조직체계 구축

가. 함께, 즐겁게 일하는 일터 조성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관료제 특유의 경직된 조직분위기를 깨고, 수평적이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로의 변화가 시작됐다. 도지사가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간식을 부탁해', 불특정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소통하는 '두근두근 점심'이 직급간의 벽을 허물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8%의 직원이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한다'라고 응답했다.

2018년 10월에는 『전라남도 즐거운 직장 만들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전 직원의 동참 아래 실행됐다. 효율적인 업무 방식으로의 혁신을 통해 워라밸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다.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줄고 연가 사용 일수는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가정의 날인 매주 수요일, 간부공무원이 음악을 들려주는 「즐거운 직장 DJ」와 맞춤형 회의실과 편의공간 조성은 더욱 직장 생활을 흥겹고 편리하게 해주었다는 평을 얻었다.

2020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는 공직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과중해진 업무와 책임에 지쳐가는 직원들을 위해 '깜짝 격려품', '생일 축하한 Day', 격무직원 포상휴가 등을 마련했고, 이 아이디어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직원 사기를 높이고 직장을 보다 따뜻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뒀다.

2021년부터는 신·구세대 간 갈등, 낡은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데 집중했다.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고 보고체계를 단순화하며,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등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확실히 노는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들었다.

민선7기 내내 사람과 상황에 맞는 '직장문화 혁신운동'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도민 행복과 전남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추진부서 **총무과장 강종철, 총무팀장 고민정, 담당자 곽지수, 김은진**

나. 공직자 역량 강화

민선7기 도정철학인「생명의 땅 으뜸전남, 전남 행복시대」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다양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전라남도 5개년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 매년초에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세우고, 세부추진과제를 실천하여 공직자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함께 강화해 왔다.

【 교육훈련 운영실적(2018~2021년) 】

구 분	집합과정	사이버교육
2018년	37개과정, 6,395명	131개과정, 19,961명
2019년	259개과정, 6,955명	870개과정, 24,275명
2020년	181개과정, 4,605명	1,344개과정, 104,320명
2021년	337개과정, 5,851명	1,549개과정, 71,708명

1) 국·도정 성과창출 성공적 지원

국·도정 과제 및 공직가치가 행정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강의, 워크숍, 체험학습,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신규자, 6급 장기교육과정 등은 총 교육시간의 30% 이상을 공직가치와 국·도정 과제 관련 내용으로 편성·교육하였다.

우선,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추진을 통한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블루 이코노미 교육을 강화했고, 블루자원에 대한 홍보 활성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현장학습을 보강하였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와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할 혁신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했고, 빅데이터, 감염병 관리, 공유경제 등을 장기·기본교육에 의무 편성하였다.

아울러, 도민에 대한 섬김과 봉사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체험, 소외계층 대상 봉사활동 등 도민 중심의 현장체험 학습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블루 이코노미, 저출산·고령화 해법, 일자리 창출, 감염병 예방관리 등 도 현안 해결을 위한 혁신 주도 전문가 양성 및 주요시책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공·민간연구기관과 교류 활성화 분야, 신규자 역량교육 실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20년도 행정안전부 공무원 교육훈련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중앙부처 장기교육 인원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2)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전남도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해 5개 분야 32개 과정 등 의무이수과정을 지정하여 운영해 왔다.

【 의무과정 지정 현황 】

구 분	과 정 명
법 률 분 야 (1)	행정법과 법제실무
기획 · 홍보분야 (3)	기획보고서 작성, 소셜미디어 활용, 유튜브 활용 홍보
직무일반분야(16)	공직자를 위한 청렴,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예산회계실무, 엑셀활용, 파워포인트 활용,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권감수성 향상, 맞춤형 복지행정, 지방세 실무, 설득력 있는 스피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부혁신의 이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감염병 이해 및 예방,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리 더 십 분 야 (3)	리더십 향상, 역량개발(7급 이상), 역량강화실무(6급)
기 타 분 야 (9)	5급 승진리더과정, 신규 임용자 기본교육, 숲속의 치유(재난 · AI · 민원 · 복지), 재난안전(재난담당), 블루이코노미 협업(7개 과정 -에너지, 투어, 바이오, 트랜스포트, 농업, 수산, 시티), 블루자원 바로알기, 미래인재양성과정(6급), 전남 · 경북교류(경북인재원), 전남 · 광주 문화교류(광주인재원)

더불어, 개인 연구 · 학습, 워크숍 참여,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인정했고,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정책 관련 연구모임 지원 및 신생 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적극 독려하였다.

5급 이상 관리자의 직무능력과 전략적 사고,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역량교육 및 평가제도를 도입 · 운영해 오고 있다. 3 · 4급 승진후보자에게는 4대기법을 역량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5급 승진후보자에게 4대기법, 행정법, 보고서 등을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5급 이상 간부후보자 역량교육.평가 운영현황(2018~2021년) 】

평가과정	시행	인사 반영	평가 인원	교육기관	평가방법
3급 후보자	'17. 7월	'19. 1월	75명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4대기법*으로 평가 * 서류함, 역할수행, 집단토론, 구두발표
4급 부단체장 후보자		'19. 7월			
4급 후보자	'18. 1월	'20. 1월	115명		
5급 후보자	'16. 4월	'17. 4월	467명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

신규 공직자들의 공직 조기 적응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임용 전 기본교육을 실시 확행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바람직한 공직관과 기초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 MZ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참여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였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창업 관련 사전 준비 등 은퇴 설계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행복한 미래설계, 제2의 인생설계 등의 과정 등을 실시했다.

특히, 도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현안에 대해 강의를 청취하는 전남포럼을 매년 10회 내외로 개최하였다.

【 전남포럼 운영실적(2018~2021년) 】

구 분	횟수	참석인원	주요강사
2018년	9회	5,540명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이종석 통일부 전 장관 등
2019년	10회	9,096명	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
2020년	3회	3,673명	김민배 TV조선 대표,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 등
2021년	9회	10,386명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원국 작가 등

아울러, 흥미와 역량을 함께 높이는 자율 독서교실과 전화외국어 등을 운영하였고, 전문지식 학습으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 역량강화 교육훈련 운영실적(2018~2021년) 】

구 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자율독서교실	전화외국어
2018년	27명	5,000명	407명
2019년	14명	4,811명	409명
2020년	20명	3,750명	305명
2021년	26명	4,120명	214명

추진부서 **총무과장 강종철, 직무역량팀장 최동훈, 담당자 박의호, 김민호**

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1)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일과 성과, 배려가 어우러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승진임용', '업무안정 및 조직활력이 어우러진 전보',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한 보직관리 강화',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하였다.

우선, 일한만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우수자 선발제도와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성적평정체계 확립을 위해 실국장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해 평정순위를 결정하는 등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평가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직원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소통하는 인사를 위해 인사정보 공개, 인사시기 사전 예고,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공개, 수시인사 확대, 인사고충 상담시스템 운영, 승진전보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민선7기'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인구 변화 등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우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정기 및 수시인사 시 승진인사에 따른 인사기준과 원칙을 사전에 공개하여 예측할 수 있는 인사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개인의 업무추진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후순위자 중 근무성적

우수자를 발탁하여 승진하였다. 또한 정기인사 외 수시인사를 확대하여 하위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소속감을 고취시켰다.

전보인사는 업무안정성 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고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임자를 배치하면서, 부서와 개인의 고충을 반영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교육훈련 이수자,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관련분야에 보임하는 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부서와 부서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신청받아 희망 전보를 적극 반영하여 소통하는 인사문화를 조성하였다.

이외에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인사 실시, 금품수수·성폭력·음주운전 등 5대 비위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여 신상필벌 원칙을 준수하였다.

3)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중앙의 정책 역량과 지방의 현장 경험을 접목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도정 주요현안과 직결되는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계획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우리도 공무원 50명을 중앙부처에 파견하여 업무추진 인적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대상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시 교류가산점 부여, 승진인사 시 교류경력자 우대,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류 수당,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보조비 등 경제적인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4)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제 운영

업무 전문성 및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직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관, 국제협력관, 도립미술관장 등 10개)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하고 한국은행 등 민간전문가들을 파견받아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도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도정 주요 시책의 지속 추진 및 공무원 순환보직제 보완을 위해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전문직위를 지정(25개)하여 운영하였으며, 해당 직위의 우수한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인력을 내부공모를 통해 전문관으로 선발하였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관 수당 지급, 근무성적평정 시 종전 근무평정 이상을 보장하고 성과급 지급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근무평정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전문직위제 지정을 확대 운영하여 도정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5) 다양한 인사고충 상담시스템 운영

인사에도 소통이 필요하다는 도지사의 인사철학에 따라 인사고충의 선제적 해결과 소통·배려의 공감형 인사운영을 위해 다양한 인사고충 상담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노출로 대면상담에 부담을 갖는 직원들을 위해 온라인 맞춤형 인사고충시스템을 운영(2021년 157명)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과 별도로 오프라인 인사사랑방도 운영(2021년 160명)해 직원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승진, 전보 등의 인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다. 또한,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노조와 함께 찾아가는 현장 인사간담회도 연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여 인사 만족도를 제고해왔다.

6) 온정과 배려의 맞춤형 휴.복직제도 운영

휴직자의 업무 공백 및 동료의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휴직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 결원을 즉시 보충(대체인력 배치)하고 있으며, 육아 휴직자의 장기간 휴직으로 업무 복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직자 희망보직제를 운영하는 등 온정과 배려의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추진부서 **총무과장 강종철, 인사팀장 김현미, 담당자 권재철, 김성철**

라. 체계적인 행정 기록물 관리

도정기록물은 도정의 변천사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 자산으로,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각 실과소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관리, 업무활용이 종료된 기록물의 이관관리,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평가관리 체계를 확립,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추진하였다.

2019년 7월에는 기록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도민행복소통실 기록관리팀이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록관리팀으로 개편되어 전문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증설하여 보존공간을 확대하였고 전문인력 1명을 추가배치 하였다.

특히 기록관리 환경이 보존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록물관리 대상을 공문서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행정박물로 확대하여 역사적·행정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가진 선물류, 현판, 기를 비롯하여 단체장이 임기 중 사용한 사무집기류 등 총 379점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전라남도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기록하고 기억하게 될 전라남도 기록원을 설립하여 전라남도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통합기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록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도민과 기록문화를 함께 향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예정이다.

【 기록관 비전자기록물 보존현황 】

(단위 : 권)

합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이하
135.501	31,299	45,127	24,118	18,496	16,461

【 기록관 행정박물 보존현황 】

(단위 : 점)

합계	관인류	견본류	상징류	기념류	상장 상패류	사무 집기류	선물류
379	73	1	37	127	80	3	58

추진부서 **총무과장 강종철, 기록관리팀장 윤창숙, 담당자 남인후**

마. 미래수요에 대응한 조직관리

1) 사무량 조사 및 조직진단

전남도는 국·도정 역점시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 특수시책으로 '사무량조사'를 도입해 매년 부서별·개인별 사무량 조사결과를 조직 및 인력운영에 활용해 왔다.

특히, 문서 생산량 중심의 정량평가는 실체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부터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정성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사무량조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사무량 조사결과의 완성도를 높였다.

객관성·정당성이 보장된 사무량 조사결과를 통해 민선7기 기간 동안 조직개편 및 인력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 기구 신설 및 조정

2018년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민선7기 도정 정책비전, 방향 등을 반영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도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문제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총괄 조정 역할을 기존 일자리정책실에서 일자리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였고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실업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도민 제일주의 등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인재육성과, 사회적경제과, 섬해양정책과 등을 신설하였다.

2019년 7월 조직개편은 민선7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개편 규모를 최소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역점시책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역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신산업 수도 구축을 위한 한전공대설립지원단을 신설하고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아열대작물 보급을 위해 식량원예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환경지도·단속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부지역본부에 환경관리과를 신설하여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위반업체 조사 업무 기능을 보강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

2020년 조직개편에서는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 본격 추진과 도정 현안사업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생산적인 조직운영 시스템을 확보하였다.

블루이코노미 구체화 및 도내 성과 확산을 위해 연구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고 신소재이차전지팀, 상생일자리팀, COP28유치팀, 수산정책팀 등을 신설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정부정책에 따른 감염병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한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인력을 확충하였다.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에는 일자리 및 경제부서 기능 조정을 통한 업무연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부서를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광역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2021년말에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무위원회 지원을 위해 여순사건지원단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하였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 정책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과 의회인사팀을 신설하고 상임위원회에 정책 전문인력을 배치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는 소방서 미설치지역인 곡성군과 구례군에 신규 설치하여 22개 시군에 모두 소방서가 설치되게 되었다. 민선7기 기간 중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도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8개시군(함평·장성·장흥·완도·진도·신안·곡성·구례) 소방서를 신설하여 소방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12실국 62과 252팀으로 개편되었고, 공무원 정원은 총 6,81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추진부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조직관리팀장 윤중권, 담당자 정오진**

6-2.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

가. 공직생애 주기별 맞춤형 직무교육 운영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재직-퇴직'의 공직 생애 주기별·직급별 맞춤형 과정을 운영해 왔다.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는 공직자로서 기본 가치관을 확립하고 직무 수행 기본지식 함양을 위한「신규 임용(후보)자 기본 교육」 과정을 운영해 공직윤리·청렴 등 공직관을 확립하고 예산·회계·행정실무·인사·민원 등 실무 지식을 습득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재직자 중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미래인재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중견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역량 및 국·도정 시책 교육, 리더십, 글로벌 역량, 인문학적 소양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5~9급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리더십, 스피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퇴직 전 공로연수 중인 공직자를 위해서는 「제2의 인생설계과정」을, 퇴직 10년 이내 공직자를 위해서는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을 운영하여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유지와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 인생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 공직생애 주기별 교육 연간 운영 현황 】

(단위 : 건)

과정명	대상	기간	인원	기수	주요 교육내용
신규임용(후보)자	신규임용(후보)자	3주	120~250	8	공직기본가치, 직무기본지식 등
미래인재양성	6급 공무원	6월	93	2	국·도정시책, 리더십,자기계발
행복한 미래설계	퇴직 10년 이내	5일	60	2	여가생활, 재무설계 등
제2의 인생설계	공로연수 대상자	10일	50	6	재취업·창업정보, 연금제도, 퇴직 후 자산관리 등

추진부서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유영수, 교육기획팀장 조기승, 담당자 김혜영

나. 블루이코노미 핵심 인재 양성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공유 및 확산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핵심 인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6대 블루 프로젝트별 중점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도정시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총괄 담당관 역할을 수행하고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지도교수로 선정하여 과정 코디네이터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회성 단기 교육이 아닌 10개월의 장기교육으로 과정별 도·시군 관련부서 담당자를 선발하여 일터에서 문제점 인식→집합교육을 통한 해결책 모색→현장적용의 선순환 교육을 운영하였다.

이는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일터 자기주도 선행학습90%(독서, 온라인 교육 등) 진행 후 월 2~3일 집합교육10% (전문가 특강, 토의, 현장견학 등) 실시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기주도 학습의 역전환 학습 개념을 반영한 사례이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과정별 탄력적 운영을 통해 블루수산 5차, 블루 투어·바이오·트랜스포트·농업·시티 각각 4차, 블루에너지 3차 운영으로 128명의 교육생이 함께 하였다.

【 블루이코노미 협업 과정별 교육 연간 운영 현황 】

(단위 : 건)

과정명	대상	기간	인원	차수	주요 교육내용
블루 에너지	도, 시·군 업무담당자	10개월	25	3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블루 투어	〃	〃	25	4	섬・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블루투어 활성화
블루 바이오	〃	〃	25	4	지역별 협업을 통한 바이오산업 고도화
블루 트랜스포트	〃	〃	25	4	미래형 자동차 및 드론산업 동향과 투자 유치
블루 농업	〃	〃	25	4	친환경농업의 융복합화
블루 수산	〃	〃	25	5	전남의 블루 수산 활성화 방안 마련
블루 시티	〃	〃	25	4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블루시티 사업 발굴

추진부서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유영수, 역량강화팀장 최강훈, 담당자 신진숙

다. 인재개발원 새 청사 개원

인재개발원은 1953년 광주 양림동에서'전남공무원훈련소'로 시작한 후 1962년'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농성동으로 이전하였으며, 1979년에 매곡동으로 이전한 후 2021년 3월까지 총 68년간 광주에 소재해 있다가 2021년 전남 강진에 새 청사를 건립하여 새롭게 출범하였다.

인재개발원 새 청사는 2018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전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2019년 1월에 착공한 후 2021년 3월에

준공하였다. 2021년 1월에는 신 청사 개원에 맞춰 기관 명칭을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전라남도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였다.

2021년 4월에 광주에서 강진 신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고 2021년 5월 28일에는 '새 시대 으뜸인재, 더 새로운 행복 전남'을 주제로 인재개발원 개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새 청사는 총사업비 478억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13,952㎡의 지상 3층 규모로 본관(업무시설), 인재관(교육시설), 행복관(숙소), 보람관(다목적실) 등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중심의 인재 양성을 위해 토론형, 참여형 교육이 가능한 10개 소형 강의실과 12개 분임실,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대형 강의실 3개, 300여명을 수용한 대강당 등 다양한 교육시설과 LED스크린과 전자칠판, 화상강의가 가능한 동작 관찰 카메라(PTZ카메라) 등 최첨단 교육장비를 갖췄다.

또한 교육생 편의를 위해 본관 1층에 커뮤니티스텝 휴게공간을 조성하였고, 전국 시·도 중에 처음으로 개발원 내 갤러리를 만들어 미술작품을 전시해 도민에게 개방하였다.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건립개요 】

○ 사업기간 : 2017 ~ 2021년
○ 위　　치 : 강진군 도암면 다산인재길 10(옛 다산수련원)
○ 사 업 비 : 478억 원(부지매입 59, 공사비 377, 교육장비 등 42)
○ 사업규모 : 부지 78,179㎡, 건축연면적 13,952㎡
- 교육시설 : 강의실, 세미나실, 대강당, 전산실, 도서실, 분임실 등
- 부대시설 : 생활관, 사무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등

추진부서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홍재열, 교육지원팀장 백종채, 담당자 임희성



04

부록

1. 김영록 도지사 취임사
2. 신년사(2019~2022년), 송년사(2018~2021년)
3. 주요 도정일지
4. 전라남도 행정구역 현황
5. 역대 도지사 명단
6. 역대 도의회 의장단 명단
7. 제11대 도의원 명단
8. 도 간부공무원 명단

1. 김영록 도지사 취임사

존경하는 전라남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38대 전라남도지사로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부족한 제게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한 자세로 전남발전과 도약, 도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와 소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전남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선배 지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전남을 발전시키라는 민심은 곧 도민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런 간절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남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전남 번영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전남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본에 문화와 학문을 전한 왕인박사에서부터 천 년 전 세계를 주름잡던 해상왕 장보고의 기상,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었다'는 이순신 장군의 충정,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5.18 광주민주항쟁까지 전남은 늘 역사의 등불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뒤에 처져 있고, 고령화 문제는 가장 심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모자라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이제 정도 새천년을 맞이하여, 차별과 소외의 과거를 극복하고 웅혼한 호남의 자존감과 위상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로 젊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생명의 땅에 새로운 희망이 역동적으로 피어나는 전남, 자유가 들꽃처럼 피어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전남, 전남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전남 번영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전남의 젊은 인재를 양성해서 세상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인재들이 정부부처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기업의 CEO로 산업현장과 수출현장을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혁신리더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연구·기능·체육·음악·미술·예능 등 각 분야에서 각광과 두각을 나타내게 하겠습니다. 제2·제3의 젊은 김대중을 배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민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민선 7기는 전남 성공시대, 전남의 새천년을 여는 의미가 각별합니다. 전남 성공시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와 신소재·신산업 혁신경제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전남이 준비하겠습니다. 유능한 기술인력과 연구개발(R&D) 육성을 위해 한전공대를 설립하겠습니다. 태양광·해상풍력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 등 에너지 융복합산업으로 전남을 에너지 혁신밸리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과 더불어 마그네슘 신소재산업, 생물의약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드론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농업까지 미래산업·혁신경제 일자리가 넘치도록 하여 바야흐로 전남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전남을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남 농수축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전남은 깨끗한 산과 들 바다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전국제일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해 온 대한민국 제일의 식량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생산, 가공, 유통, 수출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을 적용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전남을 스마트농업 일번지, 세계적인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로 만들겠습니다.

맛·멋·체험·관광을 함께 하는 종합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를 전남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삼겠습니다. 전남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맛과 멋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가고 싶은 전남, 머물고 싶은 전남, 매력이 넘치는 전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경남, 부산에 이르는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해 섬과 육지를 잇는 기반조성을 조기에 완결하겠습니다. 다도해의 보석 같은 섬과 바다, 천혜의 자연을 관광과 휴식, 치유가 가능한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로 개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을 통해 질 좋은 선진국형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마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전남을 행복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남의 모든 문제를 경제논리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안전과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복지에 사각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로, 찾아가는 현장복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공동생활의 집, 다문화교육원,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천원버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부터 안전한 전남, 꿈과 희망을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고, 배려가 생활이 되는 전남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꼼꼼하게 복지와 안전을 챙기겠습니다.

의와 예, 효의 전통을 살려 사회적 기업이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발한 전남으로 만들겠습니다. 도민이 뽑은 광역·기초의원을 포함해 유관기관·시민사회·자원봉사 네트워크 등이 함께 협치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전남으로 만들겠습니다. 누구하나 뒤쳐지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전남은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전남에서 도민 한분 한분이 소외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예향 전남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와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민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광역지자체간 경쟁과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남~경남~부산을 잇는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사업, 목포에서 부산에 이르는 남해안 철도사업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통해 전남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광주·경남·부산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통해 남해안 광역경제시대를 주도해 나가도록 상생하겠습니다. 전남·광주간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통해 나주 혁신산단 내 한전공대 부지선정과 에너지밸리 활성화 사업,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생발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민 여러분! 민선 7기는 도민 우선주의, 도민 제일주의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차별 없는 행정서비스로 도민 모두를 만족시키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행복한 전남, 전남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현장을 중시하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데서 답을 찾겠습니다. 현장에서 흘리는 땀만큼 도민의 삶은 분명 나아질 것입니다. 매주 한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해 도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도민과 문제를 공감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소통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도정문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렴이 혁신이고 청렴이 개혁이고 경쟁력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함께 가일층 노력해야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보람 있고 성과가 보장되는 즐거운 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은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출산 여성공무원이 인사에서도 우대받도록 하겠습니다. 타운홀 미팅 등 격의 없는 토론식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춘 보람 있고, 즐거운 공직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고주의를 깨뜨리고, 성과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남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전남의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충정과 애향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를 용광로처럼 녹여내 전남의 밝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남을 바꿉시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일

제38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2. 신년사(2019~2022년), 송년사(2018~2021년)

2-1. 2018년 송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했던 민선7기 첫해,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의 현장을 지켜 오신 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대 전환기를 맞아 민선7기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6기 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속의 전남' 만들기, 남도문예 르네상스, 에너지밸리 조성 등 시책들이 성과를 내 민선7기가 안정적으로 출발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그 동안 저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새천년의 웅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마음으로 민선7기 도정의 큰 틀을 짜고, 시급한 지역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내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고, '전남행복시대'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내년도 국고예산을 올해보다 8,088억 원 늘어난 6조 8,104억 원 확보해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성원 속에서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에는 경전선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오랜 숙원사업들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들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꼼꼼히 살피는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산업 분야에서 전남발전을 담보할 굵직한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어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나주혁신도시 인근이 에너지 기업 중심의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이 산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국내 최초로 개최한 'e-모빌리티 엑스포'는 미래형 이동수단으로써 e-모빌리티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전남의 미래 신산업으로서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용수, 부지, 폐수처리 등 현안문제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국회, 소관 부처, 여수시 등과 협력해 용수 1일 10만 톤 추가 공급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선7기 첫 결재를 '에너지 밸리 1천개 기업유치'로 하고 투자유치에 노력한 결과, 취임 이후 170개 기업과 7조 464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의 재도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관광문화체육 분야가 전남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목포와 진도에서 성공리에 열린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통해 '수묵'의 국제적인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022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목포시가 선정되었고, 10월 개최된 전국체전(13→10위)과 전국장애인체전(12→9위)에서 3단계 순위 상승, 그리고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다수 메달을 획득(8개)하는 등 전남 선수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이 9개로 확대되고, 공항 이용객은 56만 명을 돌파해 내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기획한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도가 지난해 3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에는 2위로 올라섰습니다. 문화마케팅연구소가 실시한 '관광지 호감도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문체부 주관 '2018 한국관광의 별' 부문에서 여수, 보성, 진도가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청신호들이 관광객 유치로 직결될 수 있도록 국내외 홍보, 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해 '남해안 신 관광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넷째, 농축어업 분야에서도 눈여겨볼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시도 '농산시책평가'에서 전남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산시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지난 11월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후보지로 함평군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 공모에서 전남이 26개소로 전국 최다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상생발전과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8월 20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무안국제공항 협약을 비롯한 9개 상생과제를 새롭게 발굴추진키로 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광주와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20일, 전남경남부산 등 남해안권 3개 시도가 교통 인프라 구축, 남해안 광역 경제벨트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해안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를 본격 운영해 남해안권을 국가의 새로운 중심 성장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부권에 통합청사를 건립키로 했습니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보다 나은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부권 소재 행정출연 기관을 아우르고 소통문화 공간을 겸비한 통합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피부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전국 최초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평가인증 수당 지급,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민이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시책'을 발굴해 역점 추진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유난히 많았던 자연 재난에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350억 원을 긴급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했고, 피해복구비 731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발 빠른

피해복구와 함께 농작물 지원단가 현실화로 피해주민의 일상 복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남 도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상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11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70개 부문 수상과 함께 1,40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성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과 반성할 점도 있습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해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청렴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청렴이 혁신이고 경쟁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흑산공항 건설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에 도정의 역량을 결집했으나, 아쉽게도 뜻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흑산공항 건설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심의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구가 줄고, 교통분야 지역안전지수는 최하등급이며, 일자리 창출도 도민의 눈높이에 아직 이르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등 도민 안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7기 도정이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전라도 새천년의 기틀을 세우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민선7기는 본격적인 출항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올 해 성과는 더욱 키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전남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지만,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확인한 기회요인과 비전을 기반으로 도민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미래 신성장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을 비롯한 관광산업 육성, 새천년 인재육성 등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분야를 야심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12. 31.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2-2. 2019년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새로운 희망과 함께 시작된 민선7기는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도민제일주의' 기조아래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갈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에 민선7기 도정이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르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우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에너지신산업, 생물·의약, e-모빌리티 등 신성장산업의 기반 구축은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의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나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가는데 긴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뿌린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고 튼튼하게 키워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전남 성공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가겠습니다. 도정의 초점을 '도민 행복'에 맞추고, 도민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다양한 행복 체감형 시책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 산업의 혁신성장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생물의약, e-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전공대와 함께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및 ESS실증 인프라 구축 등으로 산학연이 집적화된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 나주혁신도시를 국가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국가 미생물 지원센터,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등 비교 우위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시장을 선도할 '융복합 바이오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지원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고흥 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연구

교육체험관광 활성화를 연결하고, 무인기 특화지식산업센터 등을 중심으로 드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전통 주력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해경 서부정비창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중소형 선박 지원 기반을 다지는 등 조선산업의 다각화에 힘쓰겠습니다. 고기능성 고무소재 등 신소재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마그네슘 등 경량 소재 부품산업을 육성해 철강산업을 고기능성 금속소재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확대, 사회적경제기업마을공동체 육성, 맞춤형 투자설명회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전남의 뛰어난 경관과 문화예술 자산을 기반으로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남의 비교 우위 자원인 섬과 해양을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남해안의 주요 권역을 융복합 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해 한반도 H축을 떠받치는 국가의 새로운 중심 성장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섬해양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치유단지 조성 등 전남만의 특화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202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 등 국제회의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어 여수를 국제 마이스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섬해양 관광이 섬진강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성공리에 마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성과를 토대로 수묵비엔날레관 건립을 추진하고, 2020년 개관 예정인 '도립미술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전남의 문화예술자원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22년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전남 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계획에 맞춰 체육문화시설을 대폭 확대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체육문화시설을 이용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스마트 농축어업을 확산해 농축어가의 소득을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어업을 확산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벼 위주의 친환경 인증을 과수와 채소 등으로 다양화하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융복합단지를 대규모 농공단지 형태로 산지 등에 조성해 깨끗하고 효율성 높은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장 조성,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등 친환경어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해양쓰레기 제로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응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열대 작물 연구재배가공체험 시설을 갖춘 대규모 '농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소득 아열대 단지'도 권역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망고양매용과천혜향 등 아열대 농작물과 해풍1호 같은 생산성이 높은 수산 신품종 개발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어촌을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읍면 중심지를 경제문화가 어우러진 농촌의 기초생활 거점으로 조성하고, '어촌뉴딜' 사업을 본격 시행해 낙후된 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소상공인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행복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취약지역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지급 등 보육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 지원, 다자녀 가정의 중학생 체험학습비 확대 등 학생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주거지원금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청년 근속장려금도 확대해 전남에 청년이 모이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고독사 지킴이단 확대, 농어촌 공중목욕장 확충, 폐렴대상포진 백신접종 지원 등 노인 복지시책을 지속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22개 시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환자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을 올리고,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여성의 복지와 안정적 삶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금년에 추가로 600억 원을 늘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및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지원, 새천년 상품권 발행, 전남 페이 도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 월급제 등을 신설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전남형 기본소득제'도 운영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SOC를 지속 확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고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SOC 예산 1조 2,121억 원을 확보해 경전선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소중한 예산들이 빠른 시일 내에 투입되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편의시설 확충과 국제선 다변화, 항공정비 산업 단지 지정 등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흑산공항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심의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좋은 원도심을 만들고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이 일상이고 기본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데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화재, 감염병 등 4개 분야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의 사망자 수 감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지난해 대비 142억 원(155→297억 원, 92%) 증액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단속 카메라 확충, 갓길 보행환경 정비 등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도민 제일주의' 도정을 실천하고, 차세대 혁신인재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민박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온라인 도민 청원제' 운영으로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청렴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청렴이 혁신이고 경쟁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혁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남 혁신인재 육성지원 계획'을 조기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발전소' 운영 수익금, 신규 출연 등으로 인재육성기금을 확대 조성해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 재원으로 활용하고, 산업 현장별 혁신리더 등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평화재단을 설립해 남북교류사업의 안정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스포츠, 농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9년 새해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자,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이 열리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러한 기해년 새해의 뜻깊은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모든 도민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는 도민의 행복과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복된 새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1.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2-3. 2019년 송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던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200만 도민 여러분께서 도정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신뢰와 성원으로 맺은 소중한 결실들은 새로운 변화와 더 큰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제 무역 분쟁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덕분에 힘든 고비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60년 만에 가장 잦은 7개의 태풍이 몰려왔지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조속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970억 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태풍 피해 벼를 등외품까지 전량매입하는 등 농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민 행복과 직결되는 일자리 부문에서도 3대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65.2%를 달성하여 취업자 수가 3만 명 늘어난 99만 9천 명으로 껑충 뛰었고, 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4%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9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일 년 전 이 자리에서 전남의 새로운 천년을 야심차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과의 굳은 약속을 깊이 새기면서 전남의 미래를 떠받칠 커다란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전남의 정도 새천년을 밝힐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선포하였습니다. 지난 4월 '에너지신산업 허브'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그린수소 메카'(5월), '글로벌 전남 관광 시대 개막'(6월),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6월) 비전을 각각 선포하였고, 이를 종합해'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의

풍부한 청정 자원과 찬란한 역사·문화자원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블루이코노미를 통하여 환황해 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SOC 국고예산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국고예산은 올해보다 3,792억 원 늘어난 7조1,896억 원을 확보하여 사상 최초로 국고예산 7조 원, 전남 예산 8조 원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수십 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숙원사업들의 실타래가 풀리며 SOC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전기를 맞았습니다. 올 초 2조 9천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여수 화태~백야, 신안 압해~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을 잇는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이 내년에 각각 200억 원씩 확보되어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와 보성을 잇는 남해안철도는 전철화 방식 확정과 내년 예산 4천억 원 확보로 2023년 개통이 가시화되었습니다. 1930년대 개설되어 노후철도의 대명사가 된 경전선 또한 최근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여 도민의 염원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에 경전선 구간 중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 추진하면, 2023년부터 목포와 부산을 2시간 20분대에 오갈 수 있는 광역 고속전철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또한,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내년 예산 1,800억 원이 확보되어 당초보다 2년 단축된 2023년에 전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항은 부족한 항만배후단지 편입을 위해 세풍산단 부지매입비 990억 원 중 국비 21억 원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항만배후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물류기업뿐만아니라 제조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 5억 원이 확보된 광양항~율촌산단 간연결도로(1,900억 원) 개설사업과 21억 원이 확보된 낙포부두리뉴얼 사업(1,600억 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광양항을 2030년까지 총 물동량 5억 톤의 세계 10대 항만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생명산업인 친환경 농수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350억 원)는 내년 예산 13억 원을 확보해 설계와

기본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도 완도가 적격지로 선정되며 첫발을 내디딘 만큼,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 역할과 함께 남해안의대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첨단 농업의 거점이 될 고흥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과 수출 중심의 유통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해 드리는 데도 힘썼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210억 원을 지원해 겨울배추, 대파, 양파 등 6개 품목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연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넉넉지 않지만 농어민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 지역화폐로 제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발전을 위한 어촌뉴딜 300도 지난해 26곳에 이어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4곳(3,750억 원)이 선정되어 남도의 어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아울러, 올해를 '해양쓰레기 제로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125억 원을 투입해 쓰레기 1만 3천 톤을 수거했습니다. 내년에는 512억 원으로 4배 이상 예산을 대폭 늘려 청정한 해양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남해안 일대에 주요 관광 거점을 확충하여 관광객 6천만 명 시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역사적인 제1회 국가 섬의 날 행사(8월)를 목포와 신안에 유치해 섬과 해양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속가능한 섬 발전의 중요성을 전 국민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월 개통 이후 누적 통행량 180만 대를 기록한 신안 천사대교, 영광과 무안을 잇는 칠산대교(12월), 다도해를 가로지르는 목포해상케이블카(9월) 개통과 함께, 내년 2월에는 여수와 고흥을 잇는 조화·둔병·낭도·적금대교 등 4개의 연륙·연도교가 개통되어서 남해안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 경도 진입도로(1,156억 원)는 국비 15억 원이 확보되는 등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에 개설하고, 6성급 호텔과 콘도 등이 갖춰진 1조 4천억 원 규모의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당초보다 5년 앞당긴 2024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7월 개장 이후 24만여 명이 이용한 진도 쏠비치는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 화양챌린지파크와 신안 자은 국제문화관광타운,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보성 율포 해양레저 관광지가 조성되면 남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외 대규모 행사도 성황리에 치러냈습니다. 재외동포경제인 4천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인 제18차 세계한상대회(10월)가 여수에서 개최되어 4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내는 등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초 지자체 최초로 순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9월) 역시 지역의 우수한 생태·역사문화자원과 어우러져 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 유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97개국, 2만 5천명 규모의 COP28 총회를 반드시 유치해전남의 브랜드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남해안을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전남을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에는 5천 7백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매력있는 관광 거점과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6천만 명 관광 시대를 실현하고, 머물면서 즐기는 체류형관광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질적 성장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될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공과대학인 한전공대 설립은 나주 혁신도시로 부지가 확정된 이후,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차근차근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한전공대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1조 원 규모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 최근 광주·전남 11개 대학 총장과 뜻을 모았으며, 한전과 함께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나주시 혁신산단과 목포시 대양산단 등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나주시 일원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도 지정되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였습니다. 영광군 역시 전국 최초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고, 국비 50억 원이 확보된 '초소형전기차 실증사업'(443억 원)과 총

사업비 240억원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구축에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을 차세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금년에 3단계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413억 원)과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198억 원)를 착공하였습니다. 바이오신약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283억 원)를 유치하였고, 460억 원 규모의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 예산을 확보하여 바이오메디컬 허브의기반을 마련했습니다.특히,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예산도 2억 원이 확보되어 첨단의료 중심의 국가 클러스터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섯째,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복시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청년 구직활동 수당 등 지역 청년의 자립과 취업을 위해 다양한 청년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공동급식 지원도 늘려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 그늘진 이웃을 위한 복지안전망도 촘촘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올 4월 출범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전국 최초로 주민이 참여해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안전망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유치에도 더욱 매진해 노인, 장애인 등 지역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민간보육시설의 학부모 부담분(월 평균 8만원)전액을 지원해 도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7년 387명 대비 31% 감소하며 100여명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일곱째, 광역 지자체 간 상생협력과 도내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1월 광주와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 경북과 상생교류 협약을 맺는 등 광주, 서울, 부산, 경남, 경북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현안인 지방인구 감소와 균형발전,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6월 순천시

신대지구로 부지를 확정한 동부권 통합청사는 2022년 9월까지 완공해, 동부권 도민들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민들과 함께하는 종합 소통·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시행한 420억 원 규모의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곡성, 구례, 장흥, 진도 등 4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대표 아이콘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중심의 도민 제일주의 도정을 펼쳐지역 발전의 힘을 한데 모으는 한 해였습니다. 22차례에 걸친 시군별 도민과의 대화와 7차례 민박간담회, 100여 회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도민을 직접 만나 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보다 2단계 높아진 2등급을 달성하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문화가 공직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더욱 정성을 쏟겠습니다. 주민생활 만족도에서도 7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전화친절도 향상은 물론 공무원 노사문화 부문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도민 제일주의의 알찬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닻을 올린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세계 속의 전남을 이끄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키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고예산 7조 원, 전남 예산 8조 원은 전략산업 육성, 관광인프라 확충,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 맞춤형 복지 등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정성껏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3대 핵심과제 유치에 도정의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첫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을 전남에 유치하겠습니다. 모든 도민이 불편 없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선진 의료 체계 구축의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2022년 유엔기후변화 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에 유치하겠습니다. 남해안의 매력과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에 유치하겠습니다. 한전공대와 광주·전남 소재 대학,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연구역량을 배가시키고 지역 벤처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도약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새천년 전남 발전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200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염원, 공직자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전남의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본격 추진하여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도민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도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 12. 3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2-4. 2020년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새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제 이러한 희망의 역사를 맞아, 전남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중심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함께 뛰어 주시고, 뜨거운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미래를 향한 도정에 희망찬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남의 활기찬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기회와 도전, 무한한 가능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1년 6개월 간 착실히 다져놓은 기반 위에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도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본격 추진해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지역 발전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의 원년'으로서, 도민의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블루 엔진을 기반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이 '전남 행복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성공 스토리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남의 정도 새천년 비전으로 선포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인 에너지,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기기, 농수산 그리고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을 구체화 하고 그 성과가 22개 전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관련 예산으로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사업(260억 원),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사업(460억 원)등 117개 사업에 1조 2,629억 원을 확보해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블루 이코노미가 국가 경제 발전전략과 연계해 환황해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남형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도모델로 서남해안 일원에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지역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면서 12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핵심 기반시설인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을 이끌 한전공대가 2022년 3월,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등 정부, 국회 등과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로 발돋움 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기초 과학 연구의 핵심시설로서 에너지 신소재, 신약개발 등 세계적인 수준의 신산업 육성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가 지정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분야인 e-모빌리티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되어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로 육성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드론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3단계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고, 산업용 중대형 드론과 드론택시·플라잉카 실증 분야로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영농 실증사업(200억 원)과 산업용 드론 기업지원 기반 구축사업(127억 원)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을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국비가 확보된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460억 원)과 국립심혈관 센터 설립(490억 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836억 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전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해 충북 오송, 대구와 함께 첨단의료 3대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전남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올해 국비 82억 원이 확보된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사업(1,994억 원)은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해 조선산업 부흥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우수한 관광·문화자원에 인프라를 더해 세계인이 찾고 즐기는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황금들녘과 섬, 바다, 갯벌 등을

매력있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실현하고, 주민 소득을 높이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 개설되는 여수 경도진입도로(1,156억 원)를 기반으로, 호텔·콘도, 쇼핑몰 등을 갖춘 1조 4천억 원 규모의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2024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진도 쏠비치는 작년 7월 개장 이후 24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남해안의 대표 리조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발을 뗀 여수 화양 챌린지파크와 신안 자은국제 문화관광타운,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그리고 보성 율포 해양레저관광지까지 완성되면 남해안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도약할 것입니다. 올 2월이면 여수와 고흥을 잇는 조화·둔병·낭도·적금대교 등 4개의 연륙·연도교가 개통됩니다. 섬·해양의 접근성과 관광 편의가 대폭 개선되어 지난해 개통된 천사대교, 칠산대교와 함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비 7억 원도 금년예산에 반영되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국가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해안뿐만 아니라 영산강·섬진강 중심의 내륙권까지 포괄하고 남도의병 역사공원, 이순신 호국벨트와 연계해 광역관광 개발계획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8)를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에 유치해 남해안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바탕으로 예향전남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202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9월~10월)와 도립미술관 개관(10월)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2022년 전국체전을 목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종합경기장을 신축하는 등 체육 기반시설 확충과 경기력 향상 등에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미래 지역성장의 발판이 될 핵심 SOC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목포와 보성을 잇는 남해안철도는 지난해 전철화 방식으로 확정되고, 금년 예산 4천억 원도 확보되어 2023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930년대 개설되어 노후철도의 대명사가 된 경전선 또한 최근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도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1조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 추진해 남해안철도와 연계하면, 2023년부터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대에 주파하는 남해안 광역 고속전철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금년 예산 1,800억 원이 확보되어 당초보다 2년 단축한 2023년에는 전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핵심 기반인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암태~장산 구간과 고흥~완도 구간 국도 승격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신안 추포~비금 구간은 제5차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수~익산 전라선 고속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와 광주~완도 간 2단계 고속도로 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각각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 연장 설계·착공비 20억 원이 확보되어, 전국에서 4번째로 보잉 747 등 중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토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흑산공항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동시에 관련 부처 협의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광양항은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세계 10대 항만으로 키우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세풍산단 일부 부지매입비 21억 원을 시작으로 세풍·황금·율촌2산단을 항만배후단지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광양항과 율촌산단을 잇는 연결도로(1,900억 원) 개설과 낙포 부두 리뉴얼 사업(1,600억 원)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항로 준설, 항만시설 자동화·현대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개선해 오는 2030년에는 광양항이 총 물동량 5억톤을 달성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미래형 농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과 농촌관광을 연계한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구례)' 조성에 180억 원을 투입해 6차산업의

선도모델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350억 원) 구축을 위해 금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도가 적격지로 선정된 국립난대수목원은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초기지 역할과 함께 남해안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1,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과 수출 중심의 유통 시스템을 갖춘 국내 제일의 혁신 농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의 스마트화를 앞당길 '첨단 농업기계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무인·자동화 농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깨끗한 전남을 만드는 데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5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과 어장의 청정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다목적 해양환경 정화선 2척을 신속히 건조해 해양 정화활동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까지 70곳이 선정된 어촌뉴딜300도 2023년까지 120개소 선정을 목표로 지속 추진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어촌 기반시설 현대화와 어항 특화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농어민의 생활 안정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연간 60만 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함을 물론, 지역화폐로 제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간접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기본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등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도 더욱 늘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도민 수요에 부합하는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이 전남에 유치되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더욱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올해부터 누리과정 민간보육시설의 학부모 부담분(월 평균 8만원)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해 재난·재해로 부터 도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시스템도 강화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열린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와 민박간담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정책에 담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 하여 지역 인재가 세계로 비상하는 전남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도민과 전남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우직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겠습니다. 광주와 서울, 부산, 경남, 경북 등 다른 광역 지자체와도 손을 맞잡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농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부산·경남과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해 남해안 광역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구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현안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북 등 타 시도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에는 사상 최초로 국고예산 7조 원, 전남예산 8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략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확충,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 맞춤형 복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3대 핵심과제 유치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첫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을 전남에 유치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과 도민 수요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에 유치하겠습니다.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메카로 만들고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에 유치하겠습니다. 한전공대와 광주·전남 소재 대학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연구역량을 높이면서 벤처기업들이 스타 기업으로 성장하는 핵심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전남은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본격 추진하여 전남의 '제2의 도약'을 이루고, 미래 백년의 대한민국, 천년의 전남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천년 비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뜻을 세워 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정성을 다해 전남의 발전과 성공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향해 저와 모든 공직자는 올 한 해도 새롭게 다시 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1.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2-5. 2020년 송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으뜸 전남, 전남 행복시대' 실현에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애정 어린 격려와 질책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와 재해에 도민의 안전과 소상공인·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활로 찾기와 도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블루이코노미의 핵심사업들이 '한국판 뉴딜'에 대거 포함되었고, 여수광양항의 핵심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등 13개 국공립 기관과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전남 농수축산물 쇼핑몰인 '남도장터' 매출이 300억원을 넘어섰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했습니다.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떤 위기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를 얻은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맺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국민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내 지역감염 확진자는 493명이며, 12월 들어 일평균 4.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으로 전국이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 도는 다행히 방역의 틀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참여와 협조 덕분입니다.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군·경·소방, 일선 공직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월부터 동부권 '긴급 진단검사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검사 역량을 2배로 늘린 것도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효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 7,371억원의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5,389억원을 지원했고, 도에서도 1,98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1,445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긴급경영자금 270억원, 시외버스와 택시 종사자 긴급생활비 38억원, 대학 4학년생 장학금 39억원, 고등학생 학습지원금 80억원, 여행업 종사자와 예술인 긴급지원금 22억원, 임신부 건강관리비와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1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신속한 격리와 빠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 마스크 쓰기 생활화로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로 활동의 제약이 많았지만, 도민의 성원으로 지난 한해 미래를 향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본예산 9조 2천억원, 국고예산 7조 7천억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4,240억원, 광주~완도고속도로 1단계 2,261억원, 남해안철도 2,542억원, 경전선 297억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여수광양항과 목포항 관련 11개 사업, 1조 8,94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개발,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국가공모사업에 역대 최대인 190건, 국비 1조 6,34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한국 통합관광 지원사업(KTTP, 214억원)'에 선정되었습니다. 9개 부처가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사업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1,000억원 규모의 '목포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도 선정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870억원의 '국립난대수목원'과 350억원 규모의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소'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화순에 460억원의 '국가면역치료 플랫폼'을 유치했습니다. 여수·광양·율촌산단이 '산단 대개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877억원을 확보했고, '도시재생뉴딜'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13개 국공립 기관과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지역 활력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상풍력 연구개발을 총괄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315억원)과 '한국 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센터'(323억원)를 건립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315억원)는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백신 안전기술센터'(283억원)를 구축하게 됩니다. '남해안남중권 중소벤처 기업연수원'(400억원),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313억원)과 '현대미술관 진도관'(450억원)을 건립하고, 남북교류와 탈북민 복지증진을 지원할 '호남권 평화 플러스 통일센터'(80억원), '국립한국정원문화원'(196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LNG 선박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 등 57개 사업, 2,849억원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섯째, '6년 연속 일자리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245개사, 4조 9,10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100개社가 투자를 실현하여 2,173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목포·영암 고용위기 지역 1년 연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계속 지원받게 되어 조선업 업황 개선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농어업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에 전달하여 학생과 농가에 도움이 되었고, 우수사례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온라인 '남도장터' 매출이 지난해 63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을 넘어섰고,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수출도 130만불을 달성했습니다. 3년 연속 '어촌뉴딜300사업'이 전국 최다 선정되었고, '김 산업 육성법' 제정과 '섬발전 촉진법' 개정으로 '김산업 연구소'와 '한국 섬 진흥원' 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일곱째, 소소하지만 체감형 행복시책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청년들에게 300만원의 구직활동수당과 120만원의 취업자 주거비, 540만원의 신혼

부부 보금자리 등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로 1,163명의 숨은 인재를 발굴·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유아의 차액보육료로 1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시대인 새해에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생명 가치의 존중과 융복합 사회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가속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미국과 EU 등이 디지털, 친환경과 녹색정책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고,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과 그린뉴딜,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청정한 전남의 블루자원과 의로운 역사·문화, 민주·평화·인권 등 시대정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정체성과 잠재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계의 중심에 전라남도가 우뚝 서겠습니다.

내년 도정 목표는 '더 새로운, 더 청정한, 더 행복한 으뜸 전남 실현'에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정과 그린, 바이오·첨단, 매력·으뜸, 행복·이음 전남의 8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원년, 청정 전남입니다. 내년을 '2050년 전라남도 탄소중립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고, 확고한 탄소중립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청정에너지', '청정산림', '청정산업', '청정생활' 등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종합비전과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34h를 조성하고, 전기·수소차 6천대 보급과 13천 대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겠습니다. 갯벌 등 해양습지정원 조성을 위한 예타 반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국가행사로 승인된 COP28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개최 도시를 여수 중심의 남해안남중권으로 확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유치를 위해 전남·경남의 역량을 결집해 가겠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빈틈없이 준비하겠

습니다. 순천만정원 리뉴얼과 도시권정원 6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와 같은 성공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선도, 그린 전남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대안으로 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고, 정부도 '그린뉴딜'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융복합밸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기반으로 그린뉴딜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도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조합 형태로 참여해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과 영농형태양광 중심,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시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주민대표·정부·지자체 등으로 민간협의회를 구성했고, 앵커기업 9개사의 6,500억원 규모 투자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초 '상생일자리 선포식'을 열고, 1단계 4.1GW를 착공하겠습니다.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도 RE100 참여기업의 제품을 요구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재생에너지 거점지역 또는 기업도시에 RE100 전용 시범 국가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2022년 3월 개교와 세계 TOP 10 진입을 위해 재정지원 근거법 제정과 학교 핵심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40만㎡를 에너지 특화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해서 에너지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생명산업의 메카, 바이오 전남입니다. 화순백신산업 전주기 인프라와 전국 최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의 강점을 활용해 바이오 및 농생명산업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감염병 백신과 면역치료 중심의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서 세계 면역시장을 선점해 가겠습니다.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연계해서 'K-면역 바이오메디컬 혁신밸리'를 만들겠습니다. 오랜 염원인 '심뇌혈관센터'의 조기 건립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확정 짓겠습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정부가 일관되게 전남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의정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1월 의과대학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세부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균형 위에서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8천 억원 규모의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노년을 대비하는 노인 난치성 질환과 재활 의료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미래 농수축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식량주권 측면에서 농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쌀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병충해와 쓰러짐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신품종인 '새청무'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62%인 유기농 인증면적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소비·유통을 위해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공급 전진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피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무·배추·마늘·양파·고추·대파 등 6개 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화와 수출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선진농업강국인 네덜란드 바헤닝언 푸드밸리와 같이 농수축산업에 ICT를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창업보육과 창농의 요람인 '고흥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준공하고,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아열대화에 대응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새우·해삼·참조기 등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본격 추진해, 수산물 생산 3조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역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른김 품질 관리제'를 도입하고, '김수출 3억불 프로젝트'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확대 추세에 맞춰 남도장터 500억원, 아마존 500만불 매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선도, 첨단 전남입니다. 젊은이들의 미래 준비와 전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지속 추진하면서, 새롭게 '초강력 레이저센터'도 유치를 추진해 초대형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민간우주개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소형 발사체 개발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중대형 드론산업 육성과 더불어 미래 개인비행체 산업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장거리 비가시권 드론 운행에 필수적인 '433 메가헤르쯔 기반 통신기술'과 '수직이착륙(eVTOL) 자율비행기술' 개발을 통해 플라잉카, 드론택시 등 미래 개인비행체 산업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모빌리티는 영광을 중심으로 '공정 고도화 기반'을 구축해 핵심기술 개발과 대규모 양산체제 가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목포 남항에는 친환경 연안선박의 핵심기술과 연료기술 개발을 담당할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예타를 준비 중인 3,6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친환경 대체연료 추진선박 기술고도화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리센터 등 국비 810억원이 확보된 21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정밀화학과 정밀금속 중심으로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조선산업은 'LNG 화물창 제조기술 국산화 실증센터'를 유치해 LNG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생태·체류형, 가족관광 중심지, 매력 전남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전남 관광 방문의 해'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소규모 여행 상품, 웰니스·힐링·휴양 등 자연 친화적 관광지 등을 발굴하고, 랜선 여행과 비대면 관광사업도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전남이 가진 문화·예술과 생태자원을 융복합해서 체류형 생태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쇼핑·음식·숙박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국 통합관광 지원사업(KTTP)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50만명을 유치하겠습니다. 목포에서 여수까지 해양관광과 담양·곡성·구례 중심 내륙관광을 연결하여 전남 관광을 활성화하겠

습니다. 기후대별 연구·전시, 국제적 휴양·관광기능을 갖춘 '국립난대수목원'을 차질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신안 자은 국제문화관광타운, 목포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여수 챌린지파크, 율포 해양레저관광지 등 세계적 수준의 숙박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가계획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반영시키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전남의 정체성이 곧 경쟁력, 으뜸 전남입니다. 역사와 문화예술, 의로움의 자부심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인재를 육성해 활력 넘치는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마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전라도의 정체성을 마한 역사와 문화에서 찾겠습니다. 수생태계 복원과 수변개발을 통해 영산강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호국 의병의 충혼정신을 기리기 위한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문체부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를 준비하겠습니다.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반드시 성공 개최해서 전남 대표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고, 수묵비엔날레 전용전시관도 건립하겠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을 개관해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예향 전남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천 개 마을에 각각 300만원을 지원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돕겠습니다. 마을 공동체사업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인재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새싹인재' 육성을 위해 예능인재키움과 이공계진로 체험을 확대하고, '도비 유학생'과 '핵심인재'를 200명까지 확대하며, 맞춤형 역량강화를 통해 '산업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평화정신을기리기 위해 내년 10월, 목포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세계평화공원'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도민 모두의 따뜻한 안식처, 행복 전남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중심'의 비전과 철학이 요구됩니다. 재난·재해로부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자와 접촉자는 검사비용을 무료로 하여 신속히 확진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노인·보행자 교통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청년이 대우받고 활력 넘치는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융복합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1,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부부 1쌍당 200만원의 결혼축하금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체감형 행복시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거약자인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을 위해 2022년까지 도민행복 공공임대주택 5,5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를 50만원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력이음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참여수당을 매월 고교생 20, 중학생 10, 초등생 5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천 5백 명에게 월 5만원의 특별수당을 도입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서 복지기동대 지원대상을 4천 가구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5·18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사람과 공간 연결 광역 SOC, 이음 전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전략과 지원을 바탕으로 필수 SOC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고흥~완도 국도 승격,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등 핵심 SOC를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경전선의 '보성~순천' 구간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확정되어 2023년이면 목포와 부산을 2시간 20분대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나주·광주, 화순·광주을 잇는 '남도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해 가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활주로 연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한국 통합관광 지원사업(KTTP)를 통해 이용객 100만 시대를 넘어,300만 시대를 위해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금년은 미증유의 코로나와 집중호우, AI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시기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웠을 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새로운 전남, 더 청정한 전남, 더 행복한 전남'을 이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쏟겠습니다. 전라남도의 무한한 잠재력과 정체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소의 해인 신축년, 든든하고 힘있게 도정을 이끌어 도민들께서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2월 28일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2-6. 2021년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힘과 근면, 평화를 상징하는 소의 해,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와 재해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도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 덕분에「전남 행복시대」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도민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도민들께 행복을 전해 드리는 희망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새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많은 도전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생명의 존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전남의 풍부한 청정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전남형 그린뉴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를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형 태양광·풍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초대형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함께 새롭게 '초강력 레이저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휴먼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등을 연계해 'K-면역 바이오 혁신밸리'를 만들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식량주권을 위한 농어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농어업을 융복합산업화하고,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고, 미래의 주역인 '새천년 으뜸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면 뜻을 이룬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전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1.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2-7. 2021년 송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올 한해 열심히 살아오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변함없는 관심과 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직필로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와 집중호우 등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자세로 소임을 다해 주신 도와 시·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4차 유행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기대하던 일상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해는 도민 한분 한분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전남 발전을 견인할 국고예산과 신규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올해 전남예산 11조 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 국고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4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국고예산에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용역비 등 전남발전을 견인할 신규사업이 90건, 2,224억 원, 총사업비로는 5조 2,88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도 미래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4,382억 원이 반영되어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부 2단계 재정분권으로 3조 원의 국비 확보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1조 원이 신설되어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다양한 재정지원과 특례를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우리 도가 앞장서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로 도약할 기반을 다졌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근거법 제정과 함께

정부지원이 확정되었으며, 100여명의 우수학생 선발과 세계적인 석학 교수진 영입 등 세계 TOP10 공과대학으로 비상을 위한 개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지난 2월 대통령님을 모시고 48조 원 투자, 12만개 전남형 상생일자리 비전을 선포했으며 내년 초에는 1단계 선도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순천에 NHN, 광양에 오라클社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세계적인 데이터기업이 모여드는 글로벌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선 7기 3년여 만에 국내외 9백여 기업과 25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해외 첨단기업도 1조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셋째, 전남발전의 원동력인 주요 SOC를 대거 확충했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도민 숙원 SOC가 국가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2년도 정부예산에 철도와 도로, 연륙·연도교 등 SOC예산이 역대 최대인 1조 5,46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안 압해~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 간 연륙·연도교가 지난 10월에 착공했으며, 예타를 통과한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는 내년에 조기 발주하겠습니다. 육지·섬·해양을 잇는 다도해 선샤인웨이 해양관광도로를 완성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업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농어민의 소득 증대로 연계되었습니다. 올해 해남에 유치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장성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함께 미래 첨단농업을 선도할 것입니다. 온라인 농수산물 쇼핑몰 남도장터는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대상 4관왕에 이어, 올해 매출 목표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내년에는 남도장터 법인화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판로 확대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내년부터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촌뉴딜 300, 농촌협약 등 정부의 농어촌 생활 SOC 사업에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어, 살고 싶은 미래형 농어촌 기반이 대거 확충되고 있습니다. 국가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한국섬진흥원이 지난 10월, 목포에 개원했습니다. 앞으로 섬의 위상을 높이고 섬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세계적인 관광·문화·예술의 핫플레이스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남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을 추진해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가겠습니다. 신안 퍼플섬이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포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와 여수 챌린지파크가 첫 삽을 떴고, 내년에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리조트호텔이 들어섭니다. 보성 율포 해양레저관광단지와 고흥 예술랜드 관광단지, 신안 자은 해양관광단지 등 호텔·관광펜션 객실을 2025년까지 1만 4천여 실로 대폭 늘려 체류형 생태관광 기반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전남도립미술관이 개관했으며, 호국 의병의 충혼을 기리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이 승인되었습니다. 남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높일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보다 안전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앞장서 온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수혜자가 3만 6천 가구를 넘어섰으며, 집중호우 초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천원 여객선을 시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도민께 무료로 도민안전보험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출향 도민들에게 전남사랑 도민증을 발급해 농수특산물과 관광지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해 출향 도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면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최초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지원했으며, 도 단위 최초로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로 취업이 어려운 도내 대학 졸업반 전원에게 '힘내라! 희망 장학금'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1천개 마을씩 총 8천개 마을로 확대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국회 논의 20년 만에 제정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함과 아울러 국가 추념식과 기념일 지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전라남도 국제행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거듭났습니다. 도 대표 국제행사인 수묵비엔날레, 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제1회 김대중 평화회의'를 지난 10월, 목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품격 있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용맹한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22년을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하는 행복시책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 과제를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과 에너지밸리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대형 국책연구시설인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과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도 유치하겠습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성의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사업규모를 크게 늘려 세계적인 심뇌혈관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고흥에는 민간 우주시대를 견인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특화산단과 앵커기업도 유치하겠습니다. 이차전지산업은 동부권에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산업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양만권 석유화학 산업단지는 탄성소재 등 첨단 신소재와 친환경 석유화학 소재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과 집적화단지 및 상생일자리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의 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지원 부두와 특화산업단지도 조성해 해상풍력 산업과 연계한 전후방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익 공유모델로 주민들과 수익을 나누며 어업과도 공존하겠습니다. 해상풍력과 연계해 내년에 국가예산을 확보한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특별법」 제정과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탄소사냥꾼 등 범도민 실천운동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의 모멘텀이 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제33차 총회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뛰겠습니다.

셋째,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2025년까지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동부권 도민들의 숙원인 전라선 고속철도도 서울~여수를 2시간 10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영암~진도 고속도로는 앞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도내 1시간대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양항은 '국내 최초 자동화부두'이자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만들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를 연장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해 미주·유럽까지 취항하고, KTX 무안국제공항 역사를 신설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흑산공항은 내년에 심의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착공하여, 수도권까지 1시간대 하늘길로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를 이끌겠습니다. 2022년-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전남 메타버스 홍보관을 구축하고, 청년 페스티벌 등 감성 콘텐츠로 MZ세대 맞춤형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마한문화권 복원을 주도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수립하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우리 도의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반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업의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을 다지고, 남도음식을 체계적으로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을 설립하여, K-푸드의 본류인 남도음식의 맛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 보급 및 창업농 확대, 후계농과 귀농인 지원 등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1만 명을 2030년까지 육성하겠습니다. 김 산업의 생산·가공·수출 확대를 위한 김 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마른김 품질 관리제'를 본격 시행해 김 수출 3억

불 달성을 위한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가 착수됩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해양수산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조사·발굴하며 전시·교육하는 국가차원의 서남권 복합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제일주의를 실현하는 '도민 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도민들께서 크게 호응하셔서 수혜대상을 7천 5백 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도내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도내 청년 12만 명에게 연 20만원씩, 10년간 200만원을 지원하는'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은 지원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연 2회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여성을 위한 첫만남이용권으로 영유아 1인당 200만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영아수당도 매월 30만원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는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87만원을 지급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서비스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동급식은 지원 단가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며,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연 20만원의 행복바우처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광 취약층에게 행복여행 활동지원금 15만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7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전몰·순직 군경 유족에게는 매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새롭게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연 36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청소년지도자에게 연 120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새롭게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에게는 상해보험료를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합니다. 도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30년 염원인 국립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일곱째,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제수도, 중부권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전남·광주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를 건설하겠습니다. 해양·환경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남해안 탄성소재벨트와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구축 등으로 新해양시대의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웅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로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꿈꾸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한국 섬 진흥원이 개원한 것도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노력한 덕분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전남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민 제일주의로 도민 한분 한분께 힘이 되는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축년(辛丑年) 한해,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2-8. 2022년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용맹하고 진취적인 호랑이를 상징하는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도민 모두의 협조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등 현안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전남예산 11조 원 시대를 열었고, 올해 국고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4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두가 도민 여러분께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도민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우리 도는 올해를 환태평양 시대를 여는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으로 삼으려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전남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따뜻한 관심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청년 문화복지카드, 농어민공익수당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공동체가 보살피는 복지기동대 등 도민 행복시책이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해는,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일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도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우리 전라남도가 한층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아침에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3. 주요 도정일지

3-1. 2018년 주요 도정일지

<2018. 7. ~ 12.>

월일	주 요 내 용	주관부서
7. 1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대비상황 점검회의	자 연 재 난 과
7. 2	민선7기 제38대 도지사 취임선서	총 무 과
7. 4	제11회 전남 농아인의 날 행사	노 인 장 애 인 과
7. 5	세월호 현장방문	해 양 항 만 과
7. 6	장애인 국악공연 마음나눔 행사	문 화 예 술 과
7. 9	제4회 빛가람청렴문화제	감 사 관 실
7. 10	제11대 도의회 개원식	정 책 기 획 관 실
7. 11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 광 과
7. 12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	자 치 행 정 과
7. 13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가족정책관실
7. 17	제324회 임시회 개회	본 회 의 장
7. 18	도 연합회장기 한궁대회	도 체 육 회
7. 20	도지사-시장.군수 상견례 및 간담회	자 치 행 정 과
7. 25	전남 농민가족한마당	해 남 우 슬 경 기 장
7. 26	지역국회의원 간담회	예 산 담 당 관 실
7. 27	제11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막식	관 광 과
7. 31	적조방제 현장방문	수 산 자 원 과
8. 1	전남스타기업 간담회	전 략 산 업 과

월일	주 요 내 용	주관부서
8. 2	통합방위협의회	안 전 정 책 과
8. 7	새농민회 전라남도 한마음전진대회	농 업 정 책 과
8. 8	혁신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시도지사협의회 연석회의	혁 신 경 제 과
8. 10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물 환 경 과
8. 13	광주·전남·전북 시도지사 현장 정책간담회	예 산 담 당 관 실
8. 1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39차 총회	정 책 기 획 관 실
8. 15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 정 지 원 과
8. 20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정 책 기 획 관 실
8. 21	태풍대비 현장 방문(완도)	자 연 재 난 과
8. 22	새천년대교 현장점검(신안)	도 로 교 통 과
8. 23	19호 태풍 ‘솔릭’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	안 전 정 책 과
8. 24	전남-저장성 고위급회담, 기념식수	국 제 협 력 관 실
8. 30	민선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	일 자 리 정 책 과
8. 31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식	수묵비엔날레사무국
9. 03	전남도립미술관 건립공사 기공식	문 화 예 술 과
9. 04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식	투 자 유 치 과
9. 05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여성가족정책관실
9. 06	융복합소재지원센터 준공식	혁 신 경 제 과
9. 07	2018 더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 협의회	예 산 담 당 관 실
9. 10	2018 도민 명예기자 위촉행사	대 변 인 실
9. 11	자원봉사 지도자 워크숍	도민행복소통실
9. 12	숲속의 전남 간담회	산 림 보 전 과

월일	주 요 내 용	주관부서
9. 13	제44회 전남민속예술축제 개막식	문화예술과
9. 14	한가위 맞이 아름다운 기부행사	기후생태과
9. 18	사랑의 한돈 나눔 전달식	축산정책과
9. 19	AI 차단방역 실천 다짐대회 및 워크숍	동물방역과
9. 26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현장간담회	투자유치과
9. 27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	안전정책과
9. 28	전남 이·통장 연합회 워크숍	자치분권과
10.01 ~06	LA·프랑스 방문	국제협력관
10. 0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식품의약과
10. 10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변인실
10. 11	2018 영광국제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	신성장산업과
10. 12	제25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막식	관광과
10. 15	제4회 빛가람페스티벌 개막식	혁신도시지원단
10. 16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정책기획관실
10. 17	전라남도-의정동우회 도정설명회	정책기획관실
10. 18	전라도 천년 기념식	자치분권과
10. 19	여순사건 70주기 희생자 합동 추념식	자치분권과
10.22~23	도정질문	정책기획관
10. 24	행안부-전남도 공동 제1회 섬 컨퍼런스	섬해양정책과
10. 25	제22회 도민의 날 기념식	스포츠산업과
10. 26	제18회 전라남도 자활대회 개최	사회복지과
10. 29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고령사회정책과

월일	주 요 내 용	주관부서
10. 30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	자 치 분 권 과
10. 31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에너지신산업과
11. 01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예 산 담 당 관 실
11. 02	소상공인 간담회	중소벤처기업과
11. 06	전남 섬발전 지원센터 개소식	섬 해 양 정 책 과
11. 07	2018 자랑스러운 전남만들기 세미나	도민행복소통실
11. 08	김장철 전남 친환경농산물 대축제	농 식 품 유 통 과
11. 09	담양 새꿈도시 투자협약 체결	건 축 개 발 과
11. 12	공공비축미 매입현장 방문	농 식 품 유 통 과
11. 13	제27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	국 제 협 력 관 실
11. 14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협약식	투 자 유 치 과
11. 15	2018 화순백신포럼 개막식	신 성 장 산 업 과
11. 19	한여농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농 업 정 책 과
11. 20	2018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사 회 복 지 과
11. 21	전남 농수축산식품 매출 1000억 달성 기념식	중소벤처기업과
11. 22	제2회 마을공동체 한마당 대회	사 회 적 경 제 과
11. 28	한·중 지사·성장 회의	국 제 협 력 관 실
12. 03	LG화학 투자 협약식	투 자 유 치 과
12. 04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식	투 자 유 치 과
12. 05	한전공대 설립 범정부지원위원회 회의	일 자 리 정 책 과
12. 07	전라남도 문화상 시상식	문 화 예 술 과
12. 10	청년행복콘서트 녹화	인구청년정책관실
12. 11	전남 새마을지도자 대회	자 치 분 권 과

월일	주 요 내 용	주관부서
12. 13	전남 체육인의 밤	스포츠산업과
12. 14	전남 예술인의 밤	문화예술과
12. 18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안전정책과
12. 19	국군장병 위문	안전정책과
12. 20	남해안권 상생발전 위원회	자치분권과
12. 21	2018 전남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	관광과
12. 24	광주전남 기계설비건설협회 인재육성기금 기탁식	건설도시과
12. 26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영상회의	안전정책과
12. 27	송년 기자간담회	정책기획관실
12. 28	2018 하반기 퇴임식	행정지원과
12. 31	새해맞이 타종식	행정지원과

3-2. 2019년 주요 도정일지

<2019. 1. ~ 12.>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1. 03	현충탑 및 故 김대중 대통령 동상 참배	행 정 지 원 과
1. 04	한전공대 설립 기본협약 체결	일 자 리 정 책 과
1. 07	전라남도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여 성 정 책 관 실
1. 11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신년하례식	중 소 벤 처 기 업 과
1. 14	현대엔테크 인재육성기금 기탁식	희 망 인 재 육 성 과
1. 16	투자협약식(함평 사포 관광단지 개발)	투 자 유 치 과
1. 17	민박 간담회(신안)	자 치 분 권 과
1. 18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 책 기 획 관 실
1. 21	한농연 전남연합회 소통 간담회	농 업 정 책 과
1. 22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자 치 분 권 과
1. 23	중앙통합방위회의	안 전 정 책 과
1. 24	여수·광양항 물동량 3억톤 달성 기념행사	해 운 항 만 과
1. 25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중 소 벤 처 기 업 과
1. 28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	중 소 벤 처 기 업 과
1. 29	'19년 유기농 실천 다짐대회	친 환 경 농 업 과
1. 30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업무협약	중 소 벤 처 기 업 과
1. 31	제13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 책 기 획 관 실
2. 6~11	인도/일본 순방	국 제 협 력 관 실
2. 13	한국폴리텍대학 업무협약	일 자 리 정 책 과
2. 15	2020년도 국고 현안사업 보고회	예 산 담 당 관 실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2. 18	도민과의 대화(순천,여수)	자치분권과
2. 19	도민과의 대화(영암, 목포)	자치분권과
2. 20	국회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토론회	섬해양정책과
2. 21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혁신도시지원단
2. 21	도민과의 대화(보성)	자치분권과
2. 22	도민과의 대화(고흥)	자치분권과
2. 23	5·18 망언 규탄대회	도민소통실
2. 25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업무협약	친환경농업과
2. 25	도민과의 대화(담양)	자치분권과
2. 26	제328회 임시회 폐회	정책기획관실
2. 26	제로페이 전남 선포식	중소벤처기업과
2. 27	도민과의 대화(곡성, 구례)	자치분권과
2. 28	제14회 전남 수출상 시상식	국제협력관실
2. 28	전남체육회 정기 대의원대회	스포츠산업과
2. 28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과
2. 28	전남도당 당정협의회	정책기획관실
3. 1	제54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스포츠산업과
3. 1	3·1절 기념식	행정지원과
3. 2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스포츠산업과
3. 4	도립대학교 입학식	희망인재육성과
3. 5	도민과의 대화(나주, 장성)	자치분권과
3. 6	전라남도 유림총회	문화예술과
3. 7	도민과의 대화(화순, 장흥)	자치분권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3. 8	광양 매화축제 개막식	관 광 과
3. 12	도민과의 대화(영광)	자 치 분 권 과
3. 13	제329회 임시회 개회	정 책 기 획 관 실
3. 14	도민과의 대화(함평, 진도)	자 치 분 권 과
3. 16	제20회 구례 산수유꽃축제 개막식	관 광 과
3. 17~21	일본 순방	국 제 협 력 관 실
3. 22	제4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사 회 복 지 과
3. 22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막식	관 광 과
3. 25	도민과의 대화(해남, 완도)	자 치 분 권 과
3. 26	도민과의 대화(무안, 신안)	자 치 분 권 과
3. 27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 개관식	국 제 협 력 관 실
3. 27	도민과의 대화(광양)	자 치 분 권 과
3. 28	전남농협 조합장 공감대회	농 업 정 책 과
3. 28	도민과의 대화(강진)	자 치 분 권 과
3. 29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여 성 정 책 관 실
4. 1	신안 지오관광·레저타운 조성 투자협약식	투 자 유 치 과
4. 2	섬관광 활성화 심포지엄	섬 해 양 정 책 과
4. 3	도의회 도정질문	정 책 기 획 관 실
4. 4	천사대교 개통식	도 로 교 통 과
4. 4	영광 풍력발전소 준공식	에 너 지 신 산 업 과
4. 4	영암왕인문화축제 개막식	관 광 과
4. 5	도의회 도정질문	정 책 기 획 관 실
4. 8	강원도 산불피해 위문금 전달 및 현장방문	사 회 재 난 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4. 11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자 치 분 권 과
4. 12	더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	예 산 담 당 관 실
4. 15	장성소방서 개청식	소 방 행 정 과
4. 15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현장 투어	정 책 기 획 관 실
4. 16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국민안전의 날)	사 회 재 난 과
4. 16	드론봇 전투체계 운용 시연회	안 전 정 책 과
4. 17	여성일자리 박람회	여 성 정 책 관 실
4. 17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과
4. 18	전남도-보해양조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과
4. 19	4·19혁명 기념식	행 정 지 원 과
4. 19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 애 인 복 지 과
4. 19	전남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식	건 강 증 진 과
4. 19	민박 간담회(곡성)	자 치 분 권 과
4. 22	해양쓰레기 제로화 유관기관 업무협약	수 산 자 원 과
4. 22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망향제	자 치 분 권 과
4. 22	복지기동대 발대식	사 회 복 지 과
4. 22	대기오염 측정치 허위조작 현장 대책회의	물 환 경 과
4. 23	전남 평화통일 원탁회의	자 치 분 권 과
4. 23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현장 투어	정 책 기 획 관 실
4. 24	한국여행협회-전남도 관광활성화 업무협약	관 광 과
4. 24	해양쓰레기 zero화 자정결의대회	수 산 자 원 과
4. 25	도-시군 상생협력 간담회	자 치 분 권 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4. 26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투 자 유 치 과
4. 29	천은사 통행료 폐지 업무협약	산 림 휴 양 과
4. 29	한전공대 설립 업무협약	한전공대지원단
4. 30	49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자 치 분 권 과
4. 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간담회	혁 신 경 제 과
5. 1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개막식	스 포 츠 산 업 과
5. 2	전남 한우인 한마음 대회	축 산 정 책 과
5. 2	도민평가단 정기회	정 책 기 획 관 실
5. 3	도정혁신 워크숍 특강	행 정 지 원 과
5. 3	여수 거북선축제 개막식	관 광 과
5. 9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현장 투어	도 로 교 통 과
5. 10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증서 전달식	스 포 츠 산 업 과
5. 10	바다식목일 행사	수 산 자 원 과
5. 10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현장 투어	관 광 과
5. 13	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 간담회	건 축 개 발 과
5. 14	전라남도 5·18 기념문화제	자 치 분 권 과
5. 15	신성장추진위원회 출범식	투 자 유 치 과
5. 16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행 정 지 원 과
5. 17	곡성 세계장미축제 개막식	관 광 과
5. 20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 책 기 획 관 실
5. 22	수소경제 선도 비전 선포식	에너지신산업과
5. 22	민박 간담회(화순)	자 치 분 권 과
5. 27	역대 도지사 초청 새천년 전남 비전 보고회	정 책 기 획 관 실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5. 28	강소특구 지정·육성 업무협약	투 자 유 치 과
5. 28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준공식	에 너 지 신 산 업 과
5. 28	통합방위협의회	안 전 정 책 과
5. 29	여성일자리 박람회	여 성 정 책 관 실
5. 30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정 책 기 획 관 실
5. 30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정기총회	도 민 소 통 실
5. 31	밭농업 농작업대행 시연회	친 환 경 농 업 과
6. 4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테러 훈련	안 전 정 책 과
6. 4	산업위기지역 방문	혁 신 경 제 과
6. 5	전남 농아인 대회	장 애 인 복 지 과
6. 5	음식문화개선과 친절서비스 실천 다짐대회	식 품 의 약 과
6. 5	전남도-롯데슈퍼 농수산물 판로확대 MOU	농 식 품 유 통 과
6. 5	중부권 시장군수 간담회	자 치 분 권 과
6. 6	현충일 추념식	사 회 복 지 과
6. 10	아프리카 돼지열병 도-시군 영상회의	동 물 방 역 과
6. 10	제5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개막식	감 사 관 실
6. 11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개점식	사 회 복 지 과
6. 11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인하 업무협약	중 소 벤 처 기 업 과
6. 12	전국산림경영인대회	산 림 휴 양 과
6. 12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위촉	농 업 박 람 회
6. 13	해수부 어업지도선 취항식	수 산 자 원 과
6. 13	여성농업인 활동지원 강화방안 현장토론회	농 업 정 책 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6. 13	민박 간담회(강진)	자치분권과
6. 17	e-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	신성장산업과
6. 18	공사출연기관장 성과보고회	정책기획관실
6. 18	새천년 인재육성 비전 선포식	인재육성과
6. 20	전남 관광 비전 선포식	관광과
6. 21	호남향우회 도정설명회	도민소통실
6. 22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현장투어	정책기획관실
6. 24	광주KBS 재난방송 관련 업무협약	사회재난과
6. 25	6·25 전쟁 기념식	사회복지과
6. 25	산시성의 날 행사	국제협력관
6. 26	민선7기 1주년 기자회견	정책기획관실
6. 28~7.2	싱가폴, 베트남 순방	국제협력관실
7. 4	2019 수산관측 전망대회	해양수산기술원
7. 4	농업박람회 D-100 기아타이거즈 시구	농업박람회
7. 8	저소득층 어르신 보행기기 지원 전달식	사회복지과
7. 10	광주·전남 여성농민한마당	농업정책과
7. 10	한전공대 설립 지원위원회	한전공대지원단
7. 12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정책기획관실
7. 15	인구의 날 기념식	인구정책관
7. 16	전남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	농업정책과
7. 16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안전정책과
7. 16	도지사품질인증업체 매출 2조원 달성 다짐대회	농식품유통과
7. 17	㈜공용 홈쇼핑 농특산물 판로확대 MOU	농식품유통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7. 17	영암 내동리 쌍무덤 발굴 현장 간담회	문화자원과
7. 18	전남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농업기술원
7. 18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직능단체장 간담회	사회복지과
7. 19	유교대학 도정설명회	문화예술과
7. 19	2030 교육포럼	희망인재육성과
7. 19	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관식	관광과
7. 23	전역장병 취업지원사업 MOU	일자리정책과
7. 24	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	정책기획관실
7. 25	어촌혁신과 미래 발전 전략 토론회	섬해양정책과
7. 25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협약	정책기획관실
7. 25	민박 간담회(영광)	자치행정과
7. 26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 관람	스포츠산업과
8. 2	제6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막식	스포츠산업과
8. 6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	혁신경제과
8. 6	전남한돈협회 이웃사랑 기부물품 전달식	축산정책과
8. 7	농수특산물 구매약정 및 업무협약	농식품유통과
8. 8	제1회 섬의 날 기념식	섬해양정책과
8. 14	한농연 농업경영인 대회	농업정책과
8. 15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총무과
8. 18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자치행정과
8. 18	KBS평화음악회	자치행정과
8. 20	한전공대 부지 증여 행사	한전공대지원단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8. 21	전남경총 10주년 기념식	중소벤처기업과
8. 21	2019년 화랑훈련 세미나	안 전 정 책 과
8. 22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	정 책 기 획 관 실
8. 23	전남도-농협중앙회 업무협약	농 업 정 책 과
8. 28	(사)벤처기업협회 벤처썸머포럼	중소벤처기업과
8. 30	한국해양정책기술협의회 창립 총회	해 운 항 만 과
8. 30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개막식	문 화 예 술 과
9. 2	그린수소 사업 협약식	신 성 장 산 업 과
9. 3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 회 복 지 과
9. 4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예 산 담 당 관 실
9. 5	한두이서-전남도 업무협약	농 식 품 유 통 과
9. 18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총 무 과
9. 19	제334회 임시회 개회	정 책 기 획 관 실
9. 20	더민주당 정책페스티벌 평화경제토론회	자 치 행 정 과
9. 20	방사광가속기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	한전공대지원단
9. 23	전남도-장시성 고위급 회담	국 제 협 력 관 실
9. 25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정 책 기 획 관 실
9. 25	한전공대 설립 범 시도민 지원위원회 출범식	한전공대지원단
9. 25	중국 건국 70주년 경축 리셉션	국 제 협 력 관 실
9. 26	나주 SRF 거버넌스 기본합의서 체결식	물 환 경 과
9. 26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	신 성 장 산 업 과
10. 1	태풍 대비 범정부 대처상황 점검회의	자 연 재 난 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10. 1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 출범식	자치행정과
10. 4	시도지사협의회 제43차 총회	정책기획관실
10. 4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스포츠산업과
10. 7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식품의약과
10. 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정책기획관실
10. 11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막식	식품의약과
10. 11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	산림휴양과
10. 14	오리건주 문화사절단 내방	국제협력관
10. 14	순천의료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	건강증진과
10. 15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장애인복지과
10. 16	더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 협의회	예산담당관실
10. 17	제23회 노인의 날 행사	고령사회정책과
10. 17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	농업박람회
10. 17	농수산식품 수출협약 및 업무협약식	농업박람회
10. 17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평가현장 방문	산림휴양과
10. 18	대한조선 건조 선박명명식	혁신경제과
10. 21	공사출연기관장 보고회	정책기획관실
10. 21	세계한상대회 CEO 선상 네트워킹	혁신경제과
10. 22	제6회 전남 농촌지도자 대회	농촌지원과
10. 23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1만구좌 달성 기념행사	여성정책관실
10. 24	전남 임업인 한마당대회	산림휴양과
10. 24	민족통일 전남도대회	자치행정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10. 24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초청 도정설명회	도 민 소 통 실
10. 25	도시재생한마당 개막식	지 역 계 획 과
10. 25	전라남도 자활대회	사 회 복 지 과
10. 25	도민의 날 기념,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스 포 츠 산 업 과
10. 28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감 사 관 실
10. 29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대 응 예 방 과
11. 3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사 회 복 지 과
11. 4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업무협약	지 역 계 획 과
11. 5	지오국제문화관광타운 기공식	투 자 유 치 과
11. 6	빅스포 개막식	에 너 지 신 산 업 과
11. 6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 회 복 지 과
11. 7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전남만들기 협의회	자 치 행 정 과
11. 11	스마트 음성알리미 구축 업무협약	자 치 행 정 과
11. 11	전라남도 여성대회	여 성 정 책 관 실
11. 12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	정 책 기 획 관 실
11. 13	마한역사문화권 발전 학술포럼	문 화 자 원 과
11. 13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책토론회	정 책 기 획 관 실
11. 14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농 업 정 책 과
11. 18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발전 업무협약	문 화 자 원 과
11. 20	학교 앞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안 전 정 책 과
11. 20	희망2020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사 회 복 지 과
11. 21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건 강 증 진 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11. 25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정책기획관실
11. 27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토론회	해운항만과
11. 28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	도민소통실
11. 28	민박간담회(보성)	자치행정과
12. 2	으뜸 인재 증서수여 및 봉사단 발대식	인재육성과
12. 2	청년 농업인과 공감·소통 간담회	농업정책과
12. 3	광주전남 대학총장 간담회	한전공대지원단
12. 3	제1회 도민 인권증진 문화주간 기념식	도민소통실
12. 3	전라남도 여성정책포럼 발대식	여성정책관실
12. 4	전남 귀농어·귀촌 어울림 대회	인구정책관
12. 6	제63회 전라남도 문화상 수여식	문화예술과
12. 9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기념식	자치행정과
12. 10	제2차 강호축 발전포럼	정책기획관실
12. 10	롯데케미컬-GS 합작사 업무협약	투자유치과
12. 11	경북-전남 상생교류 협약	정책기획관실
12. 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자치행정과
12. 13	광주전남 총장 지역사회 포럼	인재육성과
12. 13	출향 호남예술인 초청세미나	문화예술과
12. 16	창조경제혁신센터 수도권 관광객 1만명 달성 기념식	중소벤처기업과
12. 16	COP28 유치위원회 출범식	기후생태과
12. 18	일자리·투자유치 한마당	일자리정책과
12. 19	비즈니스 리더스 아카데미	인재육성과
12. 20	신안지역 해상풍력 개발협약 MOU	에너지신산업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12. 23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	동부지역본부
12. 24	노조와 함께하는 행복상자 만들기	총무과
12. 26	송년 기자회견	대변인실
12. 26	순천방문의 해, 천만 관광객 돌파 기념행사	관광과
12. 27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인재육성과
12. 27	대학생 글로벌 비전캠프 공감토크	인재육성과
12. 31	보성 블루이코노미 선포식	관광과

3-3. 2020년 주요 도정일지

<2020. 1. ~ 12.>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1. 2	경자년 신년회	총 무 과
1. 3	순천, 여수, 광양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혁 신 경 제 과
1. 3	순천만정원박람회 공동개최 업무협약식	산 림 휴 양 과
1. 6	시무식	총 무 과
1. 7	전남 인재학당 공감토크	인 재 육 성 과
1. 9	일로-몽탄-동강 간 국가지원지방도 개통식	도 로 교 통 과
1. 20	남도음식 명인·명가 지정서 교부 및 친절 결의대회	식 품 의 약 과
1. 21	화양-적금 개통 대비 현장 점검	도 로 교 통 과
1. 28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 간담회	기 후 생 태 과
1. 30	민박간담회(광양)	자 치 행 정 과
2. 3	2019 수산물 수출 유공자 간담회	수산유통가공과
2. 3	인재육성장학기금 기탁	지 역 계 획 과
2. 4	농수축산물 구매약정 및 업무협약	농 식 품 유 통 과
2. 4	신종 코로나 대응 의약전문가 연석회의	식 품 의 약 과
2. 11	방사광가속기 유치 용역 점검회의	한전공대지원단
2. 12	AIPH 현지실사 보고회	산 림 휴 양 과
2. 13	시도지사협의회 영상회의	정 책 기 획 관 실
2. 14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 책 기 획 관 실
2. 17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 수여식	총 무 과
2. 18	2021년 UCI 국제산악자전거 대회 유치업무협약	산 림 휴 양 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3. 2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문가 간담회	건강증진과
3. 4	대구·경북, 경증환자 치료지원 및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총무과
3. 10	호남권 대학총장,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지성명서 발표	한전공대지원단
3. 11	도민안심식당 지정·운영 행사	식품의약과
3. 11	시군의회의장회, 방사광가속기 전남 구축 서명서 전달	정책기획관
3. 12	사랑의 도시락 봉사현장 방문	여성정책관
3. 17	시장군수협의회, 방사광가속기 유치 서명부전달	자치행정과
3. 25	광주 · 전남 · 전북 공동건의문 발표	정책기획관실
3. 26	코로나19 대응 시도지사 협의회 임시총회	정책기획관
4. 2	사랑의 도시락 성과보고 및 생활수칙 실천 다짐의 날 기념식	여성정책관
4. 9	방사광가속기 호남권유치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한전공대지원단
4. 21	씨젠의료재단 저소득층 의료지원 업무협약	건강증진과
4. 22	호남권 상공회의소 방사광가속기 호남유치 지지성명	혁신경제과
4. 23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대정부 건의행사	한전지원단
4. 29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 수여식	총무과
5. 13	코로나19, 직원 성금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기탁	총무과
5. 13	고흥 유자 중국 수출 상차식	농업기술원
5. 13	한전공대 설립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한전지원단
5. 14	포스코 케미컬 준공식	투자유치과
5. 14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교례회	정책기획관
5. 15	옛 전남도청 현판 복원 제막식 및 5·18 기념행사	자치행정과
5. 15	시군의회 의장회 인재육성장학기금 기탁	인재육성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5. 18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자치행정과
5. 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정책기획관
5. 25	석 · 박사 도비 유학생 증서수여식	인재육성과
5. 26	의과대학 유치 공동협력 협약식	식품의약과
6. 4	국립난대수목원 투자협약식	산림휴양과
6. 5	시 · 군의회의장회 정기총회	정책기획관
6. 11	여수경도지구 관광단지 조성공사 착공식	투자유치과
6. 16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국회토론회	정책기획관
6. 17	e-모빌리티기업 투자협약 체결행사	신성장산업과
6. 22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	정책기획관
6. 23	여성농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이용 업무협약	농업정책과
6. 23	찾아가는 청년 소통 간담회	인구정책관
6. 24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 시상	총무과
6. 24	블루 이코노미 비전 포럼	정책기획관
6. 25	의과대학설립 민간 유치위원회 출범식	식품의약과
6. 25	전라남도 관광재단 출범식	관광과
6. 26	주민주도형 그린뉴딜 사업개발 업무협약	에너지신산업과
6. 29	전라남도 과학기술발전위원회 출범 행사	한전공대지원단
7. 2	GS리테일 농수축산물 유통 업무협약	수산유통가공과
7. 6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회 포럼	일자리정책과
7. 7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	기후생태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7. 14	여수 장도, 예술의 숲 조성 업무협약	산 림 보 전 과
7. 20	전남 고품질 10대 브랜드 쌀 시상	농 식 품 유 통 과
7. 21	소액금융지원사업 전남행복드림론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과
7. 22	K쇼핑-전남도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확대 업무협약	농 식 품 유 통 과
7. 23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예 산 담 당 관
7. 27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전달식	인 재 육 성 과
7. 28	부동산 특조법 관련 광주전남 법무사회 업무협약	토 지 관 리 과
7. 30	영화 한산·노량 업무협약	문 화 예 술 과
7. 31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출범	정 책 기 획 관
8. 3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온라인 수출 업무협약	국 제 협 력 관
8. 24	2026 세계 섬박람회 업무협약	섬 해 양 정 책 과
9. 4	지자체-대학 지역혁신 사업 간담회	연 구 바 이 오 과
9. 9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입장문 발표	정 책 기 획 관
9. 10	남도장터 매출 300억 조기달성 업무협약	농 식 품 유 통 과
9. 18	광양청년꿈터 개소식 및 소통간담회	인 구 정 책 관
9. 21	한전공대설립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간담회	한 전 지 원 단
9. 22	SK스토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업무협약	사 회 적 경 제 과
9. 24	전남 사회혁신 플랫폼 출범식	총 무 과
10. 5	코리아오픈 월드투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업무협약	스 포 츠 산 업 과
10. 6	전남도-서울시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업무협약	농 식 품 유 통 과
10. 7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기념식	문 화 자 원 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10. 8	2020 실패박람회 IN 전남	총무과
10. 19	여수·순천 10·19사건 72주년 합동위령제	자치행정과
10. 20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교육 백년대계 비전선포식	스포츠산업과
10. 22	「전남, 천년의 빛」 미디어파사드 점등식	총무과
10. 25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	총무과
10. 27	한일해협연안 시도지사 영상회의	국제협력관실
10. 28	전남과학기술발전위원회	바이오산업과
10. 31	남파랑길 개통 선포식	관광과
11. 4	블루투어 비전포럼	정책기획관
11. 9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정책과
11. 10	AI · ASF 차단방역 결의대회	동물방역과
11. 11	새천년 으뜸인재 한마당	인재육성과
11. 12	나주 국립숲체원 개원식	산림휴양과
11. 13	마한문화포럼 비전선포식	문화자원과
11. 14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큰잔치	여성정책관
11. 18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문화예술과
11. 19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 보고회	정책기획관
11. 20	무안 MRO산업단지 착공식	지역계획과
11. 30	관광의 날 기념식	관광과
12. 1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정책기획관
12. 8	전라남도 문화상 수여	문화예술과
12. 11	LNG 추진 외항선 명명식	혁신경제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12. 14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사회적경제과
12. 15	NS홈쇼핑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	농식품유통과
12. 18	2020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	산림휴양과
12. 21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민관협의체 발족행사	관광과
12. 22	일자리 · 투자유치 한마당 행사	일자리정책과
12. 23	전남개발공사 인재육성기금 기탁식	인재육성과

3-4. 2021년 주요 도정일지

<2021. 1. ~ 12.>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1. 1	신년맞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총무과
1. 12	코로나 극복 성금 전달식	노인복지과
1. 13	의료진 응원 꾸러미 전달식	건강증진과
1. 18	국립한국정원문화원 건립 관계기관 업무협약	산림휴양과
1. 19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교육과
1. 21	첨단의료복합단지 전남 유치 토론회	연구바이오과
2. 5	지역균형뉴딜투어	정책기획관
2. 8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및 착한소비자 선결제 캠페인 동참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과
2. 24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호남RE300	에너지신산업과
2. 26	2021 COP28 유치위원회 정기총회	COP28유치단
3. 1	제102주년 3.1절 기념행사	총무과
3. 3	2050 탄소중립선언 비전선포식	기후생태과
3. 5	목포스마일센터 개소식	법무담당관
3. 6	구례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사업 준공식	산림휴양과
3. 9	함평군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개소식	인구청년정책관
3. 10	어업지도선 취항식	수산자원과
3. 11	에너지밸리 강소특구 비전선포식	연구바이오과
3. 12	도민과의 대화(광양)	자치행정과
3. 15	전라남도 당정협의회	정책기획관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3. 17	도민과의 대화(무안)	자치행정과
3. 19	지도~임자 도로건설공사 준공식	도로교통과
3. 22	도립미술관 개관식	도립미술관
3. 24	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 협약 체결	토지관리과
3. 25	한국형 발사체 3차 연소시험	신성장산업과
3. 30	제1회 전라남도 과학기술발전위원회	연구바이오과
3. 31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투자협약식	투자유치과
4. 1	도민과의 대화(구례)	자치행정과
4. 6	도민과의 대화(목포)	자치행정과
4. 8	도민과의 대화(장흥)	자치행정과
4. 10	도-롯데백화점 업무협약 및 직거래장터	농식품유통과
4. 12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동시 발대식	농업정책과
4. 14	호남미래포럼	정책기획관
4. 21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정책토론회	자치행정과
4. 22	어촌뉴딜 만재항 준공식	섬해양정책과
4. 23	도,BGF리테일,농협전남 전남쌀 판로확대 협약	농식품유통과
5. 6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 업무협약	광양청
5. 12	전남-쿠팡-농협전남지역본부 업무협약 체결	농식품유통과
5. 17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식	자치행정과
5. 18	도-AT-11번가 온라인 판로확대 업무협약	농식품유통과
5. 24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인구청년정책관
5. 25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행사	자치행정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5. 26	포스코 리튬솔루션 착공식	투 자 유 치 과
5. 27	장성 동학농민혁명 승전기념식	여성가족정책관
5. 28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감 사 관
5. 31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공동체 RE300 용역보고회	에너지신산업과
6. 1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착공식	에 너 지 공 대
6. 4	덴마크 베스타스 투자협약 체결	해 상 풍 력 과
6. 7	마음건강 치유센터 설립 업무협약	식 품 의 약 과
6. 8	전남쌀 종자주권 독립선언	식 량 원 예 과
6. 14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정 책 기 획 관
6. 16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 구축 업무협약	에 너 지 공 대
6. 17	전라남도체육회 법정법인 출범식	스포츠산업과
6. 22	도민과의 대화(강진)	자 치 행 정 과
6. 30	덴마크 에스비에르시 우호교류협정 체결	국 제 협 력 관
7. 2	탄소중립특별위 간담회	기 후 생 태 과
7. 5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행사	자 치 행 정 과
7. 8	전라남도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의 회 사 무 처
7. 20	도-맥도날드 업무협약	농식품유통과
7. 26	천연물 산업발전 비전선포식	연 구 바 이 오 과
7. 27	전남사랑도민증 업무협약 및 1호 도민증 전달	자 치 행 정 과
7. 29	전남 일·생활균형 실천 선언식	여성가족정책관
7. 30	사회적경제 기업인 현장간담회 및 바이소셜 다짐식	사 회 적 경 제 과
8. 3	수소산업육성 업무협약	해 상 풍 력 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8. 5	전남 10대 고품질브랜드쌀 시상	농식품유통과
8. 11	대한건축사협회 인재육성장학금 기탁식	평생교육진흥원
8. 17	탈석탄동맹 서명식	기후생태과
8. 19	목포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	산림보전과
8. 20	해양폐기물 자원 재활용 업무협약	해운항만과
8. 23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농업정책과
8. 2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정책기획관
8. 27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결의대회	섬해양정책과
8. 30	흑산도 문화관광시설 개장식	문화예술과
8. 31	장애인체육선수 취업지원 업무협약	스포츠산업과
9. 1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식	수묵비엔날레
9. 2	전라남도 유망기업 보증기업 협약식	중소벤처기업과
9. 4	2021 명량대첩축제 출정식	관광과
9. 14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사회복지과
9. 17	광양제철 자동차강판 기가스틸 생산라인 준공식	기반산업과
9. 24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개막식	산림휴양과
9. 28	도민과의 대화(화순)	자치행정과
9. 29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기후생태과
9. 30	국가균형발전특위 출범식 및 간담회	정책기획관
10. 1	양성평등 기념식	여성가족정책관
10. 5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확대 업무협약	농식품유통과
10. 6	혁신조달 성과확산 조달청 업무협약	회계과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10. 7	목포 문학박람회 개막식	문 화 예 술 과
10. 8	한국섬진흥원 개원식	섬 해 양 정 책 과
10. 15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식 품 의 약 과
10. 16	순천만 잡월드 개관식	일 자 리 경 제 과
10. 19	여순사건 73주기 희생자 합동위령제	자 치 행 정 과
10. 21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신 성 장 산 업 과
10. 22	호남권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자 치 행 정 과
10. 26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마한 문화행사 개막식	문 화 자 원 과
10. 27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 기념식	문 화 자 원 과
10. 29	유럽마을 테마파크 조성 업무협약	기 업 도 시 담 당 관
11. 1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축 산 정 책 과
11. 2	건축가 마리오 보타 업무협약	문 화 예 술 과
11. 3	제92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사 회 복 지 과
11. 4	화순국제백신포럼	연구바이오산업과
11. 9	오라클데이터센터 투자협약식	신 성 장 산 업 과
11. 10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농 업 정 책 과
11. 15	여수광양 국가산단 동반성장 협의회	기 반 산 업 과
11. 16	도민과의 대화(여수)	자 치 행 정 과
11. 17	도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운영 업무협약	총 무 과
11. 18	도민과의 대화(영암)	자 치 행 정 과
11. 23	도민과의 대화(순천)	자 치 행 정 과
11. 25	으뜸전남 미래전략 도민보고회	정 책 기 획 관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11. 26	쌀전업농 전라남도 대회	식 량 원 예 과
11. 30	청년창농타운 개관식	농 업 기 술 원
12. 1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출범식	사 회 복 지 과
12. 2	RE100 사업밸트 구축 지방소멸 위기대응 토론회	기 업 도 시 담 당 관
12. 3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정 책 기 획 관
12. 8	초강력레이저 시설 추진위원회 발대식	에 너 지 공 대
12. 17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수출 유공기업 수출탑 전수	국 제 협 력 관
12. 21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격려방문	사 회 복 지 과
12. 23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	국 제 협 력 관
12. 29	광주·전남愛 사랑카드 사회공헌 성금 전달식	사 회 복 지 과

3-5. 2022년 주요 도정일지

<2022. 1. ~ 4.>

월일	행 사 내 용	주관부서
1. 1	신년맞이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총 무 과
1. 13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정 책 기 획 관
1. 21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출범식	여순사건지원단
1. 24	수소산업육성 업무협약(효성그룹)	해상풍력산업과
2. 8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업무협약(aT)	국 제 협 력 관
2. 9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출범식	여순사건지원단
2. 14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업무협약	인구청년정책관
2. 22	오시아노 관광단지 리조트호텔 착공식	관 광 과
2. 2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9차 총회	정 책 기 획 관
3. 2	한국에너지공대 입학식 및 비전선포식	에 너 지 공 대
3. 8	베스타스-CS윈드 합작투자사 설립협약	해상풍력산업과
3. 18	체육인재개발원 기공식	스포츠산업과
3. 24	전라남도 대학생 연합봉사단 발대식	도 민 소 통 실
3. 29	순천만정원박람회 수목원정원관리원 업무협약	산 림 휴 양 과
3. 30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착공식	기 후 생 태 과

4. 전라남도 행정구역 현황

(2021. 12. 31.현재, 개소)

구분 / 시군	읍·면·동				출 장 소			통·리		
	계	읍	면	동	계	도	시군	계	통	리
계	297	33	196	68	30	-	30	8,678	1,803	6,875
목포시	23	-	-	23	-			620	620	-
여수시	27	1	6	20	4		4	691	479	212
순천시	24	1	10	13	2		2	865	397	468
나주시	20	1	12	7	-		-	634	179	455
광양시	12	1	6	5	-		-	333	128	205
담양군	12	1	11	-	-		-	318	-	318
곡성군	11	1	10	-	-		-	273	-	273
구례군	8	1	7	-	-		-	155	-	155
고흥군	16	2	14	-	2		2	515	-	515
보성군	12	2	10	-	1		1	316	-	316
화순군	13	1	12	-	1		1	351	-	351
장흥군	10	3	7	-	-		-	281	-	281
강진군	11	1	10	-	-		-	293	-	293
해남군	14	1	13	-	-		-	515	-	515
영암군	11	2	9	-	1		1	403	-	403
무안군	9	3	6	-	1		1	427	-	427
함평군	9	1	8	-	-		-	273	-	273
영광군	11	3	8	-	1		1	292	-	292
장성군	11	1	10	-	-		-	292	-	292
완도군	12	3	9	-	2		2	246	-	246
진도군	7	1	6	-	2		2	242	-	242
신안군	14	2	12	-	13		13	343	-	343

5. 역대 도지사 명단

5-1. 정부수립 이전

구분	성명	재임기간 및 도정방침
지사대리	최 영 욱 (崔 泳 旭)	• 재임기간 : 1945. 12. 3. ~ 1946. 10. 15. • 도정방침 : -
1 대	서 민 호 (徐 珉 濠)	• 재임기간 : 1946. 10. 16. ~ 1947. 7. 14. • 도정방침 : -
2 대	박 건 원 (朴 乾 源)	• 재임기간 : 1947. 7. 15. ~ 1948. 10. 17. • 도정방침 : -

5-2. 정부수립 이후

구분	성명	재임기간 및 도정방침
초대	이 남 규 (李 南 圭)	• 재임기간 : 1948. 10. 18. ~ 1950. 4. 21. • 도정방침 :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 참신한 공무원상 정립
1대	박 철 수 (朴 哲 洙)	• 재임기간 : 1950. 5. 1. ~ 1951. 12. 16. • 도정방침 : 민심수습, 치안확보, 전후복구
3대	이 을 식 (李 乙 植)	• 재임기간 : 1951. 12. 17. ~ 1953. 11. 22. • 도정방침 : 민심안정, 민력배양, 인화단결
4대	추 규 영 (秋 圭 映)	• 재임기간 : 1953. 11. 23. ~ 1955. 2. 24. • 도정방침 : 농촌개발, 민생안정, 민심계도, 전력증강
5대	민 병 기 (閔 丙 祺)	• 재임기간 : 1955. 2. 25. ~ 1956. 9. 23. • 도정방침 : 아사자없애기, 양곡절약운동
6대	이 기 세 (李 琦 世)	• 재임기간 : 1956. 9. 24. ~ 1959. 5. 12. • 도정방침 : 본분엄수, 책임완수, 이도확립, 정실배제, 명령준수
7대	황 성 수 (黃 聖 秀)	• 재임기간 : 1959. 5. 13. ~ 1959. 8. 10. • 도정방침 : 경천애인, 자급자족, 반공민주, 과학문화산업증진

구분	성명	재임기간 및 도정방침
8 대	이 하 영 (李 夏 榮)	• 재임기간 : 1959. 8. 11. ~ 1960. 4. 30. • 도정방침 : 공무원은 동지적으로 단결하자, 반공태세를 확립하자, 직책완수에 최선을 다하자.
9 대	민 영 남 (閔 泳 南)	• 재임기간 : 1960. 5. 12. ~ 1960. 10. 6. • 도정방침 : 질서회복, 민심안정, 인사행정쇄신, 부정축재제거, 성실・공명・공정 지역경제발전
10대	최 의 남 (崔 義 南)	• 재임기간 : 1960. 10. 7. ~ 1960. 12. 30. • 도정방침 : -
11대	민 영 남 (閔 泳 南)	• 재임기간 : 1960. 12. 31. ~ 1961. 5. 23. • 도정방침 : -
12대	송 호 림 (宋 虎 林)	• 재임기간 : 1961. 5. 24. ~ 1963. 7. 22 • 도정방침 : -
13대	김 용 관 (金 容 寬)	• 재임기간 : 1963. 7. 23. ~ 1963. 12. 18 • 도정방침 : 행정의 합리화, 교육의 생활화, 산업의 과학화, 건설의 항구화, 사회의 명랑화
14대	신 용 우 (申 庸 雨)	• 재임기간 : 1963. 12. 19. ~ 1966. 1. 28. • 도정방침 : 인화단결, 질서확립, 직책완수
15대	김 보 현 (金 甫 炫)	• 재임기간 : 1966. 1. 29. ~ 1969. 10. 21. • 도정목표 : 새희망・새건설・새전남 • 도정방침 : 근면과 협조, 증산과 개발, 봉사와 질서
16대	김 재 식 (金 在 植)	• 재임기간 : 1969. 10. 25. ~ 1973. 9. 25. • 도정목표 : 식량증산으로 잘사는 전남건설 • 도정방침 : 새마을운동의 생활화, 식량증산의 극대화
17대	허 련 (許 鍊)	• 재임기간 : 1973. 9. 26. ~ 1975. 11. 12 • 도정목표 : 총화약진 • 도정방침 : 새마을사업, 치산치수, 소득증대, 농공병진, 식량증산
18대	고 건 (高 建)	• 재임기간 : 1975. 11. 13. ~ 1979. 1. 9. • 도정목표 : 새마을새전남 • 도정방침 : 깨끗하게 봉사한다, 새마을로 소득배가 한다, 지역특성을 개발한다, 서민생활을 보호한다, 도민총화로 향토를 지킨다.
19대	장 형 태 (張 炯 泰)	• 재임기간 : 1979. 1. 10. ~ 1980. 5. 27. • 도정목표 : 새의지로 새전남을 • 도정방침 : 신뢰로 총화구현, 의지로 소득증대, 창의로 지역개발, 질서로 명랑사회

구분	성명	재임기간 및 도정방침
20대	김 종 호 (金 宗 鎬)	• 재임기간 : 1980. 5. 28. ~ 1982. 1. 4. • 도정목표 : 400만의 화합 도약 새전남 • 도정방침 : 화합으로 사회안정, 의욕으로 지역개발, 근면으로 소득증대, 자율로 안녕질서
21대	김 창 식 (金 昶 植)	• 재임기간 : 1982. 1. 5. ~ 1984. 10. 9. • 도정목표 : 400만의 대화합 앞서가는 새전남 • 도정방침 : 도민단합과 신뢰풍토조성, 알찬증산과 소득증대, 복지증진과 균형개발, 행정쇄신과 의식개혁
22대	전 석 홍 (全 錫 洪)	• 재임기간 : 1984. 10. 10. ~ 1988. 2. 25. • 도정목표 : 400만의 대화합 풍요로운 선진전남 • 도정방침 : 화합안정의 정착, 봉사행정의 구현, 지역발전의 촉진, 문화예술의 진흥
23대	문 창 수 (文 昌 洙)	• 재임기간 : 1988. 2. 26. ~ 1988. 10. 3. • 도정목표 : 새시대 새전남 우리 힘으로 • 도정방침 : 인화도정을 이룩한다, 도민의 살림을 늘려간다, 지역을 고루 늘려간다, 남도문예를 꽃피운다
24대	송 언 종 (宋 彦 鍾)	• 재임기간 : 1988. 10. 4. ~ 1990. 6. 20 • 도정목표 : 살기좋은 새전남 건설 • 도정방침 : 민주행정의 실천, 자치역량의 배양, 소득수준의 향상, 지역개발의 촉진, 남도문예의 진흥
25대	최 인 기 (崔 仁 基)	• 재임기간 : 1990. 6. 21. ~ 1991. 2. 18. • 도정목표 : 300만의 애향자조 살기좋은 새전남 • 도정방침 : 농공의 진흥과 조화, 새도민 기풍의 진작, 민의행정의 구현, 조직 역량의 극대화
26대	백 형 조 (白 亨 祚)	• 재임기간 : 1991. 2. 19. ~ 1992. 4. 20. • 도정목표 : 300만의 애향자조 살기좋은 새전남 • 도정방침 : 지역안정의 정착, 새자치상의 구현, 풍요전남의 창조, 경민봉사의 실천
27대	이 효 계 (李 孝 桂)	• 재임기간 : 1992. 4. 21. ~ 1993. 3. 3 • 도정목표 : - • 도정방침 : 믿음있는 도정, 희망에 찬 도민, 정성으로 봉사
28대	이 균 범 (李 鈞 範)	• 재임기간 : 1993. 3. 4. ~ 1993. 12. 27. • 도정목표 : 300만이 한마음 희망찬 새전남 • 도정방침 : 깨끗한 도정, 건강한 사회, 잘사는 지역
29대	구 용 상 (具 龍 相)	• 재임기간 : 1993. 12. 28. ~ 1994. 9. 23. • 도정목표 : 대화합 큰전진 • 도정방침 : 화합하는 도민, 앞서가는 도정, 자립하는 농어촌, 활력있는 개발 전남

구분	성명	재임기간 및 도정방침
30대	조 규 하 (曺 圭 河)	• 재임기간 : 1994. 9. 24. ~ 1995. 6. 30. • 도정목표 : - • 도정방침 : 전남이미지 한차원 높이기, 전남경제 한아름 키우기
31대	허 경 만 (許 京 萬)	• 재임기간 : 1995. 7. 1. ~ 1998. 6. 30. • 도정목표 : 기회와 희망의 전남건설 • 도정방침 : 긍지높은 도민, 신뢰받는 행정, 균형있는 개발, 살기좋은 전남
32대	허 경 만 (許 京 萬)	• 재임기간 : 1998. 7. 1. ~ 2002. 6. 30. • 도정목표 :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 • 도정방침 : 도정개혁의 실천, 지역경제의 진흥, 균형개발의 촉진, 도민복지의 향상
33대	박 태 영 (朴 泰 榮)	• 재임기간 : 2002. 7. 1. ~ 2004. 4. 29. • 도정목표 :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실현 • 도정방침 : 농어촌경제의 활성화,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산업 진흥, 복지전남의 구현
34대	박 준 영 (朴 晙 瑩)	• 재임기간 : 2004. 6. 5. ~ 2006. 6. 30. • 도정목표 :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 도정방침 :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증대, 문화관광 진흥, 도민복지 향상
35대	박 준 영 (朴 晙 瑩)	• 재임기간 : 2006. 7. 1. ~ 2010. 6. 30 • 도정목표 :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 도정방침 : 권역별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 확충, 미래산업 육성, 도민복지 증진
36대	박 준 영 (朴 晙 瑩)	• 재임기간 : 2010. 7. 1. ~ 2014. 6. 30. • 도정목표 :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 도정방침 : 희망주는 일자리 창출, 살고싶은 농어촌 건설, 앞서가는 미래산업 육성, 찾고싶은 관광문화 진흥, 찾아가는 도민복지 실현
37대	이 낙 연 (李洛淵)	• 재임기간 : 2014. 7. 1. ~ 2017. 5. • 도정목표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 도정방침 : 활기있는 지역경제, 소득높은 농축어업, 매력있는 문화관광, 온정있는 도민복지, 소통하는 창의도정
38대	김 영 록 (金瑛錄)	• 재임기간 : 2018. 7. 1. ~ 2022. 6. 30. • 도정목표 :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 도정방침 : 활력있는 일자리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살고싶은 농산어촌, 감동주는 맞춤복지, 소통하는 혁신도정

6. 역대 도의회 의장단 명단

구분	기간	의 장 단
제1대	1952. 5. ~ 1956. 7.	· 의　장 : 김창선(金昌宣) · 부의장 : 차부진(車富鎭)
제2대	1956. 9. ~ 1960. 11.	· 의　장 : 정문갑(丁文甲), 정의식(鄭義植), 최의남(崔義男) · 부의장 : 김석진(金石辰), 박천재(朴千載), 김종성(金鍾盛) 윤인식(尹仁植), 이재홍(李在洪)
제3대	1960. 12. ~ 1961. 5.	· 의　장 : 차운영(車運永), 최월근(崔月近) · 부의장 : 최상배(崔相培)
제4대	1991. 7. ~ 1995. 6.	▸ 제1기 의장단 · 의　장 : 국창근(鞠瑲根) · 부의장 : 하대주(河大洲), 류지형(柳志炯) ▸ 제2기 의장단 · 의　장 : 국창근(鞠瑲根) · 부의장 : 배광언(裵光彦), 박희주(朴喜周)
제5대	1995. 7. ~ 1998. 6.	▸ 제1기 의장단 · 의　장 : 배광언(裵光彦) · 부의장 : 이석재(李碩在), 유동률(兪東律) ▸ 제2기 의장단 · 의　장 : 배광언(裵光彦) · 부의장 : 이상운(李相云), 박종호(朴鍾浩), 조보훈(趙寶勳)
제6대	1998. 7. ~ 2002. 6.	▸ 제1기 의장단 (1998. 7. ~ 2000. 6.) · 의　장 : 이완식(李完植) · 부의장 : 김동현(金東鉉), 최병순(崔炳順) ▸ 제2기 의장단 (2000. 7. ~ 2002. 6.) · 의　장 : 차봉근(車奉根) · 부의장 : 김종대(金鍾大), 허정인(許丁仁)

구분	기간	의 장 단
제7대	2002. 7. ~ 2006. 6.	▸ 제1기 의장단 (2002. 7.~ 2004. 6.) · 의 장 : 이윤석(李潤錫), 박병열(朴炳烈) · 부의장 : 박병열(朴炳烈), 김철신(金哲信), 안병태(安秉台) ▸ 제2기 의장단 (2004. 7.~ 2006. 6.) · 의 장 : 김철신(金哲信) · 부의장 : 강우원(姜宇遠), 이일형(李日炯)
제8대	2006. 7. ~ 2010. 6.	▸ 제1기 의장단 (2006. 7.~ 2008. 6.) · 의 장 : 김종철(金鍾喆) · 부의장 : 김창남(金昌南), 김재무(金在武) ▸ 제2기 의장단 (2008. 7.~ 2010. 6.) · 의 장 : 박인환(朴仁煥) · 부의장 : 홍이식(洪二植), 이호균(李鎬均)
제9대	2010. 7. ~ 2014. 6.	▸ 제1기 의장단(2010. 7. ~ 2012. 6.) · 의 장 : 이호균(李鎬均) · 부의장 : 송대수(宋大洙), 정환대(鄭煥大) ▸ 제2기 의장단(2012. 7. ~ 2014. 6.) · 의 장 : 김재무(金在武) · 부의장 : 임명규(任明圭), 송주호(宋柱浩)
제10대	2014. 7. ~ 2018. 6.	▸ 제1기 의장단(2014. 7 ~ 2016. 6) · 의 장 : 명현관(明炫官) · 부의장 : 윤시석(尹時錫), 장일(張逸) ▸ 제2기 의장단(2016. 7. ~ 2018. 6.) · 의 장 : 임명규(任明圭) · 부의장 : 권욱(權昱), 이장석(李長錫)
제11대	2018. 7. ~ 2022. 6.	▸ 제1기 의장단(2018. 7. ~ 2020. 6.) · 의 장 : 이용재(李勇宰) · 부의장 : 김한종(金漢宗), 이민준(李民畯) ▸ 제2기 의장단(2020. 7. ~ 2022. 6.) · 의 장 : 김한종(金漢宗) · 부의장 : 구복규(具福奎), 김성일(金聖日)

7. 제11대 도의원 명단

지역구	인원	명 단
계	58	
목 포 시	5	박문옥(목포 1), 조옥현(목포 2), 최선국(목포 3), 이혁제(목포 4), 전경선(목포 5)
여 수 시	6	이광일(여수 1), 강문성(여수 2), 민병대(여수 3), 최무경(여수 4), 최병용(여수 5), 강정희(여수 6)
순 천 시	6	한춘옥(순천 1), 임종기(순천 2), 서동욱(여수 3), 오하근(순천 4), 김정희(순천 5), 신민호(순천 6)
나 주 시	2	이민준(나주 1), 최명수(나주 2)
광 양 시	3	이용재(광양 1), 김태균(광양 2), 김길용(광양 3)
담 양 군	2	박종원(담양 1), 김기성(담양 2)
곡 성 군	1	이상철(곡성)
구 례 군	1	이현창(구례)
고 흥 군	2	박진권(고흥 1), 박선준(고흥 2)
보 성 군	2	임영수(보성 1), 이동현(보성 2)
화 순 군	2	문행주(화순 1), 구복규(화순 2)
장 흥 군	2	사순문(장흥 1), 곽태수(장흥 2)
강 진 군	2	차영수(강진 1), 김용호(강진 2)
해 남 군	2	김성일(해남 1), 조광영(해남 2)
영 암 군	2	우승희(영암 1), 이보라미(영암 2)
무 안 군	2	이혜자(무안 1), 나광국(무안 2)
함 평 군	1	임용수(함평)
영 광 군	2	장세일(영광 1), 이장석(영광 2)
장 성 군	2	유성수(장성 1), 김한종(장성 2)
완 도 군	2	이 철(완도 1), 신의준(완도 2)
진 도 군	1	김희동(진도)
신 안 군	2	김문수(신안 1), 정광호(신안 2)
비례대표	6	윤명희, 한근석, 정옥님, 김경자, 김복실, 최현주

8. 도 간부공무원 명단

□ 2018년 12월 말 기준

(직제 순)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본 청	도 지 사	지 방 정 무 직	김 영 록	
	행 정 부 지 사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병 호	
	정 무 부 지 사	지 방 관 리 관	윤 병 태	개방형
	비 서 실 장	지 방 서 기 관	소 영 호	
	국 제 관 계 대 사	지 방 별 정 직	박 호	
	대 변 인	지 방 서 기 관	최 형 열	
	도 민 소 통 실 장	지 방 서 기 관	김 재 성	개방형
	인 구 청 년 정 책 관	지 방 서 기 관	유 현 호	
	감 사 관	지 방 부 이 사 관	박 준 수	개방형
	청 렴 지 원 관	서 기 관	김 장 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지 방 서 기 관	허 강 숙	개방형
	국 제 협 력 관	지 방 서 기 관	선 경 일	개방형
	기 업 도 시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김 양 수	
	기 획 조 정 실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고 광 완	
	정 책 기 획 관	지 방 서 기 관	윤 진 호	
	예 산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고 영 진	
	법 무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박 화 현	
	스 마 트 정 보 담 당 관	지방기술서기관	문 형 석	
	도 민 안 전 실 장	지 방 이 사 관	주 동 식	
	안 전 정 책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임 현 근	
	사 회 재 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이 두 성	
	자 연 재 난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전 동 호	
	일 자 리 정 책 본 부 장	지 방 부 이 사 관	김 병 주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김 정 완	
	사 회 적 경 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소 상 원	
	투 자 유 치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환 주	
	경 제 에 너 지 국 장	지 방 부 이 사 관	김 신 남	
	혁 신 경 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정 병 선	
	신 성 장 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김 종 갑	
	중 소 벤 처 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박 종 필	
	에 너 지 신 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이 건 섭	
	관 광 문 화 체 육 국 장	지 방 부 이 사 관	김 명 원	
	관 광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우 육	
	문 화 예 술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정 석 호	
	문 화 자 원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명 섭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서 이 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본 청	보건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	문동식	
	사회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이장범	
	고령사회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윤연화	
	장애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손선미	
	건강증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강미정	
	식품의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영후	
	농축산식품국장	지방부이사관	전종화	
	농업정책과장	지방서기관	김종기	
	친환경농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홍석봉	
	농식품유통과장	지방서기관	최청산	
	축산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배윤환	
	동물방역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용보	
	해양수산국장	지방부이사관	양근석	
	해양항만과장	지방서기관	정상동	
	섬해양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심	
	수산자원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송원석	
	수산유통가공과장	서기관	양진문	
	건설교통국장	지방부이사관	김정선	
	건설도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희원	
	도로교통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남창규	
	건축개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태식	
	토지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병춘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최종선	
	행정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손점식	
	자치분권과장	지방서기관	박종열	
	희망인재육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성훈	
	세정과장	지방서기관	고병주	
	회계과장	지방서기관	이종희	
	소방본부장	소방감	이형철	
	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정	장경숙	
	방호예방과장	지방소방정	김호경	
	구조구급과장	지방소방정	박동하	
	119종합상황실장	지방소방정	박원국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도의회 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지방이사관	임영주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홍영민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박봉순	
	정책담당관	지방서기관	최우식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조옥현	개방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강형석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임윤섭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정광현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지방시설사무관	정원기	
	농림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정하용	
	교육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전만석	
	특별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고동석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성일	
	연구개발국장	농업연구관	박홍규	
	기술지원국장	농촌지도관	김봉환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고병수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강정화	
	식량작물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권오도	
	원예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손동모	
	차산업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이진우	
	과수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황인택	
	곤충잠업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철승	
	축산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정광욱	
	농촌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정찬수	
	기술보급과장	지방농촌지도관	김희열	
	농업교육과장	지방서기관	박석환	
	자원경영과장	지방농업연구관	조동호	
	종자관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용호	
도립대학교	도립대학교총장	총장	김대중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차주경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연구관	박종수	
	연구부장	지방보건연구관	최경철	
	동부지원장	지방환경연구관	하 훈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지방부이사관	이기춘	
	교육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정한권	
	교육운영과장	지방서기관	노관구	

구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동부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송경일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정현주	
	기후생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인수	
	물환경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옥진	
	산림보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봉진문	
	산림휴양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형호	
해양수산기술원	해양수산기술원장	지방부이사관	최연수	
	남부지부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일용	
	동부지부장	지방기술서기관	신영호	
	서부지부장	지방기술서기관	오광남	
사업소	산림자원연구소장	지방서기관	김진홍	
	동물위생시험소장	지방수의연구관	정지영	
	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임병율	
	농업박물관장	지방서기관	이종주	개방형
	서울협력본부장	지방서기관	최창주	개방형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지방서기관	윤영주	
	도립도서관장	지방서기관	배유례	
광양만권	청장	지방관리관	김갑섭	개방형
경제자유	행정개발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강효석	
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연식	개방형
	투자유치1부장	지방서기관	박재완	
	투자유치2부장	지방서기관	신연호	
	투자유치3부장	지방서기관	홍대승	개방형
	행정기획부장	지방서기관	심남식	
	개발부장	지방기술서기관	정현인	

□ 2019년 12월 말 기준

(직제 순)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본 청	도 지 사	지 방 정 무 직	김 영 록	
	행 정 부 지 사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병 호	
	정 무 부 지 사	지 방 관 리 관	윤 병 태	개방형
	비 서 실 장	지 방 서 기 관	김 경 호	
	국 제 관 계 대 사	지 방 별 정 직	박 호	
	대 변 인	지 방 서 기 관	최 병 만	
	도 민 행 복 소 통 실 장	지 방 서 기 관	김 재 성	개방형
	인 구 청 년 정 책 관	지 방 서 기 관	유 현 호	
	감 사 관	지 방 부 이 사 관	강 효 석	개방형
	청 렴 지 원 관	지 방 서 기 관	이 형 만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지 방 서 기 관	(공 석)	개방형
	여 성 정 책 지 원 관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유 미 자	
	국 제 협 력 관	지 방 서 기 관	선 경 일	개방형
	기 업 도 시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지 영 배	
	기 획 조 정 실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고 광 완	
	정 책 기 획 관	지 방 서 기 관	김 기 홍	
	예 산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강 상 구	
	법 무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배 동 진	
	스 마 트 정 보 담 당 관	지 방 기 술 서 기 관	문 형 석	
	도 민 안 전 실 장	지 방 부 이 사 관	임 채 영	
	안 전 정 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박 종 필	
	사 회 재 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임 춘 모	
	자 연 재 난 과 장	지 방 기 술 서 기 관	정 종 태	
	일 자 리 정 책 본 부 장	지 방 부 이 사 관	배 택 휴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김 차 진	
	사 회 적 경 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김 회 필	
	투 자 유 치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선 양 규	
	경 제 에 너 지 국 장	지 방 부 이 사 관	안 상 현	
	혁 신 경 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오 송 귀	
	신 성 장 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김 종 갑	
	중 소 벤 처 기 업 과 장	지 방 공 업 사 무 관	박 병 훈	
	에 너 지 신 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이 상 진	
	관 광 문 화 체 육 국 장	지 방 부 이 사 관	윤 진 호	
	관 광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김 명 신	
	문 화 예 술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정 명 섭	
	문 화 자 원 과 장	지 방 시 설 사 무 관	유 영 광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임 성 수	
	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조 영 식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본 청	보건복지국장	지방서기관	안병옥	
	사회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이장범	
	노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박환주	
	장애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손선미	
	건강증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강미정	
	식품의약과장	지방서기관	최병용	
	농축산식품국장	지방부이사관	서은수	
	농업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귀동	
	친환경농업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유동찬	
	식량원예과장	지방기술서기관	홍석봉	
	농식품유통과장	지방서기관	김영신	
	축산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배윤환	
	동물방역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용보	
	해양수산국장	지방부이사관	양근석	
	해운항만과장	지방서기관	박종열	
	섬해양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이상심	
	수산자원과장	지방기술서기관	황통성	
	수산유통가공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지방부이사관	전동호	
	지역계획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정현인	
	도로교통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상훈	
	건축개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태식	
	토지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애숙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정찬균	
	총무과장	지방서기관	고동석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임윤섭	
	희망인재육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고미경	
	세정과장	서기관	김장오	
	회계과장	지방서기관	박용일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지방서기관	최성진	
	한전공대설립지원담당관	지방서기관	신상식	
	소방본부장	소방감	마재윤	
	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정	하수철	
	대응예방과장	지방소방정	최형호	
	구조구급과장	지방소방정	김창수	
	소방감사담당관	지방소방정	박상진	
	소방교육과장	지방소방정	최병관	
	119종합상황실장	지방소방정	이달승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도의회 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지방이사관	최종선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한동희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유영춘	
	정책담당관	지방서기관	박화현	
	비서실장	지방서기관	이병용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조옥현	개방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정병선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심우천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강성운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지방기술서기관	한병선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남두식	
	교육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전만석	
	특별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방창성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성일	
	연구개발국장	농업연구관	박병준	
	기술지원국장	농촌지도관	김봉환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최청산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강정화	
	식량작물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김선곤	
	원예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이진우	
	차산업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손동모	
	과수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박문영	
	곤충잠업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호혁	
	축산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정광욱	
	농촌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정찬수	
	기술보급과장	지방농촌지도관	김희열	
	농업교육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철승	
	자원경영과장	지방농업연구관	서종분	
도립대학교	도립대학교총장	총장	김대중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이광동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연구관	박종수	
	보건연구부장	지방보건연구관	최경철	
	환경연구부장	지방환경연구관	이해훈	
	동부지원장	지방환경연구관	하 훈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지방부이사관	배유례	
	교육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정한권	
	교육운영과장	지방서기관	노관구	

구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동부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장	지방부이사관	박봉순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정현주	
	기후생태과장	지방공업사무관	이범우	
	물환경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옥진	
	환경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상호	
	산림보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봉진문	
	산림휴양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형호	
해양수산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장	지방기술서기관	오광남	
	남부지부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일용	
	동부지부장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박준택	
	서부지부장	지방기술서기관	신운용	
사업소	산림자원연구소장	지방녹지연구관	박화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지방수의연구관	정지영	
	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시설사무관	정권수	
	농업박물관장	지방서기관	이종주	개방형
	중앙협력본부장	지방서기관	최창주	개방형
	혁신도시지원단장	지방서기관	윤영주	
	도립도서관장	지방서기관	김영권	
	종자관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용호	
광양만권	청장	지방관리관	김갑섭	개방형
경제자유	행정개발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양수	
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연식	개방형
	투자유치1부장	지방서기관	김학송	
	투자유치2부장	지방서기관	김규웅	
	투자유치3부장	지방서기관	홍대승	개방형
	행정기획부장	지방서기관	황인섭	
	개발부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원기	

□ 2020년 12월 말 기준

(직제 순)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본 청	도 지 사	지 방 정 무 직	김 영 록	
	행 정 부 지 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송 상 락	
	정 무 부 지 사	지 방 별 정 1 급	윤 병 태	
	비 서 실 장	지 방 서 기 관	손 점 식	
	국 제 관 계 대 사	지 방 별 정 직	박 영 식	
	대 변 인	지 방 서 기 관	이 건 섭	
	도 민 소 통 실 장	지 방 서 기 관	김 재 성	개방형
	인 구 청 년 정 책 관	지 방 서 기 관	윤 연 화	
	감 사 관	지 방 부 이 사 관	강 효 석	개방형
	청 렴 지 원 관	지 방 서 기 관	이 형 만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지 방 서 기 관	김 종 분	개방형
	여 성 정 책 지 원 관	지 방 서 기 관	장 정 희	
	국 제 협 력 관	지 방 서 기 관	이 상 진	
	기 업 도 시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최 형 열	
	기 획 조 정 실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명 창 환	
	정 책 기 획 관	지 방 부 이 사 관	소 영 호	
	예 산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조 대 정	
	법 무 담 당 관	지방행정사무관	이 길 용	
	스 마 트 정 보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최 영 주	
	도 민 안 전 실 장	지 방 부 이 사 관	안 병 옥	
	안 전 정 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방 창 성	
	사 회 재 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김 광 춘	
	자 연 재 난 과 장	지방시설사무관	정 석 규	
	일 자 리 정 책 본 부 장	지 방 부 이 사 관	배 택 휴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김 차 진	
	사 회 적 경 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염 성 열	
	투 자 유 치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이 병 용	
	경 제 에 너 지 국 장	지 방 부 이 사 관	안 상 현	
	혁 신 경 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박 우 육	
	신 성 장 산 업 과 장	지방공업사무관	민 일 기	
	연구바이오산업과장	기 술 서 기 관	김 영 수	
	중 소 벤 처 기 업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박 병 훈	
	에 너 지 신 산 업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서 순 철	
	관 광 문 화 체 육 국 장	지 방 부 이 사 관	김 병 주	
	관 광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이 광 동	
	문 화 예 술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정 명 섭	
	문 화 자 원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유 영 광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유 영 후	
	전 국 체 전 기 획 단 장	지 방 서 기 관	(공 석)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본 청	보건복지국장	지방서기관	강영구	
	사회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임성수	
	노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박환주	
	장애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손선미	
	건강증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영두	
	식품의약과장	지방서기관	곽준길	
	농축산식품국장	지방부이사관	김경호	
	농업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하용	
	친환경농업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정희	
	식량원예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곽홍섭	
	농식품유통과장	지방서기관	강종철	
	축산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용보	
	해양수산국장	지방부이사관	위광환	
	해운항만과장	지방서기관	윤영주	
	섬해양정책과장	지방서기관	박용학	
	수산자원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최정기	
	수산유통가공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영조	
	건설교통국장	지방부이사관	전동호	
	지역계획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상훈	
	도로교통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철원	
	건축개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태식	
	토지관리과장	지방서기관	정애숙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정찬균	
	총무과장	지방서기관	정광현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임윤섭	
	희망인재육성과장	지방서기관	고미경	
	세정과장	서기관	위훈량	
	회계과장	지방서기관	박용일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지방서기관	지영배	
	한전공대설립지원담당관	지방서기관	김현철	
	소방본부장	소방감	마재윤	
	소방행정과장	소방정	윤강열	
	대응예방과장	소방정	박상래	
	구조구급과장	소방정	문병운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정	(공석)	
	소방교육과장	소방정	박의승	
	119종합상황실장	소방정	조제춘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도의회 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지방이사관	최종선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이춘봉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유영춘	
	정책담당관	지방서기관	장영식	
	비서실장	지방서기관	심우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조옥현	개방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정창모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최정운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소상원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지방시설사무관	임광건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권두표	
	교육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박영수	
	특별수석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정종석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홍재	
	연구개발국장	농업연구관	박병준	
	기술지원국장	농촌지도관	정찬수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최청산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권오도	
	식량작물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김선곤	
	원예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김동관	
	차산업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손동모	
	과수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조윤섭	
	곤충잠업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호혁	
	축산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전도현	
	농촌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김희열	
	기술보급과장	지방농촌지도관	김남균	
	농업교육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곽홍섭	
	자원경영과장	지방농업연구관	서종분	
도립대학교	도립대학교총장	총장	김대중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유영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연구관	박종수	
	보건연구부장	지방보건연구관	전두영	
	환경연구부장	지방환경연구관	박귀환	
	동부지원장	지방보건연구관	안양준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지방서기관	김선호	
	교육지원과장	지방서기관	배동진	
	교육운영과장	지방서기관	이장범	

구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동부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장	지방부이사관	박현식	
	운영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금하	
	기후생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범우	
	물환경과장	지방환경사무관	최재화	
	환경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상호	
	산림보전과장	지방녹지연구관	오득실	
	산림휴양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형호	
해양수산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장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박준택	
	남부지부장	지방기술서기관	황통성	
	동부지부장	지방해양수산연구관	이경식	
	서부지부장	지방기술서기관	신운용	
사업소	산림자원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재광	
	동물위생시험소장	지방수의연구관	정지영	
	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시설사무관	임오중	
	농업박물관장	지방서기관	임영호	개방형
	중앙협력본부장	지방서기관	장영근	개방형
	혁신도시지원단장	지방서기관	조영식	
	도립미술관장	지방서기관	이지호	개방형
	도립도서관장	지방서기관	정석호	
	종자관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용호	
광양만권	청장	지방관리관	김갑섭	개방형
경제자유	행정개발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최성진	
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지방부이사관	김연식	개방형
	투자유치1부장	지방서기관	김학송	
	투자유치2부장	지방서기관	고병주	
	투자유치3부장	지방서기관	홍대승	개방형
	행정기획부장	지방서기관	우정균	
	개발부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원기	

□ 2021년 12월 말 기준

(직제 순)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본 청	도 지 사	지 방 정 무 직	김 영 록	
	행 정 부 지 사	일반직고위공무원	문 금 주	
	정 무 부 지 사		(공석)	
	비 서 실 장	지 방 서 기 관	김 명 신	
	국 제 관 계 대 사	지 방 별 정 직	박 영 식	
	대 변 인	지 방 서 기 관	최 영 주	
	도 민 소 통 실 장	지 방 서 기 관	정 애 숙	
	인 구 청 년 정 책 관	지 방 서 기 관	윤 연 화	
	감 사 관	지 방 부 이 사 관	김 세 국	개방형
	청 렴 지 원 관	지 방 서 기 관	이 길 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지 방 서 기 관	김 종 분	개방형
	여 성 정 책 지 원 관	지 방 서 기 관	김 선 주	
	국 제 협 력 관	지 방 서 기 관	선 양 규	
	기 업 도 시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강 상 구	
	COP28유치추진단장	지 방 서 기 관	김 정 완	
	기 획 조 정 실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명 창 환	
	정 책 기 획 관	지 방 부 이 사 관	김 기 홍	
	예 산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조 대 정	
	법 무 담 당 관	지방행정사무관	김 미 순	
	스 마 트 정 보 담 당 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손 재 형	
	도 민 안 전 실 장	지 방 이 사 관	고 재 영	
	안 전 정 책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심 우 정	
	사 회 재 난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노 영 환	
	자 연 재 난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 운 형	
	일 자 리 경 제 본 부 장	지 방 부 이 사 관	이 건 섭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최 정 운	
	사 회 적 경 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장 정 희	
	중 소 벤 처 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소 상 원	
	투 자 유 치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이 병 용	
	전 략 산 업 국 장	지 방 부 이 사 관	주 순 선	
	기 반 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고 미 경	
	신 성 장 산 업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민 일 기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호 범	
	에 너 지 산 업 국 장	지 방 부 이 사 관	김 신 남	
	에 너 지 신 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김 정 섭	
	해 상 풍 력 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조 석 훈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상 용	
	관 광 문 화 체 육 국 장	지 방 부 이 사 관	김 영 신	
	관 광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유 미 자	
	문 화 예 술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조 영 식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본 청	문화자원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유영광	
	스포츠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평	
	전국체전기획단장	지방서기관	이형만	
	보건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	강영구	
	사회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우홍섭	
	노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손선미	
	장애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김학송	
	건강증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영두	
	감염병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진 미	
	식품의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영춘	
	농축산식품국장	지방부이사관	소영호	
	농업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손명도	
	친환경농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정희	
	식량원예과장	지방농업사무관	김 경	
	농식품유통과장	지방서기관	강하춘	
	축산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전도현	
	해양수산국장	지방기술서기관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지방서기관	강성운	
	섬해양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충남	
	수산자원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영채	
	수산유통가공과장	지방서기관	김형수	
	건설교통국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상훈	
	지역계획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철원	
	도로교통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윤수	
	건축개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영수	
	토지관리과장	지방서기관	임춘모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손점식	
	총무과장	지방서기관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김규웅	
	희망인재육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병철	
	세정과장	서기관	위훈량	
	회계과장	지방서기관	김성훈	
	소방본부장	소방감	마재윤	
	소방행정과장	소방정	이정현	
	대응예방과장	소방정	이중희	
	구조구급과장	소방정	김석운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정	박용주	
	소방교육과장	소방정	서승호	
	119종합상황실장	소방정	김광선	
	특수구조단장	소방정	문삼호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자치경찰	위 원 장	지 방 정 무 직	조만형	
위 원 회	사 무 국 장	지 방 정 무 직	백혜웅	
	자치경찰총괄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영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총 경	박종열	
도 의 회	의 회 사 무 처 장	지 방 이 사 관	최종선	
사 무 처	총 무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이춘봉	
	의 사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정상동	
	정 책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염성열	
	비 서 실 장	지 방 서 기 관	심우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조옥현	개방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오수미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임만규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지방시설사무관	송광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권두표	
	교육수석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이형래	
농 업	농 업 기 술 원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홍재	
기 술 원	연 구 개 발 국 장	농 업 연 구 관	권오도	
	기 술 지 원 국 장	농 촌 지 도 관	김남균	
	운 영 지 원 과 장	지 방 서 기 관	방창성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이진우	
	식량작물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김동관	
	원 예 연 구 소 장	지방농업연구관	김희곤	
	차 산 업 연 구 소 장	지방농업연구관	손동모	
	과 수 연 구 소 장	지방농업연구관	조윤섭	
	곤충잠업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영수	
	축 산 연 구 소 장	지방수의연구관	정지영	
	농 촌 지 원 과 장	지방농촌지도관	박용철	
	기 술 보 급 과 장	지방농촌지도관	박관수	
	농 업 교 육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유영후	
	자 원 경 영 과 장	지방농업연구관	김도익	
도 립	도립대학교총장	총 장	박병호	
대 학 교	사 무 국 장	지 방 서 기 관	박남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연구관	박종수	
보건환경	보 건 연 구 부 장	지방보건연구관	전두영	
연 구 원	환 경 연 구 부 장	지방환경연구관	박귀환	
	동 부 지 원 장	지방보건연구관	안양준	

구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지방부이사관	김선호	
	교육지원과장	지방서기관	홍재열	
	교육운영과장	지방서기관	유영수	
동부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서은수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이금하	
	기후생태과장	지방서기관	정광선	
	물환경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최재화	
	환경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상호	
	산림보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재광	
	산림휴양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형호	
해양수산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장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박준택	
	남부지부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원중	
	동부지부장	지방해양수산연구관	이경식	
	서부지부장	지방기술서기관	신운용	
사업소	산림자원연구소장	지방녹지연구관	오득실	
	동물위생시험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용보	
	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정국	
	농업박물관장	지방서기관	임영호	개방형
	중앙협력본부장	지방서기관	장영근	개방형
	혁신도시지원단장	지방서기관	김용덕	
	도립미술관장	지방서기관	이지호	개방형
	도립도서관장	지방서기관	김회필	
	종자관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용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지방관리관	송상락	개방형
	행정개발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위광환	
	투자유치본부장	지방부이사관	유현호	개방형
	투자유치1부장	지방서기관	정종석	
	투자유치2부장	지방서기관	이주현	
	투자유치3부장	지방서기관	홍대승	개방형
	행정기획부장	지방서기관	우정균	
	개발부장	지방기술서기관	유호규	

□ 2022년 4월 말 기준

(직제 순)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본 청	도 지 사	지 방 정 무 직	김 영 록	
	행 정 부 지 사	일반직고위공무원	문 금 주	
	정 무 부 지 사	지 방 관 리 관	박 창 환	개방형
	비 서 실 장	지 방 서 기 관	김 명 신	
	국 제 관 계 대 사	지방별정직4급상당	박 영 식	
	대 변 인	지 방 서 기 관	최 영 주	
	도민행복소통실장	지 방 서 기 관	정 애 숙	
	감 사 관	지 방 부 이 사 관	김 세 국	개방형
	청 렴 지 원 관	지 방 행 정 사 무 관	김 병 중	
	인 구 청 년 정 책 관	지 방 서 기 관	선 양 규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지 방 서 기 관	김 종 분	개방형
	여 성 정 책 지 원 관	지 방 행 정 사 무 관	나 은 주	
	국 제 협 력 관	지 방 서 기 관	신 현 곤	개방형
	여순사건지원단장	지 방 서 기 관	박 종 필	
	기 업 도 시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공 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황 기 연	
	정 책 기 획 관	지 방 부 이 사 관	김 종 기	
	예 산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정 현 구	
	법 무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김 미 순	
	스마트정보담당관	지방기술서기관	손 재 형	
	도 민 안 전 실 장	지 방 부 이 사 관	김 종 갑	
	안 전 정 책 과 장	지 방 행 정 사 무 관	심 우 정	
	사 회 재 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김 성 훈	
	자 연 재 난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 운 형	
	일자리경제본부장	지 방 부 이 사 관	이 건 섭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최 정 운	
	사 회 적 경 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장 정 희	
	중소벤처기업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차 진	
	투 자 유 치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이 귀 동	
	전 략 산 업 국 장	지 방 부 이 사 관	주 순 선	
	기 반 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고 미 경	
	신 성 장 산 업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민 일 기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호 범	
	에 너 지 산 업 국 장	지 방 부 이 사 관	김 신 남	
	에너지신산업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정 섭	
	해 상 풍 력 산 업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조 석 훈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상 용	
	관광문화체육국장	지 방 부 이 사 관	김 영 신	
	관 광 과 장	지 방 서 기 관	박 용 학	
	문 화 예 술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정 창 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본 청	문화자원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유영광	
	스포츠산업과장	지방서기관	김기평	
	전국체전기획단장	지방행정사무관	나영수	
	보건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	강영구	
	사회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우홍섭	
	노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손선미	
	장애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김학송	
	건강증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영두	
	감염병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진 미	
	식품의약과장	지방서기관	이영춘	
	농축산식품국장	지방부이사관	소영호	
	농업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서순철	
	친환경농업과장	지방농업사무관	주경천	
	식량원예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원진	
	농식품유통과장	지방서기관	강하춘	
	축산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전도현	
	해양수산국장	지방부이사관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지방서기관	김현철	
	섬해양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충남	
	수산자원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영채	
	수산유통가공과장	지방서기관	김형수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석남	
	건설교통국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상훈	
	지역계획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송광민	
	도로교통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윤수	
	건축개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정영수	
	토지관리과장	지방서기관	김현주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김기홍	
	총무과장	지방서기관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김규웅	
	희망인재육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재광	
	세정과장	서기관	위훈량	
	회계과장	지방서기관	이길용	
	고향사랑추진단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종우	
	소방본부장	소방감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소방정	이정현	
	대응예방과장	소방정	이관섭	
	구조구급과장	소방정	최기정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정	(공석)	
	소방교육과장	소방정	서승호	
	119종합상황실장	소방정	김용호	
	특수구조단장	소방정	문삼호	
도의회	사무처장	지방이사관	최종선	
사무처	총무담당관	지방서기관	이춘봉	
	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임춘모	
	정책담당관	지방서기관	조영식	
	홍보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황의철	
	의장비서실장	지방서기관	심우천	
	의회운영수석전분위원	지방서기관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오수미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임만규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지방기술서기관	임광건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권두표	
	교육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이형래	
농업	농업기술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홍재	
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농업연구관	권오도	
	기술지원국장	농촌지도관	김남균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방창성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이진우	
	식량작물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김동관	
	원예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김희곤	
	차산업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고숙주	
	과수연구소장	지방농업연구관	조윤섭	
	곤충잠업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정희	
	축산연구소장	지방수의연구관	정지영	
	농촌지원과장	지방농촌지도관	박용철	
	기술보급과장	지방농촌지도관	박관수	
	농업교육과장	지방서기관	유영후	
	자원경영과장	지방농업연구관	김도익	
도립	도립대학교총장	총장	박병호	
대학교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윤영주	
인재	인재개발원장	지방부이사관	정상동	
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방서기관	홍재열	
	교육운영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유영수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보건환경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보건연구관	전두영	
연 구 원	보 건 연 구 부 장	지방보건연구관	안양준	
	환 경 연 구 부 장	지방환경연구관	박귀환	
	동 부 지 원 장	지방환경연구관	안길원	
동부지역	동부지역본부장	지 방 부 이 사 관	서은수	
본 부	운 영 지 원 과 장	지 방 서 기 관	곽영호	
	기 후 생 태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정광선	
	물 환 경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최재화	
	환 경 관 리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상호	
	산 림 보 전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재광	
	산 림 휴 양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박형호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원장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박준택	
과 학 원	남 부 지 부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원중	
	동 부 지 부 장	지방해양수산연구관	이경식	
	서 부 지 부 장	지방기술서기관	신운용	
사 업 소	산림자원연구소장	지방녹지연구관	오득실	
	동물위생시험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용보	
	도로관리사업소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정국	
	농 업 박 물 관 장	지 방 서 기 관	임영호	개방형
	중앙협력본부장	지 방 서 기 관	장영근	개방형
	혁신도시지원단장	지방시설사무관	조병섭	
	도 립 도 서 관 장	지 방 서 기 관	김회필	
	종 자 관 리 소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 경	
	도 립 미 술 관 장	지 방 서 기 관	이지호	개방형
광양만권	청 장	지 방 관 리 관	송상락	개방형
경제자유	행정개발본부장	지 방 부 이 사 관	위광환	
구 역 청	투자유치본부장	지 방 부 이 사 관	유현호	개방형
	행 정 기 획 부 장	지 방 서 기 관	김종현	
	개 발 부 장	지방기술서기관	유호규	
	투 자 기 획 부 장	지 방 서 기 관	정종석	
	전 략 산 업 부 장	지 방 서 기 관	이주현	
	철 강 화 학 부 장	지 방 서 기 관	홍대승	개방형
자치경찰	위 원 장	지 방 정 무 직	조만형	
위 원 회	사 무 국 장	지 방 정 무 직	백혜웅	
	자치경찰총괄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영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총 경	박송희	